

# 허주집

## 玄洲集

下 1

조찬한 지음  
趙纘韓

# 허주집

## 玄洲集

下 1

조찬한 지음  
趙纘韓

聖顏色之賜。畜物徒知戀主。猶以寵  
廟謨之王和。以致畫工之逞詐。金多少  
何心。天咫尺而欺謾。孰不可忍。無面目  
自列於三千。有天鑑之孔昭。肆不憚其一  
意不如也。夫孰曰像惟肖乎。若果名實之

宜去留之失擇。况今安社之計。必在婦人  
平胡之功。不借英雄之手。雖百骸歸于土  
域中。知一死賢於生。亦不敢負陛下。當承  
辭於犬羊。苟利邦家。尚可行於蠻貊。第惟  
諒非馬兔之飾辭。若論妍蚩。當世之無  
威武比屋之壯士。不窮。盍孰取捨之兩  
一義。當時紫極。猶望袞龍之光。今日



9 791196 611309  
ISBN 979-11-966113-0-9

# 허주집

下

1

조찬한 지음  
趙纘韓

## 玄洲集

如薄命之賤質亦許待罪於下陳蛾  
 如望顏色之賜畜物徒知戀主猶以寵  
 廟謨之主和以致畫工之逞詐金多少  
 誠何心天咫尺而欺謾孰不可忍無面目  
 目列於三千有天鑑之孔昭肆不憚其一  
 言不如也夫孰曰像惟肖乎若果名實之

## 일러두기

1. 이 책의 번역 대본은 국립중앙도서관장본(도서번호 일산古3648-文72-17)이다.
2. 내용이 간단한 역주는 간주(間註)로, 긴 역주는 각주(脚註)로 처리하였다.
3. 한자는 필요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넣었으며, 운문(韻文)은 원문을 병기하였다.
4.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랐다.
5. 이 책에 사용한 부호는 다음과 같다.
  - ( ): 번역문과 음이 같은 한자를 묶는다.
  - [ ] : 번역문과 뜻이 같으나 음이 다른 한자를 묶는다.
  - “ ” : 대화 등의 인용문을 묶는다.
  - ‘ ’ : “ ” 안의 재인용 또는 강조 문구를 묶는다.
  -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 책명 및 각주의 전거(典據)를 묶는다.
  - 〈 〉 : 책의 편명 및 운문 산문의 제목을 묶는다.
  - : 원문의 결자 빈자리를 비워 둠을 나타낸다.

## 발간사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권 한국학 진흥과 민족문화 균형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출연한 학술기관입니다. 개원 1년의 성과를 상재합니다.

본원은 그동안 고문서 수집 집성, 근대 문집의 표점 영인, 고문서·일기·선현 문집 국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의 과제는 두 범주로 요약됩니다.

하나, 호남한국학 기초자료 발굴  
둘, 호남 사상·생활문헌 국역

이상의 연구사업은 서세동점 이후 구학(舊學)·구습(舊習)으로 폄하되었던 전통적 학술사조와 생활세계를 탈근대 차원에서 재구성한다는 목표 아래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난 위망과 극단의 세월에 덧씌워진 ‘소국 트라우마’ ‘문명콤플렉스’와 같은 문화심리의 질곡을 걷어내고자 합니다. 또한 호혜 공존의 생활지혜 나아가 법고창신(法古創新) 연구혁신(沿舊革新)의 사유 역정이야말로 당당한 새로운 미래 설계의 자양임을 웅변하고 싶습니다.

201년9 8월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이 종 범



## 목차

### 현주집 제10권

#### 조詔

- 승상 제갈량에게 어린 임금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은 조서 擬托孤丞相亮詔 13

#### 제制

- 은나라 고종이 부열에게 “너를 장맛비로 삼을 것이다”  
라는 명을 내린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은 제서  
擬殷高宗賜傳說用汝作霖雨制 17

- 죽부인을 봉하는 제서  
封竹夫人制 20

#### 표表

- 한나라 왕장이 선우에게 시집 보내지 말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은 표문 擬漢王嬙請勿嫁單于表 23

#### 계啓

- 관찰사에게 사서를 구해달라고 올리는 글  
上巡相求四書啓 29

남을 대신하여 관찰사에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개장에 필요한 물자를 청하는 글 代人上巡相乞改葬亡母之需啓	36
남을 대신해서 현감을 청하는 글 代人乞縣啓	48
장계부원군에게 올리는 글 上長溪啓 黃芝川	62
좌의정께서 의원을 보내 준 데 대해 사례하는 글 謝左台遣醫啓 尹昉	77

## 서序

구학정 서 龜鶴亭序	85
보만정 서 保晩亭序	94
공북루 서 拱北樓序	101
사모당 서 四慕堂序	105
석천정 서 石泉亭序	108
능허정 서 凌虛亭序	112
매학헌 서 梅鶴軒序	115
삼호정 서 三湖亭序	119
봉하루 서 鳳下樓序	124
청계당 서 聽溪堂序	128
회남 서 淮南序	132
김수재에게 주는 서 贈金秀才序	134
월사 상국 시판 후서 月沙相國詩板後序	157
일본으로 사신 가는 이상고를 보내는 서 送李尙古赴日本序 景稷	166

연경으로 가는 정랑 형을 보내는 서 送正郎兄赴燕京序	176
고급사 홍낙부에게 주는 서 贈告急使洪樂夫序	182
연경으로 떠나는 오숙우에게 주는 서 贈吳肅羽赴京序	185
연경으로 떠나는 진향사 홍경망에게 주는 서 送進香使洪景望赴京序	193
등극사 한중완을 보내는 서 贈登極使韓仲浣序	198
담양으로 가는 이동악을 보내는 서 送李東岳赴潭陽序	202
정중립을 보내는 서 送鄭中立序	207
죽음과 이별하며 준 서 贈別竹陰序	211
임무숙과 이별하며 준 서 贈別任茂叔序	218
무숙에게 다시 답하는 소서 再答茂叔小序	222
신좌랑을 애도하는 서 悼慎佐郎序	226
석주를 애도하는 서 哀石洲序	230
해승위에게 그림을 청하기 위해 급히 붓을 휘둘러 쓴 서 乞畫于海嵩尉走筆序 尹新之	234

### 상량문上梁文

신루상량문 蜃樓上梁文	237
회양향교상량문 淮陽鄉校上梁文	251
월암사우상량문 月巖祠宇上梁文	256
봉생정사상량문 鳳笙精舍上梁文	266



## 치어致語

- 주 목왕이 요지에서 서왕모와 연회를 펼친 전설을  
상정하여 지은 치어 擬周穆王瑤池王母宴致語 273
- 7월 7일에 직녀가 견우와 이별함을 상정하여  
지은 치어 擬七月七日 織女別牽牛致語 277
- 직녀가 장건과 이별함을 상정하여 지은 치어  
擬織女別張騫致語 280

## 첩帖

- 모도독께 보내는 영의정의 회첩  
毛都督前領議政回帖 283
- 모도독께 보내는 이상길의 헌첩 毛都督前李尙吉獻帖 285

## 교敎

- 충청감사 홍경신에게 내리는 교서  
教忠淸監司洪慶臣書 289
- 황해감사 윤환에게 내리는 교서  
教黃海監司尹暄書 295
- 밀양부사 원유남의 논공에 대해 내리는 교서  
教密陽府使元裕男論書 300
- 경흥 부사 민형에게 가자를 내리는 교서  
教慶興府使閔洞加資書 303
- 민여검에게 내리는 교서 教 閔汝儉書 306
- 정사공신 홍서봉에게 내리는 교서  
教靖社功臣洪瑞鳳書 309
- 정사공신 유순익에게 내리는 교서  
教靖社功臣柳舜翼書 312

영사공신 허적에게 내리는 교서  
教寧社功臣許書 315

**비담批答**

우의정이 세 번째 사직 상소를 올린 데 대해  
윤허하지 않는 비담 右議政三度呈辭不允答 320

**전箋**

관학에서 유생이 다섯 현인을 문묘에 종사하도록  
청한 일의 의전 擬館學儒生請以五賢從祀文廟箋 323

성상께 존호가 가상됨을 하례하는 전을  
대신 짓다 代賀上尊號箋 328

탄일을 하례하는 전을 대신 짓다 代賀誕日箋 330

등극을 하례하는 전을 대신 짓다 代賀登極箋 332

중전께 하례하는 전을 대신 짓다 代賀中殿箋 334

**현주집 제11권**

**제制**

한 고조가 한신을 대장군에 배수한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은 제서 擬漢高祖拜韓信爲大將制 339

**표表**

당나라 한림학사 무평일이 채화 한 가지를 더  
하사받은 데 사은한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은 표문  
擬唐翰林學士武平一謝加賜一枝綵花表 346

진나라 요복이 주천 태수에 배수된 데 사은한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은 표문 擬晉姚馥謝拜酒泉太守表 351

송나라 범질이 동평장사에 배수된 데 사은한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은 표문 擬宋范質謝拜同平章事表	353
진나라 조정의 백관들이 육국을 평정하고 천하가 안정된 일을 하례하는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은 표문 擬秦朝群臣賀平六國定天下表	358
송나라 한림학사 구양수 등이 당사를 진헌한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은 표문 擬宋翰林學士歐陽脩等進獻唐史表	367
<b>서序</b>	<b>377</b>
임경당에 대한 서문 臨鏡堂序	377
제월정에 대한 서문 霽月亭序	383
반구정에 대한 서문 伴鷗亭序	386
월파정에 대한 서문 月波亭序	389
구원을 뒤미쳐 보내는 서문 追送九峴序	391
학곡에게 주는 서문 贈鶴谷序	393
이자강을 보내는 서문 送李子剛序	397
이별하는 자리에서 오 종사관에게 급히 주는 서문 臨別走贈吳從事序	400
이 사서가 어떤 이의 혼례를 위해 옷을 청한 글에 답한 서문 答李司書爲人婚禮乞衣啓序	402
선달 그믐 밤에 붓을 끄적인 일에 대한 서문 除夜走筆序	405
<b>소 疏</b>	
설도인 화연을 대신하여 올리는 소 代薛道人化緣疏	407

## 전 箋

대비전에 존호를 올린 뒤 대전에 하례하는 전문  
大妃殿上尊號後大殿賀箋 411

정월 초하루에 백관이 하례하는 전문  
正朝百官賀箋 413

## 상량문 上梁文

김 첨지의 사우에 대한 상량문 金僉知祠宇上梁文 417

## 교 敎

완평부원군 이원익에게 궤장을 하사하는 교서  
完平府院君李元翼賜几杖敎書 425

## 첩 帖

모 도독이 책봉에 대해 치하한 것에 대해  
사례하는 글 謝毛都督致賀冊封 431

## 현주집 제12권

## 부 賦

적전부 藉田賦 437

강천사가 기자를 애도한 부에 차운하다  
次姜天使弔箕子賦 446

눈이 갠 뒤 누대에 올라 읊은 부에 차운하다  
次雪霽登樓韻賦 458

유풍악부 遊楓岳賦 464

<수양춘부>에 차운하다 次愁陽春賦 475

뇌부 雷賦	477
<b>사辭</b>	
기룡사 騎龍辭	479
거범사 擧颿辭	482
<b>칠七</b>	
일곱 가지 깨달음 七覺	483

현주집

제 10권

詔 宗

制 制

表 表

啓 啓

序 序

上 上

致 致

帖 帖

教 教

批 批

箋 箋



## 조 詔

### 승상 제갈량에게 어린 임금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은 조서<sup>1</sup>

擬托孤丞相亮詔

짐은 평소 난세를 평정하여 태평한 시대로 되돌릴 재주가 부족하였음에도 쇠퇴한 국세를 복구시킬 뜻만은 간절하였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으니 하수(河水)는 어느 때에나 맑아질 것이며,<sup>2</sup> 세월은 흘러가는 물과 같은데 창업은 오늘에 그치고 말았도다.

- 1 승상…조서 : 삼국시대 촉(蜀)의 선주(先主) 유비(劉備)는 관우(關羽)를 습격한 오(吳)의 손권(孫權)에 대한 정벌에 나섰지만, 오와의 접전에서 패하고 분노와 치욕으로 병상에 누었다가 장무(章武) 3년(223) 4월 영면하였다. 유비는 임종하기 전 후주(後主) 유선(劉禪)에게 유조(遺詔)를 남겼고 유영(劉永)에게는 자신이 죽은 뒤 유선과 함께 승상인 제갈량을 아버지처럼 섬기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비는 제갈량에게 어린 자식들을 보필하도록 당부하였는데, 이 글은 이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유비가 제갈량에게 후사를 부탁하는 내용으로 지은 것이다. 《三國志 卷32 蜀書 先主傳》
- 2 하수(河水)는…것이며 : 황하(黃河)의 물은 늘 혼탁하여 천 년에 한번 맑아진다고 한다. 후한(後漢) 환제(桓帝) 9년 여름 4월에 황하가 맑아지자 한나라의 경방(京房)은 《역전(易傳)》에서 “하수가 맑아지면 천하가 태평해진다.[河水清 天下平]”라고 하였다. 《後漢書 卷7 桓帝紀》《後漢書 卷60 下 襄楷列傳》



지난번 양손을 잃은 탓에<sup>3</sup> 어느 겨울에 상호 공생의 형세를 보장 하겠는가.<sup>4</sup> 사직의 안위가 이때에 달려 있으니 비록 자중하고자 하나, 도원(桃園)의 향불이 아직 식지 않았으니 혼자만 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노라.<sup>5</sup> 오직 성패는 하늘에 달려 있어 비록 백등(白登)의 다급함<sup>6</sup>은 면했다 하나,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니 창오(蒼梧)의 순행(巡幸)<sup>7</sup>을 되돌리지 말라.

- 
- 3 지난번…탓에 : 양손은 선주 유비와 의형제를 맺은 관우(關羽)와 장비(張飛)를 가리킨다. 관우는 형주(荊州)를 지키다가 조조(曹操)와 손권의 협공을 당하여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였다. 장비는 선주가 군대를 일으켜 오에 대해 원수를 갚으려 할 때 막하의 장수인 장달(張達)과 범강(范疆)에게 살해당하였다. 《三國志 卷36 蜀書 關羽傳·張飛傳》
- 4 어느…보장하겠는가 : 원문의 '唇齒'는 강성한 위(魏)에 대비하여 촉(蜀)과 오(吳)가 연합 전선을 펼친 사실을 가리킨다. 황초(黃初) 4년(223) 위 문제(魏文帝) 조비(曹丕)가 오를 정벌하려 했을 때 어사증승 포훈(鮑勛)이 간하기를 “황상의 군대가 누차 정벌하였으나 아직 승리를 얻지 못한 것은 대개 오와 촉은 입술과 이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로 의지하고, 산천의 험준함으로 막아서 함락시키기 어려운 형세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三國志 卷12 魏書 鮑勛傳》
- 5 도원(桃園)의…맹세하였노라 : 유비·관우·장비 세 사람이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고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위로는 나라의 은혜를 갚고 아래로는 백성을 안정시키고자 맹세한 것을 가리킨다. 이때 세 사람은 성(姓)이 다르고 태어난 일시도 다르지만 한날 한시에 죽기로 맹세하였다. 《三國志演義 1回 宴桃園豪傑三結義》
- 6 백등(白登)의 다급함 : 백등(白登)은 산명(山名)으로, 산서성(山西省) 대동현(大同縣) 동쪽에 있다.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 출정했다가 백등산에서 7일 동안 흉노의 30만 대군에게 포위당한 일이 있었다. 《史記 卷93 韓信列傳》 여기서는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오에 대한 정벌에 나섰다가 도리어 대패하고 물러난 사실을 가리킨다. 《三國志 卷32 蜀書 先主傳》
- 7 창오(蒼梧)의 순행(巡幸) : 창오(蒼梧)는 일명 구의산(九疑山)이라고 하는데, 옛날 순(舜) 임금의 남쪽으로 순행하였다가 창오의 들에서

이제 마지막 윤음(綸音)으로 나의 어진 보필에게 누를 끼치노니, 경(卿)은 이윤(伊尹)·여상(呂尙)<sup>8</sup>과 나란히 달린다 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관중(管仲)·악의(樂毅)<sup>9</sup>에 비교해 보아도 지나치게 겸허하다. 지금 천하가 세 나라로 정립(鼎立)하게 된 것은 누구의 힘이란 말인가. 온 나라를 통일시키는 그날도 반드시 올 것이다. 더구나 뒤를 이을 임금은 나이가 어리고 국가란 공공의 기물(器物)이다. 보필할 만하면 보필하는 것이지 부자의 사사로움이 끼어들기 어렵고, 어진 이에게 줄 만하면 어진 이에게 주는 것이지 군신의 의리에 구애되는는 안 된다. 오직 경의 재능이 저들에 비해 열 배나 되기에<sup>10</sup> 홀로 남은 어린 임금을 부탁하는 것이다. 아, 짐은 두 번 말하지 않을 것이니 그대도 다시 사양하지 말라. 이 옥궤(玉几)에 기대어<sup>11</sup> 고신(孤臣)을 어루만지며 울음을 삼

---

봉어했다고 한다. 여기서는 선주 자신의 죽음을 가리킨다. 《禮記 檀弓上》《史記 卷1 五帝本紀》

- 8 이윤(伊尹)·여상(呂尙) : 이윤은 은(殷) 나라의 명상(名相)이고 여상은 주(周) 나라의 명상이다.
- 9 관중(管仲)·악의(樂毅) : 관중은 춘추시대 제(齊) 나라의 명상(名相)이고, 악의는 전국시대 연(燕) 나라의 명장(名將)이다.
- 10 오직…되기에 : 유비가 임종할 때 제갈량에게 한 말이다. 원주(原註)에 “‘피’가 어떤 본에는 ‘비’로 된 것도 있다.[彼一作丕]”라고 하였듯이 조비(曹丕)를 가리킨다. 장무(章武) 3년(223) 봄 선주는 영안(永安)에서 병이 위독해졌고 성도(成都)에 있는 제갈량을 불러 후사를 부탁하며 “그대의 재능은 조비(曹丕)의 열 배나 되니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끝내 대사업을 이룩할 것이다. 만약 사자(嗣子)가 보좌할 만한 인물이라면 보좌하되, 혹여 재능이 없다면 그대가 나라를 취하도록 하라.” 하였다. 《三國志 卷35 蜀書 諸葛亮傳》
- 11 이 옥궤(玉几)에 기대어 : 옥궤는 옥으로 장식한 안석(案席)이다. 주 나라 성왕(成王)이 임종에 앞서 손과 얼굴을 씻고 면복(冕服)을 입은 뒤 옥궤에 기대어 군신을 소집하고 대명(大命)을 발하였다. 《書經 顧命》

키니, 저 백운(白雲)을 타고 고향제(高皇帝)<sup>12</sup>를 뵈올 때 무슨 말을 아뢰랴. - ‘저들[彼]은 어떤 본에는 비(丕)로 되어 있다-

---

12 고향제(高皇帝) : 전한(前漢) 초대의 천자인 고조(高祖)를 가리킨다. 유비는 전한 경제(景帝)의 아들인 중산정왕(中山靖王) 유승(劉勝)의 후예이다. 《三國志 卷32 蜀書 先主傳》

## 제制

은나라 고종이 부열에게 “너를 장맛비로 삼을 것이다”라는 명을 내린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은 제서<sup>13</sup>

擬殷高宗賜傅說用汝作霖雨制

나라에 현인(賢人)이 없다면 임금이 다스린다 해도 구제할 수가 없고, 한 해 농사에 흑여 가뭄이 든다면 작물의 싹이 돋으려 하다가도 반드시 말라 죽고 만다. 식물을 백성에 비유한다면 백성들은 그대를 비와 같이 여긴다. 그대의 뜻은 바위보다도 단단 하기에 몸소 부암(傅巖)에서 판축(版築)을 하면서 일생을 마칠 듯이 하였다. 그러나 몸은 비록 노역에 수고로웠지만 만일 자신을

---

13 은나라...제서(制書) : 은(殷) 나라 고종은 꿈에 성인(聖人)을 얻었는데, 백공(百工)을 시켜 이를 들에서 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부암(傅巖) 속에 숨어서 죄수들과 함께 무너진 길을 수축(修築)하고 있던 부열을 얻었다. 부열은 고종을 알현하고 재상이 되었고, 나라가 크게 다스려지자 고종은 명을 내려 부(傅)를 성으로 삼게 하였다. 《史記 卷3 殷本紀》 그리고 고종은 부열에게 명하여 선언(善言)을 올려 자신의 덕(德)을 보필하도록 하였는데, 물건에 가탁하여 말하기를 “만약 내 몸이 금철(金鐵)이라면 너를 사용하여 숫돌을 삼고, 만약 큰 내를 건넌다면 너를 사용하여 배와 노를 삼으며, 만약 해가 큰 가뭄이 든다면 너를 사용하여 장맛비로 삼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書經 說命上》

등용해 주는 기회가 온다면 마음에서 어찌 이 백성들을 잊을 수 있겠는가. 왕도(王道)를 장차 흥기시키려 함에 현인은 본디 모자라지 않는 법이니, 이 때문에 자리를 비워두고서 기다렸고 오래도록 임금 노릇의 즐거움이 없었노라. 길한 꿈은 어떠했던가, 옥(玉)같은 그 사람 눈에 선하였도다. 하물며 군자의 유택(遺澤)도 오세(五世)면 끊겨<sup>14</sup> 선조(先祖) 때 칠 년이나 이어진 한발보다 심한 경우임에랴.<sup>15</sup> 덕이 부족해 인재를 얻기 어려우니 의지할 만한 교목(喬木)과 세신(世臣)<sup>16</sup>이 없고, 땅은 타들어가고 물고기는 썩어가니 한 국가나 한 말의 물로는 적실 수 없는 형편이다. 곡식의 싹이 말라 죽는데 어느 풀인들 시들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군자와 백성<sup>17</sup>이 비의 은택을 그리워하고 서쪽 밭과 남쪽 이랑에서

- 
- 14 하물며…끊겨 : 《맹자》 이루하(離婁下)에 “군자의 유택도 오세면 끊기고, 소인의 유택도 오세면 끊긴다.[君子之澤 五世而斬 小人之澤 五世而斬]”고 하였다. 여기서 은 나라 시조 탕(湯) 임금의 유풍(流風)도 다하여 미미해진 시대를 말한다.
- 15 선조(先祖)…경우임에랴 : 탕 임금이 하(夏) 나라 걸(桀)을 정벌할 때 칠 년 동안이나 큰 가뭄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때 태사(太史)가 점을 쳐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자, 탕 임금은 “내가 기우제를 지냄은 백성을 위함인데, 만약 사람으로 제물을 삼는다면 내가 스스로 감당하리라.”라고 하였다. 《史略 卷1 殷王成湯》
- 16 교목(喬木)과 세신(世臣) : 여러 대에 걸쳐 중요한 벼슬을 지내며 나라와 운명을 같이한 신하를 말한다. 《맹자》 양혜왕하(梁惠王下)에 “이른바 고국(故國)이란 교목이 있음을 말한 것이 아니요, 세신이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17 군자와 백성 : 원문은 ‘君子細民’인데 군자는 위정자를 가리키고 세민은 백성을 가리킨다. 《맹자》 등문공하(滕文公下)에 산일된 《서경》을 인용하여 주 무왕의 은 나라 정벌을 묘사하며 “은 나라 군자들은 검은 비단과 황색 비단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와서 주 나라의 군자를 맞이하고, 은 나라 소인들은 그릇에 밥을 담고 병에 음료를 담아서 주 나라 소인들을 맞이하였다.”라고 하였다. 집주(集註)에서 “군

구름을 바라는 마음은 간절해져, 이에 재상으로 발탁하여 의심이 없으니 이미 마른 땅을 흠뻑 적셔 살리기를 기대하노라. 아, 성대하게 내리는 비를 누가 막으랴, 오직 그대는 단비가 되어 은택을 베풀라. 하늘에 나타난 용이 없으면<sup>18</sup> 만물은 무슨 수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진 보필을 얻었으니 사해(四海)가 거의 소생하게 되리라.

---

자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르고, 소인은 세민을 이른다.”고 하였다.

18 하늘에 나타난 용이 없으면 : 《주역》 건괘(乾卦)에 “나타난 용[見龍]이 밭에 있으니, 대인(大人)을 만나봄이 이롭다.”라고 하였다. 문언전(文言傳)에서는 만물이 서로 감응하는 예를 거론하며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라고 하였다. 용은 물 속에서 살고 구름은 수기(水氣)이므로, 용이 울면 구름이 일어난다고 하는 감응의 관념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의 용이 나타나 구름을 일으켜 비를 내리게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죽부인을 봉하는 제서

封竹夫人制

녹색이 웃웃이 되고 황색이 치마 된 것처럼<sup>19</sup> 오래도록 왕후의 바른 지위를 잃었으니, 단서(丹書)와 자고(紫誥)<sup>20</sup>로 어찌 작질을 주어 책봉하는 의식을 거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곧고 바른 자질을 기려 청사(靑史)에 길이 빛나게 하는 바이다.

그대는 위천(渭川)의 후예<sup>21</sup>로서 고죽(孤竹)의 풍모<sup>22</sup>를 지녔다.

- 
- 19 녹색이…것처럼 : 《시경》 패풍(邶風) 녹의(綠衣)는 위(衛) 나라 장공(莊公)이 정부인(正夫人)인 장강(莊姜)을 멀리하고 폐첩(嬖妾)을 총애함을 노래한 시인데, “녹색 웃이여 녹색이 웃웃이요 황색이 치마로다. 마음의 근심은 언제 잊을런가. [綠兮衣兮 綠衣黃裳 心之憂矣 曷維其亡]”라고 하였다. 녹색은 간색(間色)이고 황색은 정색(正色)인데, 상하가 전도된 것으로 본처인 장강은 소원하게 대하고 첩을 총애하는 상황을 비유하였다.
- 20 단서(丹書)와 자고(紫誥) : 단서는 조서(詔書)를 가리킨다. 제왕이 공신(功臣)에게 하사하는 문서를 붉은 글씨로 썼기 때문이다. 자고 역시 제왕의 조령(詔令)을 가리키는데, 옛날에 임금의 조서를 비단 주머니에 담아 붉은 진흙으로 봉했던 관습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 21 위천(渭川)의 후예 : 위천은 장안(長安) 북쪽에 있던 강 이름으로 위수(渭水)라고도 한다. 옛날부터 좋은 대나무의 산지로 유명하여 속담에 “제(齊) 나라와 노(魯) 나라에는 천 이랑의 뽕나무가 있고, 위천에는 천 이랑의 대나무 숲이 있으니, 이러한 토지를 소유한 자는 그 수입이 천호(千戶)의 봉읍(封邑)을 가진 제후와 맞먹는다.”라고 하였다. 《史記 卷129 貨殖列傳》
- 22 고죽(孤竹)의 풍모 : 고죽은 은대(殷代)의 나라 이름으로 백이(伯夷)·숙제(叔齊)의 출생지이다. 이곳에서 나는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었다고 전한다. 일설에 고죽은 홀로 자라는 대나무라고 하는데 청량한 소리가 난다고 전한다. 《文選 卷2 東京賦》《周禮 春官 大司樂》

굳고 곧은 지조는 얹으나 누우나 잇은 적이 없고, 맑고 고고한 절개는 어찌 마음과 정신을 상쾌하게 할 뿐이겠는가. 밖은 곧고 안은 통하여 있기에 몸은 견고하고 빛깔은 정갈하여, 좌우에 두면 비단 밍고 의지할 좋은 보필일 뿐만 아니라, 침상에 가까이 하면 찌는 더위가 단번에 쾌청해짐을 깨닫는다.

부녀자의 도리를 지켜 시기하는 마음을 끊었으니, 침실에 어린 맑은 향기 맡으며 몇 번이나 가을 찬바람이 일까 두려워 했고, 궁궐에 갇혀 화려한 돛자리에 누워 여름날이 언제까지고 이어지기를 원하였도다. 이 때문에 태치(泰時)<sup>23</sup> 곁의 재계하는 초막에서는 후궁을 곁에 두지 않고 그대를 곁에 두었고, 명당(明堂)에서 백관의 조회를 받을 때는 재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대를 의지하였다.

늙어가도록 서로 의지할 바는 오직 그대<sup>24</sup>뿐이고, 공적을 논하고 차례를 정할 때에도 부인으로서 포함되었다.<sup>25</sup> 그대는 말이 없지만 짐은 그대의 업적을 가상히 여겨, 이에 소군(少君)<sup>26</sup>에 버금가는 작위를 더하여 이부인(李夫人)<sup>27</sup>의 칭호와 똑같이 내리리라.

23 태치(泰時) : 고대에 천자가 천신(天神)인 태일(泰一)을 제사지내는 곳을 말한다. 《史記 卷12 孝武本紀》

24 그대 : 원문은 ‘此君’이다. ‘此君’은 대나무를 이르는 말로, 진(晉)의 왕휘지(王徽之)가 대나무를 가리키며, “하루도 차근없이 지낼 수 없다”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晉書 卷80 王徽之傳》

25 부인으로서 포함되었다 : 《논어》 태백편(泰伯篇)에 주(周) 나라 무왕(武王)에게 잘 다스리는 신하 열 사람이 있었다고 한 데 대해, 공자의 말에 “인재를 얻기 어렵다 한 말이 맞는 말 아니겠는가? 당우(唐虞)의 시절만이 주 나라보다 성하였다. 그런데도 열 사람 중에 부인이 들어 있으니, 남자는 아홉 사람일뿐이다.”라고 하였다. 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부인은 무왕(武王)의 어머니인 태사(太妣)를 가리킨다.

26 소군(少君) : 주대(周代) 제후의 아내에 대한 칭호이다.

27 이부인(李夫人) : 한(漢) 나라 때 이연년(李延年)의 누이동생으로, 아



아, 명호를 하사함에 아름다운 이름으로써 하지만, 임금의 옷은 데에도 옷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sup>28</sup> 이제 공을 이미 이루었으니 물러난다 해도 무슨 어려울 것이 있겠는가.<sup>29</sup> 내년 이날이 되거든 내가 또한 그대를 부르리라.

---

름다운 외모와 춤 실력으로 무제(武帝)에게 총애를 받았다.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창읍왕(昌邑王)으로 봉해졌다. 이른 나이에 일찍 죽어 무제가 황후의 예로써 장사지내고 감천궁(甘泉宮)에 화상을 그려서 걸어두고 그리워하였다. 《漢書 卷97 孝武李夫人傳》

- 28 임금이…것이다 : 전국시대 한(韓) 나라 소후(昭侯)의 고사를 차용한 말이다. 소후가 어느날 낚고 헤어진 하의(下衣)를 잘 보관하도록 명하니, 시자(侍子)가 이를 두고 아랫사람에게 하사하지 않고 보관하게 하는 것은 불인(不仁)한 처사라고 하였다. 그러자 소후가 말하기를 “현명한 군주는 한 번 찡그리는 것과 한 번 웃는 것까지도 아낀다고 한다. 찡그리는 데에는 찡그릴 만한 이유가 있고, 웃는 데에는 웃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낚은 바지를 신하에게 하사하는 데에도 그에 합당한 공적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죽부인에 대해 책봉 의식을 거행하는 데에도 그에 부합하는 이유가 있다는 의미로 쓰였다. 《韓非子 內儲說上》
- 29 이제…있겠는가 : 《노자》 9장에 “공적을 이루었으면 몸은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여름이 지나 죽부인의 용도가 다했음을 표현한 말이다.

## 표表

한나라 왕장이 선우에게 시집 보내지 말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은 표문<sup>30</sup>

擬漢王嬙請勿嫁單于表

천자께서 명을 내리셨으니 감히 만리의 여정을 지체시킬 수 있  
겠습니까마는, 필부(匹婦)로서 원통함을 품었으니 원컨대 한 말  
씀 올리고 죽고자 합니다. 어찌 장강(莊姜)이 해와 달에 하소연하

---

30 한(漢)…표문 : 왕장(王嬙)은 왕소군(王昭君)의 본명으로 소군은 자이다. 《한서》 흉노전(匈奴傳)에 의하면 기원전 33년 흉노와의 친화 정책을 위해 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에게 시집가서 영호알지(寧胡闕氏)로 불리며 아들을 낳았는데, 호한야가 죽자 정처(正妻)의 장자(長子)인 복주루선우(復株累單于)와 재혼하여 두 딸을 낳고 그 땅에서 죽었다고 하였다. 왕소군의 이야기는 후대에 윤색을 거쳐 다양한 장르의 문학적 소재가 되었다. 특히 《서경잡기(西京雜記)》에 기록된 바, 원제(元帝)의 후궁이 많아 화공(畫工)을 시켜 후궁의 얼굴을 그리게 하였는데, 왕소군은 화공인 모연수(毛延壽)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 일부러 못생기도록 그려 원제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다. 뒤에 흉노가 입조(入朝)하여 미녀(美女)를 구하자 왕소군을 시집보내기로 하였는데, 출발하는 날 왕소군을 소견해 보니 미모가 후궁 가운데 제일이라 원제가 이를 안타까워하고 모연수 등을 기시(棄市)하였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는 것이 서녀(庶女)가 하늘에 호소하는 것과 같겠습니까.<sup>31</sup>

삼가 생각하건대 성상(聖上)께서는 만방(萬方)을 신하국으로 다스리고 사방의 먼 곳까지 지배하시어, 온 나라의 홀아비·과부·고아 및 자식이 없는 자들까지도 각자 그 생을 영위하도록 하시니, 온 천하의 초목과 곤충도 또한 감동할 바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같이 운명이 기구한 비천한 몸도 비첩(婢妾)의 반열에서 모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고운 용모는 비록 남들에 뒤지지 않으나 감히 돌아보아 주시는 영광을 바라겠습니까. 개나 말

---

31 어찌…같겠습니까 : 장강(莊姜)은 위(衛) 나라 장공(莊公)의 정비(正妃)로 현숙하였지만 아들의 낳지 못하였다. 대규(戴嬀)의 아들 완(完)을 아들로 삼았는데, 장공에게는 폐인(嬖人)이 있어 아들 주우(州吁)를 두고 있었다. 장공이 죽고 주우는 후에 환공(桓公)인 완을 죽이고 스스로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가 우재 추(右宰醜)에게 살해되었다. 《시경》 패풍(邶風)의 〈녹의(綠衣)〉, 〈연연(燕燕)〉, 〈일월(日月)〉, 〈종풍(終風)〉은 장강의 처지를 노래한 일련의 시들인데, 그 가운데 〈일월〉은 주우의 난을 당해서 장강이 선군(先君)인 장공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 곤궁한 처지에 이른 심정을 해와 달에게 고하는 내용이라고 전한다. 또한 《회남자》 남명훈(覽冥訓)에 “서녀가 하늘에 호소하니 우레와 번개가 내리쳐 경공(景公)이 대궐에서 떨어져 팔다리가 부러지고 바닷물이 크게 범람하였다.”고 하였는데, 고유(高誘)의 주(注)에 “서녀는 제(齊) 나라의 과부로 자식이 없었는데 시어미를 공경히 섬겼다. 시어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은 제 어미의 재산을 탐내 어미로 하여금 머느리를 재가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과부가 끝내 거부하자 딸은 어미를 죽이고 과부를 무고하였다. 과부는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자 하늘에 호소하였다. 하늘이 이 때문에 벼락과 우레를 내려 경공의 대궐을 무너뜨리니 경공은 사지를 다쳤고 바닷물이 크게 범람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왕소군 자신의 하소연은 장강과 같이 해와 달에 고하되 은근히 임금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제 나라의 한 평민 여인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폭로하여 이변이 일어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처럼 한갓 주인을 따를 줄만 알았으니, 오히려 총애와 은택도 치우친 것이라 여겼습니다.

얼마 전 조정의 흉노에 대한 화친 정책으로 인하여 화공(畵工)이 간사한 짓을 자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뇌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곱고 추함이 나뉘었으니 이것은 참으로 무슨 심보란 말입니까. 지척에 있는 하늘을 두고도 거짓으로 속였으니 그 무슨 일든 차마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내세울 만한 용모가 없다면 어찌 삼천 궁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굽어보심이 매우 밝으니 이에 기탄 없이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그림은 실물만 같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런 그림이 실물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sup>32</sup> 과연 그림이 실상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아마도 보낼 사람을 선별하는 데 실수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 사직(社稷)을 안정시키는 계책이 필시 아녀자의 몸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예로부터 오랑캐를 토벌하는 공적은 영웅의 손을 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온 몸이 백골이 되어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오직 소첩의 소원은 이 나라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은 일인 줄은 알고 있지만, 또한 폐하의 지엄하신 명을 감히 저버릴 수 없습니다. 마땅히 성상의 뜻을 받들어 개와 염소 같은 자에게 시집가는 일도 사양할 바가 아니며, 실로 나라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오랑캐 땅이라 한들 떠나야 할 것

---

32 그…말입니까 : 은(殷) 나라 고종(高宗)이 꿈에 현인을 보았는데,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널리 천하에 구하였다. 그런데 부열(傅說)이 부암(傅巖)에서 판축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그림과 똑같았다고 전한다. 《書經 說命上》

입니다.

다만 사실대로 토로하며 슬피 하소연하는 것이지, 참으로 이를 모면코자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용모의 곱고 추함으로 논한다면 오늘날 추녀 무염(無鹽)과 같은 후궁이 한량없이 많고,<sup>33</sup> 용맹함과 장엄함으로 말하자면 집집마다 장사가 그지없이 많습니니다. 어이하여 취사선택의 두 극단을 결정하면서 어느 것이 무겁고 어느 것이 가벼운지 따지지 않는 것입니까.

당시에는 임금 계신 궁궐에서 그래도 멀리서나마 곤룡포의 광채를 바라볼 수 있었는데, 오늘의 저의 곱던 얼굴은 겨울날 굶주린 까마귀의 기색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로부터 관문과 황하를 떠난다면 바람 부는 사막의 길은 끝이 없고, 치렁치렁 옥을 찬 몸은 훗날 차가운 냇이 되어 월궁(月宮)으로 돌아갈 것입니다.<sup>34</sup> 조정에서의 묘책은 비록 좋은 수를 얻고자 하는 데서 나왔지만, 아녀자의 사사로운 마음에는 또한 가련한 원한이 있을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옛 명부를 다시 작성하고 새로운 윤음(綸音)을

---

33 용모의…많고 : 무염(無鹽)은 제(齊) 나라 선왕(宣王)의 정후(正后)인 종리춘(鍾離春)을 가리킨다. 무염읍(無鹽邑) 출신으로 덕은 있으나 용모가 추하여 흔히 추녀(醜女)를 이르는 말이다. 흉노의 선우가 미녀를 요구했을 때 원제는 일부로 그림 가운데 용모가 못한 왕소군의 초상화를 골라서 보내도록 했으므로, 실제 용모로 따지자면 자신보다 못하여 흉노에 보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34 치렁치렁…것입니다 : 원문의 ‘環佩’는 옛날 여성들이 허리에 드리우는 곡옥(曲玉)인데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난다. 두보(杜甫)가 왕소군을 노래한 〈영회고적(詠懷古跡)〉 제3수에서도 “봄바람 같은 그녀의 용모는 그림으로 천자에 알려졌는데, 그 냇은 달밤이면 패옥 울리며 부질없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네. [畫圖省識春風面 環佩空歸月夜魂]”라고 한 유사한 표현이 있다.

내리시어, 위세로 복종시키는 계책을 장대히 하시려거든 전투에 능한 장수를 뽑아야 할 것이고, 사위의 나라가 되고자 하는 청<sup>35</sup>을 따르시려거든 속히 보낼 만한 사람으로 보내소서. 그리하면 소첩의 분수는 총애 없이 빈 방을 지키는 것보다 나올 것이며 마음으로는 시들어 죽는다 해도 달게 여길 것입니다.

교만한 오랑캐가 스스로 소란을 그만두면 언제까지고 무기(戊己)의 군영<sup>36</sup>은 한가로울 것이며, 맺힌 원한이 화평을 맞이하면 폐하의 잠자리는 더욱 편안하실 것입니다.<sup>37</sup> 그렇게만 된다면 삼가 소첩의 눈썹에는 푸른 산빛이 돌아오고<sup>38</sup> 얼굴에는 화사한 봄 바람이 불어올 것이며, 꽃피는 황금 누각에서 폐하의 노래에 어

35 사위의…청 : 원제(元帝) 때 흉노의 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가 입조(入朝)하여 한 나라 여인의 얻어 사위가 되고자 하였다는 청을 말한다. 호한야선우의 형인 질지골도선우(郅支骨都單于)는 한 선제(漢宣帝) 때 독립하여, 원제에 반기를 들다가 서역 부교위(西域副校尉) 진탕(陳湯)의 공격을 받아 죽었다. 그의 아우인 호한야선우는 이에 한에 상서(上書)하여 화친을 맺기를 희망하였다. 《漢書 卷94 匈奴傳》

36 무기(戊己)의 군영 : 원제 때 설치하여 서역(西域)의 차사전부(車師前部)를 진무(鎮撫)하기 위한 군영으로 무기교위(戊己校尉)를 두었다. 《한서》 백관공경표(百官公卿表)에 대한 안사고(顔師古)의 주석에 따르면, 십간(十干)의 중앙에 해당하는 무기(戊己)는 정해진 방위가 없으므로, 일정한 치소(治所)가 없는 이 군영의 이름으로 삼았고, 무교위(戊校尉)와 기교위(己校尉)가 있었다고 한다. 일설에는 무기는 중앙에 위치하여 사방을 진무하므로, 서역의 중앙에 있으면서 여러 나라를 제어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37 폐하의…것입니다 : 원문은 ‘乙丙之枕’이다. 을야(乙夜)와 병야(丙夜) 사이의 시각을 말하는데, 임금이 정무를 마치고 책을 보거나 잠자리에 드는 때를 말한다.

38 소첩의…돌아오고 : 여인의 아름다운 눈썹을 비유한 말이다. 《서경잡기》 권2에 탁문군(卓文君)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눈썹은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하고 붉은 연꽃과 같다.”는 말이 있다.

올려 비파를 켤 수 없겠지만, 늦가을 비단 휘장 아래서 한궁(漢宮)의 악보에 맞춰 거문고를 끌어당겨 켤 것입니다.

## 계<sup>啓</sup>

### 관찰사에게 사서를 구해달라고 올리는 글

上巡相求四書啓

옛날의 배우는 자에게는 반드시 스승이 있었기에, 책 상자를 지고 찾아갈 생각이었으나 이제 그 책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감히 벽장에 보관하고 남은 책을 청하는 바이니, 구해서 얻을 수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삼가 생각건대 사서란 선비에게 있어, 비유하자면 사람에게 오곡(五穀)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인(聖人)이 지나는 곳은 교화되고 마음에 두고 있으면 신묘(神妙)해지는 공적<sup>39</sup>은 한 질의 《논어(論語)》에 기록되어 있고, 스승과 문도가 질 의하고 문답하였던 말들로는 일곱 편(篇)의 《맹자(孟子)》를 지었습니다. 밝은 덕(德)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곧 대인(大人)으로서 처음 배우는 것이요, 본성(本性)을 따르고 도(道)를 품절(品節)하는 것이 실로 중화(中和)의 지극한 공효(功效)입니

---

39 성인(聖人)이...공적 : 《맹자(孟子)》 진심상(盡心上)에 “군자는 지나는 곳에 교화가 되며, 마음에 두고 있으면 신묘해진다. 그러므로 상하가 천지와 더불어 함께 흐르니, 어찌 조그마한 보탬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다. 삼강(三綱)<sup>40</sup>이 이로 말미암아 밝혀지고 백세(百世) 후에 성인을 기다려도 의혹되지 않는 것이니, 도가 깃들어 있는 바는 바로 경문(經文)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읽으려 생각건대 지극히 어리석은 재주로써 천리(天理)를 깨우치는 학문에 어두웠으므로, 사람들은 말하기를 마복군(馬服君)의 아들처럼 그저 아버지의 병서(兵書)를 잘 읽었을 뿐이라고 하지만<sup>41</sup> 스스로는 용백고(龍伯高)의 어질을 본받아 오직 고니를 조각하려는 뜻을 품었습니다.<sup>42</sup>

읽어서 문필을 익힐 때 어찌 머리와 몸을 어지럽히고 괴롭게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마는, 어려서 익힌 것이 백발이 되어도 성

40 삼강(三綱) :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의 도리를 말한다.

41 사람들은…하지만 : 마복군은 전국 시대 조(趙) 나라 장수 조사(趙奢)의 봉호(封號)이다. 그 아들이 조괄(趙括)인데, 어려서 병법을 배워 용병술에 능하여 천하에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였다. 일찍이 그 아버지인 조사와 병법을 논할 때 조사는 그를 굴복시킬 수는 없었지만 속으로 수궁하지는 않았다. 후에 조괄이 염파(廉頗)를 대신해 장수가 되어 장평(長平)에서 진(秦) 나라 백기(白起)와 전투를 벌였으나 마침내 패해서 조 나라 군졸 수십 만 명이 생매장 당하였다. 조 나라의 명신인 인상여(蔣相如)는 일찍이 조괄에 대해 “그저 그 아버지가 전해 준 병서를 읽을 줄만 알았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줄은 모른다.”라고 하였다. 《史記 廉頗藺相如列傳》

42 스스로는…품었습니다 : 용백고는 후한(後漢) 시절 사람으로 본명은 용술(龍述)이다. 광무제(光武帝) 때 산도장(山都長)으로 있다가 마원(馬援)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뒤 황제에게도 알려져 영릉 태수(零陵太守)에 발탁되었다. 마원은 엄돈(嚴敦)이라는 조카에게 보낸 편지에서 “용백고는 돈후하고 신중하여 법도에 맞지 않는 말을 하지 않고, 겸손하고 검약하며 청렴하고 공정하여 위기가 있으므로 내가 그를 아끼고 중하게 여긴다. 바라건대 너희는 그를 본받으라. 용백고를 본받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여도 스스로 삼가고 경계하는 선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고니를 조각하다가 완성하지 못해도 오리를 닮게 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하였다. 《後漢書 馬援傳》

취가 없다면 끝내 담장을 마주 보고 서는 것처럼 앞뒤를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학문을 하지 않으면 초목이 영락하듯이 그 몸도 시들어 버릴 것이지만, 뜻이 있는 사람은 마침내 성취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동쪽 오랑캐가 재차 서쪽으로 침입하였을 때 남녘의 우리 군대가 세 번이나 패배를 겪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저 부모와 처자의 피가 아직도 길을 적시고 있고,<sup>43</sup> 시서(詩書)와 예악(禮樂)의 경전은 잿더미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3만 축(軸)이나 서가에 꽂혀 있던 업후(鄴侯) 집안의 소장은 자취를 감추었고,<sup>44</sup> 수천 권의 하사받은 책은 선화리(善化里)의 집에서 불타버렸습니다.<sup>45</sup>

후학이 어디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배들은 그저 예전에 들었던 것을 고수할 뿐입니다. 아홉 길 학문의 산은 이루기 어렵고,<sup>46</sup> 삼여(三餘)에 이웃집 벽을 뚫어 불빛 빌려 글 읽는

43 그리하여…있고 : 조찬한(趙繼韓)의 처 유씨(柳氏)는 정유년(1597)의 왜란에 적병을 만나 스스로 목을 찔러 순절하였다. 《玄洲集 卷15 玄洲趙公墓碣銘》

44 3만…감추었고 : 업후는 3만 권의 책을 소장하였다는 당 나라 이필(李泌)이다. 한유(韓愈)의 시 〈송제갈각왕수주독서(送諸葛覺往隨州讀書)〉에 “업후의 집에는 장서가 자못 많아, 서가에는 3만 축의 책이 꽂혀 있다네.[鄴侯家多書 架插三萬軸]”라고 하였다.

45 수천…불타버렸습니다 : 선화리는 당 나라 장안의 지명으로, 유종원(柳宗元)이 영주(永州)로 유배가기 전에 살던 곳이다. 유종원의 편지 〈기허경조맹용서(寄許京兆孟容書)〉에 “저의 집에는 천자로부터 하사 받은 서적 3천 권이 있어, 이를 선화리의 옛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집은 이제 이미 세 번이나 주인이 바뀌어 책이 남아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家有賜書三千卷 尚在善和里舊宅 宅今已三易主 書存亡不可知]”라고 하였다.

46 아홉…어렵고 : 작은 언덕은 산처럼 높고자 하여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으로 학문 성취의 어려움을 비유한다. 《서경(書經)》 여오(旅獒)에

것마저 저버렸습니다.<sup>47</sup> 옛 것을 좋아하나 늦게 태어난 것이 한스럽고, 다시는 중국의 성인을 꿈에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sup>48</sup> 책을 빌리면 항상 되돌려 주는 것이 늦었기에,<sup>49</sup> 자주 북방의 학자들<sup>50</sup>

- 
- “아홉 길의 산을 만드는데 공이 한 삼태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爲山九仞 功虧一簣]”라고 하였고, 《법인(法言)》 학행(學行)에 “모든 강은 바다를 배워 쉬지 않으므로 바다에 도달하지만, 작은 언덕은 높은 산을 배우고자 하나 정지해 있으므로 산이 되지 못한다.[百川學海而至于海 丘陵學山不至于山]”라고 하였다.
- 47 삼여(三餘)에…저버렸습니다 : 삼여는 학문을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여가로, 겨울과 밤과 비오는 날을 가리킨다. 도연명의 《감사불우부(感士不遇賦)》에 “나는 일찍이 세 가지 여유가 있는 날과 강습하는 여가에 글을 읽었다.[余嘗以三餘之日 講習之暇 讀其文]”라고 하였다. 또 한(漢) 나라 때 광형(匡衡)은 학문에 근면하였으나 촛불이 없었으므로, 벽을 뚫어 이웃집의 불빛을 끌어다 책을 읽었다고 한다. 《西京雜記 卷2》
- 48 다시는…되었습니다 : ‘중국의 성인’은 주공(周公)을 가리킨다. 《논어》 술이(述而)에 “심하도다, 나의 쇠함이여. 오래되었다, 내 다시는 꿈속에서 주공을 뵈지 못하였다.[甚矣吾衰也 久矣吾不復夢見周公]”라고 하였다. 또 주나라 성왕(成王) 때에 주공이 섭정하여 천하가 태평해지자, 월상씨(越裳氏)가 와서 주공에게 ‘흰 꿩[白雉]’을 바치며 “우리나라 노인들이 말하기를 ‘하늘에 풍우가 거세지 않고 바다에 해일이 일지 않은 지 지금 3년이 되었다. 아마도 중국에 성인이 계신 듯한데, 어찌하여 가서 조회하지 않는가.[天之不迅風疾雨也 海不波溢也 三年於茲矣 意者中國殆有聖人 盍往朝之]’”라고 하기에 조공을 바치려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後漢書 卷86 南蠻列傳》
- 49 책을…늦었기에 : 장적(張籍)의 《수한서자(酬韓庶子)》에 “절을 찾아 홀로 멀리까지 가고, 책을 빌려 언제나 늦게 돌려 주네.[尋寺獨行遠 借書常送遲]”라고 하였다.
- 50 북방의 학자들 : 초(楚) 나라 등의 남방의 학문에 대비해 주공(周公)과 공자(孔子)의 학문을 배우는 북방의 학문을 가리킨다. 《맹자》 등문공상(滕文公上)에 “진량은 초나라 태생이니, 주공·중니의 도를 좋아하여 북쪽으로 중국에 가서 공부하니 북방의 학자들이라도 그보다 앞선 자가 없었다.[陳良楚產也 悅周公仲尼之道 北學於中國 北方之

에게 노여움을 샀습니다.

다행히 성현의 경전을 큰 고을에서 간행하였으니, 진정 유학에 뜻이 있다면 경전을 버리고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 배우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열 번만에 잘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천 번에 능할 수 있겠습니까, 서책은 많지만 구하기 어려운 것은 네 권의 책<sup>51</sup>입니다. 집안은 가난한데다 학문도 풍부하지 못하고, 종이는 귀하여 책값은 더욱 높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서라는 것은 모두 실제로 소용되는 학문이니, 또한 마땅히 공공으로 널리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관찰사께서는 옛 성현을 계승하고 후학을 열어 주려는 마음으로, 풍속을 살펴 보는 책임을 맡고 계시니, 주공(周公)과 공자(孔子)의 심정과 사상이 담긴 유편(遺篇)을 편찬하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옛 성현의 행적과 말씀으로 후학을 권면하되 행여 미치지 못할 듯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의 도는 이에 힘입어 빛나고 우리 선비들은 성대히 일어날 것이니, 하양(河陽) 군막의 참모로 온 처사(濫處士)를 불러 들이고<sup>52</sup> 형상(衡湘) 이남의 경술은 유 선생(柳先生)을 스승으로 모셔야 할 것

---

學者 未聞或之先也]”라고 하였다.

51 네 권의 책 : 사서(四書)를 가리킨다.

52 하양(河陽)…들리고 : 하양의 군막은 당(唐) 나라 때 하양절도사(河陽節度使)를 맡고 있던 오중윤(烏重胤)을 가리킨다. 온 처사는 이름이 온조(溫造)로, 오중윤의 참모로 기용되었다. 한유(韓愈)의 〈하양군 참모로 떠나가는 온 처사를 보내는 글[送濫處士赴河陽軍序]〉에 “대부 오공이 한 번 하양을 진무하기에 이르자 동도에 은거하는 처사들의 집에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大夫烏公一鎮河陽 而東都處士之廬無人焉]”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관찰사가 인재들을 불러 모았다는 뜻으로 쓰였다.

입니다.<sup>53</sup> 이는 귀의할 바를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감히 기어코 얻고야 말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빈한한 선비는 하소연할 곳이 없고 성현의 서적은 사사로운 물건이 아니라고 여기시어, 상자에 가득한 서책을 보내 주어 이렇듯 간절한 바람을 채워 주소서. 그리하여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성취를 바라신다면, 옛 서적으로 쓸모없는 선비를 바꾸는 일이 비록 오늘날엔 도움이 없을 지라도, 사서를 읽음으로써 선비 하나를 얻게 될 것이니 혹여 훗날 좋은 기약이 있을 것입니다. 맹상군(孟嘗君)은 식객 3천 가운데 닭울음을 흉내 내는 사람까지 거두었기에 날이 밝기 전에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sup>54</sup> 곽외(郭隗)는 죽은 천리마의 뼈를 500금을 주고 사왔기에 한 해가 지나기도 전에 살아 있는 천리마가 찾아오기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sup>55</sup> 삼가 당연히 빈손으로 갔다가 채워

---

53 형상(衡湘)…것입니다 : 형상은 중국 호남성(湖南省)의 형산(衡山)과 상수(湘水)를 아울러 말하는데, 유종원(柳宗元)이 일찍이 이곳에서 유주 자사(柳州刺史)를 지냈다. 한유의 <유자후묘지명(柳子厚墓志銘)>에 “형상(衡湘) 남쪽에서 진사가 된 자들은 모두 자후를 스승으로 섬겼는데, 자후가 입으로 강론하고 손가락으로 써가며 직접 가르침을 준 것을 받아 문장을 지은 것은 모두 불만한 법도가 있었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또한 관찰사의 경학을 모두 스승으로 삼아야함을 말한다.

54 맹상군(孟嘗君)은…있었고 : 제(齊) 나라의 맹상군이 진(秦) 나라 소왕(昭王)에게 죽게 되었을 때 식객 가운데 닭 울음소리와 개의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어 맹상군을 구했다고 한다. 《史記 卷75 孟嘗君列傳》

55 곽외(郭隗)는…있었습니다 : 연(燕) 나라 소왕(昭王)이 곽외(郭隗)에게 인재를 추천하게 하자, 곽외는 옛날 어떤 임금에 천리마를 구하고자 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그 임금은 내관에게 1천금을 주어 천리마를 구해 오도록 하였는데, 말이 이미 죽고 없으므로 500금을 주

서 돌아오는 기쁨이 있을 뿐,<sup>56</sup> 홀로 배워서 고루하다거나<sup>57</sup> 어린 나이에 고향을 잃은 사람처럼<sup>58</sup> 돌아갈 데가 없다는 탄식은 없을 것입니다.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학업을 성취하더라도 비록 새까맣던 얼굴의 부끄러움은 씻지 못하겠지만,<sup>59</sup> 신발을 공손

고 천리마의 뼈를 사서 돌아오자, 그 임금은 크게 노하였다. 그러자 내관은 죽은 말의 뼈도 사들였다는 소문이 퍼지면, 살아 있는 말은 머지않아 이를 것이라고 하였다. 그 뒤 1년이 되지 않아 천리마가 3마리나 왔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마친 관외는 소왕에게 인재를 오게 하려면 자신부터 등용할 것을 청하였다. 《戰國策 卷29 燕策1》

56 삼가…뿐 : 아는 것이 없이 갔다가 학문을 얻어서 돌아온다는 뜻이다. 《장자(莊子)》 덕충부(德充符)에 노(魯) 나라의 절름발이 왕태(王骀)에 대해 상계(常季)가 공자에게 묻는 말에 “왕태는 서서 제자를 가르치지도 않고 앉아서 제자와 의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없이 가서 반드시 무언가를 얻어서 돌아옵니다. [立不教 坐不議 虛而往 實而歸]”라고 하였다.

57 홀로…고루하다거나 : 스승이나 벗과 배운 것을 토론하지 않으면 완고하고 편협해진다는 뜻이다. 《예기(禮記)》 학기(學記)에 “홀로 배우되 벗이 없으면 고루하고 편협해진다. [獨學而無友 則孤陋而寡聞]”라고 하였다.

58 어린…사람처럼 : 원문은 ‘弱喪’이다. 약상은 《장자》 제물론(齊物論)에 나오는 말인데, 성현영(成玄英)의 소(疏)에 “어린 나이에 난리를 만나 고향을 잃고, 마침내 타향에 정착하여 돌아갈 줄 모르는 것을 이른다. [謂少年遭亂 喪失桑梓 遂安他土而不知歸]”라고 하였다. 여기서 학문의 근본으로 돌아갈 줄 모른다는 뜻으로 쓰였다.

59 송곳으로…못하겠지만 : 《전국책(戰國策)》 진책(秦策)에 “전국 시대 위(魏) 나라 소진(蘇秦)은 진(秦) 혜문왕(惠文王)에게 열 차례나 글을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은 담비의 털옷도 해지고 황금 백근도 다하자 밀천이 부족하여 진나라를 떠나서 돌아갔다. 파리한 모습에 짙신을 신고 책 보파리를 짊어진 채로 모습은 야위고 얼굴은 새까맣고 부끄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 이에 분발하여 독서하면서 잠이 오면 송곳으로 넓적다리를 찌러 잠을 쫓았다. [說秦王書 十上而說不行 黑貂之裘弊 黃金百斤盡 資用乏絕 去秦而歸 羸膝履蹻 負書擔橐 形容枯槁 面目犁黑 狀有歸色 … 讀書欲睡 引錐自刺其股]”라고 하였

히 신겨 드리자 경전을 전해 주신다면 어찌 감히 황석공(黃石公)의 가르침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sup>60</sup>

---

다.

- 60 신발…있겠습니까 : 장량(張良)이 박랑사(博浪沙)에서 진 시황제(秦始皇帝)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한 후, 이름을 바꾸고 하비(下邳)로 달아나 살고 있었다. 어느날 흙다리 위에서 황석공(黃石公)이라는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은 다리 밑으로 신발을 떨어뜨리고는 신을 주워달라고 하였다. 장량이 3차례나 신을 주워다 공손히 신겨 주자, 노인은 그에게 《태공병법(太公兵法)》이라는 책을 전해 주었다. 그 후 한 고조(漢高祖)를 도와 천하를 평정하여 한(漢) 삼걸(三傑)의 한 사람으로 유후(留侯)에 봉해졌다. 《史記 卷55 留侯世家》

# 남을 대신하여 관찰사에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개장에 필요한 물자를 청하는 글

代人上巡相乞改葬亡母之需啓

하늘도 다하고 땅도 다하였으니 길이 그지없는 애통함을 품고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에 봉양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뒤에 장사 지내지 못하였으니 어찌 불효하다는 꾸짖음을 마다하겠습니까. 이 심정을 누가 들어 주어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집에서는 불초한 자식이고 나라에는 쓸모없는 백성입니다. 어려서 부모와 사별하는 불행을 만나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그치지 않듯이 부모님은 기다려 주지 않았고,<sup>61</sup> 끝내 형제도 적은 지라 남들에게 다 있는 형제가 저에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지 삼년 후에 부모님 품을 벗어났지만 누가 과부의 자식인 저를 거두겠습니까. 열 살 이전에 취학하지 않을 때는 늘 선친을 생각하라는 말로써 저를 권면하였습니다. 어미 소가 송아지를 혀로 핥듯 깊은 사랑으로 어머니는 매번 머리털을 잘라 제 뒷바라지를 해 주셨습니다.<sup>62</sup> 그러나 반포(反哺)의 정성이 부족하여 굴

61 나무는…않았고 : 자식이 효행을 하려고 할 때에 아버지는 이미 살아 계시지 않는다는 비유이다. 공자(孔子)가 길을 가는데 고어(梟魚)란 사람이 슬피 울고 있기에 까닭을 물었더니,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여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고 싶어도 아버지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 [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라고 하였다. 《韓詩外傳 卷9》

62 어머니는…주셨습니다 : 원(元)나라 때 진우(陳祐)는 일명 천우(天祐)라고도 하며 자는 경보(慶甫)이다. 그가 어려서 학문을 좋아했으나 집이 가난해서 책을 구입할 수 없자 그의 어머니가 머리카락을 잘라



을 품고 돌아와 어머님께 드리지 못하였습니다.<sup>63</sup> 생각해 보면 책 한 권을 가르쳐 준 스승이 없었으나 다행히 어머님으로부터 삼천(三遷)의 가르침<sup>64</sup>을 받았으니, 비로소 아침에 들에 나가 밭 갈고 밤에 돌아와 책을 읽으며 집에서는 효성을 다하고 밖에서는 어른을 공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색동옷 입고 춤추고 병아리 흥내 내며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했는데<sup>65</sup> 갑자기 오랑캐의 침입에 놀라,<sup>66</sup> 부모자식과 임금과 신하도 흩어지고 달아나 숨게 되었습니다. 정강(靖康)의 시절<sup>67</sup>을 말하자면 입에서는 먼저 오열이 터져 나

---

주어서 책과 바꾸었다고 한다. 성어(成語)로는 전발역서(剪髮易書)라 하는데,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뜻한다. 《新元史 卷169 陳佑列傳》

- 63 곁을…못하였습니다 : 삼국(三國) 시대 오(吳)나라의 효자(孝子) 육적(陸績)이 나이 6세 되던 해에 한 번 원술(袁術)을 찾아가 알현했는데, 이때 원술이 곁을 대접하자, 육적이 곁 세 개를 몰래 품속에 넣어 두었다가, 떠나려고 절을 할 때에 그 곁이 땅에 떨어지므로, 원술이 말하기를 “육량은 남의 집에 손님이 되어 몰래 곁을 품속에 감추었던 말인가. [陸郎作賓客而懷橘乎]”라고 하자, 육적이 무릎을 꿇고 대답하기를 “돌아가서 어머니께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欲歸遺母]”라고 하니, 원술이 그를 대단히 기특하게 여겼다. 《三國志 卷57 吳書 陸績傳》
- 64 삼천(三遷)의 가르침 :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하여 묘소 곁에서 저자로, 저자에서 학교 근처로 집을 세 번 옮긴 이른바 맹모 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를 말한다.
- 65 그러다…못했는데 : 춘추 시대 초(楚) 나라의 은사(隱士) 노래자(老萊子)가 70의 나이에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를 위하여 색동옷을 입고 병아리처럼 아버지의 곁에서 재롱을 떨었다고 전한다. 《小學稽古》
- 66 갑자기…놀라 : 원문의 ‘生郊之馬’는 《노자(老子)》 46장에 “세상에 도가 없으면 전쟁에 쓰이는 말이 교외에서 태어난다. [天下無道 戎馬生於郊]”라고 한 것을 차용한 것이다. 여기서는 임진왜란을 가리킨다.
- 67 정강(靖康)의 시절 : 북송(北宋)의 정강 2년(1127)에 금군(金軍)이 남

오고, 변주(汴州)의 난리<sup>68</sup>를 듣고는 발길이 얼마나 방황했겠습니까. 어머니는 “아, 내 자식아, 너는 지금 임금이 계신 곳을 잃어버렸느냐. 신하된 자는 각기 그 임금을 섬길 뿐이니 어찌 차마 왜적을 핑계로 임금 계신 곳을 모른 채 있을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모(老母)가 계시기에 섭정(攝政)처럼 남에게 몸을 허락할 수 없었으므로,<sup>69</sup> 마침내 종군(終軍)처럼 오랑캐를 잡아 오겠다는 청도 못했습니다.<sup>70</sup>

이에 동서남북 어디에도 의탁할 곳이 없어서 온갖 험한 일과 고생을 두루 겪었습니다. 모친을 반악(潘岳)의 수레에 모시고 떠돌

---

하하여 송 나라의 수도 변경(汴京)을 함락시키고, 휘종(徽宗)과 흠종(欽宗) 이하를 붙잡아 금 나라로 돌아간 사변을 말한다. 여기서는 선조(宣祖)가 의주(義州)로 몽진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68 변주(汴州)의 난리 : 변주는 하남성(河南省) 개봉(開封) 일대로 송 태조(宋太祖)가 수도로 정하여 동경개봉부(東京開封府)라고 하였는데 흔히 변경(汴京)으로 부른다. 변주의 난리는 위의 주석에서 말한 바 정강지변(靖康之變)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조선의 수도 한양이 왜군에 함락된 것을 가리킨다.

69 그러나...없었으므로 : 섭정(攝政)은 전국 시대 자객(刺客)으로 자기에게 은덕을 베푼 엄중자(嚴仲子)를 위해 그의 원수인 한(韓) 나라 정승 협루(俠累)를 죽인 뒤에 스스로 자신의 낮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 죽었다. 그런데 엄중자가 처음 부탁하기 위해 왔을 때 섭정은 “제가 이렇게 뜻을 낮추고 몸을 욕되게 하면서 시정에 묻혀 사는 이유는 다만 다행히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는 즐거움 때문이오. 어머니가 살아 계신 한 저는 감히 마구 내 몸을 남에게 맡길 수 없소이다.[臣所以降志辱身 居市井者 徒幸而養老母 老母在 政身未敢以許人也]”라고 하였다. 노모가 세상을 떠나자 섭정은 엄중자의 부탁을 실행에 옮겼다. 《戰國策 韓策》

70 마침내...못했습니다 : 한 무제(漢武帝) 때 사람 종군(終軍)이 남월(南越)에 사신을 갈 적에 긴 끈을 청하면서 “남월왕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묶어서 데려오겠습니다.” 하였다. 《漢書 卷64 終軍傳》

며<sup>71</sup> 사나운 도적의 소굴에서 간담이 녹았고, 자로(子路)처럼 쌀을 굶어지고<sup>72</sup> 궁벽한 산길을 오가느라 발이 다 부르텠습니다.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도 이 한 몸의 목숨은 돌아보지 않았기에 강혁(江革)처럼 어머니를 무사히 모실 수 있었고,<sup>73</sup> 천리 길을 넘어 다니며 온 식구의 입에 풀칠할 때도 공부(工部)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sup>74</sup> 그리하여 서로 돌보아 주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 섬기는 도리를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 
- 71 모친을…떠들며 : 진(晉) 나라 반악(潘岳)의 <한거부(閑居賦)>에 “모친을 가마에 모시고 수레에 태워, 멀리 기전(畿甸)을 유람하고 가까이 집 뜰을 돌아다녔다.[太夫人乃御版輿 升輕軒 遠覽王畿 近周家園]”라는 구절이 있다. 《文選 卷16》
- 72 자로(子路)처럼…굶어지고 : 공자(孔子)의 제자 자로(子路)가 어버이를 모시고 있을 적에 집에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는 되는 대로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버이를 위해서는 100리 바깥에서 쌀을 등에 지고 오곤 하였는데, 어버이가 돌아가시고 나서 높은 벼슬을 하여 술을 늘어놓고 진수성찬을 맛보는 신분이 되었지만, 당시에 거친 음식을 먹으며 어버이를 위해 쌀을 지고 왔던 그때의 행복을 다시는 느낄 수 없게 되었다고 술회한 고사가 전한다. 《孔子家語 卷2 致思》
- 73 강혁(江革)처럼…있었고 : 강혁은 후한(後漢) 때 임치(臨淄) 사람으로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난리를 만나 산속으로 피난을 갔다. 도둑들이 와서 위협하여 납치해 가려 하므로 강혁은 “어머니가 계셔서 갈 수 없다.”라고 애걸하니 도둑들도 차마 납치하지 못하고 도리어 피난할 길을 알려 주었다. 그 후 하비(下邳) 지역에서 객으로 전전하였는데 빈궁하여 제대로 입지도 신지도 못했지만 품을 팔아 모친을 봉양하면서 몸에 편한 물품을 다 해 드렸다. 《後漢書 卷39 江革列傳》
- 74 공부(工部)처럼…다녔습니다 : 공부는 당 나라의 시인 두보(杜甫)를 가리킨다. 안록산(安祿山)의 난 이후 관직을 버리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진주(秦州)에 나그네가 되어 떠돌고 검남(劍南) 지역을 유랑하였다.

어찌 끝에 가서 자여(子輿)의 솔을 늘어놓는 일을 당하자,<sup>75</sup> 그제서야 왕상(王祥)처럼 얼음을 두드릴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sup>76</sup> 이미 더위와 추위를 겪은 나머지 기혈(肌血)이 녹았고, 또 오랜 굶주림과 심한 갈증을 항상 겪었으므로 신장도 초췌해졌습니다. 슬프게도 하늘은 꿈속에서 갑자기 병이 깊어지게 하여,<sup>77</sup> 기식(氣息)이 위태위태하고 약은 쌍용수(雙龍水)<sup>78</sup>도 효험이 없습니다. 제가 대

- 75 그런데…당하자 : 자여(子輿)는 맹자(孟子)의 자(字)이다. 솔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부모의 제례(祭禮)에 음식을 올린다는 뜻이다. 맹자는 부친의 제사에는 삼정(三鼎)을 갖추었고, 후에 모친의 제사에는 오정(五鼎)을 갖추었다고 전한다. 《孟子 梁惠王下》 여기서는 갑자기 어머니의 상을 당했다는 뜻으로 쓰였다.
- 76 그제서야…했겠습니까 : 진(晉) 나라 때의 효자 왕상(王祥)의 계모 주씨(朱氏)가 살아 있는 물고기를 먹고 싶어 하였는데, 왕상이 한겨울 인데도 옷을 벗고서 얼음을 깨고 잡으려 하자 얼음이 저절로 깨지면서 잉어 두 마리가 튀어나와 그것을 가져다 봉양했던 고사(故事)가 있다.
- 77 꿈속에서…하여 : 원문의 ‘양수(兩豎)’는 이수(二豎)와 같은 말로 병마(病魔)를 뜻한다. 진 경공(晉景公)이 병이 나서 진(秦)나라에 의원을 보내 주기를 청하니, 진백(秦伯)이 의원을 보내 주었다. 그런데 의원이 도착하기 전에 진백의 꿈속에 두 어린아이가 나타나 말하기를 “저 솜씨 좋은 의원이 와서 우리를 해칠까 두렵다.”라고 하자, 그중 한 아이가 말하기를 “황(盲)의 위, 고(膏)의 아래에 숨으면 우리를 어찌겠는가.”라고 하였다. 그 뒤에 의원이 말하기를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황의 위, 고의 아래에 숨어 있으니, 공격하려 해도 할 수가 없고 도달하려 해도 되지가 않아서 약을 쓸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春秋左氏傳 成公 10年》
- 78 쌍용수(雙龍水) : 김만중(金萬重)의 〈서포일록(西浦日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 어떤 사람이 어머니를 효성으로 모셨는데, 어느날 어머니에게 병이 생겨 여러달 동안 낫지 않았다. 그 사람은 편작(扁鵲)의 의술이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천리길을 찾아갔으나, 진맥을 마친 편작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실의에 빠져 다시 어머니를 업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심한 갈

신 죽을 수 있었다면 어찌 부모 잃은 슬픔을 품겠습니까.

아, 야위고 지친 몸에는 노래자(老萊子)의 색동옷 걸칠 수 없음이 놀랍고, 아득한 강남(江南)의 선인의 묘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저 몇 가닥 등나무 줄기로 관을 묶어 마침내 석 자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삼태기와 들것에 흙을 담아 시신을 엄폐하였으니 참으로 비통했습니다. 수족을 거두어 염을 하였다면 자식으로서 어찌 만족스럽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없으니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 봉양하려는 뜻을 저버렸고, 아버지의 상은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이니 부질없이 신종(慎終)<sup>79</sup>의 정성만 간절합니다. 한 번 애곡(哀哭)하고는 참마(驂馬)를 풀어 부의(賻儀)한 이는 하늘이 내신 성인(聖人)이지만,<sup>80</sup> 세 번 상사(喪事)를 당

---

증으로 마실 물을 찾았다. 그래서 시냇물을 찾아 올라갔는데 그곳에는 죽은 독룡(毒龍) 한 쌍이 백골로 변해 있었다. 그 사람은 다른 물을 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그곳의 물을 떠다가 어머니에게 마시도록 하였는데, 집으로 돌아온 후 병이 낫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편작은 그 모친의 병은 다른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고 천년 묵은 쌍룡의 두개골에 고인 물을 먹어야 했는데, 이 사람이 효자라서 하늘이 그약을 내린 것이라고 하였다. 《西浦集 卷7》

79 신종(慎終) : 부모의 상사(喪事)나 제사를 정중히 치르는 것을 말한다. 《논어》 학이(學而)에 “장례는 정성을 다하여 치르고 멀리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면 백성의 덕이 후한 데로 돌아간다. [慎終追遠 民德歸厚矣]”라고 하였다.

80 한…성인(聖人)이지만 : 공자(孔子)가 일찍이 위(衛) 나라에서 예전 관사(館舍) 주인(主人)의 상(喪)을 만나서, 들어가 곡(哭)하고 나와서는 자공(子貢)에게 참마(驂馬)를 풀어서 부의(賻儀)를 하라고 하므로, 자공이 참마를 풀어서 부의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공자가 이르기를, “내가 방금 들어가 곡할 때에 한번 슬퍼함을 만나서 이내 눈물을 흘렸으니, 나는 눈물에 따르는 예를 표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노라. [予鄉者入而哭之 遇於一哀而出涕 予惡夫涕之無從也]”라고 하였다. 《禮記 檀弓上》

한 것을 보고 맥주(麥舟)를 건네 줄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없습니다.<sup>81</sup> 천신(天神)을 감격케 한 맹희(孟姬)의 상금(祥金)은 혈(穴)을 떠나고,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여도 자류(子柳)의 부포(賻布)는 주머니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sup>82</sup> 시신의 살갓에 흠이 닿지 않도록 하는 일도 이미 어렵게 되었고, 유골을 고향의 산 기슭에 묻고자 원하여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얼굴빛과 곡읍(哭泣)을 슬피하기는 하지만 좋은 수의와 관곽으로 아름답게 장사를 치르지 못하니, 가난이 한탄스럽고 막다른 길에 처한 듯합니다. 그 누가 부모의 초상을 봉행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자신의 집에서 봉우의 빈장(殯葬)을 마련해 주었다는 말은 거의 들을 수 없으니,<sup>83</sup>

81 세…없습니다 : 송(宋) 나라 범중엄(范仲淹)이 아들 순인(純仁)을 시켜 고소(姑蘇)에서 보리 5백 섬을 운반해 오게 하였다. 순인이 배에 보리를 싣고 단양(丹陽)에 이르렀을 적에, 범중엄의 친구 석연년(石延年)을 보았는데, 석연년은 돈이 없어 세 번 상사를 당했으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었었다. 그러자 순인은 보리를 실은 배를 부의(賻儀)로 주고 자신은 단기(單騎)로 돌아온 일이 있었다. 《冷齋夜話 卷 10》

82 형제들에게…없습니다 : 자류(子柳)는 노(魯) 나라의 숙중피(叔仲皮)의 아들인데, 숙중피는 노 나라의 공족(公族)인 숙손씨(叔孫氏)의 후예이다. 《예기》〈단궁 상〉에 “자류의 어머니가 죽었는데 자석이 상례 치를 기물을 장만할 것을 청하였다. 자류가 말하기를 ‘무엇을 가지고 재용(財用)을 삼겠는가?’라고 하자, 자석이 말하기를 ‘서제(庶弟)의 어머니를 팔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자류가 말하였다. ‘어떻게 남의 어머니를 팔아서 자기의 어머니를 장례한단 말이냐. 안 될 말이다.’ 이미 장례하고 나서 자석이 부의로 들어온 재물의 남은 것을 가지고 제기(祭器)를 장만하려고 하자, 자유가 말하였다. ‘옳지 않다. 내 들으니, 「군자는 상사로 인해 생긴 재화로 가재(家財)를 장만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여러 형제들 중에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여기서도 부의로 들어온 물건이 남아 있지 않다는 뜻으로 쓰였다.

83 자신의…없고 : 자하(子夏)가 공자에게 묻기를 “먼 곳에서 봉우가 찾아

입에 음료도 마시지 못한 지 7일째이며 눈물만 땅 속 무덤에 스며들 뿐입니다. 애통함은 차마 말할 수 없고, 하늘은 어찌 이런 망극한 일이 있게 한단 말입니까. 살아 계실 적에 예(禮)로 섬긴다는 가르침<sup>84</sup>을 생각할 때 어찌 유감이 없겠습니까, 죽으면 빨리 썩기를 원한다는 말은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sup>85</sup> 애초에 저잣거리에서 걸식을 할 줄 생각도 못했는데, 결국에는 죽어서 구학(溝壑)에 뒹굴게 되었습니다. 고향 쪽으로 머리를 돌려 보면 전란이 눈 앞에 가득합니다. 비록 혼(魂)과 기(氣)는 가지 못할 곳이 없었지만 저 강과 호수는 아득하여 넘어갈 수 없는데, 누

---

왔는데 목을 곳이 없거나 죽어서 빈장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자, 공자가 “봉우가 살아 있을 경우에는 나의 집에 머물게 하고, 죽었을 경우에는 나의 집에서 빈장을 해야 한다.”라고 대답하였다. 《禮記 檀弓上》

- 84 살아…가르침 : 맹의자(孟懿子)가 공자에게 효를 묻자 공자는 “어김이 없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공자의 제자인 번지(樊遲)가 그 의미를 묻자 공자는 “살아 계시면 예로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 장사지내고, 예로 제사지내는 것이다.”라고 하여, 부모를 섬김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대로 한결같이 하여 부모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論語 爲政》
- 85 죽으면…것입니다 : 공자(孔子)의 제자인 유자(有子)가 증자(曾子)에게 묻기를 “벼슬을 잃었을 때의 처신에 대하여 부자께 물어 들은 바가 있는가?” 하자, 증자가 이르기를 “들었노라. 벼슬을 잃었을 때는 속히 가난해지도록 해야 하고, 사람이 죽으면 속히 썩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느니라.”라고 하였다. 유자는 공자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하였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무언가 이유가 있었으므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증자가 이 문제를 자유(子游)에게 물으니, 자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환사마(桓司馬)라는 자가 자신이 죽은 뒤에 쓸 석곽(石槨)을 만들면서 3년이 지나도 아직 완성을 보지 못하는 것을 목도하였기 때문에, 사치스럽게 장례를 준비하기 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빨리 썩기를 바라는 것이 낫다라고 한 것이라고 하였다. 《禮記 檀弓上》

가 묘역에 소나무를 심어 3년의 여막 살이하고 돌아갈 수 있으며 4자의 봉분도 이루지 못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 한탄스럽습니다.<sup>86</sup>

아, 고향을 떠나 길을 묻는 신세라 향불을 올리려 해도 의지할 데가 없고,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걸식하지만 죽이나마 끼니를 잇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간 어느 세상에서 초토(草土)의 여생<sup>87</sup>을 구차하게나마 온전히 할 수 있겠으며,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어느덧 서리와 이슬이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묘역의 아릅드리 나무는 울창한데 떠도는 혼령은 의지할 곳이 없음이 애통하고, 묵은 풀은 무성한데 새로 만든 무덤은 누가 수호해 줄지 슬픔입니다. 고향 산천으로 옮겨 장사지내기를 기약할 수 없으니, 덮어주고 실어주는 천지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어디로 돌아가야할지 알 수 없는데 세상의 난리는 그치지 않습니다. 처음 임진년(1592, 선조25)의 난을 당했을 때 이미 어머니를 굶주림과 추위에 잃었고, 정유년(1597) 재차 난을 당해서는 또 창칼에 목숨을 잃은 처를 고했습니다. 사방을 돌아보아도 움츠러든 채 갈 곳이 없어<sup>88</sup> 지금까지 10년이 지났으나 처음 난리 때와 같습니다. 남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도 오히려 숨이 끊어질 지

86 4자의…한탄스럽습니다 : 공자가 방(防) 지역에 부모를 합장하고 말하기를,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옛날에는 그냥 묻기만 했을 뿐 봉분(封墳)은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니, 표지를 해 두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고는, 이에 봉분을 만드니 그 높이가 4척(尺)이었다고 한다. 《禮記 檀弓上》

87 초토(草土)의 여생 : 초토는 부모상을 지낼 때 풀로 만든 거적을 깔고 흙으로 만든 베개를 벤 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여기서의 거상(居喪)한 뒤 부모를 잃은 여생을 가리킨다.

88 사방을…없어 : 원문은 ‘顧瞻四方而靡聘’이다. 규장각본(古819-53-j569h)에 근거하여 ‘瞻’을 ‘瞻’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경인데, 비록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어찌 차마 이러한 처지를 달  
 게 여기겠습니까. 일찍이 목숨을 끊는 편이 낫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의 소원에는 참으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때  
 문에 번번이 구차하게 살아남아 오히려 목숨을 건진 것을 다행  
 으로 여겼습니다. 산을 옮기는 데<sup>89</sup> 역량이 변변치 못함은 생각지  
 않고 오직 선산에 합장할 것만 생각하였으며, 더구나 이곳의 풍  
 토가 북쪽과 같지는 않지만<sup>90</sup> 강물은 아무리 꺾여도 반드시 동쪽  
 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sup>91</sup> 이곳에서 고향 산모퉁이까지는 천여  
 리에 미치지 못하니, 혹여 양식을 도와 주는 것 외에 수레 하나  
 와 소 두 마리를 더 주신다면, 어찌 제(齊) 나라에 오래 머무르겠  
 습니까, 서둘러 위(衛) 나라로 떠날 것입니다.<sup>92</sup> 이것이 이른바 궁

89 산을 옮기는 데 : 우공(愚公)이 집 앞의 산을 옮기려고 매일 쉬지 않  
 고 노력하자 상제(上帝)가 감동하여 산을 옮겨 주었다는 고사를 빌어  
 다 곤란을 무릅쓰고 끝까지 귀장(歸葬)하려는 것을 비유하였다.

90 더구나...않지만 : 한유(韓愈)가 선주(宣州)로 떠난 최군(崔群)에게 보  
 낸 편지에 “선주가 비록 기후가 서늘하고 상쾌한 곳이라고 하지만 모  
 두 장강 이남의 지역이어서 풍토가 강북과는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  
 였다. 강남의 풍토와 기후가 강북과는 달라 질병에 걸리기 쉬움을 말  
 한 것이다.

91 강물은...마련입니다 :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강물을 관찰하는 까닭  
 을 묻자, 공자는 강물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면서 마지막에  
 “물줄기가 일만 번 꺾여도 반드시 동해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의지가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荀子 宥坐》 여기서는 모친의 반장(反  
 葬)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비유하였다.

92 어찌...것입니다 : 맹자(孟子)가 제국(諸國)에 유세할 때 제 나라에 오  
 래 있었으나 도(道)가 행해지지 않으므로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孟  
 子 公孫丑下》 위 나라 딸이 제후(諸侯)에게 시집갔는데 부모가 별세함  
 에 친정으로 돌아가 문안할 것을 생각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으  
 므로 《시경》의 패풍(邶風) 천수편(泉水篇)을 지어 “대변에 위 나라에  
 이른다 해도 크게 해될 것은 없으련만. [湍臻于衛 不瑕有害]”이라고 하

한 자는 그 뜻을 표현하려 한다는 것이니<sup>93</sup> 또한 죽게 된 처지에 서 말을 가리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감격의 눈물이 말을 따라 떨어지고, 입으로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입니다. 만일 백락(伯樂)이 없었다면 누가 소금 수레를 끄는 천리마의 울음을 슬퍼해 주겠으며,<sup>94</sup> 공자가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태산(泰山)의 곡소리는 멈추었을 것입니다.<sup>95</sup> 시기와 형편이 좋아 지리라 믿었기에 지금에 이르도록 오래 지체되었지만, 다행히 효우(孝友)는 하늘에서 타고나 인애(仁愛)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상공 합하(閣下)를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상공께서는 내 집 어린이를 어린이로 사랑하고 내 집 노인을 노인으로 섬겨 남에게까지 미치듯이 백성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남의 즐거움을 즐거워하고 남의 근심을 근심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남들을 대하였습니다. 한

---

였다. 여기서는 현재 머물러 있는 곳을 떠나 서둘러 고향으로 가겠다는 의미로 쓰였다.

- 93 이것이…것이니 : 유신(庾信)의 <애강남부(哀江南賦) 서문에 “궁한 자는 그 말을 표현하려 하고, 힘든 자는 그 일을 반드시 노래한다.[窮者欲達其言 勞者須歌其事]”라고 하였다.
- 94 만일…주겠으며 : 옛날 천리마(千里馬)가 소금 수레(鹽車)를 끌고 태항산(太行山)을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가고 쓰러졌는데, 백락(伯樂)이 이 말을 알아보고는 통곡을 하며 옷을 벗어 덮어 주자, 천리마가 백락을 쳐다보며 슬프게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戰國策 楚策4》
- 95 공자가…것입니다 : 공자가 제자들과 태산 부근을 지나가다가 어떤 아낙네가 무덤 옆에서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어찌 된 영문인지 물었더니, 예전에 호랑이가 시아버지와 남편을 잡아먹었는데 이제는 아들까지 잡아먹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느냐고 묻자, 여기는 가혹한 정사(政事)가 없어서 그렇다고 대답하니, 공자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기억해 두어라. 가혹한 정사는 호랑이보다도 사나운 것이다.”라고 하였다. 《禮記 檀弓下》 여기서는 가족을 잃은 아낙네도 공자가 태산 곁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호소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지아비라도 제 살 곳을 얻지 못하면 마치 자신이 궁지로 밀어넣은 것처럼 여겼고, 무릇 백성들에게 상사(喪事)가 있으면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서 구원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 관혼상제에도 모두 시기에 맞게 돕고 사농공상에 이르기까지 각각 종사하는 바가 있도록 하였기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은 귀신은 다 염(斂)과 빈소를 마련하여 알맞게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롭고 화락한 정성을 미루어 애통하고 측은히 여기는 뜻을 일으켜 주소서. 굶주린 배를 채워 주고 죽어가는 자를 구제하는 데 어찌 팔진미(八珍味)를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에 빠진 자를 건져 주고 불에 타는 자를 구제하는 데는 단지 손 한 번 들어 주는 수고로움만 있으면 됩니다. 장부가 자력으로 생활하지 못하매 자신에게 동정을 바란다고 여겨 주시고, 궁핍한 사람이 귀의할 곳이 없으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겨 주소서. 수레를 청하는 어리석음을 용납하여 특별히 우마(牛馬)를 부의(賻儀)하여 도와 주시고, 창고를 열어 인정을 베푸는 고사<sup>96</sup>를 따라 행하시되 아울러 노자로 쓸 비용도 주신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즉시 유해를 모셔 고향으로 돌아가고 객사한 모친의 관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 영영 타향의 바람과 안개를 떠나 고향산천의 소나무와 전나무 곁에 무덤을 만들게 해 주신다면, 이승에서 살아 있는 자식은 영예롭게 생각하고 저승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는 감격하실 것입니다. 백발의 외로운 낮은 황량한 들판에 밤비가 내릴 때면 눈물을 삼킬 뿐만 아니라, 또한 누렇게 뜬 얼굴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새벽녘 해로가(薤露歌)를 듣자니 숨

96 창고를…고사 : 고대에 음력 3월이면 천자(天子)는 은덕을 떨치고 자혜를 행하기 위해,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창고를 열어 빈궁한 자들에 나누어 주고 부족한 물품을 보급하였다고 한다. 《禮記 月令》

이 끊어질 듯합니다. 삼가 살아서 소속산(疏屬山)의 질고<sup>97</sup>로부터 풀려날 것이고, 죽어서도 중항언(中行僊)의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sup>98</sup> 그리 하면 뼈가 가루가 되고 머리털을 죄다 뽑아 보답해야 할 것이니 어찌 다만 머리를 쪼개고 심장을 가르기만 할 뿐이겠습니까. 대저 천지 부모와 같은 마음은 죽은 자를 살려 백골에 새살이 돌아나게 한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97 소속산(疏屬山)의 질고 : 《산해경(山海經)》〈해내서경(海內西經)〉에 “이부가 알유를 죽이자 제(帝)가 그를 소속의 산에다 묶어두면서 바른쪽 발에는 차꼬를 채우고 두 손은 뒤로 머리와 함께 나무에 매달아두었다.[貳負殺窺竄 帝乃梏之疏屬之山 桎其右足 反縛兩手與髮]”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질곡(桎梏)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98 죽어서…것입니다 : 죽어서도 여한이 없이 눈을 감겠다는 뜻이다. 중항언은 춘추 시대 진(晉) 나라의 대부 순언(荀僊)인데, 제 나라의 토벌을 완수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이것이 원통함이 되어 순언은 죽었을 때 눈을 뜨고 입을 다물어서 반함(飯含)을 할 수 없었다. 사개(士句)가 시신을 어루만지며 “순오(荀吳 순언의 아들) 섬기기를 어찌 감히 어르신을 섬기듯이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러나 순언이 여전히 눈을 감지 않자 난회자(欒懷子)가 다시 시신을 어루만지면서 “어르신께서 돌아가신 뒤에 만약 어르신의 뒤를 이어 제 나라를 토벌하지 않는다면 황하의 신이 벌을 내릴 것입니다.”라고 하니, 순언이 마침내 눈을 감고 입을 벌려 반함을 받았다고 한다. 《春秋左氏傳 襄公 19年》

남을 대신해서 현감을 청하는 글<sup>99</sup> 양경우를 위해서 지었다.

代人乞縣啓 爲梁慶遇作

좋은 벗이 있다 해도 누가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하겠습니까. 어찌 기름이 없고 목욕할 수 없겠습니까마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위해 용모를 꾸미고자 합니다. 이러한 도리를 가지고 따르고자 이러한 말씀으로 아뢰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저는 나무의 옹기와 같아 먹줄을 칠 수가 없고 썩어서 무엇을 새길 수도 없습니다. 선친이 남긴 학문에 힘입었지만 소자가 무엇을 전술할 수 있겠습니까. 아, 미사여구로 글을 꾸미는 작은 재주는 장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남들은 더러 말하기를 나아가 벼슬할 수 있다고 하나, 저는 아직 벼슬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sup>100</sup> 그저 배우며 익히기만 했습니다. 지난번 과거 시험에서 마침 인재가 부족하였던 탓에 망령되이 벼슬임을 뚫는 기예로서 의망되어,<sup>101</sup> 갖의 먼지를

99 남을…글 : 이 글은 조찬한이 양경우를 위해 대신 지은 글인데, 양경우의 《霽湖集》 권3에 〈上銓部尙書爲親乞郡啓〉라는 제목으로도 실려 있다. 두 글 사이에는 글자의 출입이 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므로, 조찬한이 짓고 양경우가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霽湖集》의 제목으로 보면 양경우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 이조 판서에게 올려 지방 수령에 제수해 주기를 청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00 저는…없어 : 공자가 제자인 칠조개(漆雕開)에게 벼슬을 권했을 때 “저는 아직 벼슬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吾斯之未能信]”라고 대답하자, 공자가 기뻐했다고 한다. 《論語 公治長》

101 망령되이…의망되어 : 춘추 시대 초(楚) 나라의 장수 양유기(養由基)는 활을 잘 쏘았는데, 그가 백 보 거리에서 벼슬임을 쏘면 백발백중이었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과거에 합격하였음을 뜻한다. 《戰國策 西周策》

털고 일어나 갓끈을 씻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sup>102</sup> 그런데 그저 선친이 남긴 책을 읽기만 했으니<sup>103</sup> 홀로 배운 것이 이미 고루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각자 포부를 말해보라 하고서 자신을 허여하는 것이 어찌 그리도 우직한지 괴이하게 여깁니다.<sup>104</sup> 훈훈한 〈남풍가(南風歌)〉에 화답함이 어찌 남들에게 뒤처지겠습니까,<sup>105</sup> 비록 북방의 학자<sup>106</sup>라도 감히 저보다 앞선 자가 없었습니다. 겨

102 갓의…불렀습니다 : 한(漢) 나라 때 공우(貢禹)와 왕길(王吉)은 서로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왕길이 출사(出仕)하면 공우 또한 자기도 응당 등용될 것을 믿고 갓의 먼지를 털고 벼슬길에 나설 준비를 하였다고 한다. 《漢書 卷72 王吉傳》 갓끈을 씻는다는 것은 시세에 응하여 행장진퇴(行藏進退)함을 말한다. 동요에 전하기를 “창랑(滄浪)의 물이 맑거든 나의 갓끈을 씻을 것이요, 창랑의 물이 흐리거든 나의 발을 씻겠다.”고 하였다. 《孟子 離婁上》

103 그런데…했으니 : 전국 시대 조(趙) 나라 장수 조괄(趙括)은 부친인 조사(趙奢)에게 병법(兵法)을 배워 병학에 달통하였다고 자부하였으나 부친은 한 번도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았다. 후에 진(秦) 나라 백기(白起)와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조 나라 군대 40만 명이 몰살당하였다. 《史記 卷81 廉頗藺相如列傳》

104 자신을…여깁니다 : 두보(杜甫)의 〈서울을 떠나 봉선현으로 가서 감회를 읊다[自京赴奉先縣詠懷]〉라는 시에 “자신을 허여하는 것이 어찌 그리도 우직하여, 직이나 설같은 현인에 견준다네.[許身一何愚 竊比稷與契]”라고 하였다.

105 훈훈한…뒤처지겠습니까 : 〈남풍가(南風歌)〉는 순(舜) 임금의 지은 노래로 “남풍이 훈훈하여 우리 백성의 성남을 풀어줄 만하고, 남풍이 제때 불어 우리 백성의 재산을 늘려줄 만하네.[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慍兮 南風之時兮 可以阜吾民之財兮]”라고 하였다. 《禮記 樂記》 여기서는 임금이 인정(仁政)을 펴는 데 보필함을 말한 것이다.

106 북방의 학자 : 초(楚) 나라 등의 남방의 학문에 대비해 주공(周公)과 공자(孔子)의 학문을 배우는 북방의 학문을 가리킨다. 《맹자》 등문공상(滕文公上)에 “진량은 초나라 태생이니, 주공·중니의 도를 좋아하여 북쪽으로 중국에 가서 공부하니 북방의 학자들이라도 그보다 앞선 자가 없었다.[陳良楚產也 悅周公仲尼之道 北學於中國 北方之學

우 길을 따라 가며 노래하고 읊었는데,<sup>107</sup> 이미 조서(詔書)를 내려 과거에 선발되었습니다. 복사꽃 물결이 가득 찰 무렵 누가 세 단계 용문(龍門)의 폭포가 높다 했으며,<sup>108</sup> 계수나무 향기 날릴 때 구천(九天)이 먼 줄을 몰랐습니다.<sup>109</sup> 남원(南園)의 나비를 쫓을 때 풀도 도포도 모두 푸른 색이었고,<sup>110</sup> 북당(北堂)에서 강릉(岡

者 未聞或之先也]”라고 하였다.

- 107 겨우… 읊었는데 : 한유(韓愈)의 <시대리평사왕군묘지명(試大理評事王君墓誌銘)>에 왕적(王適)이 생전에 과거에 응시하였던 모습을 설명하면서 “천자께서 처음 즉위하시자 사과(四科)로 천하의 선비를 모집하였다. 왕적은 웃으며 ‘지금 이 내가 나아갈 때가 아니겠는가.’ 하고는 곧장 자신이 지은 책을 손에 들고 길을 따라 가며 노래하고 읊으면서[緣道歌吟] 직언과(直言科)의 시험에 응시하였다. 도착하여 제출한 답안은 사람들을 경탄하게 만들었지만, 급제하지 못하고 더욱 곤궁해졌다.”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길을 따라 가며 노래하고 읊는다는 표현은 과거 시험에 응시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 108 복사꽃… 했으며 : 황하(黃河)의 중류 하진(河津)에 복사꽃 물결이 불어날 때면 강과 바다의 물고기가 용문(龍門) 아래로 모이는데, 이곳을 뛰어오르면 용(龍)이 된다는 전설이 있다. 이 고사는 봄에 시행하는 과거를 거쳐 관인으로 출사(出仕)하는 것을 비유한다. 《三秦記》 또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용문에는 세 단계로 된 폭포가 있는데, 이곳을 전부 통과해야 용이 될 수 있고 오르지 못하면 이마만 부딪히고 돌아간다고 한다. 여기서의 과거 시험에 쉽게 합격했다는 뜻으로 쓰였다.
- 109 계수나무… 몰랐습니다 : 계수나무 향기가 날린다는 것은 과거에 급제했다는 말로, 진(晉) 나라 극선(郤詵)이 천하제일의 대책문으로 과거에 급제한 뒤에 “계수나무 숲 속의 가지 하나요, 곤륜산의 한 조각 옥돌이다.[桂林之一枝, 崑山之片玉.]”라고 자칭한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晉書 卷52 郤詵列傳》 구천(九天)은 임금을 가리키는데, 먼 줄을 몰랐다는 것은 과거에 합격하여 임금을 곁에서 모시게 되리라 예상하였다는 말이다.
- 110 남원(南園)의… 색이었고 : 이 구절은 과거 급제 후 처음으로 맡은 관직을 말한다. 남원은 장자(莊子)가 처음 칠원리(漆園吏)가 되었던 곳

陵)의 장수를 축원할 때 버드나무와 수레 덮개도 같은 색이었습  
 니다.<sup>111</sup> 문에 기대어 애달프게 기다리지 않으시고 벼들에서 내려  
 와 기쁘게 맞이하여 주었고,<sup>112</sup> 다행히 나이가 아직 젊을지라 지  
 푸라기 좁듯 높은 관직에 오르리라 생각했습니다.<sup>113</sup> 그러나 문장  
 은 출세를 싫어하고<sup>114</sup> 도(道)는 귀신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금마

을 말하고, 나비는 장자의 호접몽(蝴蝶夢)을 가리킨다. 푸른 색의 도  
 포는 청포(靑袍)와 같은 말인데, 당나라 때 팔품(八品)이나 구품(九品  
 )의 관원들이 입던 관복으로, 전하여 미관말직(微官末職)을 의미한  
 다.

- 111 북당(北堂)에서…색이었습니다 : 이 구절은 과거 급제 후 고향으로 돌아와 모친께 문안을 올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 북당은 모친을 가리키고, 강릉(岡陵)은 《시경》〈소아(小雅) 천보(天保)〉에 “높은 산과 같고 큰 언덕과도 같으리라.[如岡如陵]”라고 하였듯이 장수(長壽)를 축원하는 말이다. 수레 덮개가 버드나무와 같이 푸른 색이었다는 것은 타고 가는 수레의 덮개가 버드나무와 같이 푸른 색이라는 말로 봄의 계절을 가리킨다.
- 112 문에…주었고 : 전국시대 제(齊) 나라 사람 왕손가(王孫賈)의 어머니가 왕손가에게 “네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올 때면 나는 집 문에 기대어 기다리고, 네가 저물녘에 나가 돌아오지 않을 때면 나는 동구 문에 기대어 기다린다.”라고 하였다. 《戰國策 齊策6》 소진(蘇秦)이 진왕(秦王)에게 유세하기 위해 집을 나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여비를 다 써버린 후에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는 벼들에서 내려오지 않고 형수는 밥을 해 주지 않으며 어머니는 말을 나누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戰國策 秦策1》
- 113 지푸라기…생각했습니다 : 한 선제(漢宣帝) 때의 학자 하후승(夏侯勝)이 제생(諸生)에게 이르기를 “경술(經術)이 진실로 밝기만 하면 고관 대작 취하는 것은 마치 옆드려서 땅의 지푸라기를 줍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漢書 卷75 夏侯勝傳》
- 114 그러나…싫어하고 : 두보(杜甫)의 〈천말회이백(天末懷李白)〉에 “문장의 재주는 사람의 운명이 순조롭게 열리는 것을 싫어한다.[文章憎命達]”라는 시구가 있다. 문장의 재주는 출세의 수단이 되지만 도리어 재주 있는 사람이 출세하는 것을 싫어하여 불우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음을



문(金馬門)에서 조명(詔命)을 기다릴 때<sup>115</sup>는 어지러운 시기를 당했고, 천록각(天祿閣)에서 서적을 교정한 것<sup>116</sup>은 분수로 볼 때 실로 두렵고 황공한 일이었습니다. 임금의 자리와 척오(尺五)의 가까운 거리<sup>117</sup>에서 모시면서 태상시(太常寺)에서 3백일을 재계하였습니다.<sup>118</sup> 3년간 박사(博士)를 맡고 있으면서 하나의 관직에 몸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sup>119</sup> 매번 6급으로 품계가 오르는 데 의망되었고, 간혹 한 고을을 다스리며 부모 봉양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잠시 접반사로 다녀와 복명하였고 얼마 뒤 찰방(察訪)에 임명되어 사은숙배(謝恩肅拜)하였습니다. 생각건대 고향으로 돌아가 봉양할 날을 기약할 수 없고, 공연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처벌이 따를 것입니다. 왕손(王孫)을 기다리는 방초처럼 한 해 두 해

말하였다.

- 115 금마문(金馬門)에서…때 : 금마문은 한대(漢代)의 궁문(宮門) 이름으로 학사(學士)가 조명을 기다리던 곳이다.
- 116 천록각(天祿閣)에서…것 : 한(漢) 나라 황실(皇室)의 장서각(藏書閣) 이름이다.
- 117 척오(尺五)의 가까운 거리 : 원문 ‘척오(尺五)’는 하늘과의 거리가 한 자 다섯 치라는 뜻이다. 곧 황제가 사는 궁궐인 봉성이 하늘과 지척에 닿을 만큼 높이 솟았다는 말이다. 원래 당나라 때 대궐 근처에 모여 살았던 호문귀족인 위씨(韋氏)와 두씨(杜氏) 등을 가리켜 “성 남쪽의 위씨와 두씨는, 하늘과의 거리가 한 자 다섯 치일 뿐이다.[城南韋杜, 去天尺五.]”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山堂肆考 卷26 城南韋杜》
- 118 태상시(太常寺)에서 3백일을 재계하였습니다 : 태상시는 한대(漢代)의 관서 이름으로 종묘의 의례(儀禮)와 관리의 선발 시험을 관장하던 곳이다. 조선의 관사로는 봉상시(奉常寺)에 해당하며, 양경우는 봉상시 정(奉常寺正)을 지낸 일이 있다.
- 119 몸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 원문은 ‘一官誤身’인데, 《霽湖集》에는 ‘一官糜身’으로 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하나의 관직에 몸이 매인 신세가 되었다는 뜻이 된다.

한만 쌓이고,<sup>120</sup> 찰방의 집 보따리만 메고 부질없이 십 리나 오 리 길에서 애를 썼습니다.<sup>121</sup> 속세에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세찬 비방만 불러들였고, 세월은 흐르는 물 같아 두 귀밑머리에 백발만 늘었습니다. 갈수록 척호(陟岵)<sup>122</sup>의 한탄만 고달파 아버지 그리는 마음 견디기 어려워, 바야흐로 멋대로 관직을 버린 처벌을 기다렸으나 얼마 뒤 도로 제수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새로 아는 사람도 적어 유신(庾信)의 생애<sup>123</sup>처럼 한탄하고, 옛 가업은 아득히 적막해져 양웅(揚雄)의 무너진 집<sup>124</sup>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양지를

120 왕손(王孫)을…쌓이고 : 한(漢) 나라 회남 소산(淮南小山)의 <초은사(招隱士)>에 “왕손이 떠나가 돌아오지 않음이며, 봄풀은 자라서 무성하다. [王孫遊兮不歸 春草生兮萋萋]”라고 하였는데, 전하여 ‘춘초(春草)’, ‘방초(芳草) 등의 풀은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하게 되었다. 《楚辭 卷12 招隱士》 여기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심정을 말하였다.

121 찰방의…썼습니다 : 옛날 5리(里)마다 단정(短亭)을, 10리(里)마다 장정(長亭)을 설치하여 행인들이 쉬거나 전별(餞別)하는 장소로 삼았다. 유신(庾信)의 <애강남부(哀江南賦)>에 “오 리와 십 리 마다 장정과 단정이 있네. [十里五里 長亭短亭]”라고 하였다.

122 척호(陟岵) :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자식의 간절한 심정을 말한다. 본래 《시경》 <위풍(魏風)>의 편명으로 “저 민둥산에 올라 아버지를 바라보노라. [陟彼岵兮 瞻望父兮]”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23 유신(庾信)의 생애 : 유신은 남조(南朝) 양(梁)나라 사람으로, 서위(西魏)로 사신을 갔다가 억류되었고, 양나라가 망한 후 서위와 북주(北周)에서 벼슬하였다. 그러나 고향인 강남을 잊지 못하여 <애강남부(哀江南賦)>를 지어 고향을 떠난 처량한 신세를 토로하였다.

124 양웅(揚雄)의 무너진 집 : 양웅은 한나라 때 문장가로 사부(辭賦)에 능하고 <태현경(太玄經)>과 《법언(法言)》 등의 저술을 남겼다. 그는 줄곧 조정에서 벼슬하였으나 고향인 성도(成都)의 비현(郫縣)에 그의 선조 양계(揚季)가 남긴 밭 한 떼기와 집 한 채가 있었다고 한다. 《漢書 卷87 揚雄傳》

따르는 기러기와 함께 하려다,<sup>125</sup> 도로 교목(喬木)을 내려온 피꼬리 신세가 되었습니다.<sup>126</sup> 이로써 어머니 얼굴을 남쪽 고을에서 받게 되었지만, 북궐(北闕)의 미인(임금)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장안(長安)이 백일(白日)보다 가까우니<sup>127</sup> 때로 머리 들고 바라보나, 촉도(蜀道)는 푸른 하늘에 오르는 것보다 어려우니<sup>128</sup> 발을 디딜 곳이 없습니다. 기꺼이 숨어 살면서 후회하지 않았

125 잠시…하려다 : 《서경》 우공(禹貢)에 “팽려에 이미 물이 모여 흐르니, 양조가 사는 곳이다.[彭蠡既豬 陽鳥攸居]”라고 하였다. 양조는 기러기를 가리키는데, 양기를 따라 겨울에는 남으로 가고 봄에는 북으로 이동한다. 여기서는 기러기를 따라 고향인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의미로 쓰였다.

126 도로…되었습니다 : 《맹자》 등문공하(滕文公下)에 “나는 그윽한 골짜기에서 나와 높은 나무로 옮겨간다는 말은 들었고, 높은 나무에서 내려와 그윽한 골짜기로 들어간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좋은 처지에서 나쁜 곳으로 옮겨감을 비유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말한다.

127 장안(長安)이 백일(白日)보다 가까우니 : 동진(東晉)의 명제(明帝)가 어렸을 적에 부왕인 원제(元帝)에게 장안(長安)과 태양 사이의 거리를 답변한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원제가 명제를 무릎 위에 앉히고 있었는데, 마침 장안에서 사람이 오자 “장안과 저 해가 어느 것이 더 멀다고 여기느냐?”하고 물으니, 명제는 “해가 더 멀니다. 장안에서 온 사람은 있으나 해가 있는 쪽에서 사람이 왔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다음날 잔치 자리에서 명제에게 다시 물으니, 명제는 “해가 가깝습니다.” 하였다. 원제가 “왜 어제 말과 다르게 하느냐?”라고 물으니, 명제가 대답하기를 “눈을 들어 해를 볼 수는 있으나 장안은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世說新語 夙慧》 여기서 장안은 임금이 계신 서울을 가리킨다.

128 촉도(蜀道)는…어려우니 : 촉도는 옛날 촉 지방으로 통하는 잔도(棧道)를 말하는데 그 길이 험하여 이백(李白)은 〈촉도난(蜀道難)〉에서 “아, 위태롭고도 높도다! 촉도의 험난함은, 푸른 하늘에 오르기보다 더 어렵다네.[噫嚱噓 危乎高哉 蜀道之難 難於上青天]”라고 읊었다.

는데, 다시 수레 타고 나가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늙어 집에 계시는데 이 몸은 가난하고 병들어, 쌀자루에는 자로(子路)처럼 양식도 없고<sup>129</sup> 광주리에는 왕상(王祥)이 잡은 고기도 없습니다.<sup>130</sup> 산에서 나물 캐고 강에서 낚시하여 공양하려 해도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기 어렵고, 겨울에 솜옷 여름에 갈포 옷으로 모시려 하나 어찌 시원함과 따뜻함에 맞게 하겠습니까. 누가 동해의 물결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sup>131</sup> 이미 해는 서산에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내 아들이 한 고을을 맡아 부모를 봉양하면 위로는 임금과 아버이를 받들고 가정의 효를 옮겨 나라를 위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누가 부모가 없겠습니까마는 이 말을 듣는 사람은 흐느껴 울지 않는 자가 없고, 모두들 형제가 있으니 측은히 여기며 서로 권면하였습니다. 대저 생각건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까닭

129 쌀자루에는…없고 : 자로가 아버이를 모시고 있을 때에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는 되는 대로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버이를 위해서는 100리 바깥에서 쌀을 등에 지고 오곤 하였다고 한다. 《孔子家語 致思》

130 광주리에는…없습니다 : 진(晉)나라 때의 효자(孝子)인 왕상은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한번은 계모가 추운 겨울에 생선을 먹고 싶어하므로 강에 가서 옷을 벗고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자, 잉어 두 마리가 얼음 위로 뛰어나왔다고 한다. 《晉書 王祥列傳》

131 누가…있겠습니까 : 동해의 물을 되돌려 죽어가는 물고기를 적셔 준다는 말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뜻이다. 장자(莊子)가 길을 갈 적에 누가 부르는 소리가 있어서 돌아보니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속에서 다 죽어 가고 있는 붕어가 부르는 것이었다. 장자가 붕어를 보고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니, 붕어가 “저는 동해(東海)의 파신(波神)인데, 당신에게 몇 되의 물이 있으면 나에게 부어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莊子 外物》

은 어찌 망아지와 송아지처럼 제 어미를 따를 줄 아는 것만을 말 하겠습니까. 짐승같은 미물에게 무슨 취할 점이 있었습니까마는 까마귀도 오히려 반포(反哺)의 효성<sup>132</sup>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기(吳起)가 팔뚝을 찢은 뜻<sup>133</sup>으로 사마상여(司馬相如)가 기 등에 쓴 맹세<sup>134</sup>를 삼았습니다.

이곳 청산이 구름과 솔의 흥취가 없지 않으나 훗날 백발이 되어 풍수(風樹)의 슬픔<sup>135</sup>을 어찌하겠습니까. 이에 왕찬(王粲)의 집<sup>136</sup>을

- 
- 132 반포(反哺)의 효성 : 반포는 자식이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여 봉양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까마귀는 새끼가 자라서 어미를 먹여 살린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 133 오기(吳起)…뜻 : 꼭 성공하여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말한다. 설비는 팔뚝을 찢는다는 말로 곧 결심을 뜻하는데, 전국 시대 오기(吳起)가 고향을 떠날 때 자기 어머니와 작별하면서 팔뚝을 찢고 맹세하기를 “제가 경상(卿相)이 되지 않고서는 다시 고향에 돌아오지 않으렵니다.” 하였다. 《史記 卷65 吳起傳》
- 134 사마상여(司馬相如)가…맹세 : 출세하기를 맹세하는 것을 말한다. 고향이 성도(成都)인 한(漢)의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장안(長安)으로 가면서 승선교(昇仙橋)를 지날 때 그 다리 기둥에다 쓰기를, “말 네 마리가 끄는 높은 수레를 타지 않고서는 다시 이 다리를 지나지 않으리라.”라고 하였다고 한다. 《太平御覽 卷73》
- 135 풍수(風樹)의 슬픔 :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다시는 봉양할 수 없는 자식의 슬픔을 말한다. 공자(孔子)가 주(周)나라 구오자(丘吾子)에게 슬피 통곡하는 이유를 묻자 “나무가 조용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아버지가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 한번 가면 오지 않는 것은 세월이요, 다시 뵈 수 없는 것은 아버지이다.”라고 대답한 뒤에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는 고사가 있다. 《孔子家語 致思》
- 136 왕찬(王粲)의 집 : 왕찬은 건안칠자(建安七子)의 한 사람으로 한(漢)나라 말기 전란을 당해 형주(荊州)로 피난하여 자사(刺史)인 유표(劉表)에게 15년 동안 의탁하였다. <칠애시(七哀詩)>와 <등루부(登樓賦)> 등을 지어 고향을 떠나 떠도는 심정을 표현하였다. 《三國志 卷21 魏書 王粲列傳》

떠나 육기(陸機)처럼 낙양(洛陽)으로 가고자 합니다.<sup>137</sup> 진실로 삼부(三釜)의 봉양<sup>138</sup>으로 위로할 수 없다면 황천에 가지 않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sup>139</sup> 만약 오마(五馬)<sup>140</sup>를 타고 돌아오지 않으면 저 흰 강물에 맹세하여 별을 받겠습니다.<sup>141</sup> 비록 그렇지만 조정에는 친당(親黨)이 없고 형세는 이끌어 주는 사람이 끊어졌습니다. 때를 만난 것이 다를 뿐이니 어찌 풍당(馮唐)처럼 늙겠습니까마는,<sup>142</sup> 문지기를 일러 사절하며 모두들 왕적(王適)처럼 미

137 육기(陸機)처럼…합니다 : 진(晉)나라 육기(陸機)와 육운(陸雲) 형제는 낙양으로 들어가서 사공(司空)으로 있던 장화(張華)를 찾아갔다. 장화가 본래 그들의 명성을 존중하여 “오(吳)를 정벌해서 두 인재를 얻었다.”라고 하였다. 《晉書 卷54 陸機傳》

138삼부(三釜)의 봉양 : 부(釜)는 6두(斗) 4승(升)에 해당하므로 삼부는 아주 박한 녹봉을 말한다. 증자(曾子)가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 계실 적에 벼슬할 때는 3부의 녹봉으로도 마음이 즐거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벼슬할 때는 3천 종(三千鍾)의 녹봉을 받았으나, 아버지를 봉양할 수 없으므로 내 마음이 슬펐다.”고 한 데서 온 말이다. 《莊子 寓言》

139황천에…것이며 : 벼슬하지 못하면 죽기 전에는 고향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말이다. 《춘추좌씨전》 은공(隱公) 1년에, 정(鄭)나라 장공(莊公)의 아우 태숙(太叔)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의 어머니 강씨(姜氏)가 내통하였는데, 태숙을 평정한 뒤에 장공이 그의 어머니를 궁에서 내쫓아 성영(城穎)에 감금하고 맹세하기를 “황천에 가기 전에는 서로 보지 않겠다.[不及黃泉 無相見也]”라고 말하였다.

140오마(五馬) : 지방 수령의 수레를 말하는데, 한(漢)나라 때 태수(太守)가 다섯 필의 말이 끄는 수레를 탔던 데에서 유래하였다.

141저…받겠습니다 : 하수(河水)의 신에게 다짐하는 말로 뜻을 변치 않겠다는 맹세를 가리킨다. 《춘추좌씨전》 희공(僖公) 24년 조에, “구씨와 한 마음이 아닌 자는 저 흰 물과 같다.[所不與舅氏同心者 有如白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양백준(楊伯峻)은 주석에서 “흰 물과 같다는 것은 저 강과 같다는 뜻이니, 즉 강의 신께서 내려다본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142어찌 풍당(馮唐)처럼 늙겠습니까마는 : 한 문제(漢文帝) 때 풍당(馮唐)은

친 사람으로 의심하였습니다.<sup>143</sup> 듣기로 제공(諸公)이 어진 사람을 예우하는 정성은 황량한 들까지 미치지 않으나, 오직 상국께서 인재를 아끼는 마음은 족히 비부(鄙夫)를 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득 글로써 구하며 감히 사정을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우러러 생각건대 상공 합하(閣下)께서는 충성으로 나라를 지키시며 젊은 나이에 전형(銓衡)을 맡으셨습니다. 상서로운 구름과 길한 별은 곧장 일월과 더불어 빛나고, 깊은 숲과 거대한 골짜기에 우뚝한 용호(龍虎)의 자태이십니다. 부귀가 과연 몸에 이르렀으니 문장은 그 여사(餘事)일 뿐이고, 선비들이 다투어 문하에 출입하고자 하니 사람들이 감히 그 도량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한형주(韓荊州)와 교분을 맺는 것은 일찍이 기대하지도 못했는데,<sup>144</sup> 구양자(歐陽子) 같은 분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sup>145</sup> 산공(山

---

늙은 나이로 중낭서장(中郎署長)을 거쳐 겨우 거기도위(車騎都尉)에 이르르고 말았다. 무제(武帝) 때에 다시 현량(賢良)으로 천거되었으나, 이미 90여 세나 되어 벼슬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고사가 있다. 《史記 卷102 馮唐列傳》

- 143 문지기를…의심하였습니다 : 한유(韓愈)가 지은 <시대리평사왕군묘지명(試大理評事王君墓誌銘)>은 왕적(王適)이라는 사람의 살아 있을 적 기이한 행적을 그린 작품이다. 왕적은 책읽기를 좋아하고 포부가 남달랐다. 그런데 벼슬을 구하기 위해 정치가나 귀족들을 찾아다녔으나, 그들은 자신들을 추종하며 부드러운 말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자들을 좋아할 뿐 정직하고 솔직한 말을 하는 왕적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한 번 왕적을 면회한 뒤로는 문지기에게 분부하여 문전박대하도록 했다고 한다.
- 144 한형주(韓荊州)와…못했는데 : 이백(李白)이 형주 자사 한조종(韓朝宗)에게 준 편지인 <여한형주서(與韓荊州書)>에 “생전에 만호후에 봉해지기보다는 오직 한번 한 형주를 만나는 것이 소원이다.[生不用封萬戶侯 但願一識韓荊州]”라고 하였다.
- 145 구양자(歐陽子)…있겠습니까 : 구양자는 송나라 때의 문장가이자 정치가인 구양수(歐陽脩)를 말한다. 구양수는 인재를 천거하여 임용되

公)이 인재를 살피 선발하자<sup>146</sup> 안석(安石)이 조정에 나아갔습니다.<sup>147</sup> 나라는 기둥과 주춧돌 같은 신하가 필요하며 국가는 덕망이 높은 사람에 의지하니, 누구나 손뼉을 치면서 나아가려 할 것이고 누가 신을 신고 떠나가고자 하겠습니까. 문창성(文昌星)이 멀리 팔좌(八座)에 빛나니 천자(天子)는 <자허부(子虛賦)>를 읊조리고,<sup>148</sup> 지위와 명망은 아득히 삼태(三台)를 압도하니 심부름꾼도

---

도록 하였는데, 소순(蘇洵) 같은 경우는 <상구양내한서(上歐陽內翰書)>와 같은 간알문(干謁文)을 올렸다. 이후 구양수는 소순의 글 22편을 재상 한기(韓琦)에게 보였고, 한기가 그 글을 보고 소순을 추천하여 비서성 교서랑(祕書省校書郎)에 임명한 일이 있었다. 《宋史 卷443 蘇洵傳》

- 146 산공(山公)이…선발하자 : 산공(山公)은 진대(晉代)의 어진 재상 산도(山濤)를 가리키는데, 그가 이부 상서(吏部尙書)로 있으면서 인물을 선발할 적에 각각 제목을 붙여 상주(上奏)하여 임금의 재가를 받아서 공정하게 등용했다고 한다. 《晉書 卷43 山濤列傳》
- 147 안석(安石)이 조정에 나아갔습니다 : 안석은 동진(東晉)의 명신(名臣) 사안(謝安)이다. 사안은 40여 세까지 20여 년을 동산(東山)에서 은거하며 조정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는데, 당시 사람들이 “안석이 나오려 하지 않으니 장차 이 창생을 어찌할꼬.”라고 탄식했다고 한다. 40세에 환온(桓溫)의 부름을 받고 출사(出仕)하여 사마(司馬), 사도(司徒) 등을 역임하였고, 태부(太傅)에 추증되었다. 《晉書 卷79 謝安列傳》
- 148 문창성(文昌星)이…읊조리고 : 문창성(文昌星)은 하늘 위에서 인간의 문운(文運)을 주관한다는 별이름인데, 여기서는 이 편지의 상대방인 이조 판서의 문재(文才)를 가리킨다. 팔좌(八座)는 조정의 여덟 가지 고위 관직을 말하는데, 조선 시대에는 의정부의 좌참찬·우참찬, 육조판서(六曹判書),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을 이른다.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자허부(子虛賦)>를 읽고는, “짐이 이러한 사람과 시대를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라고 하였는데 촉(蜀) 땅 출신 양득의(楊得意)가 자신의 고향 사람 사마상여가 이 부를 지었다고 하자, 무제가 놀라며 사마상여를 불러 보았다고 한다. 《史記 卷117 司馬相如傳》



모두 군실(君實)의 이름을 알 정도입니다.<sup>149</sup> 그래서 소생과 같은 떠돌이도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것이 끊임없이 탄식하면서 애걸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구원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귀신을 통해서도 임금을 볼 길이 없기에<sup>150</sup> 모래를 삶고 얼음에 새기는 것을 공교로움으로 삼았습니다.<sup>151</sup>

굽은 길과 곁길<sup>152</sup>을 통해 어찌 조정에 간청할 방법이 없겠습

- 
- 149 지위와…정도입니다 : 삼태(三台)는 별 이름으로 삼정승을 비유한다. 군실(君實)은 북송의 정치가 사마광(司馬光)을 가리킨다. 사마광이 낙양에 독락원(獨樂園)이라는 정원을 꾸미고 <독락원기(獨樂園記)>를 지었는데, 소식(蘇軾)이 이 기문을 읽고 <사마군실독락원(司馬君實獨樂園)>이라는 시를 지어 사마광의 인품을 그렸다. 그 가운데 “아이들도 군실을 외우고 심부름꾼도 사마를 알고 있네.[兒童誦君實 走卒知司馬]”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이조 판서의 명망을 미천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 150 그러나…없기에 : 임금을 만나기 어려움을 비유한 말이다. 전국 시대 소진(蘇秦)이 초(楚)나라에 가서 3개월이 지나서야 초왕을 만나게 되었다. 이야기를 마치고 초나라를 떠나려고 하자, 초왕이 곧장 떠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소진이 말하기를 “초나라의 음식은 옥(玉)보다 귀하고 뿔감은 계수나무보다 귀하며, 또 알자(謁者)를 만나기는 귀신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왕을 만나기는 천제(天帝)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지금 신으로 하여금 이곳에 남아 옥을 먹고 계수나무를 때며 귀신을 통해서 천제를 만나라 한다면 해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戰國策 楚策三》
- 151 모래를…삼았습니다 : 도(道)에 뜻을 두거나 마음을 밝히지 않고서 문장을 짓는 데에만 골몰한다면 모래를 찌서 죽을 만드는 것처럼 수고롭기만 하고, 경박한 문장으로 세속을 현혹시킨다 해도 무익하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자신을 천거하기 위해 이렇듯 문장을 조탁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쓰였다. 황정견(黃庭堅)의 <송왕랑(送王郎)>이란 시에 “모래를 찌서 죽을 쑤어도 끝내 배부르지 않고, 얼음에 문장을 새겨도 끝내 헛되이 공교로울 뿐이네.[炊沙作糜終不飽 鑊冰文章費工巧]”라고 한 데서 차용한 표현이다.
- 152 굽은 길과 곁길 : 정도(正道)가 아닌 부정한 방법을 말한다.

니까마는, 어깨를 수긋이 하고 아침하며 웃는 것은 여름에 밭에 서 일하는 것보다 괴로운 것을 어찌하겠습니까.<sup>153</sup> 세 차례 글을 올려 스스로 뵈낸 것<sup>154</sup>에 대해 선유(先儒)는 혹 비난하기도 했지만, 한 번 밭을 옮기는 적은 수고로움으로도 구하지 않는 일을 군자가 어찌 차마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저와 같은 사람은 묵묵히 처벌을 기다린 지 7년 남짓이나 되었으니, 쫓겨난 처지에서 기용되어 다시 제수하는 것은 한 고을이면 충분합니다. 예전에는 벼슬이 없으면 서로 위로하였는데,<sup>155</sup> 이제는 처신할 곳을 잃어도 누가 가련하게 여기겠습니까. 재주는 한 푼의 가치도 못되는데 팔두(八斗)의 문장<sup>156</sup>은 어디에 쓰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어진 이를 존경하는 뜻으로 노인을 대접하는 어진 마음을 미루어서, 증삼(曾參)이 벼슬한 것은 오직 부모를 봉양

153 어깨를...어찌하겠습니까 : 옛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비굴한 태도를 취하며 아침하는 것은 여름날 피약별 아래 밭일을 하는 것보다 괴롭다는 뜻이다. 《孟子 滕文公上》

154 세...것 : 한유(韓愈)는 정원(貞元) 8년(729)에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한 뒤, 9년부터 11년까지 3년 동안 이부(吏部)에서 보이는 박학굉사과(博學宏詞科)에 연거푸 응시하였으나 번번이 낙방하고서, 당시 재상인 조경(趙憬)·가담(賈耽)·노매(盧邁)에게 구관(求官)의 편지를 올렸다. 이를 광범삼서(光範三書)라고 하는데 <상재상서(上宰相書)>, <후십구일부상서(後十九日復上書)>, <후십구일부상서(後十九日復上書)>를 가리킨다.

155 예전에는...위로하였는데 : 《맹자》 등문공하(滕文公下)에 “옛사람은 석 달 동안 섬기는 임금이 없으면 위문하였다.[古之人三月無君則弔]”고 한 공명의(公明儀)의 말이 실려 있다.

156 팔두(八斗)의 문장 : 뛰어난 시문(詩文)의 재능을 뜻한다. 사영운(謝靈運)이 일찍이 말하기를 “천하의 글재주가 모두 합쳐서 한 섬이라면, 조자건 혼자 여덟 말을 차지하고, 내가 한 말을 얻었고, 천하 사람들이 나머지 한 말을 나누어 가졌다.[天下才有一石 曹子建獨占八斗 我得一斗 天下共分一斗]”라고 한 데서 유래한다. 《釋常談 八斗之才》

하기 위해서였다고 여겨 주고,<sup>157</sup> 모의(毛義)가 임명장을 기쁘게 받은 데에는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아 주십시오.<sup>158</sup> 특별히 말단 관직이라도 의망하여 집안을 온전히 하려는 바람을 이루어 주신다면, 재화를 허비하지 않으면서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며<sup>159</sup> 보답하기 어려운 하늘에 공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자(母子)로 하여금 영화롭게 한다면 이는 모두 우리 공께서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살아서는 그 명을 따르고 죽음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대저 낳아 주고 살려 주시는 은혜는 죽은 자를 살리고 뼈에 살이 붙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으니, 장차 뼈가 가루가 되고 머리털을 죄다 뽑아 보답해야 할진데 어찌 다만 머리를 쪼개고 심장을 가르기만 할 뿐이겠습니까.

---

157 증삼(曾參)이…주고 : 증삼이 일찍이 이르기를 “내가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한 벼슬은 삼부의 녹봉만 받았어도 마음이 즐거웠는데, 그 뒤에 한 벼슬은 삼천 종의 녹봉을 받았으나 부모에게 봉양할 수 없어 내 마음이 슬펐다.”라고 하였다. 《莊子 寓言》

158 모의(毛義)가…주십시오 : 동한(東漢)의 효자 모의(毛義)가 집안이 빈한하여 모친을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다가 수령의 임명장을 받게 되자 한없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모친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관직을 그만두고서 다시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던 고사가 전한다. 《東觀漢記 毛義》

159 재화를…것이며 : 《논어》 요왈편(堯曰篇)에서 자장(子張)이 정치에 종사하는 방법을 물었을 때 공자가 대답한 여러 덕목 가운데 “군자는 은혜롭되 허비하지 않는다.[君子惠而不費]”고 하였다. 백성이 이익으로 여기는 바에 따라 이익을 주는 것이야말로 재화를 허비하지 않고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는 뜻이다.

장계부원군<sup>160</sup>에게 올리는 글 황지천(黃芝川)이다.

上長溪啓 黃芝川

저는 유학에 뜻을 두었기에 책 상자를 매고 천리 먼 길을 찾아가, 한 대청에서 예를 올리고 다행히도 선생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걸음은 삼가 우(禹)임금을 본받고자 하였으나, 얼굴색은 먼저 소무(小巫)처럼 겁이 났습니다.<sup>161</sup> 우러러 생각건대 선생의 덕은 재주보다 앞서고 실제의 모습은 명성 이상을 안고 있습니다. 구슬로 장식한 관(冠)에 노을로 만든 패옥을 차고 일찍이 만경의 봉래도(蓬萊島)<sup>162</sup>에 노닐었고, 화려한 붓에 금빛 종이로 오래도

160 장계부원군(長溪府院君) : 지천(芝川) 황정옥(黃廷彧, 1532~1607)을 가리킨다.

161 걸음은…났습니다 : 우임금은 황정옥의 학식을 비유하고 소무는 조찬한 자신을 비유한다. 《법언(法言)》〈중려(重黎)〉에 “옛날에 사씨(妣氏) 성의 대우(大禹)가 수토를 다스리다 너무 고생한 탓에 걸음걸이가 불편하였는데, 무당들이 걸음을 걸을 때 우임금의 걸음을 따라했다.[昔者妣氏治水 而巫步多禹]”라는 말이 있다. 무당들이 우임금의 걸음을 따라 한 이유에 대해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수토를 다스리고 산천을 건너느라 다리가 아팠기 때문에 걸을 때 절뚝거렸던 것이다. 우임금은 성인이기 때문에 귀신, 맹수, 벌과 전갈, 독사가 해를 끼칠 수 없으니, 속무(俗巫)들이 많이 우임금의 걸음걸이를 흉내내었다.”라고 하였다. 무당들이 우임금의 걸음을 흉내내면 귀신 등과 같은 존재로부터 위해를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원문의 ‘小巫’는 작은 무당을 말하는데, 능력이 작은 사람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서 기가 질려 위축되는 것을 ‘소무견대무(小巫見大巫)’라 하여 작은 무당이 큰 무당을 만나는 경우에 비긴다. 《三國志 卷53 吳書 張紘傳》

162 봉래도(蓬萊島) : 본래 동해(東海) 가운데 있다는 전설 속의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인 봉래산(蓬萊山)을 가리킨다. 후에 봉래도는 임금이

록 영주(瀛洲) 십팔학사(十八學士)의 반열<sup>163</sup>에 계셨습니다. 경연에서 삼황 오제(三皇五帝)의 글을 강(講)하니 자주 옥빛 용안(龍顏)에 봄 기운 감돌았고, 군막(軍幕)에서 운음을 전파하니 용명한 군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루 관직을 역임하며 2품에 오르도록 한결같은 충절로 두 조정을 섬기며, 때마침 변무(辨誣)<sup>164</sup>를 맡을 적임자를 얻기 어려웠으나 훌륭한 신하가 있어 사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높은 산을 오르고 깊은 골짜기를 건너며 어찌 말을 몰아 내달리기를 꺼려했겠습니까. 아침에 명을 받고 저녁에 얼음을 마시며<sup>165</sup> 산 넘고 물 건너는 수고를 마다하지

계신 궁궐이나 홍문관, 예문관과 같은 문한(文翰)을 담당하는 관서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163 영주(瀛洲) 십팔학사(十八學士)의 반열 : 당나라 태종(太宗)이 인재들을 모두 끌어모으고는 문학관(文學館)을 설치하여 두여회(杜如晦), 방현령(房玄齡) 등 18명의 문관을 임명하고 학사로 삼은 다음, 한가한 날이면 그들과 더불어 정사를 논의하고 학문을 토론하였다. 그리고 염입본(閻立本)에게 명하여 이들의 화상(畫像)을 그리게 하고 지량(褚亮)에게 찬(贊)을 짓게 해서 이를 문학관 안에 걸어 놓고는 이들을 '십팔학사(十八學士)'라고 불렀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몹시 흠모하여 '영주에 올랐다.[登瀛洲]'라고 하였다. 《新唐書 卷102 褚亮列傳》
- 164 변무(辨誣) : 이른바 종계변무(宗系辨誣)를 가리킨다. 이성계가 고려의 권신(權臣) 이인임(李仁任)의 후손이라고 명(明)나라의 《태조실록(太祖實錄)》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잘못 기록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황정욱은 선조 17년(1584) 종계(宗系) 및 악명(惡名) 변무 주청사(辨誣奏請使)로 다녀오게 된다. 당시 황제는 조선의 주본(奏本)을 의례적으로 예부(禮部)에 내려주기만 하였는데, 황정욱은 예부로 직접 찾아가서 장서(長書)를 갖추어 올렸다. 예부 상서(禮部尙書) 우신행(于愼行)이 잘 지은 글이라 찬탄하고서 황정욱이 올린 글을 주본 안에 전부 기재하니, 황제가 《대명회전》의 잘못된 내용을 간정(刊正)하도록 명했다고 한다. 《鶴谷集 卷8 長溪府院君芝川黃公神道碑銘》
- 165 아침에...마시며 : 사신(使臣)의 명을 받고서 두렵고 조심스러운 마

않았습니다. 충심으로 사명(使命)을 받들어 하얗게 센 머리로 주청(奏請)하였으니, 길에는 사신의 행차를 끊임없이 보내 그저 꺾문에서 부르짖으며 청을 부지런히 올리고, 물도 입에 넣지 않으니 마침내 죽음을 각오하는 정성에 감동하였습니다. 백일(白日)을 가린 짙은 구름이 활짝 열려 정성이 구천(九天)에 통하니, 우리나라의 칠혹같은 밤을 열어서 만고에 인륜을 밝혔습니다. 따스한 봄이 초목에게까지 미쳤으니 온나라의 경사만이 아니었고, 그동안 비바람이 원릉(園陵)에 스산하였지만 응당 하늘에 계신 영령께서도 감격하실 것입니다. 기린각(麒麟閣)<sup>166</sup>의 제일인(第一人)으로 초상을 그려 걸었으니 과연 구척의 장신이었고, 대려(帶礪)의 무궁한 맹서<sup>167</sup>를 입었으니 어찌 10대의 자손을 용서하는데 그치겠습니까.<sup>168</sup> 때문에 국가와 흥망을 함께하였으니 종묘사

음으로 외국으로 가는 것을 이른다. 《장자(莊子)》〈인간세(人間世)〉의 초(楚)나라 대부 섭공자고(葉公子高)의 말에 “지금 제가 아침에 왕의 명령을 받고 저녀에는 얼음물을 마셔대니, 저는 아무래도 몸속에 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166 기린각(麒麟閣) : 한(漢)나라 때의 전각(殿閣) 이름으로, 미양궁(未央宮) 안에 있었으며, 무제(武帝) 때 사냥을 나가 기린을 잡은 기념으로 건물을 짓고서 붙인 이름이다. 선제(宣帝) 때 흉노(匈奴)가 투항한 일로 인하여 곽광(霍光), 장안세(張安世), 한증(韓增), 조충국(趙充國), 위상(魏相), 병길(丙吉), 두연년(杜延年), 유덕(劉德), 양구하(梁丘賀), 소망지(蕭望之), 소무(蘇武) 등 11인의 화상을 이곳에 걸어 그들의 공적을 드러냈다. 《漢書 卷54 蘇建傳 蘇武》
- 167 대려(帶礪)의 무궁한 맹서 : 공신을 책봉하는 맹서이다. 《사기(史記)》〈고조공신후자연표(高祖功臣侯者年表)〉에 나온다. 한(漢)나라 고조(高祖) 유방(劉邦)이 개국공신들을 책봉하면서 “황하가 물이 말라 띠처럼 되고 태산이 다 닳아 솟돌처럼 되더라도, 그대들의 나라가 영원히 존속되어 후손에게 전해지리라. [使河如帶 泰山若厲 國家永寧 爰及苗裔]”라고 하였다.
- 168 어찌…그치겠습니까 : 영구히 후손이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준다는 뜻

직의 안위에 관계된 것이 참으로 당연하였습니다.

십나라 오랑캐가 세력을 믿고 침범하자 국가의 군대가 패배하고 말았고, 어가(御駕)가 파월(播越)할 때 간곡한 옥음(玉音)을 받들었습니다.<sup>169</sup> 아들이 많으면 걱정도 많기에 두 왕자가 아직 어린 것을 근심하였으나, 당시 도와줄 사람도 적어 동행한 사람은 두 신하뿐이었습니다.<sup>170</sup>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서토(西土)<sup>171</sup>는 아득하다. 그대는 떠나도록 하라, 저 북림(北林)<sup>172</sup>이 울창하다.”라고 하실 때, 존망이 달린 위급한 순간에도 군신과 부자의 의리를 지켰습니다. 마침내 칼날을 무릅쓰고 도망 다니며 몇 번이나 두려움으로 머리를 감싸쥐는 수모를 겪었고, 도망 중

---

이다. 춘추 시대 진(晉)나라의 기해(祁奚)가 선자(宣子)를 만나 속향(叔向)의 공과를 논하면서 “오히려 10대의 자손을 용서해 줄 수 있다.[猶將十世宥之]”라고 하였다. 《春秋左氏傳 襄公21年》

169 어가(御駕)가…받들었습니다 :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는 황정욱에게 명하여 왕자인 순화군(順和君)과 임해군(臨海君)을 호위하여 관동(關東)으로 피난하도록 하였다. 황정욱은 그곳에서 전국에 격문을 돌려 의병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경주(慶州)에 있던 왜적이 바다를 따라 올라오므로, 함경도 회령(會寧)으로 다시 거처를 옮겼다. 그런데 국경인(鞠景仁)의 모반으로 왕자와 함께 포로가 되어 안변의 토굴에 감금되었다가, 가등청정(加藤清正)에 의해 서울에 억류된다. 왜적이 철수하기에 이르자 왕자 일행은 행재소로 돌려보내지게 되었다. 《鶴谷集 卷8 長溪府院君芝川黃公神道碑銘》

170 당시…신하뿐이었습니다 : 선조 25년 4월 30일 새벽에 선조가 도성을 떠나 몽진할 때, 황정욱과 그의 아들 황혁(黃赫)이 자청하여 순화군을 받들고 호위하여 관동으로 피난하였다. 《宣祖實錄 25年 4月 30日》

171 서토(西土) : 선조가 파천한 의주(義州)를 가리킨다.

172 북림(北林) : 관동에서 왕자 일행이 다시 옮긴 함경도 회령을 가리킨다. 관동에 있다가 왜적이 북상하자 함경도가 험조(險阻)한 까닭에 다시 옮긴 것이다.

에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으나 매양 다리 살을 베서 바치려는 정성은 간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망측한 무리<sup>173</sup>에게 당할 줄 알았겠습니까. 아, 도성에서 오랑캐들이 난리를 일으키니 형세를 되돌리기 어려웠고, 한 배에서 적국을 만났으니<sup>174</sup> 어찌할 계책이 없었습니다. 수자리 군졸로 유배된 것을 원망하여 흉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패주(溟洲 평안도)의 군졸과는 달랐고, 나물 반찬과 거친 밥 때문에 분개하여 역모를 일으켰으니 경원(溟源)의 군사<sup>175</sup>보다도 심했습니다. 왕자부터 선생에 이르기까지 마침내 속박 당한 채 적에게 넘겨졌으나, 머리가 백 번 잘린다 해도 차마 다른 나라의 신하가 되겠으며, 저 양모(兩鬢)

173 망측한 무리 : 국경인(鞠景仁)을 가리킨다. 국경인은 본래 전주(全州) 사람으로 죄를 지어 회령에 귀양온 자인데, 후에 회령부 아전으로 들어가 치부(致富)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임해군과 순화군 및 김귀영(金貴榮)과 황정옥 부자 그리고 수령 등을 결박하여 왜장 가등청정에게 넘겨 주었다. 그 후 남쪽으로 퇴각하는 가등청정에게서 회령 수비의 책임을 위임받았으나 북평사(北評事) 정문부(鄭文孚)의 격문(檄文)을 받은 유생 신세준(申世俊)과 오윤적(吳允迪) 등에게 붙잡혀 참살당하였다. 《練藝室記述 卷15 宣祖朝故事本末》

174 한…만났으니 : 같은 나라 사람으로서 국경인의 모반을 만난 것을 가리킨다. 전국 시대에 위 무후(魏武侯)가 배를 타고 서하(西河)의 중류(中流)를 내려가면서 오기(吳起)를 돌아보고 산천이 험고한 것이 위나라의 보배라고 자랑하였다. 이에 오기는 “덕에 달려 있지 산천의 험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 임금이 덕을 닦지 않으면 배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적국이 될 것이다.[在德不在險 若君不修德 舟中之人 盡爲敵國也]”라고 대답하였다. 《史記 卷65 孫子吳起列傳》

175 경원(溟源)의 군사 : 경원은 중국 감숙성(甘肅省)에 있는 지명이다. 당 덕종(唐德宗) 건중(建中) 4년(783)에 경원 절도사(溟源節度使) 요영언(姚令言)의 부대가 변진(藩鎭) 이희열(李希烈)의 도발을 진압하고 포상을 기대하며 돌아왔으나 푸대접을 받게 되자 불만이 폭발하여 덕종(德宗)을 몰아내고 주자(朱泚, 742~784)를 옹립하여 대진황제(大皇帝)라고 칭하였다. 《舊唐書 卷127 姚令言列傳》



를 늘어뜨린 분이 실로 우리 임금의 아들이셨습니다.<sup>176</sup> 그리하여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적을 막아 지켰고, 곧 포로가 되었으나 태연하게 여기셨습니다. 죽음을 가벼이 받아들이기를 이와 같이 한 것은 상산(常山)의 혀<sup>177</sup>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자를 소중하게 모셔야 했기에 마땅히 승상으로서 몸을 온전히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아를 산속에 숨겼던 저구(柸臼)와는 비록 행적이 달랐지만,<sup>178</sup> 어찌 말 위에서 아두(阿斗)를 안고 있던 자룡(子龍)의

176 저...아들이셨습니다 : 황정욱 등이 받들어 모셨던 분은 왕자인 순화군과 임해군이었다는 뜻이다. 양모(兩髦)는 고대에 아동의 두발 형식으로 머리털을 두 쪽으로 나누어 아래로 드리워서 눈썹까지 이르도록 한 것이다. 《시경》 〈용풍(鄘風)〉의 〈백주(柏舟)〉는 중국 위(衛)나라 태자 공백(共伯)의 처(妻) 공강(共姜)이 남편 사후에 재가(再嫁)하지 않고 절조를 지킨 내용을 읊은 시인데, “저 다팔머리 드리운 분이시여, 실로 나의 짝이시니, 죽을지언정 맹세코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으리라. [髮彼兩髦 實維我儀 之死矢靡他]”라고 하였다. ‘우리 임금의 아들’은 황정욱이 순화군 등 왕자에게 충성을 다 바치겠다는 뜻이다. 옛날 우(禹) 임금이 죽자 백성들이 ‘우리 임금님의 아들[吾君之子]’이라고 하면서 계(啓)에게 귀의하였다는 고사에서 나온 것이다. 《孟子 萬章上》

177 상산(常山)의 혀 : 당(唐)나라 안녹산(安祿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상산 태수(常山太守)로 있던 안고경(顏杲卿)이 그에게 대적하다가 중과부적으로 포로가 되었는데, 혀가 끊어질 때까지 안녹산을 준열하게 꾸짖다가 죽은 고사가 있다. 《新唐書 卷192 忠義列傳 顏杲卿》

178 고아를...달랐지만 : 저구는 춘추 시대 진(晉)나라 대부 조삭(趙朔)의 문객인 공손저구(公孫柸臼)를 가리킨다. 진나라의 간신 도안가(屠岸賈)가 조돈(趙盾)을 무함하여 조씨 가문을 하나도 남김없이 도륙하였다. 조돈의 아들 조삭의 처가 유복자(遺腹子) 조무(趙武)를 낳아 궁중(宮中)에 숨겨 놓았는데, 도안가가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조삭의 벗 정영(程嬰)과 문객 공손저구는 조무가 결국 붙잡힐 줄로 여기고서, 정영은 조무의 양육을 담당하고, 공손저구는 조무 대신 다른 아이를 안고 달아나 죽기로 계책을 세웠다. 공손저구가 가짜 아이를 데리고 산중에 들어가서 숨어 있자, 정영이 고발하여 가짜 아

충심만 못하겠습니까.<sup>179</sup> 제상(堤上)은 형세상 함께 돌아올 수 없었지만 한 척의 배를 띄워 사지(死地)로 달려갔고,<sup>180</sup> 운장(雲長)은 두 형수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 다섯 관문을 벗어나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sup>181</sup> 진(秦)나라의 뜰에서 까마귀의 머리가 문득 희어지고,<sup>182</sup> 함곡관(函谷關)에서 닭이 벌써 울자 탈출할 수 있었습니

---

이와 공손저구를 죽였다. 이로 인해 조무가 무사하였고, 뒤에 장성 하여 원수를 갚았다. 《史記 卷43권 趙世家》

- 179 어찌…못하겠습니까 : 아두는 삼국시대 촉(蜀)의 후주(後主) 유선(劉禪)의 어릴 때 이름이다. 자룡은 촉의 명장 조운(趙雲)의 자(字)이다. 유비(劉備)가 조조(曹操)의 추격을 받고 당양(當陽)의 장판(長坂)에서 처자를 버리고 달아날 때, 조자룡은 자신이 어린 유선을 안고 유비의 모친을 보호하여 위난을 면하였다. 《三國志 卷36 蜀書 趙雲傳》
- 180 제상(堤上)은…달려갔고 : 신라 때의 충신으로 《삼국사기》에는 박제상(朴堤上)이라 하고, 《삼국유사》에서는 김제상(金堤上)이라 하였다. 눌지왕(訥祗王)의 아우 미사흔(未斯欣)이 일본에 30년 동안 볼모로 억류되어 있었는데, 박제상이 일본에 거짓으로 투항하여 기지를 발휘해 미사흔은 신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일본의 추격을 늦추었다. 결국 일이 발각되어 박제상은 참혹한 죽음을 당하였다. 《三國史記 卷45 朴堤上列傳》
- 181 운장(雲長)은…있었습니다 : 운장은 관우(關羽)의 자(字)이다. 하비성(下邳城)에서 조조(曹操)에게 투항한 관우는 유비(劉備)의 두 부인인 감부인(甘夫人)과 미부인(糜夫人)을 보호하며 허창(許昌)에 억류되어 있었다. 관우는 유비가 하북(河北)의 원소(袁紹)에게 의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조에게 작별을 고하며 두 부인을 모시고 유비를 찾아 떠난다. 하북으로 가는 동안 다섯 관문을 지나며 태수와 장수 등 6명을 베었는데, 나관중(羅貫中)의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 따르면 동령관(東嶺關)을 지나다 공수(孔秀)를 베고 낙양성(洛陽城)을 지날 때 한복(韓福)과 맹단(孟坦)을 베고 기수관(沂水關)을 지날 때 변희(卞喜)를 죽이고 영양(滎陽)을 지날 때 태수 왕식(王植)을 베고 황하(黃河)를 건널 때 진기(秦琪)를 베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 182 진(秦)나라의…희어지고 : 볼모로 붙잡혀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전국 시대 연 태자(燕太子) 단(丹)이 일찍이

다.<sup>183</sup> 조벽(趙璧)을 온전히 보전해서 동쪽으로 달아나 끝내 범과 이리의 요구에서 벗어났고,<sup>184</sup> 한(漢)나라 부절을 가지고 남으로 돌아온 것은 일찍이 양을 치던 객이었습니다.<sup>185</sup>

그리하여 공사(公私)의 은의(恩義)를 온전히 하여 국가의 군친(君親)에 보답하였습니다. 속국(屬國)을 맡은 공로에 상을 내린

---

진(秦)나라에 볼모로 가 있을 때, 진왕(秦王)이 그에게 예우(禮遇)를 하지 않으므로, 그가 진왕에게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진왕이 들어주지 않고서 속여 말하기를 “까마귀의 머리가 희어지고 말의 머리에 뿔이 나면 보내 주겠다.[烏頭白馬生角 乃可許耳]”라고 했던 데서 온 말이다. 《燕丹子 卷上》

183 함곡관(函谷關)에서…있었습니다 : 제(齊)나라의 맹상군(孟嘗君)이 진(秦)나라에 구금당했다가 도망치는데, 함곡관(函谷關)에 이르렀으나 닭이 울기 전에는 관문을 열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다행히 식객(食客) 가운데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 진나라를 탈출하여 자신의 고향인 제(齊)나라로 돌아온 고사가 있다. 《史記 卷75 孟嘗君列傳》

184 조벽(趙璧)을…벗어났고 : 전국 시대 조(趙)나라 혜문왕(惠文王)이 초(楚)나라의 화씨벽(和氏璧)을 얻었는데, 진(秦)나라 소왕(昭王)이 이를 빼앗고자 하여 거짓으로 15개의 고을과 바꾸자고 하였다. 이에 조나라에서는 인상여(蔣相如)가 화씨벽을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인상여는 진나라에서 성을 주지 않으면 화씨벽을 깨뜨리겠다고 위협하여 마침내 화씨벽을 온전하게 다시 조나라로 가지고 돌아왔다. 《史記 卷81 廉頗藺相如列傳》

185 한(漢)나라…객이었습니다 : 한나라 때 소무(蘇武)는 중랑장(中郎將)으로 있다가 흉노(匈奴)에 사신으로 갔는데, 흉노의 선우(單于)가 갖은 협박을 하였어도 끝내 굴하지 않은 채 큰 구덩이 속에 갇혀서 눈을 먹고 가죽을 씹으면서 지냈으며, 자신이 억류당한 사실을 편지로 써서 기러기의 발에 매어 한나라로 부쳤다. 그 뒤에 다시 북해(北海)로 옮겨져서 양을 치며 지냈는데, 그때까지도 한나라의 부절(符節)을 그대로 잡고 있었다. 그 뒤 갖은 고생을 하면서 19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소제(昭帝) 때에 흉노와 화친하게 되면서 비로소 한나라로 돌아오게 되었다. 《漢書 卷54 蘇武傳》

것도 일찍이 부끄러워했으니,<sup>186</sup> 원수의 뜰에서 굴복하였다고 죄를 논한 것은 또한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sup>187</sup> 이미 가족 위의 털을 붙여 헤쳐 잘못을 책하고,<sup>188</sup> 또 돌을 떨어뜨리는 행태가 모두 그러했습니다.<sup>189</sup> 그러나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하늘이 알고

186 속국(屬國)을…부끄러워했으니 : 속국은 전속국(典屬國)의 준 말로 한나라 때 소수민족과 왕래 사무를 담당하던 벼슬이다. 선조 24년(1591) 통신사 황윤길(黃允吉)의 밀장(密狀)에서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중국을 침범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고하였다. 당시 병조 판서로 있던 황정옥은 이 일을 중국 조정에 주달하고 군비를 갖추도록 아뢰었다. 얼마 뒤 탄핵을 당해 파직되어 물러나 있었는데, 황제가 왜정(倭情)을 주달한 것을 가상히 여겨 은(銀)과 비단을 선물로 내려 주었다. 이에 선조가 황정옥의 봉작(封爵)을 복구시켜 주고 그 동안 받지 못한 상록(常祿)을 제급(題給)하였으나, 황정옥은 차자를 올려 극력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鶴谷集 卷8 長溪府院君芝川黃公神道碑銘》

187 원수의…아니겠습니까 : 황정옥은 왜적에게 잡혀 있으면서 조정에 급히 장계할 때는 진짜와 가짜 두 장본(狀本)을 사용하여, 가짜는 왜적에게 보이고 진짜는 행재소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장본을 전달하는 군교(軍校)가 겁을 먹고 진짜와 가짜의 두 장본을 모두 창의사(倡義使)에게 바쳤고, 창의사는 또 체찰사(體察使)에게 전달하였다. 체찰사는 다시 가짜 장본 하나만을 베껴 조정에 보고함으로써 황정옥이 의리를 망각하였다고 죄를 청하였다. 당시 가짜 서장(書狀)만을 본 선조는, 행재소에 보내면서도 신(臣)이라고 일컫지 않고, 적추(賊酋)를 관백 전하라고 일컬어 신하된 의리가 없다고 하였다. 황정옥은 이 일로 삼사(三司)의 탄핵을 받아 결국 길주(吉州)에 유배된다. 《鶴谷集 卷8 長溪府院君芝川黃公神道碑銘》《宣祖實錄 26年 3月 21日》

188 이미…책하고 : 남의 잘못을 억지로 찾아내 비난한다는 뜻이다.

189 또…그러했습니다 : 곤경에 빠진 사람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뜻이다. 한유(韓愈)의 《유자후묘지명(柳子厚墓志銘)》에 “함정에 빠져도 한 번 손을 뻗어 구해주려 하지도 않고 도리어 밀어넣고, 게다가 돌을 떨어뜨리는 행태가 모두 그러하다.[落陷穽 不一引手救 反擠之 又下石焉者 皆是也]”라고 하였다.

신령이 알고 있습니다. 한(漢)나라 왕실에서 공신을 대한 것처럼 비록 지극히 박하게 하지 않더라도,<sup>190</sup> 당(唐)나라 조정에서는 이 백(李白)을 책한 것이 어찌 그리 심했습니까.<sup>191</sup> 끝내 그 억울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마침내 애매한 법에 연좌되었습니다. 거짓말도 세 사람이 짜면 범을 만들어낼 수 있고,<sup>192</sup> 새의 깃이라도 쌓이고 쌓이면 배를 가라앉힐 수 있는 법입니다.<sup>193</sup> 황무지로 유배 가서 귀매(鬼魅)를 막느라<sup>194</sup> 천여 리의 길을 넘었고, 잘못을 반성하고 죄를 떠맡은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임금의 마음이 지극히 공정하여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천도(天道)가 12년을 돌면 회복될 것입니다. 도성 아래에서 처벌을 기다린 지 지금 10년이 되었으니, 천일(天日 임금)을 보게 될 날이 아침 아니면 저녁

190 한(漢)나라…않더라도 :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은 공을 세운 제후를 분봉하면서 단서철권(丹書鐵券)을 주어 자손이 죄를 지어도 죄를 면하도록 하였다. 선제(宣帝) 때에 이르러서는 기린각(麒麟閣)에 곽광(霍光), 장안세(張安世), 소무(蘇武) 등 공신 11인의 초상(肖像)을 걸어 두었다.

191 당(唐)나라…심했습니까 : 당(唐)나라 이백(李白)이 일찍이 영왕(永王) 이린(李璣)의 막좌(幕佐)가 되었는데, 안녹산의 난 당시에 이린이 새로 즉위한 황제 숙종(肅宗)과 대립하다가 싸움에 패하였다. 이백은 이 일에 연좌되어 처형당하게 되었으나, 곽자의(郭子儀)의 주선 덕분에 야랑(夜郎) 땅에 귀양 가는 것으로 그쳤다. 《新唐書 卷202 文藝中李白》

192 거짓말도…있고 : 세 사람이 저자에서 범을 보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사실로 믿게 된다는 뜻으로, 터무니 없는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자꾸 말하면 진실로 믿게 된다는 말이다. 《戰國策 魏策2》

193 새의…법입니다 : 적은 근심이라도 쌓이면 큰 재앙이 됨을 비유하는 말이다. 《淮南子 繆稱訓》

194 귀매(鬼魅)를 막느라 : 먼 변방에 유배를 보냈다는 뜻이다. 옛날 순(舜)임금이 네 흉족(凶族)을 저 멀리 사예(四裔)의 땅으로 내쫓아 이매(魍魎)를 막게 하였다고 전한다. 《史記 卷1 五帝本紀》

으로 가까워졌습니다. 혹여 한 마디 말로 임금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탕척(蕩潑)도 바랄 수 있으니, 백세의 논의를 기다리지 않고도 시비가 결정될 것입니다. 더구나 나이가 높아짐에 따라 덕망은 더 빛날 것이니, 저 비방과 칭찬도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대개 우리들이 이전에도 들은 일이 없으니 문장은 곧 여기(餘技)라는 것이고,<sup>195</sup> 바람을 받고 풀이 쓰러지듯 덕문(德門)에 나아가 일취월장할 것입니다. 선생이 두 경서를 강설할 때를 헤아려<sup>196</sup> 선비들은 문하에 출입하고자 하고, 도덕으로 한 세상을 압도하니 안중에 어찌 온전한 소가 보이겠습니까.<sup>197</sup>

195 대개…것이고 : 일반적으로 덕행(德行)과 문장(文章)의 가치를 비교할 때 덕행을 위에 두지만, 문장 역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포박자(抱朴子)》 외편(外篇) 상박(尙博)에서 “문장과 덕행은 열 자[尺]와 한 길[丈]의 차이와 같은 것이니, 덕행에 대해 문장을 여기라고 하는 예는 전대에도 들은 일이 없다.[且夫文章之與德行猶十尺之與一丈 謂之餘事 未之前聞]”라고 하여 문장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고를 표명하였다.

196 선생이…헤아려 : 두 경전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이 구절은 한유(韓愈)의 문장을 차용한 것이므로 《시경》과 《춘추좌씨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한유의 《시선생묘명(施先生墓銘)》에 “태학의 학생으로서 《시경》의 모전(毛傳)과 정전(鄭箋), 《춘추좌씨전》을 배우는 자들은 모두 그 제자였고, 귀족의 자제들도 선생이 두 경전을 강의하는 때를 헤아려 태학에 와서 바짝 붙어서 학생들의 아래에 앉았는데 끝까지 듣지 못할 것을 걱정할 정도였다.[太學生習毛鄭詩春秋左氏傳者 皆其弟子 貴遊之子弟 時先生之說二經 來太學 帖帖坐諸生下 恐不卒得聞]”라고 하였다.

197 안중에…보이겠습니까 : 본래 기예가 신묘한 경지에 나아가 원하는 대로 솜씨를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도덕이 천리에 부합하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쓰였다. 《장자》〈양생주(養生主)〉에 “처음에 내가 소를 잡을 적에는 모든 것이 소로만 보였는데, 삼년 뒤에는 온전한 소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始臣之解牛之時 所見無非牛者 三年之後 未嘗見全牛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삼가 생각건대 저의 배움은 통달하지 못하고 어리석어 도를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입으로 밥만 먹을 줄 아는데 어찌 밥주머니라는 기룡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바지할 말도 없으니 응당 꼭두각시에 비할 만합니다. 어려서 부친을 잃고 삼천(三遷)의 가르침<sup>198</sup>을 받았으나, 장성해서는 책 한 권 가르쳐 줄 스승도 없었습니다. 성학(聖學)의 길은 오랫동안 인멸되어 적적한 채 수백 년이 지났고, 흐르는 세월은 잡을 수 없어 훌쩍 사십구 년을 보냈습니다.<sup>199</sup> 골짜기의 표범이 무늬를 이루려 해도 남산의 안개비가 없는 것이 한스럽고,<sup>200</sup> 수레바퀴에 갇힌 물고기처럼 거품도 없어 동해의 파도를 부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sup>201</sup> 다행히 마을을 택해 인후한 풍속에 의지하게 되었으니,<sup>202</sup> 골짜기를 나와

198 삼천(三遷)의 가르침 : 맹자(孟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 묘지 근처에서 시장으로 옮기고 또 다시 학교 부근으로 옮겼다는 고사를 말한다. 《列女傳 母儀 鄒孟軻之母傳》

199 훌쩍…보냈습니다 : 자신의 지난 삶이 잘못되었다는 한탄이다. 춘추시대 위(衛)나라의 대부 거백옥(蘧伯玉)이 “나이 50에 지난 49년의 잘못됨을 알았다.[年五十而知四十九年非]”라고 자탄한 데서 온 말이다. 《淮南子 原道訓》

200 골짜기의…한스럽고 : 《열녀전(列女傳)》〈도답자처(陶答子妻)〉에 “첩이 들으니 남산에 검은 표범이 있는데 안개비 속에서 이레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산 위에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털을 운택하게 하여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였다. 이 남산현표(南山玄豹)의 고사는 벼슬하지 않고 은거하는 것을 비유하는데, 안개비는 몸을 숨길 만한 장소나 재력 또는 남의 도움이 없다는 뜻이다.

201 수레바퀴에…있었습니다 : 곤경에 처해 다급해진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뜻이다. 《장자(莊子)》〈외물(外物)〉에, 수레바퀴 자국[涸轍]에 고인 얇은 웅덩이에서 혈떡이는 붕어가 약간의 물만 부어 주면 살 수 있었다고 하소연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202 다행히…되었으니 : 《논어》〈이인(里仁)〉에 “마을의 풍속이 인후함이

교목으로 옮긴 것이 기쁩니다.<sup>203</sup> 지난번 얼굴을 뵈 수 있어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으니, 학해(學海)의 파도를 타고서 우리 도(道)가 평탄하고 넓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의론과 곧은 논변은 장대하여 귀신에게 질정해도 의심이 없어, 마치 큰 골짜기와 깊은 숲에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용호(龍虎)와 같았습니다.<sup>204</sup> 마침내 우물에서 세차게 뛰어올라 바다를 바라볼 수 있었으니, 이는 동시(東施)가 서시(西施)의 찡그린 모습을 흉내낸 격이었습니다.<sup>205</sup> 흙다리 밑에서 황석공(黃石公)을 스승으로 모신 것이 다

아름다우니, 가려서 인후한 곳에 살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롭다 하겠는가. [里仁爲美 擇不處仁 焉得知]”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황정옥과 같은 마을에서 살게 되었다는 뜻으로 쓰였다.

- 203 골짜기를…기쁩니다 : 《시경(詩經)》 소아(小雅) 벌목(伐木)에 “피꼬리가 깊은 골에서 나와서 교목(喬木)으로 옮긴다.” 하였다. 맹자(孟子)는 이 시를 인용하여 이적(夷狄)의 사람으로 중국의 학문을 배우는데 비유하여, “중국의 학문으로 이적(夷狄)을 변화시킨다.” 하였다. 여기서는 황정옥의 감화를 받게 된 것이 기쁘다는 뜻으로 쓰였다.
- 204 마치…같았습니다 : 용호가 천변만화하여 예측할 수 없듯이 황정옥의 학문과 도량이 위대한 인물임을 표현한 것이다. 한유(韓愈)가 지은 <전중소감마군묘지명(殿中少監馬君墓誌銘)>에서 마계조(馬繼祖)의 조부인 북평왕(北平王) 마수(馬燧)를 만났을 때의 감회를 표현하며 “그 당시 북정에서 북평왕을 뵈었는데, 마치 높은 산과 깊은 숲, 광대한 골짜기에서 용과 범이 변화하여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규모가 커다란 분이였다. [當是時 見王於北亭 猶高山深林鉅谷 龍虎變化不測 傑魁人也]”라고 하였다.
- 205 이는…격이었습니다 : 동시(東施)는 서시(西施)의 동쪽 이웃에 살았다는 추녀(醜女)를 가리킨다. 《장자(莊子)》 <천운(天運)>에 “서시(西施)가 가슴이 아파서 얼굴을 찡그리자, 그 마을에 사는 추한 사람이 보고 아름답게 여겨 역시 가슴을 움켜쥐고 얼굴을 찡그리니, 그 마을에 사는 부자는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가난한 자는 처자를 거느리고 달아나 버렸다.” 하였다. 여기서는 자신의 분수를 고려하지 않고 남을 흉내내는 데서 그친 것처럼 황정옥의 학문을 따라잡기 어렵다



행이기는 합니다만,<sup>206</sup> 계양(揭陽)에서 조덕(趙德)을 가르친 것 또한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sup>207</sup>

삼가 바라건대 스승의 가르침은 사심이 없다고 여기고 이 아이는 가르칠 만하다고 여겨 주십시오.<sup>208</sup> 노둔한 말이 절룩거리는 것을 붙잡히 여겨 천리마가 되고자 하는 성심에 부응해 주시고, 명령(螟蛉)이 입을 뱉어먹거리는 것을 가엾게 여겨 때로 나를 닮으라는 축원을 내려 주신다면<sup>209</sup> 바위도 옥으로 다듬을 수 있고 모

는 뜻이다.

- 206 훗다리…합니다만 : 장량(張良)이 박랑사(博浪沙)에서 진 시황제(秦始皇帝)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한 후 이름을 고치고 하비(下邳)로 달아나 살았는데, 다리 위에서 황석공(黃石公)이라는 노인을 만나 《태공병법(太公兵法)》을 전수받았다. 《史記 卷55 留侯世家》
- 207 계양(揭陽)에서…것입니다 : 계양은 당나라 때 조주(潮州)에 속한 현(縣)으로 한유가 좌천된 곳이다. 그곳에 조덕(趙德)이라는 향공진사(鄉貢進士)가 있었는데 한유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한유가 조주 자사(潮州刺史)에서 원주(袁州)로 옮겨갈 때 〈별조자(別趙子)〉라는 시를 남겼고, 소식(蘇軾)의 〈조주한문공묘비(潮州韓文公廟碑)〉에 “처음에 조주 사람들은 학문을 할 줄 몰랐는데, 공이 진사 조덕에게 명하여 스승이 되게 하니, 이로부터 조주 선비들이 모두 문학과 행실에 독실하여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뻗어나갔다.”라고 하였다.
- 208 이…주십시오 : 장량이 황석공을 만나 일부러 떨어뜨린 신발을 다리 밑에서 주워다가 공손히 무릎 꿇고 앉아서 신겨 주자, 황석공이 “이 아이는 가르쳐 줄 만하다.[孺子可教矣]”라고 하고는 장량에게 병서(兵書)를 내주었다.
- 209 명령(螟蛉)이…주신다면 : 명령(螟蛉)은 뽕나무 벌레를 말한다. 옛사람들은 나나니벌[蜾蠃]이 뽕나무 벌레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로 삼아 길러서 크면 나나니벌이 된다고 믿었다. 《시경(詩經)》〈소아(小雅) 소완(小宛)〉에 “언덕 가운데의 콩을 백성이 거두어 가는 것처럼, 명령의 새끼를 나나니벌이 업어 데리고 가서 키우니, 그대 아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방향으로 닮게 하라.[中原有菽 庶民采之 螟蛉有子 蜾蠃負之 教誨爾子 式穀似之]”라고 하였다. 또 양웅(揚雄)의 《법언(法言)》〈학행(學行)〉에 따르면 뽕나무 벌레의 유충을 나나니벌이 가져다

래도 구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걸출한 문인들과 함께 날아올라 문원(文苑)에서 부리와 발톱을 과시하며,<sup>210</sup> 갈고 닦아 깊은 경지에 이르러 문단에서 솜씨를 떨칠 것입니다. 삼가 마땅히 선생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책상 앞에서 배움을 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러르고 뒤를 살펴도 훌륭한 덕을 헤아릴 수 없겠지만, 빈손으로 갔다가 채워서 돌아와 전습(傳習)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대 조부 능성 수령께서는 내 부친의 친구이니<sup>211</sup> 乃祖綾城吾父執  
 풍류와 기절이 사람들의 이목을 경동시켰다 들었네 風流氣節動人聞  
 다행히 어진 손자 있어 가업을 계승했으니 承家賴有賢孫子  
 세상에선 고문에 뛰어나다 다투어들 칭찬하네 名世爭稱善古文  
 거칠고 게을러 불초한 이 몸 부끄러우니 自愧疏慵無肖似  
 문자를 가지고 잘못 치켜세우지 말게나 休將文字謬推尊  
 그저 양옹의 집에서 적막으로 소일하고 있으니 唯應寂寞楊雄宅

나무 구멍 속에 넣어두고 “날 닮아라. 날 닮아라.[類我類我]”라고 기원하면, 뽕나무 벌레가 나나니벌을 닮는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현주 자신을 뽕나무 벌레에 비유하며 황정욱에게 가르침을 청한다는 말이다.

210 걸출한…과시하며 : 이 구절은 소식의 <조주한문공묘비(潮州韓文公廟碑)>에서 “이백(李白)과 두보(杜甫)를 따라 함께 날아오르니, 장적(張籍)과 황보식(皇甫湜) 등은 땀 흘리며 달리다가 넘어져 가물가물 사라지는 햇빛처럼 바랄 수가 없었네.[追逐李杜參翱翔 汗流籍湜走且僵 滅沒倒景不可望]”라고 한 것과 한유의 <증취립지평사(贈崔立之評事)>에서 “그대는 당시 명성 독차지하며 부리와 발톱으로 기세등등했고, 나는 막 진지(陣地)를 떠 말안장 정돈했었지.[子時專場誇犄距 余始張軍嚴鞞]”라고 한 표현을 차용한 것이다.

211 그대의…친구이니 : 조찬한의 조부는 조옥(趙玉)으로 능성 현령(綾城縣令)을 지냈다. 황정욱의 부친은 황열(黃悅)이다.

때로 찾아와 글자를 묻거든 함께 논해 보세나<sup>212</sup> 問字時來可與論  
-위는 장계의 답시이다.-

---

212 그저…보세나 : 양웅의 집에서 적막으로 소일하고 있다는 것은 양웅이 일찍이 조용히 들어앉아서 《태현경(太玄經)》을 초(草)하고 있을 때, 후자가 그에게 도가 아직 깊이 못해서 곤궁한 게 아니냐고 조롱하자, 양웅이 〈해조(解嘲)〉를 지어 해명하기를 “오직 적막함만이 덕을 지키는 집이다. … 나는 묵묵히 홀로 나의 태현을 지킬 뿐이다.[惟寂惟寞 守德之宅 … 默然獨守吾太玄]”라고 했던 데서 온 말이고, 글자를 물으러 간다는 것은 양웅이 본디 고문(古文), 기자(奇字)를 많이 알았으므로 유흠(劉歆)의 아들 유분(劉棻)이 항상 그에게 가서 글자를 배우곤 했던 데서 온 말이다. 《漢書 卷87 揚雄傳》

좌의정께서 의원을 보내 준 데 대해 사례하는 글 운방이다.

謝左台遣醫啓 尹昉

귀가 상해 들리지 않으니 어찌 남들과 교제할 생각을 품었겠습니까마는, 어두운 귀가 뚫려 듣게 됨은 실로 의원을 보내 주신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마른 가지에 다시 꽃이 폈으니 은혜에 감격하여 거듭 결초보은하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저는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노둔한 탓에 병이 많아 늙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계시던 고향을 떠나 천리 밖 외로운 몸이 되었고, 임진년(1592, 선조25)과 정유년(1597)에 난리를 만나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기한으로 곤궁을 겪은 나머지 정신과 기혈은 속에서 소모되었고, 질병으로 생사를 오가는 사이에 신체와 기운은 밖에서 쇠해졌습니다. 한 이부(韓吏部)처럼 치아는 늙기도 전에 빠졌고,<sup>213</sup> 반안인(潘安仁)처럼 귀밑머리는 장성한 때

---

213 한…빠졌고 : 한 이부(韓吏部)는 당나라 때 이부 시랑(吏部侍郎)을 지낸 한유(韓愈)를 가리킨다. 한유가 지은 시 가운데 <낙치(落齒)>라는 작품은 이가 매년 하나씩 빠져 점점 노쇠해져가는 감회를 표현한 것인데, 첫 부분에 “지난 해에 이 하나가 빠지고 올해도 이 하나가 빠졌네. 어느새 예닐곱 개가 빠져버리더니 이가 빠지는 기세 멈추지 않네. 남은 것 마저도 모두 흔들리니 모두 빠지고서야 그만두리라.[去年落一牙 今年落一齒 俄然落六七 落勢殊未已 餘存皆動搖 盡落應始止]”라고 하였다. 한유는 일찍부터 신체의 노쇠한 현상을 보였는데 조카 한노성(韓老成)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내 나이 사십도 되지 않았는데 눈은 어둡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며 치아는 흔들리는구나.”라고 하였다. 《韓昌黎集 卷23 祭十二郎文》

인데도 이미 백발이 되었습니다.<sup>214</sup> 중년에 병에 걸린 것도 까닭이 있으며, 지난 해에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이 고을<sup>215</sup>에 온 뒤로는 옛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찾아갈 때는 비록 청안(靑眼)이 언뜻 따듯했지만,<sup>216</sup> 철령(鐵嶺)으로부터 40여 리 떨어진 이곳에서 백발로 추위에 떠는 일을 실컷 겪었습니다. 이미 풍토가 남쪽과 같지 않은데다 매서운 추위는 실로 북쪽보다 배나 더합니다. 거센 바람과 혹설은 여름과 겨울을 가릴 것이 없고, 두꺼운 이불에 무거운 갓옷을 입고 지낸 것은 날짜와 달 수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노쇠함이 두로(杜老 두보(杜甫))보다 심하더니 갑자기 지난달부터 귀머거리가 되었고,<sup>217</sup> 병세가 추현(鄒賢 맹자(孟子))과는 달라서

---

214 반안인(潘安仁)처럼…되었습니다 : 반안인은 진(晉)나라 때 시인 반악(潘岳)을 말한다. 그는 젊어서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는데 중년에 백발이 되었다 한다. 그가 지은 〈추흥부(秋興賦)〉 서문에 “내 나이 서른둘에 흰 머리털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였다. 《文選 卷13》

215 이 고을 : 이어지는 다음 구절을 통해 유추하면 ‘이 고을’은 회양(淮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조찬한은 1625년(인조3)에 회양 부사(淮陽府使)로 부임하였다.

216 금강산…따뜻했지만 : 청안(靑眼)은 진(晉)나라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인 완적(阮籍)이 예교에 얽매인 속된 선비가 찾아오면 흰 눈[白眼]을 뜨고, 맑은 고사(高士)가 찾아오면 청안(靑眼)을 뜨고 대했다고 한 데서 온 말로, 본래 반가운 사람을 대하는 뜻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회양 부사로 부임하면서 금강산을 유람할 기회를 얻었음을 기쁘게 생각하였다는 의미로 쓰였다. 조찬한은 금강산을 유람한 데 대한 감회를 〈유풍악부(遊楓岳賦)〉에 남겼다.

217 노쇠함이…되었고 : 두보는 당나라 대력(大曆) 2년(767) 가을 기주(夔州)에서 귀가 멀어 잘 들리지 않는 자신의 신세를 〈이롱(耳聾)〉이라는 시로 표현하였는데, “아직 살아서 심산에 은거한 갈관자와 같고, 또한 속세를 탄식한 녹피공 같은 신세. 눈은 언제 어두워질지 모르나, 귀는 지난달부터 들리지 않게 되었네. 원숭이 슬피 울어도 가

목전에 낫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sup>218</sup> 여염과 저자도 인적 없는 적막한 물가로 변하였고,<sup>219</sup> 혼백과 정신도 흐릿한 지경에 돌아간 듯하였습니다.<sup>220</sup> 책상 앞에 앉아 몸을 흔들면 어린 자식이 시를 읊는 줄을 알 수 있고, 이마를 찌푸리며 옷깃을 당기면 늙은 아내가 병세를 묻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맹렬한 우레가 괴룡(乖龍)이 숨은 기둥을 내리쳐도 포고(布鼓)를 지고 가다 수모를 당한 일이 나 닮고,<sup>221</sup> 놀란 파도가 해를 씻기는 연못에서 넘실거리려도

을의 눈물 흘릴 수 없고, 참새가 쓸쓸히 지저귀나 저물녘 슬픔도 사라졌네. 산의 나뭇잎이 누렇게 떨어짐에 놀라, 아이 불러 북풍이 불어오는지 물어보네. [生年鷗冠子 歎世鹿皮翁 眼復幾時暗 耳從前月龔 猿鳴秋淚缺 雀噪晚愁空 黃落驚山樹 呼兒問朔風]”라고 하였다.

- 218 병세가…어렵습니다 : 맹자가 제나라 왕에게 조회하려고 하였는데, 왕이 병을 칭탁하여 맹자를 불렀다. 이에 맹자도 병을 이유로 사양하였다. 다음 날 맹자가 다른 사람의 조문을 나서려 하자 제자인 공손추(公孫丑)가 “어제 병으로 사양하시었으니 오늘 조문함은 불가할 듯합니다.” 하니, 맹자가 “어제의 병이 오늘 나았으니, 어찌 조문하지 않겠는가. [昔疾 今日愈 如之何不弔]”라고 하여, 왕에게 자신이 병이 나지 않았음을 알리고 왕에게 현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자극하고자 하였다. 《孟子 公孫丑下》
- 219 여염과…변하였고 : 사람들로 붐비는 마을과 저잣거리도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인적 없는 적막한 낙시터처럼 변했다는 뜻이다. 한유(韓愈)의 〈답최입지서(答崔立之書)〉에 “만약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넓고 한가로운 들에서 밭이나 갈고, 적막한 물가에서 낚시나 하면 될 것이다. [若都不可得, 猶將耕於寬閑之野, 釣於寂寞之濱.]”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220 혼백과…듯하였습니다 : 혼백과 정신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역으로 들어간 듯하다는 뜻이다. 초(楚)나라 양왕(襄王)이 송옥(宋玉)과 더불어 운몽(雲夢)의 물가에서 노닐고, 꿈에 신녀(神女)를 만났는데 송옥이 그 꿈에 대해 묻자, “황혼 무렵에 정신이 황홀해지면서 기쁜 일이 있는 것 같았소. [晡夕之後 精神恍惚 若有所喜]”라고 하였다. 이선(李善)의 주(注)에 “황홀은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뜻이다. [恍惚 不自覺知之意]”라고 하였으니, 명하여 정신이 없는 모양을 말한다.
- 221 맹렬한…없고 : 천둥이 내리쳐도 귀가 멀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222 고요한 물에 움직임이 가라앉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 세상 어느 곳에서 한 쌍의 새가 시끄럽게 지저귀는지 알 수 없으며,<sup>223</sup> 이제 구름 너머에서는 구포(九苞)<sup>224</sup>가 우는 소리<sup>225</sup>도 그쳤습니다.

뜻이다. 괴룡(飛龍)은 죄를 범한 용이라는 뜻이다. 괴룡이 비를 내리는 일에 고달파서 온갖 장소에 숨는데 사람의 몸속이나 고목·기둥 속에도 숨는다고 한다. 그러면 뇌신(雷神)이 괴룡이 숨은 곳에 우리를 내리쳐서 찾아낸다고 전한다. 《茅亭客話》 포고(布鼓)는 배로 만들어서 소리가 나지 않는 북을 가리킨다. 한(漢)나라 때의 직신(直臣) 왕준(王尊)이 일찍이 동평왕(東平王)의 상(相)이 되었을 때, 동평왕의 태부(太傅)가 왕의 앞에서 《시경(詩經)》 〈상서(相鼠)〉를 강설(講說)하자, 왕준이 태부에게 말하기를, “베로 메운 북 가지고 뇌문을 지나지 말라. [毋持布鼓過雷門]”고 하였다. 뇌문은 곧 회계(會稽)의 성문(城門)을 가리키는데, 뇌문 위에 걸린 북은 소리가 커서 낙양(洛陽)에까지 들릴 정도이므로, 소리가 나지 않는 베로 메운 북을 가지고 그 앞을 지나다가는 오히려 조소와 모욕만 당할 뿐이라는 뜻이다. 《漢書 卷76 王尊傳》

- 222 놀란…넘실겨려도 : 바다에서 큰 파도가 일렁이는 모습을 뜻한다. 옛날 동해 밖에 감수(甘水)라는 곳에 희화(羲和)의 나라가 있었는데, 희화가 감연(甘淵)에서 해를 씻었다고 전한다. 《山海經 大荒東經》
- 223 인간…없으며 : 원문의 “쌍조(雙鳥)”는 한유(韓愈)의 〈쌍조시(雙鳥詩)〉에 나오는 두 마리의 새를 가리킨다. 쌍조에 대해서는 이백(李白)과 두보(杜甫), 불가(佛家)와 도가(道家), 한유 자신과 맹교(孟郊)를 가리킨다는 설이 있는데, 조찬한의 이 글에서는 문맥상 불가와 도가를 암시할 가능성이 높다. 한유 시의 대략에서는 “해외(海外)로부터 온 한 쌍의 새가 삼 천 년 동안 서로 못 만나 올지 않을 때는 온갖 새들이 잘 울었다. 그런데 이 한 쌍의 새가 서로 만나 쉬지 않고 울고부터는 모든 조화가 파괴되어 버렸다. 이에 천공(天公)이 이 새들을 잡아 각기 다른 곳에 가두자 그제야 온갖 벌레와 새들이 울기 시작했으며, 한 쌍의 새는 소리 죽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살면서, 아침에 천 마리 용을 먹고 저녁에 천 마리 소를 먹고 아침에 황하의 물을 다 마시고 저녁에 바닷물을 다 마셨다. 그리하여 삼 천 년 뒤에 다시 일어나 올 날을 기다린다.” 하였다.
- 224 구포(九苞) : 봉황의 아홉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봉황이란 뜻으로 쓰였다.
- 225 우는 소리 : 원문은 ‘歲嘖’이다. 석인본(石印本)에 근거하여 ‘歲’를

오(吳)나라 장강에서 팔월에 말 달리는 큰 파도소리도 장엄한 줄 몰랐고,<sup>226</sup> 진(晉)나라 땅에서 삼경(三更)에 바람 소리 학 울음 소리가 엄습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sup>227</sup> 진(秦)나라 서울에 닭이 울면 새벽을 알리는 북소리에 백관이 조회에 참여하리라 상상하고, 초(楚)나라 산협에서 원숭이 울음 세 번 들어도 가을의 눈물을 흘릴 줄도 몰랐습니다.<sup>228</sup> 옥 피리를 한창 부는데도 용은 창해(滄海)의

‘嗷’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 226 오(吳)나라…몰랐고 : 팔월에 강물이 불어나도 파도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뜻이다. 춘추 시대 초(楚)나라 오자서(伍子胥)는 부형(父兄)이 초왕에게 살해되고 단신으로 오나라에 도망한 뒤 재상에 제수되었다. 오자서는 여러 차례 오왕 부차(夫差)에게 복수할 것을 간하였으나, 부차는 이를 따르지 않고 도리어 참언을 믿고 오자서에게 칼을 내려 자결을 명하였다. 부차는 오자서의 시신을 말가죽으로 만든 술 부대에 담아 강에 던지게 하였는데, 그 뒤로 오자서의 영혼이 전당강(錢塘江)의 물귀신이 되어 더욱 거세게 파도를 일으키는가 하면, 가끔 소거(素車)와 백마(白馬)를 타고 물결 위에 나타나곤 하였다고 전한다. 《太平廣記 卷29 伍子胥》
- 227 진(晉)나라…않았습니다 : 한밤중에 바라 소리나 학 울음 소리를 들어도 놀라지 않았다는 뜻이다. 동진(東晉) 효무제(孝武帝) 때 진왕(秦王) 부견(苻堅)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사현(謝玄)이 이끄는 군대에 대패하고 달아났는데, 부견의 군졸들이 바람 소리나 학 울음소리를 듣고도 왕사(王師)가 쫓아오는 것으로 오인하여 혼비백산했다고 한다. 《晉書 卷79 謝玄列傳》
- 228 초(楚)나라…몰랐습니다 : 장강(長江) 삼협(三峽) 가운데 무협(巫峽)은 원숭이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데, 《수경주(水經注)》 권34 <강수(江水)>에 인용된 <어자가(魚者歌)>에 “파동 삼협에 무협이 긴데, 원숭이 울음 세 마디에 눈물이 옷깃을 적시네. [巴東三峽巫峽長 猿鳴三聲淚沾裳]”라고 하였듯이 원숭이 울음을 세 번 들으면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린다고 전한다. 두보의 <추흥팔수(秋興八首)> 가운데 두 번째 시에 “잔나비 울음소리 세 번에 진실로 눈물을 흘리고, 사명을 받들어 팔월의 뗏목을 타지는 못하였네. [聽猿實下三聲淚 奉使虛隨八月槎]”라고 하였고, <이롱(耳聾)>이라는 시에서는 “원숭이 슬피 울어도



구슬을 잃었고,<sup>229</sup> 붉은 입술만 부질없이 열리되 하늘에는 흰 구름이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sup>230</sup> 모든 악기가 연주를 멈춘 듯하고 온갖 말소리가 고요해진 듯하여, 가을날 깃버들 같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제 자신을 슬퍼하며 성대(聖代)에 버려진 물건이 됨을 달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국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의원을 보내 치료해 주실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의서(醫書)에서 치료법을 찾지 않았음에도 벌써 증세에 꼭 맞는 솜씨에 놀랐고, 신묘한 처방을 시험하자마자 곧 고향(膏肓)의 신<sup>231</sup>을 울게 하였습니다. 360개의 경혈(經穴)을 소통시켜 머리에서 일어난 새로운 사기(邪氣)를 몰아내고, 수·화·금·목의 기를 도와 이전의 총명이 신문(腎門)에서 돌아왔습니다.<sup>232</sup> 누가 말을 하면 곧장 알아들으니 서른 날

---

가을의 눈물 흘릴 수 없고, 참새가 쓸쓸히 지저귀나 저물녘 슬픔도 사라졌네. [猿鳴秋淚缺 雀噪晚愁空]”라고 하였다.

- 229 옥…잃었고 : 옥 피리의 음악을 연주하는데도 들을 수 없으므로, 용은 잠에서 깨지 않아 구슬을 훔쳐가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장자》〈열어구(列禦寇)에 어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귀한 구슬을 얻자, 그의 부친이 “천금의 가치가 나가는 구슬은 반드시 깊은 못속에 숨어 사는 흑룡의 턱 밑에 있는 법이다. 네가 그 구슬을 손에 넣은 것은 필시 그 용이 잠든 때를 만났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흑룡이 깨어났더라면 너는 가루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230 붉은…멈추었습니다 : 붉은 입술은 노래를 부르는 미녀의 입술을 가리킨다. 진(秦)나라의 명창 진청(秦靑)이 노래를 부르자, 가던 구름도 그 소리를 듣고 멈춰 섰다는 향알행운(響盪行雲)의 이야기가 《열자(列子)》〈탕문(湯問)에 전한다. 여기서는 미녀의 노랫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늘의 구름만 가던 길을 멈춘 모습이 보인다는 뜻이다.
- 231 고향(膏肓)의 신 : 춘추시대 진 경공(晉景公)의 꿈에 질병이 두 아이로 변하여 고향(膏肓) 사이에 숨어 치료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병마(病魔)나 병귀(病鬼)를 가리킨다. 《春秋左氏傳 成公10年》
- 232 이전의…돌아왔습니다 : 한의학에서 귀는 신장(腎臟)의 상태가 곁에

동안 막혔던 귓병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들리지 않는 소리가 없어 이정(二精)<sup>233</sup>이 처음처럼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처마 끝 참새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니 석달 동안 고기 맛을 잊을 정도이고, 평상 밑의 개미 싸우는 소리도 분간할 정도인데 어찌 우레 같은 모기떼 소리를 논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3만 여일도 채 안 되는데, 귀먹어서부터 밝아질 때까지는 일천 백 겁(劫)의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운무를 헤치고 청천을 보아도 이 시원함을 비유하기에 충분치 않고, 날개가 돌아 선계(仙界)에 올라가야지만이 어찌 신선이라 칭하겠습니까.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의원을 불러올 수 없었고, 침술이 아니었으면 귀가 열려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질병에 걸린 저로 하여금 사람들 사이에 나란히 설 수 있게 하였으니, 이는 모두 우리 공께서 자신을 미루어 남을 이해하는 의리 덕분이었습니다. 감히 정이(鼎耳)<sup>234</sup>의 가

드러나는 부위라고 한다. 《의림촬요(醫林撮要)》 권7 이병문(耳病門)에 “귀는 신(腎)에 속하며 신이 주관하는 것은 정(精)이다. 신이 고르고 정기(精氣)가 충분하면 귀가 잘 들린다. 지나친 과로로 기혈(氣血)이 상할 때 풍사(風邪)가 허한 틈을 타서 침범하면 정이 허탈되고 신이 고달퍼져서 어지럽고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233 이정(二精) : 이정은 귀의 정기를 뜻한다.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에 의하면 뱃속의 태아가 6개월 쯤에 여섯 가지의 감각 기관 즉 육정(六精)이 열리는데, “첫째는 눈의 정기요, 둘째는 귀의 정기요, 셋째는 코의 정기요, 넷째는 입이고 다섯째는 혀요, 여섯째는 뜻의 정기이다. [眼爲一精 耳爲二精 鼻爲三精 口是四精 舌是五精 意爲六精]”라고 하였다.

234 정이(鼎耳) : 《서경》 〈고종용일(高宗彤日)〉에 은(殷)나라 고종(高宗)이 성탕(成湯)을 제사 지낼 때 꿩이 날아와 솔귀에 앉아 우는 변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신하인 조기(祖己)는 왕에게 잘못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이를 불러들였다고 여기고, 바른 도로 왕을 간하여 덕을 닦을 것을 권면하였다. 이에 대해 공안국(孔安國)은

르침을 받들고 대감께 도를 듣고 깨닫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쇠잔한 작은 고을을 소생시킴에 비록 눈앞의 부스럼을 고치는 데는 어둡지만,<sup>235</sup> 훗날 나라의 병폐를 제거함에 혹여 약룡(藥籠) 속의 약품<sup>236</sup>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귀로 잘 듣지 못해서 일어난 이변[耳不聰之異]”이라고 하였다. 역시 《서경》〈홍범(洪範)〉에는 제왕으로서 수신(修身)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모(貌), 언(言), 시(視), 청(聽), 사(思)가 거론되는데, 이것들이 잘못 되면 변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수신의 일부로서 들음이 밝지 않으면 귀가 어두워진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다.

- 235 비록…어둡지만 : 당장의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는 능력이 모자란다는 뜻의 겸사이다. 당(唐)나라 섭이중(聶夷中)의 시 〈상전가(傷田家)〉에 “2월에 새 고치실을 팔고, 5월이면 새 곡식을 파네. 눈앞의 부스럼은 고치지만, 심장의 살을 외려 깎아 내누나.[二月賣新絲 五月糶新穀 醫得眼前瘡 剜卻心頭肉]”라고 한 표현을 반대로 인용한 것이다.
- 236 약룡(藥籠) 속의 약품 : 꼭 필요한 인재를 뜻한다. 당(唐)나라 원담(元澹)이 적인걸(狄仁傑)에게 말하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일은 비유하자면 부유한 집에서 온갖 것을 비축하였다가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것과 같으니, 포와 고기 따위를 비축하여 맛난 음식을 공급하고 온갖 약초를 마련하여 질병에 대비합니다. 문하(門下)에는 맛있는 음식에 해당하는 자들이 많으니, 소인을 하나의 약석(藥石)으로 비축하기를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라고 하자, 적인걸이 “자네는 바로 나의 약룡 안의 약물이니,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고사에서 온 말이다. 《新唐書 卷200 儒學列傳下 元澹》

## 서序

### 구학정<sup>237</sup> 서

#### 龜鶴亭序

비옥한 호남의 동쪽으로<sup>238</sup> 조령(鳥嶺) 왼편 고을에서 어느 강물 인들 내달리지 않겠으며 모든 산들은 둘러싸고 있다. 천 개의 봉우리가 북에서 내려와 백두대간의 시원한 기운을 가져다 주고, 모든 강물은 동으로 흐르며 이 나라의 영기(靈氣)를 품고 있다. 하늘의 별이 감싸고 땅의 형세가 얽혀 있어, 신선의 경역이라 일컬어지는 곳에서 과연 구학정을 볼 수 있다. 이곳은 신령이 비호하는 곳이니 실로 하늘이 만들어낸 것이다. 두 봉우리는 마주 솟아 싸

---

237 구학정 : 백암(栢巖) 김복(金玘)이 영주(榮州)에 건립한 정자로, 이수광(李睟光), 유성룡(柳成龍), 차천로(車天輅), 이식(李植) 등이 찬시(讚詩)를 남겼다. 구학정은 서구대(西龜臺) 아래에 건립한 정자로 동구대(東龜臺)를 마주보고, 남으로 학가산(鶴駕山)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으므로, 구대(龜臺)와 학가(鶴駕)의 이름을 따서 구학정이라 하였다.

238 비옥한 호남의 동쪽으로 : 원문의 ‘國天’은 토지가 비옥하여 물산이 많이 나는 땅으로, 여기서의 호남 지역을 가리킨다. 한(漢)나라 장량(張良)의 말에 “관중은 … 이른바 견고한 성이 천리나 이어진 곳으로 토지가 비옥하고 물산이 풍부한 지역입니다.[夫關中 … 此所謂金城千里 天府之國]”라고 하였다. 《漢書 卷40 張良傳》

우는 호랑이가 웅크린 형상을 만들어내고, 한 줄기 강이 중간을 나누어 꿈틀거리며 가는 용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 준다. 어느 시절에 우(禹)임금은 도끼 휘둘러 깎아지르고 푸른 산봉우리 만들었던가,<sup>239</sup> 그 옛날 진시황의 채찍질에 이 험한 바위들은 빠졌으리라.<sup>240</sup> 소나무 바위는 그림자를 드리워 연꽃 못 속에 반쯤 잠겨 있고, 연못의 배로 허공을 거슬러 오르며 지는 단풍잎 소리를 거꾸로 듣는다. 여울물이 부딪히면 맹렬한 우레소리가 선미에 들끓는 듯하고, 연못물이 깊은 곳에선 가는 솜털 같은 물결도 잠잠해진다. 달빛 퍼져 요대(瑤臺)<sup>241</sup>는 텅 비었고 봄은 무르녹아 비단 병풍 흔들거리니, 사물은 서로 다툼이 없고 물고기 역시 서로를 잊고 의식하지 않는다.<sup>242</sup> 가련하여라, 동남동녀들이여, 바다 저편에

239 어느…만들었던가 : 옛날 도랑과 제방이 정비되지 않아 백성이 수해를 입을 때, 우임금이 용문산(龍門山)을 도끼로 뚫고 이궤(伊闕)의 산을 갈라 수토(水土)를 안정시키자 백성들이 안심하고 물에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 《淮南子 人間訓》

240 그…빠졌으리라 : 진시황의 채찍은 바위를 채찍질하여 옮기던 고사를 말한다. 여기서는 진시황 때의 채찍을 이곳에서 잃어버린 탓에 그 채찍질로 험준한 산세를 만들 수 있었다는 뜻으로 보인다. 진시황은 바다를 건너서 해 돋는 곳을 보고자 하여 돌다리를 놓으려고 하였는데, 마침 신인(神人)이 나타나 바다로 돌을 내몰자 돌들이 저절로 바다로 달려갔다. 돌이 빨리 가지 않자 신인이 돌을 채찍질하니 돌에서 피가 흘렀는데, 지금도 그 돌들은 모두 붉다고 한다. 《藝文類聚 卷79》

241 요대(瑤臺) : 요대는 본래 신선(神仙)이 거주한다는 주옥(珠玉)으로 장식한 화려한 누대(樓臺)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구학정을 가리킨다.

242 물고기…않는다 : 《장자(莊子)》〈대종사(大宗師)〉에 자연의 이법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 “물고기가 큰 강이나 넓은 호수에서 서로를 잊고 헤엄치는 것처럼, 사람은 커다란 도 그 자체에 순응하여 서로의 존재를 잊고 살아간다.[魚相忘乎江湖 人相忘乎道術]”라고 하였다.

는 본래 봉래섬도 없건만, 어부는 어디로 가는가, 인간 세상에 다 시금 도화원이 있거늘. 진실로 속세의 기운을 벗어나 명승의 선경(仙境)에 왕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신선이 사는 곳에 몸을 맡길 수 있겠는가.

정자의 주인은 높은 재주로 속세에 뛰어났으나 억지로 세인을 따랐을 뿐이다. 흰 신발에 황관(黃冠)을 갖추고 남쪽 산기슭에 묻혀 살기를 기약하여, 흥진을 백안시하고 조정의 박봉을 마다하고 돌아왔다. 부귀를 뜯구름처럼 여겨 마악 남가(南柯)의 꿈<sup>243</sup>에서 돌아왔고, 조야(朝野)에 모두 한가한 날이 적으니 북궐(北闕)에 글 올리기도 그만두었다.<sup>244</sup> 그러나 향당(鄉黨)에서 상석에 앉아 공경을 받으니<sup>245</sup> 어찌 한가로이 지내는 흥이 적겠는가. 사람들은 조정에서 높은 지위 기대하나, 자신은 천석(泉石)을 고향(膏肓)으로 삼았다. 이에 영험한 땅을 얻었으니 어찌 평소 신선이 될 연

243 남가(南柯)의 꿈 :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를 이르는 말이다. 당나라 때 순우분(淳于棼)이라는 사람이 오래된 괴목(槐木) 아래서 술에 취한 뒤 괴안국에 들어가 왕의 부마(駙馬)가 되고 30년 동안 남가 태수를 맡아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꿈을 꾸었는데, 깨서 보니 자기 노닐던 곳이 바로 뜰 앞 큰 괴목 아래였고 그곳에 개미굴이 있어 개미들이 드나드는 것이 보였다 한다. 《異聞集 南柯太守傳》

244 조야(朝野)에…그만두었다 : 이 구절은 각각 두보(杜甫)의 〈북정(北征)〉에 “참으로 시대는 곤경을 만나, 조야 모두 한가한 날이 없네. [維時遭艱虞 朝野少暇日]”라고 한 것과 맹호연(孟浩然)의 〈세모귀남산(歲暮歸南山)〉에 “조정에 문장 올리기를 그만두고, 남산의 낡은 집으로 돌아왔네. [北闕休上書 南山歸敝廬]”라고 한 것을 차용한 표현이다. 북궐은 조정을 가리키고, 글을 올린다는 것은 벼슬을 하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한다.

245 그러나…받으니 : 이 구절은 두보의 〈장유(壯遊)〉에 “향당에선 상좌에 앉아 공경을 받지만, 날로 앞으로 살 날이 짧음을 느끼네. [坐深鄉黨敬 日覺死生忙]”라고 한 표현을 차용하였다.

분이 있던 것이 아니겠는가. 정자에 올라 산의 정취를 다 만끽하면 과연 깊이 천기(天機)를 엿볼 수 있으리라. 이미 정자가 튼튼하고도 평탄하니 이처럼 아름답고도 훌륭하다.<sup>246</sup> 겹겹이 구름이 가리고 안개가 안아주니 산신령이 수호하는대로 맡겨두고, 별안간 새가 발돋움하고 꿩이 날아오르니<sup>247</sup> 숲속 정자의 맑고 우아함을 볼 수 있다. 이에 천고 강산의 승경이 마침내는 한 사람이 즐기는 정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쪽의 거북바위<sup>248</sup>가 웅

- 246 이처럼 아름답고도 훌륭하다 : 진(晉)나라 헌문자(獻文子)가 집을 짓자, 장로가 송축하여 이르기를 “아름답다, 우뚝 높음이어! 아름답다, 훌륭함이어! [美哉輪焉 美哉奐焉]” 하였다. ‘운(輪)’은 집이 높고 큰 것을 이르고, ‘환(奐)’은 물건이 많은 것을 이른다. 《禮記 檀弓下》
- 247 별안간…날아오르니 : 이 구절은 중의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새와 꿩을 실경(實景)으로 볼 수도 있고, 기와나 처마 등 지붕의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사조(謝朓)의 〈삼일시화광전곡수연대인응조(三日侍華光殿曲水宴代人應詔)〉 제7수에 화광전의 들보와 지붕을 묘사하여 “조각한 들보는 무지개처럼 뻗었고, 구름에 닿는 기와는 새처럼 발돋움하네. [雕梁虹拖 雲蕙鳥跂]”라고 하였다. 또한〈시경〉 소아(小雅) 〈사간(斯干)〉은 주 선왕(周宣王)이 궁실(宮室)을 낙성한 데 대해 축도(祝禱)하는 시인데, “사람이 몸을 끈게 세워 공경하는 것 같으며, 화살이 끈게 날아가는 것 같으며, 새가 놀라 날개를 펼치는 것 같으며, 꿩이 날아가는 것 같으니, 군자가 올라갈 곳이다. [如跂斯翼 如矢斯棘 如鳥斯革 如翬斯飛 君子攸躋]”라고 하여 궁실을 비유적으로 묘사하였다.
- 248 양쪽의 거북바위 : 서구대(西龜臺)와 동구대(東龜臺)를 가리킨다. 개천을 사이에 두고 양안에 자리잡은 반석(盤石)으로 수십 명이 앉을 수 있다고 한다. 구학정은 서구대 아래에 지었다고 전한다. 조찬한이 지은 〈구학정관등가(龜鶴亭觀燈歌)〉에서도 “한 거북이는 힘차게 정자를 안아 솟았고, 한 거북이는 엷드려 웅크린 채 정자를 향해 읊하네. 거북이가 두 바위를 이루어 우뚝우뚝 높이 솟아 한 줄기 개천을 사이에 두고는, 마치 서로 화답하듯 동서로 마주 보고 있네. [一龜踳踳抱亭立 一龜躩踩向亭揖 龜成兩巖兮律率高撐隔一川 東西對起如相答]”라고 하였다.

크린 모습을 보면 멀리서 꿈틀거리며 달리는 형세요, 한 마리 외로운 학<sup>249</sup>은 아득히 높고 험한 산봉우리를 달려온 형세로다. 이곳에서 나라를 윤택케 하는 안개를 바랄 수 있으니, 어찌 노(魯) 나라를 덮기만 하는 구산(龜山)의 커다람을 배우랴.<sup>250</sup> 차라리 신선이 타는 학이 될지언정 위(衛)나라 학을 태우는 수레가 되고 싶지 않다.<sup>251</sup> 푸른 물결이 한 가운데로 흘러가니 어렵פות이 현묘한 조짐<sup>252</sup>이 갈라진 듯하고, 흰 구름이 정자 위에 있으니 흡사 하얀 깃털의 학이 날아오른 듯하다. 이것이 바로 살 곳을 정해 은거하고 무리를 떠나 멀리 숨은 까닭이니, 뜻은 이끼를 먹더라도 더

249 한…학 : 학가산(鶴駕山)을 가리킨다.

250 이곳에서…배우라 : 구산(龜山)은 옛날 노(魯)나라에 있던 산 이름이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대사구(大司寇)를 맡고 있을 때 제(齊)나라에서는 이를 방해하기 위해 노나라에 여악(女樂)을 보낸다. 당시 실권자인 계환자(季桓子)는 이를 받아들이고 3일 동안이나 정무를 돌보지 않았다. 공자는 이에 노나라의 구산을 바라보며 <구산조(龜山操)>라는 노래를 만들어, 구산이 장대하게 노나라를 덮고 있는 형상을 가지고 계환자가 노나라의 정권을 잡은 탓에 노나라가 어둡게 덮여 있는 상황을 비유하였다. 한유(韓愈) 역시 <구산조>라는 시를 남겼는데, 조찬한의 이 구절은 한유의 시를 차용한 것이다. 그 시에 “구산의 안개는 천하를 윤택케 하는 비나 구름이 되지 못하고, 구산의 울창한 나무는 들보나 기둥으로 쓰기에 맞지 않은데, 구산은 크기만 하여 그저 노나라를 덮고 있을 뿐이네. [龜之氣兮 不能雲雨 龜之斃兮 不中梁柱 龜之大兮 祇以奄魯]”라고 하였다.

251 위(衛)나라…않도다 : 춘추시대 위(衛)나라 의공(懿公)이 학을 좋아해서 대부가 타는 수레에 학을 태우고 다녔는데, 적(狄)이 쳐들어오자 위나라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학이 나가서 싸우게 하라. 학이 대부의 녹과 지위를 받고 있는 판에 우리가 왜 싸우겠는가.”라고 하였다. 《春秋左氏傳 閔公2年》

252 현묘한 조짐 : 원문 ‘玄兆’는 복서(卜筮)를 위해 거복이의 껍질을 달 구였을 때 나타나는 균열된 금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두 언덕 사이를 흐르는 물을 비유하였다.



고결해지고 자취는 연잎 위에 등지를 짓고 살더라도 더욱 절개가 있는 것이다.<sup>253</sup> 만 겹의 연하(煙霞)를 벗어났거늘 어찌 새장 속에서 깃이 꺾일까, 열 겹으로 소중하게 싸서 상자와 비단보로 보관하는 것이 어찌 진흙 속에서 꼬리를 흔들며 다니는 것만 하겠는가.<sup>254</sup> 운기(運氣)를 도모하지 않아도 절로 천년의 장수를 얻었고, 허공을 걸음에 날개가 있으니 마침내 만 리를 나는 뜻 이루리라. 공(公)은 진실로 이 두 동물을 좋아하고 산 또한 이 두 가지 아름다움으로 일컬어지니, ‘구학(龜鶴)’으로 편액을 삼은 것은 그 뜻을 잘 나타낸 것이리라.

주인은 여기에서 댄댄히 기심(機心)을 잊었고 심오하게 마음에 맞는 바가 있었다. 유정(幽貞)의 궤를 만나면<sup>255</sup> “훌륭한 그 사람

253 뜻은…것이다 : 이끼를 먹는 것은 학의 고결함을 비유하고, 연잎에 등지를 짓는 것은 거북이의 지조를 비유한다. 소식(蘇軾)의 <방학정기(放鶴亭記)>에 “홀로 산 개울 사이에서 종일토록 노닐며, 푸른 이끼를 쪼아 먹고 흰 돌을 밟는구나.[獨終日於澗谷之間兮 啄蒼苔而履白石]”라는 표현이 보인다. 또 <사기> <귀책열전(龜策列傳)>에 사마천이 강남의 장로들에게 들은 얘기를 기록하기를 “거북은 천년을 살아야 연꽃 잎 위에서 놓고 시초는 한 뿌리에 백 개의 줄기가 나야 한다. 그리고 천년 묵은 거북과 백 개의 줄기를 가진 시초가 자라는 곳에는 호랑이와 이리 등 맹수들이 살지 않으며, 해충이나 독초도 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유향(劉向)은 이에 대해 “거북은 천년을 살면 영험해지고, 시초는 백년을 자라면 한 뿌리에 백 개의 줄기가 난다.”고 하였다. 후에 장수를 기원하는 고사로 흔히 쓰였다.

254 열…하겠는가 : 초(楚)나라 왕이 장자(莊子)에게 나라의 정사를 맡기려고 사신을 보내자, 장자는 죽은 지 3천 년 된 거북을 신령스럽게 여겨 상자에 넣고 비단보로 싸서 묘당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비유로 들어 “이 거북이는 죽어서 뼈를 남겨 소중하게 받들어지기를 바랐을까요, 아니면 살아서 진흙 속을 꼬리를 끌며 다니기를 바랐을까요.”라고 하며 사양하였다. 《莊子 秋水》

255 유정(幽貞)의 궤를 만나면 : 유정의 궤는 《주역》 <이괘(履卦) 구이(

풍채도 크네.”라는 시<sup>256</sup>를 읊는다. 소백산(小白山) 구름을 바라보  
 느라 새로운 시도 짓지 않고, 계심대(溪心臺) 바위에 앉았노라면  
 숙취가 비로소 깨인다. 밤에 거문고에 맞추어 노래하면 음악 소  
 리가 계녀(溪女)의 방을 울리고, 아침에 주렴 장막을 걷으면 광채  
 가 교룡의 궁까지 비춘다. 한 줄기 유리같은 강물 굽어보고 천 길  
 의 옥같은 바위에 기대어 있으니, 사람은 천상에 지내는 듯하고  
 개는 구름 속에서 짓는 듯하구나. 귀와 눈으로 완상하니 정신은  
 적막한 경지에 들어가, 산들바람이 살짝 불어 맑은 강을 희롱하  
 고 가랑비는 때로 지나가며 그림 같은 풍경을 단장하누나. 산은  
 물에 잠겨 함께 푸르고 백로가 모래톱에서 일어나니 희디 희도  
 다. 얇은 빛깔의 비단이 숲을 휘감는 아침이면 강 마을에서 피어  
 오른 연기임을 알 수 있고, 물가에 드문드문 별들이 반짝이는 저  
 녘이면 어창(漁窓)에서 어둠을 밝힌 등불임을 짐작할 수 있다. 꽃  
 길을 묻고 버들을 찾아 교외로 나온 원웅(元戎)을 몇 번이나 맞이  
 했던가,<sup>257</sup> 왜나무를 우러르고 소나무를 바라보며 때로 시골 노인

九二))의 효사(爻辭)를 가리킨다. 효사에 이르기를 “행하는 도가 평  
 탄하니 그윽한 사람이라야 정하고 길하다.[履道坦坦, 幽人貞吉.]”라  
 고 하였는데, 이는 고결하고 굳센 절조(節操)를 지키는 것을 가리킨  
 다.

- 256 훌륭한…시 : 《시경》 패풍 <간혜(簡兮)>에 “훌륭한 그 사람 풍채도 큰  
 데, 궁전 앞뜰에서 춤을 추도다.[碩人俣俣 公庭萬舞]라고 한 구절을  
 가리킨다. 주희(朱熹)의 집전(集傳)에 따르면 이 시는 현자(賢者)가  
 뜻을 얻지 못하여 비천한 악관(樂官)에 몸을 맡기고 있으나, 스스로  
 의 재주를 자부하여 세상을 가벼이 여기고 자조하는 것이라고 한다.
- 257 꽃길을…맞이했던가 : 이 구절은 두보(杜甫)가 성도(成都) 교외의 초  
 당(草堂)에 거처할 때 절도사 엄무(嚴武)가 방문한 데 대해 사의를 표  
 현한 <엄중승왕가견과(嚴中丞枉駕見過)>의 첫 두 구를 차용한 것이  
 다. 두보의 시에 “절도사께서 소부대를 이끌고 교외로 나와, 꽃길을  
 묻고 버들을 찾아 초당에 이르셨네.[元戎小隊出郊坰 問柳尋花到野亭

과 격이 없이 어울린다. 서리 맞아 갈대 시들면 놀라서 날아오르는 기러기 멀리 바라보고, 눈 내려 짙은 개울에서 흩어지는 오리 떼 소리를 그윽이 듣는다. 온 풀짜기에 피고 지는 꽃을 찾아다니고 사시의 추위와 더위를 점치며, 구름과 안개, 산과 강 사이를 한가로이 소요하는 도구로 삼는다. 신선이나 은자는 예로부터 그저 듣기만했을 뿐 만나지 못했고, 훌륭한 정자에 훌륭한 사람도 지금은 전혀 없어 겨우 한둘 뿐이네.

나 같은 사람은 집이 가난하여 벽만 서 있을 뿐 누대 하나 지을 땅이 없고, 생전에 성취도 없이 들성들성 백발만 드리웠으니, 내 장차 어디로 가야 곳곳마다 청산을 볼 수 있으랴. 얼마 전 곤경을 당해 떠도는 신세가 되었으니 동서로 또 남북으로 정처없는 발길을 맡기네. 훗날 결사(結社)한다면 향산(香山)으로 돌아간 낙천(樂天)을 사모할 것이나,<sup>258</sup> 오늘 이 누대에 올랐으니 고향 떠난 왕찬(王粲)이 되었구나.<sup>259</sup> 혹여 하루 순풍을 만난다면 배로 등왕각(滕王閣)의 시연(詩筵)을 찾아가고,<sup>260</sup> 산음(山陰)에 봄이 저물

l”라고 하였다. 여기서 원용은 고을 수령이나 관찰사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58 훗날…것이나 : 당(唐)나라 때 시인 백거이(白居易)가 만년에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나 향산(香山)의 승려 여만(如滿)과 함께 향화사(香火社)를 결성하고 종유하면서, 향산거사(香山居士)라 자칭하였다.

259 오늘…되었구나 : 삼국 시대 위(魏)나라 건안 칠자(建安七子) 중의 한 사람인 왕찬(王粲)은 일찍이 한 헌제(漢獻帝) 때 난리를 피해 형주(荊州)의 유표(劉表)에게 15년 동안 의탁하며 객지를 떠돌아다니다가, 하루는 강릉(江陵)의 성루(城樓)에 올라가 울울한 마음으로 고향을 생각하며 <등루부(登樓賦)>를 지었다. 《三國志 卷21 魏書 王粲列傳》

260 혹여…찾아가고 : 등왕각(滕王閣)은 등왕(滕王)에 봉해진 당나라 고조(高祖)의 아들 이원영(李元嬰)이 홍주(洪州)의 도독(都督)으로 있을 때에 세운 누각이다. 훗날 홍주 자사(洪州刺使) 염백서(閻伯嶼)가 등왕각을 증수한 기념으로 중앙절에 큰 연회를 베풀고 참석한 손님들

면 직접 난정(蘭亭)의 모임에 나아가리라.<sup>261</sup> 그리하면 울창한 숲과 긴 대나무의 승경이 어찌 우군(右軍)에게만 자태를 뽐낼 것이며,<sup>262</sup> 저녁노을에 외로운 따오기 나는 구절도 왕발(王勃)에게 뒤지지 않으리라.<sup>263</sup> 서문만 짓고 그칠 뿐이니, 시를 어찌 붙일 필요 있겠는가.<sup>264</sup>

에게 서문을 짓게 하였는데, 나이 어린 왕발(王勃)이 <등왕각서(滕王閣序)>를 짓자 좌중이 탄복하였다. 《古文眞寶 後集 卷2 滕王閣序》

- 261 산음(山陰)에…나아가리라 : 난정(蘭亭)은 중국 회계(會稽) 산음(山陰)에 있던 정자의 이름이다. 진(晉)나라 때 왕희지(王羲之)가 명사 42인과 함께 상사일(上巳日)에 모여서 귀신에게 빌어 재앙을 쫓는 계사(禊事)를 행하고 술을 마시며 시를 지은 일이 있다. 왕희지는 이날의 일과 감회를 <난정기(蘭亭記)>에 기록하였다. 《古文眞寶 後集 卷1 蘭亭記》
- 262 그리하면…것이며 : 우군(右軍)은 우군 장군(右軍將軍)을 지낸 왕희지를 가리킨다. 왕희지가 지은 <난정기>에서 난정 주위의 경물을 묘사한 대목에 “이곳에는 높은 산 가파른 봉우리에 울창한 숲과 긴 대나무가 있고, 또 맑은 개울물, 급히 흐르는 여울이 좌우의 경치와 서로 어울린다.[此地有崇山峻嶺 茂林修竹 又有清流激湍 映帶左右]”라고 하였다.
- 263 저녁노을에…않으리라 : 왕발이 지은 <등왕각서>에 “저녁노을은 외로운 따오기와 가지런히 날고, 가을 물은 긴 하늘과 한 빛이다.[落霞與孤鶩齊飛 秋水共長天一色]”라고 하였다.
- 264 서문만…있겠는가 : 왕발의 <등왕각서>에는 말미에 칠언율시 한 수가 부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이르기를 “감히 미천한 정성을 다하여 공손히 짧은 서문을 짓고, 일언의 시를 더하여 사운을 함께 이루었다.[敢竭鄙誠 恭疏短引 一言均賦 四韻俱成]”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왕발의 서문에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므로 말미에 시를 지어 덧붙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보만정<sup>265</sup> 서 월사 상국께서 굳이 청하기에 짓다.

保晩亭序 爲月沙相國固請作

양호(楊湖)<sup>266</sup>의 동쪽 기슭과 마포(麻浦)의 서쪽 지류 사이에 있어 그옥함이 시골의 집이 아니요 강가의 다락과도 크게 다르니, 산세가 구불구불 이어지고 물살은 굽이 도는 곳이다. 숲 언덕에 높은 용마루 세우니 비단 같은 밝은 노을을 가르고, 바위 위에 높이 대들보를 세우니 무늬진 짙은 안개를 뚫고 솟았다. 기둥엔 붉은 색<sup>267</sup>을 칠하지 않아 더없이 소박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촌스럽지 않고, 두공엔 비취색으로 모양을 새기지 않아 번거로운 무늬를 숨기면서도 더욱 선명하다. 화려하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으니 바로 군자가 집으로 삼는 곳이요, 높지도 않고 넓지도 않으니 곧 천지신명이 도우신 것이라. 더구나 처한 곳은 산과 들을 겸하고 커다란 강과 호수를 다 차지했으니, 농사를 짓고 남새밭을

---

265 보만정 :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가 1605년(선조38) 서강(西江)의 현석리(玄石里)에 지은 정사로, 이정귀는 이 정자 이름을 따서 스스로 보만정주인(保晩亭主人)이라 자호(自號)하였다. ‘보만(保晩)’은 만년의 절개를 지킨다는 뜻으로, 송(宋)나라 때 재상 한기(韓琦)가 말한 바 “초년의 절개를 지키기는 쉽지만 만년의 절개를 지키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만년의 절개를 위해 매사에 더욱 힘써야 한다.[保初節易 保晩節難 故晩節 事事尤著力]”라고 한 데서 취한 이름이다. 《月沙先生年譜》《淸陰集 卷25 月沙李文忠公神道碑銘》《宋名臣言行錄 後集 卷1 韓琦》

266 양호(楊湖) : 양호는 양화도(楊花渡) 부근의 한강 이름이다.

267 붉은 색 : 원문의 ‘流丹’은 기둥에 칠한 단색(丹色)이 강물에 비쳐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한다.

가꾸면서 번수(樊須)<sup>268</sup>와 벗하고 소평(邵平)<sup>269</sup>과 이웃이 될 만하며, 낚시를 하고 그물질하면서 임공(任公)<sup>270</sup>을 생각하고 여망(呂望)<sup>271</sup>을 떠올릴 만함이라. 겹겹이 쌓인 안개가 자욱이 끼어 흠어지지 않을 때면 꽃섬은 은빛 포구 가운데서 경계를 이루고, 긴 눈이 계속 이어져 녹지 않을 때면 옥빛 모래가 뿔 모양의 푸른 섬을 뒤덮는다. 갓 피어난 노을이 광염을 토할 때면 처마에는 남포(南浦)의 구름이 아직 머물고, 석양이 붉은 빛을 거둘 때면 주렴에는 서산의 비가 걸린다. 부도(虬島)의 먼 안개를 가르며 구름 같은 돛배는 조수를 타고, 노량(鷺梁) 강가의 긴 이내를 끌며 바람 머금은 돛대는 은하수로 오른다. 푸른 이끼에 덮이고 비취색 뿔 모양을 한 노룡의 머리<sup>272</sup>가 높게 솟았고, 꽃받침 같은 골짜기와

- 
- 268 번수(樊須) : 공자(孔子)의 제자로 번지(樊遲)라고도 한다. 《논어》〈자로(子路)〉에 “번지가 농사일을 배우기를 청하자, 공자께서는 ‘나는 늙은 농부만 못하다.’ 하였다. 채전(菜田)을 가꾸는 것을 배우기를 청하자, ‘나는 늙은 원예사만 못하다.’ 하셨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 269 소평(邵平) : 진(秦)나라 소평이 일찍이 동릉후(東陵侯)에 봉해졌는데, 진나라가 멸망한 뒤에는 스스로 평민의 신분이 되어, 장안성(長安城)의 청문 밖에다 오이를 심어 가꾸며 조용히 은거하였다. 특히 그 오이가 맛이 좋기로 유명하여, 당시 사람들로부터 동릉과(東陵瓜)라고 일컬어졌다. 《史記 卷53 蕭相國世家》
- 270 임공(任公) : 옛날에 임공자(任公子)라는 사람이 큰 낚시와 굵은 낚시줄을 만들어 50마리의 황소를 미끼로 삼아 회계산에 걸터앉아서 동해(東海)에 낚시줄을 드리우고 날마다 낚시질을 했는데, 1년이 되도록 한 마리도 낚지 못하다가, 이윽고 산같이 큰 고기를 낚아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고 한다. 《莊子 外物》
- 271 여망(呂望) : 강태공으로 여상(呂尙)을 가리킨다. 주 문왕(周文王)이 사냥을 나갈 때 패왕(霸王)의 보좌를 얻으리라는 점사(占辭)를 얻고는 위수(渭水) 물가에서 낚시질하는 태공망(太公望) 여상을 얻었다는 고사가 있다. 《史記 卷32 齊太公世家》
- 272 노룡의 머리 : 용 모양처럼 생긴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연꽃 같은 봉우리에는 신선의 발자취가 몇 번이나 찾았던가. 긴 밤 내내 무수한 별처럼 깜박이는 것은 도처에 고기 잡는 등불이요, 평원에 곧게 늘어선 나무처럼 가없는 장삿배들이 줄지어 있다. 적적한 강촌 십리길에 희미한 물안개는 몇 겹인가. 무성한 봄 풀은 물결에 잠겨 함께 푸르고 백로는 석양 모래톱을 날아올라 희디 희도다. 만고를 흐르는 삼강(三江)<sup>273</sup> 곁에 한 이랑의 외로운 정자로다. 그러니 뜰만 겨우 완성하여 가운데에는 주방으로 쓸 공간이 부족하고, 담장은 아직 두르지 않아 밖에는 말 돌릴 만한 문도 없다.

귀거래(歸去來)함이 더디다 이르지 말라, 정자의 이름을 이렇듯 ‘보만(保晩)’이라 하지 않았다. 더구나 우리 상공 합하(閣下)께서는 집안과 나라를 잘 다스리고 천하를 경륜하였음에랴. 천상의 별과 바다의 신선처럼 사문(斯文)의 사표로서 노닐었고, 석린아(石麟兒)와 구름 속 봉황<sup>274</sup>처럼 세간과 부침을 함께 하였도다. 명성을 떨치고 기예를 펼친지 사십여 년이요, 요직에 오르고 청환(淸宦)을 거친 것은 한두 번으로 헤아릴 수 없다. 전형(銓衡)을 잡고 인재를 선발할 때는 관직에 적신(積薪)의 탄식<sup>275</sup>이 없었고, 문

273 삼강(三江) : 한강을 위치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현재 한남동 근처의 한강(漢江), 용산 근처의 용산강(龍山江), 마포 근처의 서강(西江)이다.

274 석린아(石麟兒)와…봉황 : 석린아은 진(陳)나라 사람 서릉(徐陵)을 지칭하는 말인데, 오색의 구름이 봉황으로 변하더니 그의 어머니 왼쪽 어깨 위에 내려앉는 꿈을 꾸고 그를 낳았다고 한다. 그가 두어 살 되던 해에 당시 도가 통했다고 일컬어지던 보지 상인(寶誌上人)을 찾아가 간 적이 있는데, 보지 상인이 서릉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천상(天上)의 석기린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로 대단히 총명한 아이를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陳書 卷26 徐陵列傳》

275 적신(積薪)의 탄식 : 장작을 쌓아 올리듯 먼저 등용된 사람보다 뒤에

형을 맡아 훈도할 때는 선비들에게 공옥(攻玉)의 경사<sup>276</sup>가 있었다. 문채를 드러내 수창하며 몇 번이나 봄날에 눈 녹듯이 임금을 기쁘게 하였고, 관련된 기록들을 모아 변무(辨誣)하니 천자의 의심이 얼음 녹듯 풀리게 되었다.<sup>277</sup> 양 경략(楊經略)<sup>278</sup>이 성심으로 감복한 것이 어찌 뜻이 없겠으며, 웅 어사(熊御史)<sup>279</sup>와 정신적인 교류를 맺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바야흐로 문위(文衛)<sup>280</sup>로서 도를 기약함은 단지 나라가 공으로 말미암아 빛났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난번 연경에서 돌아오자

---

등용된 사람이 윗자리에 있음을 탄식한다는 뜻이다. 《漢書 卷50 汲黯傳》

- 276 공옥(攻玉)의 경사 : 선비들이 이정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서로 인격을 수양하는 경사가 있었다는 뜻이다. 《시경》〈학명(鶴鳴)〉에 “다른 산의 돌로도 옥을 다듬을 수 있다.[他山之石 可以攻玉]”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277 관련된…되었다 : 1598년(선조31) 명나라의 병부 주사(兵部主事) 정응태(丁應泰)와 경리(經理) 양호(楊鎬)가 불화하였는데, 조선에서 양호를 두둔하자 정응태가 조선이 일본과 결탁하여 천자를 기만하고 요동땅을 차지하려 한다고 황제에게 무고하였으므로 조선에서 황급히 변무하게 되었다. 이정귀는 이해에 주문(奏文)을 지어 진주사(陳奏使) 이항복(李恒福) 등과 북경으로 가서, 이듬해 1월에 변주문을 올리니 황제의 의심이 풀리게 되었다. 《月沙先生年譜》
- 278 양 경략(楊經略) : 양호(楊鎬)를 가리킨다. 1618년(광해군10) 후금의 누르하치(奴爾哈赤)가 명나라를 공격하자, 명은 양호를 요동 경략(遼東經略)으로 삼아 출정시켰다.
- 279 웅 어사(熊御史) : 웅화(熊化)를 가리킨다. 칙사로 조선에 왔을 때 이정귀가 접반한 인연으로, 이정귀가 북경에 갔을 때에도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고 매우 공손하게 대접하였다고 한다. 《月沙先生年譜》
- 280 문위(文衛) : 본래 의장(儀仗)을 갖추고서 호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정귀의 문장으로 명나라에 대해 변무함으로써 나라를 보위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 쓰였다.



마자 병으로 인해 폐모(廢母)를 청하는 백관의 정청(庭請)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sup>281</sup> 성명(聖明)께서 해와 같이 굽어보시니 일은 비록 곤경에 처했지만 몸은 신원되었고, 외로운 충심은 해바라기와 같으니 은혜는 컸으나 비방을 불러들였도다. 이에 동산(東山)의 신<sup>282</sup>을 신고 도성문을 나와, 서호(西湖)의 나귀<sup>283</sup>를 타고 이 집으로 들어온 것이다. 궤장(几杖)과 금슬(琴瑟)로 노년의 생애를 보내며, 약물과 도서로 은사(隱士)의 증표로 삼았다. 맑은 창을 높이 열어 한여름이면 맑은 바람 맞으며, 시원한 정자는 허공을 밀치고 푸른 바다의 명월을 품었네. 새와 물고기, 산수 외에는 다시 더 바랄 것 없고, 시 읊고 유유히 즐기면서 그런대로 한 해를 마치리라. 노년에 한가로이 지내며 북궐에 상소하는 글<sup>284</sup> 올리지

- 
- 281 지난번…되었다 : 1618년(광해군10) 1월 4일 우의정 한효순(韓孝純) 등이 백관을 인솔하고 정청하여 인목대비의 폐출을 주장하였다. 당시 이정귀는 병을 이유로 정청에 불참하였는데, 이후 양사에서 삭출(削黜)과 원찬(遠戡)을 청하는 상소가 연이어 올라왔다. 《月沙先生年譜》《光海君日記 10年 1月 4日》
- 282 동산(東山)의 신 : 동진(東晉)의 명신(名臣) 사안(謝安)은 40여 세까지 20여 년을 회계(會稽)의 동산(東山)에서 은거하며 조정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때 늘 나막신을 신고 소요(逍遙)하였다고 한다. 《晉書 卷79 謝安列傳》
- 283 서호(西湖)의 나귀 : 남송(南宋)의 명장(名將) 한세충(韓世忠)은 악비(岳飛)가 간신 진회(秦檜)에 의해 처형되자 관직에서 물러나 은둔하였다. 그는 두문불출하고 손님도 사절했으며, 나귀를 타고 술병 차고서 아이 한두 명을 데리고서 서호(西湖)에 나가 노닐곤 했다고 한다. 《宋史 卷364 韓世忠列傳》
- 284 북궐에 상소하는 글 : 맹호연(孟浩然)의 〈세모귀남산(歲暮歸南山)〉에 “조정에 문장 올리기를 그만두고, 남산의 넓은 집으로 돌아왔네.[北闕休上書 南山歸敝廬]”라고 한 것을 차용한 표현이다. 북궐은 조정을 가리키고, 글을 올린다는 것은 벼슬을 하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한다.

않고, 석양 창파에 노래 부르니 남가(南柯)의 꿈<sup>285</sup>에서 놀라 깬다네. 게다가 형제간에 화락하니 집안에는 훌륭한 두 아들<sup>286</sup>이 있고, 금성이 올리면 옥성이 올리니<sup>287</sup> 사람들은 삼수(三秀)<sup>288</sup>가 빼어났다 하네. 마음에 와닿고 눈에 부딪히는 광경이 노년을 보내는 밀천 아님이 없고, 예의에 맞는 기거동작과 소리 내어 시를 낭송하는 것<sup>289</sup>이 모두 노쇠함을 물리치는 도구이다. 이것으로 만년의 절개를 지키기에 충분하니, 액호(額號)를 일찍이 내건 뜻을 알겠도다.

나는 신진 소생으로서 오랜 벗<sup>290</sup>의 동생이다. 연석(燕石)<sup>291</sup>인

- 
- 285 남가(南柯)의 꿈 :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를 이르는 말이다. 당나라 때 순우분(淳于棼)이라는 사람이 오래된 괴목(槐木) 아래서 술에 취한 뒤 괴안국에 들어가 왕의 부마(駙馬)가 되고 30년 동안 남가 태수를 맡아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꿈을 꾸었는데, 깨서 보니 자기가 노닐던 곳이 바로 뜰 앞 큰 괴목 아래였고 그곳에 개미굴이 있어 개미들이 드나드는 것이 보였다 한다. 《異聞集 南柯太守傳》
- 286 훌륭한 두 형제 : 이정귀의 두 아들인 이명한(李明漢)과 이소한(李昭漢)을 가리킨다.
- 287 금성이…올리니 : 쇠가 올면 옥이 응한다는 말로 시문의 창수를 비유한 것이다. 한유(韓愈)의 시에 “금성이 올리면 옥성이 응하듯 하고, 그 향기는 난초와 울금처럼 성대하네. [金春撼玉應 厥臭劇蕙鬱]”라고 한 데서 차용한 표현이다. 《韓昌黎集 卷7 山南鄭公樊員外酬答爲詩其末咸有見及語樊封以示愈依賦十四韻以獻》
- 288 삼수(三秀) : 일 년에 세 번 꽃이 피는 영지(靈芝)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이정귀 삼부자를 뜻한다.
- 289 예의에…것 : 이 구절은 안연지(顏延之)가 지은 애책문(哀冊文)의 “소리를 내어 시서(詩書)를 낭송하였으며, 기거동작이 예의에 맞았도다. [發音在詠 動容成紀]”를 차용한 표현이다. 《文選 卷58 宋文皇帝元皇后哀策文》
- 290 오랜 벗 : 이정귀의 벗인 조위한(趙緯韓)을 가리킨다.
- 291 연석(燕石) : 연석은 연산(燕山)에서 나오는 돌인데, 옛날 송(宋)나라의 어리석은 사람이 이 돌을 오대(梧臺)의 동쪽에서 얻고는 큰 보물

줄 모르고 스스로 자랑하다 삼월(三刑)<sup>292</sup>의 슬픔을 품었는데, 노둔한 재주를 들보아 주고 불쌍히 여겨 다행히도 일고지가(一顧之價)<sup>293</sup>를 더해 주었다. 비록 공자를 배우는 것이 소원이지만, 어찌 감히 안회(顔回)가 되기를 바라겠는가. 이번엔 합하게서는 조전(雕篆)<sup>294</sup>의 재주를 취할 바가 없다 여기지 않고, 월로(月露)의 시구<sup>295</sup>에도 혹 볼 만한 것이 있다 여겨 거듭 명하며 간곡하게 청하기를 그만두지 않으셨다. 이에 볼품없고 간삽(艱澀)한 재주를 잊고서 경솔하게 회포를 뗐으나, 이렇듯 거친 글을 어찌 서문이라 할 수 있겠는가. 훗날 풍광을 구경하고 다시 공을 위해 지으리라 청하노라.

---

이라 여겨 비단으로 몇십 겹을 싸서 잘 보관하였으나 결국 일반 돌과 다름이 없었다 한다. 여기서는 자신의 재주를 낮추어 일컫는 겸사로 쓰였다. 《太平御覽 卷51 地部16》

- 292 삼월(三刑) : 다리를 세 번 잘린다는 뜻으로, 재주를 품고 있으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초나라 사람 변화(卞和)가 옥 덩어리 하나를 얻어 여왕(厲王)과 무왕(武王)에게 바쳤으나 거짓말을 하였다 고 하여 두 다리를 잘렸다. 문왕(文王)이 즉위하자 변화가 또다시 옥 덩어리를 안고 형산(荊山)의 아래에서 통곡하자, 왕이 사람을 시켜서 그 옥 덩어리를 쪼개 보라고 하였는데, 과연 아름다운 옥이었다. 《韓非子 和氏》
- 293 일고지가(一顧之價) : 백락(伯樂)은 주(周)나라 때 말을 잘 감별했다는 사람인데, 사흘 동안이나 시장에서 팔리지 않던 말도 그가 “한 번 둘러보고 떠나며 뒤돌아보자 하루아침에 말의 값이 열 배나 뛰었다. [環而視之 去而顧之 一旦而馬價十倍]”라는 백락일고(伯樂一顧)의 고사가 있다. 《戰國策 燕策2》
- 294 조전(雕篆) : 조충전각(雕蟲篆刻)의 준말로, 벌레 모양이나 전서(篆書)를 조각하듯이 미사여구(美辭麗句)로 문장을 꾸미는 작은 기예(技藝)를 말한다.
- 295 월로(月露)의 시구 : 시문을 짓는 것은 월로풍운(月露風雲)을 형용하는데 불과하다는 뜻에서 온 것으로 가치없는 무용의 문자를 의미한다. 《隋書 卷66 李諤傳》

## 공북루<sup>296</sup> 서

### 拱北樓序

삼남(三南)으로 길을 달려가노라면 호서(湖西)의 승경보다 나은 곳이 없으니, 한 줄기 강물이 길게 뻗은 곳에 이 공북루가 자리잡고 있다. 강 가운데로 뿔이 날아 내리고, 물고기는 난간 그림자를 흔든다. 은하수를 밀치고 용마루 일으키니 해와 달이 삼연히 비추고, 무지개를 구부려 문을 삼으니 바람과 구름으로 열고 닫는다. 전라와 경상을 길목을 제어하여 도성과 경기를 둘러싸고, 호남과 영남의 허리에 걸터앉아 화산(華山)과 한수(漢水)를 오로지 맡는다. 형세는 못별이 공수하는 듯하고, 지세는 한 사람이 만 명의 적을 막을 수 있는 관문에 필적한다. 서경(西峒) 상공<sup>297</sup>께서 일찍이 세운 것이 어찌 헤아린 바가 없었으랴, 북쪽 관문을 지키는 것<sup>298</sup>으로 비유한 것은 참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

296 공북루 :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에 위치한 누각이다. 공북루는 1602년(선조35) 충청 관찰사로 부임한 유근(柳根)이 공주 공산성(公山城)에 감영을 설치하기 위해 철차를 계문하여, 1603년에 공주 목사를 겸임하라는 비답이 내려지자 산성을 수축(修築)한 후에 옛 망북루(望北樓)의 자리에 세운 것이다.

297 서경(西峒) 상공 : 유근을 가리킨다.

298 북쪽…것 : 원문의 ‘북문쇄약(北門鎖鑰)’은 변방을 수어(守禦)하는 중책을 표현하는 말이다. 송(宋)나라 때 구준(寇準)이 대명부(大名府)를 맡아 지킬 때에 요(遼)나라 사신이 와서 구준에게 “상공(相公)은 명망이 높는데 어찌하여 중서(中書)에 있지 않고 여기 있느냐?”고 하니, 구준이 “임금께서 북문의 쇄약은 구준이 아니면 안 된다 하시기 때 문이다.”라고 하였다. 《宋史 卷281 寇準傳》

이제 구원(九畹)<sup>299</sup>이 관찰사를 맡아 무너진 서까래를 수리하여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앞서서 노래하고 뒤에서 화답하여<sup>300</sup> 울림이 같았으니, 전후로 한결같은 뜻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찌 그리도 이름난 터는 크고도 널찍한가, 평탄하고 쪽 뻗어서 탁 트이고 시원한 지세를 차지하였도다.

한 폭의 그림 같은 경치는 진가(眞假)를 구분하기 어렵고, 하늘을 나는 신선이 있는지 없는지 어찌 모르겠는가[누가 보지 못하겠는가]. 오직 저 오고가는 말과 소들은 나루터를 지나며 목이 메도록 울고, 스러지는 저녁놀이 간간이 내리는 비는 아득히 먼 포구를 단장하며 아스라이 펼쳐져 있다. 둥글게 뜬 산 위의 달은 금물결에 떠서 일렁이고, 그림자 드리운 바위의 꽃은 비단 거울<sup>301</sup>에 피어 향기 진하다. 백로는 솟아오르고 기러기 날아 갈꽃 핀 물가를 다투어 가고, 어부는 노래하고 목동은 피리 불어 두형(杜蘅)<sup>302</sup> 핀 모래톱에서 화답한다. 봄 구름은 흰 백사장과 함께 끝이 없고, 금강의 물결은 푸른 하늘과 더불어 어디메가 끊이런가. 흑옥 같은 배와 구슬 같은 놀잇배에 미인과 손 잡고 오르며, 계수나무 노와 목란 상앗대로 저으며 천천히 석양을 기다렸다 띄운다. 현가(絃歌)를 번갈아 연주하면 헤엄치던 물고기도 잔잔한 물결

299 구원(九畹) : 조찬한의 벗인 이춘원(李春元)을 가리킨다. 이춘원은 초명이 신원(信元)이고 자가 입지(立之)였는데, 후에 이름을 춘원, 자를 원길(元吉)로 고쳤다. 그의 호가 구원(九畹)이다. 이춘원이 충청 관찰사를 맡은 것은 1617년(광해군9)의 일이다. 《清陰集 卷30 忠淸道觀察使九畹李公墓碣銘》

300 앞서서…화답하여 : 먼저 유근이 개창하고 뒤에 이춘원이 중수한 것이 같은 뜻이었다는 의미이다.

301 비단 거울 : 공북루가 임하고 있는 금강(錦江)의 수면을 가리킨다.

302 두형(杜蘅) : 족두리풀을 가리킨다. 잎은 아욱과 닮았고 모양은 말발굽과 같아 마제향(馬蹄香)이라고도 한다.

속에 서서 듣고, 북 치고 피리 불며 흥이 오르면 늙은 교룡도 깊은 못에서 춤을 춘다.

또 산은 백 리를 돌렸으나 견훤(甄萱)의 폐허에 풀은 시들고, 천 년 전 꽃 떨어진 백마강은 의자왕의 나라에 깊도다. 삼한(三韓)은 벌써 언덕으로 변했는데, 백제 땅 어느 곳의 누대였던가. 제자(帝子)는 아리따운 후궁 위해 눈물을 흘렸으니<sup>303</sup> 옛 일을 슬퍼한들 어찌 미치랴, 장안은 백일보다 가까우니<sup>304</sup> 태평한 시대가 한창 융성하도다. 하물며 나는 궁궐에서 윤음을 받들고 삼로(三路)의 도적을 다스리기 위해 떠난 몸임에랴.<sup>305</sup> 엄한 여정을 바

---

303 제자(帝子)는…흘렸으나 : 제자는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을 가리킨다. 원문의 ‘녹운(綠雲)’은 높게 틀어 올린 구름 같은 머리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의자왕의 후궁들을 가리킨다. 《삼국유사》에는 백제의 고기(古記)를 인용하여, 나당 연합군에 의해 전쟁의 형세가 기울자 의자왕과 후궁들은 부여성(扶餘城)에서 강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곳을 타사암(墮死岩)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304 장안은 백일보다 가까우니 : 장안은 여기서 임금의 계신 곳을 가리킨다. 동진(東晉)의 명제(明帝)가 어렸을 적에 부왕인 원제(元帝)에게 장안(長安)과 태양 사이의 거리를 답변한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원제가 명제를 무릎 위에 앉히고 있었는데, 마침 장안에서 사람이 오자 “장안과 저 해가 어느 것이 더 멀다고 여기느냐?”하고 물으니, 명제는 “해가 더 멍니다. 장안에서 온 사람은 있으나 해가 있는 쪽에서 사람이 왔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다음날 잔치 자리에서 명제에게 다시 물으니, 명제는 “해가 가깝습니다.” 하였다. 원제가 “왜 어제 말과 다르게 하느냐?”라고 물으니, 명제가 대답하기를 “눈을 들어 해를 볼 수는 있으나 장안은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世說新語 夙慧》

305 삼로(三路)의…몸임에랴 : 1617년(광해군9) 도적이 호남과 영남에 출몰하니 조정에서 이를 근심하여 조찬한을 삼도토포사(三道討捕使)에 제수하여 파견하였다. 조찬한은 여러 도를 오가며 장교와 아전을 차출하여 도적들을 잡아들이니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 일로 조찬한은 통정대부에 가자되는 은전을 입었다. 《玄洲集 卷15 玄洲趙公

삐 가며 북극성<sup>306</sup>을 바라보니 더욱 멀어져 가고, 가는 길 더디고 더디니 남쪽 누대 구경할 날은 언제려나. 소선(蘇仙)이 배 띄운 뒤로 적벽(赤壁)이란 이름 드러났으나,<sup>307</sup> 이백(李白)이 시를 짓기 전에도 이미 황학루(黃鶴樓)의 명승은 알려져 있었다.<sup>308</sup> 순풍에 흥이 인다면 혹 등왕각의 시연(詩筵)<sup>309</sup>에도 참여하고, 한가한 날 근심을 풀기 위해 또 중선(仲宣)의 <등루부(登樓賦)><sup>310</sup>를 지어보리라.

墓碣銘》

- 306 북극성 : 서울에 있는 임금을 가리킨다.
- 307 소선(蘇仙)이…드러났으나 : 소선은 소식(蘇軾)을 가리킨다. 그가 지은 <적벽부(赤壁賦)>로 적벽이 더 알려지게 되었다는 뜻이다.
- 308 이백(李白)이…있었다 : 이백이 지은 <황학루송맹호연지광릉(黃鶴樓送孟浩然之廣陵)>이 잘 알려져 있다. 이백 이전에도 최호(崔顥)가 지은 <황학루(黃鶴樓)>라는 시는 엄우(嚴羽)의 <창랑시화(滄浪詩話)>에서 당대(唐代) 칠언율시 가운데 제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황학루 건립에 대한 다양한 설화가 이전부터 존재하여 황학루는 잘 알려져 있었다. 이 구절은 조찬한이 이 공북루의 서문을 짓는다고 해서 이 때문에 더욱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의 겸사로 사용하였다.
- 309 등왕각의 시연(詩筵) : 등왕각(滕王閣)은 등왕(滕王)에 봉해진 당나라 고조(高祖)의 아들 이원영(李元嬰)이 홍주(洪州)의 도독(都督)으로 있을 때 세운 누각이다. 훗날 홍주 자사(洪州刺使) 엄백서(閻伯嶼)가 등왕각을 증수한 기념으로 중앙절에 큰 연회를 베풀고 참석한 손님들에게 서문을 짓게 하였는데, 나이 어린 왕발(王勃)이 <등왕각서(滕王閣序)>를 짓자 좌중이 탄복하였다. 《古文眞寶 後集 卷2 滕王閣序》
- 310 중선(仲宣)의 <등루부(登樓賦)> : 중선은 삼국 시대 위(魏)나라 왕찬(王粲)의 자(字)이다. 일찍이 한 헌제(漢獻帝) 때 난리를 피해 형주(荊州)의 유표(劉表)에게 15년 동안 의탁하며 객지를 떠돌아다녔는데, 이때 강릉(江陵)의 성루(城樓)에 올라가 시사(時事)를 한탄하고 고향을 그리는 내용의 <등루부(登樓賦)>를 읊어 시름을 달래었다.

## 사모당 서 효·제·충·신을 사모함이다.

四慕堂序 孝悌忠信

청산은 위에 있고 흰 강물은 동으로 흐르는데, 마을에 감추어진 한 터에 집을 짓고 사모(四慕)라 편액을 걸었다. 만일 형문(衡門)만 본다면 누가 집이 없다 하리요, 다시 아름다운 이름을 택하니 이 때문에 기림이 있는 것이다. 단청이 우뚝하고 빛나서 아름다운 것도 아니요, 강산이 형승지로서 즐기기에 족한 것도 아니다. 효(孝)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으니 자식 된 자는 효성을 극진히 하고, 충(忠)은 나라에 몸을 바치는 것이 으뜸이니 자기를 다하여 충성해야 한다. 남과 교제할 때는 신(信)이 없으면 설 수 없고, 어른을 섬기고자 할 때는 제(悌)가 아니면 어떻게 공경하랴. 이는 사람으로서 근본일진데, 나는 그런 사람에 대해 반드시 배웠다 하리라.<sup>311</sup> 그러므로 한가로이 지내고 홀로 처한 날이 모두 ‘사모당’이란 이름을 보고 의미를 생각하는 때이다. 생각하여도 이에 있고 버려도 이에 있어서<sup>312</sup> 폐하지 않고,

311 나는…하리라 : 《논어》〈학이〉에 자하(子夏)가 말하기를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되 여색을 좋아하는 마음과 바꾸며, 부모를 섬기되 그 힘을 다할 수 있으며, 임금을 섬기되 그 몸을 바칠 수 있으며, 벗과 사귀되 말함에 성실함이 있으면 비록 배우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웠다고 이를 것이다.[子夏曰 賢賢易色 事父母 能竭其力 事君 能致其身 與朋友交 言而有信 雖曰未學 吾必謂之學矣]”라고 하였다.

312 생각하여도…있어서 :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 언제나 네 가지 덕목을 생각한다는 말이다. 《서경》〈대우모(大禹謨)〉에 “이를 생각해도 이에 있으며, 이를 버려도 이에 있으며, 이를 명명하여 말할도 이에 있으며, 진실로 마음에서 나옴도 이에 있다.[念茲在茲 釋茲在茲 名言茲在



여기에서 나고 여기에서 자라서 늙으리라. 그런 까닭에 매형(梅兄)과 죽제(竹弟)<sup>313</sup>도 우애에 감동하여 우거지고 꽃을 피우며, 목노(木奴)와 화왕(花王)<sup>314</sup>도 성의에 감복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의당 길한 징조가 이곳에 모여들 것이니, 깊숙하고 넓어서 커다란 집은 원치 않는다. 나 같은 사람이 주리(州里)에서 뜻을 펼칠 수 있겠는가,<sup>315</sup> 덕을 따르는 데 어둡도다. 계책은 있으나 암학(巖壑)<sup>316</sup>으로 돌아가지 않아 한평생을 헛되이 보냈고, 누대

兹 允出兹在兹”라고 한 표현을 차용한 것이다.

- 313 매형(梅兄)과 죽제(竹弟) : 매형과 죽제는 곧 매화와 대를 마치 형제처럼 친근하게 여겨 애칭으로 쓴 말이다.
- 314 목노(木奴)와 화왕(花王) : 목노는 굴의 이칭이다. 삼국 시대 오(吳)나라의 단양 태수(丹陽太守) 이형(李衡)이 굴나무 1천 그루를 심어 자식에게 남겨주면서 ‘목노(木奴) 1천 그루’를 심어놓았으니 생계를 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데서 유래한다. 《三國志 卷48 吳志 孫休傳 裴松之注》 화왕은 모란을 가리킨다. 피일휴(皮日休)의 〈모란(牡丹)〉 시에 “온갖 꽃들 다 진 뒤에 비로소 꽃을 피우지만, 아름다운 이름은 백화의 왕으로 불리누나.[落盡殘紅始吐芳 佳名喚作百花王]”라고 하였다.
- 315 나…있겠는가 : 사모당의 네 가지 덕목을 마을이나 고향에 행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의 겸사이다. 《논어》〈위령공(衛靈公)〉에 “자장(子張)이 뜻을 펼칠 방도를 묻자 공자가 ‘말이 충실하고 미더우며 행실이 돈독하고 경건하면 야만적인 오랑캐 지역이라 하더라도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이고, 말이 충실하고 미덥지 않고 행실이 돈독하고 경건하지 않으면 주리라도 뜻을 펼칠 수 없을 것이다. 서 있을 때에는 그것이 앞에 참여해 있는 것을 보고 수레에 타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가로대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게 해야 하니, 그런 뒤에야 뜻을 펼칠 수 있다.’라고 하였다.[子張問行 子曰 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 行矣 言不忠信 行不篤敬 雖州里 行乎哉 立則見其參於前也 在輿則見其倚於衡也 夫然後行]” 하였다.
- 316 암학(巖壑) : 은거할 곳을 말한다.

를 일으킬 땅도 없어 몇 길이나 되는 집을 엿볼 수도 없다.<sup>317</sup> 혹여 먼 길을 감에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당에 오르고 방에 들어갈 수 있다면,<sup>318</sup> 안씨(顔氏)처럼 높은 재주도 오히려 일선(一善)을 간절히 애썼으니,<sup>319</sup> 증삼(曾參)처럼 노둔한 자질일지라도 삼성(三省)을 부지런히 하리라.<sup>320</sup>

317 몇…없다 : 공자의 학문과 도를 집의 담장에 비유한 표현을 차용한 것이다. 노(魯)나라 대부(大夫) 숙손무숙(叔孫武叔)이 자공(子貢)을 공자보다 낫다고 칭찬하였다. 그러자 자공이 “궁궐의 담장에 비유해 보건대, 나의 담장은 어깨에 닿을 정도여서 집 안의 좋은 것들을 모두 엿볼 수 있지만, 부자의 담장은 그 높이가 몇 장이나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대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종묘의 아름다움과 백관의 풍부함을 볼 수가 없다.[譬之宮牆 賜之牆也及肩 窺見室家之好 夫子之牆數仞 不得其門而入 不見宗廟之美百官之富]”라고 하였다. 《論語子張》

318 당에…있다면 : 공자의 제자들이 자로(子路)가 거칠다며 제대로 대우하지 않자, 공자가 제자들에게 “자로는 마루에 올라갔지만 아직 방에는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학문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일정 수준에는 도달한 것을 말한다.

319 안씨(顔氏)처럼…애썼으니 : 《중용(中庸)》 11장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안회(顔回)의 사람됨이 중용(中庸)을 가려 한 선(善)을 얻으면 권권(拳拳)히 가슴 속에 두어 잃지 않는다.’[子曰 回之爲人也 擇乎中庸 得一善 則拳拳服膺而弗失之矣]”라고 하였다.

320 증삼(曾參)처럼…하리라 : 공자의 제자인 증삼(曾參)이 하루에 세 가지로 자신을 반성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도모하면서 충실하지 못했던가. 벗과 함께 사귀면서 미덥지 못했던가. 스승에게 배우고 스스로 익히지 않았던가.[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라고 하였다. 《論語學而》

석천정<sup>321</sup> 서 안동에 있다.

石泉亭序 在安東

푸른 안개와 아른거리는 이내는 멀리 소미성(少微星)<sup>322</sup>의 광채를 받아들이고, 기이한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는 비스듬히 웅장한 태백산(太白山)을 끌어당긴다. 걸출한 인물이 나온은 그 땅이 신령스럽기 때문이고,<sup>323</sup> 물이 맑기에 바위는 더욱 앙상하다.<sup>324</sup> 구름 걸린 창은 비단 휘장을 마주하니 마치 신선들의 집을 일으킨 듯하고, 아름다운 누각에 처마가 높으니 어렵듯 영

- 
- 321 석천정 : 권동보(權東輔, 1518~1592)가 지은 정자로 석천정사(石泉精舍)라고도 한다. 현재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석천계곡에 있다. 권벌(權撥, 1478~1548)이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파직된 후 낙향하여 정착한 곳에 아들인 권동보가 1535년(중종30) 석천정을 지어 후진을 양성하였다. 이 글은 조찬한이 1614년(광해군6) 영천 군수(榮川郡守)로 부임한 이후에 지은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 이 정자의 주인은 권동보의 아들 권래(權來, 1562~1617)였는데, 조찬한은 권래와 시를 주고받는 등 교유가 있었다.
- 322 소미성(少微星) : 소미성은 처사(處士) 즉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은거하는 덕망이 높은 선비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석천정 주인을 암시한다.
- 323 걸출한…때문이고 :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 “물건의 정화는 하늘의 보물이니, 용천검의 광채가 우성과 두성의 자리를 쏘아 비추고, 사람이 걸출함은 땅이 영특해서이니 서유가 진번의 자리를 내려놓게 하였다.[物華天寶 龍光射斗牛之墟 人傑地靈 徐孺下陳蕃之榻]”라고 한 표현을 차용한 것이다.
- 324 물이…앙상하다 : 바위의 뿔이 솟아 울퉁불퉁한 모양을 가리킨다. 유종원(柳宗元)의 <유황계기(遊黃溪記)>에 “나무는 더욱 무성한데, 바위는 더욱 앙상하며, 물 소리가 모두 맑고 은은하다.[樹益壯 石益瘦 水鳴皆鏘然]”라고 하였다.

묘한 신기루를 지었나 싶다. 비단 이끼는 도끼로 깎을 때 떨어졌으니 여와(女媧)가 하늘을 기우고 남은 것이요,<sup>325</sup> 옥룡(玉龍)이 부딪혀 성내어 우니 영륜(伶倫)이 남긴 음률 같도다.<sup>326</sup> 안개가 신선 사는 골짜기에 피어오르니 삼도(三道)<sup>327</sup>의 봄 경치를 빼앗아 온 듯하고, 물은 옥같은 누대에 밝게 비추어 십주(十洲)<sup>328</sup>의 달빛을 가릴 정도이다. 임천(林泉)에도 부귀가 있거늘, 평지인들 어찌 신선이 없으랴. 백리 저편으로 화산(花山)<sup>329</sup>과

325 비단...것이요 : 이 구절은 우(禹)임금과 여와씨(女媧氏)의 전설로 석천정 주변의 바위 이끼를 표현한 것이다. 《사기(史記)》〈하본기(夏本紀)〉에 인용된 사마정(司馬貞)의 색은(索隱)에 따르면 우임금은 도산씨(塗山氏)의 딸 여와에게 장가들었다고 한다. 상고 시대의 여제(女帝)인 여와씨는 복희씨(伏羲氏)의 누이로 전해지지만, 여기서는 두 사람을 동일 인물로 간주한다고 보여진다. 옛날 도랑과 제방이 정비되지 않아 백성이 수해를 입을 때, 우임금이 용문산(龍門山)을 도끼로 뚫고 이궐(伊闕)의 산을 갈라 수토(水土)를 안정시키자 백성들이 안심하고 물에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 《淮南子 人間訓》 또 공공씨(共工氏)라는 제후가 축융(祝融)과 싸웠다가 이기지 못하고는 노하여 머리로 부주산(不周山)을 들이받아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 부러지고 땅을 묶어 둔 바닷줄이 이지러지자 여와씨가 오색의 돌을 갈아서 하늘을 깎고 자라의 발을 잘라서 사극(四極)을 세우자 땅이 평정되고 하늘이 완전하게 되었다 한다. 《淮南子 覽冥訓》 즉 이곳의 이끼는 우임금이 도끼로 산을 깎을 때 떨어진 것이며 여와씨가 하늘을 기울 때 사용하고 남은 것이라는 뜻이다.

326 옥룡(玉龍)이...같도다 : 옥룡은 폭포를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영륜은 황제(黃帝) 때의 악관(樂官)으로서 12율려(律呂)를 만든 사람으로 전해진다. 《漢書 卷21 律曆志》

327 삼도(三道) : 전설상 바다에 있다고 전하는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 등 세 개 산을 말한다.

328 십주(十洲) : 신선이 산다는 바다 가운데에 있는 열 곳의 섬을 말한다. 《海內十洲記》

329 화산(花山) : 안동(安東)의 옛 이름이다.

접한 곳에서 한 구역의 상서로운 땅을 흠쳤구나. 저 요지(瑤池)와 현포(玄圃)는 주나라 말이 밟았으니 더 이상 진계(眞界)가 아니요,<sup>330</sup> 금궐(金闕)과 은대(銀臺)도 진나라 동남동녀들 찾아 떠났으나 꿈과 같이 헛될 뿐이로다.<sup>331</sup> 혹여 하원(河源)의 풍량은 한나라 뗏목이 다시 타고 오르기를 금하지 않는다 해도,<sup>332</sup> 무릉(茂陵)의 도원(桃園)은 어찌 어부의 배가 다시 찾도록 허락하겠는가.<sup>333</sup> 한 쌍의 오리는 훌쩍 떠났어도, 외로운 학은 잘도 나

330 저…아니요 : 요지와 현포는 서왕모(西王母)가 거주하는 곤륜산(崑崙山)의 선경이다. 주나라 목왕(穆王)이 서역(西域)으로 행차하여 서왕모를 만나 비단을 드리고 요지(瑤池)의 연못가에서 서로 시(詩)를 지어 왕래했다고 한다. 여기서는 속세 사람인 목왕이 다녀갔기에 진계(眞界)가 아니라는 뜻이다. 《山海經敘解》

331 금궐(金闕)과…뿐이로다 : 금대와 은궐은 삼신산(三神山)에 있는 집을 말하는데, 《사기(史記)》 권28 <봉선서(封禪書) 제6>에 “여러 신선과 불사약이 있고, 그곳에 사는 금수 등의 모든 생물은 다 흰색이고, 황금과 은으로 집을 지었다. [仙人及不死之藥皆在焉 其物禽獸盡白 而黃金銀爲宮闕]”라고 하였다. 진 시황이 동해(東海)의 삼신산에 불사약이 있다는 방사(方士) 서복(徐福)의 말을 듣고 그에게 동남동녀(童男童女) 수천 명과 함께 배를 타고 가서 불사약을 구해 오게 하였으나, 바다로 나간 이들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고 한다. 《史記 卷6 秦始皇本紀》

332 혹여…해도 : 한 무제(漢武帝)가 장건(張騫)을 대하국(大夏國)에 사신으로 보냈는데, 장건이 하원(河源)을 찾아서 한 달이 지나도록 뗏목을 타고 어떤 곳에 당도하였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곳은 견우와 직녀가 사는 은하수였다고 전한다. 《荊楚歲時記》

333 무릉(茂陵)의…허락하겠는가 :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이른바 무릉도원(武陵桃源)의 전설을 말한다. 진(晉)나라 때 무릉(武陵)의 어부가 복사꽃이 흩날려 내려오는 물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갔다가 진(秦)나라의 난리를 피해 들어온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곳이 워낙 선경(仙境)이라서 바깥세상의 변천과 세월의 흐름도 잊고 살고 있었다. 어부는 이 마을에 며칠 머무르며 후한 대접을 받고 떠나 왔는데, 뒤에 다시 이 마을을 찾자 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

는구나.<sup>334</sup> 이 정자의 연하(煙霞)가 함께 맹주(盟主)됨을 싫어하지 않으니, 삼상(三湘)의 풍광이 응당 동빈(洞賓)을 알아보았음이라.<sup>335</sup>

다고 한다.

- 334 한…나는구나 : 여기서 한 쌍의 오리는 이미 고인이 된 권벌과 권동보를 가리키고, 외로운 학은 권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335 이…알아보리라 : 이곳의 연하가 현재 정자의 주인 권래가 선대의 유업을 물려받아 다시 맹주가 된 것을 싫어하지 않았으니, 그가 본래 당나라 때 도사 여동빈임을 알아보았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삼상은 초나라 굴원(屈原)이 조정에서 방축(放逐)된 뒤에 거닐었던 상강(湘江) 언덕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안동 일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동빈은 당나라 때 신선 여동빈(呂洞賓)이다. 여동빈은 강호에 유랑하다가 신선 종리권(鍾離權)을 만나 연명술(延命術)을 받고 신선이 된 다음 양절(兩浙) 사이를 다니며 놀았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한다. 그가 악양루(岳陽樓)에 제한 <동빈유악양(洞賓遊岳陽)> 시에 “아침에 북해에서 노닐다가 저녁엔 창오에 있고, 소매 속 청사검에 담기가 드눴네. 세 번이나 악양에 들어가도 아무도 몰라보니, 낭랑히 시 읊고서 동정호로 날아가네. [朝遊北海暮蒼梧 袖裏青蛇膽氣麤 三入岳陽人不識 朗吟飛過洞庭湖]”라고 하였다. 《事文類聚前集 卷34》

## 능허정 서

凌虛亭序

무지개가 거울 속을 날 듯 고운 물결을 둘러 들보는 솟았고, 새가 공중에서 발돋움하듯 맑은 기운을 밀치고 난간은 열렸다. 동서에는 물이요, 위아래는 모두 하늘이라. 비록 집은 교인(蛟人)<sup>336</sup>이 사는 곳과 다르지만 어룡(魚龍)은 창해보다 많고, 사람은 신선되어 날아갈 수 없지만 닭과 개의 울음은 백운(白雲)보다 가깝구나.<sup>337</sup> 물속에 잠긴 달과 쌍으로 맑아 천지가 온통 벽색(碧色)이다. 봄기운은 비단 섬을 단장하니 가없이 지는 꽃을 마주하고, 가을 햇살은 옥 같은 백사장을 비추니 끝없이 멀리 돌아오는 기러기를 바라본다. 저 오호(五湖)<sup>338</sup>의 물결은 언제나 그대로이니 형승을 누가 독차지하랴, 삼협(三峽)의 누대가 높다하나 광대한 호

---

336 교인(蛟人) : 교인은 동해에 사는 인어(人魚)를 가리킨다. 비단을 짜면 그 비단은 세상의 비단보다 아름답고, 눈물을 흘리면 구슬이 된다고 한다. 《述異記》

337 닭과…가깝구나 : 한(漢) 나라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이 신선의 도술을 터득하여 온 가족을 데리고 승천(昇天)하였는데, 그가 먹고 남긴 선약(仙藥)을 개와 닭들이 활아먹고는 그를 따라 하늘로 함께 올라가, 개는 천상에서 짖고 닭은 구름 속에서 울었다고 한다. 《論衡道虛》

338 오호(五湖) : 장강(長江) 하류의 태호(太湖)를 포함한 소택(沼澤) 지대를 가리킨다. 춘추 시대 월(越)나라 대부(大夫) 범려(范蠡)가 일찍이 월왕(越王) 구천(句踐)을 보좌하여 오(吳)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는 곧바로 거룻배를 오호에 띄워 타고 떠났다는 고사가 있다. 전하여 성공한 뒤에 은둔하는 곳의 대명사로 쓰인다. 《史記 卷41 越王句踐世家, 卷129 貨殖列傳》

수의 풍광이 빠졌도다.<sup>339</sup> 더구나 은교(銀橋)를 더위잡고 월궁(月宮)에 오르려 해도 의지할 구만리 회오리바람이 없고,<sup>340</sup> 기운을 몰아 바람을 탄다 해도 또한 열닷새 마다 변하는 바람에 의존하고 있다.<sup>341</sup> 어찌 수시로 임금을 계도하면서 간찰을 하사한 대부

339 삼협(三峽)의…빠졌도다 : 이 구절은 두보(杜甫)의 <즉사(卽事)>라는 시를 차용한 표현이다. 삼협(三峽)은 구당협(瞿唐峽), 무협(巫峽), 서릉협(西陵峽)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는 두보가 기주(夔州)에서 생활할 때 서각(西閣)이 있던 구당협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각은 백제산(白帝山)의 중턱에 위치하였다. 그 시에 이르기를 “높이 솟은 서각에서 주렴 걷고 바라보면 그림 속인 듯 아름답지만, 광활한 소상을 마주할 수 없는 것이 아쉽구나. [飛閣捲簾圖畫裏 虛無只少對瀟湘]”라고 하였다. 원문의 ‘虛無’는 동정(洞庭)과 소상(瀟湘)의 광대하고 텅 빈 듯한 풍광을 가리킨다.

340 더구나…없고 : 은교(銀橋)는 신선의 지팡이가 변하여 되었다는 전설상의 다리로, 월궁(月宮)으로 통하는 다리라고 한다. 당 현종(唐玄宗)이 어느 날 달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도사(道士) 나공원(羅公遠)이 “폐하께서는 달에 가서 감상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고는 지팡이를 허공에 던지니 은빛 다리가 되었다. 현종과 함께 올라가기를 청하여 수십 리를 가자 환한 빛이 눈을 빼앗고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는데 마침 커다란 궁궐에 도착하였다. 나공원은 그제서야 그곳이 월궁이라고 하였다. 《神仙感遇傳》또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에 “봉새가 남쪽 바다로 옮겨 갈 때에는 물결을 치는 것이 삼천 리요,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 리를 올라가 여섯 달을 가서야 쉰다. [鵬之徙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萬里 去以六月息者也]”라고 하였다.

341 기운을…있다 :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에 “열자(列子)는 바람 기운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서 기분 좋게 보름 동안쯤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돌아오곤 한다. 그는 복을 구하는 일에 약삭 같이 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역시도 걷는 것은 면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바람을 의존하는 자이다.”라고 하였다. 진정한 도의 체득자는 자연의 변화를 타고 절대무한의 세계에 노닐며,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sup>342</sup>를 따르고, 한가한 날 산수를 유람하며 허공을 나는 공자<sup>343</sup>가 되는 것만 하겠는가. 돌아보건대 나는 어느 해에나 돌아갈 수 있을런가, 누대 지을 땅도 없구나. 한 척의 배 불러 줄 회오리바람 돌아오지 않아 이미 성대한 연회<sup>344</sup>와 어긋났고, 몇 구절 지은 글 또한 -원문 1자 빠짐- 하여 부질없이 창랑(滄浪)<sup>345</sup>의 꿈만 꾸는구나.

- 
- 342 간찰을 하사한 대부 : 사마상여(司馬相如)를 가리킨다. 서한(西漢)의 양효왕(梁孝王) 유무(劉武)가 양원(梁園)이란 호사스러운 자신의 원림(園林)에서 세모(歲暮)에 사마상여·매승(枚乘)·추양(鄒陽) 등을 초대하였는데, 이때 사마상여가 늦게 와서 상객의 자리에 앉았다. 이에 유무가 이들과 함께 주연(酒筵)을 베풀고 놀다가, 눈이 오자 흥에 겨워 먼저 《시경》의 시를 읊고는 간찰을 주면서[授簡] 사마상여에게 시를 짓게 하였다고 한다. 《文選 卷30 雪賦》
- 343 허공을 나는 공자 : 본래 장형(張衡)의 〈서경부(西京賦)〉에 나오는 빙허공자(憑虛公子)라는 가공의 인물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허공에 의지하여 자유롭게 유평하는 인물로 보았다.
- 344 성대한 연회 : 아름다운 정자에 모여 훌륭한 사람들과 시연(詩筵)을 갖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왕발(王勃)이 등왕각(滕王閣)에 참여한 모임을 의식한 표현인데, 그의 〈등왕각서〉에 “아, 등왕각이 있는 곳처럼 좋은 승지는 심상하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이런 승지에서 성대한 연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다시 만나기 어려운 일이다.[嗚呼勝地不常 盛筵難再]”라고 하였다.
- 345 창랑(滄浪) : 굴원(屈原)의 〈어부사(漁父辭)〉에서 어부가 굴원과 헤어지며 노래하기를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르면 나의 발을 씻으리라.[滄浪之水清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라고 하였다. 진속(塵俗)을 초탈하여 고결한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

## 매학헌<sup>346</sup> 서

梅鶴軒序

천파(天葩)와 국염(國艷)은 곧 대유령(大庾嶺)의 아름다운 자태

---

346 매학헌 : 매학헌이 누구의 정자인지 본문에서는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지만, 조찬한이 선산 부사(善山府使) 재임 시절에 지은 <봉하루서(鳳下樓序)>와 《一善誌》에 실린 제영시 등에 고산(孤山)이라는 어휘가 등장하므로, 고산 황기로(黃耆老, 1521~1567)의 정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산은 선산의 해평(海平) 남쪽에 있는 지명으로, 원래 이름은 옥산(玉山)이었는데 송나라 때 임포(林逋)가 서호(西湖)의 고산에 은거해 매화를 심고 학을 키운 뜻을 이어받아 뒷산을 고산이라 하고, 정자를 매학정(梅鶴亭)이라 했다. 황기로는 중요(鍾繇)와 왕희지(王羲之)의 필법을 배웠으며 특히 초서에 조예가 깊어 웅장하고 절묘했다고 전한다. 황기로 자신도 생전에 매화를 심고 학을 길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삼절(三絶)은 바로 매화와 학, 그리고 초성(草聖)인 황기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一善誌》

요,<sup>347</sup> 교복(皎服)과 현상(玄裳)은 임고정(臨臯亭)의 도사로다.<sup>348</sup>  
 그러므로 얼음 낀 독과 눈 쌓인 언덕에서 보조개<sup>349</sup>에 미소를 띄

347 천파(天葩)와…자태요 : 매화의 고운 모습을 뜻한다. 천파(天葩)는 천연적인 아름다운 꽃이라는 뜻이다. 한유(韓愈)의 <취증장비서(醉贈張祜書)>라는 시에서 맹교(孟郊)의 빼어난 시문을 칭찬하며 “동아는 걸핏하면 사람을 놀라게 하니, 천파가 기이한 향기를 토하는 격일세.[東野動驚俗 天葩吐奇香]”라고 하였다. 국염(國艷)은 국색(國色)이라는 말과 가까운데,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라는 뜻으로, 주로 모란·매화·살구 나무·작약 등의 꽃을 비유한다. 소식(蘇軾)의 <재용전운(再用前韻)> 시에 “천하 일품의 향기와 국중 제일의 아리따운 자태가 어찌 나를 돌아 보라, 나 있는 곳에 술이 익어 맑고 온후한 시흥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天香國艷肯相顧 知我酒熟詩清溫]”라고 하였다. 또 대유령(大庾嶺)은 중국 오령(五嶺) 중의 하나로, 전설에 의하면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에 유씨(庾氏) 성을 가진 장수가 이곳에다 성(城)을 쌓았다 하여 대유령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산 위에 매화를 많이 심어 놓아 매령(梅嶺)이라고도 한다.

348 교복(皎服)과…도사로다 : 학의 자태를 뜻한다. 교복과 현상은 각각 흰 옷과 검은 치마로 학의 깃털을 가리킨다. 임고정(臨臯亭)은 소식의 <후적벽부(後赤壁賦)>에 나오는 정자 이름으로, 호북성 황강현(黃岡縣) 남쪽, 장강(長江) 북쪽 기슭에 있다. <후적벽부>에 이르기를 “한 밤중에 사방을 둘러보니 적막하기만 하였다. 그때 마침 외로운 학 한 마리가 강을 가로질러 동쪽에서 날아오는데, 날개는 수레바퀴처럼 크고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듯하였으며, 길게 소리 내어 울면서 우리 배를 스쳐서 서쪽으로 날아갔다. 얼마 있다가 손님들은 모두 돌아가고 나도 잡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어떤 도사가 새털로 만든 옷을 펴리며 날아서는 임고정 아래를 지나와 내게 읊을 하고는 ‘적벽에서의 놀이가 즐거웠소?’ 하고 물었다. 그의 이름을 물으니, 머리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내가 ‘아하, 내가 알았다. 지난밤에 길게 울면서 나를 스쳐 날아간 것이 바로 그대가 아니오?’ 하니, 도사는 고개를 돌리며 웃었다.”라고 하였다.

349 보조개 : 매화가 꽃을 피우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원문의 ‘寶靨’은 당나라 때 유행했던 화전(花鈿)을 가리킨다. 금속을 얇게 펴서 작은 꽃모양으로 만들고 얼굴에 붙이는 장식이다. 양형(楊炯)이 물 위에

우면 봄빛이 돌아오고, 월계수와 바람 부는 소나무에서 목청을 길게 뽑아 이슬을 경계한다.<sup>350</sup> 그러나 파교(灞橋)의 십리 길 어느 곳에서 맑은 향기 피웠던가,<sup>351</sup> 화표(華表)에서 천년을 깃들었지 만 힘찬 날개짓 찾기 어렵구나.<sup>352</sup> 어찌 부리 옮겨 단단하게 심어 한 줌 흙에 의지하고, 그림자를 희롱하다 길게 울며 작은 뜰에서

생겼다 사라지는 포말(泡沫)을 읊은 <부구부(浮漚賦)>에 “자세히 관찰하면 마치 미인이 거울을 대하여 보조개를 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물귀신인 풍이가 조개 속의 맑은 구슬을 꺼내어 배열해 놓은 것 같기도 하다. [細而察之 若美人臨鏡開寶靨 大而望也 若馮夷剖蚌列明珠]”라는 표현이 보인다.

350 이슬을 경계한다 : 학이 음력 8월에 이슬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큰 소리로 울어 해를 피할 것을 알린다고 하는데, 변화에 기민한 학의 본성을 말한다. 진(晉)나라 주처(周處)의 《풍토기(風土記)》에 “학은 성질이 조심스러워 팔월에 이슬이 내려 풀잎 끝에 흐르며 방울방울 소리를 내면 즉시 소리 높이 울어 서로 경계하며 머물던 곳을 옮기니, 이는 사물의 변화에 해를 당할까 염려해서이다. [此鳥性警至八月白露降 流於草上 滴滴有聲 因即高鳴相警 移徙所宿處 慮有變害也]”라고 하였다.

351 그러나…피웠던가 : 파교는 당나라 때 장안(長安) 동쪽에 있는 파수(灞水)의 다리 이름이다. 명인(明人) 장대(張岱)의 《야항선(夜航船)》 권 1 ‘답설심매(踏雪尋梅)’라는 표제어에 “맹호연은 정희가 광달하여 항상 눈 오는 것을 무릅쓰고 나귀를 타고서 매화를 찾아다녔다. 그리고 이르기를 ‘내 시상은 눈보라 치는 파교의 당나귀 등에 있다.’라고 하였다. [孟浩然情懷曠達 常冒雪騎驢尋梅 曰吾詩思在灞橋風雪中驢背上]”라고 풀이하였다.

352 화표(華表)에서…어렵구나 : 한(漢)나라 때 요동(遼東)의 정령위(丁令威)가 일찍이 영허산(靈虛山)에 들어가 선술(仙術)을 배우고 뒤에 학(鶴)으로 변하여 고향의 성문(城門) 화표주(華表柱)에 날아와 앉았다. 이때 한 소년이 활로 그를 쏘려고 하자, 학이 날아올라 공중에서 배회하며 “새여 새여 정령위라, 집 떠난 지 천 년 만에 이제야 돌아왔네. [有鳥有鳥丁令威 去家千年今始歸]”라고 했다는 고사가 있다. 《搜神後記 卷1》

자유롭게 지내는 것만 같으라.

동곽(東郭)의 안석(案席)을 떠나지 않고도 이미 서호(西湖)의 높은 인품 차지했도다.<sup>353</sup> 비록 수척한 깃털, 맑은 가지와 짝하여 삼절(三絶)을 이루었으나,<sup>354</sup>佳人(佳人)에게 졸작으로 답하니 어찌 이난(二難)이라 하겠는가.<sup>355</sup> <무학부(舞鶴賦)> 삼경(三更)에 지으니 귀신도 울게 할 구절 아니지만,<sup>356</sup> <낙매화(落梅花)> 한 곡조는

353 동곽(東郭)의…차지했도다 : 매학헌 주인의 고고한 인품을 찬미한 것이다. 동곽은 동쪽 교외(郊外)를 뜻하는데, 옛날에 유도자(有道者)로서 동곽에 은거했던 동곽순자(東郭順子), 동곽자(東郭子), 동곽자기(東郭子綦) 등이 모두 <장자>에 나온다. 일반적으로 <제물론(齊物論)>의 남곽자기(南郭子綦), <서무귀(徐無鬼)>의 남백자기(南伯子綦)와 동일인으로 취급한다. 여기서 는 <제물론>의 “남곽자기가 안석에 기대고 앉아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긴 숨을 내쉬는데, 명하니 자기 짝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南郭子綦隱机而坐 仰天而嘘 嗒焉似喪其耦]”라고 한 것을 전용한 것으로, 남곽자기는 도(道)의 근본을 체득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 서호(西湖)는 중국 절강성(浙江省) 항현(杭縣)에 있는 호수 이름으로, 그곳에 있는 고산(孤山)에서 송나라 때 시인 임포(林逋)가 은거하였다. 임포는 20년 동안 성시(成市)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채 처자 없이 매화를 심고 학을 기르며 사니, 당시 사람들이 매치학자(梅妻鶴子)라고 칭하였다. 《宋史 卷457 林逋列傳》 특히 그의 <산원소매(山園小梅)>에 “맑고 얇은 물 위에 성긴 그림자 가로 비끼고, 황혼 녘 달빛 속에 은은한 향기 떠도누나.[疎影橫斜水清淺 暗香浮動月黃昏]”라는 구절이 유명하다.

354 비록…이루었으나 :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뛰어난 사물이나 사람을 뜻하는데, 여기서 는 매화와 학, 그리고 정자의 주인을 가리킨다.

355佳人(佳人)에게…하겠는가 : 작자 조찬한이 지은 이 글이 주인의 고고한 인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겸사이다. 이난(二難)은 현주(賢主)와 가빈(佳賓)이 동시에 만나 어울리는 일이 어렵다는 뜻이다.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 “네 가지 아름다움이 갖추어지고 두 가지 어려움이 함께하였다.[四美具 二難并]”라고 하였다.

356 무학부(舞鶴賦)…아니지만 : <무학부(舞鶴賦)>는 남조(南朝) 송(宋) 포조(鮑照)가 지은 작품으로, 백학(白鶴)이 춤추며 날아가는 모습을 읊

알운(遏雲)의 가락 더하는 듯 하구나.<sup>357</sup>

---

은 영물부(詠物賦)이다. ‘귀신도 울게 할 구절’은 시문(詩文) 따위가 사람을 깊이 감동시킴을 말한다. 이 구절은 작자의 글이 귀신도 울게 할 정도의 작품이 아니라고 하는 겸사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 357 낙매화(落梅花)…하구나 : 〈낙매화〉는 악부 횡취곡(橫吹曲) 가운데 하나로, 한대(漢代)의 적곡(笛曲)인 〈매화락(梅花落)〉, 〈관산낙매곡(關山落梅曲)〉 같은 악곡(樂曲)이다. 알운(遏雲)은 가던 구름이 음악을 들으려고 멈춘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주인의 젓대 소리가 훌륭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삼호정<sup>358</sup> 서 교하에 있다.

三湖亭序 在交河

백헌이 굳이 칭하기에 짓다.

강산엔 주인이 있고 풍월은 끝이 없다 하나, 만약 날개 없는 신선이 아니라면 비단 없는 산 그림을 어찌 얻을 수 있겠나.<sup>359</sup> 청천(晴川)과 방초(芳草)를 어찌 수고롭게 품평하라,<sup>360</sup> 이수(二水)와 삼산(三山)도 형승을 논할 필요 없도다.<sup>361</sup> 다만 거듭 월

358 삼호정 : 사호(沙湖) 유색(柳穡, 1561~1621)이 교하에 지은 정자 이름이다. 유색은 양주 목사(楊州牧使), 승지, 전라 관찰사 등을 지내고, 사후에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유색은 생전에 산수를 좋아하여 교하 호숫가에 정자를 짓고 삼호정이라 하였다. 또 자호를 사호(沙湖)라고 했으니 이 정자에서 따온 것이다. 유색은 복건을 쓰고 야인의 복장을 한 채 소나 말을 타고서 오가며 소요하였는데, 이곳에서 어부나 농부와 더불어 고기를 낚으며 지냈다고 한다. 조찬한에게 삼호정 서문을 청한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 1595~1671)은 유색의 둘째 사위이다. 《白軒集 卷50 全羅道觀察使贈領議政柳公墓表》이하 유색의 행력에 대해서는 이경석이 지은 묘표를 따랐다.

359 만약...있겠나 : 날개 없는 신선은 우화등선(羽化登仙)하지 않고 평지에 사는 신선, 곧 지상선(地上仙)을 가리킨다. 비단 없는 산 그림은 비단에 그린 그림이 아니라 그림 같은 실제의 경관을 가리킨다.

360 청천(晴川)과...품평했으랴 : 청천(晴川)과 방초(芳草)는 당(唐)나라 최호(崔顥)의 <등황학루(登黃鶴樓)> 시에 “비 갠 강엔 선명한 한양의 나무이고, 향그런 풀 무성해진 앵무주르다.[晴川歷歷漢陽樹 芳草萋萋鸚鵡洲]”라는 구절에서 온 말로 누대 앞에 펼쳐진 자연 풍광을 가리킨다.

361 이수(二水)와...없도다 : 이수(二水)와 삼산(三山)은 이백(李白)의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에 “삼산은 반쯤 맑은 하늘 끝에 잠겨 있고, 이수는 중간에서 백로주에 나뉘었네.[三山半落青天外 二水中分白鷺洲]”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二水’는 판본에 따라 ‘一水’로 된 것도

계수를 올라가 청운의 길을 날아올랐고,<sup>362</sup> 세 번 천형(天衡)을 잡아 백일(白日)을 인도하였네.<sup>363</sup> 창파(滄波)가 꿈속에 들어와 왕교(王喬)의 한 쌍 오리를 숨겼고,<sup>364</sup> 안개 낀 배가 가을 바람을 놓칠 때면 장한(張翰)의 외기러기 바라보았도다.<sup>365</sup> 그러나

있다. 이백 문집의 제주석에 따라 이에 대한 설이 분분한데, 장강(長江)과 진회하(秦淮河)의 이수라는 설, 장강 자체가 둘로 나뉜 이수라는 설, 진회하 자체가 둘로 나뉜 이수라는 설 등이 있다. 삼산(三山)은 금릉의 서쪽으로 이어져 있는 세 개의 봉우리를 가리킨다.

362 다만…날아올랐고 : 과거에 두 번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는 뜻이다. 진(晉)나라 극선(郤詵)이 과거에 장원 급제한 뒤에 월계수(月桂樹) 가지를 꺾었다고 자칭했던 ‘월궁절계(月宮折桂)’의 고사에서 온 말이다. 《晉書 卷52 郤詵列傳》 청운(靑雲)은 벼슬길을 비유한다. 전국시대 위(魏)나라 수가(須賈)가 범수(范雎)에게 “나는 그대가 스스로 청운의 위에 오를 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賈不意君能自致於靑雲之上]”라고 하였다. 《史記 卷79 范雎蔡澤列傳》 유색은 1582년(선조 15)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1595년 대과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선발되어 들어갔다.

363 세…인도하였네 : 천형(天衡)은 대각(臺閣)의 벼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백일(白日)은 임금을 가리킨다. 유색은 1611년(광해군3)에 세 번 사간(司諫)이 되면서 시강원 필선(侍講院弼善)을 겸하였다.

364 창파(滄波)가…숨겼고 : 중앙 관직보다는 자연이 있는 외직을 좋아하였다는 뜻이다. 후한(後漢) 때 사람 왕교(王喬)가 섭현(葉縣)의 현령으로 있으면서 매월 삭망(朔望)에 입궐하여 조회하므로, 이를 수상히 여긴 황제가 엿보게 하였더니, 신발을 오리로 변화시켜서 타고 날아서 오갔다고 한다. 후에 왕교의 오리는 지방 수령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後漢書 卷82 王喬列傳》 유색은 관직에 있으면서 주로 외직에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의 봉양을 위해 외직을 청한 것이 네 번이라고 한다.

365 안개…바라보았도다 : 벼슬살이를 하면서도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다는 뜻이다. 진(晉)나라 때 오중(吳中) 출신 장한(張翰)은 자가 계웅(季鷹)인데, 일찍이 낙양(洛陽)에 들어가 동조연(東曹掾)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을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자기 고향 강동(江東) 오중의 순칫국(蓴羹)과 송강(松江)의 농어회(鱸膾)가 생각나서



주자(周子)가 떠나 돌아올 줄 모르자 솔 그림자만 더욱 성글어졌는데,<sup>366</sup> 왕손(王孫)이 유람하다 비로소 돌아오니 방초(芳草)의 한탄이 곧 그쳤다.<sup>367</sup> 여기에 가객(佳客)이 있거늘<sup>368</sup> 누가 임하(林下)에 사람 없다 하리요, 그대로 몸을 마칠 생각이었으니 술동이 앞에 벗이 있어 기뻐하였네.

그러나 임금과 백성의 일이 시급하였으니 물고기와 새는 도리어 가벼운 일이었다. 강가의 어옹(漁翁)은 아직 서암(西巖)

말하기를 “인생은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어찌 수천 리 타관에서 벼슬에 얽매어 명성과 작위를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人生貴得適志 何能羈宦數千里以要名爵乎]” 하고는 즉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楮書 卷92 文苑列傳 張翰》

366 그러나…성글어졌는데 : 유색이 고향에 돌아오지 않자 소나무 그림자도 시들어갔다는 뜻이다. 주자(周子)는 남제(南齊) 때의 문신(文臣) 주옹(周顒)을 가리킨다. 주옹이 종산(鍾山)에 은거하다 조정의 부름을 받고 해염 현령(海鹽縣令)이 되었는데, 지나는 길에 이 산을 다시 방문하려 하자 공치규(孔稚珪)가 산신령의 뜻에 기탁하여 주옹을 비판·성토했다. 그 글에서 주옹이 떠난 뒤의 쓸쓸한 풍경에 대해 “우리 저 높다란 노을은 외롭게 비추고, 휘영청 밝은 달은 홀로 뜨게 되었다. 푸른 솔은 그늘을 드리울 뿐, 저 흰 구름은 누구와 짝을 할까.[使我高霞孤映 明月獨學 青松落陰 白雲誰侶]”라고 하였다.

367 왕손(王孫)이…그쳤다 : 유색이 고향으로 돌아오자 초목도 시름이 멈추었다는 뜻이다. 한(漢)나라 회남 소산(淮南小山)의 <초은사(招隱士)>에 “왕손이 떠나가 돌아오지 않음이며, 봄풀은 자라서 무성하다.[王孫遊兮不歸 春草生兮萋萋]”라고 하였다. 《楚辭 卷12 招隱士》

368 여기에 가객(佳客)이 있거늘 : 원문의 ‘於焉嘉客’은 나의 좋은 손님이 되게 하겠다는 뜻으로, 어진 이와 헤어지기 아쉬워한다는 의미이다. 《시경》 <백구(白駒)>의 “그대의 흰 망아지가 내 밭의 콩잎을 먹었다 핑계 대고는, 붙잡아 매어 두고 오늘날 길게 늘어, 저 훌륭한 사람은 나의 좋은 손님이 되게 하련다.[皎皎白駒 食我場藿 繫之維之 以永今夕 所謂伊人 於焉嘉客]”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의 달빛 아래 잠을 자고,<sup>369</sup> 창가의 도서(道書)는 이내 남포(南浦)의 구름에 덮이게 되었네.<sup>370</sup> 아, 지금 시대 기린각(麒麟閣) 공신 논할 때 비록 잠시 대수(大樹) 아래 피해 있었지만,<sup>371</sup> 훗날 비취새가 어찌 아름다운 들보에 등지를 틀도록 하랴.<sup>372</sup> 한 몸에 나라의 안위를 도맡았으니 겸선(兼善)이 독선(獨善)보다 더 훌륭하고,<sup>373</sup> 강가에 살면서도 천하의 근심과 기쁨을 함께하니 삼호가

369 강가의…잠고 : 유색이 어울리던 어부는 유색이 떠난 뒤에도 여전히 고즈넉한 생활을 영위함을 뜻한다. 유종원(柳宗元)의 시 <어옹(漁翁)>에 “어옹이 밤 사이 서암 곁에 묵더니, 새벽에 맑은 상수를 길고 초죽으로 불을 때누나.[漁翁夜傍西巖宿 曉汲清湘燃楚竹]” 하였다.

370 창가의…되었네 : 유색이 즐겨보던 도가의 서적도 읽는 이가 없어 구름에 쌓여 있다는 뜻이다. 남포(南浦)는 남쪽의 포구라는 말로, 흔히 이별하는 장소를 뜻하는 말로 쓰이는데, 중국 전국 시대 초(楚)나라 굴원(屈原)의 <구가(九歌 동군(東君))>에 “그대와 손을 마주 잡을 이여, 동쪽으로 가는도다. 아름다운 사람을 전송함이며, 남쪽의 물가에서 하는도다.[子交手兮東行 送美人兮南浦]”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楚辭 卷2 九歌 東君》

371 아…있었지만 : 조정에서 공을 논할 때면 유색은 사양하여 피했다는 뜻이다. 기린각은 한 무제(漢武帝)가 세우고, 선제(宣帝)가 대장군 곽광(霍光) 등 12인의 초상을 걸어 놓은 곳이다. 대수(大樹)는 후한(後漢) 때의 장군 풍이(馮異)를 말한다. 풍이는 본디 겸손하여 제장(諸將)이 공(功)을 논할 때 항상 큰 나무 밑으로 피해 가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대수장군(大樹將軍)이라 호칭한 데서 온 말이다. 《後漢書 卷17 馮異列傳》

372 훗날…하랴 : 어찌 삼호정에 새가 등지를 틀도록 하여 황량하게 방치하겠는가라는 뜻이다. 비취새는 본래 물가에 사는 새이므로 사람이 사는 집에 집을 짓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돌보지 않아 황폐해지면 비취새가 서식할 장소로 삼게 된다. 두보(杜甫)의 <곡강이수(曲江二首)>의 첫 번째 시에 “물가의 작은 건물에는 비취새가 등지를 틀었고, 부용원 주변의 무덤에는 석기린이 쓰러져 있네.[江上小堂巢翡翠 苑邊高塚臥麒麟]”라고 하여 황폐해진 곡강의 풍경을 표현하였다.

373 겸선(兼善)이…훌륭하고 : 《맹자(孟子)》 <진심 상(盡心上)>에 “근궁해

오호(五湖)보다 더 낫도다.<sup>374</sup>

---

지면 자기의 몸 하나만이라도 선하게 하고, 뜻을 펴게 되면 온 천하 사람들과 그 선을 함께 나눈다.[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한 데서 온 말이다.

- 374 강가에…낫도다 : 이 구절은 송(宋)나라 범중엄(范仲淹)의 <악양루기(岳陽樓記)>를 차용한 표현이다. “남의 일로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일로 슬퍼하지 않아, 높이 묘당에 있을 때에는 백성을 걱정하고, 멀리 강호에 있을 때에는 임금을 걱정하니, 이는 조정에 나아가서도 걱정하고 물러나서도 걱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때에나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는 필시 천하 사람들이 걱정하기에 앞서 걱정하고 천하 사람들이 즐거워한 뒤에 즐거워한다고 할 것이다.[不以物喜不以己悲 居廟堂之高 則憂其民 處江湖之遠 則憂其君 是進亦憂 退亦憂 然則何時而樂耶 其必曰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歟]”라고 하였다. 오호(五湖)는 여기서 악양루가 있던 동정호(洞庭湖)를 가리킨다.

봉하루<sup>375</sup> 서 선산에 있다.

鳳下樓序 在善山

신령이 아끼고 귀신이 감추어 한 조각 탁트인 언덕을 남겨두었으니, 땅이 내어주고 하늘이 짓게 하여 몇 칸의 높은 난간을 열었네. 이로써 사조(謝朓)가 손으로 가리킨 뒤에야 선성(宣城)도 비로소 아름다운 이름 얻었고,<sup>376</sup> 추재(鄒宰)가 올라서 굽어보기 전에는洞庭(洞庭)도 오랫동안 광채가 없었던 걸 알 수 있다네.<sup>377</sup>

375 봉하루 : 봉하루는 경북 구미시 선산을 완전리에 있는 정자이다. 조찬한은 1629년(인조7) 선산 부사(善山府使)로 부임하였는데, 죽기 1년 전인 1630년에 이 정자를 짓고 9월에 서문을 완성하였다. 처음에는 선산부 객관(客館)의 서쪽, 부사(府司)의 뒤편에 있었는데, 청방(廳房)이 3칸이고 전후좌우의 텃기둥이 8칸이었다. 1635년 부사 이래(李峽)가 하서헌(下西軒) 서쪽으로 옮겼다. 《一善誌 卷1》

376 이로써...얻었고 : 사조는 남조(南朝) 제(齊)나라 때의 유명한 시인으로, 선성 태수(宣城太守)를 역임하였으므로 사선성(謝宣城)으로도 부른다. 그가 선성 태수로 있을 때 군치(郡治)의 북쪽 능양봉(陵陽峯) 위에 집 하나를 지어 '고재(高齋)'라고 명명하고 여기서 일을 처리하였는데, 당(唐)나라 초기에 이 고재를 누각으로 개수하고 '북루(北樓)'라고 고쳐 불렀다. 뒤에는 북망루(北望樓), 사공루(謝公樓), 사조루(謝朓樓), 사루(謝樓) 등으로 불렀다. 당나라 때 이백(李白), 백거이(白居易), 두목(杜牧)과 송나라 때 매요신(梅堯臣), 문천상(文天祥) 등이 이 누각에 올라 사조를 추억하며 시를 지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377 추재(鄒宰)가...있다네 : 추재(鄒宰)는 추현(鄒縣)의 수령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산양(山陽) 고평(高平) 즉 지금의 산둥(山東) 추현 출신인 왕찬(王粲)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왕찬은 동탁(董卓)의 난리를 피하여 형주(荊州)의 유표(劉表)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고 있을 적에 강릉(江陵)의 성루(城樓)에 올라가서 고향 쪽을 바라보며 <등루부(登樓賦)>를 지었다.

하물며 낙동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천리 사이에 아름다운 풍광이 상류에 모여 있고, 소백산 자락 만 겹의 줄기가 신령한 기운을 띠고 오른쪽으로 돌아 있음에랴. 그리하여 많은 선비들이 인걸이 되기에 마땅하였고, 못 현인들도 땅의 신령함에 걸맞았도다. 오직 전란을 누차 겪은 탓에 누대가 줄곧 황폐해져 있었다. 그래서 사신을 위로할 때에도 유공(庾公)이 달을 완상하던 누대가 없었고,<sup>378</sup> 심지어 향음주례(鄉飲酒禮)를 행하던 건물을 복자(宓子)가 거문고 타는 집으로 삼기까지 하였다.<sup>379</sup> 이런 까닭에 잡초 제거하고 집을 세워 주인은 나중에 하고 손님을 먼저 대접하였고, 속세 밖의 안개와 노을을 한 데 모아 공중의 누각을 단장하였다.

지형은 비봉산(飛鳳山)<sup>380</sup>과 이어졌으니 구름 너머의 구포(九苞)<sup>381</sup>런가, 형세는 금오산(金烏山)<sup>382</sup>을 끌어당기니 해 가운데의

378 유공(庾公)…없었고 : 유공은 진(晉)나라 때의 재상 유량(庾亮)을 가리킨다. 그가 일찍이 정서장군(征西將軍)이 되어 무창(武昌)에 있을 때 장강가에 누각을 세우고 이를 남루(南樓)라 하였는데, 어느 가을 날 밤에 달이 막 떠오르고 천기(天氣)가 아주 쾌청하자, 유량이 남루에 올라가서 그의 좌리(佐吏)인 은호(殷浩), 왕호지(王胡之) 등과 함께 시를 읊조리며 고상한 풍류를 만끽했다고 한다. 《晉書 卷73 庾亮列傳》

379 복자(宓子)가…하였다 : 공자의 제자 복자천(宓子賤)이 선보의 수령이 되었을 적에 마루 아래로 내려오는 일이 없이 거문고만 연주했는데도 잘 다스려지며 교화가 이루어졌다는 고사가 전한다. 《呂氏春秋 察賢》 여기서서는 부사(府使)가 공무를 보는 집무실을 가리킨다.

380 비봉산(飛鳳山) : 경북 구미시 선산을 교리에 있는 산으로, 봉하루가 있는 선산부 관아 뒤편으로 산세가 이어져 내려온다.

381 구포(九苞) : 봉황새의 깃에 있는 아홉 빛깔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봉황을 가리킨다.

382 금오산(金烏山) : 경북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산으로, 선산에서 남쪽으로 바라다 보인다.

삼족오(三足鳥)<sup>383</sup>인가 싶네. 황금 물결이 먼 들에 어지럽게 쌓여  
 만 이랑 전답에 가을 깊어 가고, 붉은 단풍은 긴 숲에 반이나 시  
 들어 천 그루 밤나무는 서리에 무르익는다. 먼 포구에 별빛 드리  
 우면 해평(海平)<sup>384</sup>의 백사장에 그림자 일렁이고, 동쪽 바다에서  
 해 떠오르면 천생(天生)의 성첩(城堞)<sup>385</sup>에 햇빛이 동요한다. 인간  
 세상에 다른 승경이 있다 하더라도 천하에 이 고산(孤山)<sup>386</sup>만한  
 곳은 없으리라. 명월은 청풍과 함께 가없거늘, 백운과 청산은 어  
 찌 끝이 있으랴. 아, 오늘 멀리서 시 읊으니 주홀(拄笏)의 생각<sup>387</sup>

383 삼족오(三足鳥) : 태양 속에 산다는 다리가 세 개 달린 까마귀를 뜻한  
 다.

384 해평(海平) : 선산부 관아에서 서남쪽으로 낙동강 건너편에 있는 해  
 평면(海平面)을 가리킨다.

385 천생(天生)의 성첩(城堞) : 저본과 석인본의 원문은 모두 ‘天成之堞’  
 으로 되어 있다. 앞의 대구인 ‘海平’이 고유명사인 것을 고려할 때,  
 《일선지(一善誌)》에 실린 <봉하루서>에 근거하여 ‘天生’으로 보아 번  
 역하였다. 천생은 현재 구미시 동쪽에 있는 천생산성(天生山城)을 가  
 리킨다.

386 고산(孤山) : 황기로(黃耆老)의 매학정(梅鶴亭)이 있던 해평면의 산  
 이름이다. 본래 이름은 옥산(玉山)이었는데, 임포(林浦)가 은거한 서  
 호(西湖)의 고산을 가져다 이름을 고쳤다. 고산은 낙동강과 감천(甘  
 川)이 만나는 곳에 있었다고 한다. 《一善誌》

387 주홀(拄笏)의 생각 : 주홀(拄笏)은 주홀간산(拄笏看山)의 줄임말인  
 데, 관직에 있으면서 한정(閑情)과 흥취를 누림, 또는 유연히 자득한  
 모양을 비유한다. 진(晉)나라 때 왕휘지(王徽之)는 성품이 본디 작은  
 세속 일에 전혀 얽매이지 않았는데, 그가 일찍이 환충(桓沖)의 기병  
 참군(騎兵參軍)으로 있을 적에 한번은 환충이 그에게 “경(卿)이 부(府)  
 )에 있는 지 오래되었으니, 요즘에는 의당 사무를 잘 알아서 처리하  
 겠지.”라고 하였으나,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쳐들  
 고 홀(笏)로 턱을 괴고는 엉뚱하게 “서산에 아침이 오자 상쾌한 기운  
 을 불러온다.[西山朝來 致有爽氣耳]”라고 했던 데서 유래하였다. 《世  
 說新語 簡傲》

가눌 수 없고, 훗날 긴 젓대 소리에 흑여 누대에 기댄 사람 떠오르리라.<sup>388</sup> 바람이 자안(子安)의 배 막았다면 누가 등왕각(滕王閣) 서문 지었으랴,<sup>389</sup> 하늘은 영숙(永叔)의 붓을 남겨두어 스스로 취옹정(醉翁亭) 기문 지었다네.<sup>390</sup>

388 훗날…떠오르리라 : 누대에 기댄 사람은 당나라 때 시인 조하(趙嘏)를 가리키는 말로, 여기서는 조찬한 자신의 성과 같으므로 자신을 조하에 비겨서 한 말이다. 그의 <조추(早秋)> 시에 “몇 점의 새벽 별에 기러기는 변방을 비껴 날고, 긴 젓대 한 소리에 사람은 누각에 기대었네. [殘星幾點雁橫塞 長笛一聲人倚樓]”라는 구절이 나온다. 두목(杜牧)이 이 표현을 좋아한 나머지 그를 ‘조의루(趙倚樓)’라고 불렀다는 고사가 전한다.

389 바람이…지었으랴 : 자안(子安)은 당나라 시인 왕발(王勃)의 자이다. 왕발의 배가 마당(馬當)에 정박하고 있을 때, 중원의 강물을 맡고 있다는 노인이 나타나서 내일 홍주(洪州)의 등왕각에서 글을 지어 후세에 이름을 남기라고 하고는, 바람을 불어 주어 칠백 리나 떨어진 홍주까지 하룻밤 사이에 닿게 하여 <등왕각서(滕王閣序)>라는 천하의 명문을 남기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類說 卷34 摭遺 滕王閣記》 여기서는 아랫구절과 함께 조찬한 자신을 왕발과 구양수(歐陽脩)에 비의하고 있다.

390 하늘은…지었다네 : 북송(北宋)의 구양수(歐陽脩)가 저주 지사(滁州知事)로 있을 때, 저주가 강호를 끼고 있는 절경인 데다 정사가 한가로웠으므로 취옹정(醉翁亭)이라는 정자를 지어 놓고 백성과 함께 즐기며 <취옹정기(醉翁亭記)>를 지었다.

## 청계당<sup>391</sup> 서

### 聽溪堂序

남원의 방원진이 세 차례나 편지를 보내 청하기에 지어 주었다.

땅은 삼뢰(三籟)<sup>392</sup>가 고요하기에 그윽한 시내를 베개 삼아 소리를 찾았고, 마음은 온갖 바람 소리를 동일하게 듣기에 대지에 기대어 고요한 경지에 들어갔도다.<sup>393</sup> 대저 이름은 땅의 처음에 부합하므로 동서남북 가운데 동쪽에 해당하고,<sup>394</sup> 성(姓)은 천문

391 청계당 : 만오(晩悟) 방원진(房元震, 1577~1650)이 남원에 지은 정자 이름이다. 방원진은 본관은 용성(龍城), 자는 이성(而省), 호는 만오로, 정경세(鄭經世)의 문인이다. 1592년(선조25) 임진왜란 때 양대박(梁大撲)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28세 때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정국이 어지러움을 보고 과거를 단념하고 낙향하였다. 1623년(인조1) 인조반정(仁祖反正) 후 신희(申欽)의 천거로 찰방이 되었으나 곧 사직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 때 호소사(號召使) 김장생(金長生) 휘하에서 소모관(召募官)으로 활약하였고, 1636년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켜 여산까지 진군하였으나 이미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해산하였다. 청계당은 남원의 자성방(者省坊) 문덕봉(文德峯) 아래에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방원진은 청계당 외에도 선당정사(仙壇精舍)를 지어 소요하는 곳으로 삼았다고 한다.

392 삼뢰(三籟) : 《장자》〈제물론(齊物論)〉에 나오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인 천뢰(天籟), 땅에서 나는 소리인 지뢰(地籟), 사람이 내는 소리인 인뢰(人籟)로, 모든 소리를 말한다.

393 마음은…들어갔도다 : 《장자》〈제물론〉에 따르면 대지가 뿜어내는 숨이 바람이라고 한다. 그 바람은 나무나 바위의 구멍에 불어 온갖 개별적 소리를 내도록 만든다. 그런데 만물제동(萬物齊同)의 경지에 들어간 진인(真人)은 온갖 소리의 차별상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일체 존재를 긍정하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온갖 소리인 만뢰(萬籟)를 그 자체로 듣는 경지에 들어간다고 한다.

394 대저…해당하고 : 방원진의 이름인 원진(元震)을 풀이한 구절이다.



(天文)에 응하여 이십팔수 중 네 번째인 방성(房星)이라.<sup>395</sup> 처음 국학(國學)에 들어가 잠시 봄날의 피꼬리처럼 울었고,<sup>396</sup> 잠시 경기 교외로 나아갔다가 이내 찰방의 인장을 내던졌네.<sup>397</sup> 어느덧

원(元)은 만물을 낳는 덕으로 《주역》 곤괘(坤卦) 상전(象傳)에 “위대 하도다. 땅의 처음인 곤원이여. 만물이 이를 바탕으로 생겨난다.[至哉坤元 萬物資生]”라고 한 뜻에 부합한다. 진(震)은 움직임이라는 속성을 가지므로 방위로는 동쪽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주역》 〈說卦傳〉에서 “진은 동방이다.[震東方也]”라고 하였다.

395 성(姓)은…방성(房星)이라 : 방원진의 성을 풀이한 것이다. 방성은 이십팔수(二十八宿) 중의 하나이자 창룡칠수(蒼龍七宿)의 네 번째 별로서, 말과 거가(車駕)를 맡은 별이라 하여 천사(天駟)라고도 한다. 《晉書》 卷11 天文志上》

396 처음…울었고 : 방원진이 처음 성균관에 들어가 훌륭한 인재들과 교류하고 재능을 알렸다는 뜻이다. 정수민(鄭秀民)의 《춘수당집(春睡堂集)》 권3에 실린 〈만옹전(晩翁傳)〉과 《만오선생실기(晩悟先生實記)》 소재의 〈만오공행장(晩悟公行狀)〉에 따르면, 방원진은 29세 때인 1605년(선조38)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 3년 동안 수학하였고, 그 당시 이경여(李敬輿), 김육(金堉) 등과 교유가 있었다고 하였다. 피꼬리처럼 울었다고 한 것은 《시경(詩經)》 〈별목〉에 나오는 표현으로, “나무를 쿵쿵 베거늘, 새가 아름답게 울도다. 깊은 골짜기에서 나와, 높은 나무로 올라가도다. 새가 아름답게 우는 것은, 그 벼를 찾는 소리로다. 저 새를 보아도, 오히려 벼를 찾으려고 우는데, 하물며 사람이, 벼를 찾지 않겠는가.[伐木丁丁 鳥鳴嚶嚶 出自幽谷 遷于喬木 嚶其鳴矣 求其友聲 相彼鳥矣 猶求友聲 矧伊人矣 不求友聲]”라고 하였는데, 이 시는 후에 봉우 간의 깊은 정의(情誼)를 나타내는 전고로 사용되었다. 이하 방원진의 행력은 두 자료에 따른다.

397 잠시…내던졌네 : 방원진은 1623년(인조1) 인조반정이 있고 난 뒤 상촌 신흠(申欽)이 추천하여 경기도의 중립도 찰방(重林道察訪)에 제수되었다. 이리나 얼마 뒤 이괄(李适)의 난을 만나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찰방의 인장’은 원문이 ‘傳馬之印’인데, 《만오선생실기(晩悟先生實記)》에 실린 〈청계정서〉에 근거하여 ‘傳’을 ‘傳’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백발이 되어 황황히 무엇을 하려 했던가, 이곳 청산에 살면서 너  
 녀히 여유가 있구나. 세 분의 미덕이 대대로 광채를 발하여 비와  
 구름이 교룡(蛟龍)의 산성에 가까이 어우러졌고,<sup>398</sup> 한 쌍의 구슬  
 이 나란히 빛나 명성은 홍안(鴻雁)의 고개에 솟았도다.<sup>399</sup>

방장산(方丈山) 얼굴이 자리로 들어오니 이곳에 어찌 신선이  
 없겠는가, 광한루(廣寒樓) 가는 길 들판으로 뻗어 있으니 어디에  
 또 월궁(月宮)이 있겠는가. 이로써 귀에 가득한 시냇물 소리는 소  
 호(韶護)의 음악<sup>400</sup>을 듣는 듯하고, 맑고 빠른 물소리는 정신을 상  
 쾌하게 하니 시끄럽게 울리는 패옥보다 나음을 알겠도다. 내 지  
 금 오색(五色)을 흠어버리고 본래의 밝은 시력을 내면에 품었으  
 니 고요히 관음(觀音)의 봄으로 볼 것이요,<sup>401</sup> 시끄러운 속세 소리

398 세…어우러졌고 : 원문의 ‘三絜’은 《시경》〈정풍(鄭風) 고구(羔裘)〉  
 끝장에, “염소 갓옷의 편안함이며, 삼영이 찬란하다. 저 그 사람이  
 여, 나라의 아름다운 선비로다.[羔裘晏兮 三英絜兮 彼其之子 邦之彥  
 兮.]”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三英’에 대해 주자는 갓옷의 장식이라  
 고 하였으나, 모전(毛傳)에서 삼덕(三德)이라 풀이한 것을 취하였다.  
 여기서 ‘세 분’은 방원진을 비롯하여 조부인 방응현(房應賢), 부친인  
 방덕화(房德驪) 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교룡(蛟龍)의 산성’  
 은 남원의 교룡산성(蛟龍山城)을 가리킨다.

399 한…솟았도다 : ‘한 쌍의 구슬’은 훌륭한 두 형제를 비유하는 말이다.  
 여기서는 방원진의 두 아들인 명옥(明煜)과 명소(明燾)를 가리킨다.  
 ‘홍안(鴻雁)의 고개’는 안봉(雁峯) 또는 안령(雁嶺)이라고 하는 산 이  
 름으로, 남원팔경 중 하나이다.

400 소호(韶護)의 음악 : 소호는 순(舜) 임금의 음악인 소와 탕(湯) 임금의  
 음악인 대호(大護)를 가리킨다.

401 내…것이요 : 자연의 도를 체득한 자는 인위적 색채를 버리고 천지  
 자연의 진실한 아름다움을 본다는 뜻이다. 《장자》 거협편(胠篋篇)에  
 “아름다운 인공의 문양을 끊고 오색의 기교미를 흠어버리며 이주의  
 밝은 눈을 아교로 붙여버리면, 천하의 사람들은 비로소 진실의 아름  
 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되리라.[滅文章 散五采 膠離朱之目 而天

듣기를 그쳤으니 하늘의 들음으로 들을 수 있으리라.<sup>402</sup> 그러나 관음이 보는 것과 현상을 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참된 봄을 얻었다 하랴, 하늘을 듣는 것과 시냇물을 듣는 것은 모두 참된 들음을 잃은 것 아니다.

---

下始人舍其明矣]"라고 하였다. 관음(觀音)은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로서 세상 사람들이 내는 고통의 소리를 듣는 자비의 보살이지만, 여기서는 관음의 이명(異名)이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이듯이 번뇌 없이 제법(諸法)을 관조함에 자유자재한 상태를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02 하늘의...있으리라 : 《장자》 제물론편(齊物論篇)에 나오는 천뢰(天籟)를 듣는 방법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천뢰는 인위적인 소리인 인뢰(人籟)와 자연물의 소리인 지뢰(地籟) 외에 또 다른 소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뢰를 지뢰로서 듣고 인뢰를 인뢰로서 듣는 것을 말한다. 즉 하늘을 들음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회남<sup>403</sup> 서

### 淮南序

동해 바다는 왼편에서 용솨음치며 추령(秋嶺)<sup>404</sup>을 넘어 서쪽을 향하고, 철령(鐵嶺)은 횡으로 웅크려 앉아 관산(關山)을 달려서 곧장 북으로 뻗었다. 이곳은 자리잡은 땅이 더없이 험준하기 때문엔 풍토도 예사롭지 않다. 그늘진 벼랑엔 겨울이 다 지났는데도 일원(一元)의 기운<sup>405</sup>은 퍼지기 어렵고, 가파른 골짜기에 봄이 돌아왔는데도 언제고 만리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서 언덕과 높은 산도 날아갈 듯하고 집이나 나무도 다 뽑힐 듯하다. 산은 문히고 골짜기는 잠겼으니 그저 쌓인 눈과 콩콩 언 얼음만 눈에 가득하고, 제비는 꿈뜨고 꾀꼬리는 움츠려 있으니 어느 곳에 낙화와 방초가 있으랴. 봉래산 신선도 학을 타고 멀리 날아서 노닐 수 없고, 초야의 백성은 메추리처럼 일정한 거처도 없이<sup>406</sup> 가을 파

403 회남 : 회남(淮南)은 강원도 회양(淮陽)을 가리킨다. 조찬한은 1625년(인조3)에 회양 부사(淮陽府使)로 부임하였는데, 당시 이 지역의 풍토를 느끼고 지은 것으로 보인다.

404 추령(秋嶺) : 추지령(秋池嶺)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秋’는 ‘楸’로도 표기한다. 회양과 통천(通川) 사이에 있는 고개이자, 통천팔경(通川八景)의 하나로 동해의 일출과 낙조를 볼 수 있는 곳이다.

405 일원(一元)의 기운 : 여기서 일원(一元)은 일양(一陽)을 가리킨다. 음력 10월에 음기가 극에 달하고, 11월 동지가 되면 일양이 비로소 생기는 것을 말한다. 11월은 복괘(復卦)에 해당하여 일양이 처음 생겨나므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을 뜻한다.

406 메추리처럼…없이 : 일정한 거처도 없이 간편하게 생활하는 습속을 말한다. 《장자》〈천지(天地)〉에 “성인은 메추라기처럼 일정한 거처도 없고 새 새끼처럼 부실하게 먹는다. 그러면서도 새처럼 날아다니면서 행적을 남기지 않는다.[夫聖人 鶉居而鷃食 鳥行而無彰]”라고 하였

리처럼 날개를 접는다. 변방의 음악이 수자리에 울려 호각 소리가 오경의 별빛을 흔들고, 농산(隴山)의 원망이 가을에 서려 젖대 소리 삼년 동안 달빛에 드네.<sup>407</sup> 짐승과 초목도 이 때문에 근심을 머금고 사람들도 삶을 즐길 생각을 잃었도다. 지역은 서울에 가까우나 천하에서 가장 척박하고 외진 땅이며, 추위는 북방의 들판보다 심해서 나라 안에 있어도 먼 이역인가 괴이하네. 그러나 만물의 광채가 생겨나 중천에 백일이 떠오른 시절을 맞이했으니, 한쪽에 치우쳤다는 유감을 풀고 깊은 골짜기에 푸른 봄이 돌아오기를 바라노라.

---

다.

- 407 농산(隴山)의…드네 : 농산은 농두(隴頭)와 같은 말로 변경의 요새를 이른다. 이 구절은 두보(杜甫)의 <세병마(洗兵馬)>를 차용한 표현이다. “출정 병사는 삼년 동안 관산월 젖대 소리에 이별의 슬픔 깃들였고, 천하 각지의 전장에서는 사람들이 초목에 이는 바람에도 적군인가 인심했네.[三年笛裏關山月 萬國兵前草木風]”라고 하였는데, 두보의 시에서는 <관산월(關山月)>이라는 악부의 곡명으로 쓰였지만, 여기서서는 앞 구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실경으로 번역하였다.

## 김수재에게 주는 서

贈金秀才序

무(無)가 끝나고 유(有)가 시작되자 하나의 기(氣)가 전변하여 음양(陰陽)이 되며, 탁한 것은 땅이 되고 맑은 것은 하늘이 되어 이의(二儀)가 나뉘어 우주가 되었다네. 만물을 무리지어 다스린 것은 아홉 형제의 인황(人皇)<sup>408</sup>에서 비롯되었고, 넉넉한 사단(四端)은 혼돈(混沌)에게 일곱 구멍 뚫린 것<sup>409</sup>을 따라 생겨났다네. 성상(星象)이 밝게 자리잡으니 규벽(奎壁)이 하늘의 문장 빛내고, 구룡(龜龍)이 그림을 지고 나오니 하도(河圖)와 낙서(洛書)가 인간 세상의 상서로움 올렸네. 복희씨의 생각 오묘한 이치 퍼져 태고적 노끈을 풀고,<sup>410</sup> 새의 발자국 기이한 문양 내자 한밤의 옛 귀

408 아홉…인황(人皇) : 전설에 상고시대의 인황씨(人皇氏)는 형제가 아홉이었는데 함께 세상을 다스렸다고 한다.

409 혼돈(混沌)에게…것 : 《장자(莊子)》〈응제왕(應帝王)〉에 고대 전설에 중앙(中央)의 제(帝)를 혼돈(混沌)이라고 하는데 날 때 일곱 구멍이 없어서 하루에 한 구멍씩 뚫어 7일이 지나자 죽었다고 한다. “남해의 제는 숙(儻)이고 북해의 제는 흘(忽)이고 중앙의 제는 혼돈이다. 숙과 흘이 때때로 혼돈의 땅에서 서로 만났는데 혼돈은 그들을 잘 대접하였다. 숙과 흘이 혼돈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도모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일곱 구멍이 있어 보고 듣고 먹고 숨쉬는데 이 혼자 없으니 한 번 뚫어 보자’ 하고, 하루에 한 구멍씩 뚫어 7일이 지나자 혼돈이 죽었다.”라고 하였다.

410 복희씨의…풀고 : 《주역(周易)》〈계사전(繫辭傳)〉에 “상고에는 노끈을 맺어 다스렸는데 후세에 성인이 글과 문서로 바꾸어서 백관이 다스려지고 만민이 살피졌으니, 궤괘에서 취한 것이다.[上古結繩而治 後世聖人 易之以書契 百官以治 萬民以察 蓋取諸爻]”라고 하였다. 복희씨는 팔괘(八卦)를 그어 서계(書契)를 만든 사람으로 노끈에서 문

신이 곡하였네.<sup>411</sup> 마침내 까마득한 천 리 사방에 전하고<sup>412</sup> 아득하게 수많은 후대를 여니, 말하는 것이 정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도를 깨는 도구라네. 이에 형정(刑政)이 이를 의지하여 문란해지지 않고 예악(禮樂)이 이를 통해 더욱 밝아졌네. 고신(高辛), 요(堯), 순(舜)의 위대함은 이 때문 아님이 없고, 우(禹), 탕(湯), 무(武)의 성대함은 모두 이것을 힘써서라네. 주공의 마음과 공자의 사상은 백 대를 지나도 미혹되지 않고, 성인이 가고 신인이 숨으니 삼광(三光)이 거의 무너졌다가 다시 솟아오르네.

제자백가의 심오한 뜻과 말은 그윽함과 미묘함을 넘나들고, 아홉 경전의 오묘한 말과 도는 하늘과 땅을 통괄하네. 현묘한 노자(老子)와 허탄한 장자(莊子)는 여러 제자들을 몰아 방외(方外)에서 노닐었고, 서글픈 굴원(屈原)과 부화(浮華)한 좌구명(左丘明)은 여러 역사가들을 껴안고 앞을 가리웠네. 진(秦)나라가 망하려 할 즈음에 한비자(韓非子)와 여불위(呂不韋)가 이를 따라 은밀하고 궤이하였고, 한(漢)나라 융성하였을 때 사마천(司馬遷)과 반고(班固)가 그 옹호하고 강대함에 걸맞았네. 다섯 마리 말이 멀리 내달리니<sup>413</sup> 강남의 여섯 왕조

자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중요한 공헌자로 여겨진다.

- 411 새의…곡하네 : 황제(黃帝)의 신하였던 창힐은 새의 발자국을 보고 문자를 창작하였는데 그때 귀신이 곡을 하였다고 한다. 《회남자(淮南子)》〈본경훈(本經訓)〉에 “옛날 창힐이 문자를 짓자 하늘에서 곡식이 내리고 귀신이 밤에 곡하였다.[昔者蒼頡作書 而天雨粟 鬼夜哭]”라는 말이 보인다.
- 412 마침내…전하고 : 양웅(揚雄)의 《법언(法言)》에 “천하의 일들을 다스려서 오래도록 기억하고 밝아지도록 희미한 옛일을 드러내고 천 리 먼 곳의 일들을 전하는 것은 글만한 것이 없다.[彌綸天下之事 記久明遠 著古昔之嚳嚳 傳千里之恣恣者 莫如書]”라는 말이 있다.
- 413 다섯…내달리니 : 《진서(晉書)》〈원제기(元帝紀)〉에 서진(西晉) 말엽에 사마씨(司馬氏)의 다섯 왕이 남쪽으로 장강(長江)을 건너 건업(建

<sup>414</sup> 거쳤고, 매미들 어지러이 우니<sup>415</sup> 건안(建安)의 일곱 사람<sup>416</sup>이 나왔네. 이 때 장(章)을 살피고 구(句)를 따지는 이들이 많았고, 푸른색에다 흰 색을 짝하는 것을 공교하다 하였네. 세상은 학문을 상실하려 하는데 하늘은 아직 문장 잃지 않았네. 오직 강엄(江淹)<sup>417</sup>, 포조(鮑照)<sup>418</sup>, 서

鄴)에 동진(東晉) 왕조를 건립하였다고 한다.

- 414 강남의…왕조 : 강좌는 장강(長江) 동쪽에 도읍한 남조(南朝), 즉 삼국의 오(吳), 동진(東晉), 송(宋), 제(齊), 양(梁), 진(陳) 여섯 왕조를 말한다. 이 시대 화려한 시풍을 추구하여 강좌체(江左體)로 불렸다.
- 415 매미들… 우니 : 시문(詩文)이 부화하거나 지나치게 수식을 가미한 것을 풍자하는 말이다.
- 416 건안(建安)의…사람 : 후한(後漢) 헌제(獻帝) 건안(建安) 연간(196-220)에 위무제(魏武帝) 조조(曹操) 부자(父子)를 중심으로 업(鄴)에 모인 문학 동호인들로 조비(曹丕)의 《전론(典論)》에 의하면, 노국(魯國)의 공융(孔融), 광릉(廣陵)의 진림(陳琳), 산양(山陽)의 왕찬(王粲), 북해의 서간(徐幹), 진류(陳留)의 완우(阮瑀), 여남(汝南)의 응창(應瑒), 동평(東平)의 유정(劉楨)이 이들이다. 종래의 부(賦) 대신 시(詩), 특히 오언시(五言詩)를 문학의 주류로 삼아, 뒤의 중국문학의 선구를 이룬 점, 민요라 할 수 있는 악부체(樂府體)의 시를 지식인의 서정시로 완성한 점, 종래의 유가적(儒家的) 취향을 벗어나 시문학에 강렬한 개성과 청신한 격조를 부여한 점 등은 그 성과이며 특징으로 꼽힌다. 7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왕찬과 유정이며, 진림과 서간이 다음을 이었다.
- 417 강엄(江淹) : 444~505. 자는 문통(文通). 남조(南朝)의 송(宋), 제(齊), 양(梁)의 3왕조를 섬겼는데 양(梁)에서는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가 되어 예릉후(醴陵侯)에 책봉되었다. 부(賦)에는 한부(恨賦), 별부(別賦) 2편이 있는데 문사(文辭)가 화려하며 변문(駢文)에는 <예건평왕상서(詣建平王上書)>가 유명하다.
- 418 포조(鮑照) : 421?~465. 자 명원(明遠). 참군직(參軍職)을 지내서 포참군(鮑參軍)이라고도 불린다. 그의 문장은 기취(奇趣)가 있는데 두보(杜甫)는 그를 '준일(俊逸)'하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강엄(江淹), 사영운(謝靈運), 안연지(顏延之) 등과 병칭(並稱)되기도 한다. 시, 부, 잡문 10권이 있는데, 특히 악부(樂府)에 뛰어났다.



릉(徐陵)<sup>419</sup>, 유신(庾信)<sup>420</sup>의 율조림은 비록 풍아(風雅)에는 손색이 있지만, 달과 이슬, 바람과 구름을 노래한 구절은 그래도 문장의 근원을 진작시켰네.

선악이 더욱 높아지니 이백(李白)<sup>421</sup>, 두보(杜甫)<sup>422</sup>, 한유(韓愈)<sup>423</sup>,

- 
- 419 서릉(徐陵) : 507~583. 자는 효목(孝穆), 시호는 장(章). 남조(南朝)에서 이부상서(吏部尙書), 상서복야(尙書僕射), 시중(侍中), 중서감(中書監)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그의 문명(文名)은 강남뿐만 아니라 화북(華北)에도 널리 퍼져 북제(北齊)·북주(北周)의 문인들과도 교섭이 빈번하였다. 문집으로 《서효목집(徐孝穆集)》이 전한다.
- 420 유신(庾信) : 513~581. 자는 자산(子山). 양(梁)나라의 간문제(簡文帝)가 태자로 있을 때 그의 아버지 유견오(庾肩吾)와 함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그의 문풍(文風)은 서릉(徐陵)과 병칭되어 서유체(徐庾體)로 일컬어졌는데 남북조의 시문을 집대성하고 당대(唐代) 율시(律詩)의 선구가 되었다. 저서로 《유자산문집(庾子山文集)》이 있다.
- 421 이백(李白) : 701~762. 자는 태백(太白), 호는 청련(靑蓮), 자호는 취선옹(醉仙翁). 두보(杜甫)와 함께 '이두(李杜)'로 병칭되는 중국 최대의 시인으로, 시선(詩仙)이라 한다. '성당(盛唐)의 기상을 대표하는 시인이다. 현존하는 문집으로는 원대(元代) 소사반이 주석한 《분류보주이태백시(分類補註李太白詩)》, 청대(清代) 왕기(王琦)가 주석한 《이태백전집(李太白全集)》 등이 있다.
- 422 두보(杜甫) : 712~770. 자는 자미(子美), 호는 소릉(少陵).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서 시성(詩聖)이라 불렸으며, 또 이백(李白)과 병칭하여 이두(李杜)라고 일컫는다. 근체시(近體詩) 중에서도 특히 율체(律體)에 뛰어나 엄격한 형식에다 복잡한 감정을 세밀하게 노래하여 이 시형의 완성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편의 고체시(古體詩)는 주로 사회성을 발휘하였으므로 시로 표현된 역사라는 뜻으로 시사(詩史)라 불린다.
- 423 한유(韓愈) : 768~824. 자는 퇴지(退之), 시호는 문공(文公). 송 대 이후 성리학의 선구자였던 중국 당나라의 문학가 겸 사상가. 산문의 문체개혁(文體改革)과 시에 있어 지적인 흥미를 정련(精練)된 표현으로 나타낼 것을 시도하는 등 문학상의 공적을 세웠다. 이는 송 대 이후 중국 산문문체의 표준이 되고 제재(題材)의 확장을 주는 등 영향을 주었다.

유종원(柳宗元)<sup>424</sup>이 번갈아 노래하였고, 강하는 폐하기 어려우니<sup>425</sup> 왕발(王勃)<sup>426</sup>, 양형(楊炯)<sup>427</sup>, 노조린(盧照隣)<sup>428</sup>, 낙빈왕(駱賓王)<sup>429</sup>이 서로 울었다네. 부리와 발톱으로 싸우고 자랑하던 이 몇 사람이던가, 이어 내려와 떨치지 못한 것은 오대(五代)<sup>430</sup>라네.

- 424 유종원(柳宗元) : 773~819. 자는 자후(子厚). 유하동(柳河東) 또는 유유주(柳柳州)라고도 부른다. 혁신적 진보분자로서 왕숙문(王叔文)의 신정(新政)에 참획하였으나 실패하여 변경지방으로 좌천되었다. 고문(古文)의 대가로서 한유와 병칭된다. 저서로 《유하동집(柳河東集)》이 있다.
- 425 강하는...어려우니 : 두보의 〈희위육절(戲爲六節)〉 시의 둘째 수에, 초당사걸(初唐四傑)로 유명한 양형(楊炯), 왕발(王勃), 노조린(盧照隣), 낙빈왕(駱賓王)의 시문을 당시의 경박한 문사(文士)들이 비웃는 것을 두고 “양왕노락의 당시 문체를, 경박하게 글짓는 이들 비웃어 그치지 않네. 너희는 몸과 이름 함께 사라지겠지만, 없어지지 않는 강하는 만고에 흐르리라. [楊王盧駱當時體 輕薄爲文哂未休 爾曹身與名俱滅 不廢江河萬古流]”라고 하여 초당사걸은 사라지지 않을 강하에 비유한 것이다.
- 426 왕발(王勃) : 649?~676?. 자는 자안(子安). 초당사걸의 한 사람으로, 지나치게 화려함을 추구하던 당시의 시풍을 개혁하려고 하였다. 그의 글은 대부분 변려체(駢儷體)로 되어 있으며, 「등왕각서(滕王閣序)」가 가장 유명하다. 명대에 집록한 《왕자안집(王子安集)》이 전해진다.
- 427 양형(楊炯) : 650~693?. 초당사걸의 한 사람으로, 변려문(駢儷文)에 능했으며 오언율시(五言律詩)에 정통했다. 저서로 《양영천집(楊盈川集)》이 있다.
- 428 노조린(盧照隣) : 641?~680?. 자는 승지(昇之). 초당사걸의 한 사람으로, 칠언가행(七言歌行)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오언시(五言詩)에도 훌륭한 작품이 적지 않다.
- 429 낙빈왕(駱賓王) : 627?~684?. 자는 관광(觀光). 초당사걸의 한 사람으로, 육조(六朝)의 시풍을 계승하면서도 격조가 청려(淸麗)했고, 노조린과 함께 칠언가행(七言歌行)에 뛰어났다. 저서로 《낙빈왕문집》·《낙임해집(駱臨海集)》이 있다.
- 430 오대(五代) : 절도사의 할거로 당(唐)나라가 멸망한 이후 조광윤(趙匡

송(宋)나라가 수립되어 인재가 성대하게 일어나자, 주무숙(周茂叔)<sup>431</sup>의 흥금에 하늘은 밝은 달을 드리웠고,<sup>432</sup> 정명도(程明道)<sup>433</sup>의 죄중에 땅은 봄바람을 보냈네.<sup>434</sup> 우리 무리 찬란하게 문장을 이루었고 여러 유자들 함께 도를 부식(扶植)하였네. 이천(伊川)<sup>435</sup>

胤)에 의해 송(宋)나라로 중국이 다시 통일될 때까지의 분열시대로 후량(後梁), 후당(後唐), 후진(後秦), 후한(後漢), 후주(後周)의 다섯 왕조를 가리킨다.

- 431 주무숙(周茂叔) : 주돈이(周敦頤, 1017~1073). 무숙은 그의 자. 호는 염계. 그는 유교사상을 재구성하면서 도가의 교의와 《주역(周易)》에 바탕을 두었다. 2권의 주요저서 가운데 하나인 <태극도설(太極圖說)>은 전체 250여 자로 된 짧은 책인데, 여기에서 "만물의 근원은 태극이며, 태극이 실제로 만물을 형성한다"는 사상에 근거한 일종의 형이상학을 제시했다. 간단명료하고 체계적인 형이상학을 통해 유교 이학의 기초를 세웠는데, 이는 이후 성리학을 소생시키고 체계화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 432 옷깃에…드리웠고 : 황정견(黃庭堅)은 <염계시(濂溪詩)>의 서문에 “용릉 주무숙은 인품이 매우 높고 흥금이 쇠락하여 마치 비 갠 뒤의 밝은 바람과 달과 같다.[春陵周茂叔人品甚高 胸中灑落 如光風霽月]”라고 하였다.
- 433 정명도(程明道) : 정호(程顥, 1032~1085). 명도는 그의 호. 자는 백순(伯淳), 시호는 순(純). 동생 정이(程頤 伊川)와 함께 이정자(二程子)로 알려졌다. 아버지 정향(程珦)이 남안(南安 江西省 大庾縣)의 관관이었을 때 주돈이(周敦頤 濂溪)를 한번 보고 아들 형제를 그의 제자로 입문시켰다고 한다. 그의 학문적 입장은 만물일체관(萬物一體觀)에 입각하여 혼일적(渾一的)으로 천지의 생의(生意)를 체험하는데 있었다. 그는 제자·노장·불교도 공부하였으나, 결국 유학으로 복귀하여 자신의 학설을 확립하였다.
- 434 정명도(程明道)의…보냈네 : 《근사록(近思錄)》 <성현(聖賢)·제자(諸子)>에 “주광정(朱光庭)이 정명도에게 배웠는데, 여(汝) 땅에서 명도를 뵈고 돌아와 사람들에게 ‘광정이 한 달 동안 봄바람 속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였다.[朱公掞見明道于汝 歸謂人曰 光庭在春風中 坐了一箇月]”
- 435 이천(伊川) : 정이(程頤, 1033~1107). 이천은 그의 호. 자는 정숙(正叔), 시호는 정공(正公). 형 정호(程顥 : 程明道)와 함께 주돈이(周敦

에 이르러 함께 일어났고 마침내 회옹(晦翁)<sup>436</sup>에 이르러 크게 이루어졌으니, 이는 참으로 성현(聖賢)에게 창화한 것이고 이에 경전(經傳)과 표리를 이루었네.

그러나 차고 빔에 운수가 있으니 사라지고 자라남이 서로 이어짐을 알겠고, 퍼지고 움츠러들은 시운을 따르니 성하고 쇠함이 갈마들을 알겠네. 그러므로 가고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 없으니 폐함이 없다면 어찌 창성할 수 있겠는가? 이에 원(元)나라가 점점 혼란해져 옛 달이 어두워졌네.<sup>437</sup> 성인이 일어남에 만물이 드러나고 정기가 들어감에 더러움이 제거되니, 명(明)나라가 이 때문에 크게 밝아졌고 중국이 중국이 된 이유라네. 창명(滄溟)<sup>438</sup>과 엄

---

頤 : 周濂溪)에게 배웠고, 형과 아울러 ‘이정자(二程子)’라 불린다. 그는 《역경(易經)》에 대한 연구가 특히 깊었고,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의 철학을 수립하여 큰 업적을 남겼다. 학문의 방법도 형은 오직 정좌(靜坐)를 주장하였으나, 그는 ‘경(敬)’을 중히 여겨 ‘거경궁리(居敬窮理)’에 힘썼다. 그의 학문적 업적은 주자에 의하여 집대성되었고, 송대(宋代)의 신유학인 정주학의 주축이 되었다. 저서로 《역전(易傳)》이 있으며, 그의 학설은 형의 학설과 함께 《이정전서(二程全書)》에 수록되었다.

436 회옹(晦翁) : 주희(朱熹, 1130~1200). 회옹은 그의 호. 자는 원회(元晦)·중회(仲晦), 호는 회암(晦庵)·운곡산인(雲谷山人)·창주병수(滄洲病叟)·둔옹(遜翁). 별호는 자양(紫陽)·운곡노인(雲谷老人), 시호는 문공(文公). 중국 송대의 유학자로서 이통(李侗)에게 학업을 배우고, 정호(程顥)·정이(程頤)의 가르침을 이었으며, 아울러 주돈이(周敦頤)·장재(張載) 등의 학설을 받아들여 성리학(주자학)을 집대성하였다. 저서로 《사서장구집주(四書章句集注)》·《자치통감망목(資治通鑑綱目)》·《주자어류(朱子語類)》·《주문공문집(朱文公文集)》 등이 있다.

437 옛...어두워졌네 : ‘호(胡)’자의 은어(隱語)로 호인(胡人)을 가리키는 데 여기서는 몽골족의 원(元)나라가 망하고 명(明)나라가 들어서게 된 것을 가리킨다.

438 창명(滄溟) : 이만룡(李攀龍, 1514~1570). 창명은 그의 호. 자는 우린(于鱗). 이몽양(李夢陽), 하경명(何景明)을 경모하여 이·하를 중심으로 하는 홍치 칠자(弘治七子 前七子)의 ‘복고설(復古說)’을 계승,

주(兪州)<sup>439</sup>의 작품은 한당(漢唐)의 전성기에 미치려 하고, 대복(大復)<sup>440</sup>과 공동(空同)<sup>441</sup>의 시는 원(元)·송(宋)의 위로 오르려 하였네. 이때에 문인들 해내(海內)에서 무리지어 나오니 실로 천하에 빈객의 예로 대우받아 천거되었네. 상고 시대를 거쳐 오늘에

왕세정(王世貞), 사진(謝榛), 서중행(徐中行), 양유예(梁有譽) 등과 더불어 ‘고문사설(古文辭說)’을 제창, 문필진한(文必秦漢), 시필성당(詩必盛唐)을 구호로 삼았다. 송원(宋元)의 시를 배척하고 이백(李白), 두보(杜甫)를 추앙하며 원진(元稹)·백낙천(白樂天)을 배격하였다. 그의 문장은 힘차고 수사학에 뛰어났지만 난해(難解)하고, 시는 격조가 높지만 지나치게 모방하였다는 평을 들었다. 저서로 《이창명선생전집(李滄溟先生全集)》·《고금시산(古今詩刪)》이 있다.

439 엄주(兪州) : 왕세정(王世貞, 1526~1590). 엄주는 그의 호. 자는 원미(元美). 호는 봉주(鳳州). 젊을 때부터 문명이 높아 가정 칠재자(嘉靖七才子 後七子)의 한 사람으로 손꼽혔고, 학식은 그 중에서도 제1인자였다. 후칠자의 맹주적인 이반룡(李攀龍)과 함께 이왕(李王)이라 불려 명대 후기 고문사(古文辭)파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이반룡이 죽은 뒤에는 그 지위를 독점하였다. 격조를 소중히 여기는 의고주의(擬古主義)를 주장하였으나, 이반룡이 진한(秦漢)의 글과 성당(盛唐) 이전의 시만을 그대로 모방한 데 비하여 왕세정은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취하였다. 만년에는 당나라의 백거이(白居易), 한유(韓愈), 유종원(柳宗元), 송(宋)나라의 소동파(蘇東坡)의 작품에도 심취하였다. 저서로 《엄주산인사부고(兪州山人四部考)》·《예원치언(藝苑卮言)》이 있다.

440 대복(大復) : 하경명(何景明, 1483~1521). 대복은 그의 호. 자는 중묵(仲默). 신양(信陽) 출생으로 하신양으로 불리기도 한다. ‘문필진한(文必秦漢), 시필성당(詩必盛唐)’이라는 복고주의 문학운동을 제창, 이몽양(李夢陽), 변공(邊貢), 서정경(徐禎卿), 강해(康海), 왕구사(王九思), 왕정상(王廷相)과 함께 ‘전칠자(前七子)’라 불리었다.

441 공동(空同) : 이몽양(李夢陽, 1475~1529). 공동은 그의 호. 자는 헌길(獻吉). 하경명(何景明)·서정경(徐禎卿) 등과 시문의 복고를 주창하여 ‘문필진한(文必秦漢), 시필성당(詩必盛唐)’을 주장, 후에 전칠자(前七子)로 불렸다. 진한(秦漢)의 고문과 이두(李杜)의 시를 이상으로 하고 시의 격조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격조설(格調說)이라고 하여 문단을 주도하기도 하였으나 모의표절(模擬剽竊)의 비난도 받았다.

이르기까지 뛰어난 재주와 아름다운 자질 가진 이 얼마였던가. 하물며 이 큰 기운이 사물에 부여될 때 치우치거나 인색하지 않음에랴.

우리나라는 비록 동쪽에 치우쳐 자리하고 있지만, 천명(天命)을 경건히 받아 오래도록 북신(北辰)을 돌고 있다네.<sup>442</sup> 세 성씨 단군(檀君)에서 나왔을 때 사문(斯文)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팔조법(八條法)이 기자(箕子)에서 비롯되었을 때 우리 도가 흥기하였네. 최고운(崔孤雲)<sup>443</sup>의 화려한 문장은 당나라 때 사걸(四

442 북신(北辰)을…있다네 : 《논어(論語)》〈위정(爲政)〉 1장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정사를 덕으로 하는 것은 비유하면 북극성(北極星)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 별들이 그에게로 향하는 것과 같다.’ [子曰 爲政以德 譬如北辰居其所 而衆星共之]”라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우리나라가 중국과 오래도록 관계를 맺어온 것에 비유한 것이다.

443 최고운(崔孤雲) : 최치원(崔致遠, 857~?). 고운은 그의 자. 신라 골품제에서 6두품(六頭品) 출신으로 868년(경문왕 8)에 12세의 어린 나이로 중국 당나라에 유학을 떠나 7년 만인 874년에 18세의 나이로 예부시랑(禮部侍郎) 배찬(裨贊)이 주관한 빈공과(賓貢科)에 합격하였다.淮南節度使(회남절도사) 고변(高駘)의 종사관으로 있을 때, 공사간에 지은 글이 표·장·격(檄)·서(書)·위곡(委曲)·거첩(擧牒)·제문(祭文)·소계장(疏啓狀)·잡서(雜書)·시 등 1만여 수에 달하였는데, 귀국 후 정선하여 《계원필경(桂苑筆耕)》 20권을 이루게 되었다. 귀국한 뒤 처음에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당나라에서 배운 경륜을 펴보려 하였으나, 진골귀족 중심의 독점적인 신분체제의 한계와 국정의 문란함을 깨닫고 외직(外職)을 전전하였다. 이후 당시의 사회적 현실과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의 사이에서 빛어지는 심각한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경주의 남산(南山), 강주(剛州 지금의 義城)의 빙산(氷山), 합천(陝川)의 청량사(淸涼寺), 지리산의 쌍계사(雙溪寺), 합포현(合浦縣 지금의 昌原)의 별서(別墅) 등을 방랑하며 은거하였다. 그는 한문학의 비조(鼻祖)로 당나라의 영향으로 변려문 위주의 문장을 지었다.

傑)<sup>444</sup>을 밀어내었고, 이상국(李相國)<sup>445</sup>의 위대한 문장은 고려 시대 오백 년에 뛰어났네. 가정(稼亭)<sup>446</sup>은 목옹(牧翁)<sup>447</sup>을 낳고 포은(圃隱)<sup>448</sup>

444 사절(四傑) : 당(唐)나라 초기, 즉 초당(初唐) 때 뛰어난 문인인 왕발(王勃), 양형(楊炯), 낙빈왕(盧照隣), 노조린(駱賓王) 네 사람을 가리킨다.

445 이상국(李相國) : 이규보(李奎報, 1168~1241). 상국은 그가 지낸 관직명. 자는 춘경(春卿), 호는 백운거사(白雲居士)·지현(止軒)·삼혹호선생(三酷好先生), 초명은 인저(仁氏), 시호는 문순(文順). 어려서부터 문재(文才)를 날려 1189년 사마시에서 합격하고, 이듬해 예부시에서 동진사(同進士)로 급제하였다. 그러나 곧 관직에 나가지는 못하게 되자, 25세 되던 해 개경의 천마산(天磨山)에 들어가 시문을 지으며 세상을 관조하며 지냈다. 1193년 개경에 돌아와 조정의 부패와 무능, 관리들의 방탕함과 관기의 문란, 민의 피폐, 그리고 10여년래의 남부지방의 농민폭동 등은 그의 사회·국가의를 크게 촉발하였으며, 이때에 <동명왕편(東明王篇)>, <개원천보영사시(開元天寶詠史詩)> 등을 지었다. 그러나 그는 이후 최씨 무신 정권과 공생관계에 접어들어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높은 관직을 지냈다. 그는 최씨 정권 하의 일반 문한직관리층의 한 전형이었다고 할 것이다. 문집으로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이 있다.

446 가정(稼亭) : 이곡(李穀, 1298~1351). 가정은 그의 호. 자는 중보(仲父), 시호는 문효(文孝). 이자성(李自成)의 아들이자, 이색(李穡)의 아버지이며 이제현(李齊賢)의 문인이다. 원나라에서 관직생활을 하다가 귀국하여, 밀직부사·지밀직사사를 거쳐 정당문학·도첨의찬성사가 되고 뒤에 한산군(韓山君)에 봉해졌다. 이제현(李齊賢) 등과 함께 민지(閔漬)가 편찬한 <편년강목(編年綱目)>을 증수하고 충렬·충선·충숙 3조(三朝)의 실록을 편수하였다. 저서로 <가정집(稼亭集)>이 있다.

447 목옹(牧翁) : 이색(李穡, 1328~1396). 목옹은 그의 호. 자는 영숙(穎叔), 호는 목은(牧隱), 시호는 문정(文靖). 이곡(李穀)의 아들로 이제현(李齊賢)의 문인이다. 그의 문하에서 권근(權近), 김종직(金宗直), 변계량(卞季良) 등이 배출되어 조선 성리학의 주류를 이루게 하였다. 저서로 <목은문고(牧隱文藁)>·<목은시고(牧隱詩藁)> 등이 있다.

448 포은(圃隱) : 정몽주(鄭夢周, 1337~1392). 포은은 그의 호. 자는 달가(達可), 초명은 몽란(夢蘭)·몽룡(夢龍), 시호는 문충(文忠). 유학을

은 야로(冶老)<sup>449</sup>를 벗혔네.

산이 무너지고 호랑이가 사라지자 패자(霸者)의 도모가 오관산(五冠山)에 다하였고, 땅이 열려 용이 날아오르자 아름다운 기운이 삼각산(三角山)에 돌아왔네.<sup>450</sup> 팔도를 거느려 나라를 세운 곳은 산하를 제압하고, 누대에 걸쳐 기반을 공고히 한 것은 예약과 문물이라네. 훌륭한 관리들 함께 이루니 단지 육경(六經)을 노래하였을 뿐만이 아니고, 다섯 현인<sup>451</sup>이 이어져 나오니 인륜이 백세토록 무궁할 수 있었다네. 뛰어난 기운이 모여 걸출한 인물 나오니 존재(存齋)<sup>452</sup>

---

보급하였으며, 성리학에 밝았다. 조선이 들어설 때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켜 후대에 충신으로 일컬어졌다. 저서로 《포은집(圃隱集)》이 있다.

449 야로(冶老) : 길재(吉再, 1353~1419). 야로는 그의 호. 자는 재보(再父), 호는 야은(治隱), 금오산인(金烏山人), 시호는 충절(忠節). 18세에 상산사록(商山司錄) 박분(朴賁)의 아문(衙門)에 나아가서 《논어》와 《맹자》 등을 읽고 비로소 성리학을 들었다. 또, 아버지를 뵈려고 개경에 이르러 이색(李穡), 정몽주(鄭夢周), 권근(權近) 등 여러 선생의 문하에 종유(從遊)하며 비로소 학문의 지론(至論)을 듣게 되었다. 그는 도학(道學)을 밝히고 이단(異端)을 물리치는 것으로 일을 삼으며 후학의 교육에 힘썼다. 그의 문하에서 김숙자(金叔滋) 등 많은 학자가 배출되어, 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조광조(趙光祖)로 그 학통이 이어졌다. 저서로 《야은집(治隱集)》·《야은속집(治隱續集)》이 있다.

450 패자(霸者)의…돌아왔네 : 오관산(五冠山)은 개성(開城)에 있는 산이름이고, 삼각산(三角山)은 북한산의 옛이름이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한 것을 가리킨다.

451 다섯 현인 :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이언적(李彦迪), 이황(李滉)을 말한다.

452 존재(存齋) : 기대승(奇大升, 1527~1572). 존재는 그의 호. 자는 명언(明彦), 다른 호는 고봉(高峯), 시호는 문헌(文憲). 조선 중기 성리학자로 학문에 대한 의욕이 강하여 김인후(金麟厚), 이황(李滉) 등과 만나 태극설(太極說)을 논한 바 있고, 정지운(鄭之雲)의 천명도설



는 도산(陶山)<sup>453</sup>의 근원을 얻었고, 소급하고 지류를 계승하니 계로(溪老)<sup>454</sup>

(天命圖說)을 얻어보고 이황을 찾아가 의견을 나누었다. 그뒤 이황과 12년에 걸쳐 서한을 교환하였는데, 그 가운데 1559년에서 1566년까지 8년 동안에 이루어진, 이른바 사칠논변(四七論辨)은 유학사상 중요한 논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이황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에 반대하고 “사단칠정이 모두 다 정(情)이다.”라고 하여 주정설(主情說)을 주장하였으며, 이황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수정하여 정발이동기감설(情發理動氣感說)을 강조하였다. 그의 인물됨은 경세택민(經世澤民)을 위한 정열을 간직하였고, 정치적 식견은 명종과 선조 두 왕에 대한 경연강론(經筵講論)에 담겨 있다. 이 강론은 《논사록(論思錄)》으로 엮여 간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재양민론(理財養民論)·승례론(崇禮論)·언로통색론(言路通塞論)으로 분류된다. 그는 학행(學行)이 겸비된 사유(士儒)로서 학문에 있어서는 그의 사칠이기설에서 이황과 쌍벽을 이루었고, 행동에 있어서는 지치주의적(至治主義的)인 탁견을 진주(進奏)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제자로는 정운룡(鄭雲龍), 고경명(高敬命), 최경회(崔慶會), 최시망(崔時望) 등이 있다. 광주의 월봉서원(月峰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고봉집(高峯集)》이 있다.

453 도산(陶山) : 이황(李滉, 1501~1570). 도산은 그의 호. 자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퇴도(退陶)·도수(陶叟). 시호는 문순(文純). 그는 정주(程朱)의 성리학을 받아들여 깊이 연구하여 주자학의 일가를 이루었으며 당대의 학자, 문인들과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정주학을 심화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저서로 《퇴계집(退溪集)》이 있다.

454 계로(溪老) : 성훈(成渾, 1535~1598). 자는 호원(浩原), 호는 우계(牛溪)·묵암(默庵), 시호는 문간(文簡). 1551년 겨울에 백인걸(白人傑)의 문하에서 《상서(尙書)》를 배웠다. 1554년에는 이이(李珣)와 사귀게 되면서 평생지기가 되었으며, 1568년에는 이황(李滉)을 뵈고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 1572년 여름에는 이이와 9차에 걸쳐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사칠이기설(四七理氣說)을 논하였다. 그 후 《울곡집(栗谷集)》을 평정하였다. 의정부우참찬·대사헌·비국당상(備局堂上)·좌참찬 등을 지냈다. 저서로 《우계집(牛溪集)》·《주문지결(朱門旨訣)》·《위학지방(爲學之方)》 등이 있다. 1681년에 문묘에 배향되었는데 1689년에 한때 출향(黜享)되었다가 1694년에 다시 승무(陞廡)되었다.

는 석담(石潭)<sup>455</sup>의 시에 화운하였네. 호건(豪健)함은 소재(蘇齋)<sup>456</sup>와 놀재(訥齋)<sup>457</sup>가 으뜸이고, 굴기(屈奇)는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sup>458</sup>과 동고(東臯)<sup>459</sup>

- 455 석담(石潭) : 이이(李珣, 1536~1584). 석담은 그의 호. 자는 숙헌(叔獻), 호는 울곡(栗谷)·우재(愚齋), 시호는 문성(文成). 1548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23세 겨울 별시에서 <천도책(天道策)>을 지어 장원하였다. 이 조판서를 지냈으며, 명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성학집요(聖學輯要)》·《격몽요결(擊蒙要訣)》을 지었다. 49세에 서울 대사동(大寺洞)에서 죽었으며 파주 자운산 선영에 안장되었다. 문묘에 종향되었으며, 파주의 자운서원(紫雲書院), 강릉의 송담서원(松潭書院), 풍덕의 구암서원(龜巖書院), 황주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등 20여개 서원에 배향되었다. 저서로 《울곡전서(栗谷全書)》가 있다.
- 456 소재(蘇齋) : 노수신(盧守愼, 1515~1590). 소재는 그의 호. 그 밖에 이재(伊齋)·암실(暗室)·여봉노인(茹峰老人) 역시 그의 호. 자는 과회(寡悔), 시호는 문의(文懿)·문간(文簡). 을사사화 때 이조좌랑에서 파직되어 순천(順天)과 진도(珍島)에서 19년간 귀양살이하였다. 선조 즉위 후에는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저서로 《소재집(蘇齋集)》이 있다.
- 457 놀재(訥齋) : 박상(朴祥, 1474~1530). 놀재는 그의 호. 자는 창세(昌世), 시호는 문간(文簡). 청백리에 녹선되었고,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다. 저서로 《놀재집(訥齋集)》이 있다.
- 458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 : 윤근수(尹根壽, 1537~1616). 본관이 해평(海平)으로 부원군에 봉해졌다. 자는 자고(子固), 호는 월정(月汀). 시호는 문정(文貞). 군자감정(軍資監正) 변(忭)의 아들이고 영의정 두수(斗壽)의 동생이며 김덕수(金德秀),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그는 청백간손(清白簡遜)하고 문장이 고아하며 필법이 주경(迺勁)하여 예원(藝苑)의 종장(宗匠)이라 일컬어졌다. 저서로 《월정집(月汀集)》·《사서토석(四書吐釋)》이 있고 문집에이 있다.
- 459 동고(東臯) : 최첨(崔岍, 1539~1612). 동고는 그의 호. 자는 입지(立之), 호는 간이(簡易). 임진왜란 중 명나라와의 관계가 빈번하여지자 문장으로 보국(保國)하였다. 그리고 중국에 갔을 때 왕세정(王世貞)을 만나 문장을 논하였고, 그곳 학자들로부터 명문장가라는 칭찬을 받았다. 차천로(車天輅)의 시, 한호(韓濩)의 서(書)와 함께 송도삼절로 불렸다. 저서로 《간이집(簡易集)》이 있다.

를 일컫네. 복원(復元)<sup>460</sup>의 뛰어난 재주는 따라잡을 이 드물고, 석주(石洲)<sup>461</sup>의 화려한 문채를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 문치(文治)는 참으로 중화(中華)보다 뛰어나고 유교(儒教)는 옛날에 못지않네. 그런데 지금 재주 있는 이 폐해지고 덕있는 이 막힌 것은 실로 옛 세상이 멀어지고 옛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네.

아, 봉황 가고 용 돌아가니 푸른 구름 바라봄에 메아리 끊어지고,<sup>462</sup> 기러기 날고 새 스쳐가니 흰 눈 밟으며 자취만이 남았네.<sup>463</sup> 철인(哲人)이 쇠잔해지니 누가 두 동자의 지혜를 분별하겠

460 복원(復元) : 차천로(車天輅, 1556~1615). 복원은 그의 자. 호는 오산(五山)·굴실(橘室)·청묘거사(淸妙居士). 송도(松都) 출신. 서경덕(徐敬德)의 문인이다. 1589년 통신사 황윤길(黃允吉)을 따라 일본에 다녀왔는데 4,000~5,000수의 시를 지어 일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명나라에 보내는 대부분의 외교문서를 담당하여 그 문명이 명나라에까지 펼쳐 동방문사(東方文士)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명사(明使)들이 문장의 속작을 시험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시에 거침없이 수응(酬應)함으로써 이름을 더욱 떨쳤다. 한호(韓濩)·권필(權輶)·김현성(金玄成)과 더불어 서격사한(書檄詞翰)이라 하였으며, 특히 시에 능하여 한호의 글씨, 최립(崔嵬)의 문장과 함께 송도삼절(松都三絶)이라 일컬어졌다. 저서로 《오산집(五山集)》이 있다.

461 석주(石洲) : 권필(權輶, 1569~1612). 석주는 그의 호. 자는 여장(汝章). 조선 중기 선조 때의 시인이자 뛰어난 문장으로 허균과 절친했던 친구 사이였다. 목릉성세(穆陵盛世)로 대표되는 당대 문단에서 동악 이안눌과 함께 최고 시인으로 평가받았다. 척족(戚族)들의 방종을 풍자한 궁류시(宮柳詩)를 지었다는 이유로 혹독한 고문 끝에 죽었다. 저서로 《석주집(石洲集)》과 한문소설 〈주생전〉이 있다.

462 봉황...끊어지고 : 봉황과 용은 현인들을 비유하고, 푸른 구름은 하늘 끝 먼 곳으로 이별의 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남조(南朝) 양(梁)나라 강엄(江淹)의 〈의휴상인시(擬休上人詩)〉에 “날 저물어 푸른 구름 합쳐졌으나 아름다운 님은 더욱 오지 않네.[日暮碧雲合 佳人殊未來]”라는 구절이 있다.

463 기러기...남았네 : 우리나라의 현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자취만이 남

는가.<sup>464</sup> 대역(大易)은 그나마 있는데 단지 구사(九師)의 문하에서 다투네.<sup>465</sup> 서로를 경시하는 풍조가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으

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다. 소식(蘇軾)의 <화자유민지 회구(和子由澗池懷舊)>에 “인생 흘러가는 길 무엇과 같을까. 날아가는 기러기 눈녹은 흙탕 밟는 것과 같으리. 흙탕 위 우연히 발자국 남기니 기러기 날아가면 어찌 다시 간 곳을 알겠는가.[人生到處如何似 應似飛鴻踏雪泥 泥上偶然留指爪 鴻飛那復計東西]”라는 구절이 있다.

464 철인(哲人)이…분별하겠는가 : 공자와 증자가 돌아가셨기에 두 동자의 현부(賢否)를 분별할 철인이 사라졌다는 말이다. 《논어(論語)》 <헌문(憲問)>에 “궐당의 동자가 (공자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맡아 보자, 어떤 이가 묻기를 ‘학문이 진진된 자여서입니까?’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 그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 선생과 나란히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으니 학문에 진전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빨리 이루고자 하는 자이다.’[闕黨童子將命 或問之曰 益者與 子曰 吾見其居於位也 見其與先生並行也 非求益者也 欲速成者也]”라고 하였고 《예기(禮記)》 <단궁상(檀弓上)>에 “증자가 병이 위독할 때에 악정 자춘과 증자의 아들 증원, 증신 및 동자가 옆에서 모시고 있었다. 동자가 말하기를 ‘대자리가 너무 화려합니다. 대부의 대자리입니까?’ 라고 하니, 증자가 듣고서 말하기를 ‘그렇구나. 이것은 계손이 하사한 대자리이다. 내가 미처 바꾸지 못했구나. 원아, 이 대자리를 바꾸어라.’라고 하였다. 증원이 말하기를 ‘지금은 병이 너무 위독해서 자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날이 밝으면 바꾸겠습니다.’ 하니, 증자가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저 동자만도 못하구나. 군자는 사람 사랑하기를 덕으로써 하고 소인은 사람 사랑하기를 고식으로써 한다. 내가 무엇을 구하겠는가? 내가 바름을 얻고서 죽으면 그것으로 충분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 말에 따라 위독한 증자를 부축해 들고서 깔고 있던 대자리를 바꾸었는데, 바꾼 자리에 미처 바로 눕히기도 전에 증자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였다.

465 대역(大易)은…다투네 :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회남왕 안이 《주역》에 밝은 아홉 사람을 초빙하니 구사(九師)의 설이라 불렀다.(淮南王安聘明易者九人, 號九師說)”라고 하였는데 이들은 각자의 설을 가지고 《주역》에 대해서 논란하였다고 하는데 후대에는 《주역》을 연구하는 사람을 구사(九師)라고 일컬었다. 주로 경전에 대해

니 자신을 높이는 습속 참으로 이때에 고치기 어렵다네. 집집마다 겸손함 지킨다는<sup>466</sup> 말 듣지 못했으니 사람마다 제가 잘났다고 떠벌리네. 비록 그렇지만 추기(鄒忌)의 외모 성북서공(城北徐公)만 못한 것을 이미 알았으니,<sup>467</sup> 현명한 백기(伯起)를 관서부자(關西夫子)라고 누가 잘못 말했던가.<sup>468</sup> 병려(併儷)로 이름이 난 자

자신의 억측으로 해설한다는 뜻을 내포하여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

- 466 겸손함 지킨다는 : 《노자(老子)》 28장에 “그 웅(雄)을 알고 그 자(雌)를 지키면 천하의 계곡이 되니 천하의 계곡이 되면 떼땃한 덕이 떠나지 않아 다시 아이의 상태로 돌아간다.(知其雄, 守其雌, 爲天下谿, 爲天下谿, 常德不離, 復歸於嬰兒.)”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웅은 선(先)을 말하고 자는 후(後)를 말하는 것으로 선을 알면서도 후에 처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겸손함에 처한다는 뜻으로 의역하였다.
- 467 추기(鄒忌)의…알았으니 : 《전국책(戰國策)》〈제책(齊策)〉에 “추기는 키가 8자가 넘었고 신체가 아름다웠다. 아침에 의관을 갖추고 거울을 보면서 아내에게 말하기를 ‘나와 성북소공 중에 누가 아름다운가?’라고 하니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매우 아름다우니 서공이 어찌 당신에게 미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성북소공은 제나라의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추기가 자신하지 못하고 다시 그 첩에게 묻기를 ‘나와 서공 중에 누가 아름다운가?’라고 하자 첩이 말하기를 ‘서공이 어찌 당신에게 미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아침에 손님이 밖에서 찾아와 함께 앉아 얘기하다가 객에게 묻기를 ‘나와 서공 중에 누가 아름다운가?’ 하니 손님은 ‘서공이 그대의 아름다움만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다음날 서공이 찾아왔기에 자세히 살펴보고 스스로 못하다고 생각하였고 거울을 보며 자신을 살펴보니 또 매우 그만 못하였다. 저녁에 누워 생각하기를 ‘내 처가 나를 아름답다고 말한 것은 나를 사사roi 여겨서이고 내 첩이 나를 아름답다고 말한 것은 나를 두려워해서이고 손님이 나를 아름답다고 말한 것은 나에게 요구하려는 것이 있어서이다.’”라는 말이 보인다.
- 468 현명한…말했던가 : 관서부자(關西夫子)는 한(漢)나라 때 양진(楊震)을 말하는데 그의 자가 백기(伯起)이다. 《후한서(後漢書)》〈양진전(楊震傳)〉에 “양진이 어릴 적 배우기를 좋아하여 구양의 상서를 태상한

는 양(梁)과 수(隋)나라의 문장만을 모을 뿐 변화할 줄 모르고, 장구(章句)로 일컬어지는 자는 성률(聲律)에만 공교할 뿐 변통할 줄 모르네. 물고기는 나무 아래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아니며 어찌 기러기발을 붙여서 비파를 타겠는가. 한 마디 말 조금 괜찮으면 여러 공들 압도하려 하고 한 조각 구절 조금 좋으면 온 세상 제멋대로 내달리려 하네. 수경(水鏡)에서 먼지를 찾으려 때를 긁어내는 손톱 백 갈래이고, 형민(荊珉)에서 티를 찾으려 털을 부는 입은 세 척이나 나왔다네.<sup>469</sup> 단지나 덮을 것이라는 사형(士衡)의 비판은 그의 평소 행실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고,<sup>470</sup> 두로(杜老)가 제공들을 누르려 했던 비판은 죽음에 맞닥뜨려 나와서는 안 되는

육에게 배웠는데 경전에 밝고 널리 보아 궁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제우들이 그를 두고 말하기를 ‘관서공자 양백이 일어났다’라고 하였다. [震少好學 受歐陽尚書於太常桓郁 明經博覽 無不窮究 諸儒爲之語曰 關西孔子楊伯起]라는 말이 보이는데 관서부자(關西夫子) 혹은 관서공자(關西孔子)는 대유(大儒)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469 수경(水鏡)에서…길이라네 : 먼지와 티가 없는 수경이나 형민에서 먼지와 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털을 분다’는 것은 피부의 털을 붙어 결점을 찾는다는 뜻으로 《한비자(韓非子)》〈대체(大體)〉편에 나오는 표현인데 남의 결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모양을 형용하는 말이다.

470 사형(士衡)의…말이고 : 사형은 육기(陸機, 260-303)의 자로, 서진(西晉)의 문인이다. 단지나 덮는다는 비판은 후대에까지 길이 남을 훌륭한 문장으로 남지 못하고 잊혀진다는 의미로, 본래 양웅(揚雄)이 《태현경(太玄經)》을 지었을 때 유흠(劉歆)이 이를 보고 후세 사람들이 단지를 덮는 데 사용할까 염려된다고 했다는 고사에서 비롯된 말이다. 후대에 육기가 낙양에 들어가서 〈삼도부(三都賦)〉를 지으려고 했는데 좌사(左思)가 지으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손바닥을 치면서 웃고는 아우에게 주는 편지에 “이 곳에 천박한 사내가 〈삼도부〉를 지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완성되면 단지나 덮을 뿐일 것이다.”라고 하였다는 고사가 있는데 육기의 수준에서 거만하게 좌사를 비판할 입장이 못 됨을 말한 것이다.

말이네.<sup>471</sup>

아, 물고기가 아닌데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 것은 스스로 물고기 됨만 못하고,<sup>472</sup> 새가 있는 곳과 없는 곳 사이에 처해야 비로소 새를 얻는다네.<sup>473</sup> 공교로움과 즐렬함은 오직 나에게 달려 있고 비난과 명예는 남들을 따르는 것만 못하네. 여기에서 까마귀는 암수가 같고<sup>474</sup> 득실은 하나의 말과 같음을 알 수 있네.<sup>475</sup> 아, 바보에게

---

471 두로(杜老)가…말이네 : 두로는 두심언(杜審言, 648?~708)으로, 두보(杜甫)의 종조부이다. 두심언이 병이 위독해지자, 송지문(宋之問)과 무평일(武平一) 등이 문병하였다. 심언이 답하기를, “조물주에게 심하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살아 있을 동안 오래도록 공들을 압도하고 있었으니 지금 죽음에 임해 참으로 매우 위로가 됩니다. 다만 저를 대신할 사람을 볼 수 없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라고 하였다는 고사가 있는데 역시 두심언의 수준에서 거만하게 송지문 등의 시인들을 비판할 입장이 못 됨을 말한 것이다.

472 물고기…못하고 : 《장자(莊子)》〈추수(秋水)〉에 장자(莊子)와 그의 친구 혜자(惠子)가 일찍이 호수(濠水)의 다리 위에서 노닐 때 장자가 말하기를 “피라미가 나와서 조용히 노니, 이것이 물고기의 즐거움일세.(儻魚出游從容 是魚之樂也)”라고 하자, 혜자가 말하기를 “자네는 물고기가 아닌데 물고기의 즐거움을 어떻게 알겠는가.[子非魚 安知魚之樂]”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473 새…얻는다네 : 《전국책(戰國策)》〈동주(東周)〉에 “그물을 펼치는 자가 새가 없는 곳에 펼치면 종일토록 잡는 것이 없을 것이고 새가 많은 곳에 펼치면 또 새를 놀라게 할 것이다. 반드시 새가 있는 곳과 없는 곳 사이에 펼친 뒤에야 새를 많이 잡을 수 있다[如張羅者 張於無鳥之所 則終日無所得矣 張於多鳥處 則又駭鳥矣 必張於有鳥無鳥之際 然後能多得鳥矣]”라고 한 것에서 온 말이다.

474 까마귀는…같고 : 《시경(詩經)》〈정월(正月)〉에 “모두들 내가 성인이라 말하는데, 누가 까마귀의 암수를 알까.[具曰予聖 誰知烏之雌雄]”라 하였다.

475 득실은…있네 : 《장자(莊子)》〈제물론(齊物論)〉에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이 손가락 아님을 비유하는 것은 손가락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꿈 이야기하는 것이 난쟁이와 연희를 보는 것<sup>476</sup>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남제(南帝)는 함부로 높였고<sup>477</sup> 동시(東施)는 서시(西施)를 따라했었네. 우물 속 깊은 데 살면서 어찌 우물 밖의 드넓음을 이해하겠는가, 높이 당중(堂中)에 앉아야 당하(堂下)의 곡직(曲直)을 알 수 있다네. 그러므로 겸손함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충실해도 빈 듯해야 하네. 제위를 선양함이 도당(陶唐)이 되는 데 해되지 않으며 예를 물음이 어찌 대성(大聖)에게 손해가 되겠는가.<sup>478</sup> 더구나 세상에 가득한 것들 모두가 이러하여 어리석게도 잘못을 이룬다네. 가령 얻었다 하더라도 작은 재주의 천박함에 지나지 않고 우리 무리가 아니면 통달한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한다네. 부(賦)를 노래하고 시(詩)를 논함은 성패(成敗)의 운수에 보탬이 없지만, 경전을 궁구하고 힘써 실천함은 풍화(風化)를 도움이 많다네. 문단에서 내 달리는 것이 어찌 성인의 길을 더듬는 것만 하겠는가.

나 같은 사람은 학문은 도(道)를 듣지 못했고 문장은 문채를 이루지 못했네. 기이하면서 법도가 있고[奇法] 바르면서 화려하며

---

손가락이 손가락 아님을 비유하는 것만 못하고, 말을 가지고 말이 말 아님을 비유하는 것은 말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말이 말 아님을 비유하는 것만 못하다. 천지는 하나의 손가락이요, 만물은 하나의 말인 것이다. [以指喻指之非指 不若以非指喻指之非指也 以馬喻馬之非馬 不若以非馬喻馬之非馬也 天地一指也 萬物一馬也]”라 하였다. 논쟁의 분분하여 시비와 이해를 분별하는 것이 어려움을 말하였다.

476 난쟁이와…것 : 난쟁이가 연희를 보러 가서 키가 작아 직접 연희를 보지 못하고 옆사람들이 웃는 것을 보고 따라 웃는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자기 의견이 없이 남을 추종하는 것을 뜻한다.

477 남제(南帝)는…높였고 : 미상.

478 제위를…되겠는가 : 상고 시대의 위대한 성인 요(堯)임금은 순(舜)임금에게 제위를 선양하였고 춘추 시대의 대성인 공자(孔子)는 주하사(柱下史)를 지낸 노담(老聃)을 찾아가 예를 물었다.



[正葩] 들쭉날쭉하고 굴곡진 것들[詰屈]은 일찍이 힘을 쓰지 않았고, 화려하고[綺靡] 맑고 밝으며[瀏亮] 온화하고 윤기나며[溫潤] 상쾌하고 굳센[淸壯]<sup>479</sup> 것들은 모두 공을 들인 것이 아니네. 살아 있는 호랑이와 용은 끝내 썩은 줄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벌레 모양 아로새기고 부절 문자나 새기는 것이 또한 어찌 장부가 할 일이겠는가.<sup>480</sup> 푸른 바다와 떠 있는 허공에 아이의 걸음 하지 말 것이며, 함지(咸池)의 낙조(落照)에 부질없이 과보(夸父)의 채찍 재촉한다네.<sup>481</sup> 흰 돌이 다스려지자 여와씨(女媧氏)의 푸른 하늘 만고에 이르고,<sup>482</sup> 황하가 막히자 우(神)임금의 붉은 현 구주

479 화려하고…굳센 : 육기(陸機)의 <문부(文賦)>에 “시는 정에 연유하여 화려하고 부는 사물을 체찰하여 맑고 밝다.[詩緣情而綺靡 賦體物而瀏亮], “명은 넓고 간약하면서도 온화하고 윤기나며 잠은 돈좌하면서 맑고 굳세다.[銘博約而溫潤 箴頓挫而淸壯]”라고 하였다.

480 벌레…일이겠는가 : 양웅(揚雄)의 《법언(法言)》 <오자(吾子)>에 “어떤 이가 물었다. ‘그대는 젊어서 부를 좋아하였는가?’ (양웅이) 대답하였다. ‘그렇다. 젊은이는 벌레 모양 아로새기고 부절 문자 새긴다.’ 잠시 뒤에 말하였다. ‘장부는 하지 않는다.’[或問 吾子少而好賦 曰然 童子雕蟲篆刻 俄而曰 壯夫不爲也]”라는 말이 보인다.

481 함지(咸池)의…재촉한다네 : 함지는 전설 속에 해가 지는 곳으로 《초사(楚辭)》 <이소(離騷)>에 “내 말을 함지에서 물 먹이고 내 고삐 부상에서 갈무리하네.[飲余馬於咸池兮 揚余轡乎扶桑]”라는 표현이 보이고 과보(夸父)는 고대 전설에 자신의 힘을 헤아리지 못하고 해 그림자를 쫓아서 우곡(隅谷) 근처에 갔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하위(河渭)에 달려가 물을 먹었지만 부족해서 북쪽으로 대택(大澤)으로 달려갔다가 이르지 못해 도중에 목말라 죽었다고 한다. 여기서는 해가 질 때 과보가 부질없이 해를 쫓는다고 말하여 작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 어찌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482 흰…이르고 : 여와씨(女媧氏)는 중국 신화 속에 복희(伏羲)와 결혼해서 인류를 산생한 시조로 황토로 사람을 만들고 오색의 돌을 연마하여 하늘을 기우고 자라 발을 잘라 사극(四極)을 지탱하며 홍수를 다스리고 맹수를 몰아 죽여 사람들이 편안히 살 수 있게 하였다는 태

(九州)가 되었네.<sup>483</sup> 삼천 년에 새가 우니 만남에 훗날이 있고,<sup>484</sup> 구만 리에 양의 뿔 같은 회오리바람 이니 어찌 그 바람 없겠는가.<sup>485</sup> 연못의 용은 여의주를 품지만 그 공로가 한 자 나무에 미치지 못하고,<sup>486</sup> 골짜기의 표범은 안개에 숨지만 그 뜻은 그래도 한 치

곳적의 신이다. 《회남자(淮南子)》〈남명훈(覽冥訓)〉에 “오랜 옛날 사극이 폐하고 구주가 찢어져 하늘은 두루 덮지 못하고 땅은 두루 신지 못하며 불은 활활 타올라 사그라지지 않고 물은 흘러 넘쳐 그치지 않았으며 맹수는 건장한 이들을 잡아먹고 맹금은 노약자들을 잡아채었다. 이때 여와씨가 오색돌을 연마하여 푸른 하늘을 기웠다.[往古之時 四極廢 九州裂 天不兼覆 墜不周載 火熾炎而不滅 水浩洋而不息 猛獸食顓民 鷲鳥攫老弱 於是女媧煉五色石 以補蒼天]”라는 말이 보인다.

483 황하가…되었네 : 적현(赤縣)은 적현신주(赤縣神州)의 준말로 전국(戰國) 시대 제나라 추연(騶衍)이 창립한 대구주(大九州)설에 나오는 말이다. 이 설에서 중국을 일러 적현신주라고 하는데 구주(九州)를 말하는 것으로 이 구주는 홍수를 다스리고 난 뒤 우임금이 제정한 것이다.

484 삼천…있고 : 한유(韓愈)의 시 〈쌍조(雙鳥)〉에 “두 마리 새 해외에서와, 날고 날아 중국에 이르렀네. 한 새는 성시에 내려앉고, 한 새는 그윽한 바위 속에 자리 잡았네. 서로 짝지어 울지 못한 지, 벌써 삼천 년이 되었네. …삼천 년이 지난 뒤에 다시 일어나서 울며 서로 수작하리.[雙鳥海外來 飛飛到中州 一鳥落城市 一鳥集巖幽 不得相伴鳴 爾來三千秋 … 還當三千秋 更起鳴相酬]”라고 하였다.

485 구만…없겠는가 : 《장자》〈소요유(逍遙遊)〉에 “큰 봉새가 양의 뿔처럼 빙빙 도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공중 날아 오를 것이 구만 리이다.[大鵬搏扶搖羊角而上者九萬里]”라고 한 것에서 온 말이다.

486 한…나무 : 척목(尺木)은 용이 승천할 때 의지하는 작은 나무로 공업을 이루기 위한 능력 내지 도구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장자》〈열어구(列禦寇)〉에 “천금의 구슬이 깊은 바다의 심연에 사는 검의 용의 턱 밑에 있는데 네가 이 구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그것이 잠든 틈을 만나서였다.[夫千金之珠 必在九重之淵而驪龍頰下 子能得珠者 必遭其睡也]”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주(珠)는 용이 턱 밑에 품고 있는 여의주(如意珠)로 여기서는 뛰어난 문장 창작 능력을 말한 듯하다. 이

무늬에 오롯하네.<sup>487</sup>

지금 그대는 웅대한 재력이 천 리를 홀로 걷고 있으니, 문단의 젊은 장군으로 높고 높히 신선 되어 오르려는 위의로 홀홀 구름을 타는 기운이 있네. 아름다운 빗줄기와 침은 종이를 따라 오색 구름이 되고, 아름다운 화염과 빛은 입에서 나와 만 길이나 뻗네. 사마천의 사조(藻思)는 원유(遠遊)를 떠나기 전에 이미 솟구쳤고, 왕중선(王仲宣)<sup>488</sup>의 명성은 누대에 오른 뒤에 더욱 더하였네. 그런데 자네는 보잘 것 없는 나를 나이가 혹 조금 더 앞선다고 하여 그 아름다운 위의를 겸손히 하여 나를 장로로 대해주는구려. 이미 반악(潘岳)<sup>489</sup>의 문채이니 재주와 용모 아름답고, 또 왕우군(王

---

구절은 공업을 이루는 데 있어 척목과 같은 실질적 능력 내지 도구가 필요한 것이지 문장 창작 능력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없음을 말한 듯하다.

487 골짜기의…오롯하네 : 한(漢)나라 유향(劉向)이 지은 《열녀전(列女傳)》 권2 <도답자처(陶答子妻)>에 “첩(妾)이 들으니 남산에 있는 검은 표범은 안개비가 내리는 7일 동안에 내려와 먹지 않는다고 하니, 이는 무슨 까닭이었습니까? 몸의 털을 윤택하게 하여 무늬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몸을 숨겨 해를 피하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그 몸을 불리니 살면서 죽음을 기다릴 뿐입니다.[妾聞南山有玄豹 霧雨七日而不下食者 何也 欲以澤其毛而成文章也 故藏而遠害 犬彘不擇食以肥其身 生而須死耳]”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감추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작자의 태도를 비유하였다.

488 왕중선(王仲宣) : 왕찬(王粲, 177~217). 중선은 그의 자. 조조(曹操)가 위왕(魏王)이 되자 시중(侍中)으로서 제도개혁에 진력하는 한편, 조씨 일족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집단 안에서 문인으로서도 활약하였다. 건안칠자(建安七子)의 한 사람이자 그 대표적 시인이다.

489 반악(潘岳) : 247~300. 자는 안인(安仁). 문학적 재능이 뛰어나 당시의 권세가 가밀(賈謐)의 문객들 '24우(友)' 가운데의 제1인자였다. 육기(陸機, 261~303)와 함께 서진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병칭되었다. 육기가 논리적 표현에 탁월한 데 대하여 반악은 정서적 표현에 뛰어났으며, 철저한 기교주의자로서 감각적인 애상(哀傷)의 시와 산수시(山水詩)의 걸

右軍)<sup>490</sup>의 청진(淸眞)함이니 문사와 글씨 모두 뛰어나다네. 더구나 이렇듯 정성스럽고 겸손하여 모두 편안하고 느긋한 훌륭한 말이니 거의 완성에 가까움에랴. 통달하지 못함은 한 단계 남았을 뿐이니 다만 힘쓰다면 수 년 사이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네. 그대와 함께 은둔할 만하니 그대 배운 바를 버릴 필요 없네. 부미(浮靡)함을 뛰어넘어 진실(眞實)함을 실천하면 도가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않고,<sup>491</sup> 문하에 나아가 실당(室堂)을 바라보니 인(仁)은 오직 나에게서 비롯하네.<sup>492</sup> 이 때문에 후배가 두려워할 만하니 먼저 깨달은 자와 함께 돌아가길 바라네.

간절한 부탁을 여러 번 저버리기 어려워 감히 한 마디 말을 보내니, 이에 공무를 보는 여가를 잠시 내어 글 짓는 수고를 조금 해보네. 위로 반고(盤古) 이래의 도덕(道德)과 문장(文章)의 성대함에서부터 아래로 궁벽한 먼 곳 우리나라의 돈순(敦淳)하고 부박(浮薄)한 풍속에 이르기까지 한편으로 자신을 반성하는 기준이 되고 한편으로 시속을 바로잡는 법도가 될 것이네. 비난이 없으

작을 남겨 놓았다.

490 왕우군(王右軍) : 왕희지(王羲之, 307~365). 우군의 관직을 지냈다. 자는 일소(逸少). 중국 동진의 서예가로 산둥성(山東省) 낭야(琅瑯) 출신이다. 처음에 서진(西晉) 시대의 서예가인 위부인(衛夫人)의 서풍(書風)을 배웠고, 뒤에 한·위의 비문을 연구하여 해서·행서·초서의 각 서체를 완성함으로써 예술로서의 서예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491 도가…아니요 : 《중용(中庸)》 “도는 사람에게 멀리 있지 않으니 사람이 도를 행하면서 사람을 멀리하면 도가 될 수 없다.[道不遠人 人之爲道而遠人 不可以爲道]”라는 말이 보인다.

492 인(仁)은…비롯하네 : 《논어》〈안연(顔淵)〉에 “자기의 사욕을 이겨 예에 돌아감이 인을 하는 것이니, 하루 동안이라도 사욕을 이겨 예에 돌아가면 천하가 인을 하여 하는 것이다. 인을 하는 것은 자기 몸에 달려 있으니, 남에게 달려있는 것이겠는가.[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라는 말이 보인다.

면 비난을 부르니 소씨(昭氏)가 거문고 타는 것을 비웃었고,<sup>493</sup> 진주를 보면 진주를 의심하니 말세의 풍속이 칼부터 뽑는 것이 마땅하다네.<sup>494</sup> 그런대로 읊조리면서 휘갈기니 천지가 움직이고, 명명하게 천둥벼락에 풍운의 기세로 글을 쓰니 귀신이 움츠르드네. 비루한 가락 비록 꺾끄럽지만 귀 기울여 들어주길 바라네. 밝은 거울 반드시 살펴야 하니 다른 눈이 보게 해서는 안 된다네.

493 소씨(昭氏)가…비웃었고 : 《장자》〈제물론(齊物論)〉에 “이루어짐과 이지러짐이 있는 것은 소씨가 금을 탕기 때문이고, 이루어짐과 이지러짐이 없는 것은 소씨가 금을 타지 않았기 때문이다.[有成與虧 故昭氏之鼓琴也 無成與虧 故昭氏之不鼓琴也]”라는 구절이 있는데 소씨(昭氏)는 금(琴)을 잘 연주했던 소문(昭文)으로 장자가 금을 잘 연주했던 소문이 연주를 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짐도 이지러짐도 없는 지극한 경지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비판한 것을 인용하여 비난할 것이 없는 훌륭한 연주자를 비난했던 장자의 경우를 당대의 세태에 비유하여 작자의 충고의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표현이다.

494 말세의…마땅하다네 : 《사기(史記)》〈노중련추양열전(魯仲連鄒陽列傳)〉에 한(漢)나라 때 추양(鄒陽)이 양왕(梁王)에게 올린 글에 “명월주나 야광벽을 갑자기 길 가는 사람에게 던질 경우, 누구나 칼을 어루만지며 노려보게 되는 것은 왜냐하면 까닭 없이 보배가 앞에 이르기 때문인 것이다.[明月之珠 夜光之璧 以闇投人於道路 人無不按劍相眄者 何則 無因而至前也]”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작자의 충고의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표현이다.

## 월사 상국 시판 후서<sup>495</sup>

月沙相國詩板後序

대저 월궁(月宮)으로 도읍을 옮기니 천국(天國)에 태평이 시작 되는 경사를 맞이하였고,<sup>496</sup> 별의 선인(仙人)이 기예를 살펴보고는 인간 세상의 문장이 더욱 빛남을 기뻐하였네. 이로써 “사족을 그려 술잔을 빼앗겼다.”는 시가 자전(紫殿)에 봄빛을 돌아오게 하고,<sup>497</sup> “밤은 무르익어 촛불을 밝힌다.”는 구절이 청동(靑童)의 옥

495 월사…후서 : 월사(月沙)는 이정귀(李廷龜)를 가리킨다. ‘월사 상국의 시판’이란 이정귀가 회양부 동헌(東軒)에 걸었던 시판으로, 시의 제목은 <회양동헌운(淮陽東軒韻)>인데 이에 관한 진기한 일화가 있다. 1603년(선조36) 이정귀는 예조 판서로 화릉(和陵)을 개수(改修)하는 일로 행차를 떠났다가 회양(淮陽)을 경유하게 되었다. 당시 부사인 한수민(韓壽民)과 술자리를 갖고 이 시를 지어 동헌에 시판을 걸었다. 그 뒤 1605년 이정귀가 경기 관찰사로 있을 때 홍수가 크게났는데, 강화도를 순행할 때 태복시의 판관이 그 시판을 이정귀에게 보내왔다. 깜짝 놀란 이정귀는 그 연유를 물어 보니 홍수로 인해 회양에서 강화까지 시판이 떠내려 온 것이었다. 이에 다시 그 시판을 회양부의 관아에 걸어두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조찬한이 1625년(인조3) 회양 부사로 부임하게 되자, 이정귀는 편지를 보내 그 전말을 들려 주고 화운시를 지어 준다면 시첩(詩帖)에 첨부하겠다고 하였다. 조찬한은 회양에 당도하여 시판을 보고는, 화운시와 후기(後記) 그리고 이 서문을 짓게 되었다. 《月沙先生年譜 卷1》《月沙集 卷17 淮陽東軒韻, 卷39 淮陽詩板重懸序》《玄洲集 卷15 月沙相國詩板後記》

496 대저…맞이하였고 : 원문의 ‘月圃’는 곤륜산(崑崙山)에 있다는 현포(玄圃)를 달로 옮겼다는 가상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의 도입부는 1603년 큰 홍수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화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497 이로써…하고 : 이 구절은 아래의 구절과 함께 인간 세상의 시문을 천상의 선인들이 좋아하였다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 “사족을 그려

피리에 든 것을 알 수 있네.<sup>498</sup> 그런데 만고토록 수집하는 일을 맡겼기에 육정(六丁)<sup>499</sup>이 인간 세상에서 찾는 일에 지쳤다네. 그리하여 귓속말로 신신당부하여 비렴(飛廉)과 우사(雨師)<sup>500</sup>를 신칙하고, 말하지 않은 것처럼 은민히 양후(陽侯)와 하백(河伯)<sup>501</sup>을 달려가게 했도다. 이에 우(禹)임금이 깎은 산<sup>502</sup>이 옮겨져 벽해가 육지에 서게 되었고, 여와씨(女媧氏)가 메운 돌<sup>503</sup>이 깨져 황하(黃

술잔을 빼앗겼다.”는 화사첨족(畫蛇添足)의 고사를 말하는데, 역대로 이 전고를 사용한 시문은 무수히 많으나 여기서는 한유(韓愈)의 <감춘(感春)> 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 시의 제 4수에 “뱀을 그려 다리를 붙인 것처럼 아무 데도 쓸 곳이 없고, 양 귀밑머리에 흰 눈이 내려 티끌만 분주히 좇아다니네.[畫蛇著足無處用 兩鬢雪白趨埃塵]”라고 하였다. 자전(紫殿)은 천제(天帝)가 사는 궁전을 이른다.

498 밤은…있네 : “밤은 무르익어 촛불을 밝힌다.”는 두보(杜甫)의 <강촌(羌村)> 시를 가리킨다. 강촌은 안록산의 난 당시 두보가 처자를 피신시킨 곳인데, 장안을 빠져 나와 가족을 찾은 심정을 이 시에서 표현하여 “밤이 무르익어 다시 촛불의 심지를 밝히고, 서로 마주하니 마치 꿈만 같도다.[夜闌更秉燭 相對如夢寐]”라고 하였다. 청동(靑童)은 전설상의 선동(仙童)을 말한다.

499 육정(六丁) : 천제(天帝)가 부리는 양신(陽神)의 이름이다. 《후한서(後漢書)》 이현(李賢)의 주(注)에 따르면 육정을 부리기 위해서는 먼저 재계를 한 다음 육정을 불러낼 수 있는데, 먼 곳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게 하거나 길흉을 알려 주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는 인간 세상에서 훌륭한 시문을 찾는 역할을 한다.

500 비렴(飛廉)과 우사(雨師) : 비렴은 바람을 맡은 신이고, 우사는 비를 맡은 신이다.

501 양후(陽侯)와 하백(河伯) : 양후는 전설상의 파도의 신이고, 하백은 황하(黃河)의 수신(水神)이다.

502 우(禹)임금이 깎은 산 : 옛날 도랑과 제방이 정비되지 않아 백성이 수해를 입을 때, 우임금이 용문산(龍門山)을 도끼로 뚫고 이궐(伊闕)의 산을 갈라 수도(水土)를 안정시키자 백성들이 안심하고 물에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 《淮南子 人間訓》

503 여와씨(女媧氏)가 메운 돌 : 공공씨(共工氏)라는 제후가 축융(祝融)과

河)가 천상에서 흘러내렸도다. 느릿느릿 흘러가던 회수(淮水)<sup>504</sup>도 말아 올려져, 넓디넓게 퍼져나가 언덕 위로 범람함을 볼 뿐이었다. 일월도 빛을 잃고 천지도 모습을 감추었으니, 어찌 변화를 극에 이르게 하고자 하여 취사하여 건져내지 않았는가. 금강산 천만 봉우리가 다 잠긴다면 비록 신선은 유감으로 여기겠지만, 여주(驪珠) 사십 과(顆)를 건진다 해도 어찌 하늘의 보물 상자를 채우기에는 모자라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당공방(唐公昉)이 한 번 떠난 뒤로 두산관(斗山觀)의 시판(詩板)이 옮겨졌듯이,<sup>505</sup> 유안(劉安)이 떠나고 천년 후에 비로소 회주(淮州)의 편액이 사라졌던 것이다.<sup>506</sup> 비록 고금의 산신령

씨웠다가 이기지 못하고는 노하여 머리로 부주산(不周山)을 들이받아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 부러지고 땅을 묶어 둔 밧줄이 이지러지자 여와씨가 오색의 돌을 갈아서 하늘을 깎고 자라의 발을 잘라서 사극(四極)을 세우자 땅이 평정되고 하늘이 완전하게 되었다 한다. 《淮南子 覽冥訓》

- 504 회수(淮水) : 중국의 장강(長江)으로 흘러들어가는 강물이다. 여기서는 회양(淮陽)의 강물을 비유한다.
- 505 그러므로… 옮겨졌듯이 : 당공방(唐公昉)은 전한(前漢) 말기의 도사(道士)로, 진인(真人)이 준 약을 먹고 온 가족이 신선이 되어 떠났다고 한다. 당공방은 섬서(陝西) 흥원(興元)에 두산관(斗山觀)이라는 집을 짓고 살았는데, 훗날 당나라 때 왕인유(王仁裕)가 그 지역 절도사의 판관이 되어 시판(詩板)에 시를 지어 걸었다고 한다. 그런데 왕인유가 후에 촉(蜀) 땅 대면산(大面山)의 엄진관(嚴真觀)이라는 곳을 찾았는데, 그곳에 두산관에 걸어놓았던 시판이 있었다. 두 지역은 2천여 리나 떨어져 있었는데, 우물이 서로 통하여 흘러온 것이라고 하였다. 《太平廣記 卷397 斗山觀》 《全唐詩 卷736 題斗山觀》
- 506 유안(劉安)이… 것이다 : 유안은 한 고조(漢高祖)의 손자로 회남왕(淮南王)에 봉해졌다. 역사서에서는 반역을 기도하였다가 실패하여 자살했다고 전하지만, 도가적 설화에서는 선약(仙藥)을 복용하고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유안은 신선이 되어 떠났다는 점에서 당공방과 비견되고, 회남에 봉해졌다는 점에서 회양(淮陽)의 지명과 연



탓이지만 실은 전후의 시성(詩聖) 때문이었다네. 마침내 열흘 동안 용이 찾고 이무기가 건져서, 구중천으로 바다가 운반하고 강물이 옮겨놓았네. 서왕모(西王母)의 칠보함(七寶函)에서 꺼낼 때면 금선(金仙)<sup>507</sup>도 경건히 손을 씻었고, 상제의 오색안(五色案)에 올릴 때면 옥토(玉兔)도 광채를 바쳤네.<sup>508</sup> 붉은 패옥에 구슬 관을 쓴 신선들이 에워싸 어깨를 부비며 유쾌하게 들여다 보고, 규벽(圭璧) 같은 군자와 선비들 모여서 입에 거품이 일도록 다투어 읊도다. 생각건대 아름다운 옥이나 정련된 금은 본래 땅에 던지면 소리가 나거늘,<sup>509</sup> 이내 참된 순수함으로 돌아가 질박함을 되찾았으니 상천(上天)에는 소리가 없기 때문이라. 저 성궁(星宮)에 감춰져 사객(槎客)<sup>510</sup>을 만나지 않은 것이 다행일 뿐이고, 구름 바다에 던졌으니 어찌 우강(禺疆)<sup>511</sup>으로 하여금 얻게 하였으랴. 회양 고을에서 잃었으니 고을의 명성은 가벼워졌고, 천상에서 얻었으니 천상의 명성은 무거워졌도다. 황천이 어찌 치우치게 명성이

---

관성이 있다. 그러므로 ‘회주(淮州)의 편액’은 회양에 걸여둔 이정귀의 시판을 가리킨다.

- 507 금선(金仙) : 신선 혹은 부처를 가리키는 말이다.
- 508 옥토(玉兔)도 광채를 바쳤네 : 옥토는 달에 산다는 토끼를 이르는데, 여기서는 달의 의미로 쓰였다. 달이 광채를 발하여 상제가 보기 편하도록 하였다는 뜻으로 보인다.
- 509 생각건대…나거늘 : 문장이 매우 아름다움을 형용하는 말이다. 진(晉)의 손작(孫綽)이 <천태산부(天台山賦)>를 지어 친구 범영기(范榮期)에게 보여 주면서 이 글을 땅에 던지면 음악 소리가 날 것이라고 말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晉書 卷56 孫綽列傳》
- 510 사객(槎客) : 장건(張騫)이 한 무제(漢武帝)의 명을 받고 황하의 근원지를 밝히려려고 뗏목을 타고 가다가 하늘 궁전에 이르러 견우(牽牛)와 직녀(織女)를 만나고 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天中記 卷2》
- 511 우강(禺疆) : 북해(北海)에 산다고 전해지는 바다의 신이다. 《列子 湯問》

무거워지게 하랴, 인간 세상의 고을 또한 끝내 명성이 가볍도록 해서는 안 되었고다. 매음도(煤音島)<sup>512</sup> 물가에서 그물에 걸려 잠깐 태복(太僕)<sup>513</sup>의 손을 거친 뒤, 강도(江都)의 관아로 가게 하여 마침내 태사(太史)의 감영<sup>514</sup>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만 같겠는가. 소문(昭文)의 거문고를 망가뜨렸다 금새 만들고<sup>515</sup> 초왕(楚王)의 활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과 같도다.<sup>516</sup> 신출귀몰한 조화를 어찌 사람이 능히 하랴, 벽옥(璧玉)이 온전히 돌아오고 황금의 보답을 받았으니<sup>517</sup> 하느

512 매음도(煤音島) : 원문은 ‘島’이다. 《월사집(月沙集)》 권17 〈회양시판중현서(淮陽詩板重懸序)〉에 근거하여 “를 ‘煤’의 전사 오류로 보아 번역하였다. 매음도는 강화도의 교동(喬桐) 앞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513 태복(太僕) : 태복시 판관 이희간(李希幹)을 가리킨다. 당시 이희간은 매음도에 말을 점고하러 왔다가 시판을 발견하여 이정귀에게 시판과 편지를 보내왔다고 한다.

514 태사(太史)의 감영 : 당시 경기 관찰사를 맡고 있던 이정귀의 순영을 가리킨다.

515 소문(昭文)의…만들고 : 소문(昭文)은 고대 중국의 거문고를 잘 타던 사람이다. 이 구절은 《장자》〈제물론(齊物論)〉에 나오는 소문의 거문고 고사를 변용하여, 거문고가 망가졌다가 다시 만들어진 것으로 표현하였다. 《장자》에서는 “가야금의 명인 소문이 연주를 하면 성(成)과 휴(虧)가 있고, 연주를 하지 않으면 성과 휴가 아예 없어진다.[無成與虧 故昭氏之不鼓琴也 有成與虧 故昭氏之鼓琴也]”라고 하였다. 도의 입장에서 보자면 악기의 연주는 한정된 음률의 성립을 이루면서, 그 배후에 있는 무한의 음률을 잃는 것이라는 뜻이다.

516 초왕(楚王)의…같도다 : 옛날 초나라 공왕(共王)이 사냥을 갔다가 활을 잃자 좌우의 신하가 찾으려 하였는데, 왕이, “초왕이 잃은 것을 초인이 얻을 것이니 찾을 것이 없다.” 하였다. 《孔子家語 卷2 好生》

517 벽옥(璧玉)이…받았으니 : 전국 시대 조(趙)나라 혜문왕(惠文王)이 초(楚)나라의 화씨벽(和氏璧)을 얻었는데, 진(秦)나라 소왕(昭王)이 이를 빼앗고자 하여 거짓으로 15개의 고을과 바꾸자고 하였다. 이에 조나라에서는 인상여(蘭相如)가 화씨벽을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인상여는 진나라에서 성을 주지 않으면 화씨벽을 깨뜨리겠다고 위협

에서 떨어진 것임을 알겠노라. 교주(交州)<sup>518</sup>의 빈관(賓館)에서 거듭 눈앞에 우뚝하게 되었고, 한 조각 시판의 웅장한 쇠귀가 다시 벽 속에서 빛나게 되었고도다. 은구(銀鉤)의 달은 굵었으니 귀모(鬼母)는 가을 들판에서 곡하고,<sup>519</sup> 보타(寶唾)의 구슬은 둥그니 교인(蛟人)이 밤에 방에서 우는 것이라.<sup>520</sup> 어찌 기문(記文)을 빌려야만 등왕각(滕王閣)의 증수를 기록하리오,<sup>521</sup> 낭낭히 시 읊을 필

하여 마침내 화씨벽을 온전하게 다시 조나라로 가지고 돌아왔다. 《史記 卷81 廉頗藺相如列傳》 전국 시대에 오자서(伍子胥)가 초(楚)나라에서 망명하다가, 배가 고파서 여울에서 빨래하는 여자에게 밥을 얻어 먹고, 갈 때에 추적하는 자가 오거든 말하지 말라 하였더니, 그 여인은, “남의 남자에게 밥을 주고 말을 하였으니 신(信)을 지키는 표시를 하겠다.”하고, 곧 물에 빠져 죽었다. 후에 오자서가 다시 그 여울을 지나면서, 보답할 길이 없자 백금(百金)을 강물에 던지고 떠났다고 한다. 《吳越春秋 闔閭內傳》 여기서는 모두 이정귀의 시판이 돌아온 것을 비유한다.

518 교주(交州) : 회양의 옛 이름이다.

519 은구(銀鉤)의...곡하고 : 은구는 은빛 고리로 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것이다. 은구의 달빛은 여기서 시문의 서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귀모(鬼母)는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배어 죽었다는 백사(白蛇)의 어미를 이른다. 백사는 본래 백제(白帝)의 아들인데 적제(赤帝)의 아들인 유방에게 죽음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백제는 오행 설로는 백색(白色),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하며 서방(西方)을 다스린다. 《史記 卷8 高祖本紀》 여기서는 훌륭한 시문에 귀모도 놀라서 울 정도라는 뜻으로 쓰였다.

520 보타(寶唾)의...것이라 : 보타는 시문을 칭찬하여 이르는 말이다. 교인(蛟人)은 인어와 같은 존재인데 바닷속에서 항상 비단을 짜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교인이 눈물을 흘리면 구슬이 된다고 전한다. 《述異記》 여기서는 이정귀의 쇠귀가 구슬과 같이 아름다운데, 바다에 사는 교인의 눈물이 변한 것이라는 뜻이다.

521 어찌...기록하리오 : 아래의 구절과 마찬가지로 조찬한 자신이 이정귀 시판에 얽힌 일화를 기록할 필요없다가 없다는 검사로 쓰였다. 등왕각은 당나라 고조(高祖)의 아들 이원영(李元嬰)이 홍주(洪州)의

요없으니 한갓 악양루(岳陽樓)에 세 번 오르느라 수로고을 뿐이다.<sup>522</sup> 원화동천(元化洞天)의 필획보다 기이하고,<sup>523</sup> 단서(丹書)에 남긴 술랑(述郎)의 자취와는 다르도다.<sup>524</sup>

아, 진사왕(陳思王)의 ‘비단 버선’ 읊은 문장도 그저 낙포(洛浦)의 신녀를 감동케 했을 뿐이요,<sup>525</sup> 헌제(軒帝)의 균천광악(鈞天廣

---

도독(都督)으로 있을 때에 세운 누각인데, 훗날 홍주 자사(洪州刺使) 염백서(閻伯嶼)가 중수하였다. 이때 연회를 베풀고 참석한 손님들에게 서문을 짓게 하였는데, 왕발(王勃)이 마침 그 자리에 참여하여 유명한 <등왕각서>를 지었다. 《古文眞寶 後集 卷2 滕王閣序》

- 522 낭낭히…뿐이다 : 이정귀에게 화운시를 부탁 받았으나 조찬한이 시를 짓더라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것이니 한갓 수로고을 일이라는 뜻이다. 당나라 때 신선 여동빈(呂洞賓)이 강호에 유랑하다가 신선 종리권(鍾離權)을 만나 연명술(延命術)을 받고 신선이 된 다음 양절(兩浙) 사이를 다니며 놀았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가 악양루(岳陽樓)에 제한 <동빈유악양(洞賓遊岳陽)> 시에 “아침에 북해에서 노닐다가 저녁엔 창오에 있고, 소매 속 청사검에 담기가 드눕네. 세 번이나 악양에 들어가도 아무도 몰라보니, 낭랑히 시 읊고서 동정호로 날아가네. [朝遊北海暮蒼梧 袖裏青蛇膽氣轟 三入岳陽人不識 朗吟飛過洞庭湖]”라고 하였다. 《事文類聚前集 卷34》
- 523 원화동천(元化洞天)의 필획보다 기이하고 : 조선 중기의 명필인 양사언(楊士彦, 1517~1584)이 회양 부사(淮陽府使)로 있으면서 내금강 만폭동(萬瀑洞) 계곡의 너럭바위 위에 ‘봉래풍악 원화동천(蓬萊楓岳元化洞天)’이란 8자를 새겨 놓았다고 전한다.
- 524 단서(丹書)에…다르도다 : 신라 시대 삼일포(三日浦)에 와서 사흘을 놀았다는 영랑(永郎), 술랑(述郎), 남석랑(南石郎), 안상랑(安祥郎) 등 네 신선 가운데 술랑을 가리킨다. 삼일포에 있는 석벽(石壁)에는 ‘영랑도남석행(永郎徒南石行)’이라는 여섯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 525 아…뿐이요 : 아래 구절과 마찬가지로 역대로 유명한 시문이나 음악도 이정귀의 시문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진사왕은 삼국 시대 진왕(陳王)에 봉해진 위(魏)의 조식(曹植)을 이른다. 조식이 낙수(洛水)의 신녀(神女) 복비(宓妃)를 두고 지은 <낙신부(洛神賦)>에 “물결을 타고 사뿐사뿐 걸으니, 비단 버선에 먼지가 이누나. [凌波微

樂)도 단지 동정(洞庭)의 어룡을 놀라게 하였을 뿐이다.<sup>526</sup> 두원개(杜元凱)는 빗들을 가리앉혔으나 어찌 물속에서 글자를 알아보리오,<sup>527</sup> 사마장경(司馬長卿)이 다리 기둥에 쓴 시는 단지 촉(蜀) 땅에만 명성을 날렸을 뿐이로다.<sup>528</sup> 누가 하루아침에 기이한 변화를 부려, 마침내 천리 밖에 숨었다 나타나게 하였나. 천문(天門)과 수부(水府)<sup>529</sup>에서도 보고서 기이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었고, 외국과 중국에서도 또한 그 기이한 일을 기록한 사람이 있었다. 외

步 羅襪生塵]”라고 하였다.

- 526 현제(軒帝)의…뿐이다 : 현제는 현원(軒轅)으로 전설상의 제왕인 황제(黃帝)를 가리킨다. 균천광악은 천상의 음악을 말한다. 《장자》 천운편(天運篇)에 황제와 북문성(北門城)의 음악에 관한 대화가 실려 있는데, 북문성의 말에 “황제여, 당신은 동정의 들판에 악기를 죽 늘어 놓고 함지의 악곡을 연주하였습니다만, 저는 처음 그 곡조를 들었을 때 웬지모를 두려움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주를 들었을 때에는 마음이 나른해짐을 느꼈고, 끝으로 세 번째 연주를 들었을 때에는 얼이 빠진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帝張咸池之樂於洞庭之野 吾始聞之懼 復聞之怠 卒聞之而惑]”라고 하였다.
- 527 두원개(杜元凱)는…알아보리오 : 두원개는 진(晉)나라 두예(杜預, 222~284)로, 원개는 자이다. 오(吳) 지역을 평정하는 데 큰 공을 세운 두예는 평소 후세에 이름 남기기를 좋아하였다. 이에 일찍이 자신의 공을 새긴 비석 두 개를 만들어 하나는 현산(峴山)의 물 아래에다 파묻고, 하나는 북담(北潭)에다 파묻고는 말하기를 “100년이 지난 뒤에는 높은 언덕이 골짜기가 되고 깊은 골짜기가 구름이 되지 않을 줄을 어찌 알겠는가.” 하였다. 《晉書 卷34 杜預列傳》
- 528 사마장경(司馬長卿)이…뿐이로다 : 사마장경은 한(漢)나라 때의 문장가인 사마상여(司馬相如)를 가리킨다. 사마상여가 촉중(蜀中)에서 장안(長安)으로 가는 도중에 승선교(升仙橋)를 지나다가 그 다리의 기둥에 “귀하게 되어 사마고거(駟馬高車)를 타지 않고서는 이 다리를 다시 지나지 않겠다.”라고 썼다 한다. 《史記 卷117 司馬相如列傳》
- 529 천문(天門)과 수부(水府) : 천문은 천궁(天宮)의 문으로, 곧 천제(天帝)가 살고 있다는 자미궁(紫微宮)의 문을 이른다. 수부는 전설상의 수신(水神)이나 용왕이 사는 곳을 말한다.

로운 객관은 다시 시판을 얻어서 세상에 드러났고, 황폐한 고을은 상국의 명성을 빌려 더욱 높아졌다네. 나 같은 사람은 조물주가 소[牛]라 불리도 개의치 않고,<sup>530</sup> 새옹(塞翁)의 말을 잃어버렸다 해도 원망하지 않노라.<sup>531</sup> 벽곡(辟穀)<sup>532</sup>할 곡식이 없으니 신선을 배우지 못했지만 신선이나 다름 없고, 다스릴 백성이 없으니 다스리고자 한들 무엇을 다스리랴. 새로운 시는 짓지 못하고, 오래된 병도 치료하기 어렵구나. 변방의 말투 듣기 괴로우나 백안시(白眼視)하는 것보다는 낫고, 고아한 시에 화답할 수는 있으나 어찌 벽사룡(碧紗籠)<sup>533</sup>만 하겠는가. 훗날 회오리 바람 만난다면 북극의 날개 시험할 수 있을 터이나,<sup>534</sup> 지금은 벼락이 한창이니

530 나…않고 : 남이 나를 소나 말이라고 불리도 이를 거역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장자》 천도편(天道篇)에 참된 도를 얻은 사람을 표현하기를 “다른 사람이 자신을 말이라고 부르면 말이라고 부르는 대로 맡겨가고, 소라고 부르면 소라고 부르는 대로 맡겨간다.[子呼我牛也而謂之牛 呼我馬也而謂之馬]”라고 하였다.

531 새옹(塞翁)의…않노라 : 새옹지마(塞翁之馬)의 고사로 길흉화복에 중요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지방의 한직에 있다고 하여 낙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532 벽곡(辟穀) : 오곡(五穀)을 먹지 않는 도교의 수련법이다.

533 벽사룡(碧紗籠) : 이정귀의 시를 가리킨다. 시문을 소중하게 여겨 먼지가 묻지 않도록 푸른 김으로 감싸서 보호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벽사룡(碧紗籠)이라고 한다. 당나라 왕파(王播)가 어려서 가난하여 양주(揚州) 혜소사(惠昭寺) 목란원(木蘭院)의 객이 되어 글을 읽으며 승려들을 따라 잣밥을 얻어먹었는데, 승려들이 염증을 내어 재가 모두 파한 뒤에야 종을 치곤 하였다. 그 뒤 20여 년이 지난 뒤에 왕파가 중한 지위에 있다가 이 지방에 출진(出鎮)해서 그 절을 찾아갔더니, 지난날 자기가 벽에다 써 놓은 시를 벌써 푸른 비단으로 감싸 놓고 있었으므로, 그 시의 뒤에 “이십 년 동안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가, 오늘에야 푸른 김으로 장식되었구나.[二十年來塵撲面 如今始得碧紗籠]”라고 써넣었다고 한다. 《唐摭言 起自寒苦》

534 훗날…터이나 : 《장자》 〈소요유(逍遙遊)〉에 대봉(大鵬)이 멀리 날아

아직은 남산(南山)의 양지에 숨는다네.<sup>535</sup>

---

가는 모습을 형용하여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구만 리이다.[搏扶搖而上者九萬里]”라고 하였다.

- 535 지금은…숨는다네 : 남산의 표범이 비가 올 때면 산을 나서지 않고 털을 보존한다는 고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뜻으로 쓰인다. 한(漢)나라 유향(劉向)이 지은 《열녀전(列女傳)》 권2 <도답자처(陶答子妻)>에 “첩(妾)이 들으니 남산에 있는 검은 표범은 안개비가 내리는 7일 동안에 내려와 먹지 않는다고 하니, 이는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몸의 털을 윤택하게 하여 무늬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몸을 숨겨 해를 피하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그 몸을 불리니 살면서 죽음을 기다릴 뿐입니다.[妾聞南山有玄豹 霧雨七日而不下食者 何也 欲以澤其毛而成文章也 故藏而遠害 犬彘不擇食以肥其身 生而須死耳]”라고 하였다.

## 일본으로 사신 가는 이상고<sup>536</sup>를 보내는 서 이름은 경직이다.

送李尙古赴日本序 景稷

대저 이국(夷國)과 격리되고 만맥(蠻貊)과 단절된 것은 바다와 육지가 서로 나뉘었기 때문이요, 방위가 다르고 지역이 떨어져 있어서 풍토도 서로 같지 않다. 선왕 때에는 덕화(德化)를 드러낼 뿐 위무(威武)를 보이지 않았지만,<sup>537</sup> 후세에는 이러한 전통이 점점 사라져 서로 침벌하게 되었다. 이런 까닭에 진(秦)나라는 동북쪽을 막아 헛되이 만리장성을 쌓았고, 한(漢)나라는 서남쪽과 교통하여 멀리 사두마차의 급행 전마(傳馬)를 달리게 했던 것이다.<sup>538</sup> 그러니 모피와 비단, 개와 말로 섬긴 것이 어찌 다른 이유가 있겠으며,<sup>539</sup> 전쟁이 계속 이어졌던 것은 부득이한 사정에

536 이상고(李尙古) : 이경직(李景稷, 1577~1640)을 가리킨다. 상고(尙古)는 그의 자(字)이다. 본관은 전주(全州), 호는 석문(石門), 시호는 효민(孝敏)이다. 1617년(광해군9) 여름 추탄(楸灘) 오윤겸(吳允謙)이 회답사(回答使)의 정사(正使)로 일본에 가게 되었는데, 이때 이경직이 종사관(從事官)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이 글을 지은 시기도 그때로 추정할 수 있다. 《北渚集 卷8 忠敏李公神道碑銘》

537 선왕…않았지만 : 옛날 주 목왕(周穆王)이 견용(犬戎)을 정벌하려 하자 채공모보(祭公謀父)가 간하기를 “선왕께서는 교화를 숭상하여 무위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先王耀德不觀兵]”라고 하였다. 큰 죄악이 있을 때에만 주벌을 행할 뿐 작은 잘못에는 무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538 한(漢)나라는…것이다 : 한나라 무제(武帝) 때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서이(西夷)에 한나라 관리를 두고 다스리도록 청하자, 사두마차의 사신 행차를 급히 파견하여 서이 지역을 평정했다고 한다. 《史記 卷117 司馬相如列傳》

539 그러니…있겠으며 : 주(周)나라의 태왕(太王)인 고공단보(古公亶父)



서 나온 것이다. 더구나 일본이란 나라는 멀리 천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속임수를 좋아하고 그 풍속은 검술에 익숙하다. 평씨(平氏)<sup>540</sup>가 국정을 마음대로 처단하면서부터, 마침내 임진년(1592, 선조25)의 전란을 당하게 되었다. 비록 종묘사직의 영령 덕분에 이내 곧 승리하여 수복하였으나, 신령과 사람의 분노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또 양산(梁山)을 넘은 수도 때문에 끝내 곤이(昆夷)와 교류하는 일을 폐할 수 없고,<sup>541</sup> 평성(平城)에서 포위 당한 치욕 때문에 끝내 관새(款塞)의 화친을 끊을 수 없었다.<sup>542</sup> 이 때문에 제왕이 오랑캐를 대하는 법도로써 묘당에서 적인(狄人)을 제어하는 계책으로 삼은 것이다. 바야흐로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 우호를 다지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이에 사신을 보내 회담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비단 이치상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실로 예의에 답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에 세 사신을 선발하여 일행을 거느리게 하였다.

---

가 빈(豳) 땅에 있을 때 적인(狄人)이 자주 침입하자, 피폐(皮幣)와 견마(犬馬)로 섬겼으나 화를 면할 수 없었다. 이에 빈 땅을 버리고 기산(岐山) 아래로 가서 도움을 정했다고 전한다. 《孟子 梁惠王下》

540 평씨(平氏) : 풍신수길(豐臣秀吉)를 가리킨다.

541 그러나…없고 : 임진왜란 때 선조(宣祖)가 의주(義州)로 몽진한 일을 이유로 일본과 교류를 끊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고공단보가 적인(狄人)을 피해 양산(梁山)을 넘어 기산(岐山) 아래에 정착했다고 한다. 곤이(昆夷)는 은주(殷周) 시절에 서북쪽에 있던 이민족으로 적인(狄人)과 같은 뜻이다. 《孟子 梁惠王下》

542 평성(平城)에서…없었다 :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직접 군대를 인솔하고 흉노의 목특선우(冒頓單于)를 치기 위해 출정했다가 평성 부근의 백등산(白登山)에서 7일 동안이나 흉노의 30만 대군에게 포위를 당했다가 진평(陳平)의 계책으로 간신히 빠져 나왔던 일을 말한다. 《史記 卷112 平津侯列傳》 관새(款塞)는 변경의 관문으로 찾아와 두드린다는 뜻으로, 외족(外族)이 와서 친분을 맺는 것을 이른다.

생각건대 공은 난새처럼 한림에 오르고 봉황처럼 옥당에 들어갔으니, 자로(紫路)에서 수레를 달려 강설할 때면 구슬 같은 말이 쏟아졌고, 청운(靑雲)에 고삐를 높이 들어 의기양양하게 둘러보면 번개와 같았네. 지난번 준마의 발굽이 잠시 넘어지더니<sup>543</sup> 구름 날개를 여미어 낮게 늘어뜨렸네. 오래도록 외직으로만 분주히 다녔으니 시호(市虎)의 의심<sup>544</sup>을 누가 풀어 줄 수 있었으랴, 자취를 감추고 숨으려 하였으나 안개 속 표범의 문채<sup>545</sup>는 더욱 빛

543 지난번…넘어지더니 : 준마는 이경직을 비유한다. 1613년(광해군5) 이이첨(李爾瞻) 일파가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유폐시키려는 음모를 꾸미자 그 화가 서성(徐滄)에게까지 미쳤다. 서성은 인목대비의 부친인 김제남(金梯男)과 사돈지간이면서, 이경직의 부친 이유간(李惟侃)과는 막역한 사이였다. 이에 이유간은 아들인 이경직을 시켜 이이첨을 찾아가 서성의 구명(救命)을 부탁하게 된다. 그러나 그 자리에 평소 이이첨과 사이가 좋지 않던 이이첨의 일가 사람이 이경직이 찾아온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내었다. 이경직은 그길로 수성찰방(輸城察訪)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를 빌미로 오래도록 험담이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北渚集 卷8 忠敏李公神道碑銘》

544 시호(市虎)의 의심 : 이경직이 이이첨과 족분(族分)이 있었으므로 서성의 구명을 부탁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의심하였다. 시호는 계속 반복되면 사실처럼 믿게 되는 유언비어를 말한다. 저잣거리에는 호랑이가 나오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이 세 번 정도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모두들 그렇게 믿게 된다는 삼인성호(三人成虎)의 고사에서 나온 것이다. 《戰國策 魏策2》

545 안개…문채 : 남산의 표범이 비가 올 때면 산을 나서지 않고 털을 보존한다는 고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뜻으로 쓰인다. 한(漢)나라 유향(劉向)이 지은 《열녀전(列女傳)》 권2 <도답자처(陶答子妻)에 “첩(妾)이 들으니 남산에 있는 검은 표범은 안개비가 내리는 7일 동안에 내려와 먹지 않는다고 하니, 이는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몸의 털을 윤택하게 하여 무늬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몸을 숨겨 해를 피하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그 몸을 불리니 살면서 죽음을 기다릴 뿐입니다.[妾聞南山有玄豹 霧雨七日而不下食者 何也 欲以澤其毛而成文章也 故藏而遠害 犬彘不擇食

이 났구나. 참으로 거란(契丹)이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 오직 부필(富弼)<sup>546</sup>만을 사신으로 보낼 만하였고, 회홀(回紇)이 불측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동진(董晉)<sup>547</sup>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었다. 이에 훌륭한 사람을 간택하였으니 진실로 못사람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어찌 소명을 받고 수레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겠나, 그러므로 명을 받고서 얼음을 마시는 것이라네.<sup>548</sup> 마차를 몰아 국경을 벗어나던 옛 사람도 고향을 생각하는 한을 일으킨 것과 바퀴를 단속하고 먼 길을 가던 배신(陪臣)들이 고국을 떠나는 슬픔을 일으킨 것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양친은 당상(堂上)에 계시지만 서산의 해는 이미 기울었고, 병약한 아내는 집을 떠나 북망(北邙)의 시신이 아직 식지 않음에랴.<sup>549</sup> 대장부

以肥其身 生而須死耳”라고 하였다.

- 546 부필(富弼) : 송나라 인종(仁宗)부터 신종(神宗) 때 사람이다. 자는 언국(彦國),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인종 초에 지제고(知制誥)가 되어 거란(契丹)에 두 차례 사신으로 가서 공로가 있었고, 추밀부사(樞密副使)가 되었다.
- 547 동진(董晉) : 당나라 숙종(肅宗)부터 덕종(德宗) 때 사람이다. 대력(大曆) 연간에 회홀로 사신을 가게 되었는데, 회홀인들이 오만하게 굴면서 매년 당나라에서 말을 사가면서 어찌서 말값을 부족하게 주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동진은 당나라에 말이 없어서 말을 사들이는 것도 아니고, 이미 상으로 하사한 것도 많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러 용족(戎族)들이 회홀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도 당과 교류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그들의 요구를 물리쳤다. 《新唐書 卷151 董晉傳》
- 548 얼음을 마시는 것이라네 : 사신(使臣)의 명을 받고서 두렵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외국으로 가는 것을 이른다. 《장자(莊子)》〈인간세(人間世)〉의 “내가 아침에 사신의 명을 받고서 저녁에 얼음물을 마셨으니, 내 속이 벌써 뜨거워진 것 같다.[今吾朝受命而夕飲氷 我其內熱與]”라는 말에서 연유한 것이다.
- 549 병약한…않음에랴 : 이경직은 처음에 정경 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된 보성 오씨(寶城吳氏)에게 장가들어 3남 2녀를 두었다. 이경직이 일

의 장한 마음은 방촌(方寸) 밖을 벗어나지 않으나, 어린 자녀들 눈 앞에 가득하니 어찌 마음속에 걸리지 않으랴. 문을 나서 멀리 떠나려니 혼정신성(昏定晨省)의 생각은 더해지고, 숙직하거나 입시할 때에도 오히려 이별의 생각만 가득하구나. 더구나 이제 운음을 받들어 절역(絶域)으로 떠나는 마당에 마침 무더위를 당해서 배타고 떠나야 하네.

그리고 또 몸을 바치고 본분을 지키면서, 편안함을 버리고 위태로운 곳으로 가야하네. 대청에 올라 멀리 이별을 고하지만 부모님 슬퍼하지 않고, 갈림길에서 서로 전송할 때에도 친구들 한탄하지 않는다네. 일을 함에 어려움을 사양하지 않음은 곧 가정의 훌륭한 교훈이요, 충심을 오직 효성에서 구함은 힘써 배울 때의 초심이 어찌 아니라. 효성으로 충성하면 지극한 충효요, 가정을 생각지 않고 나라에 몸 바치니 국가와 가정 중 무엇이 먼저이랴. 뒤뜰어진 재물을 만나지 않는다면 어찌 예리한 도구를 구별하리요, 상설(霜雪)의 계절을 만나지 않는다면 어찌 후조(後凋)<sup>550</sup>를 논하랴. 더구나 남아는 사방에 뜻을 두고, 달사(達士)는 팔극(八極)을 작게 여김을 생각할 때, 장해(章孩)의 빠른 발로도 천하를 다 누비려던 계획을 이루지 못했고, 과보(夸父)<sup>551</sup>의 신편(神

---

본으로 사신을 가기 한 해 전인 1616년(광해군8) 해산한 지 두달 만에 마흔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白軒集 卷48 丘嫂贈貞敬夫人寶城吳氏墓誌銘》

550 후조(後凋) : 곤궁한 처지에도 지조를 잃지 말자고 기약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세모는 《논어》〈자한(子罕)〉에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송백이 늦게 시드는 것을 알 수 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551 과보(夸父) :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로, 걸음이 아주 빠른 사람이다. 옛날에 과보가 제 자신의 역량을 헤아리지 못하고 햇빛을 쫓아가고자 하여, 우곡(隅谷)까지 쫓아갔는데, 목이 말랐다. 이에 하수(河水)

鞭)으로도 부질없이 해를 쫓아가려던 계획을 포기했음에라. 혹은 황하 만리길을 팔월의 뗏목을 타고 오르는 사람도 있었고,<sup>552</sup> 창수(蒼水)가 천년을 흐르는 동안 신령이 한 사신에 감통한 일도 있었다.<sup>553</sup> 반정원(班定遠)의 노쇠한 마음은 옥문관(玉門關)에 들어가길 원했고,<sup>554</sup> 마복파(馬伏波)의 웅대한 계획도 마침내 동주(銅柱)의 표지를 세우는 데 그쳤다.<sup>555</sup> 비록 목숨을 잃고 나라를 위하

---

와 위수(渭水)의 물을 들이켰으나 물이 부족하였으므로, 다시 대택(大澤)의 물을 마시려고 하였는데,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증도에서 목이 말라 죽었다 한다. 《列子 湯問》

- 552 혹은…있었고 : 장건(張騫)이 한 무제(漢武帝)의 명을 받고 황하의 근원지를 밝히려고 뗏목을 타고 가다가 하늘 궁전에 이르러 견우(牽牛)와 직녀(織女)를 만나고 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天中記 卷2》
- 553 창수(蒼水)…있었다 : 옛날 우(禹)임금이 치수(治水)하면서 형산(衡山)에 이르렀을 때 백마(白馬)를 잡아 제사를 올려도 좋은 징조가 없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하늘을 보며 호소하였는데, 꿈에 붉은 색의 수놓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자신은 현이창수사자(玄夷蒼水使者)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산신의 서책을 얻고자 한다면 황제(黃帝)의 바위산에서 석달 동안 재계를 올리고, 산에 올라가 바위를 열어 보면 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우임금은 과연 그 말대로 석달 동안 재계를 올린 뒤 서책을 얻을 수 있었고, 치수의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고 한다. 후에 ‘창수사자(蒼水使者)’는 사신을 가리키는 전고로 쓰였다. 《吳越春秋 卷4 越王無余外傳》
- 554 반정원(班定遠)의…원했고 : 반정원은 후한(後漢) 때 서역(西域)에 종군하여 50여 나라를 평정하고 정원후(定遠侯)에 봉해진 반초(班超, 33~102)를 가리킨다. 옥문관은 서역으로 가는 관문인데, 반초가 오래도록 변방에 지내다보니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생각이 나서 화제(和帝)에게 상소를 올려 “신이 감히 주천까지 가기는 바랄 수 없지만, 살아서 옥문관에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臣不敢望到酒泉郡 願生入玉門關]”라고 하자 화제가 허락하였다. 《後漢書 卷77 班超列傳》
- 555 마복파(馬伏波)의…그쳤다 : 마복파는 중국 남방의 교지(交趾)를 평정한 후 동주(銅柱)를 세워 공을 기록하고 돌아와 복파장군(伏波將軍)이 된 후한의 마원(馬援)을 가리킨다. 두 개의 구리 기둥으로 한나

더라도, 대부분이 위험을 겪을 뿐 공은 적었던 것이다. 하물며 지극한 정성으로 민음을 준다면 오히려 완고한 묘족(苗族)도 이르게 할 수 있으니, 진실로 말이 충실하고 미더우면 비록 만맥(蠻貊)의 나라에서도 뜻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sup>556</sup>

이에 아침에 궁궐을 떠나 저녁에 한고대(漢臯臺)<sup>557</sup>에서 유숙하고, 종남산(終南山)은 이미 떨어져 조령(鳥嶺)을 넘어 천리 길을 가다보면, 동래부(東萊府) 점점 가까워져 대마도(對馬島) 바다에 작은 배 띄울 수 있으리라. 계절은 삼복더위를 만났으나 음기(陰氣)가 땅 속에 숨어 있을 때이고, 흉중에 만갑(萬甲)을 감추었으나<sup>558</sup> 오랑캐들은 이미 목전에 있구나. 독기(蠱旗)와 주기(朱旗)는 축융(祝融)<sup>559</sup>의 집에 죽 늘어서고, 우리 같은 수레와 비 오듯한 바퀴는 풍이(馮夷)의 궁전을 뒤흔든다. 광막한 땅에 오르면 물가의 말과 소도 구분하지 못하는데,<sup>560</sup> 아득히 높이 나는 새를 몰

라와 남방 외국의 경계선으로 삼았다. 《後漢書 卷24 馬援列傳》

556 진실로…것이다 : 공자(孔子)의 제자 자장(子張)이 뜻이 행해지는 것에 대해 물었는데, 공자가 대답하기를, “말이 충성스럽고 미더우며 행실이 돈독하고 공경스러우면 비록 오랑캐의 나라에서도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 行矣]”라고 한 데서 인용한 말이다. 《論語 衛靈公》

557 한고대(漢臯臺) : 주(周)나라 정교보(鄭交甫)가 남쪽으로 초(楚)나라에 가다가 한고대 아래서 두 신녀를 만나 구슬을 받았다는 전설이 있다. 《文選 卷6 江賦》

558 흉중에 만갑(萬甲)을 감추었으나 : 송(宋)나라 범중엄(范仲淹)이 수년 동안 변방을 지키자, 서하(西夏) 사람들이 감히 국경을 넘보지 못하고 말하기를 “범중엄의 가슴속엔 수만의 갑병(甲兵)이 들어 있다.” 하였다고 한다. 《宋史 卷314 范仲淹列傳》

559 축융(祝融) : 여기서는 남해(南海)의 수신(水神)을 가리킨다.

560 물가의…못하는데 : 바다의 광대함으로 건너편 물가의 소와 말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라는 뜻이다. 《장자(莊子)》〈추수(秋水)〉에 “가을이

아간다 해도 어찌 해동(海童)<sup>561</sup>을 만나랴. 이에 날을 택하고 바람을 살피 조수를 맞아 돛을 걸리랴. 삼성(三星)이 성차(星次)를 떠날 때<sup>562</sup> 동쪽 바다에 배를 띄워 곧장 달리고, 오색 구름이 별자리를 가릴 때면 북극(北極)을 바라보아도 더욱 아득하리라. 열병의 어지러움으로 구토, 설사병이 나면 필히 정신을 잃을 것이요, 찌는 듯한 안개의 독기를 맞으면 번번이 기운이 시들 것이다. 판옥선의 봉창(篷窓)에서 누가 편안히 누워 쉴 수 있겠는가, 큰 집 높은 누각이라도 오히려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치고 싶을 것이다. 마함(馬銜)<sup>563</sup>이 지키는 요로(要路)가 근심이니 어느 곳에서 용왕께 빌어야 하나, 높은 바도가 솟구쳐 밀칠까 두려우니 정성을 모

---

되자 물이 불어나 모든 물이 황하(黃河)로 흘러들어 출렁이는 물결의 광대함이 양쪽 기슭에서 건너편 물가에 있는 소와 말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였다. [秋水時至 百川灌河 涇流之大 兩涘渚涯之間 不辨牛馬]" 하였다.

- 561 해동(海童) : 바닷속에 산다는 전설상의 신동(神童)이다. 《文選 卷5 吳都賦》
- 562 삼성(三星)이 성차(星次)를 떠날 때 : 삼성(三星)은 세성(歲星)이라고도 하는데 목성(木星)을 가리킨다. 성차(星次)는 천구(天球)를 12년 동안 일주(一周)하는 세성의 궤도를 서에서 동으로 12개로 나눈 것을 말한다. 12개의 성차마다 각각 이름이 있는데, 세성이 각각의 성차를 벗어남으로써 1년 중의 시간을 나타낸다. 오윤겸을 정사로 하는 사신 일행은 1617년(광해군9) 7월 7일에 배를 띄워 저녁에 대마도에 도착하였다고 장계하였다. 12개의 성차 가운데 순화(鶉火)에 해당하는 시기는 음력 7월 7일부터 8월 7일까지 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삼성이 성차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세성이 순화의 성차를 돌기 시작하는 7월 7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光海君日記 9年 7月 21日》
- 563 마함(馬銜) : 전설에서 바다 속에 산다는 괴물로, 머리는 말 모양으로 한 개의 뿔이 있고 그 몸은 용과 같다고 한다. 《文選 卷12 海賦》

아 귀신에게 제를 올려야 한다. 천륜(天輪)<sup>564</sup>은 왼쪽으로 도는데 일월은 떠 있을 뿐 매달리지 않았고, 지축은 어느새 다하여 파도는 쌓일 뿐 실을 수 없다네. 양후(陽侯)와 하백(河伯)<sup>565</sup>은 황홀지경에서 만난 듯하고, 금궐(金闕)과 은대(銀臺)<sup>566</sup>도 아득히 먼 밖에 있는 듯하리라. 혹 성난 날개 짓으로 북극을 뒤흔들면 하늘에는 대붕(大鵬)의 바람이 몰아치고,<sup>567</sup> 뿔으로 공중에 뿔으면 한낮에도 큰 고래가 뿌른 비로 어두울 것이다. 섬들은 어느 때나 끝이 보이려나, 창해는 가도가도 나루가 없다네. 이에 팔방의 끝도 한순간에 지나가고 천길도 순식간에 재촉해서 당도하면, 닳을 내려 국경에 들어가고 객관에 도착하여 인사를 나누리라. 시서(詩書)로 혼자 응대하는 재주<sup>568</sup>는 때를 만나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얼음과 서리 같은 능렬한 지조는 적인(敵人)이 모두 놀랄 걸세. 옥

564 천륜(天輪) : 옛날 사람들은 천지의 운행이 마치 수레의 바퀴와 같아서 끝과 시작이 계속 순환한다고 생각하였다.

565 양후(陽侯)와 하백(河伯) : 양후는 전설상의 파도의 신이고, 하백은 황하의 수신을 가리킨다.

566 금궐(金闕)과 은대(銀臺) : 금궐은 신선이나 천제(天帝)가 산다는 천상의 황금 궁궐이고, 은대는 서왕모(西王母)가 산다는 곳이다.

567 혹…몰아치고 :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에 나오는 대붕을 가리킨다. 북쪽 바다에 곤(鯨)이라는 고기가 있는데 그것이 변하여 봉새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봉새가 남쪽 바다로 옮겨갈 때에는 물결을 치는 것이 삼천 리요,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 리를 올라가 여섯 달을 가셔야 쉰다. [鵬之徙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萬里 去以六月息者也]”라고 하였다.

568 시서(詩書)로…재주 : 사신으로 나아가 독자적으로 응대하는 재주를 말한다. 《논어》(자로(子路))에 “《시경》 삼백편을 외면서도 정사를 맡겨 주면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사방에 사명을 받들고 나가 혼자서 응대를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이 윈다 한들 또한 어디에 쓰겠는가. [誦詩三百 授之以政不達 使於四方 不能專對 雖多亦奚以爲]”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백(玉帛)을 받들고 오르내리니 이미 심중에 있는 경건이 드러나고, 행동은 고하(高下)에 맞으니 밖으로 드러난 정성을 눈으로 보리라.

아, 정포은(鄭圃隱)의 높은 지조는 이미 전사(前史)에 빛났고,<sup>569</sup> 황회원(黃檜原)<sup>570</sup>의 청렴 강직은 고인에게 부끄럽지 않다네. 한 때에 아름다운 이름을 나란히 할 만하니, 의당 다른 시대에서 인재를 빌리지 않아도 된다네. 어찌 우리 임금의 명만을 욕되게 하지 않으리오, 또한 천조(天朝)에도 할 말이 있게 될 것이다. 지금 내 떠나는 길에 이 한 마디 말을 남기지만, 얼굴을 보지 못한지 이제 삼년이라. 무더운 바람 부는 역로(驛路)에서 떠나는 수레를 전송하며 따라갈 수 없으니, 달 밝은 구루(龜樓)에서 미인(美人)을 바라보나 어찌 끝이 있으랴.

569 아…빛났고 : 정포은은 정몽주(鄭夢周)를 가리킨다. 정몽주는 1377년(우왕3) 9월에 일본으로 사신을 가서, 이듬해 7월에 돌아왔는데 윤명(尹明), 안우세(安遇世) 등 수백 인을 데리고 귀국하였다. 《圃隱先生集年譜攷異》

570 황회원(黃檜原) : 황신(黃愼, 1562~1617)을 가리킨다. 회원은 봉호(封號)이다. 1596년(선조29) 명나라에서 관백(關白)을 임회후(臨淮侯)에 책봉하는 일이 있었다. 명에서는 양방형(楊邦亨)과 심유경(沈惟敬)을 사신으로 보냈는데, 일본측에서는 조선에서도 신사(信使)를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황신은 8월에 두 중국 사신을 따라 바다를 건너갔다. 그런데 일본에 도착하자 관백이 국서(國書)를 받지 않고 도리어 공갈하는 말을 할 뿐이었다. 황신은 국서를 전하지 못한 것은 왕명을 욕되게 한 일이라 하여 죽음으로 맹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두 사신이 황신에게 함께 돌아가자고 말하였으므로 부득이 그대로 따랐다. 이에 왜인들은 황신의 의리에 맞는 처사에 탄복하며, 정몽주에 비유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月沙集 卷51 秋浦黃公行狀》《宋子大全 卷156 秋浦黃公神道碑銘》

## 연경으로 가는 정랑 형을 보내는 서<sup>571</sup>

送正郎兄赴燕京序

산에 오르고 물에 임하여 고인도 슬퍼했으니,<sup>572</sup> 고국을 떠나  
어버리와 작별하는 이날이 애석하구나. 세상에 누가 작별하지 않  
으리오, 사람마다 모두 형이 있도다. 숙(叔)이여 백(伯)이여<sup>573</sup> 다  
행히 네 형제<sup>574</sup>가 무고하나,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피 주셨으니  
<sup>575</sup> 두 분을 생각하여도 따를 수 없네. 은혜는 낳고 길러 주신 것  
보다 더한 것이 없고, 즐거움은 형제의 우애만한 것이 없다네. 아  
낄만 한 것은 시일이 아니겠는가,<sup>576</sup> 보답하기 어려운 것은 하늘

571 연경(燕京)으로…서 : 정랑 형은 조찬한의 형인 조위한(趙緯韓)을 가리킨다. 조위한은 1610년(광해군2)에 예조 정랑이 되었고, 가을에 사은사 이시언(李時彦)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중국에 갔다.

572 산에…슬퍼했으니 : 높은 산에 올라 흐르는 물을 굽어본다는 전국 시대 송옥(宋玉)의 <구변(九辯)>에 “구슬퍼라 흡사 타향에 있는 듯하다. 산에 올라 물을 굽어보이여 돌아갈 사람을 보내도다.[懔懔兮若在遠行 登山臨水兮送將歸]”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여기서는 이별을 아쉬워하는 뜻을 담고 있다. 《楚辭 卷6》

573 숙(叔)이여 백(伯)이여 :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시경(詩經)》<정풍(鄭風) 탁혜(摯兮)>에 “숙(叔)이여 백(伯)이여 나를 부르면 내 너에게 화답하리라.[叔兮伯兮 倡予和女]”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注)에서는 형제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574 네 형제 : 네 형제는 위로부터 조계한(趙繼韓), 조유한(趙維韓), 조위한(趙緯韓), 조찬한(趙纘韓)이다.

575 나를…주셨으니 : 《시경》<소아(小雅) 육아(蓼莪)>에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다시 살피시며, 출입할 땐 나를 배에 안으셨다.[顧我復我 出入腹我]”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아버지의 은혜를 말한다.

576 아낄만…아니겠는가 :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날을 아껴야 한다는 뜻이다. 양웅(揚雄)의 《법언(法言)》<효지(孝至)>에 “이 세상에서 오

이라. 배우던 초기에 혼도에 힘입었지만 소자가 어찌 조술하리오, 재주는 끝내 자구를 수식하는 데 그쳤으니 장부가 할 일 아니라네. 바야흐로 봄날의 햇빛<sup>577</sup>이 눈에 들어오니 문득 풍수(風樹)의 아픔<sup>578</sup>이 일어나네. 죄가 크고 악이 극에 달하여 죽어도 할 말이 없고,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졌으니 곡을 한들 어찌 미치리오. 남겨진 자식으로서 어리석은 것이 애통하고, 아직까지 모진 목숨 구구하게 살아 있네. 가정에서 배우던 초년부터 마음이 어찌 거칠었겠는가, 진실로 선인의 아름다움을 본받았으니 죽더라도 씩어 없어지지 않으리라.

이 때문에 서로 권면하여 배우지 않고도 능하였으니, 과연 시종 학업에 전념하여 앞뒤로 이어서 이름을 세웠네. 네 형제가 모두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니 당대에 드문 일이요, 세 아들이 서로 이어 대과에 급제하였으나<sup>579</sup> 구원(九原)에 계신 분은 살려내기 어렵구나. 대저 이룬 것이 이와 같으니 낡아 주신 부모에게 욕되지 않으리라. 지금은 또 집을 맞대고 담장을 연이어 정원에는 장후(蔣詡)의 오솔길<sup>580</sup>을 열어 놓았고, 한 상에서 밥 먹고 잠자리를

---

래 가질 수 없는 것은 어버이를 모실 수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효자는 어버이를 봉양할 수 있는 동안 하루하루를 아낀다.[不可得而久者事親之謂也 孝子愛日]”라고 하였다.

577 봄날의 햇빛 : 원문의 ‘春暉’는 어머니의 은혜를 비유하는 말이다. 맹교(孟郊)의 <유자음(遊子吟)>에 “한 치 되는 풀의 마음 가지고서, 삼춘의 햇볕 같은 어머니 은혜 보답키 어려워라.[難將寸草心 報得三春暉]”라고 하였다.

578 풍수(風樹)의 아픔 : 풍수지탄(風樹之歎)과 같은 말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다시는 봉양할 수 없는 자식의 슬픔을 말한다.

579 세…급제하였으나 : 조찬한의 형제 가운데 조계한만 생원시를 통과하는 데 그쳤고, 나머지 세 명은 모두 문과에 급제하였다.

580 장후(蔣詡)의 오솔길 : 한나라의 장후는 애제(哀帝) 때 연주 자사(兖

같이 하여 방에는 강굉(姜肱)의 이불<sup>581</sup>을 펼쳐 놓았네. 이에 마씨(馬氏) 가문에서 백미(白眉)가 가장 뛰어나다는 감탄이 일었고,<sup>582</sup> 강변의 부모들은 붉은 뺨이 형과 같다고 칭송하였네.<sup>583</sup> 아우가 술 권하거든 형이 다시 권하며 늙어가는 줄도 모르고, 형이 피리 불면 아우가 화답했거늘 어찌 도가 행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리. 하물며 밖으로부터 얻은 명성은 부화하여, 공중의 구름처럼 변화

---

州刺史)가 되었는데 청렴하고 강직하여 명성이 있었다. 왕망(王莽)이 집권하자 벼슬에서 물러나 향리인 두릉(杜陵)에 은거하였는데, 집의 대밭 아래에 세 개의 오솔길[三徑]을 내고 벗 구중(求仲)과 양중(羊仲) 두 사람하고만 교유하였다고 한다. 《蒙求 蔣詡三徑》

- 581 강굉(姜肱)의 이불 : 강굉은 후한 때 사람으로 자가 백회(伯淮)인데, 두 아우 중해(仲海)·계강(季江)과 우애가 지극하여 혼인한 뒤에도 넓은 이불을 만들어 늘 형제들과 함께 덮고 잤다고 한다. 《後漢書 卷53 姜肱列傳》
- 582 이에…일었고 : 삼국 시대 때 촉(蜀)나라의 마량(馬良) 형제가 다섯으로, 모두 재명(才名)이 있었는데, 그들의 자(字)에 모두 상(常) 자가 들어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 마량이 가장 뛰어났는데, 마량의 눈썹이 희었으므로, 사람들이 “마씨의 오상(五常) 가운데 백미(白眉)가 가장 뛰어나다.” 하였다. 《三國志 卷39 蜀書 馬良傳》 여기서는 형인 조위한이 형제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는 명성이 있었다는 뜻으로 쓰였다.
- 583 강변의…칭송하였네 : 조찬한의 용모가 형인 조위한과 닮았다는 칭송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 구절은 소식(蘇軾)의 시를 인용한 것이다. 소식이 1097년 담주(儋州)에 유배가게 되었을 때 아우인 소철(蘇轍)도 뇌주(雷州)에 유배가게 되었다. 소식이 오주(梧州)에 당도했을 때 소철이 아직 배소에 도착하지 않고 등주(藤州)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리하여 서둘러 달려가 등주에서 소철과 만나 동행하다가 다시 이별하게 된다. 그 당시 등주를 찾아갔을 때를 묘사한 시에 “강변의 노인들이 자네에 대해 잘 말해 주었는데, ‘흰 수염에 뺨은 혈색이 좋고 키가 당신만하였지요.’라더군. [江邊父老能說子 白鬚紅頰如君長]”라고 하였다. 《東坡詩集注 卷1 吾謫海南子由雷州被命即行了不相知至梧乃聞其尚在藤也旦夕當追及作此詩示之》

가 몹시 심함이라. 저 남쪽 고을에 수령이 되어 갔을 때도 오히려 걱정을 했는데, 더구나 명을 받아 중국으로 가시니 일찍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네. 마침내 두 사신<sup>584</sup>의 부관(副官)에 충원되어 세자의 책봉에 사은하게 되었네.

만리장성 끝에 요동에는 학이 남긴 천년의 화표(華表) 있고,<sup>585</sup> 천상에 접한 황하에서 사람은 팔월의 배를 탄다네.<sup>586</sup> 압록강에서 배 돌릴 때는 언저러나, 연경에서 돌아오는 길은 만리라네. 더구나 지금은 가을 바람이 더위를 걷어내고 옥빛 이슬은 차갑게 반짝이는 때임이라. 낙엽 지고 가지는 차가운데 까마귀 울며 피를 토하고, 바다는 넓고 하늘은 텅 비었는데 외로운 기러기 비껴 날며 슬피 울리라. 앞산에도 뒷산에도 십리 길에 석양은 저물어가는데, 오늘 밤은 어떤 밤인가, 일년 중 명월은 유독 밝다네. 남포(南浦)의 노래 더욱 슬프고, 서루(西樓)의 한은 끝이 없구나.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흐르는데 손 붙잡고 무슨 말을 하리.

아, 굴대에 기름을 치고 길 재촉하니 바야흐로 얼음을 마시고<sup>587</sup>

584 두 사신 : 사은 정사 이시언(李時彦)과 부사 한덕원(韓德遠)을 가리킨다.

585 만리장성…있고 : 한(漢)나라 때 요동(遼東)의 정령위(丁令威)가 일찍이 영허산(靈虛山)에 들어가 선술(仙術)을 배우고 뒤에 학(鶴)으로 변하여 고향의 성문(城門) 화표주(華表柱)에 날아와 앉았다. 이때 한 소년이 활로 그를 쏘려고 하자, 학이 날아올라 공중에서 배회하며 “새여 새여 정령위라, 집 떠난 지 천 년 만에 이제야 돌아왔네.[有鳥有鳥 丁令威 去家千年今始歸]”라고 했다는 고사가 있다. 《搜神後記 卷1》

586 천상에…탄다네 : 장건(張騫)이 한 무제(漢武帝)의 명을 받고 황하의 근원지를 밝히려고 뗏목을 타고 가다가 하늘 궁전에 이르러 견우(牽牛)와 직녀(織女)를 만나고 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天中記 卷2》

587 얼음을 마시고 : 사신(使臣)의 명을 받고서 두렵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외국으로 가는 것을 이른다. 《장자(莊子)》 〈간간세(人間世)〉의 “내가 아침에 사신의 명을 받고서 저녁에 얼음물을 마셨으니, 내 속

명을 받들리라. 기성(箕城)<sup>588</sup> 누대의 풍악은 비록 망향의 근심 위로한다지만, 통군정(統軍亭)<sup>589</sup>의 풍운에 고국 떠나는 생각 견디기 어려우리라. 요동의 강 건너가다 얼음 깨지고 계주(薊州) 들판 지나다보면 눈발로 앞길 어두우리라. 백이(伯夷)의 사당<sup>590</sup> 지날 때면 만고의 고결한 인품에 읊하고, 망저(望諸)의 능을 바라볼 때면 육국(六國)의 유사(遊士)들 조문하네.<sup>591</sup> 짙은 구름이 산해관에 뻗쳐 있어 높은 산등성 오르기 어렵고, 밤비는 옥하관(玉河館)에 처량하게 내려 부질없이 춘초(春草)의 꿈 꾸리라. 그러나 남아는 본래 먼 길을 가나니, 장부가 어찌 규방의 일 걱정하랴. 자장(子長)은 천하를 유람한 뒤 문장이 기이해졌고,<sup>592</sup> 계절(季札)은 노나

이 벌써 뜨거워진 것 같다.[今吾朝受命而夕飲氷 我其內熱與]라는 말에서 연유한 것이다.

588 기성(箕城) : 평양(平壤)을 가리킨다.

589 통군정(統軍亭) : 의주(義州) 압록강 가 고대(高臺)에 있는 정자 이름으로, 관서 팔경(關西八景)의 하나이다.

590 백이(伯夷)의 사당 :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를 모신 사당이 사신들이 지나가는 요동의 난하(灤河)에 있다. 이제묘(夷齊廟) 또는 청절사(淸節祠)라고도 불리었다.

591 망저(望諸)의…조문하네 : 망저는 전국시대 악의(樂毅)의 봉호(封號)이다. 육국은 전국시대 한(韓)·위(魏)·조(趙)·제(齊)·초(楚)·연(燕)을 가리킨다. 연나라가 제나라에 격파된 뒤에 연나라 소왕(昭王)이 자신을 낮추고 후한 폐백을 갖추어서 어진 자를 초빙해 원수를 갚으려고 하자, 곽외(郭隗)가 부족한 자신부터 잘 대우하면 어진 자들이 올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소왕이 곽외를 잘 대접하자, 악의가 위나라에서 오고, 추연(鄒衍)이 제나라에서 오고, 극신(劇辛)이 조나라에서 오는 등 선비들이 다투어서 연나라로 달려왔다. 《戰國策 燕策1》《史記 卷34 燕召公世家》 조선 시대 사신들의 견문록에 의하면 순천부(順天府) 소속 양향현(良鄉縣) 남쪽 3리에 있다고 한다. 《懶齋集 卷3 朝天時間見事件啓》

592 자장(子長)은…기이해졌고 : 자장은 한나라 사마천(司馬遷)으로, 유람하기를 좋아하여 일찍이 남으로는 강희(江淮)에 노닐고 북으로는

라에서 예악을 듣고 학문이 더 넓어졌도다.<sup>593</sup> 양마(良馬)가 속박을 벗어났으니 바야흐로 천리를 발로 내달리고, 봉새가 물결을 박찼으니 의당 구만리에 날개를 펴리라. 그런 다음 칙명을 받들고 본국으로 돌아와, 봄 기운을 따라 고향 동산에 찾아오리라. 진천(秦川)을 돌아보며 효산(嶠山)과 함곡관(函谷關) 부질 없이 먼 것에 옷을 테고,<sup>594</sup> 한강 굽이에서 잔을 들며 친척의 환영에 기뻐 하리라. 고향 집에는 사람들 이마에 손을 얹고 우러르는 일이 끊겼었는데,<sup>595</sup> 이제 우리 형제를 감히 똑바로 보지 못하며 공경하리라. 진실로 이별이 없다면 어찌 만남이 있으리오, 바라건대 슬픔을 거두고 기쁘게 생각하시기를. 멀리 전송하는 회포 견딜 수 없어 마침내 갈림길에서 주는 것이니, 감회를 기록했을 뿐 어찌 서문이라 할 수 있으리오.

---

문사(汶泗)를 건너 산천을 유람하면서 호한(浩瀚)한 기운을 얻어 이를 문장으로 발휘하여 《사기(史記)》를 지었다 한다.

593 계찰(季札)은…넓어졌도다 : 춘추 시대 오(吳)나라 공자(公子) 계찰(季札)이 노(魯)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옛 주나라 음악을 듣고 열국(列國)의 치란흥쇠(治亂興衰)를 알았다는 고사가 전한다. 《春秋左氏傳襄公29年》

594 진천(秦川)을…테고 : 진천은 위수(渭水)가 흐르는 장안(長安) 일대의 강으로, 진(秦)나라 때의 관중(關中)을 가리킨다. 효산(嶠山)과 함곡관(函谷關)과 역시 진나라 때 험준한 군사적 요지를 가리킨다. 여기서의 사신으로 갔던 중국을 뜻한다.

595 고향…끊겼었는데 : 원문의 ‘加額之望’은 백성들이 이마에 손을 얹고 멀리서 공경히 바라보는 것이다. 송(宋)나라 사마광(司馬光)이 낙양(洛陽)에 사는 15년 동안 예궐(詣闕)할 때마다 위사(衛士)들이 모두 손을 이마에 얹고 공경스럽게 바라보면서 “이분이 사마 상공(司馬相公)이시다.” 하였다 한다. 《宋史 卷336 司馬光列傳》

## 고급사 홍낙부에게 주는 서<sup>596</sup> 이름은 명원이다.

贈告急使洪樂夫序 命元

얼음은 북륙(北陸)에 뻗어 있어<sup>597</sup> 차가운 기운은 새해 들어도 여전하고, 별은 서원(西垣)<sup>598</sup>에 떠 있어 나그네는 아버지와 작별하는 한을 일으킨다. 진정(秦庭)에 통곡하던 일과는 다르지만,<sup>599</sup> 형세는 노(魯)나라 국경이 위험했던 것처럼 급박하다.<sup>600</sup> 대저 교

596 고급사(告急使)…서 : 홍낙부는 홍명원(洪命元, 1573~1623)을 가리킨다.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낙부(樂夫), 호는 해봉(海峯)이다. 중국 조정에서 광해군이 후금(後金)과 수호를 맺었다고 의심하자, 1619년(광해군11) 12월 광해군이 홍명원을 고급사(告急使)로 파견하였다. 홍명원은, 요동의 군병을 의주에 주둔하고 행인(行人) 유시준(劉時俊)을 보내 조선을 정탐하려던 명나라의 계획을 중지시키는 데 성공하고 칙서를 받아서 돌아왔다. 《宋子大全 卷176 京畿監司贈左贊成洪公墓碣銘》

597 얼음은…있어 : 북륙(北陸)은 이십팔수(二十八宿)의 하나인 허수(虛宿)의 별칭이다. 12월에 태양이 북방 칠수(七宿) 가운데 허수에 위치하므로, 북륙은 추운 한겨울을 뜻한다. 《춘추좌씨전》 소공(昭公) 4년에 “옛날에 해가 북륙에 있으면 얼음을 저장한다.[古者日在北陸而藏冰]” 하였다.

598 서원(西垣) : 옛날 중국 천문학에서 하늘을 3원(垣)과 28수(宿)로 나누었는데, 3원은 자미원(紫微垣)·태미원(太微垣)·천시원(天市垣)이다. 각각의 3원 가운데 서쪽에 있는 것을 서원이라고 한다.

599 진정(秦庭)에…다르지만 : 춘추 시대 때 오(吳)나라가 초(楚)나라를 침공하자 초나라 신하 신포서(申包胥)가 명을 받들고 진(秦)나라에 가서 구원병을 청했으나 진백(秦伯)이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포서는 진나라 조정 뜰에 서서 물도 마시지 않고 7일 동안 통곡하니 진나라에서 원군을 보내주었다. 《春秋左氏傳 定公4年》

600 형세는…급박하다 : 제 환공(齊桓公) 5년에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공하였는데, 노나라 장수 조말(曹沫)이 제나라 군대와 세 차례 접전하



만한 오랑캐들이 세력을 믿고 날뛰는 것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  
 으랴, 조정의 치욕이 이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 비록 장 중승(張  
 中丞)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것은 지성에서 나왔지만,<sup>601</sup> 이 소  
 경(李少卿)이 살아서 투항한 것은 나라를 팔아먹은 것으로 귀결  
 되었다.<sup>602</sup> 더구나 우리 부모의 원수거늘 차마 같은 하늘 밑에서  
 살 수 있겠는가, 우리 군신을 피어 감히 훗날의 계책을 도모하  
 려 하였다. 관전(寬奠)<sup>603</sup>에서 큰소리로 떠벌리며 드러내놓고 변  
 경의 의심을 부풀렸고, 창주(昌州)를 넘보면서 은밀히 성(城) 아  
 래에서 겁박하려고 꾀했다.<sup>604</sup> 오랑캐의 실정이 저와 같은데 누  
 가 황성(皇城)의 문에서 아뢰랴, 신하의 충절은 다른 것이 없으

였으나 모두 패배하자, 노 장공(魯莊公)이 수읍(遂邑)을 바치는 조건  
 으로 화해를 청하였다. 환공이 그 뜻을 받아들여 지금의 산둥(山東  
 ) 양곡(陽谷) 동쪽 지역인 가(架), 곧 규구(葵丘)에 모여 맹약을 막 체  
 결하려 할 때, 조말이 단상(壇上)에서 환공에게 비수를 들이대며 빼  
 앗아 간 노나라 땅을 돌려 달라고 협박하여 도로 찾았다. 《史記 卷32  
 齊太公世家, 卷86 刺客列傳 曹沫》

601 비록…나왔지만 : 장 중승은 당나라 때 어사 중승(御史中丞)을 지낸  
 장순(張巡)을 가리킨다. 안녹산(安祿山)의 난리 때 수양 태수(睢陽太  
 守) 허원(許遠)과 수양성(睢陽城)을 지키면서 적과 싸우다가 중과부  
 적으로 성이 함락되자 장렬하게 절사(節死)하였다. 《舊唐書 卷187  
 張巡列傳》

602 이…귀결되었다 : 이 소경은 한나라 무제(武帝) 때 장군 이릉(李陵)을  
 가리킨다. 무제의 명을 받고 흉노(匈奴)를 토벌하러 갔다가 도리어  
 흉노에 항복하고 우대를 받았는데, 이에 한실(漢室)에서는 그의 처자  
 를 모두 죽였고 그의 문하에 있었던 농서의 사대부들은 모두 그 사  
 실을 부끄러워했다고 한다. 《史記 卷109 李將軍列傳》

603 관전(寬奠) : 요동에 있는 관전보(寬奠堡)를 가리킨다.

604 성(城)…꾀했다 : 성 아래까지 쳐들어 와서 항복시키고 맹약을 체결  
 한다는 뜻이다. 초(楚)나라가 교(絞)를 정벌할 때 술책을 써서 대패  
 시킨 다음 교의 성 아래에서 항복의 맹약을 맺은 데서 나온 말이다.  
 《春秋左氏傳 桓公12年》

니 그대는 저 천로(天路)에 올라야 마땅하리라. 오직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직함과 성실함이기애 천자의 성심(聖心)만 겸허하게 기다릴 뿐이다. 이에 용도(龍韜)가 묵묵히 부합하면 밤에 제(齊)나라 소뿔을 수고롭게 두드리지 않아도 되고,<sup>605</sup> 부석(鳧鳥)이 날아오르면 곧 초(楚)나라 까마귀가 아침에 날아가는 것을 보리라.<sup>606</sup> 그리하여 갈석(碣石)과 항사(恒沙)의 온 하늘에 연월(煙月)이 놀라는 일 없을 게고, 용만(龍灣)과 학야(鶴野)<sup>607</sup>에는

605 이에…되고 : 지략이 통하면 명나라 조정에 가서 수고롭게 간청하지 않아도 조선의 사정을 알아 줄 것이라는 뜻이다. 용도(龍韜)는 육도삼략(六韜三略)의 하나로 병법(兵法)을 가리킨다. 춘추 시대 위(衛)나라 영척(甯戚)이 제나라에 가서 빈궁하게 지내며 소에게 풀을 먹이다가 제 환공(齊桓公)을 만나 쇠뿔을 치며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에 환공이 그를 비범하게 여겨 수레에 태우고 와서 객경(客卿)에 임명한 고사가 있다. 영척이 불렀다는 노래가 <반우가(飯牛歌)>인데 그 노래 가사에 “남산은 빛나고, 백석은 깨끗하다. 태어나서 선양하던 요순의 시대를 못 만나고, 짧은 베 홑옷으로 겨우 정강이만 가릴 뿐이네. 이른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소를 먹이지니, 긴 밤이 지루해라 언제나 아침이 올리고.[南山矸 白石爛 生不逢堯與舜禪 短布單衣裁至飢 從昏飯牛薄夜半 長夜漫漫何時旦]”라고 하였다. 《三齊記》

606 부석(鳧鳥)이…보리라 : 홍명원이 고급사(告急使)로 명에 가던 후금의 군대가 물러날 것이라는 뜻이다. 부석(鳧鳥)은 동한(東漢) 때 왕교(王喬)가 섭현(葉縣)의 수령을 지낼 때 조정에 올라올 때마다 오리를 신발로 변하게 하여 타고 온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명나라 조정으로 가는 것을 뜻한다. 《後漢書 卷82 方術列傳上 王喬》 춘추 시대 초(楚)나라 영윤자원(令尹子元)이 정(鄭)나라 정벌에 나섰다가 방비가 차분한 모습을 보고 다시 퇴각하였다. 정나라 군대도 동구(桐丘)로 달아나려 하였다가, 적정을 살피던 첩자가 “초나라 진영은 조용하고 까마귀만 머물고 있습니다.[楚幕有鳥]”라고 보고하였으므로 초군의 퇴각을 알고 중지하였다. 《春秋左氏傳 莊公 28年》

607 용만(龍灣)과 학야(鶴野) : 용만은 의주(義州)를 말하고, 학야는 광녕(廣寧) 동쪽 해주위(海州衛) 서쪽 요동(遼東) 북쪽에 위치한 큰 들판인

만 리 춘풍이 찾아올 것이네.

---

데 요동 사람 정령위(丁令威)가 학(鶴)으로 변해 고향 땅을 찾아왔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연경으로 떠나는 오숙우에게 주는 서<sup>608</sup> 이름은 숙이다.

오숙은 나의 문인이다.

贈吳肅羽赴京序 翻. 吳是門人也

온후한 윤음을 널리 선포하여 동쪽 우리나라에 보전(寶典)<sup>609</sup>이 광채를 발했으니, 문채 있는 수레를 멀리 달려 북극(北極)으로 자미성(紫微星)에 조회하게 했네. 바야흐로 아침에 수레에 기름을 칠하고 이내 저녁에 얼음을 마시네.<sup>610</sup> 이에 우리 성조(聖朝)에는 천년 만에 황하(黃河)가 맑아지듯 큰 성인이 이미 일어나고, 모든 정사가 바르게 행해져 소중화(小中華)라 칭함이 합당했네. 우(禹) 임금이 아니었다면 벌써 물고기 신세가 되었을 것이니<sup>611</sup> 물에 빠

608 연경으로…서 : 1624년(인조2)에 인조반정 후 조선에서는 진주사(陳奏使) 이경전(李慶全)을 명나라에 보내 광해군을 폐하고 인조가 즉위한 상황을 진술하고 책봉(冊封)의 고명(誥命)을 청하였다. 그런데 진주사가 돌아오자 천자는 다만 책봉의 조칙만 내리고 고명과 면복(冕服)은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조정에서는 매우 근심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주청(奏請)하고 겸하여 칙명(勅命)을 내린 데 대해 사례하기 위해서 사신을 선발하였는데 오숙은 당시 부사(副使)로 가게 되었다. 당시에는 청나라가 요광(遼廣) 지역을 점거하고 있어 연로(燕路)가 막혔으므로, 사신 일행은 뱃길을 통해 북경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듬해 명에서 주청을 들어주어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된다. 《明谷集 卷22 天坡吳公神道碑銘》

609 보전(寶典) : 인조를 책봉하는 조칙을 가리킨다.

610 이내…마시네 : 사신(使臣)의 명을 받고서 두렵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외국으로 가는 것을 이른다. 《장자(莊子)》 〈인간세(人間世)〉의 “내가 아침에 사신의 명을 받고서 저녁에 얼음물을 마셨으니, 내 속이 벌써 뜨거워진 것 같다.[今吾朝受命而夕飲冰 我其內熱與]”라는 말에서 연유한 것이다.

611 우(禹)임금이…것이니 :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조선 출병을 가리킨다.

진 하토(下土)의 만민을 널리 구했고, 태양을 좇듯이 요(堯)임금을 따랐으니<sup>612</sup> 동쪽 하늘에 캄캄한 밤을 열어 주었네.

대저 이번에 책봉 고명(誥命)을 속히 반포하였으니, 실로 황상(皇上)의 예단(睿斷)에 힘입은 것이다. 이에 널리 백관 중에서 선발하여 즉시 사신을 재촉하여 보내게 된 것이다. 비록 사은(謝恩)을 위해 가게 되었지만, 또한 변무(辨誣)할 일이 있다네.<sup>613</sup> 생각 건대 주선하고 응대할 책임을 사람들이 어찌 모두 감당하리오, 그래서 문사에 능한 명성 있는 인재를 선발하였으니 일을 곧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상공(上公)이 추천하였으니 백관의 기대가 모인 바이고, 부사(副使)의 일은 더 어렵기에 세 번 천거한 뒤 비로소 얻을 수 있었다네. 일개 신하만으로 다른 재주가 없으나,<sup>614</sup>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1년에 “아름답도다, 우 임금의 공이여. 원대하도다, 우 임금의 밝은 덕이여. 우 임금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물고기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微禹吾其魚乎]”라는 말이 있다.

- 612 태양을…따랐으니 : 《사기(史記)》 권1 <오제본기(五帝本紀)>에 “요임금은 방훈이다. 하늘처럼 어질고 신처럼 지혜로워 사람들이 태양을 좇듯이 따르고 구름을 바라보듯이 우러렀다.[帝堯者 放勳 其仁如天 其知如神 就之如日 望之如雲]”라는 구절이다.
- 613 또한…있다네 : 인조에 대해 책봉의 조칙만 내리고, 고명(誥命)과 면복(冕服)은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다시 주청하는 일을 말한다.
- 614 일개…없으나 : 단단일개신(斷斷一介臣)의 준말로, 한결같이 성심(誠心)으로 대하면서 남을 포용하는 아름다운 덕의 소유자를 가리킨다. 《서경》 <진서(秦誓)>에 “만일 한 신하가 정성스럽고 다른 재능은 없으나, 그 마음이 착하여 포용함이 있는 듯하여, 남이 지닌 재능을 마치 자기가 지닌 것처럼 여기고, 남의 성스러움을 마음속으로 좋아하기를 마치 자기 입에서 나온 것처럼 여길 뿐만이 아니라면 그는 진실로 남을 능히 포용하는 것이어서 우리 자손과 백성을 보전할 수 있으리니, 오히려 또한 유리할 것이다.[若有一个臣 斷斷兮無他技 其

세 사람이 길을 간다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네.<sup>615</sup> 극곡(却穀)처럼 시서(詩書)에 독실하였으니 거의 배움을 저버리지 않으리라,<sup>616</sup> 계찰(季札)처럼 예악(禮樂)을 익혔으니 풍속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sup>617</sup> 무더운 장마와 찌는 듯한 구름도 복파(伏波)의 부절을 가리기 어려울 것이고,<sup>618</sup> 불덩이 산과 끓는 바다

---

心休休焉 其如有容焉 人之有技 若己有之 人之彥聖 其心好之 不啻若自其口出 寔能容之 以能保我子孫黎民 尙亦有利哉!”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여기서는 한 사람만의 사신으로는 임무를 충분히 완수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쓰였다.

- 615 세…있다네 : 세 사신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임무를 충분히 완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자가 이르기를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갈 경우,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니, 그중에 선한 것을 가려서 따르고, 불선한 것을 가려서 자신의 잘못을 고쳐야 한다.[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論語 述而》
- 616 극곡(却穀)처럼…않으리라 : 춘추 시대 진(晉)나라 사람으로, 중군(中軍)을 거느린 장수인데, 그는 무예에만 능한 것이 아니라 시서(詩書)와 예악(禮樂)에도 밝아 문무를 겸비했다 한다. 진 문공(晉文公)이 삼군(三軍)을 편성한 다음 원수(元帥)로 삼을 인물을 찾을 때 조취(趙衰)가 극곡을 추천하며 말하기를 “극곡이 예악(禮樂)을 좋아하고 시서(詩書)를 많이 아니, 틀림없이 군대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春秋左氏傳 僖公27年》
- 617 계찰(季札)처럼…것이다 : 춘추 시대 오(吳)나라의 계찰(季札)이 노(魯)나라에 가서 각국의 풍요(風謠)를 들었는데, 각국의 음악을 비평하다가 회풍(鄆風)에 이르러서는 비평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한다. 《春秋左氏傳 襄公29年》
- 618 무더운…것이고 : 무더위도 사신의 행차를 방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복파는 후한(後漢)의 명장 마원(馬援)을 가리킨다. 마원이 교지국(交趾國)을 원정(遠征)한 뒤, 두 개의 구리 기둥(銅柱)을 세워 한나라와 남방 외국의 경계선을 표시한 고사가 있다. 《後漢書 卷24 馬援列傳》

라도 감히 장순(張淳)의 행차를 늦추라.<sup>619</sup>

대저 생각건대 진(晉)나라 해가 밤에도 날자 용마가 교외를 짓밟는데도 막지 못했고,<sup>620</sup> 영씨(嬴氏) 시절 천제가 낫술에 취해 진(秦)에 순수(鶉首)를 떼주면서도 절제하지 못했네.<sup>621</sup> 백랑(白狼)의 수자리에 봉화 밝혀져 관성(關城)으로 통하는 길 벌써 막혔고,<sup>622</sup> 어문(魚門)의 전투에서 투구가 떨어졌으니 천로(天路)를 오

619 불덩이…늦추라 : 장순(張淳)은 전량(前涼) 장준(張駿)의 치중종사(治中從事)로 기개가 있는 인물이다. 333년 전량의 장준이 성한(成漢)의 길을 통과하여 건강(建康)에 표문을 올리려고 장순을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그런데 성한의 군주 이웅(李雄)은 장순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자신의 수하에 머물게 하고자 하였다. 이에 성한의 사료교위(司隸校尉) 경건(景鸞)이 장순에게 말하기를, “경의 몸은 장대하고 날씨는 무더우니, 잠시 하급 관리를 파견하고, 조금 머물러 계시면서 서늘할 때까지 기다리지지요.”라고 하였다. 그러자 장순이 말하기를 “만약 하급 관리를 시켜도 될 일이라면, 저 장순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화산이나 끓는 바다라고 하여도 오히려 가야 할 것인데, 어찌 춥거나 더운 것을 꺼리겠습니까.[雖火山湯海 猶將赴之 豈寒暑之足憚哉]”라고 하였다. 《資治通鑑 卷75 晉紀》

620 용마가…못했고 : 후금의 침입을 막지 못했다는 뜻이다. 《도덕경(道德經)》 46장의 “천하에 도가 없으면 용마가 교외 들판에서 새끼를 친다.[天下無道 戎馬生於郊]”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621 영씨(嬴氏)…못했네 : 천제(天帝)가 술에 취하여 진(秦)나라에 영토를 하사한 것을 가지고 오랑캐인 후금이 영토를 확장한 것에 비유한 것이다. 영씨(嬴氏)는 진나라 왕조의 성(姓)으로 진나라를 가리킨다. 순수는 12성차(星次) 가운데 하나로 진나라의 분야(分野)인데, 천제가 술에 취해 진나라 목공(繆公)에게 이 지역을 떼어 주었다는 고사가 있다. 장형(張衡)의 <서경부(西京賦)>에 “옛날 천제가 진의 목공을 좋아하여 그를 회견하고서 천상의 음악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천제가 취하자 이에 황금 책문(策文)을 만들어 순수(秦)의 분야에 해당하는 하계의 토지를 목공에게 하사하였다.[昔者大帝說秦繆公而觀之 饗以鈞天廣樂 帝有醉焉 乃爲金策 錫用此土而翦諸鶉首]”라고 하였다.

622 백랑(白狼)의…막혔고 : 백랑은 백랑성(白狼城)으로, 지금의 요령성(

르기 어려워라.<sup>623</sup> 이제 말을 버리고 뱃길을 택한 것은 이치상 당연한 일이나, 오직 평지를 피해 험한 곳을 건너기에 사람들은 혹 위태롭게 여긴다. 그럼에도 일을 맡음에 어려움을 사양하지 않고, 천명인 듯이 편안하게 여기는구나. 정신은 팔극(八極)에서 노닐어 창해를 한 잔 술로 여기고, 정성은 높은 하늘에 닿아 천문(天門)을 지척처럼 보리라. 길을 매워 전송하는 동료들과는 말고삐 높이 들고 나란히 달릴 수 없고, 당에 계신 사친(四親)<sup>624</sup>께는 얼굴을 뵈고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음을 생각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서원직(徐元直)의 마음이 산란하지 않았다면 비정한 것이요,<sup>625</sup> 신발소(申勃蘇)가 발꿈치 뼈가 닳도록 간청한 것은 지성에서 나온 것이라.<sup>626</sup> 어찌 몸을 나라에 바쳐 의를 위해 죽고, 국가를 먼

---

遼寧省) 부근에 있다. 관성(關城)은 산해관(山海關)을 가리킨다.

623 어문(魚門)의...어려워라 : 후금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명으로 사행을 가기 어렵다는 뜻이다. 어문(魚門)은 춘추 시대 주(鄭)나라의 성문 이름이다. 《춘추좌씨전》 희공(僖公) 23년 조에 “공이 주나라 군대와 승경(升陘)에서 싸워 패배하니, 주나라 사람이 공의 투구를 붙잡아 어문에다 매달아 놓았다.”라고 하였다. 이 전고를 사용한 유신(庾信)의 〈애강남부(哀江南賦)〉에서는 “투구가 어문에서 떨어지고, 병기가 말의 물 구덩을 메웠네.[胄落魚門 兵填馬窟]”라고 하였다.

624 사친(四親) : 부모와 조부모를 가리킨다.

625 서원직(徐元直)의...것이요 : 사신이 되어 부모결을 떠나면서 마음이 산란하지 않는다면 비정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서원직(徐元直)은 삼국 시대 서서(徐庶)를 가리킨다. 서서가 제갈량(諸葛亮)과 함께 유비(劉備)를 도와 대업을 이루려 하였는데, 조조(曹操)가 서서의 모친을 억류하여 인질로 삼고는 서서를 부르자, 서서가 “지금 이미 노모를 잃은 상태라서 마음이 산란하기만 하여 어떤 일에도 보탬이 되지 못할 것이니 이제 작별할까 한다.[今已失老母 方寸亂矣 無益於事 請從此別]”라고 하고는 마침내 유비를 떠나 조조에게 갔다. 《三國志 卷35 蜀書 諸葛亮傳》

626 신발소(申勃蘇)가...것이라 : 신발소는 춘추 시대 초(楚) 나라의 대부



저 하고 집안을 뒤로 하지 않겠는가. 하늘을 저버리지 않으면 천  
 동도 두렵지 않고, 곧은 마음으로 남을 대하면 수화(水火)에도 흔  
 들리지 않으리라. 자줏빛 상서로운 기운 관중(關中)에 머물렀건  
 만 천문(天文)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sup>627</sup> 황하는 천상에 접했으니  
 외로운 돛대 먼저 매달았네.<sup>628</sup> 높이 나는 봉황은 구름 속에서 올  
 며 천 길을 날아 곧장 내려오고,<sup>629</sup> 신묘한 봉새는 물을 박차고 올

(大夫) 신포서(申包胥)를 이른다. 멸망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대국(大國)에 사신으로 가서 피눈물로 간절히 호소하며 구원  
 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 시대에 오(吳)나라 군사가 초  
 나라의 수도인 영(郢)을 함락시키자, 발소(勃蘇)가 “내가 무장을 하  
 고 강한 적진 속에 뛰어들어 죽는다면 하나의 줄개에 지나지 않  
 을 따름이다.” 하고는, 진(秦)나라에 급히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 산  
 을 넘고 물을 건너는 동안, 신발이 다 닳아 떨어지고 바지의 무릎 부  
 위가 너털너털해진(蹠穿膝褻) 고사가 있다. 그리하여 진나라에 도착  
 해서는 7일 밤낮을 피눈물로 호소한 결과, 마침내 진왕(秦王)이 몸소  
 1만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여 오나라를 탁수(濁水)에서 크게 격파하  
 게 하였다. 《戰國策 楚策》

- 627 자줏빛…않고 : 명나라에 상서로운 복이 아직 나타나지 않음을 말한  
 다. 원문의 ‘紫氣’는 자줏빛 운기(雲氣)로, 예전에는 훌륭한 군주나  
 성현이 나올 상서로운 징조라고 여겼다. 관중(關中)은 함곡관(函谷關)  
 을 가리킨다. 천문(天文)은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 혹은 영부  
 (靈符)를 뜻한다. 춘추 시대 진(秦)나라 함곡관 영(函谷關) 윤희(尹  
 喜)가 천문(天文)을 잘 보았다. 한번은 함곡관 위에 자기(紫氣)가 뻗  
 쳐 있는 것을 보고는 반드시 진인(真人)이 그곳을 지나갈 것을 예측  
 했다. 이윽고 청우(靑牛)를 탄 노자가 그곳을 지나가자 글을 지어달  
 라고 부탁하니, 노자는 그에게 《도덕경》 오천언(五千言)을 지어 주고  
 떠났다고 한다. 《列仙傳 上》《關令內傳》
- 628 황하는…달았네 : 오숙(吳翻)이 명나라로 배를 타고 떠남을 말한다.  
 장건(張騫)이 한 무제(漢武帝)의 명을 받고 황하의 근원지를 밝히려  
 고 뗏목을 타고 가다가 하늘 궁전에 이르러 견우(牽牛)와 직녀(織女)  
 를 만나고 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天中記 卷2》
- 629 높이…내려오고 : 봉황은 현인(賢人)을 비유하는데 여기서는 오숙을

라 여섯 달만에 쉬며 남쪽으로 날아가네.<sup>630</sup>

이제 제주(蘄州)의 바다를 달려 제나라와 노나라 횡단하면 갈석산(碣石山)<sup>631</sup>은 앞마당보다 가깝고, 풍포(澧浦)<sup>632</sup>에서 편안히 노래 부르고 강가 언덕에서 수레 잠깐 멈추면 발해(渤海)는 평지보다 수월하리라. 요동(妖童)과 괴마(怪馬)는 미리 모습을 감추고, 해랑(駭浪)과 광룡(狂龍)도 풍문을 듣고 멀리 달아나리라. 천리를 한순간에 달려 직녀(織女)의 베틀을 찾고,<sup>633</sup> 외로운 객관에

---

가리킨다. 가의(賈誼)의 〈조굴원문(吊屈原文)〉에 “봉황은 천 길의 하늘 위를 날다가 현군(賢君)의 덕을 보면 내려오지만, 비열한 군주의 좋지 못한 조짐이 드러나면 아득히 높이 날개 짓 하며 떠나 버린다.[鳳凰翔於千仞兮 覽德輝而下之 見細德之險微兮 遙曾擊而去之]”라고 하였다.

630 신묘한…날아가네 : 오숙의 사행길을 봉새가 남명(南冥)으로 날아가는 모습에 비유한 것이다. 《장자(莊子)》〈소요유(逍遙遊)〉에 “봉새가 남쪽 바다로 옮겨 갈 때에는 물결을 치는 것이 3000리요, 회오리바람을 타고 9만 리를 올라가 여섯 달을 가셔야 쉰다.[鵬之徙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萬里 去以六月息者也]”라고 하였다.

631 갈석산(碣石山) : 옛날 황하가 발해로 들어가는 곳의 북쪽 어구에 있던 석산(石山)의 이름이다. 우리나라에서 연경에 갈 때 거치게 되는 산이다.

632 풍포(澧浦) : 본래 동정호(洞庭湖)로 들어가는 풍수(澧水)의 포구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지명과 상관 없이 유신(庾信)이 쓴 표현을 차용해서 여정 중간에 노래도 하고 휴식을 취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유신의 글 가운데 “마침내 풍포에서 편안히 노래 부르고, 잠양에서 수레를 멈춘다.[遂得安歌澧浦 弭節涇陽]”라는 표현이 있다. 《庾開府集箋注 卷10 周大將軍襄城公鄭偉墓志銘》

633 천리를…찾고 : 목적지인 연경에 도착했음을 뜻한다. 한 무제(漢武帝)가 장건(張騫)으로 하여금 대하(大夏)에 사신으로 가서 황하(黃河)의 근원을 찾게 하였는데, 장건이 뗏목을 타고 가 은하수에 도착하여 견우(牽牛)와 직녀(織女)를 만났다고 한다. 《荊楚歲時記》

서 삼경이면 파도 치던 양후(陽侯)<sup>634</sup>의 궁궐 떠오르리라. 행동이 고하에 맞으니 봉명 사신의 공경스러움이 더욱 빛나고, 옥백(玉帛)을 받들어 격식에 부합하니 예법을 따르는 정성을 더욱 다하도록 한다. 주청할 내용이 즉시 이루어져 변론하지 않아도 저절로 명백해질 것이다. 단심(丹心)은 태양에 맹세하여 사사로움이 없고, 황제의 은택은 창해와 더불어 어찌 끝이 있겠는가. 필시 원하는 바를 따라 줄 것이니 하늘이 높다 하지 않으랴, 금방 당도했다 곧바로 돌아오니 누가 하수(河水)가 넓다 말하는가. 떠나는 배는 드디어 멀어지니 봄빛은 금의환향하는 하늘에 일렁이고, 나비는 날아들고 꽃은 채무(彩舞)의 자리<sup>635</sup>에 들어오리라. 아, 장생(長生)은 이별의 장소에서 새로 지은 시를 던지자 소리가 났고, 환자(桓子)는 돌아올 때 현문(玄文)을 가지고 누구와 이야기하리. 끝내 전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무릉(茂陵)의 병<sup>636</sup>만 앞으면서, 홀로 사립문 닫고 있자니 송옥(宋玉)의 집<sup>637</sup>에서 쓸쓸하고 적막하구나.

634 양후(陽侯) : 풍파(風波)를 일으켜 배를 전복시킨다는 물귀신의 이름이다. 지나온 뱃길의 험난했던 일들이 떠오를 것이라는 뜻이다.

635 채무(彩舞)의 자리 : 부모를 다시 뵙고 위로한다는 뜻이다. 춘추 시대 초(楚)나라의 효자 노래자(老萊子)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해 나이 70에 색동옷을 입고 어린애 같은 장난을 했던 고사에서 온 말이다.

636 무릉(茂陵)의 병 : 한나라 때 문인 사마상여(司馬相如)는 평소 소갈증을 앓았는데, 병이 심해지자 벼슬을 그만두고 섬서성(陝西省) 무릉(茂陵)으로 돌아가 지내다가 그곳에서 운명하였다. 《史記 卷117 司馬相如列傳》

637 송옥(宋玉)의 집 : 두보(杜甫)가 초(楚)나라 시인 송옥(宋玉)의 유적지를 읊은 시에 “강산의 고택에 부질없이 문장만 남았는데 양대(陽臺)의 사랑이야 어찌 꿈속에 그렸으랴. [江山故宅空文藻 雲雨荒臺豈夢思]”라고 보인다. 《杜詩詳註 卷17 詠懷古跡》

연경으로 떠나는 진향사 홍경망에게 주는 서<sup>638</sup> 이름은 방이다.

送進香使洪景望赴京序 雱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졌으니 백운<sup>639</sup>을 바라보아도 좇을 수 없고, 물도 시름하고 산도 슬퍼하니 창오(蒼梧)<sup>640</sup>에서 부르짖는 소리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번국(藩國)에서 향화 올리는 예 갖추려 배신(陪臣)은 나라를 떠나는 배를 타도다. 대저 적담(籍談)은 사신이 되어 장례에 참석했을 때 응대에 실수가 없었고,<sup>641</sup>

638 연경으로…서 : 홍방(洪雱, 1573~1638)은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경망(景望), 호는 지계공(芝溪公)이다. 이 글은 명나라 희종(熹宗)이 붕어(崩御)한 데 대해 진향사(進香使)가 되어 연경으로 떠나는 홍방을 전송하며 지은 것이다. 명 희종은 1627년(인조5) 8월 23일 붕서하였고 새로 승정제 의종(毅宗)이 같은 달 24일에 등극하였다. 조선에는 이 소식이 같은 해 11월에 전해졌는데, 이듬해 2월에 진향사에 홍방, 등극사(登極使)에 권반(權盼), 서장관에 강선여(姜善餘)를 선발하여 사신 일행을 보냈다. 홍방은 1628년 9월에 조선으로 돌아왔다. 《承政院日記 仁祖 5年 11月 7日, 6年 2月 3日·9月 28日》

639 백운 : 백운은 신선이 사는 세상을 의미하는데, 또한 저 세상을 가리킨다. 《장자(莊子)》〈천지(天地)〉에 “저 흰 구름을 타고 제향에 이른다.[乘彼白雲 至於帝鄉]” 하였다.

640 창오(蒼梧) : 지금의 호남성(湖南省) 영원현(寧遠縣) 남쪽에 있는 구의산(九疑山)의 다른 이름이다. 《사기(史記)》〈오제본기(五帝本紀)〉에 “순 임금의 제위에 오른 지 39년 되던 해에 천하를 순수하다가 창오(蒼梧)의 들판에서 붕어하니, 강 남쪽의 구의산에 장례지냈다.[踐帝位三十九年 南巡狩 崩於蒼梧之野 葬於江南九疑]”라고 하였다.

641 대저…없었고 : 적담은 춘추 시대 진(晉)나라의 대부로,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소공(昭公) 15년〉에 따르면 당시 주(周)나라 목후(穆后)의 장례에 대부 순력(荀躒)의 부사(副使)가 되어 참석하였다. 장례

자산(子産)은 빙문(聘問)하여 해박한 지식으로 대답하였으니 달리 더 물을 것이 없었다.<sup>642</sup> 그래서 강신(江神)도 뜻을 밀어 주니 오(吳)나라 자서(子胥)의 파도는 노기를 풀고,<sup>643</sup> 해약(海若)도 노

를 마치고 주왕(周王)이 연회를 베풀 때, 진나라가 주 왕실에 공물을 바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적담은 진나라가 왕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주왕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적담의 후사가 끊길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진나라 숙향(叔向)이 이를 듣고, 주왕이 상중에 연회를 베풀 것은 예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그 끝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적담은 사신으로 가서 왕의 물음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찬한은 적담이 부사로 가서 순력을 대신해 왕의 질문에 대답한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642 자산(子産)은…없었다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소공(昭公) 7년〉에 정(鄭)나라 자산(子産)이 진(晉)나라에 빙문(聘問)했을 때, 진나라 평공(平公)이 마침 병이 나 있었으므로 한선자(韓宣子)가 손님을 맞아 사적으로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병이 나신 지 3개월이나 되었습시다. 그래서 국내의 모든 산천에 빌었으나 병만 더할 뿐 낫지를 앓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임금께서 누린 꿈이 침문(寢門)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으니, 이것은 무슨 귀신입니까?’라고 하였다. 자산은 대답하기를 ‘당신네 임금의 그 현명하심에다 당신이 또한 정권을 잡고 있는데, 무슨 귀신이 붙겠습니까? 옛날 요 임금이 곤(鯀)을 우산(羽山)에서 죽이니 그 혼이 변화해서 누린 꿈이 되어 우연(羽淵) 속으로 들어갔습시다. 그래서 하(夏)나라 때부터 교외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것을 삼대(三代)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진나라는 맹주가 되어 혹 제사 지내지 못했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래서 한선자가 하나라 때의 교제(郊祭)를 지내니 평공의 병이 좀 차도가 있었다.

643 그래서…풀고 : 강신(江神)은 전설상의 강의 신을 말한다. 춘추 시대 초(楚)나라 오자서(伍子胥)는 부형(父兄)이 초왕에게 살해되고 단신으로 오(吳)나라에 도망한 뒤 재상에 제수되었다. 오자서는 여러 차례 오왕 부차(夫差)에게 복수할 것을 간하였으나, 부차는 이를 따르지 않고 도리어 참언을 믿고 오자서에게 칼을 내려 자결을 명하였다. 부차는 오자서의 시신을 말가죽으로 만든 술 부대에 담아 강에 던지게 하였는데, 그 뒤로 오자서의 영혼이 전당강(錢塘江)의 물귀신

를 맞이하니 월상(越裳)의 파도는 출렁이지 않으리라.<sup>644</sup> 남명(南溟)은 아득한 세계에 접하여 구름은朱雀(朱雀)<sup>645</sup>의 그림자 가리고, 북극은 발해에 떠 있어 하늘은 백봉(白鵬)의 바람<sup>646</sup> 걷어낸다. 비스듬히 임조(臨洮)<sup>647</sup>를 가리키면 조룡(祖龍)<sup>648</sup>의 장성이 만리에 뻗었고, 멀리 요계(遼薊)가 또렷하니 정령위의 화표주(華表柱)는 천 년 세월에서 있네.<sup>649</sup> 거대한 바다로 멀리 나는 새를 타고 한 번 떠난 줄 알았는데,<sup>650</sup> 천상에 박망후(博望侯)가 다시 올

이 되어 더욱 거세계 파도를 일으키는가 하면, 가끔 소거(素車)와 백마(白馬)를 타고 물결 위에 나타나곤 하였다고 전한다. 《太平廣記 卷 29 伍子胥》

- 644 해약(海若)도…않으리라 : 해약은 전설상의 해신(海神)을 말한다. 월상(越裳)은 옛날 중국 남해(南海) 부근에 있던 나라 이름이다.
- 645朱雀(朱雀) : 남쪽 방위를 맡고 있다는 신령을 상징하는 새이다.
- 646 백봉(白鵬)의 바람 : 《장자(莊子)》〈소요유(逍遙遊)〉에 “봉새가 남쪽 바다로 옮겨 갈 때에는 물결을 치는 것이 3000리요, 회오리바람을 타고 9만 리를 올라가 여섯 달을 가서야 쉰다. [鵬之徙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萬里 去以六月息者也]”라고 하였다.
- 647 임조(臨洮) : 진(秦)나라 때 둔 현(縣)으로 감숙성 민현(岷縣)에 있었다. 진시황이 서쪽의 임조 땅에서 시작하여 동쪽의 갈석(碣石)까지 만리장성을 쌓았다.
- 648 조룡(祖龍) : 진시황을 가리킨다.
- 649 멀리…있네 : 요(遼)는 요서(遼西)와 요동(遼東) 지방을 가리키고, 계(薊)는 계주(薊州)로 지금의 허북성(河北省) 일대를 가리킨다. 한(漢)나라 때 요동의 정령위(丁令威)가 일찍이 영허산(靈虛山)에 들어가 선술(仙術)을 배우고 뒤에 학(鶴)으로 변하여 고향의 성문(城門) 화표주(華表柱)에 날아와 앉았다. 이때 한 소년이 활로 그를 쏘려고 하자, 학이 날아올라 공중에서 배회하며 “새여 새여 정령위라, 집 떠난 지 천 년 만에 이제야 돌아왔네. [有鳥有鳥丁令威 去家千年今始歸]”라고 했다는 고사가 있다. 《搜神後記 卷1》
- 650 거대한…알았는데 : 흥방은 이 글이 지어진 1628년(인조6) 진향사로 가기 전에도 1619년(광해군11) 동지사로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이 구절은 첫 번째 사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원문의 ‘莽

줄이라 누가 알았으랴.<sup>651</sup> 평지가 창해에 우뚝 솟았으니, 장안은 백일보다 가까우리라.<sup>652</sup>

아, 유궁(柳宮)에 용이 움직이니 우혈(禹穴)의 새벽 구름은 근심하고,<sup>653</sup> 초막(綃幕)의 난새도 놀라니 요계(堯階)의 밤비가 슬피 우네.<sup>654</sup> 지는 해는 절목(折木)에 잠겼으니 천년 세월 오호(烏號)

---

查鳥'는 《장자》〈응제왕(應帝王)〉에 나오는 새로, 천근(天根)과 무명인(無名人)의 대화에 나온다. 천근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을 묻자, 무명인이 대답하기를 “물러가라. 그대는 비루한 사람이다. 어찌 물음이 이다지도 불쾌한가. 나는 바야흐로 조물자와 함께 벗이 되었다가 싫증이 나면 또 아득히 멀리 나는 새[莽眇之鳥]를 타고 육극(六極)의 밖으로 나가서 무하유(無何有)의 고향에서 노닐어 끝없이 넓은 들판에 머물고자 하는데, 그대는 무엇 때문에 천하를 다스리는 일로 나의 마음을 흔들어대는가.”라고 하였다.

651 천상에…알았으랴 : 이 구절은 흥방이 두 번째로 중국에 사행을 가게 되었음을 뜻한다. 박망후는 한나라 때 장건(張騫)으로, 대하국(大夏國)에 사신으로 보냈는데 뗏목을 타고 은하수에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다. 《博物志 卷3》 장건이 은하수에 다녀온 것으로 연행 사신에 비유하였다.

652 평지가…가까우리라 : 배를 타고 가다 육지에 도착하면 연경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다. 동진(東晉)의 명제(明帝)가 어렸을 적에 부왕인 원제(元帝)로부터 장안(長安)과 해 중에 어느 것이 거리가 더 먼가 하는 물음을 받고, 장안에서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해에서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므로 장안이 가깝다고 했다가, 또 장안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해는 눈에 보이므로 해가 가깝다고 대답한 고사가 있다. 《世說新語 夙惠》 여기서는 첫 번째 대답을 가져다 연경이 가까워졌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653 아…근심하고 : 유궁(柳宮)은 유거(柳車)라고도 하는데, 재궁(粹宮)을 신는 수레를 가리킨다. ‘柳’는 ‘聚’와 같은 뜻으로 여러 장식품을 모은다는 뜻이라고도 하고, 일설에는 버드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거라 하였다 한다. 우혈(禹穴)은 우(禹)임금의 장지(葬地)를 가리키는데, 절강(浙江)의 회계산(會稽山)에 있다고 한다.

654 초막(綃幕)의…우네 : 초막은 본래 얇은 비단으로 만든 휘장인데, 여

보다 빠르고,<sup>655</sup> 새로운 해가 부상(扶桑)에 솟았으니 봉궐(鳳闕)에 오색 구름 다시 덮였어라.<sup>656</sup> 향을 올려 정성을 편 뒤 옥백(玉帛)을 받들어 애사(哀詞) 올리면, 북궐(北闕)에는 정의(情誼)가 어려 환장(籠章)이 빛날 뿐만 아니라, 서교(西郊)에서 먼 길 위로하니 높은 작질로 기림을 알겠네. 훗날 은택을 입어 금경(金莖)의 이슬 한 방울 하사 받겠지만, 봄날 소갈병 앞으며 한밤 중에 흰머리 돌

기서는 천자의 관을 덮는 장막을 가리킨다. 옛날에 제후의 관에는 삼베를 사용하고, 천자의 관에는 비단 장막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통전(通典)》 권85 <계빈조묘(啓賓朝廟)>에 따르면 천자의 관을 빈궁(殯宮)에 안치한 뒤 이금(夷衾 홀이불)과 초막(綃幕)으로 재궁(梓宮)을 덮는다고 하였다. 요계(堯階)는 요 임금의 뜰이라는 말로, 황궁 혹은 조정을 뜻한다. 《사기(史記)》 권130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 “요순(堯舜) 시대에는 궁궐의 높이가 세 자였고, 흙으로 세 계단의 섬들을 만들었으며, 지붕을 띠로 이고서 끝을 가지런히 자르지 않았다. [堂高三尺 土階三等 茅茨不翦]”라고 하였다.

655 지는…빠르고 : 천계 황제(天啓皇帝) 희종의 봉어를 뜻한다. 절목(折木)은 절약목(折若木)의 준말로 해가 지는 서쪽을 뜻한다. 초(楚)나라 굴원(屈原)의 <이소(離騷)>에 “약목의 가지를 꺾어 태양이 지지 못하게 후려쳐서, 잠시 동안 여기저기 한가하게 소요해 볼거나. [折若木以拂日兮 聊逍遙以相羊]”라는 말이 나오는데, 약목(若木)은 해가 지는 곳에서 자라는 푸른 잎사귀에 붉은 꽃이 피는 나무라고 한다. 오호(烏號)는 본래 황제(黃帝)가 만든 활의 이름이다. 황제가 일찍이 형산(荊山) 아래에서 솔을 주조한 뒤, 용(龍)을 타고 승천할 적에 함께 따라 올라간 군신(群臣)과 후궁(後宮)이 70여 명이었다. 여기에 함께 따라가지 못한 소신(小臣)들은 모두 용의 수염을 잡고 있다가 수염이 빠지는 바람에 모두 땅으로 떨어졌는데, 이때 황제의 활도 떨어졌다. 이에 백성들이 그 활을 안고 울부짖었다고 하여 그 활을 오호궁(烏號弓)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선왕(先王)을 몹시 사모하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656 새로운…덮였어라 : 승정 황제(崇禎皇帝) 의종의 즉위를 뜻한다. 부상(扶桑)은 해가 뜨는 동쪽 바다이고, 봉궐(鳳闕)은 궁궐 또는 조정을 비유한다.



---

657 훗날…바라보네 : 앞의 구절은 흥방이 훗날 임금에게 지우를 받으리라는 뜻이고, 뒤의 구절은 조찬한 자신이 병을 앓으며 침체된 처지를 가리킨다. 금경(金莖)은 한 무제가 세웠던 승로반(承露盤)의 동주(銅柱)이다. 무제가 일찍이 신선을 사모한 나머지, 건장궁(建章宮)에 동(銅)으로 선인장(仙人掌)을 만들어 세워서 승로반을 받쳐 들고 이슬을 받게 하여 그 이슬을 옥가루에 타서 마셨다는 고사가 전한다. 사마상여는 한나라 때의 저명한 문장가로, 한 무제(漢武帝) 밑에서 벼슬을 살았는데, 소갈증(消渴症)을 앓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이 구절은 당나라 때 시인 이상은(李商隱)의 〈한궁사(漢宮詞)〉에 “시종신 중에 사마상여의 소갈증이 가장 심하였거늘, 금경의 이슬 한 잔도 하사하지 아니했네.[侍臣最有相如渴, 不賜金莖露一杯.]”라고 한 표현과 같은 발상이다.

## 등극사 한중완을 보내는 서<sup>658</sup> 이름은 여직이다.

贈登極使韓仲浣序 汝澗

황하가 이미 맑아졌으니 성인이 천년 만에 한 번 태어나는 운을 받았고,<sup>659</sup> 백일도 빛을 더하니 비룡(飛龍)이 구오(九五)의 때를 만났네.<sup>660</sup> 모든 나라 달려와 손뼉 치며 하례(賀禮)의 정성 다하고, 천하의 모든 백성이 폐백 드리는 직분을 거행하누나. 이리므로 상사(上使)의 직임은 필히 황각(黃閣)<sup>661</sup>의 어진 이를 임용하고, 전대(專對)의 인제는 과연 흑두(黑頭)의 상공(相公)<sup>662</sup>을 얻었

658 등극사(登極使)…서 : 한여직(韓汝澗, 1575~1638)은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중안(仲安) 또는 중완(仲浣), 호는 십주(十洲)이다. 이 글은 1627년(인조5) 명나라 승정 황제(崇禎皇帝) 의종(毅宗)이 황위에 즉위한 데 대해, 이듬해 2월 등극사로 뽑혀 연경에 가는 한여직을 전송하며 지은 것이다. 《記言別集 卷18 禮曹判書韓公墓碣銘》

659 황하가…받았고 : 황하가 맑다는 것은 태평성대를 뜻한다. 삼국 시대 위(魏)나라 이강(李康)의 〈운명론(運命論)〉에 “황하가 맑아지면 성인이 출현한다.[夫黃河清而聖人生]”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주(註)에 “황하는 천 년에 한 번 맑아지는데, 맑아지면 성인이 이때에 나오고 세상에서 전한다.[黃河千年一清 清則聖人生於時也.]”라고 하였다. 《六臣註文選 卷53》 여기서의 승정제의 즉위를 의미한다.

660 비룡(飛龍)이…만났네 : 비룡은 제왕을 비유하는 말이다. 《주역》〈건괘(乾卦) 구오(九五)〉에 “용이 날아올라 하늘에 있다.[飛龍在天]”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구오(九五) 역시 이 효사가 나오는 위치이므로, 제위(帝位)를 뜻한다.

661 황각(黃閣) : 삼공(三公)의 정청(政廳)으로, 조선에서는 의정부(議政府)의 별칭으로 쓰였다.

662 흑두(黑頭)의 상공(相公) : 흑두는 검은 머리란 뜻으로 이는 곧 젊은 나이를 말하는데, 전하여 여기서의 젊은 나이에 재상이 된 것을 뜻한다. 진(晉)나라 때 왕순(王珣)이 일찍이 환온(桓溫)의 속관(屬官)으

다. 이러한 예를 넉넉히 차림으로써 사행의 임무를 중히 한 것이다. 그래서 풍백(風伯)과 우사(雨師)<sup>663</sup>도 분주히 명을 받들고, 강신(江神)과 해양(海若)<sup>664</sup>은 분발하여 배를 밀어 주니, 더없는 장관을 한데 모아 보며서 헤아릴 수 없는 먼 물길을 건너가리라. 금빛 날개로 바다를 꿰이니 거대한 까마귀는 다리가 세 개요,<sup>665</sup> 하얀 깃털로 하늘을 건너니 대붕의 등은 천 리라네.<sup>666</sup> 북명(北溟)의 허리와 발해의 다리가 질편하게 뒤섞여 태곳적 혼돈을 이루고, 대지의 축과 하늘의 바퀴<sup>667</sup>가 달걀과 같이 서로 표리가 되네. 대기(大氣)의 밖은 다시 무슨 모양인지 알 수 없지만, 중주(中州)<sup>668</sup>

로 있을 적에 환온이 그를 매우 공경하고 중히 여겨 말하기를 “왕순은 의당 흑두 상공(黑頭相公)이 될 터이니, 쉽게 얻을 수 있는 인재가 아니다.” 하였다. 《晉書 卷65 王珣列傳》

- 663 풍백(風伯)과 우사(雨師) : 풍백은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고, 우사는 비를 주관하는 신이다.
- 664 강신(江神)과 해양(海若) : 강신은 전설상 강의 신이고, 해양은 바다의 신이다.
- 665 금빛…개요 :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내리찍는 태양을 말한다. 삼족오(三足鳥)는 태양 속에 산다고 하는 발이 세 개가 달린 까마귀인데, 전하여 태양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논형(論衡)》〈설일(說日)〉에 이르기를 “태양 속에는 삼족오가 살고 달 속에는 토끼와 두꺼비가 산다.” 하였다.
- 666 하얀…리라네 : 여정에서 볼 수 있는 장대한 구름을 말한다. 《장자(莊子)》〈소요유(逍遙遊)〉에 “봉새의 등이 몇천 리나 되는지 알 수 없는데, 훌쩍 날아오르면 그 날개가 하늘을 드리운 구름과 같다. [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라는 말이 나온다.
- 667 대지의…바퀴 : 지축(地軸)은 대지의 회전을 떠받치는 축으로, 4개의 기둥이 있고 3600개의 축이 있다고 한다. 《博物志 1》 천륜(天輪)은 천지의 운행이 마치 수레의 바퀴와 같아서 끝과 시작이 계속 순환한다고 생각한 것을 말한다. 《呂氏春秋 仲夏紀 大樂》
- 668 중주(中州) : 중국(中國)과 같은 말이다. 여기서 중국 서쪽은 천축국(天竺國)을 뜻한다.

의 서쪽으로 어찌 극락세계가 없으랴. 흠비가 이미 개였으니 삼도(三島)<sup>669</sup>의 신선을 아득히 맞이하고, 바람과 파도가 일지 않으니 모든 물 속의 어룡(魚龍)도 적막할 것이다. 그리하여 바다를 평지와 같이 여겨 아침 나절도 안 되어 당도하리라.

갈석산(碣石山) 남쪽으로는 소무(蘇武)가 양을 치던 높이요,<sup>670</sup> 임치(臨淄) 서쪽으로 가면 선보(宣父)가 말을 변별하던 산이라네.<sup>671</sup> 뗏목은 별들 사이로 들어가고 사람은 해 아래로 돌아가는 구나.<sup>672</sup>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니 여러 나라에서 검은 비단과 누

669 삼도(三島) : 신선(神仙)이 산다는 봉래(蓬萊)·방장(方丈)·영주(瀛洲) 등 세 선산(仙山)이 있는 섬을 말한다.

670 갈석산(碣石山)…높이요 : 갈석산은 육로로 사행을 갈 때 산해관(山海關)을 지나면 나오는 산이다.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라고 전한다. 소무(蘇武)는 한 무제 때 흉노에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된 인물로,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북해(北海)에서 양을 치며 굴복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다고 한다. 이 구절은 소무가 북해에서 지냈다는 기록을 가져다 발해에 연접해 있는 갈석산과 연관시킨 것이다. 《漢書 卷54 蘇建傳 蘇武》

671 임치(臨淄)…산이라네 : 임치는 산둥(山東)에 있는 고을 이름이다. 선보(宣父)는 공자를 가리킨다. 공자가 말을 변별한 산이란 노(魯)나라의 태산(太山)을 말한다. 《논형(論衡)》〈서허(書虛)〉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안연(顏淵)이 공자와 함께 노나라 태산에 올랐을 때, 공자가 동남쪽으로 오(吳)나라 도성의 서쪽 문에 흰 말이 묶여져 있는 것을 보고는, 안연의 소매를 잡아당겨 묻기를 “너는 오나라 창문(昌門)이 보이느냐?”라고 하자, 안연은 “보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자가 다시 “문 밖에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자, “하얀 비단이 걸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함께 산을 내려왔는데, 그 뒤로 안연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세고 치아는 빠져서 병들어 죽었다고 한다.

672 뗏목은…돌아가는구나 : 한나라 장건(張騫)이 황하의 근원을 찾다가 은하수로 올라갔다는 전설을 가져다 연경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비유하였다. 또한 동진(東晉)의 명제(明帝)가 어렸을 적에 부왕인 원제(

런 비단을 광주리에 담았고, 배와 수레가 통하는 곳마다 만국에서 옥백(玉帛)을 받들고 오는 자들이라. 용퇴(龍堆)에 안개 개이니 산하는 한(漢)나라 서울보다 장대하고,<sup>673</sup> 봉전(鳳殿)에 구름 겹히니 일월은 진(秦)나라 수목에 드리웠네.<sup>674</sup> 많은 벼슬아치들 칼과 옥패 차고 흥려시(鴻臚寺)에서 엄숙히 의식을 행하고, 의관을 갖춘 천자가 상여(象輿)<sup>675</sup>를 타고 오르내림을 우러러 보도다. 머리 조아려 예를 표하니 맑은 새벽에 만세 소리 우레처럼 들리고, 엄한 용안을 가까이 대하니 반열에 있는 여러 신하들은 비같은 땀을 뿌리도다. 우러러 보면 구름이나 태양과 같고, 우뚝 솟아 용의 광채를 발하리라. 이에 바다를 구경하면 지혜가 더욱 넓어지고, 성인을 보면 도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황택(皇澤)이 바다처럼 퍼지니 소방(小邦)을 길러서 안정시키고, 임금의 은혜는 산처럼 높으니 좋은 벼슬에 두어 가상히 여기리라. 아, 글은 비록 더없이 볼품 없지만 채색 종이를 펴서 정회를

---

元帝)에게 장안과 태양 사이의 거리를 답변한 고사를 가져다 황제가 있는 곳으로 사행 가는 상황을 비유하였다.

- 673 용퇴(龍堆)에…장대하고 : 용퇴는 본래 옥문관(玉門關) 너머의 사막 지대를 가리키는 말로 한나라 때 흉노가 거주하던 곳을 말한다. 여기서는 후금을 비유하는 말로 쓰였다.
- 674 봉전(鳳殿)에…드리웠네 : 봉전은 황제의 궁전을 말한다. ‘일월’은 제업(帝業)을 비유하는 말이다. ‘진나라의 수목’은 전국 시대 진나라가 있었던 섬서(陝西) 부근의 수목을 말하는데 당나라 때는 장안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여기서는 북경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이 구절은 두보(杜甫)가 당나라 장수 가서한(哥舒翰)에게 보낸 시인 <투증가서개부한(投贈哥舒開府翰)>에 “일월은 진나라 수목에 드리웠고, 건곤은 한나라 궁전을 에워쌌다네.[日月低秦樹 乾坤繞漢宮]”라고 한 표현을 차용한 것이다.
- 675 상여(象輿) : 상거(象車)와 같은 말로 천자(天子)가 타는 수레를 가리킨다.

보이고, 병 때문에 갈림길에서 전송하지 못해 관하(關河)를 바라  
보며 눈물만 머금는다.

## 담양으로 가는 이동악을 보내는 서<sup>676</sup> 이름은 안눌이다.

送李東岳赴潭陽序 安訥

양관(陽關)<sup>677</sup>에 비 그치자 겨우 작별의 글을 짓고, 남포(南浦)<sup>678</sup>에 봄 깊어 다시 그대 보내며 눈물 뿌리네. 갈림길에서 각자 남북으로 향하니, 인생은 언제나 이별이 있다네. 오직 공은 옥을 품고 기이함을 토하는 재주로 약관에 청운의 길을 걸었다. 사마상여(司馬相如)의 부(賦)처럼 표표히 구름 위로 날아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백(李白)의 시처럼 구절마다 귀신을 울릴 정도였도다. 이성(二星)이 동쪽에 비추니 자기(紫氣)가 관문에 나타남에 놀라고,<sup>679</sup>

676 담양(潭陽)으로…서 :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이 1610년(광해군2) 2월에 담양 부사(潭陽府使)가 되어 임지로 갈 때 지어 준 글이다.

677 양관(陽關) : 중국의 서쪽 끝인 감숙성(甘肅省)에서 신강성으로 들어가는 곳에 있던 관문이다. 왕유(王維)가 지은 <송원이사안서(送元二使安西)>에 “위성의 아침 비는 가벼운 먼지를 적시고, 객사 앞은 청청한 버들 빛이 새로워라. 권하나니 다시 한 잔을 다 드시게, 서쪽으로 양관을 나서면 친구가 없으리니[渭城朝雨浥輕塵 客舍青青柳色新 勸君更盡一杯酒 西出陽關無故人]”라는 구절은 이별의 노래로 유명하다.

678 남포(南浦) : 남쪽의 포구라는 말로, 흔히 이별하는 장소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전국 시대 초(楚)나라 굴원(屈原)의 <구가(九歌) 동군(東君)>에 “그대와 손을 마주 잡음이며, 동쪽으로 가는도다. 아름다운 사람을 전송함이며, 남쪽의 물가에서 하는도다.[子交手兮東行 送美人兮南浦.]”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楚辭集註 卷2 九歌 東君》

679 이성(二星)이…놀라고 : 이성은 본래 사신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부사(府使)가 되어 부임하는 이안눌을 가리킨다. 자기(紫氣)도 상서로운 구름으로 제왕이나 현인을 상징하는데, 역시 이안눌의 행차를 비유한 것이다. 함곡관의 관령(關令) 윤희(尹禧)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 오는 자줏빛 기운[紫氣]을 보고 진인이 올 거라 했는데, 노

오마(五馬)가 북쪽으로 돌아올 때면 청운이 에워싸 낙수(洛水)에 그림자를 띄우리라.<sup>680</sup> 팔 척 신장은 옛적 장수의 풍채를 지니고 있고, 삼도몽(三刀夢)<sup>681</sup>을 깨고 나니 원님의 교화가 이에 있도다. 잠시 홍진(洪鎭)에서 날개를 펼치다가 마침내 자급이 올라 동래성(東萊城)에 부임하였네.<sup>682</sup> 단인(丹人)<sup>683</sup>들이 두려워하여 북중하니 위엄과 신망이 일본에 드러났고, 백성들이 부르며 사모하니 은혜와 교화가 운근(雲根)<sup>684</sup>에 남아 있구나. 관직을 버리고 《귀거

자(老子)가 푸른 소를 타고 왔다는 전설이 전한다. 《列仙傳 卷上 關令尹》

- 680 오마(五馬)가…띄우리라 : 이안눌이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올 때를 상상하며 표현한 구절이다. 오마는 한나라 때 태수(太守)가 타는 말이다. 청운은 상서로운 징조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관직이 높아질 것이라는 표현으로 쓰였다. 강엄(江淹)의 <예건평왕상서(詣建平王上書)>에 임금의 교화를 칭송하며 “청운이 낙수에 떠 있고, 상서로운 빛이 하수에 가득합니다.[靑雲浮洛 榮光塞河]라고 하였다.
- 681 삼도몽(三刀夢) : 지방관으로 나갈 조짐을 뜻하는 말이다. 진(晉)나라 때 왕준(王濬)이 꿈속에서 세 자루의 칼이 천정의 들보에 걸려 있는데 또 그 위에 칼 한 자루가 더 얹히는 것을 보았다. 이의(李毅)가 축하하며 해몽하기를 “칼 세 자루[三刀]는 고을 주(州) 자가 되고 그 위에 칼 한 자루도 더 보태어졌으니 익주(益州)로 부임하게 될 것이다.” 하였는데 과연 그 말대로 되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晉書 卷42 王濬列傳》
- 682 잠시…부임하였네 : 이보다 앞서 이안눌이 1607년(선조40) 8월에 홍주 목사(洪州牧使)가 되었다가 다시 추천을 받아 당상관(堂上官)으로 승진하여 12월에 동래 부사(東萊府使)가 되었던 것을 가리킨다. 《淸陰集 卷27 禮曹判書東岳李公神道碑銘》 이하 이안눌의 행력에 대해서는 《청음집》의 신도비를 따른다.
- 683 단인(丹人) : 일본인을 뜻한다. 단인은 단구(丹丘)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단구는 신선이 산다는 곳인데 일본이 동쪽 바다 건너에 있기 때문이다.
- 684 운근(雲根) : 본래 깊은 산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곳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백성들이 사는 마을을 가리킨다. 두보(杜甫)의 시에 “층주는 삼



래사》 지음은 도잠(陶潛)의 국화 때문이 아니요,<sup>685</sup> 목을 길게 빼고 멀리 바라본 것은 바로 인걸(仁傑)의 구름이었다네.<sup>686</sup>

임금의 은혜는 도로 제수되도록 허락하였지만, 마음대로 관직을 버렸다 하여 견책을 기다리고 있었네. 악목(岳牧)<sup>687</sup>에 천거되었다가 바야흐로 애주(愛州)<sup>688</sup>의 수령을 해면 받았지만, 조정에서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고 곧 담양 부사가 되었고다. 난새와 봉황이 가시나무에 깃들었으나 제비와 참새가 어찌 알아볼 것이며, 기린으로 하여금 소금수레를 끌게 하였으니 둔한 말들이 우쭐대며 뿔내네. 재주는 왕을 보좌할 만한데 누가 사원(士元)을 중앙의 벼슬에 앉혀 주랴,<sup>689</sup> 부모는 연로하고 집은 가난하나 모의(毛義)

협의 안에 있어, 마을이 운근 아래 모여 있네.[忠州三峽內, 井邑聚雲根.]”라고 하였다. 《杜少陵詩集 卷14 題忠州龍興寺所居院壁》

- 685 관직을…아니요 : 1609년(광해군1) 5월에 동래 부사를 사직한 것을 말한다. 진(晉)나라 도연명(陶淵明)은 국화를 매우 좋아했는데, 그는 〈귀거래사(歸去來辭)〉에서 “세 갈래 오솔길은 황폐해졌지만 송국(松菊)은 아직도 남아 여전하구나.[三徑就荒 松菊猶存]”라고 하였다.
- 686 목을…구름이었다네 : 동래 부사를 사직한 이유가 아버지의 봉양에 있었다는 뜻이다. 당나라 때의 문인 적인걸(狄仁傑)이 태항산(太行山)을 넘어가던 중에 흰 구름이 외로이 떠가는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구름 아래에 아버지가 계신다.[吾親所居 在此雲下]”라고 하고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구름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간 뒤에야 다시 길을 떠났다는 고사가 있다. 《舊唐書 卷89 狄仁傑列傳》
- 687 악목(岳牧) : 요(堯)임금과 순(舜)임금 시대의 사악(四岳)과 십이목(十二牧)으로, 곧 지방 장관을 가리킨다.
- 688 애주(愛州) : 의주(義州)를 가리킨다. 의(義)와 애(愛)의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애주(愛州) 혹은 애주(艾州)라고 불렀다고 한다.
- 689 누가…주랴 : 사원은 후한(後漢) 때 유비(劉備)를 섬긴 방통(龐統)으로, 사원은 그의 자(字)이다. 방통은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도 유비에 게 인정을 받지 못하여 뇌양 현령(耒陽縣令)이라는 낮은 벼슬을 제수 받았는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파면되었다. 이에 오(

가 외직을 받고 절로 기뻐하듯이 했네.<sup>690</sup> 흰화(萱花)와 형수(荊樹)<sup>691</sup>는 가는 곳마다 화창한 봄일 테고, 제비의 지저귐과 피꼬리 노래는 모두 즐거움을 더해 주리라. 아, 나는 부모가 안 계시는데 그대는 아직 계시니, 살아서도 영광이요 죽어서도 애도를 받으리라. 북당(北堂)이 이미 비었음을 돌아보고 백일이 서산으로 넘어 감이 슬프도다.<sup>692</sup> 남쪽 하늘 우러러도 미칠 수 없으니 한식의 봄 바람에 서글퍼지네.<sup>693</sup> 판여(板輿)<sup>694</sup>에 모시고 멀리 떠나니 그대

뫿)나라 노숙(魯肅)이 유비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방사원은 백 리 되는 작은 고을을 다스리는 재주가 아니다. 그에게 치중·별가의 임무를 맡겨야 비로소 기족을 펼칠 수 있다.[龐士元非百里才也 使處治中別駕之任 始當展其驥足耳]”라고 하자, 유비는 방통을 치중으로 발탁하였다. 기족은 준마의 발로, 뛰어난 재주를 비유하는 말이다. 《三國志 卷37 蜀書 龐統傳》

- 690 모의(毛義)가…했네 : 모의는 후한(後漢)의 효자이다. 집이 가난하고 어머니가 연로하였는데, 수령으로 제수하는 격서가 오자 매우 기뻐하며 벼슬에 나아가니 사람들이 모두 천하게 여겼다. 그 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효렴(孝廉)으로 천거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자, 비로소 사람들은 그가 벼슬길에 나아간 것이 어머니를 위해서였음을 알았다고 한다. 《後漢書 卷39 劉趙淳于江劉周趙列傳》
- 691 흰화(萱花)와 형수(荊樹) : 흰수는 어머니를 뜻하고, 형수는 자형화(紫荊花)란 화초로 형제를 뜻한다.
- 692 북당(北堂)이…슬프도다 : 북당은 어머니가 계신 곳을 말한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간다는 말은 부모를 봉양하려 해도 남은 수명이 짧아 해가 지듯이 돌아가신다는 뜻이다.
- 693 남쪽…서글퍼지네 : 남쪽 하늘은 조찬한 고향을 가리킨다. 조찬한은 한식 절기를 고향에 돌아가 가족과 같이 보내지 못하는 심정을 “팔배나무에 꽃은 피고 방초는 흐드러졌는데, 한식날 봄바람에 객은 돌아가지 못하네.[棠梨花發草菲菲 寒食東風客未歸]”라고 하였다. 《玄洲集 卷4 寒食》
- 694 판여(板輿) : 노인용 가마를 뜻하는데, 주로 지방관으로 나가 늙은 부모를 모시는 것을 비유한다. 진(晉)나라 반악(潘岳)이 장안 영(長安令)으로 옮겨다가 박사(博士)로 제수되자 아버이를 모시기 위하여 벼슬

부모님 봉양할 수 있음이 부럽고, 하교(河橋)<sup>695</sup>에서 전송하지 못하니 내 이별의 시름만 더해지네. 동성(東城)에서 다시 만날 날은 언제런가, 남국으로 가는 길은 천리로다. 채색 옷 입고 떠나며 노인성에 가까워짐이 기쁘고,<sup>696</sup> 돌아와 사립문 닫으니 이별의 한은 왕손(王孫)의 풀에 맺히네.<sup>697</sup>

을 버리고 돌아와 《예기(禮記)》의 편명인 <중니한거(仲尼閑居)의 뜻을 취하여 <한거부(閑居賦)를 지었는데, “태부인(太夫人)을 관여에 모시고 가벼운 수레에 오르시게 한 뒤 멀리 궁성을 유람하고 가까이 집안 뜰을 소요하게 해 드린다.[太夫人乃御板輿 升輕軒遠覽王畿 近周家園.]”라는 구절이 있다. 《晉書 卷55 潘岳列傳》

- 695 하교(河橋) : 황하의 다리인데 벗과 이별하는 곳을 뜻한다. 한(漢)나라 이릉(李陵)이 흉노(匈奴)의 땅에서 소무(蘇武)와 이별하면서 지은 <여소무(與蘇武)에 “손을 잡고서 하수의 다리에 오르노니, 그대는 저물녘 어디로 가느뇨.[携手上河梁 遊子暮何之]” 한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북주(北周) 유신(庾信)의 <이릉소무별찬(李陵蘇武別贊)에 “하교 양쪽 기슭에서, 길 떠나려니 마음이 처연해라.[河橋兩岸 臨路悽然]” 하였다.
- 696 채색…기쁘고 : 채색 옷은 노래자(老萊子)의 고사를 차용하여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린다는 뜻이다. 노인성은 남극(南極) 가까이에 있는데, 인간의 수명을 관장한다고 한다. 지방관이 되어 남쪽으로 떠나므로 노인성과 가까워져 부모의 수명이 늘어날 것이므로 기쁘다고 한 것이다.
- 697 돌아와…맺히네 : 왕손은 이안눌을 비유한 것이다. 한(漢)나라 회남 소산(淮南小山)의 <초은사(招隱士)에 “왕손이 떠나가 돌아오지 않음 이어, 봄풀은 자라서 무성하도다.[王孫遊兮不歸 春草生兮萋萋]”라고 하였는데, 전하여 ‘춘초(春草), ‘방초(芳草) 등의 풀은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하게 되었다. 《楚辭 卷12 招隱士》

## 정중립을 보내는 서<sup>698</sup> 이름은 시이다.

送鄭中立序時

흘러가는 봄은 동쪽으로 떠나니 화조(花鳥)와 함께 아쉬움을 품고, 나는 듯한 수레는 남쪽으로 달리니 청충마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도다. 인생에 이곳을 떠나가면 천로(天路)는 어려우리라. 더구나 그대와 같은 재주로 세상에서 버림 받았음에라. 일찍이 봉혈(鳳穴)에서 나는 연습을 했으니 금성(金聲)이 울리면 옥성(玉聲)으로 화답하였고,<sup>699</sup> 안문(雁門)<sup>700</sup>에서 날개를 나란히 하여 날았으니 형제들이 화목하였네. 삼천 검사(劍士) 흠어진 뒤로 하늘

698 정중립(鄭中立)을…서 : 정시(鄭時, 1569~?)는 본관은 온양(溫陽), 자는 중립(中立)으로 나주에 거주하였다. 생부는 정지승(鄭之升)인데 정지복(鄭之復)에게 출계하였다. 정시의 형은 정희(鄭晦)이고 동생은 정민(鄭旼)이다. 정희의 아들이 시로 유명한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이다. 정시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는데, 《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1612년(광해군4)에 진사시에 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해에 조찬한은 영암 군수(靈巖郡守)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은 시를 모은 <낭주록(朗州錄)>에도 정시에게 준 시가 한 편 남아 있다. 본문 중에 나오는 ‘서진(西塵)’이라는 표현이 이괄(李适)의 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글은 1624년(인조2) 경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699 일찍이…화답하였고 : 봉혈(鳳穴)은 봉황이 사는 곳인데, 문재(文才)가 있는 인물이 모인 곳을 비유한다. 동료들과 시를 창수하는 것을 금성이 울리면 옥성이 응한다고 한다. 한유(韓愈)의 시에 “금성이 울리니 옥성이 응하여, 그 향취가 대단히 성하네.[金春撼玉應 厥臭劇薰鬱]”라고 하였다. 《全唐詩 卷342 山南鄭相公樊員外酬荅爲詩其末咸有見及語樊封以示意依賦十四韻以獻》

700 안문(雁門) : 형제를 안행(雁行)이라고 표현하듯이, 안문은 형제와 함께 지내는 집을 뜻한다.

은 몇 번의 성상을 돌았던가,<sup>701</sup> 봉새는 구만리를 오를 때 회오리 바람을 타지만 풍량이 일 날은 기약 없구나.<sup>702</sup> 복사꽃 핀 곳에서 세 단계의 폭포 오르지 못했고,<sup>703</sup> 버들개지 날릴 적에 또 한 역참의 인끈을 폼였구나.<sup>704</sup> 천사(天駟)<sup>705</sup>에 문채 나는 바퀴를 채워 길을 누비며 바람을 따라잡고, 노인성에 주성(酒星)이 비추니 잔을 들고 축수 올리리라.<sup>706</sup> 훗날 춘초(春草) 주고 받으리니 형제의 정

- 
- 701 삼천…돌았던가 : 검사들이 검술을 왕에게 인정 받듯이 정시도 자신의 재주를 펴고자 하였으나, 실의하여 목적을 이루지 못한 상황을 비유하였다. 이 구절은 두보(杜甫)가 안록산(安祿山)의 난을 표현한 구절에 “드넓은 땅의 칠십여 성이 적에게 빼앗겨, 검사 삼천은 뿔뿔이 흩어졌다네.[蒼茫城七十 流落劍三千]”라고 한 것을 차용한 것이다. 《全唐詩 卷225 寄岳州賈司馬六丈巴州嚴八使君兩閣老五十韻》 두보의 이 시는 또 《장자》〈설검(說劍)〉에 전국 시대 조 문왕(趙文王)이 검을 좋아하여 검사가 삼천 명이나 모여들었던 고사를 사용한 것이다.
- 702 봉새는…없구나 : 봉새가 구만리를 날아 오르기 위해서는 바다의 움직임이 필요한데 기약이 없다고 한 것처럼, 정시에게도 기회가 찾아오지 않음을 비유한 것이다. 《莊子 逍遙遊》
- 703 복사꽃…못했고 : 봄날 과거 시험에 실패하였음을 비유한 것이다. 황하(黃河)의 중류 하진(河津)에 복사꽃 물결이 붙어날 때면 강과 바다의 물고기가 용문(龍門) 아래로 모이는데, 이곳을 뛰어오르면 용(龍)이 된다는 전설이 있다. 또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용문에는 세 단계로 된 폭포가 있는데, 이곳을 전부 통과해야 용이 될 수 있고 오르지 못하면 이마만 부딪히고 돌아간다고 한다. 《三秦記》
- 704 버들개지…폼였구나 : 겨울에 다시 찰방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버들개지[柳絮]는 진(晉)나라 때 사도온(謝道韞)이 눈을 비유하여 버들개지가 바람에 떠다니는 것 같다고 한 데서 눈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705 천사(天駟) : 본래 천사성(天駟星)으로 말에 관한 정사를 관장하는 별 이름인데, 여기서는 하늘을 나는 신마(神馬)의 뜻으로 쓰였다.
- 706 노인성에…올리리라 :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장수를 기원한다는 뜻이다. 노인성(老人星)은 남극(南極)에 있는 별 이름인데, 인간의

신이 이어진 것이요,<sup>707</sup> 오늘 색동옷 입은 자손 있고 없으니 부자의 희비 엇갈리는구나.<sup>708</sup> 아, 서진(西塵)<sup>709</sup>이 맑아질 때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짐치기 어려우나, 남쪽으로 말 타고 나가 공명을 세우리니 도리어 십 리나 오 리 길이 부럽도다.<sup>710</sup> 이별한 녀은 흘

수명과 행복을 관장한다고 한다. 주성(酒星)은 술을 관장하는 별 이름이다.

707 훗날…것이요 : 춘초(春草)는 여기서 문학적 재능을 나타내는 말로 보인다. 남조(南朝) 시대 송(宋)나라의 시인인 사령운(謝靈運)은 족제(族弟) 사혜련(謝惠連)과 매우 절친한 사이였으며, 사령운이 시를 짓다가 막혔는데, 꿈속에서 사혜련을 보고 ‘연못에는 봄풀이 돋았네.[池塘生春草.]’란 시구를 얻었다고 한다. 정시의 형인 정회도 시문에 뛰어나 《무송당유고(撫松堂遺稿)》를 남겼다. 즉 춘초는 문학적 영감을 상징하는 말이므로, 정시와 정회 형제 사이에도 시문의 전수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뜻이다.

708 오늘…엇갈리는구나 : 조찬한이 자주(自註)에서 밝혔듯이 정회의 아들들 후사로 삼았다고 하였으므로, 자식을 내 준 정회의 입장에서 슬픈 감정이 들고 자식을 얻은 정시의 입장에서 기쁜 감정이 든다는 뜻이다. 다만 조찬한의 자주에서는 정회를 아우라고 칭하였는데, 《사마방목》에는 정회가 형으로 기재되어 있다. 정시는 정회의 아들 가운데 정인경(鄭麟卿)을 후사로 들었다.

709 서진(西塵) : 이괄의 난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괄은 평안도 영변에서 반란을 일으켜 한양까지 내려와 점령하였다. 서진은 서풍(西風)이 일으키는 먼지라는 뜻으로, 본래 권신(權臣)의 위세를 비유하는 말이다. 진(晉)나라 정서장군(征西將軍) 유량(庾亮)이 막강한 권세를 휘둘렀는데, 언젠가 서풍(西風)이 세계 불어 먼지를 일으키자, 유량을 혐오하던 왕도(王導)가 부채로 얼굴을 가리면서 “원규의 먼지가 사람을 더럽힌다.[元規塵汚人]”라고 말했던 고사가 있다. 《世說新語 輕詆》 원규는 유량의 자(字)이다.

710 도리어…부럽도다 : 십 리에서 오 리 길은 역참이 세워진 곳을 가리키므로, 찰방으로서 임무를 맡은 지역을 뜻한다. 옛날 5리(里)마다 단정(短亭)을, 10리(里)마다 장정(長亭)을 설치하여 행인들이 쉬거나 전별(餞別)하는 장소로 삼았다. 유신(庾信)의 〈애강남부(哀江南賦)〉에 “오 리와 십 리 마다 장정과 단정이 있네.[十里五里 長亭短亭]”라고

어지지 않으나 감히 수레 쫓는 먼지가 되랴,<sup>711</sup> 떠나보낸 뒤 꿈속  
에서 둥근 얼굴 보고 부질없이 들보에 가득한 달빛에 놀라네.<sup>712</sup>

-정공(鄭公)이 아우 회(晦)의 아들로 후사를 삼았으므로 이른 것이다.-

---

하였다.

711 이별한…되랴 : 이별로 인한 상심이 사라지지 않지만 떠나는 수레를 쫓아갈 수도 없는 처지라는 뜻이다.

712 떠나보낸…놀라네 : 꿈속에서 떠난 이의 얼굴을 보고는 다시 잠에서 깨어 달빛이 떠난 사람의 얼굴을 비추는 듯하여 놀란다는 뜻이다. 두보의 시 <몽이백(夢李白)>에 “지는 달이 들보를 가득 비추니, 그대의 안색 행여 보이는 듯하네.[落月滿屋梁 猶疑見顏色]”라고 한 표현을 차용한 것이다.

죽음과 이별하며 준 서<sup>713</sup> 이름은 조희일, 자는 이숙이다.

贈別竹陰序 趙希逸怡叔

이산(理山)에서 영남으로 이배(移配)되었다.

알록달록 금새 짜내자 조개 무늬 비단이 잠깐 사이에 만들어졌고,<sup>714</sup> 눈과 서리가 함께 날리더니 난초와 혜초가 이내 시들었

---

713 죽음(竹陰)과…서 : 조희일(趙希逸, 1575~1638)은 본관은 임천(林川), 자는 이숙(怡叔), 호는 죽음(竹陰)·팔봉(八峰)이다. 1613년(광해군 5) 이조 정랑(吏曹正郎)으로 있을 때 이른바 계축옥사(癸丑獄事)가 벌어졌을 때, 이위경(李偉卿)이 정협(鄭澏)을 사주하여 조희일을 무함하였으므로, 김상용(金尙容) 등과 함께 투옥되었다. 3년 후인 1616년 서궁(西宮)에 투서가 날아들어 왔는데, 투서 안에는 광해군의 죄악을 열거하였으므로 광해군이 크게 노하였다. 그런데 그 글은 실제 허균(許筠)이 지은 것인데, 이위경 등이 조희일을 연루시켜 이산(理山)에 안치(安置)되도록 만들었다. 이산으로 유배를 가자 이번에는 후금이 국경 지역을 위협하였으므로, 서북(西北) 지역에 도류(徒流)된 죄인들을 모두 영남으로 옮겼는데, 그때 조희일은 하동현(河東縣)으로 이배를 가게 되었다. 훗날 허균의 일이 발각되어 복주되자 조희일은 죄를 벗어나 1619년에 풀려나 돌아왔다. 이 글은 조희일이 하동으로 이배될 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宋子大全 卷165 竹陰趙公神道碑銘》

714 알록달록…만들어졌고 : 근거없는 말로 조희일을 증상 모략하여 죄에 얽어넣었다는 뜻이다. 《시경》〈소아(小雅) 항백(巷伯)〉에 “알록달록 뒤섞어 조개 무늬의 비단을 이루네. 저 남을 참소하는 자여, 또한 너무 심하도다.[萋兮斐兮 成是貝錦 彼讒人者 亦已太甚]”라고 하였는데, 여공(女工)이 색실을 한 올 한 올 모아 조개 무늬의 비단을 짜듯 작은 허물을 모아 큰 죄를 엮는 것을 의미한다



네.<sup>715</sup> 맹호가 과연 시장에 들어왔다 하자,<sup>716</sup> 자애로운 어머니께서는 이로 인해 벼를 내려왔다네.<sup>717</sup> 큰 도둑이 하늘을 속이니 외로운 신하는 땅을 칠 뿐이로다. 귀양지는 변방에 가까워 풍광이 다른 지역이고, 귀문(鬼門)<sup>718</sup>이 오랑캐 땅과 접해 있어 일월도 비추지 않네. 관하(關河)<sup>719</sup> 천리에서 인걸(人傑)이 바라본 것은 백운일 뿐,<sup>720</sup> 고향에선 삼 년 동안 혜련(惠連)이 청초(靑草)를 꿈

- 
- 715 난초와…시들었네 : 굴원(屈原)의 <이소(離騷)>에 “난지 향초 변해서 이제는 향기 없고, 혜초가 바뀌어서 띠풀이 되었다. [蘭芷變而不芳兮 蕙化而爲茅]”라고 하여, 지조가 곧은 사람이 조정에서 방축된 심정을 읊었다.
- 716 맹호가…하자 : 계속 반복되면 사실처럼 믿게 되는 유언비어를 말한다. 저자거리에는 호랑이가 나오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이 세 번 정도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모두들 그렇게 믿게 된다는 삼인성호(三人成虎)의 고사에서 나온 것이다. 《戰國策 魏策2》
- 717 자애로운…내려왔다네 : 춘추 시대에 증삼(曾參)의 모친이 증삼의 살인 소식을 전해 듣고서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계속해서 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하자 사실로 믿고는 놀란 나머지 벼에서 내려와 담장을 넘어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戰國策 卷4 秦策2》
- 718 귀문(鬼門) : 귀문관(鬼門關)이라고도 하며 유배지의 별칭이다. 《구당서(舊唐書)》 권41 <지리지(地理志) 4>에 “귀문관 남쪽으로는 장려가 더욱 심해서 그곳에 간 사람은 살아 돌아온 이가 드물다. 속담에 ‘귀문관을 나간 사람은 열에 아홉은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한다. [其南尤多瘴癘 去者罕得生還 諺曰 鬼門關 十人九不還]”라고 하였다.
- 719 관하(關河) : 함곡관(函谷關)과 황하(黃河)를 가리키는 말로 고향이나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평안도 이산을 가리킨다.
- 720 인걸(人傑)이…뿐 : 고향에 계신 부모를 몹시 그리워했다는 뜻이다. 당나라 때의 문인 적인걸(狄仁傑)이 태항산(太行山)을 넘어가던 중에 흰 구름이 외로이 떠가는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구름 아래에 어버이가 계신다. [吾親所居 在此雲下]”라고 하고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구름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간 뒤에야 다시 길을 떠났다는 고사가 있다. 《舊唐書 卷89 狄仁傑列傳》

꾸었도다.<sup>721</sup> 어찌 생각했으랴, 수레바퀴 속 헐떡이는 붕어를 잡  
 시 옮길 뿐, 끝내 겨울잠 깨우는 우레를 아낄 줄이야.<sup>722</sup> 화표(華  
 表)로 돌아오니 요동의 학과 같고,<sup>723</sup> 새장은 마침내 닫히니 농서  
 (隴西)의 새는 슬프게 우네.<sup>724</sup> 몽득(夢得)은 대인에게 무어라 할

721 고향에선…꿈꾸었도다 : 조희일의 아우가 고향에서 형을 그리워했  
 다는 뜻이다. 조희일은 위로 형이 둘이 있고, 아우가 하나 있는데 이  
 름은 조희진(趙希進)이다. 이 구절은 남조(南朝) 송(宋)의 시인 사령  
 운(謝靈運)이 시상(詩想)에 골몰하다가 꿈속에서 족제(族弟)인 사혜  
 련(謝惠連)을 만나 보고는 ‘지당생춘초(池塘生春草)’라는 명구(名句)  
 를 지은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南史 卷19 謝惠連列傳》

722 어찌…줄이야 : 이배하라는 명을 내릴 뿐 해배(解配)시켜 주지 않음  
 을 탄식한 것이다.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얇은 물속에서 숨을 헐떡  
 이는 붕어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비유한다. 이른바 학철부어(涸轍鮒  
 魚)의 고사로, 《장자(莊子)》〈외물(外物)〉에,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얇  
 은 물속에서 말라 들어가며 헐떡이는 붕어가 약간의 물만 부어 주면  
 살 수 있겠다고 하소연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겨울잠 깨우는 우레는  
 겨울잠을 자는 곤충과 짐승을 깨우는 것으로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  
 의 상징이다. 여기서는 조희일을 유배지에서 풀어 주지 않았다는 뜻  
 으로 쓰였다.

723 화표(華表)로…같고 : 한(漢)나라 때 요동(遼東) 사람 정령위(丁令威)  
 가 일찍이 영허산(靈虛山)에 들어가 선술(仙術)을 배우고 뒤에 학으  
 로 변하여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성문(城門)의 화표주에 앉았는데,  
 한 소년이 활을 가지고 그를 쏘려 하자, 그 학이 날아올라 공중을 배  
 회하면서 말하기를 “새여 새여 정영위가 집 떠난 지 천년 만에 이제  
 야 돌아왔네. 성곽은 예전 같은데 사람은 그때 사람 아니어라, 어이  
 해 신선 안 배우고 무덤만 즐비하고.”라고 했다는 고사가 있다. 《搜  
 神後記》

724 새장은…우네 : 농서의 새는 앵무새를 가리킨다. 《금경(禽經)》에 의  
 하면 “앵무새는 농서 지방에서 나오는데, 능히 말을 하는 새이다. [鸚  
 鵡出隴西 能言鳥也]”라고 하였다. 앵무새는 재주 있는 현사(賢士)를  
 상징하는 동물로 백居易(白居易)의 〈앵무(鸚鵡)〉 시에도 “농서의 앵  
 무새 강동에 와서, 여러 해 길러지는 동안 부리 점점 붉어졌네. 언제  
 나 돌아갈 생각할까 먼저 날개를 자르고, 매양 먹이에 굶주리기에

말이 없었으니 살아 돌아와 눈물을 삼켰고,<sup>725</sup> 퇴지(退之)는 병든 누이를 보지 못했으니 사별한 뒤 소리 죽여 울었다.<sup>726</sup> 도둑맞은 금이 돌아왔으니 직불의(直不疑)를 무에 탓할 것이 있겠는가,<sup>727</sup> 죄인이 붙잡혔는데도 공야장(公冶長)은 여전히 간혀 있었

잠시 새장을 열어 주네. 사람들은 교묘한 말 재주에 애정 쏟지만, 새는 높이 날고프니 마음이 같지 않네. 응당 부잣집의 춤추는 기녀가 뒷방에 감춰진 것과 같구나. [隴西鸚鵡到江東 養得經年嘴漸紅 常恐思歸先剪翅 每因餒食暫開籠 人憐巧語情雖重 鳥憶高飛意不同 應似朱門歌舞妓 深藏牢閉後房中]”라고 하였다.

725 몽득(夢得)은…삼켰고 : 몽득은 당나라 때 시인 유우석(劉禹錫)을 가리킨다. 한유(韓愈)의 <유자후묘지명(柳子厚墓誌銘)>에 나오는 내용으로, 유우석이 좌천되어 파주 자사(播州刺史)로 가게 되었는데, 유종원(柳宗元)이 그가 노모와 함께 갈 수 없는 사정을 걱정하며 “파주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다. 게다가 몽득의 아버지는 건재하시다. 나는 몽득이 곤궁해져 부모에게 무어라 할 말이 없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다. 또 모자가 함께 부임하는 것도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播州非人所居 而夢得親在堂 吾不忍夢得之窮 無辭以白其大人 且萬無母子俱往理]”라고 하며 황제에게 상주하고자 하였다. 이 일로 인해 유우석은 연주 자사(連州刺史)로 옮겨 가게 되었다.

726 퇴지(退之)는…울었다 : 퇴지(退之)는 당나라 때 문장가 한유(韓愈)를 가리킨다. 정원(貞元) 19년(803) 한유는 국자사문박사(國子四門博士)에서 감찰어사(監察御史)에 제수되었는데, 뜻하지 않게 덕종(德宗)의 노여움을 사서 연주(連州)의 양산 령(陽山令)으로 좌천되었다. 지방관으로 떠날 당시 한유의 집에는 병든 누이가 있었는데 이별의 장면에 대해 <부강릉왕보궐(赴江陵寄王補闕)>이라는 시에서 “조정의 사자가 찾아와 떠날 것을 명하며, 잠시도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였네. 병든 누이는 침상에 누워 있으니, 여기서 이별하면 유명이 갈라지리라. 슬피 울며 데려가 달라고 간청하지만, 백 번 타일러도 듣지를 않네. [中使臨門遣 頃刻不得留 病妹臥牀褥 分知隔明幽 悲啼乞就別 百請不領頭]”라고 표현하였다.

727 도둑…있겠는가 : 한 문제(漢文帝) 때 직불의가 낭관(郎官)으로 있을 적에, 동사랑(同舍郎) 중에 고향으로 가면서 잘못하여 다른 동사랑의 금(金)을 가지고 떠난 자가 있었다. 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직불의

다.<sup>728</sup>

아, 잠령(蠶嶺)<sup>729</sup>의 뜰구름은 지는 해를 따라 저물려 하고, 용호(龍湖)<sup>730</sup>의 가을 물은 드넓은 하늘과 함께 말이 없구나. 우연히 객지에서 서로 만나고 보니 하량(河梁)의 이별<sup>731</sup>보다 슬픔이 더하네. 이별한 녀은 애뜻하게 그리워하나 수레 쫓는 먼지가 될 수 없고,<sup>732</sup> 얼굴이 눈에 선하니 어찌 들보에 가득한 달빛을 견딜 수 있으랴.<sup>733</sup> 믿는 바는 내게 충과 신이 있거늘 어디 간들 뜻이

를 의심하자, 직불의는 두말없이 자신이 가져갔다고 말하면서 즉시 금을 사서 보상해 주었다. 그 뒤에 고향 갔던 동사랑이 돌아와서 자기가 금을 가져갔다고 금을 돌려주자, 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대단히 부끄럽게 여겼다고 한다. 《漢書 卷46 直不疑傳》

728 죄인이…있었다 : 공야장은 공자의 제자로 새와 짐승의 울음소리를 알아듣는다는 사람이다. 그가 위(衛) 나라에서 노(魯) 나라로 가던 도중 “시냇가에서 죽은 사람의 고기를 먹자.”고 지저귀는 까마귀 소리를 들은 뒤에 때마침 아이를 잃고 길가에서 울고 있는 한 노파를 발견하고 시냇가에 한번 가보라고 일러준 일이 화근이 되어 살인범으로 몰려 옥에 갇혀 있다가 무죄임이 밝혀져 풀려나왔다. 뒤에 공자가 말하기를, “공야장은 딸을 그에게 시집보낼 만하다. 포승줄에 묶여 옥에 갇힌 적은 있으나 그의 죄가 아니었다.” 하고, 자기의 딸을 아내로 삼게 했다 한다. 《論語 公冶長》《論語集疏》

729 잠령(蠶嶺) : 한강의 잠두봉(蠶頭峯)을 가리킨다.

730 용호(龍湖) : 용산 앞의 한강을 가리킨다.

731 하량(河梁)의 이별 : 하량은 하수(河水)를 건너지른 다리인데, 한(漢) 나라의 이릉(李陵)이 이곳에서 소무(蘇武)와 작별하였으므로, 전하여 이별하는 장소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이릉이 소무와 작별하면서 준 〈여소무(與蘇武)〉에 “손을 잡고 하량에 올랐거니 나그네는 저물녘에 어디로 가려는가.[携手上河梁 遊子暮何之]”라고 하였다.

732 이별한…없고 : 조희일을 따라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뜻이다.

733 얼굴이…있으랴 : 들보의 달빛을 보면 떠난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견딜 수 없다는 뜻이다. 두보의 시 〈몽이백(夢李白)〉에 “지는 달이 들보를 가득 비추니, 그대의 안색 행여 보이는 듯하네.[落月滿屋梁 猶疑見顏色]”라고 한 표현을 차용한 것이다.

행해지지 않으랴,<sup>734</sup> 그대는 문장에 힘쓰니 어느 곳에 있든 자득  
 치 못하는 일 없으리.<sup>735</sup> 하물며 임금의 덕은 덮어 주는 하늘과  
 같아서, 만물이 모두 봄처럼 화창하다네. 천지(天池)에 회오리  
 바람 불면 마침내 봉새는 날아오를 수 있을 터인데,<sup>736</sup> 어두(魚  
 頭)의 어사대에 어찌 밤에 우는 까마귀가 없으랴.<sup>737</sup> 오직 바라

734 믿는…않으랴 : 공자(孔子)의 제자 자장(子張)이 뜻이 행해지는 것에  
 대해 물었는데, 공자가 대답하기를, “말이 충성스럽고 미더우며 행  
 실이 돈독하고 공경스러우면 비록 오랑캐의 나라에서도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 行矣]”라고 한 데서 인용한  
 말이다. 《論語 衛靈公》

735 그대는…없으리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4장에 “군자는 현재의  
 위치에 따라 행하고, 그 밖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 현재 부귀하면 부  
 귀한 처지에 알맞게 행동하고, 현재 빈천하면 빈천한 처지에 알맞게  
 행동하며, 현재 이적의 가운데에 있으면 그 상황에 알맞게 처신하  
 고, 현재 환난의 가운데에 있으면 그 상황에 알맞게 처신한다. 따라  
 서 군자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자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 것이  
 다.[君子素其位而行 不願乎其外 素富貴 行乎富貴 素貧賤 行乎貧賤 素  
 夷狄 行乎夷狄 素患難 行乎患難 君子無入而不自得焉]”라고 한 데서 인  
 용한 말이다.

736 천지(天池)에…터인데 : 조희일에게도 좋은 기회가 오면 뜻을 펼 수  
 있으리라는 의미이다. 양각(羊角)은 회오리바람을 이른다. 《장자》  
 〈소요유(逍遙遊)〉에 “큰 봉새가 양의 뿔처럼 빙빙 도는 회오리바람  
 을 타고 공중으로 구만 리를 올라간다.[大鵬搏扶搖羊角而上者九萬里  
 ]”라고 하였다.

737 어두(魚頭)의…없으랴 : 조희일이 사면 받을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어두(魚頭)는 송(宋)나라 노종도(魯宗道)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의 성품이 강직하여 바른말을 잘하자, 귀척 대신들이 그를 꺼려하  
 여 ‘어두참정(魚頭參政)’이라고 지목하였는데, 이 말은 그의 성(姓)  
 인 ‘노(魯)’ 자의 머리에 ‘어(魚)’ 자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낸 말이다.  
 《宋史 卷286 魯宗道列傳》 여기서는 강직한 어사대의 관원을 가리킨  
 다. 또한 밤에 우는 까마귀는 사명령이 내릴 것이라는 전조를 가리  
 킨다. 남조(南朝) 송나라 유의경(劉義慶)이 강주 자사(江州刺史)에서

건대 옛 대나무는 그림자 짙어지고, 한겨울 소나무는 더욱 무성해지기를. 강남의 방초(芳草)는 다시 돌아온 왕손에 기뻐하고,<sup>738</sup> 당상에서 색동옷 입으니 거듭 노래자(老萊子)의 춤을 보리라.<sup>739</sup>

---

파직되었을 때, 그의 첩이 밤중에 까마귀 우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내일은 틀림없이 사면령이 내릴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그해에 다시 남연주 자사(南兖州刺史)로 기용되었고, 〈오야제(烏夜啼)〉라는 작품을 지었다고 한다. 《舊唐書 卷29 音樂2》

738 강남의…기뻐하고 : 한(漢)나라 회남 소산(淮南小山)의 〈초은사(招隱士)〉에 “왕손이 떠나가 돌아오지 않음이며, 봄풀은 자라서 무성하다. [王孫遊兮不歸 春草生兮萋萋]”라고 하였는데, 전하여 ‘춘초(春草)’, ‘방초(芳草)’ 등의 풀은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하게 되었다. 《楚辭 卷12 招隱士》

739 당상에서…보리라 : 춘추 시대 초나라의 은사(隱士)인 노래자(老萊子)가 칠십의 나이에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하여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피웠다는 고사가 있다.

## 임무숙과 이별하며 준 서<sup>740</sup> 이름은 숙영이다.

贈別任茂叔序 叔英

자루(紫樓)와 단궁(丹宮)에서 주경(珠經)의 구절을 잘못 읊어, 금동(金瞳)과 철수(鐵髓)로 연화(煙火)의 인연을 잠시 맺었네.<sup>741</sup> 그리하여 사문(斯文)에서 유희하기 위해 마침 우리 부자가 찾아왔다네.<sup>742</sup> 낭간(琅玕)과 지초(芝草)는 운봉(雲鳳)과 천린(天麟)을

740 임무숙(任茂叔)과…서 : 임숙영(任叔英, 1576~1623)은 본관은 풍천(豊川), 자는 무숙(茂叔), 호는 소암(疎庵)이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이 글은 1616년(광해군8) 경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1613년 계축옥사가 일어나 대신(大臣)들이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처치(處置)할 것을 정청(庭請)하였는데, 임숙영은 다리병을 이유로 정청에 참여하지 않고 벼슬살이를 그만둔 채 집으로 돌아와 쉬었다. 당시에 일이 갈수록 문란해지는 것을 보고 강개하여 탄식하였는데, 이것이 조정을 헐뜯고 비방한다는 것으로 무함을 받았다. 그리하여 1616년 2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어 광주(廣州)로 내려가 용진(龍津)에 우거하였다.

741 자루(紫樓)와…맺었네 : 임숙영이 본래는 신선이었는데 경전 구절을 잘못 읽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는 뜻이다. 자루(紫樓)와 단궁(丹宮)은 여기서는 신선이 사는 궁전을 말한다. 주경(珠經)은 도가의 경전을 말한다. 신선 세계에서 경전 구절을 잘못 읽어 인간 세계로 귀양왔다는 표현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소식(蘇軾)의 <부용성(芙蓉城)> 시에 “삼세를 왕래하며 공연히 형체만 단련하더니, 끝내 《황정경》을 잘못 읽고 말았네.[往來三世空鍊形 竟坐誤讀黃庭經]”라고 하였다. 그 주(註)에 “옛날 신선이 《황정경》을 잘못 읽어서 하계(下界)로 귀양왔다.”라고 하였다. 《東坡詩集註 卷4 芙蓉城》 금동(金瞳)과 철수(鐵髓)도 각각 황금 눈동자와 철로 된 골수라는 뜻으로 신선의 형상을 표현한 말이다. 연화(煙火)는 익힌 음식을 이르는 말로 인간이 먹는 음식을 뜻한다. 여기서는 인간 세계를 가리킨다.

742 그리하여…찾아왔다네 : 임숙영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사문(斯文)에

홀연히 잃었고,<sup>743</sup> 분토(糞土)에 덩굴고 염거(鹽車)를 끄니 누가 백희(白羲)와 녹이(駮駟)<sup>744</sup> 알아주랴. 세상에서는 모두 용맹을 배양하니 북궁유(北宮黶)는 눈동자를 돌려 피하지 않고,<sup>745</sup> 선비들은 오랫동안 굶주리니 동방삭(東方朔)처럼 죽을 지경이네.<sup>746</sup> 도

유희하였다는 뜻이다. 여기서 사문은 신선 혹은 도가에 대해 유가의 도 혹은 문장을 가리킨다. 소식이 한유에 대해 읊은 〈경년양강공 사운운(頃年楊康功使云云)〉 시 앞머리에 “퇴지는 신선으로서 사문에 유희하였네. 담소간에 기이한 말 쏟으며 남해의 용신을 고무시켰도다. [退之仙人也 遊戲於斯文 談笑出偉奇 鼓舞南海神]”라고 하였다. 그리고 원문의 ‘適來夫子’는 조화의 운행에 따라 이 세상에 왔다는 말이다. 노담(老聃)이 죽었을 때 그의 벗 진실(秦失)이 말하기를 “마침 때가 되어 온 것은 부자가 때맞춰 왔던 것이고, 마침 때가 되어 간 것은 부자가 조화에 순응하여 간 것이다. 때를 편안히 여기고 조화에 순응하였으니, 슬픔과 즐거움이 그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다. [適來夫子時也 適去夫子順也 安時而處順 哀樂不能入也]”라고 하였다. 《莊子 養生主》

- 743 낭간(琅玕)과…잃었고 : 낭간(琅玕)과 지초(芝草)는 신선 세계에 있는 나무와 풀을 가리킨다. 운봉(雲鳳)과 천린(天麟)은 구름을 나는 봉황과 하늘의 기린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임숙영을 비유한다.
- 744 백희(白羲)와 녹이(駮駟) : 모두 양마(良馬)의 이름으로, 역시 임숙영을 비유한다. 옛날 주 목왕(周穆王)이 천하를 주유하면서 타고 다녔다는 팔준마(八駿馬) 중에 있는 말들이다.
- 745 세상에서는…않고 : 북궁유는 전국 시대의 역사(力士)로 용기를 기를 적에 피부를 찢러도 흔들리지 않고 눈을 찢러도 피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만승의 군주에게도 모욕을 당하지 않았는데, 만승의 군주를 찢르기를 마치 빈천한 사람을 찢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한다. 《孟子 公孫丑上》
- 746 선비들은…지경이네 : 동방삭은 골계와 해학을 잘 하였는데, 하루는 궁궐의 난쟁이들을 속여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의식만 축낼 뿐이니 이제 모조리 죽어버리겠다.” 하였다. 난쟁이들이 크게 놀라 울고 있었는데 마침 무제(武帝)가 그 광경을 보고 이유를 물으니, “난쟁이는 키가 석 자 남짓밖에 안 되지만 한 자루의 곡식을 받고, 돈 240전을 받는데, 신 삭은 키가 9자 남짓이나 되



리어 무쇠도 녹일 만한 비방을 쏟아내며, 마침내 우물에 빠진 자에게 바위를 떨어뜨리는 꾀를 이루었네. 대궐 문은 구중 높은 곳이라 맨발로 디디기 어렵고, 옥관은 천리길이라 어디에서 청우(靑牛)를 찾으랴.<sup>747</sup> 봉정만리에 날개가 꺾이자 마자, 이내 기러기 행렬에서 낙오되었네. 형은 이미 곤궁한데 아우는 병드니 도를 행하지 못하고,<sup>748</sup> 남들은 다 부모 있으나 나만 없으니 곡을 한들 어찌 미치랴.<sup>749</sup> 도성 문에 돌아올 날도 오히려 막막하거늘,<sup>750</sup> 소

지만 역시 한 자루 곡식을 받고 돈 240전을 받으므로, 난쟁이는 배가 불러서 죽을 지경이고, 신 삭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신의 말을 채용할 만하시면 예우를 그들보다 다르게 해 주시고, 채용할 만하지 못하면 파면해 주시어, 장안의 쌀만 축내도록 하지 마소서. [朱儒長三尺餘 奉一囊粟 錢二百四十 臣朔長九尺餘 亦一囊粟 錢二百四十 朱儒飽欲死 臣朔飢欲死 臣言可用 幸異其禮 不可用 罷之 無令但索長安米]라고 하였다. 무제는 이에 대조금마문(待詔金馬門)으로 삼았다. 《漢書 卷65 東方朔傳》

- 747 옥관은…찾으랴 : 임숙영이 조정에서 쫓겨나 멀리 떠남을 뜻한다. 노자(老子)가 서쪽으로 길을 떠나 함곡관(函谷關)에 거의 이르렀을 때, 관령(關令) 윤희(尹喜)가 누대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다가, 자기(紫氣)가 관문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고 진인(真人)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얼마 뒤에 과연 노자가 푸른 소를 타고 왔다. 노자는 윤희에게 《도덕경》 오천언(五千言)을 써 주고 관문을 지나 서쪽으로 갔다고 한다. 《列仙傳 上》
- 748 형은…못하고 : 임숙영의 아우인 임세영(任世英, ?~?)이다. 생몰년은 미상이나 이수광(李睟光)이 지은 만사(挽詞)에 “나이 겨우 불혹에 불과한데, 약물도 소용없으니 어이하랴. [流年纔不惑 藥餌奈無功]”라고 한 것으로 보아 사십 전후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芝峯集 卷5 任上舍世英挽》
- 749 남들은…미치랴 : 조찬한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일찍 여인 부모에 대한 슬픔을 표현한 것이다.
- 750 도성…막막하거늘 : 임숙영이 조정으로 다시 복귀할 날이 막막하다는 뜻이다. 원문의 ‘脩門’은 원래 초나라 도읍인 영(郢)의 성문(城門) 이름이었으나, 뒤에는 일반적으로 도성의 성문을 의미하는 말로 쓰

상(瀟湘)에서 만날 날은 기약할 수 없네.<sup>751</sup> 낙백한 처지 서로 마 찬가지니 문장을 어디에다 쓰랴. 오늘 아침 구대(龜臺)로 길 떠남 에 어깨 두드리며 유람을 함께 하지 못하지만,<sup>752</sup> 훗날 신선 수레 타면 응당 머리를 어루만지며 웃으리라.<sup>753</sup>

였다. 송옥(宋玉)의 <초혼(招魂)>에 “혼이여 돌아오라. 수문(脩門)으로 들어오라.[魂兮歸來 入脩門些]”라고 하여, 굴원(屈原)의 혼이 돌아오 기를 기원하는 표현이 있다.

751 소상(瀟湘)에서…없네 : 초 회왕(楚懷王) 때의 충신 굴원(屈原)이 상 관대부(上官大夫) 근상(靳尚)의 모함으로 조정에서 쫓겨나 소상강(瀟 湘江) 일대를 배회하며 근심하고 시름하였다. 그는 ‘근심을 만나 지 은 글’이라는 뜻의 ‘이소(離騷)’를 읊어 울분을 토로하다가 끝내 먹라 수(汨羅水)에 빠져 죽었다. 《史記 卷84 屈原列傳》 소상은 여기서 임 숙영이 방축되어 은거하는 곳을 뜻한다.

752 오늘…못하지만 : 원문의 구로(龜路)는 구대(龜臺)로 떠나는 길이라 는 뜻으로, 구대는 본래 신선이 산다는 곳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구 대가 실제로 지명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지만, 조찬한이 임숙영에서 지어 준 증별시에서도 “듣기로 그대의 옛 장원이 봉황봉 아래 구대 앞에 있다 하네. 어찌 함께 손 잡고 찾아가 집터를 잡지 않으리, 봄 바람은 가없고 산은 울창하다네.[聞說吾君舊莊在 鳳凰峯下龜臺前 胡 不提携來卜居 春風無邊山蒼然]”라고 하였다. ‘어깨를 두드린다’는 것 은 신선이 서로 친근함을 표시하는 시구에서 온 말이다. 진(晉)나라 광박(郭璞)의 <유선시(游仙詩)>에 “왼쪽으론 부구의 소매를 끌어당기 고, 오른쪽으론 홍애의 어깨를 두드린다.[左挹浮丘袖 右拍洪崖肩]”라 고 하였는데, 부구와 홍애는 모두 옛날의 신선이다.

753 훗날…웃으리라 : ‘머리를 어루만진다’는 표현은 이백의 <경란후천 은유야랑역구유서회(經亂後天恩流夜郎憶舊游書懷)> 시에 “하늘 위 에 있는 백옥경에는, 열두 개의 누각에다 다섯 성 있네. 신선께서 나 의 이마 쓰다듬으매, 결발할 때 장생 수명 내려 받았네.[天上白玉京 十二樓五城 仙人撫我頂 結髮受長生]”라고 한 데서 온 것이다. 여기서 는 임숙영이 신선이 되어 조찬한 자신에게 장생을 전해 줄 것이라는 뜻이다.

무숙에게 다시 답하는 소서<sup>754</sup> 원서(元序)를 첨부한다. 큰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숙의 글이 당도했기에 첫구에서 운운한 것이다.

再答茂叔小序 附元序. 大雨中, 茂叔書適至, 故首句云云.

비바람이 하늘 뒤흔드니 오색 빛이 용처럼 나는 듯하고, 천둥 소리 공중에 가득한데 주옥 같은 말솜에 놀랐네. 비범한 기운이 가득 피어올라 이미 조화의 자취가 모였고, 상서로운 빛이 번쩍이니 응당 귀신도 울리라. 이에 대우(大禹)가 도끼를 주조하자 소무(小巫)가 옛 걸음을 잃어버렸고,<sup>755</sup> 유능한 장인이 도끼 휘두르

754 무숙에게…소서 : 앞에 실린 〈증별임무숙서(贈別任茂叔序)〉를 받아 본 임숙영이 답서를 보냈고, 이에 조찬한이 다시 이 글을 지어 보낸 준 것으로 보인다.

755 이에…잃어버렸고 : 대우는 임숙영의 학식과 문장을 비유하고, 소무는 여타 재주가 없는 사람들을 비유한다. 우임금이 도끼를 주조한 것은 치수 사업을 할 때 산을 깎기 위해서였다. 《법언(法言)》〈중려(重黎)〉에 “옛날에 사씨(妣氏) 성의 대우(大禹)가 수토를 다스리다 너무 고생한 탓에 걸음걸이가 불편하였는데, 무당들이 걸음을 걸을 때 우임금의 걸음을 따라 했다.[昔者妣氏治水土 而巫步多禹]”라고 하였다. 무당들이 우임금의 걸음을 따라 한 이유에 대해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수토를 다스리고 산천을 건너느라 다리가 아팠기 때문에 걸을 때 절뚝거렸던 것이다. 우임금은 성인이기 때문에 귀신, 맹수, 벌과 전갈, 독사가 해를 끼칠 수 없으니, 속무(俗巫)들이 많이 우임금의 걸음걸이를 흉내내었다.”라고 하였다. 무당들이 우임금의 걸음을 흉내내면 귀신 등과 같은 존재로부터 위해를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원문의 ‘小巫’는 작은 무당을 말하는데, 능력이 작은 사람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서 기가 질려 위축되는 것을 ‘소무견대무(小巫見大巫)’라 하여 작은 무당이 큰 무당을 만나는 경우에 비긴다. 《三國志 卷53 吳

자 서툰 장인 부끄러워 얼굴에 땀이 흘렀음을 알겠네.<sup>756</sup> 공융(孔融)처럼 재주 없으나 이응(李膺)의 수레 몰 만하며,<sup>757</sup> 장의(張儀)는 변설이 있지만 소군(蘇君)이 있는 한 내두르기 어려워라.<sup>758</sup>

書 張紘傳

- 756 유능한…알겠네 : 앞 구절과 마찬가지로 임숙영의 재주를 칭찬한 것이다. 한유(韓愈)의 <제유자후문(祭柳子厚文)>에, “서투른 목수가 나무를 깎으면 손가락에 피가 흐르고 얼굴에 땀이 나는데, 교장(巧匠)은 곁에서 구경하며 손을 옷소매 속에 움츠리고 있다.[不善爲斲 血指汗顏 巧匠傍觀 縮手袖間]” 하였다.
- 757 공융(孔融)은…만하며 : 공융은 조찬한 자신을 비유하고, 이응은 임숙영을 비유한다. 공융과 이응은 모두 후한 말의 명사이다. 공융이 재주가 없다는 표현은 그가 큰 뜻을 품었으나 끝내 실패하여 조조(曹操)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후한서(後漢書)》 권70 공융열전(孔融列傳)에 의하면 “공융은 높은 기개를 자부하여 국가의 위난을 평정하는 데에 뜻을 두었으나, 재주는 거칠고 뜻만 원대하여 끝내 공을 이루지 못했다.[融負其高氣 志在靖難 而才疎意廣 迄無成功]”라고 하였다. 공융이 어렸을 때 당대의 명사 이응(李膺)과 사귀기 위하여 자신의 선조인 공자와 이응의 선조인 노자(老子)가 사우의 관계가 있었다고 말하며, 이응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교유를 맺었다. 《後漢書 卷70 孔融列傳》 수레를 몬다는 말은 상대방을 너무도 사모한 나머지 아무리 친한 일이라도 마다 않고 스승으로 모시겠다는 뜻이다. 《사기》 권62 <관안열전찬(管晏列傳贊)>에 “가령 안자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 있다면 내 비록 그를 위해 말채찍을 잡는다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모시겠다.[假令晏子而在 余雖爲之執鞭 所忻慕焉]”라는 사마천(司馬遷)의 말이 보인다.
- 758 장의(張儀)는…어려워라 : 앞 구절과 마찬가지로 장의는 조찬한 자신을 비유하고, 소군(蘇君) 즉 소진(蘇秦)은 임숙영을 비유한다. 소진과 장의는 전국 시대의 변론가로서, 귀곡자(鬼谷子)의 문하에서 함께 공부하였다. 그런데 소진이 먼저 조(趙)나라에서 유세에 성공하여 출세하게 되었지만, 장의는 초(楚)나라에 가서 유세에 실패하였다. 장의는 성공한 소진을 찾아가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소진은 하인들이 먹는 음식을 주는 등 박대하였다. 이에 장의는 발분하여 진(秦)나라로 떠났는데, 소진은 몰래 사인(舍人)을 보내 그를 돕게 하였다. 마침

[임숙영의 원서<sup>759</sup>]

문장은 화려함 겹쳤으니 채필(彩筆)<sup>760</sup>을 보자 흥금이 열리고, 글자에는 바람 서리 날리니 아름다운 시편 받들고 무릎을 치네. 아직 현포(玄圃)에 노닐지 않았어도 먼저 옥석(玉石)의 빛을 보고,<sup>761</sup> 적성(赤城)에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연하(煙霞)의 풍광을 완상하였네.<sup>762</sup> 비록 팔음(八音)이 교대로 연주하나 금석의 맑고 큰 소리 구분하고,<sup>763</sup> 오색이 서로 드러나나 현황(玄黃)이 찬란하

내 장의도 진나라에 가서 성공하자 그 사인이 떠나면서 소진이 몰래 도와주라고 했던 사실을 말했다. 그러자 장의는 뒤늦게 깨닫고 말하기를 “나를 대신해서 소군에게 감사하다고 전하십시오. 소군이 있는 한 이 장의가 감히 무슨 말을 할 것이며, 소군이 있는 한 이 장의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爲吾謝蘇君 蘇君之時 儀何敢言 且蘇君在 儀寧渠能乎]”라고 하였다.

759 임숙영의 원서 : 《소암집(疏菴集)》 권6에도 <회조현주(回趙玄洲)>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몇 군데 글자의 출입이 있다.

760 채필(彩筆) : 채색 붓이라는 뜻으로, 조찬한의 글을 가리킨다.

761 아직…보고 : 조찬한의 글을 칭찬하는 말이다. 현포(玄圃)는 신선이 산다고 알려진 곳으로, 옥의 산지인 곤륜산(崑崙山) 정상에 있다고 한다. 옥석은 조찬한의 글을 비유한다.

762 적성(赤城)에…완상하였네 : 적성은 절강성(浙江省) 천태산(天台山) 남쪽에 있는 산 이름으로 토석의 색깔이 붉고 모양이 성첩과 같이 생긴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晉)나라 손작(孫綽)의 <천태산부(天台山賦)>에 “적성에 붉은 노을이 일어 표치를 세우고, 폭포는 날아 흘러서 길을 나누었도다. [赤城霞起而建標 瀑布飛流以界道]”라고 한 구절을 차용한 것이다.

763 비록…구분하고 : 모든 음악 소리 가운데 금석(金石)의 소리가 뛰어나듯이, 조찬한의 문장이 독보적이라는 뜻이다. 악기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 금(金), 석(石), 사(絲), 죽(竹), 포(匏), 토(土), 혁(革), 목(木)의 여덟 가지로 나눈 것을 팔음(八音)이라 하는데, 팔음 중 금(金)은 종 따위이고, 석(石)은 석경(石磬)이다.

게 빛남을 알겠네.<sup>764</sup> 선비로서 심약(沈約)이 아니라도 오히려 유협(劉勰)의 글을 이해하고,<sup>765</sup> 학업은 장굉(張紘)에 뒤지더라도 오히려 진림(陳琳)의 부를 읊조린다네.<sup>766</sup>

764 오색이…알겠네 : 앞 구절과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색 가운데 현황(玄黃)이 빛이 찬란하듯이 조찬한의 글이 탁월하다는 뜻이다.

765 선비로서…이해하고 : 심약이 유협의 글을 이해하였듯이, 임숙영도 조찬한의 글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유협은 《문심조룡(文心雕龍)》 50편을 찬술하였는데 고금 문체 및 문(文)의 공拙(工拙)을 논하였다. 유협은 그 글을 가지고 심약에게 평가를 받고 싶었으나, 심약은 당시 지위가 높고 명성이 자자할 때라 글을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심약이 출타하기를 기다렸다가 수레 앞에서 간절하게 요청하니, 심약을 글을 가져다 읽어 보았다. 심약은 그 글을 크게 칭찬하며 문리를 깊이 없었다고 하였고, 항상 궤안에 두어 펼쳐 보았다고 한다. 《梁書 卷50 劉勰傳》

766 학업은…읊조린다네 : 앞 구절과 마찬가지로 장굉은 임숙영 자신에 비유하고, 진림은 조찬한을 비유한 것이다. 삼국 시대 오(吳)나라 장굉(張紘)이 위(魏)나라에서 건안 칠자(建安七子)의 한 사람으로 활약하던 진림(陳琳)의 글을 보고 칭찬하자, 진림이 “나와 같은 작은 무당이 그대와 같은 큰 무당을 보면 신기가 완전히 빠져버리고 만다.[小巫見大巫 神氣盡矣]”고 겸양했다는 고사가 있다. 《通俗編 藝術 小巫》

## 신좌랑을 애도하는 서<sup>767</sup> 이름은 해익이다.

悼慎佐郎序 海翊

대저 난새와 봉황은 절로 하늘끝에서 뛰어난 날개 펴려고,  
규룡과 기린은 어찌 지상의 걸음을 익히려 하랴. 그러나 백안(白案)에서 주경(珠經)을 읽다가 미처 한 글자가 틀린 줄 몰랐으니,<sup>768</sup> 흥진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남은 삼생의 업보 때문이 아니

767 신좌랑(慎佐郎)을 애도하는 서 : 신해익(慎海翊, 1592~1616)은 본관은 거창(居昌), 자는 중거(仲舉), 호는 병은(病隱)으로, 조찬한의 문인이다. 조찬한은 따로 신해익에 대한 애사(哀辭)와 묘갈명(墓碣銘)을 지을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들을 종합해 보면 신해익은 고부(古阜)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형인 신천익(慎天翊, 1592~1661)과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한다. 일찍 부친을 여의고 어머니인 덕수(德水) 이씨(李氏)의 명에 따라 11세부터 조찬한을 따라 8, 9년 동안 수학하였다. 두 형제는 조찬한을 스승으로 모셨고, 조찬한 또한 형제를 자제처럼 여겼다고 한다. 22세가 되던 해 알성시(謁聖試)에서 장원을 차지하며 성균관 전적이 되었다. 그런데 얼마 뒤 병에 걸렸고, 예조 좌랑 겸 춘추관 기사 등 관직을 지내다 25세가 되던 해에 생을 마감하였다. 슬하에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성기(聖夔)이고, 타계 당시 6세였다고 한다. 이상으로 미루어 이 글은 1616년(광해군8) 경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이 글은 임숙영(任叔英)의 《소암집(疏菴集)》 권5에도 〈친신좌랑해익서(悼慎佐郎海翊序)〉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768 그러나…몰랐으니 : 신해익은 본래 신선이었는데 경전 구절을 잘못 읽어 인간 세계로 귀양왔다는 뜻이다. 백안(白案)은 백옥루(白玉樓)에 있는 귀안(几案)으로 신선 세계를 상징하고, 주경(珠經) 역시 도가의 경전을 말한다. 신선 세계에서 경전 구절을 잘못 읽어 인간 세계로 귀양왔다는 표현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소식(蘇軾)의 〈부용성(芙蓉城)〉 시에 “삼세를 왕래하며 공연히 형제만 단련하더니, 끝내 《황정경》을 잘못 읽고 말았네.[往來三世空鍊形 竟坐誤讀黃庭經]”라고

라네.<sup>769</sup> 이에 금성(金聲)과 옥윤(玉潤)은 추수의 정기처럼 영롱하고,<sup>770</sup> 빼어난 난초와 활짝 핀 지초는 하늘거리는 춘풍의 얼굴임을 알겠네. 마침내 초수(菖水) 가에서 춤추다 깃을 다듬고,<sup>771</sup> 요추(瑤楸)를 내달리며 발굽을 높이 쳐들었네.<sup>772</sup> 자원(紫垣)에서 두 괴(斗魁)를 타고 올랐으니 광채는 팔좌의 빛을 빼앗았고,<sup>773</sup> 황지

하였다. 그 주(註)에 “옛날 신선이 《황정경》을 잘못 읽어서 하계(下界)로 귀양 왔다.”라고 하였다. 《東坡詩集註 卷4 芙蓉城》

- 769 흥진…아니라네 : 삼생(三生)은 불교에서 전생(前世)·금생(今生)·후생(後生)을 가리키는 말로, 윤회의 굴레를 끊지 못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의 업보 때문이 아니라 본래 신선이었는데 경전 구절을 잘못 읽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 770 이에…영롱하고 : 금성(金聲)과 옥윤(玉潤)은 군자의 덕(德)이 고상하여 금옥(金玉)과 같다는 말이다. 반고(班固)의 〈동경부(東京賦)〉에 “사람들은 마음 편히 스스로 만족해하고 덕행이 겸비되어서 똑같이 윤택하고 중같이 소리 나지 않은 자가 없다.[莫不優遊而自得 玉潤而金聲]”라고 하였다.
- 771 마침내…다듬고 : 봉황처럼 날아오르기 위해 깃을 다듬고 준비를 한다는 뜻이다. 초수(菖水)는 초계(菖溪)로도 불리는데, 천목산(天目山)의 동쪽에서 발원한 동계(東溪)와 서쪽에서 발원한 서계(西溪)가 합류해서 소매(小梅)를 경유하여 태호(太湖)로 들어간다. 양안에 초화(菖花)가 많이 자라는데, 가을에 이 꽃들이 바람을 타고 물 위로 날리는 것이 마치 비설(飛雪)과 같다 하여 초수(菖水)로 불린다고 한다. 소식의 〈표충관비(表忠觀碑)〉에 “천목산에서 초수가 나오니, 산세가 용이 나는 듯 봉황이 춤추는 듯 임안에 모였네.[天目之山 菖水出焉 龍飛鳳舞 萃于臨安]”라고 하였다.
- 772 요추(瑤楸)를…쳐들었네 : 준마가 도성의 큰 길을 달리듯이, 상경하여 포부를 펼쳤다는 뜻이다. 요추(瑤楸)는 장추(長楸)라고도 하는데, 옛날 중국에서 도성의 대로에 가래나무[楸]를 길게 심었던 데서 도성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소식(曹植)의 〈명도편(名都篇)〉에, “동교 길에서 닭싸움하고, 장추 사이에서 말 달리네.[鬪鷄東郊道 走馬長楸間]”라는 표현이 있다.
- 773 자원(紫垣)에서…빼앗았고 : 과거 시험에 장원으로 뽑혔다는 뜻이다. 자원(紫垣)은 자미원(紫微垣)의 약칭으로 임금의 자리를 비유하고, 두



(黃紙)<sup>774</sup>에 갑과로 천거되니 상서로움은 오색의 구름처럼 이어졌네. 어찌 생각했으랴 우리가 교정(郊亭)에 올라자 적룡(謫龍)이 칠일 만에 다시 올라가고,<sup>775</sup> 매서운 하늘 요동의 화표(華表)에 학이 되어 문득 천년 만에 돌아갈 줄이야.<sup>776</sup> 산은 초평(初平)의 형을 가로막았으니 백석은 누가 양으로 만들 것이며,<sup>777</sup> 하늘은 장길(長吉)의 모친을 만류하고 옥루(玉樓)의 기문을 지으라 재촉하였네.<sup>778</sup> 아, 창해로 인해 봉래 방호는 만 겹이나 가로막혔는데,

괴(斗魁)는 북두칠성을 이르는 말로 덕망과 학식이 출중한 사람을 비유한다.

- 774 황지(黃紙) : 옛날 과거에서 갑과(甲科) 급제자(及第者)의 이름을 황지(黃紙)에 썼던 데서, 즉 갑과 급제자를 말한다.
- 775 어찌…올라가고 : 천상에서 추방되었던 용이 7일만에 다시 올라가듯이 신해익이 하늘로 돌아갔다는 뜻이다. 적룡(謫龍)에 관한 이야기는 유종원(柳宗元)의 <적룡설(謫龍說)>에 나온다. 부풍(扶風)의 마씨(馬氏) 집안 아이가 15, 6세 때 택주(澤州)의 교정(郊亭)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이한 여인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의 친구들이 여인을 희롱하자, 여인이 말하기를 자신은 하늘에서 7일 동안 추방된 몸으로 속계의 인간에게 희롱 당할 이유가 없다고 화를 내었다. 과연 7일 후에 여인은 스스로 구름을 일으켜 백룡(白龍)으로 변한 뒤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 776 매서운…줄이야 : 요동(遼東) 사람 정령위(丁令威)가 신선이 되고 나서 천 년 만에 학으로 변해 화표주(華表柱)로 돌아왔듯이, 신해익도 신선이 되어 돌아갔다는 뜻이다.
- 777 산은…것이며 : 신해익이 죽음으로써 그의 형인 신천익이 아우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뜻이다. 초평(初平)은 황초평(黃初平)을 가리킨다. 그는 단계(丹溪)사람으로, 나이 열다섯에 양을 치다가 도사(道士)를 따라 금화산(金華山) 석실(石室)로 가서 수도(修道)하였다. 40여년 뒤에 형인 초기(初起)가 수소문 끝에 금화산으로 찾아와서 양들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니, 초평이 흰 돌들을 향해 일어나라고 꾸짖자 그 돌들이 수만 마리의 양으로 변했다고 한다. 《神仙傳 黃初平》
- 778 하늘은…재촉하였네 : 장길(長吉)은 당나라의 요절한 천재 시인 이하(李賀)를 가리킨다. 이하가 죽을 무렵에 어느 날 갑자기 비의(緋衣)를

명월은 요대(瑤臺)<sup>779</sup>와 함께 천리에 비추네. 청우(靑牛)와 자기(紫氣)는 이미 관문을 나서 따라갈 수 없고,<sup>780</sup> 하늘과 저승은 바람을 타고서 갈 수 없으니 슬픔이 어찌 끝이 있으랴.

---

입은 사람이 대낮에 나타나서 붉은 용을 타고서 태고 때의 전서(篆書)로 쓴 듯한 판서(版書)를 가지고 이하를 불렀다. 이하가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모친이 늙고 병들어 저는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자,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상제께서 백옥루를 낙성하고 당장 그대를 불러 기문을 짓게 하려는 것이다. 천상이 더 즐거운 곳이니 고통스럽지 않다.[帝成白玉樓 立召君爲記 天上差樂 不苦也]”라고 하였다고 한다. 《昌谷集 李長吉小傳》

779 요대(瑤臺) : 전설 속의 신선의 거처이다. 이백(李白)의 〈청평조(淸平調)〉에 “군옥의 산 정상에서 본 것이 아니라면, 요대의 달빛 아래에서 만난 것이 분명하네.[若非群玉山頭見 會向瑤臺月下逢]” 하였다.

780 청우(靑牛)와…없고 : 노자(老子)가 서쪽으로 길을 떠나 함곡관(函谷關)에 거의 이르렀을 때, 관령(關令) 윤희(尹喜)가 누대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다가, 자기(紫氣)가 관문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고 진인(真人)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얼마 뒤에 과연 노자가 푸른 소를 타고 왔다. 노자는 윤희에게 《도덕경》 오천언(五千言)을 써 주고 관문을 지나 서쪽으로 갔다고 한다. 《列仙傳 上》여기서는 신해익을 관문을 지나 서쪽으로 떠난 노자에 비유하였다.

석주를 애도하는 서<sup>781</sup> 이름은 권필, 자는 여장이다.

哀石洲序 權韞汝章

웅대한 시는 중화에 떨쳐 서북의 지세를 꺾었고, 아름다운 문장은 벽공을 지탱하여 동남의 천륜(天輪)<sup>782</sup>을 일으켰네. 외진 나라에서 대아(大雅)<sup>783</sup>를 처음 회복하였고, 쇠퇴한 풍조에 비로소 우뚝 솟았네.<sup>784</sup> 모든 사물이 횡포에 시달렸으니 조화의 시기를 받음이 마

781 석주(石洲)를 애도하는 서 : 권필(權韞, 1569~1612)은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여장(汝章), 호는 석주(石洲)이다. 정철(鄭澈)의 문인으로, 성격이 자유분방하고 구속받기를 싫어하였으며 시적 재능이 뛰어났다. 광해군의 비(妃) 유씨(柳氏)와 그 아우 유희분(柳希奮) 등 적족의 전횡(專橫)을 못마땅히 여겨 <궁류시(宮柳詩)>를 지어 풍자적으로 비방하자, 이것을 본 광해군이 대노하여 시의 출처를 찾던 중, 1612년(광해군4) 김직재(金直哉)의 옥(獄)에 연루된 조수륜(趙守倫)의 집을 수색하다가 이 시가 발견되어 권필은 친국(親鞫)을 받은 뒤 유배되었다. 귀양길에 올라 동대문 밖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주는 술을 폭음하고 이튿날 44세로 생을 마감했다. 참고로 이 글은 임숙영(任叔英)의 《소암집(疏菴集)》 권5에도 <도권석주서(悼權石洲序)>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782 천륜(天輪) : 천지의 운행이 마치 수레의 바퀴와 같아서 끝과 시작이 계속 순환한다고 생각한 것을 말하는 단어로, 여기서는 하늘을 가리킨다. 《呂氏春秋 仲夏紀 大樂》

783 대아(大雅) : 올바른 시도(詩道)를 말한다. 이백(李白)의 <고풍(古風)>에 “올바른 풍아의 도가 오랫동안 진작되지 않으니, 내 늙어지면 끝내 누구에게 전하라. [大雅久不作 吾衰竟誰陳]”라고 하였다.

784 쇠퇴한…솟았네 : 쇠퇴해진 문단의 풍조에서 가장 으뜸가는 시인이 되었다는 뜻이다. 한유(韓愈)의 <천사(薦士)>에 “국조에 문장이 성대해졌으니, 진자앙이 가장 먼저 창도하였네. [國朝盛文章 子昂始高蹈]”라고 하였다.

땅하고,<sup>785</sup> 삼광이 이 때문에 빛을 잃었으니 마침내 진재(眞宰)가 호소하였음을 알겠네. 때문에 시로 인해 북어(北圜)에 갇혀 정확(鼎鑊) 속의 닭처럼 신음하였고,<sup>786</sup> 한(恨)은 동리(東籬)에 더해져 길이 화정(華亭)의 학을 탄식하였네.<sup>787</sup> 문성(文星)이 천상에서 빛을 감추었으니 자봉(紫鳳)도 아름다운 시문의 뱃속을 떠났고,<sup>788</sup> 주사(酒

- 
- 785 모든…마땅하고 : 우주간의 모든 사물을 포착하여 시의 재료로 삼기 때문에 만류(萬類)가 시인의 붓끝에서 곤혹을 당했다는 뜻이다. 역시 한유의 <천사(薦士)>에 “시도가 발흥하여 이백 두보 얻음에, 모든 사물이 붓끝의 횡포에 시달렸네.[勃興得李杜 萬類困陵暴]”라고 하였다.
- 786 때문에…신음하였고 : 권필이 지은 <궁류시>가 매개가 되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뜻이다. 북어(北圜)는 북시옥(北寺獄)을 가리킨다. 동한(東漢) 때에 황문서(黃門署)에 소속되었던 감옥 명칭으로, 주로 장상(將相) 대신(大臣)들을 추국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옥사(獄舍)의 위치가 북쪽에 있었으므로 북시옥이라 불렸다. 정확(鼎鑊)은 큰 솥을 가리키는데, 고대에는 죄인을 여기에 삶아 죽였다.
- 787 한은…탄식하였네 : 권필이 신선이 되어 영영 떠났다는 뜻이다. 동리(東籬)는 도잠(陶潛)의 시 <음주(飲酒)>에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따다가, 유연히 남쪽 산을 바라보누나.[采菊東籬下 悠然見南山.]” 한 데서 온 말인데, 도연명처럼 국화를 사랑하여 그 곁에서 술마시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요동(遼東) 사람 정령위(丁令威)가 신선이 되고 나서 천 년 만에 학으로 변해 화표주(華表柱)로 돌아왔듯이, 권필도 신선이 되어 돌아갔다는 뜻이다.
- 788 문성(文星)이…떠났고 : 문성은 별 이름으로, 문창성(文昌星) 또는 문곡성(文曲星)이라고도 한다. 문재(文才)를 주관한다고 알려진 별이다. 후에 글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아름다운 시문의 뱃속’은 시문(詩文)이 배 속에 가득 차서 아름다운 시를 잘 지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백(李白)의 <송종제영문서(送從弟舍問序)>에 “자운선 아우가 일찍이 술에 취하여 나를 보고 말하기를 ‘형의 심장을 비롯한 오장은 모두가 비단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입만 열면 글을 이루고 붓만 휘두르면 안개처럼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紫雲仙季常醉目吾曰 兄心肝五臟 皆錦繡耶 不然何開口成文揮翰霧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肆)는 인간 세상에 텅 비었으니<sup>789</sup> 붉은 용 타고 여산을 지나갔다네.<sup>790</sup> 광한전은 구만리 높은 곳에 있기에 바람 수도도 오를 수 없고, 약수(弱水)의 길은 삼천리이니 성사(星槎)를 어찌 띄우랴.<sup>791</sup> 아, 사람은 옛 사람 아니고 경물은 그대로인데 석양에 인적(隣笛) 소리 들려오고,<sup>792</sup> 관새는 어둡고 단풍은 푸르는데 빈 들보 위에 지

789 주사(酒肆)는…비었으니 : 두보(杜甫)의 <금대(琴臺)> 시에 사마상여(司馬相如)를 읊으며 “술집을 인간세에 열었고, 금대에는 저물녘 구름이 떠 있었네.[酒肆人間世 琴臺日暮雲]”라고 하였다. 사마상여는 젊었을 때 임공(臨邛)에서 술집을 열고 탁문군(卓文君)과 장사를 한 적이 있었다. 여기서는 이 표현을 빌려 사마상여가 죽은 뒤 술집의 주인이 사라진 것처럼, 권필 역시 사마상여와 같은 재주를 가지고 있으나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790 붉은…지나갔다네 : 적규(赤虬)은 붉은 규룡으로 전설상 신선이 타는 것이라고 한다. 이 구절은 이백(李白)과 관련된 고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해(北海)에서 온 사람이 전하기를 이백과 한 도사가 높은 산위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한참 뒤에 도사는 푸른 안개 속에서 붉은 용을 타고 떠났는데, 이백도 몸을 솟구쳐 빠른 걸음으로 쫓아가 함께 타고서 동쪽으로 가서 마침내 신선이 되었다고 전한다. 《龍城錄 李太白得仙》이 이야기에 나오는 산을 조찬한은 여산으로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백은 여산에 관련된 시를 여러 수 남기고 있다.

791 약수(弱水)의…띄우랴 : 약수는 신선이 사는 봉린주(鳳麟洲)를 둘러싸고 있다는 전설상의 물 이름으로, 기러기 털도 띄울 수 없을 만큼 물길에 험하여 건너갈 수가 없다고 한다. 《海內十洲記 鳳麟洲》 성사(星槎)는 은하(銀河)를 왕래하는 뗏목으로, 옛날 은하와 황하가 서로 통하여 한나라 때 장건(張騫)이 뗏목을 타고 은하에 이르러 견우와 직녀를 만났다고 전해진다.

792 석양에…들려오고 : 인적(隣笛)은 친하게 지내다 세상을 떠난 사람을 추억하며 슬픔에 잠기는 것을 말한다. 삼국 시대 위(魏)나라 혜강(嵇康)과 여안(呂安)이 사마소(司馬昭)에게 살해된 뒤, 그들의 친구인 상수(向秀)가 혜강이 살던 산양(山陽) 땅을 지나다가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를 듣고는 옛 추억이 떠올라 슬퍼하며 <인적부(隣笛

는 달빛만 바라보도다.<sup>793</sup> 장사는 돌아오지 않는데 찬바람은 노기 일으키며 쉬지 않고,<sup>794</sup> 왕손은 돌아오지 않는데 춘초 돌아난들 그리움 어찌 다하리.<sup>795</sup>

賦))를 지었다는 고사가 전한다. 《晉書 卷49 向秀列傳》

793 관새는…바라보도다 : 이 구절은 두보가 꿈속에서 이백을 만나 그리워한 시 구절을 차용한 것이다. <몽이백(夢李白)>이라는 시에 “그대 혼 올 때 단풍나무 푸르러 보였건만 그대 혼 돌아갈 때는 변방 요새 검어 보이네. 그대는 지금 죄망에 걸렸는데 어떻게 날개가 있어 날아왔다. 지는 달이 들보를 가득 비추니, 그대의 안색 행여 보이는 듯하네. [魂來楓葉青 魂返關塞黑 君今在羅網 何以有羽翼 落月滿屋樑 猶疑照顏色]”라고 하였다.

794 장사는…않고 : 이 구절은 형가(荊軻)가 진시황을 암살하러 떠나서 돌아오지 않은 상황을 가져다 비유한 것이다. 형가가 연(燕)나라를 떠날 적에 역수 가에서 축(筑)의 명인인 고점리(高漸離)의 반주에 맞추어 “바람결 쓸쓸해라 역수 물 차가운데, 장사 한번 떠나가면 다시 오지 않으리. [風蕭蕭兮易水寒 壯士一去兮不復還]”라는 비장한 노래를 부르고 작별한 역수한풍(易水寒風)의 고사가 전한다. 《戰國策 燕策3》

795 왕손은…다하리 : 한(漢)나라 회남 소산(淮南小山)의 <초은사(招隱士)>에 “왕손이 떠나가 돌아오지 않음이여, 봄풀은 자라서 무성하도다. [王孫遊兮不歸 春草生兮萋萋]”라고 하였다. 봄풀이 돌아나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楚辭 卷12 招隱士》

해송위에게 그림을 청하기 위해 급히 붓을 휘둘러 쓴  
서<sup>796</sup> 이름은 윤신지이다.

乞畫于海嵩尉走筆序 尹新之

의장(意匠)을 참담히 하여 어찌 열흘에 산 하나 그리는 수고할  
필요 있으랴,<sup>797</sup> 원기가 넘쳐서 젖어 흐르니 창강의 소나기는 원  
치 않는다네.<sup>798</sup> 빙빙 도는 소용돌이와 얇은 여울에 작은 오리가  
돌면서 봄날 목욕하고, 모래 언덕과 갈대 섬에 떠도는 기러기 놀

796 해송위(海嵩尉)에게…서 : 윤신지(尹新之, 1582~1657)는 본관은 해  
평(海平), 자는 중우(仲又), 호는 현주(玄洲)·연초재(燕超齋)이다. 선  
조와 인빈김씨(仁嬪金氏)와의 소생인 정혜옹주(貞惠翁主)와 결혼하  
여 해송위(海嵩尉)에 봉해졌다. 시서화(詩書畫)에 능하였다.

797 의장(意匠)을…있으랴 : 그림을 부탁하면서 구상을 정밀히 하느라 지  
나치게 고심하지 말라는 뜻이다. 의장(意匠)은 그림을 그릴 때 치밀  
하게 구상하는 것을 말한다. 참담(慘憺)은 이리저리 고심하는 모습이  
다. 두보(杜甫)의 <단청인증조패장군(丹青引贈曹霸將軍)>에 “조서 내  
려 장군에게 그림을 명하니, 의장을 참담히 하여 구상하였네.[詔謂將  
軍拂絹素 意匠慘淡經營中]”라고 하였다. ‘열흘에 산 하나 그린다.’는  
것은 그림의 구상이 정밀하여 가볍게 붓을 대지 못한다는 뜻이다.  
역시 두보의 <희제왕재화산수도가(戲題畫山水圖歌)>에 “열흘에 물  
하나 그리고, 닷새에 돌 하나 그린다. 능한 일에 독촉을 받지 않고서  
야, 왕재는 비로소 진적을 남기려 한다네.[十日畫一水 五日畫一石 能  
事不受相促迫 王宰始肯留真跡]”라고 하였다.

798 원기는…않는다네 : 그림에 이미 원기가 넘쳐흘러 마치 비에 젖은  
듯하니, 비오는 풍경은 그리지 말아달라는 뜻이다. 원기(元氣)는 우  
주간에 있으면서 만물을 생성하는 근본의 정기를 뜻하는데, 여기서  
는 그림 속에 기운을 말한다. 두보의 <봉선유소부신화산수장가(奉先  
劉少府新畫山水障歌)>에 “원기가 뚝뚝 떨어져 병풍이 아직 젖은 것  
은, 조물주가 하늘에 호소하여 하늘이 눈물 흘렸기 때문이라네.[元氣  
淋漓猶濕 眞宰上訴天應泣]”라고 하였다.

라 달빛 아래 울고 가네. 해오라기가 다리를 굽히자<sup>799</sup> 연봉오리  
 꺾이고 잃은 시들며, 가마우지가 물고기 노려보지만 줄 풀은 무  
 성하고 버들 그림자 어둡네.<sup>800</sup> 문노니 청낭(靑囊)<sup>801</sup>을 뒤져 죽은  
 자 일으키는 방법과 비교하면, 붓을 대서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어떠한가. 귀신이 보호하고 신령이 감추지만 목적에 조화의 자취  
 남아 있음을 상상하고, 이름은 높고 평판은 멀어 벽해와 청산처  
 량 우러른다네.

799 다리를 굽히자 : 원문의 ‘拳足’은 한쪽 발을 들고 주먹처럼 말아 쥐는  
 모양을 가리킨다. 이백의 <부득백로사송송소부입삼협(賦得白鷺鷥送  
 宋少府入三峽)>에 “백로는 한쪽 발을 주먹처럼 말고 쥐고 한쪽 발로  
 서 있는데, 달은 밝아 가을 물은 차갑다.[白鷺拳一足 月明秋水寒]”라  
 고 하였다.

800 가마우지가...어둡네 :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노려보지만  
 풀이 무성하고 버드나무 그림자까지 비추어 물 속이 잘 보이지 않는  
 다는 뜻이다.

801 청낭(靑囊) : 의서(醫書) 내지는 약초주머니를 뜻한다.





# 상량문<sub>上梁文</sub>

## 신루상량문

蜃樓上梁文

듣건대, 새가 동지에 살고 짐승이 굴에 살자 부여잡고 오르는 습속이 사라졌고, 나무 위에서 살다가 떨어지고 땅굴에서 살다가 병들자 궁실을 짓는 일이 생겼네.<sup>802</sup> 나라의 기내(畿內)를 천리로 한 것은 주(周)나라에서 제도를 만든 것이요,<sup>803</sup> 흠으로 세 계단의 섬돌을 만든 것은 요(堯)임금이 검소함을 드러낸 것이네.<sup>804</sup> 어찌 사람만 유독 그러하겠는가. 만물에 있어서도 모두 그러하다네. 이 때문에 지극히 미미한 벌과 개미에게도 관청이 있고 나라가 있는데, 어찌하여 교묘하고 지혜로운 누에와 거북은 끝내 스

802 나무…생겼네 : 한유(韓愈)의 <원도(原道)>에 “나무 위에서 살다가 떨어지고 땅굴에서 살다가 병들므로 그런 뒤에 궁실을 지었다.[木處而顛, 土處而病也, 然後爲之宮室.]” 하였다.

803 나라의…것이요 : 《시경(詩經)》 <상송(商頌) 현조(玄鳥)의 “왕기(王畿) 천리여,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로다.[邦畿千里, 惟民所止.]” 하였다.

804 흠으로…것이네 : 《사기(史記)》 권130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 “요순 시대에는 궁궐의 높이가 세 자였고, 흠으로 세 계단의 섬돌을 만들었으며, 지붕을 띠로 이고서 끝을 가지런히 자르지 않았다.[堂高三尺, 土階三等, 茅茨不翦.]”라고 하였다. 궁실이 간소하고 집이 검소함을 뜻한다.

스스로 속박하고 스스로를 가두는가.<sup>805</sup> 마침내 들보가 무너지고 마룻대가 꺾이니 고립된 제비가 군막 위에 거처하는 것<sup>806</sup>을 위로하고, 비둘기가 살고 올빼미가 훼손하도록 내버려두니 까치가 동지 지은 것을 비웃네.<sup>807</sup> 저 어슬렁 거리는 여우를 보건대 끝내 하나의 언덕으로 머리를 향하고 죽고,<sup>808</sup> 이 뛰어나가는 토끼를 돌아

- 
- 805 어찌하여…가두는가 : 황정견(黃庭堅)의 <고의증정언능팔음가(古意贈鄭彥能八音歌)>에 “絲成蠶自縛, 智成龜自囚.” 하였다. 누에가 스스로를 속박한다는 것은 실을 토해 누에고치를 만들어 스스로를 묶어맨다는 것으로, 백거이(白居易)의 <강주부충주지강능이래주중시사제오십운(江州赴忠州至江陵已來舟中示舍弟五十韻)>의 “누에는 고치를 만들어 스스로를 묶어매네.[蠶繭自纏縈.]”라는 시구에서 온 말이다. 거북이 스스로를 가둔다는 것은 《장자(莊子)》에서 온 말이다. 장자가 낚시를 하고 있을 때, 초왕(楚王)이 사자를 보내 초빙하자 장자가 말하기를 “내가 듣자니, 초나라에는 신귀(神龜)가 있어 죽은 지가 3천 년이나 되었는데, 초왕이 이것을 천에 싸서 상자에 넣어 묘당(廟堂)에 간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거북은 죽어서 뼈를 남겨 귀중하게 되기를 바라겠소? 살아서 진펄 속에 꼬리를 끌고 다니기를 바라겠소?” 하고 초왕의 초빙을 거절하였다.《莊子 秋水》
- 806 고립된…것 : 위태로운 처지에 있음을 비유하는 말로, 춘추시대 오(吳) 나라 계절(季札)이 한가하게 음악을 즐기거나 하는 손임보(孫林父)에 대해서 “바람에 떨리는 군막 위에 제비가 둥지를 튼 것과 같다.[猶燕之巢于幕上.]”라고 경고하고 떠난 고사가 있다.《春秋左氏傳 襄公29年》
- 807 비둘기가…비웃네 : 비둘기는 성질이 졸(拙)하여 둥지를 잘 만들지 못하고 간혹 까치가 만든 둥지에 산다고 한다. 《시경》 <소남(召南) 작소(鵲巢)>에 “까치가 지은 집에 비둘기가 들어가서 사네.[維鵲有巢, 維鳩居之.]”라고 하였다. 올빼미는 다른 새의 새끼를 잡아먹고 둥지를 빼앗아 자기 새끼를 기른다고 한다. 《시경》 <빈풍(邠風) 치효(鸛鳴)>에 “올빼미야, 올빼미야, 이미 내 자식 잡아먹었거니, 내 집까지 헐지 말지어다.[鸛鳴鸛鳴, 既取我子, 無毀我室.]” 하였다.
- 808 저…죽고 : 《시경》 <위풍(衛風) 유호(有狐)>에 “여우가 어슬렁거리며 걸어가니 저 기수의 돌다리에 있네.[有狐綏綏, 在彼淇梁.]”라고 하고,

보건대 오히려 세 개의 굴에서 웅크리고 살아가네.<sup>809</sup>

하물며 우리는 수국(水國)의 일민(逸民)이요, 해문(海門)의 성대한 족속으로, 하백(河伯)에게 명을 받고 파신(波臣)과 이웃하고 있네.<sup>810</sup> 용백국(龍伯國) 사람이 자라를 낚을 때에 옛 거처를 잃을까 근심했으나,<sup>811</sup> 우(禹)임금이 무지기(巫支祁)를 가둔 날에 이르러서는 끝내 다행히도 살 곳이 안정되었네.<sup>812</sup> 자손이 이로써 많아지고, 친척이 이로 인해 번성하니, 화목한 풍속은 같은 집에 사는 친족이 구세(九世)를 넘을 정도였고,<sup>813</sup> 화합하는 의리는 사해

---

《예기》〈단궁 상(檀弓上)〉에 “여우가 죽을 때에는 머리를 바꾸어 언덕 쪽을 향한다.[狐死正丘首]”라고 한 구절을 원용한 것이다.

809 이…살아가네 : 토끼는 뜻밖의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 항상 세 개의 탈출구를 미리 파 놓는다고 한다. 《전국책(戰國策)》〈제책(齊策)〉에 “피 많은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파 놓고서 죽음을 면할 방도를 강구한다.[狡兔有三窟，僅得免其死耳.]”라고 하였다.

810 하백(河伯)에게…있네 : 하백은 전설 속의 황하(黃河)의 신이고, 파신은 동해에 산다고 하는 수족(水族)의 신이다. 《莊子 秋水》《莊子 外物》

811 용백국(龍伯國)…근심했으나 : 옛날 발해의 동쪽에 신선이 사는 다섯 개의 산이 조류(潮流)에 떠밀려 표류하자, 천제(天帝)가 큰 자라 열다섯 마리로 하여금 교대로 머리를 쳐들고 그 산들을 떠받치게 하였다. 그런데 용백국(龍伯國)의 거인이 한 번 낚시질하여 여섯 마리를 연달아 낚아 올려 등에 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바람에, 두 개의 선산(仙山)은 북극에 떠밀려 가거나 바다에 가라앉고, 방호(方壺)·영주(瀛洲)·봉래(蓬萊) 세 개의 선산을 아홉 마리의 자라가 교대로 머리에 이고 있다고 한다.《列子 湯問》

812 우(禹)임금이…여겼네 : 옛날 우(禹)가 홍수를 다스릴 때에, 동백산(桐柏山)에서 무지기(巫支祁)라는 물귀신을 잡아 경진(庚辰)이라는 신에게 맡겨 제어하게 하니, 경진이 그를 귀산(龜山) 밑에 묶어두고 꼼짝 못 하게 하자, 회수(淮水)가 비로소 순하게 흘렀다고 한다.《太平御覽 882 神鬼部2》

813 화목한…정도였고 : 당(唐)나라 때 장공예는 구세(九世)의 친족이 한

를 한 집안으로 삼을 정도였네. 그러나 비바람이 일지 않으니 교통의 기이함을 누가 알겠는가. 신령한 상서 드러나지 않으니 소라·조개와 똑같이 여기네. 어찌 신령한 자손이 보호받지 못하고 어진 후손이 아무데나 섞여 살게 하여, 항상 파도를 따라가고 물거품을 쫓으며 풍찬노숙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이에 응룡(應龍)<sup>814</sup>에게 자문하여 터를 닦게 하고 원귀(元龜)<sup>815</sup>에게 의논하여 날을 택했네. 큰 고래는 수염을 누이고 날뛰지 않고, 거대한 곤어(鯀魚)는 지느러미 움츠리고 활개치지 않으며, 능어(鯪魚)<sup>816</sup>가 옆드리자 파도가 그치고 상양(商羊)<sup>817</sup>이 숨자 물결이 잠잠해졌네. 기상(旂常)<sup>818</sup>이

---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고종(高宗)이 그 집을 방문하여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방도를 묻자 참을 ‘인(忍) 자 100개를 써서 바쳤다 한다. 《小學 卷6 善行》

- 814 응룡(應龍) : 고대 전설에 나오는 날개 달린 용으로, 우 임금이 홍수를 다스릴 때 응룡이 꼬리로 땅을 구획하여 강하를 나누어서 물이 바다로 흐르게 하였다고 한다. 《楚辭 天問》
- 815 원귀(元龜) : 고대에 점을 칠 때 사용했던 신령한 거북이다. 《서경》〈금등(金縢)〉에 “지금 내가 원귀에게 명을 받겠다.[今我即命于元龜]”라고 하였는데, 그 주에 “큰 거북에게 나아가 삼왕(三王)의 명을 받아 길흉을 점쳐 보겠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816 능어(鯪魚) : 전설 속에 나오는 괴이한 물고기로, 사람의 얼굴, 사람의 손·발에 물고기의 몸통을 지닌 물고기라고 한다. 《山海經 卷12 海內北經》
- 817 상양(商羊) : 큰비가 올 무렵이면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춤을 춘다는 전설상의 새 이름이다. 한(漢)나라 왕충(王充)의 《논형(論衡)》 15권 〈변동(變動)〉에 이르기를, “상양은 비가 오기 전에 먼저 아는 새이다. 비가 오려고 하면 한쪽 발을 굽히고 일어나서 춤을 춘다.[商羊者, 知雨之物也. 天且雨, 屈其一足起舞矣.]”라고 하였다.
- 818 기상(旂常) : 교통(交龍)을 그린 깃발을 기(旂)라 하고, 일월(日月)을 그린 깃발을 상(常)이라고 하는데, 모두 왕후(王侯)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옛날 공신(功臣)의 업적을 여기에 기록하였다고 한다. 《周禮 春官宗伯 司常》

엄숙히 정돈되자 양후(陽侯)<sup>819</sup>가 모여서 신령함을 돕고, 정독(旌纛)<sup>820</sup>이 위의를 갖추자 해동(海童)<sup>821</sup>이 달려가 공역에 복무하네. 금고(琴高)<sup>822</sup>와 곽색(郭索)<sup>823</sup>이 모두 와서 모이고, 참군(參軍)과 주부(主簿)<sup>824</sup>가 서로 더불어 도모하네.

저 흙과 나무로 만들고 단청으로 장식한 것을 생각해 보건대, 우주가 생긴 이래로 얼마나 많은 누대가 있었던가. 우뚝하고 높다, 아득한 천상의 열두 누대여.<sup>825</sup> 얼마나 오래 되었는가, 길 옆에서 3년이 되도록 완성하지 못한 것 괴이하도다.<sup>826</sup> 서까래에

819 양후(陽侯) : 고대 전설 속에 나오는 파도의 신이다. 원래 능양국(陵陽國)의 왕이었는데 물에 빠져 죽은 뒤 큰 물결을 일으켜서 해를 입힐 수 있었기 때문에 물결을 ‘양후의 물결[陽侯之波]’이라고 일컫게 되었다고 한다. 《淮南子 覽冥訓 高誘注》

820 정독(旌纛) : 정(旌)은 기(旗)이고 독(纛)은 큰 기를 말하는데, 높은 관리가 수레에 다는 장식이었다.

821 해동(海童) : 전설에 나오는 바다의 신동(神童)이다.

822 금고(琴高) : 주(周)나라 때에 잉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선인(仙人)의 이름으로, 훗날 잉어를 가리키게 되었다.

823 곽색(郭索) : 게의 별칭이다.

824 참군(參軍)과 주부(主簿) : 참군은 큰 자라[鼈]를, 주부는 자라[鼈]를 가리킨다. 조찬한의 〈신루기〉에 “참군인 신 원(鼈)과 주부인 신 별(鼈)이[參軍臣鼈, 主簿臣鼈]”라는 구절이 있다. 《玄洲集 卷15 蜃樓記》

825 아득한…누대여 : 고대 전설 속의 신선이 사는 거처를 이르는 말이다. 이백(李白)의 〈경란후천은유야랑역구유서회(經亂後天恩流夜郎憶舊游書懷)〉에 “하늘 위에 있는 백옥경에는 열두 누대에 다섯 성이 있네.[天上白玉京, 十二樓五城.]” 하였다.

826 길…괴이하도다 : 의견이 분분하여 집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후한서(後漢書)》 권35 〈조포열전(曹褒列傳)〉에 “속담에 이르기를 ‘길옆에 집을 지으면 3년이 걸려도 완성할 수 없고 예(禮)를 따지는 사람이 모인 것을 이룸하여 취송이라 한다.[作舍道邊 三年不成 會禮之家 名爲聚訟]’ 하였다.

조각하고 기둥에 단칠한 것은 이미 《춘추》에서 비판 받았고,<sup>827</sup> 두공(斗栱)에 산 무늬를 새기고 등자기둥에 수초를 그린 것도 공자에게 책망 받았네.<sup>828</sup> 석달 동안 불에 탄 아방궁(阿房宮)<sup>829</sup>은 이미 볼 수 없고, 천 년을 지낸 영광전(靈光殿)<sup>830</sup>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반수(班輸)<sup>831</sup>의 조각칼과 왕견(王繭)<sup>832</sup>의 곱자·먹줄로 도끼질하고 톱질하느라 얼마나 번거로웠던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예장(豫樟)<sup>833</sup>과 들레가 몇 아름이나 되는 구기자나무·가래나

- 
- 827 서까래에…받았고 : 《춘추좌씨전》노장공(魯莊公) 24년 조에 “24년 봄에 묘(廟)의 서까래에 조각을 하였으니 모두 예가 아니다.[二十四年春, 刻其桷, 皆非禮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두예의 주에서 “묘(廟)의 서까래에 붉은 칠을 한 것과 함께 모두 예가 아니기 때문에 ‘皆’라고 말한 것이다.[并非丹楹, 故言皆.]” 하였다.
- 828 두공(斗栱)에…받았네 : 《논어》〈공야장(公冶長)〉에 “장문중이 큰 거북의 등 껍질을 보관하되, 기둥머리 두공(斗栱)에 산 모양을 새기고 들보 위 등자기둥에는 수초(水草)를 그렸으니, 어찌 지혜롭다 하겠는가.[臧文仲居蔡, 山節藻梲, 何如其知也.]”라는 공자의 비평이 있다.
- 829 석달…아방궁(阿房宮) : 항우가 진(秦)의 수도 함양(咸陽)을 정복하고 아방궁을 불살랐는데, 궁궐이 너무도 커서 그 불길이 석 달 동안 꺼지지 않았다 한다. 《史記 卷7 項羽本紀》
- 830 천…영광전(靈光殿) : 영광전은 한 경제(漢景帝)의 아들 노공왕(魯恭王)이 세운 궁전 이름이다. 노공왕이 영광전을 비롯해 많은 궁전을 세웠으나, 한나라의 국력이 쇠약해지자 도적의 침해로 인해 다 무너지고 영광전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文選 卷11 魯靈光殿賦》
- 831 반수(班輸) : 원문은 ‘班錘’인데, 문맥에 근거하여 ‘錘’를 ‘輸’로 바로 잡아 번역하였다. 반수는 춘추 시대 노(魯)나라의 뛰어난 기술자였다는 공수반(公輸班)을 가리킨다. 《孟子 離婁上》일설에는 반(班)은 노반(魯班), 수(輸)는 공수(公輸)라고 한다.
- 832 왕견(王繭) : 왕견은 고대 뛰어난 기술자인 왕이(王爾)를 가리킨다. ‘繭’과 ‘爾’의 글자 모양이 비슷하여 와전된 것이다. 송옥(宋玉)의 〈적부(笛賦)〉에 “왕이(王爾)와 공수(公輸)의 무리로 하여금 묘한 뜻을 합하고 솜씨를 겨루어서 피리를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 833 예장(豫樟) : 상록 교목인 녹나무로, 훌륭한 재목을 말한다. 《술이기

무로 부질없이 수고롭게 애써 일했네. 처마·가로보·문미와 비침(飛檐)·대들보·마룻대·추녀끝을 나누어 만드느라 근육이 수고롭고 뼈가 고단하게 하였으며, 두공·동자기둥과 지 문지도리·문설주를 세우고 엮느라 부질없이 손가락에 피흘리고 얼굴에 땀 흘렸네. 허물어지고 깨진 담장이 매번 병화의 참혹함을 만났으니, 무너지고 떨어진 서까래와 기와가 어찌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들의 사슴이 짝을 먹고 대쭉을 먹으니, 누가 고소대(姑蘇臺) 위인줄 알겠는가.<sup>834</sup> 봄의 제비가 날아왔다 날아가니, 왕씨(王氏)와 사씨(謝氏)의 집 앞에 찾아갈 수 없네.<sup>835</sup> 모두 헛되이 수고롭기만 하고 공이 없었으며, 이 모든 것이 짓기는 어려웠으나 무너지기는 쉬웠네.

무엇이 장석(匠石)<sup>836</sup>이 번거롭게 지시하지 않아도 신묘한 기계

---

(述異記)에 “예장은 7년을 자라야 알아볼 수 있다. 한 무제(漢武帝) 보정(寶鼎) 2년에 예장관(豫樟官)을 설치하고 곤명지(昆明池) 가운데에 예장전(豫樟殿)을 건축하였다.” 하였다.

834 들의…알겠는가 : 춘추시대 오왕(吳王) 부차(夫差)가 미인 서시(西施)를 위해 고소대(姑蘇臺)를 세우고는 날마다 이곳에서 노닐며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이에 오자서(伍子胥)가 간절히 간했는데도 듣지 않자, 오자서가 “이제 곧 고소대에 사슴이 노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今見麋鹿遊姑蘇之臺.]”라고 경고했는데,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월(越)나라에 망했다. 《史記 卷118 淮南衡山列傳》

835 봄의…어렵네 : 왕씨(王氏)와 사씨(謝氏)는 중국 육조(六朝) 때의 망족(望族)이다. 유우석(劉禹錫)의 <오의항(烏衣巷)> “옛날에 왕씨 사씨 집 앞에 살던 제비, 평범한 백성 집에 날아드네.[舊時王謝堂前燕, 飛入尋常百姓家.]”라고 하였는데, 이는 한때는 거족들이 살면서 번성했던 오의항이 지금은 쇠락하여 쓸쓸해진 것을 읊은 것이다.

836 장석(匠石) : 장석은 옛날의 유명한 장인(匠人)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코끝에 발라진 백토를 도끼를 휘둘러 깎아 내도 코가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 《莊子 徐无鬼》



가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만 하겠으며, 무엇이 직방(職方)<sup>837</sup>이 부지런하게 터를 살펴보지 않아도 현묘한 계획이 묵묵히 이루어지는 것만 하겠는가. 진(晉)나라의 흙, 위(魏)나라의 재목, 초(楚)나라의 느릅나무와 녹나무, 촉(蜀)나라의 삼송나무를 쓰지 않고도 온갖 준비물이 다 펼쳐지고, 순(舜)임금의 도자기 빛는 솜씨,<sup>838</sup> 부열(傅說)의 건축술,<sup>839</sup> 왕승복(王承福)의 흙손질,<sup>840</sup> 혜강(嵇康)의 단야(鍛冶)<sup>841</sup>를 쓰지 않고도 공용(功用)이 절로 충분하고, 서주(犀珠)<sup>842</sup>·진주와 보배·옥 귀고리·벽옥으로 현란하게 장식하지 않아도 화려한 광채가 눈에 가득하며, 자황(雌黃)·흰 수정·주석·벽옥·금·은으로 휘황찬란하게 조각하지 않아도 상서로운 빛이

- 
- 837 직방(職方) : 주대(周代)의 관직으로, 천하의 지도(地圖)와 공물(貢物)을 관장하였다. 《周禮 夏官司馬 職方氏》
- 838 순(舜)임금의…솜씨 : 순임금은 서민의 신분으로 산속에서 밭 갈고 도자기를 굽는 등 여러 생업에 종사하다가 요 임금에게 발탁되어 황제의 지위를 선양받았다.
- 839 부열(傅說)의 건축술 : 부열은 중국 고대 은(殷)나라의 재상이다. 《서경(書經)》〈열명 상(說命上)〉에 “열이 부암의 들판에서 성을 쌓는 일을 하고 있었다. [說築傅巖之野]”라고 나온다. 부암은 옛날 지명으로 부열이 노예 생활을 할 때 그곳에서 토목공사 일을 하였는데, 은(殷)나라 고종(高宗)에게 등용되어 재상이 되었다.
- 840 왕승복(王承福)의 흙손질 : 원문은 ‘王之朽壤’인데, 문맥에 근거하여 ‘朽’를 ‘朽’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왕승복은 한유의 글에 나오는 인물로, 안사의 난 때 13년간 종군한 뒤 고향에 돌아오자 전지(田地)가 이미 다 없어졌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30년 동안 미장이 일을 하였다. 《韓昌黎集 卷12 圻者王承福傳》
- 841 혜강(嵇康)의 단야(鍛冶) : 혜강은 성품이 공교하여 쇠를 달구어 기물 만들기를 즐겨하여, 여름이면 집 마당의 큰 버드나무 아래에 앉아 풀무질하면서 기물을 만들었다고 한다. 《晉書 卷49 嵇康列傳》
- 842 서주(犀珠) : 한 나라 마원(馬援)이 남만(南蠻)을 평정하고 돌아오면 서 약용으로 의의(薏苡)를 싣고 왔더니, 증상한 자가 남만의 보물인 문서(文犀)와 명주(明珠)를 싣고 왔다고 말하였다.

정신을 흔드네. 어찌 뚱뚱, 찡찡, 탁탁, 영차영차 일하여 깊고 웅장하며 넓고 장엄한 아름다움을 이를 필요가 있겠는가. 마침내 파도가 평온해지는 때를 틈타고 바다가 고요해지는 때를 엿보며, 풍광이 조화로워지는 때를 살피고, 날씨가 화창할 때를 점쳤네. 열은 노을이 걷히자 자욱히 아침해가 윤곽을 드러내고, 옆계 긴 구름 흩어지자 아득히 하늘이 맑게 갰네. 수부(水府)<sup>843</sup>에서 정기를 드날리고 하늘 끝에서 구상을 하였네.

잠시 후 신령한 기운을 두드리고 불어서 상서로운 운무를 토해 내 땀으니, 땅이 없는데도 누대가 일어나고 하루도 안 되어 누대가 완성되었네. 누대의 모습 얼마나 위엄있는가. 마치 귀신이 운집한 듯하네. 거미줄이 하늘에서 노닐자 비로소 잠깐 모였다 금방 흩어지고, 조개 궁궐이 일렁이는 파도에서 숫자 점점 가까워졌다 멀어지네. 비로소 고개를 돌리는 사이에 누대가 세워져, 마침내 눈 깜박할 사이에 완성되었네. 아, 두려워하고 깜작 놀라다. 풍성한 담과 거대한 진(鎭)은 만 길의 그림자를 드리우니, 여섯 자라가 산을 이고 있는 것처럼 장대하고,<sup>844</sup> 붉은 기둥과 분칠한 주춧돌은 아홉 겹 깊은 하늘까지 광채가 뻗치니, 다섯 용이 태양을 끼고 나는 것처럼 황홀하네.<sup>845</sup> 이슬을 받았던 선인(仙人)의

843 수부(水府) : 해신(海神)이나 용왕(龍王)이 산다고 하는 바닷속의 궁전을 가리킨다.

844 여섯...장대하고 : 전설에 다섯 개의 선산(仙山), 즉 대여(岱輿)·원교(員嶠)·방호(方壺)·영주(瀛洲)·봉래(蓬萊)를 천제가 여섯 마리 자라로 하여금 머리에 이고 있게 하였다고 한다. 《列子 湯問》

845 다섯...황홀하네 : 적인걸(狄仁傑)이 세운 공에 대하여 여온(呂溫)이 “은밀히 오룡(五龍)에게 방략(方略)을 주어서 태양을 끼고 날았네. [潛授五龍, 夾日以飛.]”라는 찬(贊)을 남겼는데 세상에서 이를 명언이라 여겼다고 한다. 《新唐書 卷115 狄仁傑列傳》

손바닥을 비루하게 여기고<sup>846</sup> 태액지(太液池)를 뛰어넘고 건장궁을 떨쳐내고,<sup>847</sup> 천극(天極)의 각도성(閣道星)을 본떠서 은하(銀河)를 가로질러 영실성(營室星)에 닿게 하였네.<sup>848</sup> 교량(橋梁)과 같아 남녘가 건너 다니니 항주(杭州)의 소공제(蘇公堤)<sup>849</sup>에 견줄 바가 아니요, 성시(城市)와 같아 말을 타고 소를 끌고 다니니 임치(臨淄)와 한단(邯鄲)<sup>850</sup>에 비길 바가 아니네. 낚시꾼들이 멀리서 바라보나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니 흡사 진(秦)나라 동자가 약초를 캐

- 
- 846 이슬을…여기고 :神明대(神明臺)를 가리킨다. 한 무제(漢武帝)가 신선술에 미혹되어 감로(甘露)를 받아 마셔 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하여 건장궁(建章宮)에神明대를 세우고 동으로 선인(仙人)의 손바닥 모양을 만들어 세워 동반(銅盤)을 떠받치고서 감로를 받게 하였다. 《漢書卷25 郊祀志上》
- 847 태액지(太液池)를…떨쳐내고 : 태액지는 한 무제(漢武帝)가 세운 궁원(宮苑) 안의 못이고, 건장궁은 한(漢)나라 무제(武帝) 태초(太初) 연간에 장안에 건립한 궁전이다.
- 848 천극(天極)의…하였네 : 천극(天極) 뒤에는 17개의 별이 있는데, 은하(銀河)를 끊어 영실에 이어지는 것을 각도(閣道)라 한다. 북쪽에 있는 별을 천극이라고 한다. 영실에 있는 별 두 개는 천자의 궁이다. 각도성(閣道星)은 규수(圭宿)에 속하고 6개의 별을 갖고 있다. 영실(營室)은 처음에는 영(營)과 벽(璧) 두 수(宿)를 포함하였으나, 후에는 오로지 영수(營宿)만을 가리키게 되었다. 고대인들은 영실의 두 별을 천자의 궁이라고 생각하였다.
- 849 소공제(蘇公堤) : 절강성(浙江省) 항주시(杭州市) 서호(西湖)에 있는 방죽 이름이다. 소식(蘇軾)이 항주 자사(杭州刺史)로 있을 때 서호를 파 그 진흙으로 제방을 만들었는데, 남쪽 남병산(南屏山)에서 시작하여 북쪽 악왕묘(岳王廟)까지 가로질러 막아 서호를 안팎의 호수 두 개로 만들었다. 그 사이에 여섯 개의 다리가 놓여 있고 길 양쪽에 화류(花柳)를 잡다하게 심어 놓았으므로 육교연류(六橋烟柳)라는 호칭이 붙었다.
- 850 임치(臨淄)와 한단(邯鄲) : 임치는 춘추 전국시대 제(齊)나라의 수도이고, 한단은 조(趙)나라의 수도이다.

러 봉래산으로 향한 것<sup>851</sup>과 같고, 어부들이 다투어 보지만 가벼이 지나가지 못하니, 도리어 한(漢)나라 사신이 뗏목을 타고 직녀를 엿본 것<sup>852</sup>과 같네. 유리·완염(琬琰)·마노(瑪瑙) 등의 보석이 찬란히 빛을 발하고,<sup>853</sup> 낭간(琅玕)·대모(玳瑁)·산호(珊瑚) 등의 보배가 조화롭게 섞여 있네. 비틀거리고 절뚝거리 호인(胡人)이 멀리서 와서 모여 기둥을 들고 있는 듯하고, 아리뭇고 화사하여 옥녀(玉女)가 창을 통해 내려다 보는 듯하네. 서왕모(西王母)가 현포(玄圃)에 내려온 듯 하니 요지(瑤池)에서 노닐던 것처럼 황홀하고,<sup>854</sup> 천자가 하늘에서 거니는 듯하니 은교를 건넌던 일 방볼케 하네.<sup>855</sup>

- 
- 851 진(秦)나라…것 : 서불(徐市)이 진 시황(秦始皇)에게 글을 올려 말하기를, “해중에 삼신산이 있으니, 봉래·방장·영주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신선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진 시황이 서불로 하여금 동남(童男), 동녀(童女) 각각 5백 명씩을 거느리고 불사약(不死藥)을 구하기 위해 동해의 봉래산으로 뱃길을 떠나도록 하였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史記 卷6 秦始皇本紀》
- 852 한(漢)나라…것 : 한무제 때 장건(張騫)이 서역에 사신으로 나가서 황하의 근원을 찾을 적에, 배를 타고 은하수로 올라가서 견우(牽牛)와 직녀(織女)를 만났다고 한다. 《天中記 卷2》
- 853 유리…발하고 : 유리와 마노는 불교에서 말하는 칠보(七寶)에 속하는 보석이고, 완염은 옛날 주(周)나라 묘당(廟堂)의 서쪽 행랑에 비치했던 보옥(寶玉)이다.
- 854 서왕모(西王母)가…황홀하고 : 현포는 곤륜산(昆侖山) 위에 있는 정상에 있는 신선의 거처로, 금대(金臺), 옥루(玉樓)와 기화요초(琪花瑤草)가 있었다고 한다. 요지는 곤륜산 위에 있는 전설 속 연못으로 서왕모가 사는 곳이라고 한다. 주 목왕(周穆王)이 서쪽으로 요지 가에 이르러 서왕모를 만났다고 한다. 《列子 周穆王》
- 855 천자가…하네 : 당나라 도사(道士) 나공원(羅公遠)이 증추절에 계수나무 석장을 공중에 던져 은빛 다리를 만들어, 현종과 함께 이 다리를 타고 월궁(月宮)에 올라 선녀들의 춤을 구경하고 <예상우의곡>을 들었다. 《說郛》《古今事文類聚 前集 卷11 銀橋升月宮》

눈앞에 우뚝히 백 척 높이로 솟으니 온통 붓을 대지 않은 살아 있는 병풍 같고, 공중에 천만층의 누각이 걸려 있으니 참으로 잠 들지 않고도 꾸는 기이한 꿈 같네. 바다 위에 누가 천하를 집으로 삼는가. 세상 밖에 다시 인간 세상이 있도다. 위대하도다, 넓고 아득하여 이름할 수 없음이여. 사물마다 조각하고 아로새긴 것 아니라네. 잠깐 사이에 온갖 형상 만들어내고, 순식간에 하나의 구역을 빚어냈네. 조화옹이 손을 놓고 곁에서 바라보며 일과 공효가 빠르고 신속함에 감탄하고, 천공(天公)<sup>856</sup>이 혀를 내두르고 내려다보며 교묘한 솜씨를 펼쳐 기이하게 변화시킴을 가상히 여기네. 높고도 훌륭하니<sup>857</sup> 공은 더할 나위 없고, 아름답고 수려하니 덕은 견줄 것이 없도다. 이에 완공을 축하하는 작은 정성을 올려 감히 들보의 높음을 찬송하노라.

어영차 들보 동쪽으로 떡을 던지니	兒郎偉拋梁東
해가 부상 <sup>858</sup> 에서 나와 온 세상이 붉네	日出扶桑萬國紅
영대를 처음 만들자 높이 솟아 우뚝하고	經始靈臺高崑嶼
천 길 뻗은 서광이 구천을 관통하네	瑞光千尺九天通

856 천공(天公) : 하늘을 의인화 한 것으로, 조화옹과 마찬가지로 조물주를 의미한다.

857 높고도 훌륭하니 : 《예기》〈단궁 하〉에 진(晉)나라 문자(文子)가 집을 완성하자 장로(長老)가 송축하여 말하기를 “아름답다. 높기도 하고 훌륭하기도 하구나. 기쁜 일이 있으면 이곳에서 노래하고 상사가 있으면 이곳에서 곡하며, 또한 국민과 종족을 이곳에 모으리로다.[美哉輪焉, 美哉奐焉, 歌於斯, 哭於斯, 聚國族於斯.]” 하였다.

858 부상 : 부상은 동녘의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 있다는 전설상의 나무이다.

어영차 들보 서쪽으로 떡을 던지니 兒郎偉拋梁西  
구름 개이고 안개 걷히어 옥승<sup>859</sup>이 나직히 있네 雲開霧廓玉繩低  
단청과 금벽에 광채가 찬란하고 丹青金碧光凌亂  
그림자 드리운 용궁에 온갖 기와 가지런하네 影醮龍宮萬瓦齊

어영차 들보 남쪽으로 떡을 던지니 兒郎偉拋梁南  
대붕이 다 날아감에 물이 쪽빛이네 大鵬飛盡水如藍  
겹겹의 성과 집이 모두 장엄하게 있고 重城複屋都居壯  
아득한 붉은 노을이 푸른 산봉우리 비추네 杳若丹霞映翠嵐

어영차 들보 북쪽으로 떡을 던지니 兒郎偉拋梁北  
바람이 돌아가고 비가 그쳐 파도가 잠잠하네 風回雨止波濤息  
유무와 성쇠가 혼돈[混茫]<sup>860</sup> 중에 있고 有無成毀混茫中  
온갖 신령 다 나오자 모두들 물러서네 百靈畢出皆辟易

어영차 들보 위로 떡을 던지니 兒郎偉拋梁上  
구불구불 긴 용이 광대한 곳으로 날아오르네 屈曲脩龍騰溔蕩  
주렴과 채색 기둥이 멀리서 아른거리고 珠簾畫棟遠依微

859 옥승(玉繩) : 옥승은 별 이름으로 새벽이 올 무렵에 이 별이 끊어진다고 한다. 두보의 <대운사찬공방(大雲寺贊公房)>에 “옥승은 아스라이 끊어지고 철봉은 삼연(森然)히 나는구나.[玉繩迥斷絕，鐵鳳森翱翔.]” 하였다.

860 혼돈[混茫] : 원문 ‘혼망(混茫)’은 혼망(混芒)으로도 쓰는데, 천지가 아직 분화되기 이전 일체의 구분이 없는 혼돈(混沌) 상태를 가리킨다. 《장자(莊子)》<선성(繕性)>에 “옛사람들은 구별이 없는 혼돈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담박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古之人，在混茫之中，與一世而得澹漠焉.]”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바다 빛깔과 신이한 광채가 서로 넘실거리네 海色神光相滉漾

어영차 들보 아래로 떡을 던지니 兒郎偉拋梁下  
진짜였다 가짜였다 잠깐 사이에 나타났다 사라지네 眞僞旋隨明滅乍  
형체가 기에서 나오고 기가 허에서 나오니 形從氣出氣從虛  
귀신도 아니요 환영도 아니라네 非鬼非神非幻化

삼가 바라건대, 들보를 올린 뒤에 하늘에는 세찬 바람과 굶은 비 없고 바다에는 높은 파도와 드센 물결 일지 않아, 이 누대에 올라 바라보며 길이 무위지치(無爲之治)<sup>861</sup>의 세상을 누리고, 이 방에 들어가 거처하여 영원히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鄉)<sup>862</sup>에 살게 하소서.

---

861 무위지치(無爲之治) : 당요(唐堯)와 우순(虞舜)이 다스리던 시대를 가리킨다. 《주역》〈계사전 하(繫辭傳下)〉에 “황제와 요·순은 의상을 드리운 채 편안히 앉아 있었으나 천하가 지극히 잘 다스려졌다.[黃帝, 堯, 舜, 垂衣裳而天下治.]” 하였다.

862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鄉) : 유무(有無)와 시비(是非) 등 모든 대립적 요소가 사라진 이상향(理想鄉) 뜻한다.

## 회양향교상량문

淮陽鄉校上梁文

삼가 생각건대, 도를 수호하고 교화를 진흥하는 것은 모두 학궁(學宮)에 근원을 두고, 경건하게 영령을 봉안할 적엔 반드시 먼저 사당을 엄숙하게 해야 하니, 지금 기필코 개수하여 지으려는 것은 또한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로다. 이 향교를 처음 세운 것과 난리를 겪은 뒤에 중건하는 것을 돌아보니, 비록 물력의 부족 때문이기는 하나 어찌 토목공사를 치밀하게 하지 못했는가. 이미 좁고 비루하여 성인의 혼령을 편안히 모시지 못하고, 또 낮고 기울어져 전복되기 쉽네. 터가 기울어 물에 침식되어 기둥과 주춧돌이 이로 인해 내려앉았고, 비가 새고 바람이 흔들여 들보와 서까래가 갑자기 무너졌네. 기와가 무너지고 흙이 붕괴하는 우환이 조만간 닥칠 것이니, 분향(焚香)과 석채(釋菜)<sup>863</sup>의 의례를 끝내 제대로 치르지 못할 지경에 처했네. 삼간사표(三間四表)<sup>864</sup>의 제도가 매몰되고 인멸되어 형체가 없으니, 오성(五聖)·십철(十

---

863 석채(釋菜) : 석전제(釋奠祭)를 가리킨다.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문묘에서 공자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으로, 소나 양의 희생을 생략하고 채소 따위로 간소하게 지내는 것을 말한다.

864 삼간사표(三間四表) : 사당의 방을 세칸으로 하고, 사면(四面)에 담장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문선(文選)》 권11 <영광전부(靈光殿賦)>에 “방은 세 칸이고 사면에 담장을 세우고, 방안에 여덟 방위가 있고 중앙을 더하여 아홉 구역이 되네.[三間四表, 八維九隅.]”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장재(張載)의 주(注)에서 “방은 모두 세 칸으로 하니, 사면의 담장이 있고, 사각과 사방이 팔유가 되고, 팔유에 중앙을 합쳐 구가 된다.[室每三間, 則有四表, 四角四方爲八維, 兼中央爲九.]”라고 하였다.



哲)의 혼령이 두리번거리고 머뭇거리며 흠향하지 못하네. 이에 침식(寢食)을 잊고 위급함을 고하여, 장계(狀啓)를 올려 공사하기를 청했네.

관청에 비축한 식량이 없으니 공사는 큰데 힘은 부족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선비들이 모집에 응했으니 또한 어찌 차마 도가 폐기되고 교화가 없어지게 할 수 있었겠는가. 왕이 즉위한 때를 당하여 문(文)을 숭상하여 시문에 순응해야 하지만,<sup>865</sup> 백성이 바야흐로 굶주리고 있으니 곤궁한 시기를 만나서 공역을 거행하기 어렵네.<sup>866</sup> 그러나 지금 하루도 안 되어 공역이 완성되었으니, 어찌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겠는가. 아전들이 불췌아 따르니 어찌 백성들이 자식처럼 을 필요가 있겠는가<sup>867</sup>. 유생들이 호응하니 번거롭게 귀신이 실어 나를 필요 없네. 진기

865 왕이…하지만 : 원문의 ‘作興’은 구체적으로 인조가 새로 즉위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찬한은 1625년(인조3)에 회양 부사(淮陽府使)로 나가서 회양 향교가 피폐해진 것을 보고 고을 선비들에게 회양 향교의 중수(重修)에 도움을 보태길 요청하는 통문(通文)을 지은 바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대략 1625년 즈음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玄洲集 卷15 淮陽鄉校重修通文》

866 곤궁한…어렵네 : ‘시굴거영(時絀學羸)’의 고사를 인용한 것으로, 상황이 어려울 때 쓸데없는 공사나 일을 벌이는 것을 뜻한다. 《사기(史記)》 권45 〈한세가(韓世家)〉에 “지난해에 진(秦)나라가 의양(宜陽)을 차지하고 금년에는 가뭄이 들었는데, 소후(昭侯)가 이러한 시기에 백성들의 다급한 사정을 구휼하지 않고 도리어 더욱 사치하니, 이것을 ‘시굴거영(時絀學羸)’이라 한다. [往年秦拔宜陽, 今年旱, 昭侯不以此時, 卹民之急, 而顧益奢, 此謂時絀學羸.]”라고 하였다.

867 어찌…있겠는가 : 《시경》 〈영대(靈臺)〉에 “서민이 일하는지라 하루가 못 되어 완공하였도다. 일을 시작할 때 빨리하지 말라 하셨으나 서민들이 자식처럼 와서 일하였도다. [庶民攻之, 不日成之, 經始勿亟, 庶民子來.]”라고 하였다.

한 재목이 단단한 토지를 차지하고 있으니 뭉게구름이 산처럼 쌓여 있는 듯하고, 문채나는 돌을 바람수레에 실으니 옮기는 수레 소리 벼락같네. 곱자와 먹줄이 번개처럼 날아다니니 반수(班輸)와 왕견(王繭)<sup>868</sup>이 도모하고 하늘이 이루어준 것 같고, 삼태기와 삽이 숲처럼 빼곡히 솟으니 여러 사람이 영차영차[呼邪]<sup>869</sup> 움직이자 소리가 계곡에 울리네. 누가 회양(淮陽)이 장차 폐해질 것이라 하였는가. 오도(吾道)가 흥기할 것이로다. 이에 날이 길하고 시기가 좋은 때를 만나 비로소 들보를 들어올림을 찬송하노라.

어영차 들보 동쪽으로 띄울 던지니	兒郎偉拋梁東
해가 봉래산 천만 봉우리에 비치네	日映蓬萊千萬峯
이제부터 선철(先哲)과 선성을 제사 지내니	從此先師先聖廟
시름겨운 산이 천년토록 고요하게 높이 서있으리라	愁山千載徯穹崇

어영차 들보 서쪽으로 띄울 던지니	兒郎偉拋梁西
달이 넓은 바다에서 뜨자 옥승 <sup>870</sup> 이 나직히 있네	月生滄海玉繩低
이제부터 마룻대와 추녀를 신이 들어 올려서	從茲棟宇神扶敵
오래도록 사문이 하늘과 나란하리라	悠久斯文天與齊

868 반수(班輸)와 왕견(王繭) : 반수는 춘추 시대 노(魯)나라의 뛰어난 기술자이고, 왕견은 고대 뛰어난 기술자인 왕이(王爾)를 가리킨다. ‘繭’과 ‘爾’의 글자 모양이 비슷하여 와전된 것이다.

869 영차영차[呼邪] : ‘呼邪’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일할 때 호흡을 맞춰 부르는 소리이다.

870 옥승(玉繩) : 옥승은 별 이름으로 새벽이 올 무렵에 이 별이 끊어진다 고 한다. 두보의 <대운사찬공방(大雲寺贊公房)>에 “옥승은 아스라이 끊어지고 철봉은 삼연(森然)히 나는구나.[玉繩迥斷絕，鐵鳳森翱翔.]” 하였다.

어영차 들보 남쪽으로 떡을 던지니 兒郎偉拋梁南  
 높은 용마루와 추녀끝 기와 머리가 우뚝히 위엄있도다 隆臺反宇鬱耽耽  
 봄가을에 제물을 올려 정갈하게 제사 지내려 하니 春秋俎豆明禋意  
 신령이 내려와 상서로운 구름 짙게 덮였네 昭格祥雲覆靄靄

어영차 들보 북쪽으로 떡을 던지니 兒郎偉拋梁北  
 신령스런 백두산 봉우리 빛깔을 멀리 바라보네 遙挹白頭靈岫色  
 빈빈한 유술이 날로 번창하리니 彬彬儒術日蕃昌  
 자손을 낳고 낳아 서책을 권하라 生子生孫勸方冊

어영차 들보 위로 떡을 던지니 兒郎偉拋梁上  
 높이 솟은 전각 북두성 사이로 향하네 崔峯觚稜斗間嚮  
 유자들이 생도[螟蛉]<sup>871</sup>를 거느리니 圓冠方領摠螟蛉  
 집집마다 입학하여<sup>872</sup> 학문에 침잠하길 일삼네<sup>873</sup> 鼓篋家家事涵泳

- 
- 871 생도[螟蛉] : 명령(螟蛉)은 뽕나무벌레를 말한다. 옛사람들은 나나니벌[蜾蠃]이 뽕나무벌레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로 삼아 길러서 크면 나나니벌이 된다고 믿었다. 《시경(詩經)》〈소아(小雅) 소완(小宛)〉에 “언덕 가운데의 콩을 백성이 거두어 가는 것처럼, 명령의 새끼를 나나니벌이 업어 데리고 가서 키우니, 그대 아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방향으로 닦게 하라.[中原有菽 庶民采之 螟蛉有子 蜾蠃負之 教誨爾子 式穀似之]”라고 하였는데, 후세에는 생도나 양자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였다.
- 872 입학하여 : 원문의 ‘고협(鼓篋)’은 북을 쳐서 선비를 모으고 책 상자를 풀어서 책을 퍼놓는 것으로, 《예기》〈학기(學記)〉에 “학교에 들어갈 적에 북을 쳐 선비들을 모아 상자를 여는 것은 학업을 손순(遜順)히 하는 것이다.[入學鼓篋, 孫其業也.]”라고 하였다.
- 873 학문에 침잠하길 일삼네 : 원문의 ‘함영(涵泳)’은 ‘우유함영(優遊涵泳)’의 준말로, 조금씩 서둘지 않고 여유 있게 한가로이 오래도록 탐구

어영차 들보 아래로 떡을 던지니            兒郎偉拋梁下  
제비와 까치가 무리 지어 날아 큰 집을 축하하네<sup>874</sup>    燕雀群飛賀大廈  
이제부터 고을마다 사림이 번성할 것이니        自此蓮城蔚士林  
봉군과 발졸이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烽軍撥卒何爲者

삼가 바라건대, 들보를 올린 뒤에 상서로운 조짐 흥성하고 큰 복이 넉넉하게 하소서. 사람마다 성현을 칭송하리니 어찌 집집마다 추로(鄒魯)<sup>875</sup>일 뿐이겠는가. 해마다 모두 풍년이 들어 돈이 썩고 곡식이 문드러짐을 보게 되리라.<sup>876</sup>

---

하여 자기 몸에 배어들면서 완전히 내 몸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874 제비와…축하하네 : 《회남자(淮南子)》〈설림훈(說林訓)〉에 “목욕할 준비를 하면 벼룩과 이가 서로 애도하고, 큰 집을 지으면 제비와 참새가 서로 축하한다.[湯沐具，而蟣蝨相弔；大廈成，而燕雀相賀.]”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875 추로(鄒魯) : 추(鄒)나라는 맹자의 고향이고, 노(魯)나라는 공자의 고향인 데서, 흔히 예절을 알고 학문이성한 곳을 말한다.

876 돈이…되리라 : 재정이 풍부해진다는 뜻이다. 《사기(史記)》 권30 〈평준서(平準書)〉와 《한서(漢書)》 권24 〈식화지(食貨志)〉 등에 의하면, 한나라 문제(文帝)와 경제(景帝) 때 정치를 잘하여 경제적 풍요로움을 이루어, 무제(武帝) 초기에는 도시나 시골이나 곡식 창고가 가득하고 재화가 넉넉하여 경사(京師)에는 돈이 넘쳐나 돈뎀미가 썩어서 돈을 셀 수조차 없을 정도였고 창고에는 묵은 곡식이 남아돌아 붉게 곰팡이가 피어 먹을 수도 없을 정도였다고 하였다.

## 월암사우<sup>877</sup>상량문

月巖祠宇上梁文

삼가 생각건대, 홍인(弘演)이 사신으로 나갔을 적에 위 의공(衛懿公)을 미쳤다 여겨 충성심을 바꾸지 않았고,<sup>878</sup> 백이(伯夷)가 수양산에 오른 것이 어찌 주 무왕(周武王)의 덕을 폄하한 것이겠는가.<sup>879</sup> 마을에 정려하고 무덤에 봉분하는 것은 실로 제왕의 큰 법

877 월암사우 : 김주(金澍, ?~?)를 제향한 월암서원(月巖書院)을 가리킨다. 월암(月巖)은 김주(金澍)의 호이다. 본관 선산(善山), 자는 택부(澤夫), 호는 농암(籠岩)이다. 공양왕 4년(1392)에 하절사(賀節使)가 되어 명나라에 갔다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으로 되돌아갔다. 그 뒤 명나라 태조가 예부 상서에 임명하였으나 사양하고 중국의 형초(荊楚) 지방에 살면서 3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한다. 《月汀集 卷4 籠巖先生傳》

878 홍인(弘演)이…않았고 : 홍연은 춘추시대 위(衛)나라 의공(懿公) 때의 충신이다. 위 의공은 학을 좋아하여 초헌(軺軒)에 태우고 다녔는데, 홍연이 타국에 사신으로 가 있는 동안 적인(狄人)이 위나라에 쳐들어 오자, 위 나라 군인들이 모두 말하기를 “학더러 싸우라 하라. 학은 실제로 녹위(祿位)가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 싸울 수 없다.” 하고 도망쳤다. 결국 위나라가 패하여, 적인이 위 의공을 살해하고는 살을 다 먹어 버리고 간(肝)만 남겨 놓았다. 홍연은 돌아와서 의공의 간을 향해 복명(復命)한 다음, 자신의 배를 갈라 뱃속을 모두 비우고는 의공의 간을 자기 뱃속에 넣고 죽었다. 《呂氏春秋 卷11 忠廉》《春秋左氏傳 閔公2年》

879 백이(伯夷)가…것이겠는가 : 백이(伯夷)는 고죽국(孤竹國)의 왕자로, 나라를 양보하여 도망갔다가 문왕(文王)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으나, 무왕(武王)의 은나라 정벌에 반대하여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에 은둔하여 고비를 캐 먹으며 <채미가(採薇歌)>를 지어 불렀다. 《史記 卷61 伯夷列傳》

도요,<sup>880</sup> 덕을 숭상하고 현자를 제사지내는 것은 향촌의 훌륭한 규범이네. 이에 서산(胥山)의 남은 풍속이 오히려 오원(伍員)의 사당에 전해지고,<sup>881</sup> 개산(介山) 고을의 남은 터에 오히려 개자추(介子推)의 사당을 열었음을 알겠네.<sup>882</sup> 어찌 천만년토록 전에 없는 위대한 절조를 지닌 이에게 삼백 년 동안 향을 올리지 않아, 단지 은미하게 공경하기만 하고 매몰되고 인멸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880 마을에…법도요 : 주나라 무왕(武王)이 상용(商容)의 마을에 정려하고, 비간(比干)의 무덤에 봉분한 일을 가리킨다. 상용은 은나라 주(紂) 때의 대부(大夫)로 직간(直諫)하다가 귀양 갔는데, 주나라 무왕(武王)이 은을 치러 갈 때 은나라 어진 신하의 동리(洞里)라고 해서 경의(敬意)를 표하였으며, 나라를 세운 뒤에 정문(旌門)을 세워 포양(褒揚)하였다. 비간은 주(紂)의 숙부로 주가 정치를 하지 않고 주색에 빠지자 직간(直諫)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는데, 주 무왕(周武王)은 주를 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간의 묘에 봉분을 하였다. 《書經 武成》

881 서산(胥山)의…전해지고 : 오원의 초(楚)나라 사람으로, 자(字)는 자서(子胥)이다. 그의 부형(父兄)이 모두 초나라 평왕(平王)에게 죽임을 당하자, 오나라로 가서 오왕(吳王) 부차(夫差)를 도와 초나라를 정벌하였으나, 후에 월나라의 모략으로 오왕에게 죽임을 당했다. 오왕이 그의 시체를 가죽 자루에 담아 삼강(三江)에 띄워 보내게 하니, 오나라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서 삼강가에 '서산사(胥山祠)'라는 사당을 세워 그를 제사 지냈다. 《史記 卷66 伍子胥列傳》

882 개산(介山)…알겠네 : 개자추는 춘추시대 진(晉)나라 사람으로 개지추(介之推)라고도 한다. 진 문공(晉文公)이 왕위에 오르기 전 망명길에 올랐을 때 그를 도왔으나, 문공이 왕위에 오른 뒤에는 개지추가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도 않았고 문공이 개지추에게 녹봉을 수여하지도 않았다. 그러자 어머니를 모시고 면산(綿山)으로 들어가 숨어 살며 끝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뒤에 문공이 면산을 개지추에게 추봉(追封)하고 그 이름을 '개산(介山)'이라고 하였으며, 사람들이 개산사(介山祠)라는 사당을 세워 그를 제사 지냈다. 《史記 卷39 晉世家》《春秋分記 卷26》

무릇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즘에 열사와 충신이 없지 않지만, 생사(生死)의 거취(去就) 사이에서 보인 높은 절조는 누가 우리 공과 짝할 수 있겠는가. 생각건대 하늘이 인재를 내면 분명 쓸 곳이 있는데, 공이 사신의 명을 받은 것이 제때가 아니었도다. 정(鄭)나라의 공손교(公孫僑)가 국경을 나간 것처럼 공의 재주는 사신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걸맞았고,<sup>883</sup> 오(吳)나라의 계찰(季札)이 나라를 떠난 것처럼 공의 마음은 근심을 품었네.<sup>884</sup> 빙문(聘問)의 예를 갖춘 것이 유성(流星)보다 빨라 못별들이 모두 북극성을 향하는 듯하였고<sup>885</sup>, 돌아가고픈 마음이 흐르는 물보다 빨라 강물이 만 번 굽이쳐 흘러도 반드시 동쪽으로 흐르는 것과 같았네<sup>886</sup>. 일

883 정(鄭)나라의…걸맞았고 : 공손교는 춘추시대 정나라 대신으로 자(字)는 자산(子産)이다. 진(晉)나라와 초(楚)나라가 서로 패권을 다투는 중에 외교 정책을 잘 펼쳐서 약소국인 정나라가 그 사이에서 무사히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春秋左氏傳 昭公 20年》

884 오(吳)나라의…품었네 : 고려 말기에 왕위 계승 문제로 혼란한 상황을 오나라 말기의 상황에 비유한 것이다. 오나라 왕 수몽(壽夢)이 막내아들 계찰(季札)을 어질게 여겨 왕위를 물려주려 하였는데, 계찰이 사양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결국 큰아들 제번(諸樊)에게 왕위를 전수하였고 제번이 죽은 뒤에 수몽의 둘째 아들 여매(餘昧)에게 왕위가 전수되었다. 본래 형제는 차례대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으므로 최후에 계찰에게 왕위를 전수하였으나 계찰이 끝까지 사양하고 도피하였다. 그 뒤 오나라에 제번의 아들 광(光)과 여매의 아들 료(僚)가 왕위를 다투는 변란이 발생하였고 부차(夫差)에게 이르러 오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다. 《史記 卷31 吳太伯世家》

885 못별들이…듯하였고 : 못별이 북극성을 향하는 것처럼 덕정(德政)을 펼치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뜻이다. 《논어》〈위정(爲政)〉에 “덕정을 펴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북극성 쪽으로 못별들이 향하는 것처럼 될 것이다.[爲政以德 譬如北辰居其所 而衆星拱之]”라고 하였다.

886 강물이…같았네 : 한번 정한 뜻이 굳건함을 의미한다. 《순자》〈유좌(宥坐)〉에 “물이 만 번 꺾이어도 반드시 동으로 흐르는 것은 굳은 의

을 마치고 돌아오고자 하여 행장을 꾸리고 떠났네. 황성(皇城)이 서쪽 너머에 있는 곳에 이르자 연계(燕薊)<sup>887</sup>의 길이 천 겹이었고, 동쪽으로 고국을 바라보니 압록강 일대였네. 오늘은 도리어 어제 가 아니니 타향이 오히려 고향보다 나았네.<sup>888</sup> 용이 날아서 하늘에 오르니 창성할 시기가 바로 구오(九五)에 해당하고,<sup>889</sup> 학으로 변한 정영위(丁令威)가 돌아오니 화표주(華表柱)엔 어느새 3천 년이 지났네.<sup>890</sup> 일월(日月)은 사사롭게 비추지 않으니 앞길을 막지 않지만, 산하(山河)는 다르니 또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는가. 마부도 그리워하고 말도 슬퍼했으니 어찌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종묘사직이 옮겨지고 시정과 조정이 변했으니, 복명(復命)하려 한들 누구를 받들겠는가. 이에 서신을 사행편

지가 있는 것 같다.[其萬折也必東, 似志.]”라고 하였다.

887 연계(燕薊) : 옛 연(燕)나라 땅인 유주(幽州)의 계지(薊地), 즉 지금의 북경을 포함한 하북성(河北省) 일대를 가리킨다. 유계(幽薊)라고도 한다.

888 서쪽…나았네 : 김주가 명(明)나라에 하절사(賀節使)로 갔다 돌아오면서 압록강에 이르렀을 때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물려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명나라로 돌아갔다. 《月汀集 卷4 籠巖先生傳》

889 용이…해당하고 : 새로운 임금이 즉위한 것을 뜻한다. 《주역》〈건괘(乾卦) 구오(九五)〉에 “용이 날아올라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飛龍在天 利見大人]”라고 하였다.

890 학으로…지났네 : 《수신후기(搜神後記)》에 다음의 고사가 있다. “정영위는 본래 요동 사람이다. 영허산에서 도를 배운 후에 학이 되어 요동으로 돌아와 성문 화표주(華表柱)에 머물렀다. 그때 한 소년이 활을 들고 쏘려하자 학이 공중을 배회하며 말하길, ‘새여! 새여! 정영위가 집을 떠나 천년 만에 돌아왔는데, 성곽은 그대로건만 사람들은 다르네. 어찌 선(仙)을 배우지 않고 무덤만 늘어섰는가?’ 하더니 마침내 높이 하늘로 사라졌다.[丁令威, 本遼東人. 學道于靈虛山, 後化鶴歸遼, 集城門華表柱. 時有少年, 擧弓欲射之, 鶴乃飛, 徘徊空中而言曰, ‘有鳥有鳥丁令威, 去家千年今始歸, 城郭如故人民非. 何不學仙家壘壘?’ 遂高上衝天.]”



에 부쳤으니 말은 슬프나 뜻은 장대했으며, 일편단심 해처럼 빛났으니 말은 돌아가지만 안장이 비었네. 옷을 벗고 신을 벗어 부인과 함께 묻어주기를 뜻하였고, 옷깃과 발걸음을 돌리고서 중국 땅의 백성이 되었네. 마침내 편지를 쓰고 종을 돌려보내는 때를 이 세상을 떠나는 날로 삼았네.<sup>891</sup> 봉맹(逢萌)이 요동(遼東)으로 간 것과는 일도 다르고 자취도 다르며,<sup>892</sup> 태백(泰伯)이 형만(荊蠻)으로 간 것과는 길은 다르지만 궤적이 같네.<sup>893</sup>

아, 주(周)나라의 봄에 고사리가 자라니 누가 은(殷)나라의 풀이라 여기겠는가.<sup>894</sup> 송(宋)나라에 비 내려 콩이 나오니 어느 곳

891 옷을…삼았네 : 김주가 압록강에서 조선의 개국 소식을 듣곡 부인에게 편지와 더불어 조복(朝服)·신발을 보냈는데, 김주의 편지에 “이것으로 신물(信物)을 삼고, 부인이 하세(下世)한 뒤에 이것을 합장(合葬)하여 우리 부부의 묘를 만들라. 그리고 내가 강가에 이르렀다가 도로 중국으로 돌아간 날로 나의 기일(忌日)을 삼으라. 장사를 지낸 뒤에는 지문(誌文)과 묘갈(墓碣)을 쓰지 말라.”라고 하고는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다. 훗날 김주의 자손들이 대대로 12월 22일을 김주의 기일로 삼았는데, 이날은 바로 김주가 압록강에서 편지를 보낸 날이다. 《月汀集 卷4 籠巖先生傳》

892 봉맹(逢萌)이…다르며 : 봉맹은 후한 때 사람으로, 왕망(王莽)이 아들 우(宇)를 죽이는 것을 보고 친구에게 “삼강이 끊어졌다. 떠나지 않으면 화가 곧 다른 사람에게 미칠 것이다.”라고 말하고 곧장 관을 벗어 동도의 성문에 걸어둔 채 집으로 돌아가 가솔을 데리고 동해로 은거하였다. 《後漢書 卷83 逸民列傳 逢萌》

893 태백(泰伯)이…같네 : 태백(太伯)은 주나라 태왕(太王)의 장자로 태왕의 뜻이 막내아들 계력(季歷)에게 있음을 알고는 아우 중옹(仲雍)과 함께 형만(荊蠻)으로 도망가서 단발문신(斷髮文身)하여 스스로 후사가 될 수 없음을 보였다. 《史記 卷31 吳太伯世家》

894 주(周)나라의…여기겠는가 : 은나라가 망하고 주(周)나라가 천자국이 되자, 백이·숙제가 주나라의 녹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수양산(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었던 고사를 가리킨다.

이 진(晉)나라이겠는가.<sup>895</sup> 명성과 절개를 드날린 현인들을 두루 살펴보건대, 한 명의 선비가 다른 나라에서 고고히 지냈다는 말 듣기 어렵네. 공은 세속을 초탈하여 구름과 달이 홀로 있도록 내 버려두고,<sup>896</sup> 타향의 깊은 계곡에서 서리 속의 소나무가 절로 말라 죽는 것도 몰랐네. 공의 이름난 후손이 대대로 현귀(顯貴)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지만, 묘에 기록하지 않아 끝내 공의 자취와 명성이 민멸되게 하였네. 하나의 집안에서 숨기고 전하지 않은 것이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려는 데에서<sup>897</sup> 나온 것이지만, 온 세상에서 공의 덕을 살피지 못하여 장차 공의 명성이 묻히게 되리라. 향속(鄉俗)에서 칭송하되 융성하지 않으니 도리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요, 관청에서 내버려두고 알리지 않으니 그 책임을 누가 맡으리오. 생각건대 저 진(晉)나라가 부용(傅彤)을 칭송할 적

895 송(宋)나라에…진(晉)나라이겠는가 : 진(晉)나라가 망하고 송(宋)나라가 건국되었을 때 도잠(陶潛)이 절의를 지켜 은거하면서 벼슬길에 나가지 않은 고사를 가리킨다. 도잠의 <귀전원거(歸田園居)>에 “남산 아래 콩을 심었더니, 잡초가 무성해 콩 짝이 드물구나. 새벽에 일어나 우거진 잡초를 뽑고, 달빛 아래 호미 메고 돌아오네.[種豆南山下, 草盛豆苗稀. 晨興理荒穢, 帶月荷鋤歸]”라고 하였다.

896 구름과…내버려두고 : 공치규(孔稚圭)의 <북산이문(北山移文)>에 “높은 높은 외로이 비치게 하고, 밝은 달은 홀로 뜨게 하며, 푸른 소나무는 쓸쓸히 그늘을 드리우게 하고, 흰 구름은 짝할 사람이 없게 하도다. [使其高霞孤影, 明月獨舉, 青松落陰, 白雲誰侶.]”라고 한 것을 인용한 듯하다.

897 아버지의…데에서 : 원문의 ‘지술(志述)’은 계지술사(繼志述事)를 뜻한다. 계지(繼志)는 아버지의 뜻을 잘 계승하는 것을 말하며, 술사(述事)는 아버지의 일을 잘 따라서 하는 것을 말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문왕(文王)과 주공(周公)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는 효자일 것이다. 효란 것은 아버지의 뜻을 잘 계승하며, 아버지의 일을 잘 따라 행하는 것일 뿐이다.” 하였다. 《中庸章句 第19章》 김주는 죽기 전에 자신의 지문과 묘갈을 쓰지 말라고 자손들에게 당부하였다.

에 적국 사람이라 하여 차이를 두지 않았고,<sup>898</sup> 주나라 왕이 매백(梅伯)을 칭찬할 적에 전대 왕조의 사람이라하여 차등을 두지 않았네.<sup>899</sup> 하물며 우리나라는 대대로 정려(旌閭)하고 증질(增秩)하는 일을 숭상했으니, 진실로 주달(奏達)하는 바가 있으면 조그만 충성과 의리라도 절대로 빼놓지 않았네. 한읍(韓邑)에서 제기를 갖추어 목로(牧老)의 제사를 실추하지 않았고,<sup>900</sup> 연주(延州)에서 향을 피워 포옹(圃翁)의 제향(祭享)을 여전히 높이네.<sup>901</sup> 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기(正氣)에 힘입어 삼한(三韓) 천백 년의 세월을 지나왔는데, 차마 270년에 이르도록 지극한 덕을 민멸되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배를 멈추고 부(府)에 들어가 즉시 버려지고 묻혀있는 흔적을 찾아 모으는 일을 서둘러서, 고삐를 당

898 저...않았고 : 부용(傅彤)은 촉(蜀)나라 장군으로 유비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부용의 아들 부첨(傅僉)도 아버지가 죽은 후에 관중(關中)의 도둑이 되어 목숨 바쳐 싸웠다. 후에 진 무제(晉武帝)가 조서를 내려 “촉나라 장군 부첨은 전에 관중 성에서 몸소 관군을 막아 목숨을 바치고 돌아보지 않았다. 부첨이 아버지 부용은 다시 유비를 위하여 싸우다 죽었다. 천하의 선은 하나이니, 어찌 피차간에 다르게 여길 수 있겠는가?〔蜀將軍傅僉，前在關城，身拒官軍，致死不顧。僉父彤，復爲劉備戰亡，天下之善一也，豈由彼此以爲異?〕”하였다. 《三國志 蜀志 卷15 鄧張宗楊傳》

899 주나라...않았네 : 매백(梅伯)은 은(殷)나라 주왕(紂王) 당시 제후였는데 주왕의 악정을 충간(忠諫)하다 죽은 뒤에 첫 담가졌다. 《韓非子 難言》

900 한읍(韓邑)에서...않았고 : 목로(牧老)는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을 가리킨다. 목은의 본관이 한산(韓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901 연주(延州)에서...높이네 : 포옹(圃翁)은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1337 ~1392)를 가리킨다. 정몽주의 본관이 연일(延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연일 정씨는 영일(迎日) 정씨, 오천(烏川) 정씨라고도 한다.

겨 교외로 나가 바람을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급선무로 여겼네. 무덤에 나아가 예를 펴서 정성을 다하고, 사실을 들어 글을 짓고 눈물을 떨어뜨리네.

일찍이 생각건대, 거짓으로 미친 척한 성인(聖人)도 오히려 백마(白馬)를 타고 조회가는 것을 허락받았고,<sup>902</sup> 외로이 충성을 지킨 야은(冶隱)은 끝내 금오산(金烏山)의 여항에서 늙어갔네.<sup>903</sup> 단풍 숲 초수(楚水) 가에 가을 학 함께 날아다님을 생각하고, 은은한 달이 비치는 파산(巴山)에 봄 두견새가 슬피 우는 것 애달파하네.<sup>904</sup> 목숨 바쳐 충성하여 절조를 지켰으니, 어찌 부모의 고향을 잊었으리오. 산 넘고 바다 건넜으니 돌아오고픈 꿈에 응당 고달팠으리라. 이제 장계로 보고하여 덕을 표창해서 영령을 공경히 모셔 안치하고자 하였네. 다행히도 전 감사 최현(崔峴)<sup>905</sup>에게

902 거짓으로…허락받았고 : 성인은 기자(箕子)를 가리킨다. 주(紂)가 폭정을 행하여 기자가 간해도 듣지 않자, 어떤 이가 기자에게 떠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기자는 “신하가 되어 간했다가 듣지 않는다고 떠나간다면 이는 임금의 악을 드러내어 스스로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는 행위이니, 나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고, 거짓으로 미친 척 하면서 종이 되었다. 《史記 卷38 宋微子世家》 훗날 주(周)나라가 상(商)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기자는 조선에 봉해져 백마를 타고 주나라에 조회 갔다. 《시경》〈유객(有客)〉에 “객이여, 객이여, 백마를 타고 왔네.[有客有客, 亦白其馬]”라는 구절이 있다.

903 외로이…늙어갔네 : 야은(冶隱)은 길재(吉再, 1353~1419)를 가리킨다. 길재는 1390년(공양왕2)에 고려가 망할 것을 예측하고, 선산(善山)의 금오산(金烏山) 아래에 채미정(採薇亭)을 짓고 은거하며 불사(不仕)하였다.

904 단풍…애달파하네 : 초수(楚水)와 파산(巴山)은 촉나라·초나라 지역이다. 김주가 명나라로 돌아간 뒤에 이 지역에 은거하였다.

905 최현(崔峴) : 1563~1640.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계승(季昇), 호는 인재(詵齋)이다.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다. 최현은 1618년(광해군 10)에 선산군(善山郡)의 읍지인 《일선지(一善誌)》를 편찬했다. 선산

힘입었으니, 한 고을의 도를 수호하는 훌륭한 유자로서 천년토록  
 제사 지내려는 고아한 뜻이 있었고, 마음에 오래전부터 계합하는  
 바가 있는 자로서 마침내 공의 후손과 더불어 일을 도모했네. 이  
 신우(神宇)를 창건하는 터는 바로 선생이 예전에 노닐던 곳이네.  
 농암(籠巖)의 바위 늙었으니 아득한 흰 구름따라 천 년 세월 지났  
 고, 낙수(洛水)의 물결 깊으니 천지 사방에 맑은 바람이 부네. 소  
 나무 그늘 멀리 덮여 있으니 평소에 서성이던 곳이요, 뽕나무 밭  
 멀리 이어지니 선대(先代)의 마을이네. 이윽고 권하지 않고 거느  
 리지 않아도 일꾼이 다 모였고, 수레 몰지 않고 말에 채찍질 하지  
 않아도 나무와 돌이 다 갖추어졌네. 만 개의 공이를 들어 우레처  
 럼 휘두르고, 천 개의 가래를 쫓아 뻑뻑이 나열했네. 공사가 하루  
 도 안 되어 완성될 것이니, 공역이 어찌 해를 넘기겠는가.

어영차 들보 동쪽으로 떡을 던지니	兒郎偉拋梁東
해가 비치자 무지개가 낙수 동쪽에 뿔었네	日照飛虹映洛東
옛터에 하루아침에 사당이 세워지니	遺址一朝開棟宇
영령이 천년토록 우리나라에서 편안해지겠네	英靈千載奠吾東

어영차 들보 서쪽으로 떡을 던지니	兒郎偉拋梁西
하늘에서 긴 용이 일어나 낙수 서쪽을 가리키네	天起脩龍指洛西
풍마(風馬)와 운거(雲車)가 머무는 곳을 바라보고	卽看風馬雲輿住
형문과 영땅 나무의 서쪽 바라보지 말라 <sup>906</sup>	休望荊門郢樹西

은 바로 김주의 본관이다.

906 형문과...말라 : 형문(荊門)은 초나라가 있던 호북성 일대에 있는 산 이름이고, 영(郢)은 초나라의 수도이다. 김주가 형초(荊楚) 지역에 은 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어영차 들보 남쪽으로 떡을 던지니                    兒郎偉拋梁南  
 우리 도가 지금 바로 남쪽에 있네                    吾道于今正在南  
 향기로운 풀 올리자 유가의 교화 멀리 퍼지니    芬苾薦來儒化遠  
 빈흥(賓興)<sup>907</sup>을 행하는 것 영남 뿐만이 아니로다    賓興非但嶺之南

어영차 들보 북쪽으로 떡을 던지니                    兒郎偉拋梁北  
 혼령이 감에 동쪽도 서쪽도 북쪽도 아니라네    魂去無東西與北  
 빈빈한 선비들이 우러러 사모하니                    彬彬多士景仰之  
 높은 명성 북두성과 남두성처럼 높을 뿐만이 아니네 不啻高名斗南北

어영차 들보 위로 떡을 던지니                        兒郎偉拋梁上  
 나는 듯한 용마루가 멀리 하늘 위로 솟았네    飛臺迥出雲霄上  
 우리나라 유생들의 정성스런 마음 하늘과 통했으니 鯁生誠意與天通  
 훗날 한 가닥 향불 연기를 피워올리리라            他日香煙一縷上

어영차 들보 아래로 떡을 던지니                    兒郎偉拋梁下  
 상서와 복이 구름처럼 천하에 가득 일었네    祥嘏如雲蒸日下  
 선생의 지극한 덕은 이의가 없으니                先生至德無間然  
 펼쳐 놓으면 천하에 가득함을 볼 수 있네<sup>908</sup>    放之可見彌天下

907 빈흥(賓興) : 주(周)나라 시대에 선비를 채용하는 법이다. 즉 학교(學校)의 생도(生徒) 가운데서 수재(秀才)를 골라 향음주(鄉飲酒)의 예(禮)로써 그를 빈객(賓客)으로 삼아 천거하는 일을 말한다. 《周禮 地官 大司徒》

908 펼쳐…있네 : 《중용장구》 대문 앞 첫머리에 “펼쳐 놓으면 상하 사방을 가득 채우고, 거두어들이면 은밀한 데에 감추어진다.[放之則彌六合, 卷之則退藏於密.]”라는 정이(程頤)의 말이 나온다.

삼가 바라건대, 들보를 올린 뒤에 유풍(儒風)이 날로 맑아지고  
문치의 교화가 시내처럼 널리 퍼져, 집집마다 효성스럽고 충성스  
러워 예의의 풍속이 더욱 새로워지고, 산이 마르고 바다가 마르  
도록 제사지내는 의례가 폐해지지 않게 하소서.

## 봉생정사<sup>909</sup>상량문

鳳笙精舍上梁文

무릇 하늘은 시원스레 트인 곳을 아끼니 성상(星象)에 소미성(少微星)<sup>910</sup>의 정기를 머금었고, 땅은 신명(神明)이 깃든 곳을 숨기니 부온(富媪)<sup>911</sup>이 매우 신령스런 조짐을 감추네. 이에 알겠으니, 향산(香山)에 지은 석루(石樓)를 찾아가니 사람들이 백사마(白司馬)가 본성을 기른 곳임을 알았고,<sup>912</sup> 무이산(武夷山)에 일으킨 정사(精舍)를 둘러보니 천제(天帝)가 주회옹(朱晦翁)이 도를 닦도록 도와준 것이네.<sup>913</sup> 그러므로 망천(漚川)에 부슬비가 내리는

909 봉생정사 : 조찬한이 상주 목사(尙州牧使)로 있을 때 정경세(鄭經世)·이준(李揆) 등과 이웃 고을의 봉생정(鳳笙亭)에서 함께 노닐었는데, 봉생정의 산수가 기이하고 아름다웠으므로, 이곳에 정사(精舍)를 세웠다. 《玄洲集 卷15 玄洲趙公墓碣銘》

910 소미성(少微星) : 소미성은 태미성(太微星)의 서쪽에 있는 4개의 별을 지칭하는 것으로, 처사(處士)나 대부(大夫)를 상징한다고 전해진다. 이 별이 밝게 빛나면 현사(賢士)가 등용되는 것이고, 다른 별에 의해 가려지거나 빛을 잃게 되면 처사나 대신들에게 불길한 일이 생긴다고 한다. 《晉書 卷11 天文志》

911 부온(富媪) : 부온은 지신(地神)을 이른다. 《한서(漢書)》〈예악지(禮樂志)〉에 “후토(后土)의 부온이 삼광(三光)을 밝힌다.” 하였는데, 그 주에 “온(媪)은 노모(老母)를 칭하는바, 땅[坤]이 모(母)가 되므로 온이라 한다.” 하였다.

912 향산(香山)에…알았고 : 백 사마(白司馬)는 당(唐)나라 때의 시인 백거이(白居易)를 가리킨다. 백거이는 낙양(洛陽)의 향산(香山)에 석루(石樓)를 지어 놓고 자주 원진(元稹), 유우석(劉禹錫) 등과 어울리며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舊唐書 卷166 白居易列傳》

913 무이산(武夷山)에…것이네 : 주회옹(朱晦翁)은 주희(朱熹)를 가리킨다. 주희는 간신 한탁주(韓侂胄)를 피하여 강서(江西)의 무이산에 무



그림은 단지 숲에 부끄러움을 끼쳤을 뿐이요,<sup>914</sup> 완화초당(浣花草堂)에 산 것은 오히려 정처없이 떠돌다가 멈춘 것 뿐이라네.<sup>915</sup> 지금 내가 한번 가서 관리가 되어 3년 동안 백성을 다스렸으니,<sup>916</sup> 편안히 거처한 곳<sup>917</sup>이 이 고을이나, 집이 없이 세월을 보냈네. 도연명(陶淵明)의 세 오솔길이 있던 집에 아직도 돌아가지 못했는데,<sup>918</sup> 문거(文學)가 말한 오십의 나이가 어느새 이르렀네.<sup>919</sup> 경정

이정사(武夷精舍)를 짓고 학문을 강론하였다. 《宋元學案 卷48·49 晦菴學案》

- 914 망천(綱川)에…뿐이요 : 당(唐)나라 왕유(王維)가 망천(綱川)에 있는 송지문(宋之間)의 별장을 사들여 손수 개조하고, 그곳의 십이승경(十二勝景)을 시로 읊고 화폭에 담아〈망천도(綱川圖)〉를 제작한 일이 있다. 그런데 이곳의 원래 주인인 송지문은 권신들에게 아첨하는 등 정치적으로는 파렴치한 행실이 많았으므로, 〈북산이문(北山移文)〉의 구절을 들어 망천의 별장을 비판한 것이다. 숲에 부끄러움을 끼친다는 것은 공지규(孔稚圭)의 〈북산이문(北山移文)〉에 “숲의 부끄러움이 다하지 않고 시냇물의 부끄러움이 그치지 않는다.[林慚無盡, 澗愧不歇.]”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은사(隱士)가 산(山)을 떠나 벼슬살이를 하면 숲이나 계곡도 모두 실망한다는 뜻이다.
- 915 완화초당(浣花草堂)에…뿐이라네 : 두보(杜甫)가 성도(成都)의 완화계(浣花溪)가에 ‘완화초당’을 짓고 살면서 시를 읊조리곤 하였는데, ‘두보초당’이라고도 한다.
- 916 지금…다스렸으니 : 조찬한은 1621년(광해13)에 상주 목사(尙州牧使)가 되어 1623년(인조1)까지 상주 목사를 지냈다.
- 917 편안히 거처한 곳 : 《시경(詩經)》〈소아(小雅) 사간(斯干)〉에 “여기에서 편안히 거하고 거기에서 편안히 처하며 여기에서 즐거이 웃고 거기에서 즐거이 말하도다.[爰居爰處, 爰笑爰語.]”라는 구절을 원용하였다.
- 918 도연명(陶淵明)의…못했는데 : 세 오솔길이 있는 집은 은자의 집을 뜻한다. 진(晉)나라 도잠(陶潛)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세 갈래 길은 황폐해져 가는데, 송국은 아직도 남아 있네.[三逕就荒, 松菊猶存.]”라고 하였다.
- 919 문거(文學)가…이르렀네 : 문거(文學)는 공융(孔融)의 자이다. 공융

산(敬亭山) 아래에서 사조(謝朓)의 시를 몇 번이나 읊었던가. 천모봉(天姥峯) 앞에서 사령운(謝靈運)의 나막신을 부질없이 신었네.<sup>920</sup> 소나무와 구름이 서식할 곳<sup>921</sup> 만들지 못했으니, 자연을 좋아하는 고질병 고치기 어렵네.<sup>922</sup> 혼이 섬계(剡溪)의 연하(煙霞)에서 노닐고, 발은 회계(會稽)의 산수를 두루 다니네.<sup>923</sup> 당시의 백

---

이 승상 조조(曹操)에게 편지를 보내 “덧없는 세월이 물처럼 흘러가 오십의 나이가 어느새 이르렀습니다. 공은 이제 막 오십을 채우셨고 나 역시 거기에 두 살을 더 먹었습니다.[歲月不居，時節如流，五十之年，忽焉已至。公爲始滿，融又過二.]”라고 하였다. 《三國志 卷51 吳志 孫韶傳》

920 경정산(敬亭山)…신었네 : 이백(李白)이 자신의 시에서 사조(謝朓, 464~ 499)에 대해 읊은 것을 가리킨다. 경정산(敬亭山)은 선성현(宣城縣) 북쪽에 있는 산이다. 남조(南朝) 제(齊)나라 때의 유명한 시인인 사조(謝朓)가 선성 태수(宣城太守)로 부임하면서 <경정산>이라는 오언시(五言詩)를 지어 유명해졌고, 그 이후 이백(李白)이 그 풍류를 사모해 또 경정산에 평생 동안 일곱 번이나 방문하였으며 경정산에 대한 여러 편의 시를 남겼다. 한편 이백의 <몽유천모음(夢遊天姥吟)>에 “사공이 묵었던 곳 지금도 남아 있고, 맑은 물결 넘실거리고 원숭이는 처량히 우네. 사공이 신던 나막신을 꿰어 신고서 푸른 구름 사다리에 몸을 맡겨 올랐네.[謝公宿處今尚在，淥水蕩漾清猿啼。腳著謝公屐，身登青雲梯.]”라고 하였다.

921 소나무와…곳 : 은거하는 곳을 가리킨다.

922 자연을…어렵네 : 원문의 ‘천석고황(泉石膏肓)’은 전유암(田遊巖)의 고사에서 온 말이다. 전유암이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였는데, 당 고종(唐高宗)이 사람을 보내 산속 생활이 어떤지를 물어보니, “신은 물과 바위에 대한 병이 이미 고향에 들고 연하의 고질병이 되었는데, 성상의 시대를 만나 다행히 소요하고 있습니다.[臣泉石膏肓，煙霞痼疾，幸得逍遙.]” 하였다. 《舊唐書 卷192 田游巖傳》

923 혼이…다니네 : 왕희지(王羲之)의 고사를 인용하여 벗들과 산수에서 노니는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다. 왕희지는 회계(會稽) 산음(山陰) 사람이며, 섬계(剡溪)는 바로 산음과 인접한 고을이다. 왕희지는 회계(會稽) 산음(山陰)에 난정(蘭亭)을 짓고, 손작(孫綽)·사안(謝安) 등 당

설(白雪)은 창화(唱和)하는 이 적더라도 무슨 해가 되겠는가.<sup>924</sup> 이에 청산(靑山)에 처하니 기쁘게도 내가 있을 곳을 얻었네.<sup>925</sup> 벼슬을 그만두고 늙어가는 이후에는 모두 산에서 풀 뜯고 강에서 낚시하는 세월이라. 남들이 실로 나를 속였으니, 누가 풍월(風月)에 주인이 없다 하였는가. 하늘이 어찌면 필시 우리를 기다려 이 풍경을 만든 것이리라.

아름다운 상투에 옥비녀를 꽂은 듯하니 속세 밖의 참된 세계로 변하고, 금빛 봉우리에 쇠같은 벽 있으니 흡사 인간 세상의 살아 있는 병풍 같네. 오색구름이 감도니 마치 봉笙(鳳笙)의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 듯하고, 비단 물결 투명하니 황홀하게도 용의 기운이 조금씩 응집되는 것이 보이네. 토잔(兔棧)과 구암(鳩巖)에 아득히 노을이 이어지고 운무가 갈라지며, 고성(姑城)과 어수(魚

---

시의 명사 42인과 함께 계제사(禋祭祀)를 행한 뒤에 술을 마시고 시를 지었다. 《古文眞寶 後集 卷1 蘭亭記》

924 당시의...되겠는가 : 시문의 수준이 높아 창화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영 땅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처음에 보통 유행가인 <하리(下里)>나 <파인(巴人)>을 불렀을 때는 같이 합창하여 부르는 자가 수백 명에 달하였으나, <백설가(白雪歌)>와 <양춘곡(陽春曲)>을 부르자 따라 부르는 자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文選 卷45 對楚王問》

925 청산(靑山)에...얻었네 : 청산은 청림산(靑林山)이라고도 하는 산으로, 남조(南朝) 때 시인 사조가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사공산(謝公山)이라고도 한다. 봉황정사 주변의 아름다운 산수를 청산에 빗댄 것이다. 사조(謝朓)의 <유동전(遊東田)>에서 “향기로운 봄술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푸른 산의 성곽만 머리 돌려 바라보네.[不對芳春酒 還望靑山郭]”라는 표현이 나온다. 《文選 卷22 遊東田》 이백(李白)은 사조를 흠모하여, <제동계공유거(題東溪公幽居)>에서 “집은 푸른 산에 가까우니 옛날 사조와 같고, 문은 푸른 버들 드리웠으니 도잠과 비슷하네.[宅近靑山同謝朓, 門垂碧柳似陶潛.]”라고 하였다. 《李太白集 卷24 題東溪公幽居》

岫)에 달빛이 서로 비치고 연꽃이 피어나네. 산귀(山鬼)가 할 말이 없는 듯 고요히 있으니 천신(天神)이 과연 뜻한 바가 있도다. 이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왕래하면서도 알지 못하게 하고, 나무꾼과 어부로 하여금 평범한 것으로 치부하고 논하지 않게 하였네. 어찌해야 지극한 바람에 부응하여 그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유상국(柳相國 유성룡(柳成龍))이 먼저 알았는데 사람들이 혹 막은 것인가. 정우복(鄭愚伏 정경세(鄭經世))이 가리켜 보인 것은 신이 고해준 것인가. 이에 공역은 큰데 힘은 부족한 것을 헤아리지 않고 길한 날짜를 잘 택하여 집을 지으니, 다행히도 사우(士友)들의 큰 도움에 힘입어 나무와 돌이 다 이르렀네. 이에 송옥(宋玉)의 집 띠풀을 베어내고,<sup>926</sup> 진실로 장후(蔣詡)의 집의 오솔길을 내었네.<sup>927</sup> 훌륭한 들보 이미 들어 올리니 이는 뜻을 둔 일이 이루어진 것이요, 처마 끝이 날아갈 듯하니 하루도 안 되어 공역이 끝남을 곧 보게 되리라. 축하하는 말을 올려 비로소 들보를 찬송하노라.

어영차 들보 동쪽으로 떡을 던지니 日郎偉拋梁東  
해가 고소대(姑蘇臺)에 비치자 옛 성첩이 붉네 日照姑蘇古堞紅  
구름에 기대고 있는 높은 용마루가 수국을 밝히니 高棟倚雲明水國

926 송옥(宋玉)의…베어내고 : 유신(庾信)의 <애강남부(哀江南賦)>에 “송옥의 집 띠풀을 베어내고, 임강왕의 집 앞 길을 지나갔다네. [誅茅宋玉之宅, 穿徑臨江臨之府.]”라는 구절이 있다.

927 장후(蔣詡)의…내었네 : 서한(西漢) 말에 장후(蔣詡)가 두릉에 은거한 뒤 트랙에 오솔길 세 개[三逕]를 만들어 놓고 오직 양중(羊仲)과 구중(求仲) 두 사람과 교유하며 두문불출했던 고사가 있다. 《三輔決錄 逃名》

뱉어낸 명주<sup>928</sup>가 이따금 용궁에 떨어지네 唾珠時復落龍宮

어영차 들보 서쪽으로 떡을 던지니 兒郎偉拋梁西  
산의 객점과 계곡의 다리에 석양이 깔리네 山店溪橋返照低  
차 달이는 아궁이에 날이 긴데 오는 손님 없으니 茶竈日長無客到  
그윽한 흥취에 좋은 시 몇 번이나 읊었던가 幾番幽興好詩題

어영차 들보 남쪽으로 떡을 던지니 兒郎偉拋梁南  
어수(魚岫)의 노을빛이 황혼의 아지랑이 빛어내네 魚岫霞光釀暮嵐  
벼랑과 바위에 화초 피고 산은 적막하니 岸草巖花山寂寂  
시승이 떠난 뒤에 이야기할 사람 없이 고요하네 詩僧去後靜無談

어영차 들보 북쪽으로 떡을 던지니 兒郎偉拋梁北  
농부가 소를 몰고 동쪽 밭을 향하네 田父驅牛向東陌  
이제부터 아전의 야경(夜警) 소리 들리지 않고 從今不聞吏夜呼  
들에 곡식이 가득하니 백성들이 흠족해하네 禾黍滿郊民自足

어영차 들보 위로 떡을 던지니 郎兒兒郎偉拋梁上  
여항의 집집마다 아이들이 자라네 村閭接屋兒孫長  
안에서 다투지 않고 공경하니 內無勃谿有敬恭  
때때로 제사 지낼 술을 들고서 서로 예를 지키네 社酒時携禮相讓

어영차 들보 아래로 떡을 던지니 兒郎偉拋梁下

---

928 뱉어낸 명주 : 아름다운 시문을 의미한다. 이백(李白)의 시에 “그대의 침방울이 구천에서 떨어지니, 바람 따라 모두가 주옥을 이루다. [咳唾落九天, 隨風成珠玉.]”라고 하였다. 《李太白集 卷3 妾薄命》

깊고 넓게 큰 집을 지을 필요 없도다           不必渠渠成大廈  
장차 이곳에서 관례와 혼례를 치르기에 충분하니 且足冠婚之所於  
제비와 까치가 구구이 축하하기에 마땅하네<sup>929</sup> 還宜燕雀區區賀

삼가 바라건대, 들보를 올린 뒤에 상서가 일고 복이 내리며 사  
특함이 제거되고 재앙이 없어지게 하소서. 맑은 바람 다하지 않  
고 밝은 달 끝이 없으니, 누가 임하(林下)에서 부귀를 다투리오.  
금슬(琴瑟)이 상에 가득하고 도서가 시령에 가득하니, 세상의 공  
명을 부러워하지 않네.

---

929 제비와…마땅하네 : @쪽 주 73 참조.



## 치어 致語

### 주 목왕이 요지에서 서왕모와 연회를 펼친 전설을 상정하여 지은 치어

擬周穆王瑤池王母宴致語

-원문 1자 빠짐- 꿈틀거리는 팔룡(八龍)<sup>930</sup>이 세상 밖 어가 행차<sup>931</sup>를 이끌며 빙빙 돌고, 오색(五色) 머금은 구름<sup>932</sup>이 천상의 신선과 만나네. 금잔의 만수무강을 유하주(流霞酒)<sup>933</sup>로 축원하고, 요지

---

930 팔룡(八龍) : 주 목왕(周穆王)이 탔던 준마를 말한다. 당(唐)나라 한유(韓愈)의 《구주서언왕묘비(衢州徐偃王廟碑)》에 “이때에 주나라 천자 목왕이 무도하여 천하를 다스림에 마음을 쓰지 않고 도사들의 말을 좋아하고, 팔룡(八龍)의 준마를 얻어 타고서 서쪽으로 유람을 가서 서왕모와 함께 요지 가에서 연회를 베풀고 노래를 부르며 돌아가기를 잊었다[周天子穆王無道, 意不在天下, 好道士說, 得八龍騎之西遊, 同王母宴于瑤池之上, 歌謠忘歸.]”라고 하였다.

931 어가 행차 : 원문의 ‘경필(警蹕)’은 천자(天子)가 나갈 때에 경(警)이라 외치고 들어올 때에 필(蹕)이라 외쳐서 진을 트고 행인(行人)을 금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천자의 행차를 뜻한다.

932 오색(五色) 머금은 구름 : 원문의 ‘오운(五雲)’은 다섯 빛깔의 상서로운 구름으로 길상(吉祥)의 징조를 나타낸다. 황제가 있는 곳을 뜻하기도 한다.

933 유하주(流霞酒) : 신선이 마시는 술을 말한다. 두보(杜甫)의 <종무생일(宗武生日)>에 “유하를 조각조각 나누어서, 방울방울 천천히 기울



(瑤池)의 한 면에 바람과 햇빛이 가득한데, 신선과 범인이 합석하여-원문 1, 2자 빠짐-함께 기뻐하네. 삼가 생각건대 서왕모(西王母)는 늙지 않고 언제나 청춘이니 생만 있고 죽음은 없네. 단혈산(丹穴山)<sup>934</sup>에 있는 구포(九苞)<sup>935</sup>의 봉황을 대낮에 타고 다니며, 현포(玄圃)<sup>936</sup>에 있는 일각(一角)의 기린을 푸른 하늘에 끌고 왔네. 자황색 책상에서 경전을 찾고 백옥루(白玉樓)<sup>937</sup>에서 통소를 부네. 창해에서 3천 년 동안 한 번 피고 지는 반도(蟠桃) 꽃을 조용히 보고,<sup>938</sup> 광한궁(廣寒宮) 9만 리에서 너울거리는 계수나무 그림자를 한가히 희롱하네.<sup>939</sup> 오직 허공을 걸으며 날아오르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누가 대승(戴勝)을 달고서 굴속에 산다고 하는가?<sup>940</sup>

이노라.[流霞分片片 涓滴就徐傾.]” 하였다.

- 934 단혈산(丹穴山) : 전설 속 봉황이 사는 산이다. 《산해경(山海經)·남산경(南山經)》에 “봉혈산에…새가 있는데 그 형상은 닭과 같고 오색 무늬가 있으니 이름은 봉황이라고 한다(丹穴之山…有鳥焉, 其狀如雞, 五采而文, 名曰鳳皇.)”라고 하였다.
- 935 구포(九苞) : 봉황의 아홉 가지 특징을 말한다. 그 아홉 가지는, 입은 함부로 울지 않고 마음은 법도에 맞고 귀는 멀리까지 잘 듣고 혀는 소리를 잘 내고 깃 색깔은 문채가 나고 벼슬은 붉은색이고 발톱은 날카롭고 소리는 우렁차고 배는 아무것이나 먹지 않는 것이다.
- 936 현포(玄圃) : 전설 속 곤륜산(崑崙山) 정상에 있다고 하는 신선의 거처를 말한다.
- 937 백옥루(白玉樓) : 전설 속 천제(天帝)나 선인(仙人)이 산다고 하는 곳이다.
- 938 창해에서…보고 : 반도(蟠桃)는 3천 년에 한 번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다는 선도(仙桃)로, 창해(滄海) 가운데 도삭산(度朔山) 꼭대기에 있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말한 것이다.《山海經》
- 939 광한궁(廣寒宮)…희롱하네 : ‘광한궁’은 달 속에 있다는 선궁(仙宮)이다. 달 속에 계수나무가 있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
- 940 누가…하는가 : ‘대승(戴勝)’은 서왕모가 했다고 하는 머리 장식이다. 사마상여(司馬相如)의 <대인부(大人賦)>에 “서왕모를 보니 하얀 머리

봉린주(鳳麟洲)<sup>941</sup>에서 풀을 꺾으니 소매에 요향(瑤香)이 가득하고, 학잠(鶴岑)<sup>942</sup>에서 덩굴을 부여잡으니 옷깃에 자기(紫氣)<sup>943</sup>가 들렀네. 삼청세계(三清世界)<sup>944</sup>에 살면서 구천(九天)의 연하(煙霞)를 오르내리는데 양곡(陽谷)에서 아침을, 금추(金樞)에서 저녁을 맞이하며<sup>945</sup> 해와 달을 채찍질하고, 선규(璇虬)에 뛰어오르고 옥태(玉馱)를 타고서 풍운을 끼고 몰아간다. 이때에 우연히 창합문을 쫓아 들어오니 멀리 곤륜산으로부터 이르렀네. 새벽에 노을패옥<sup>946</sup>을 울리면서 삼산(三山)<sup>947</sup>을 날아서 지나왔고, 대낮에 구름 깃발을 펴려이면서 한참을 만승(萬乘)의 천자께 읊하네. 잔치 소식을 가지고 오니 만고의 아련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네. 비단 버

에 대승을 하고 굴속에서 사는구나.[觀西王母，鬢然白首，戴勝而穴處兮]” 하였다.

- 941 봉린주(鳳麟洲) : 전설 속 신선이 사는 주(洲)의 이름이다. 《해내십주기(海內十洲記)》〈봉린주(鳳麟洲)〉에 “봉린주는 서해의 중앙에 있다. 사방이 500리이고 그 주위에 약수가 에워싸고 있는데, 기러기 털도 뜨지 않으므로 건너갈 수 없다. 섬 위에 봉과 기린이 많아 수만 마리씩 떼지어 있다. [鳳麟洲在西海之中央，地方一千五百里，洲四面有弱水繞之，鴻毛不浮，不可越也。洲上多鳳麟，數萬各爲群.]” 라고 하였다.
- 942 학잠(鶴岑) : 선도(仙道)를 닦는 자가 사는 산이다. 당(唐)나라 왕발(王勃)의 〈회선(懷仙)〉시에 “학잠에 기이한 길이 있고, 봉린주에 선인이 많다. [鶴岑有奇徑，麟洲富仙家.]” 라고 하였다.
- 943 자기(紫氣) : 자색(紫色)의 운기(雲氣)로, 옛날에 상서로운 기운으로 여겨졌다. 일반적으로 제왕이나 성현이 출현할 조짐을 형용한다.
- 944 삼청세계(三清世界) : 신선이 사는 천상세계로, 삼동(三洞)의 교주(教主)가 사는 옥청경(玉清境), 상청경(上清境), 태청경(太清境) 세 선경을 가리킨다.
- 945 양곡(陽谷)에서... 맞이하며 : 양곡(陽谷)은 해가 뜨는 곳을, 금추(金樞)는 전설 속 달이 뜨고 지는 곳을 말한다.
- 946 노을패옥 : 원문은 ‘하패(霞佩)’로, 신선이 차는 패옥을 말한다.
- 947 삼산(三山) : 전설상의 봉래(蓬萊)·방장(方丈)·영주(瀛州) 세 산으로, 신선이 살고 있다고 한다.

선을 막 읊기자 낙수 가 선녀<sup>948</sup>는 부끄러워 움츠리고, 잠시 균천 광악(鈞天廣樂)<sup>949</sup>을 연주하자 동정호의 어룡(魚龍)이 일어나 춤 추네. 지금 나는 본래 속세의 인간인데 때마침 신선과 연분을 맺 었도다. 장차 수레 타고 말 달려 산하를 두루 다 돌아다니더라도, 비단 같은 말과 옥 같은 글로 그대를 기쁘게 해주지 못함이 유독 부끄럽도다.

---

948 낙수 가 선녀 : 전설 속 복희씨(伏羲氏)의 딸인 복비(宓妃)로, 낙수에 서 익사하여 낙수의 수신(水神)이 되었다고 한다.

949 균천광악(鈞天廣樂) : 천상(天上)의 음악 혹은 선악(仙樂)을 뜻한다. 춘추시대 조간자(趙簡子)가 병이 들어 5일 동안 혼수상태에 있었는데, 의식이 돌아오자 “내가 상제가 계신 곳에 가서 매우 즐거웠고, 온갖 신들과 균천(鈞天)에서 노닐었는데, 삼대의 음악과 달라 광악(廣樂)의 구주(九奏)와 만무(萬舞) 소리가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한 데에서 유래한 말이다. 《史記 卷43 趙世家》

# 7월 7일에 직녀가 견우와 이별함을 상정하여 지은 치어

擬七月七日 織女別牽牛致語

바람이 봉역(鳳驛)으로 불어오자 무곡(霧轂)에 수건 덮어 행장을 꾸리고, 달이 어경(魚肩) 곁을 비추자 하거(霞裾)를 떨치며 물고 가려 하네.<sup>950</sup> 신선의 시름이 옥이 쌓인 듯하여 신령한 눈물이 주옥같이 달렸네. 무릇 봄날 정원에서 원앙 꿈<sup>951</sup>을 꾸다가 우아한 풍도가 날로 게을러지는 데로 빠지니, 우리의 위엄이 석양에 크게 노하여 운관(雲官)에서 금헌(金憲)에 저촉되었네.<sup>952</sup> 마침내 삼상(參商)처럼 남북으로 귀양 가니<sup>953</sup> 천지와 같은 부모의 은혜를 그르쳤도다. 수놓은 휘장의 베틀은 차가우니 용이 몇 번이나 옥사(玉梭)에서 변했던가?<sup>954</sup> 고운 모래밭에 풀이 따뜻하니 소는

950 바람이…하네 : 직녀가 견우를 만나기 위해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형상한 것이다. ‘봉역(鳳驛)’, ‘무곡(霧轂)’, ‘어경(魚肩)’, ‘하거(霞裾)’는 각각 ‘역’, ‘수레’, ‘자물쇠’, ‘옷자락’을 뜻하는 말로, 천계(天界)의 신령함을 나타내기 위해 수식한 표현이다.

951 원앙 꿈 : 원문의 ‘앙몽(鴛夢)’은 ‘원앙몽(鴛鴦夢)’이라고도 하는데, 부부가 서로 만나는 꿈을 말한다.

952 우리의…저촉되었네 : 천제가 화가 났음을 표현한 말이다. ‘뇌위(雷威)’는 ‘천제’를, ‘운관’은 천제의 명을 받고 형을 집행하는 장소를, ‘금헌’은 법규를 뜻한다.

953 마침내…가니 : 직녀와 견우가 서로 이별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삼상(參商)’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뜻하는 말로, 삼성(參星)은 동쪽 하늘에 있고 상성(商星)은 서쪽 하늘에 있어서 각각 뜨고 지는 시각이 달라 영원히 서로 만날 수가 없는 데에서 유래한다.《春秋左傳昭公元年》

954 용이…변했던가 : 진(晉)나라 도간(陶侃)이 뇌택(雷澤)에서 그물질하

은하수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네. 난초도 슬퍼하고 혜초도 원망하며 복사꽃 오얏꽃과 더불어 말이 없고, 토끼도 울고 두꺼비도 울며 항아(姮娥)와 짝하여 눈물 흘리네.<sup>955</sup> 360일을 묶여 있다가 하루아침의 휴가를 받아 하늘 높이 9만 8천 리를 뛰어 올라 칠석날 만났도다. 좋은 시기가 이를 때면 매번 어진 배필이 나보다 먼저 올까 겁내네. 자줏빛 허공에 고운 난새를 몰아서 무지개 채찍 들고 안개 주위를 돌아가고, 맑은 은하수에 신령한 까치들을 줄지어 배열시켜 비단 버선 신고 파도를 건너네. 가서 그를 따르고 싶으니 하늘 길의 험난함을 어찌 꺼리리오! 또한 이미 만나고보니 이 사람이 중앙에 있도다. 아! 비녀를 합했다가 자개 상자를 쪼개니<sup>956</sup> 봄바람은 잠깐 동안도 의지할 수 없고, 산도 슬퍼하고 물도 애달파하니 기쁘던 마음은 곧 아득한 저편으로 돌아가네. 신령한

---

다가 북을 하나 건져 벽에 걸어 놓았더니, 잠시 후에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면서 그 북이 절로 용으로 변하여 날아가 버렸다는 고사가 있는데 이를 원용한 것이다. 《晉書 卷66 陶侃列傳》

- 955 토끼도…흘리네 : 달도 슬퍼한다는 뜻이다. 토끼와 두꺼비, 항아는 모두 전설에서 달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달 속에는 옥토끼가 있어 계수나무 아래에서 항상 불사약(不死藥)을 짓고 있다 하며, 달에 두꺼비가 산다고 하여 달을 ‘섬궁(蟾宮)’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항아’는 상고 시대 유궁후(有窮后) 예(羿)의 아내로, 예가 일찍이 서왕모(西王母)에게서 불사약을 얻어 놓았는데, 항아가 이를 훔쳐 먹고 신선이 되어 달 속으로 도망쳐 들어가 외롭게 산다는 전설이 있다.
- 956 비녀를…쪼개니 : 만남과 헤어짐을 뜻한다. 백거이(白居易)의 <장한가(長恨歌)>에 “오직 옛 물건으로 깊은 정을 표하오니, 자개 상자와 금비녀를 드립니다. 비녀 한 쪽씩, 상자 한 장씩, 황금 비녀 쪼개고 자개 상자 나눴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금비녀와 자개처럼 견고하다면, 천상에서든 세상에서든 다시 만나겠지요. [唯將舊物表深情, 鈿合金釵寄將去. 釵留一股合一扇, 釵擘黃金合分鈿. 但教心似金鈿堅, 天上人間會相見]”라고 하였다.

비는 은근히 내리고 오리는 날아가서 신발도 사라졌네.<sup>957</sup> 향진(香塵)<sup>958</sup>은 적막하고 봉황도 떠나서 누대는 텅 비었네.<sup>959</sup>

- 957 오리는…사라졌네 : 후한 명제(明帝) 때 선인(仙人)인 왕교(王喬)의 고사를 활용한 것이다. 왕교가 섭현(葉縣)의 현령으로 있었는데, 초하루와 보름마다 수레나 말도 타지 않고 머나먼 길을 와서 조회에 참석하였다. 황제가 이를 괴이하게 여겨 살펴보게 하였는데 그가 올 때마다 오리 두 마리가 동남쪽에서 날아오므로 그물을 쳐서 잡고 보니, 그물 속에 신발 한 짝만 있었다고 한다. 《後漢書 卷28 王喬列傳》
- 958 향진(香塵) : 향기가 나는 먼지라는 뜻으로, 여자의 발자국에서 일어나는 먼지를 가리킨다. 진(晉)나라 왕가(王嘉)의 《습유기(拾遺記)》에 “석송은 또 침수향(沈水香)을 분말처럼 가루로 만들고, 상아로 만든 상 위에 깔아 아끼는 사람에게 그것을 밟게 하였다.[石崇又屑沈水之香如塵末, 布象牀上, 使所愛者踐之.]”라고 한 데에 보인다.
- 959 봉황도…비었네 : 농옥(弄玉)과 소사(簫史)의 고사를 통해 사람이 떠남으로 인한 공허함과 적막함을 표현한 것이다. 춘추시대 진 목공(秦穆公) 때 소사가 통소를 잘 불어 공작과 백학을 불러들이곤 했는데, 목공의 딸 농옥이 그를 좋아하자 목공은 그에게 농옥을 시집보냈다. 농옥이 소사에게 매일 통소를 배워 몇 해 뒤에는 봉황을 부를 수 있게 되자 목공이 봉대(鳳臺)를 지어 주었는데, 이들 부부는 몇 해가 되도록 봉대에서 내려오지 않다가 어느 날 아침 봉황을 타고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列仙傳 簫史》

## 직녀가 장건과 이별함을 상정하여 지은 치어

擬織女別張謏致語

금빛 독의 까치들이 날아갔으니 나루터에 이르러도 건널 다리가 없고, 은빛 포구의 물고기 떼가 놀라니 은하수를 좇아오는 객이 있어서라오. 하늘의 삼살개가 달을 향해 짓으니 은하수 물굽이에 수의(繡衣)<sup>960</sup>가 펴려있고, 옥빛 익조<sup>961</sup>가 바람을 가르니 신령한 뗏목이 북두성 가에 걸렸네. 만약 황하(黃河)가 지상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낮에 하늘을 오를 수 있었을까? 괴이하게도 사람의 발자취가 여기 먼 곳에 있으니, 용사(龍梭)<sup>962</sup>를 던지며 이에 말하노라. 벽락(碧落)<sup>963</sup>의 천문(千門) 만호(萬戶)는 곧 신선들의 고향이요, 옥경(玉京)의 열 누각 다섯 성은 곧 상제(上帝)의 집이라네.<sup>964</sup> 지금 나는 한을 봉하여 말하지 못하고 실을 짜서 붉은

960 수의(繡衣) : 왕명을 받든 어사(御史)나 사신이 입을 수 놓은 비단옷으로, 여기서는 장건(張蹇)을 가리킨다.

961 옥빛 익조 : 원문은 ‘옥익(玉鷁)’으로, 화려한 배를 뜻한다. ‘익(鷁)’은 백로 비슷한 새로 바람에 잘 건넌다고 하여 옛날에 뱃머리에 그 모양을 새기거나 그려 놓았다 한다.

962 용사(龍梭) : 베틀의 부품인 북을 가리킨다. 진(晉)나라 도간(陶侃)이 어렸을 때 뇌택(雷澤)에서 그물질하다가 북을 하나 건져서 벽에 걸어 놓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면서 그 북이 저절로 용으로 변하여 날아가 버렸다는 고사가 있다. 《晉書 卷66 陶侃列傳》

963 벽락(碧落) : ‘벽락궁(碧落宮)’으로 신선들이 사는 궁궐을 말한다. 벽진(晉) 나라 심희(沈羲)가 백성을 위해 재해(災害)를 없애주고 병을 고쳐 주면서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않자, 천신(天神)이 감동한 나머지 그를 하늘로 영접하여 벽락 시랑(碧落侍郎)으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神仙傳 沈羲》

964 옥경(玉京)의… 집이라네 : ‘옥경(玉京)’은 ‘백옥경(白玉京)’으로 천제(

비단을 만든다오. 수금(獸錦)<sup>965</sup>이 완성되는 때는 앉아서 하루 종일 일곱 번 자리를 옮기지만,<sup>966</sup> 견우가 떠난 뒤로는 헛되이 만고의 청춘만 보낸다오. 이에 한 조각 단단한 돌로 구천(九天)의 소식을 드러내니, 이제 풍진 세상에 가거들랑 돌을 준 사람에게 대해 말하지 말고 훗날 주렴 친 가게에 가서 마땅히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보시오.<sup>967</sup>

天帝)가 사는 곳이다. ‘열 누각’은 ‘열두 누각[十二樓]’를 줄여서 표현한 것인데 ‘열두 누각’과 ‘다섯 성’도 각각 백옥경에 있다는 전설상의 누각과 성으로 선경을 비유한다. 이백(李白)의 시 <경난리후천은유야랑억구유서회증강하위태수양재(經亂離後天恩流夜郎憶舊遊書懷贈江夏韋太守良宰)>에 “천상에 백옥경이 있으니, 열두 누각에다 다섯 성이라오.[天上白玉京, 十二樓五城.]”라고 하였다.

- 965 수금(獸錦) : 수형(獸形)의 무늬를 넣어 직조한 비단이라는 뜻으로, 화려한 문채의 옷감을 가리킨다.
- 966 앉아서…옮기지만 : 원문의 ‘칠양(七襄)’은 직녀가 하루에 일곱 번 베틀에 올라 정성스럽게 베를 짠다는 말이다. 《시경》 <대동(大東)>에 “삼각으로 있는 저 직녀성은 하루 종일 일곱 번을 옮기도다.[跂彼織女, 終日七襄.]”라고 하였다.
- 967 이에…찾아가보시오 : 원문의 ‘견완(堅頑)’은 지기석(支機石)을, ‘염사(簾肆)’는 주렴을 드리운 가게를, ‘매복지사(賣卜之士)’는 한나라 때 은거하며 복서(卜筮)를 업으로 삼았던 엄군평(嚴君平)을 가리킨다. 이 내용과 관련한 전설은 다음과 같다. 한 무제(漢武帝) 때 장건(張騫)이 사신이 되어 서역(西域)에 나가는 길에 뗏목을 타고 황하(黃河)의 근원을 한없이 거슬러 올라가다가 한 성시(城市)에 이르렀는데, 한 여인은 방 안에서 베를 짜고, 한 남자는 소를 끌고 은하(銀河)의 물을 먹이고 있었다. 그들에게 “여기가 어디인가?”라고 묻자, 그 여인이 지기석(支機石) 하나를 장건에게 주면서 “성도(成都)의 엄군평(嚴君平)에게 가서 물어보라.” 하였다. 장건이 돌아와서 엄군평을 찾아가 지기석을 보이자, 엄군평이 말하기를 “이것은 직녀의 지기석이다. 아무 연월일(年月日)에 객성(客星)이 견우성과 직녀성을 범했는데, 지금 헤아려보니 그때가 바로 이 사람이 은하에 당도한 때였다.”라고 하였다. 《傳物志》





## 첩帖

### 모도독께 보내는 영의정의 회첩 문룡

毛都督前領議政回帖 文龍

하늘의 북두성이 자루를 돌리니 청양(靑陽)이 현영(玄英)의 절기를 대체하였습니다.<sup>968</sup> 번방 임금의 낮빛이 변했으니 진귀한 선물이 옥장(玉帳)<sup>969</sup>의 함에 담겨 왔습니다. 덕음(德音)을 받음에 영광임을 알겠고, 뛰어난 공렬을 받들며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위엄이 한여름에 치는 벼락같이 명성이 초목의 바람처럼 진동하고 전란의 기운이 가을하늘에 가득하여 어룡(魚龍)의 바다에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마침 새해<sup>970</sup>를 송축해주는 말을 들으

---

968 청양(靑陽)이…대체하였습니다 :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는 뜻이다. 《이아(爾雅)》〈석천(釋天)〉에 “봄은 청양, 여름은 주명, 가을은 백장, 겨울은 현영이니, 네 가지 기운이 조화로운 것을 옥촉이라고 한다.[春爲靑陽 夏爲朱明 秋爲白藏 冬爲玄英 四氣和 謂之玉燭.]”라고 하였다.

969 옥장(玉帳) : 옥같이 견고한 장막이라는 뜻으로, 장군의 막부를 뜻한다.

970 새해 : 원문은 ‘헌세(獻歲)’로 새해로 진입한다는 말이다. 즉 새해 정월을 가리킨다. 《초사(楚辭)》〈초혼(招魂)〉 난(亂)에 “새해가 다가오고 봄기운이 피어오르건만, 나만 혼자 쫓겨나서 남으로 가네.[獻歲發春兮, 汨吾南征.]”라고 한 데에서 온 말이다.

니 문득 봄날 같은 따뜻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융숭한 예우와 특별한 은혜가 하나같이 진정한 뜻에서 나왔고, 제(齊)땅의 기물(奇物)과 촉(蜀)땅의 완물(玩物)은 오색 빛의 구름과 안개가 낀 듯합니다. 이에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감사의 마음을 추어올려 삼가 변변치 못한 물건을 보냅니다. 오늘 아침은 봉래섬 선가(仙家)의 두터운 은혜에 젖었으니 훗날 연연산(燕然山)<sup>971</sup> 석각(石刻)에 성대한 공을 칭송하겠습니다.

---

971 연연산(燕然山) : 몽고 지방에 있는 산으로, 항애산(杭愛山)이라고도 불린다. 후한 화제(後漢和帝) 원년(89)에 거기장군(車騎將軍) 두헌(竇憲)이 남선우(南單于) 및 강호(羌胡)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계락산(稽落山)에서 북선우(北單于)와 싸워 크게 승리하여 연연산을 점령하고 돌아왔는데,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반고(班固)에게 명해 명(銘)을 지어 그곳에 비석을 세웠다. 《後漢書 卷23 竇憲列傳》

## 모도독께 보내는 이상길<sup>972</sup>의 헌첩<sup>973</sup>

毛都督前李尙吉獻帖

산이 새알을 짓누르려 하니<sup>974</sup> 지금 흥도의 소굴에 두려움이 진  
동하건만, 기예가 문장을 수식하는 정도로 그치니 어찌 그 위대  
한 업적을 형용하겠습니까?<sup>975</sup> 그러나 제 마음에 새겨진 업적은

972 이상길(李尙吉) : 1556~1637. 본관은 벽진(碧珍), 자는 사우(士祐), 호는 동천(東川),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1579년 진사가 되고, 1585년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폐모론이 일어나자 전라도 남원으로 돌아가 은퇴하였다가 인조반정 후에 다시 출사해 승지·병조 참의·공조 판서를 역임한 다음 기로소에 들어가 평난 호성 정사 진무 원종공신(平難扈聖靖社振武原從功臣)이 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조정의 명을 받아 영위사(迎慰使)가 되어 80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묘사(廟社)를 받들고 강화도에 들어갔다. 다음 해 청군이 강화도로 육박해오자 아들 이경(李珩)을 불러 뒷일을 부탁한 뒤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강화도의 충렬사(忠烈祠)에 배향되고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973 모도독께…헌첩 : 1623년 모문룡이 도독(都督)의 지위로 승진했을 때 조선에서 이상길(李尙吉)을 접반사로 보냈는데 그 때 지은 글로 보인다.

974 산이…하니 : 모문룡의 용맹한 군대로 오랑캐를 쳐부수는 것은 손쉬운 일임을 비유한 것이다. 《구당서(舊唐書)》 권169 <왕애열전(王涯列傳)>에 “조서를 아침에 내리면 여러 진이 저녁에 군사를 몰고 올 것이니, 죄를 추궁하는 용맹한 군대를 동원하여 절의를 잃고서 미쳐 날뛰는 도적을 소탕하는 것은 마치 산을 기울여 새알을 짓누르는 것과 같고, 바닷물을 끌어와 반딧불을 끄는 것과 같을 것이다. [詔書朝下, 諸鎮夕驅, 以狶狶問罪之師, 當猖狂失節之寇, 傾山壓卵, 決海灌熒.]”라고 하였다.

975 기예가…형용하겠습니까 : 작은 기예로 큰 업적을 드러내기에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문의 ‘조충(雕蟲)’은 조충전각(雕蟲篆刻)의 준말로, 별레 모양이나 전서(篆書)를 새기듯이 미사여구로 글을 꾸미는 작은 재주를 말한다. 한(漢)나라 양웅(揚雄)의 《법언(法言)》 권2 <오자

견고하니<sup>976</sup> 그러므로 입에서 나온 말이 비석입니다.<sup>977</sup> 우러러 생각건대 일평생 참된 충성을 다하여 천하에 한 자루 검을 들고 서셨습니다. 시의적절하게 행하는 책임이 크시니 배진주(裴晉州)가 군대에 임한 것 같고,<sup>978</sup> 상장군으로 관직이 높으시니 손숙오(孫叔敖)가 변방에 출병한 것과 같습니다.<sup>979</sup> 사람은 촉망을 진압하

(吾子)에, “동자(童子)의 조충전각과 같은 일일…장부는 하지 않는다.[童子雕蟲篆刻…壯夫不爲也.]”라고 하였다.

976 제…견고하니 : 모문룡의 업적이 글로써 표현하기 어렵지만 마음에 견고하게 새겨져 있다는 말이다. 《시경》〈백주(柏舟)〉에 “내 마음은 돌이 아니라 굴릴 수 없고, 내 마음은 자리가 아니라 말 수가 없네.[我心匪石, 不可轉也, 我心匪席, 不可卷也.]” 하였고, 주희의 주석에 “돌이 비록 견고하지만 굴릴 수가 있고 돛자리가 비록 평평하지만 말 수가 있으니, 내 마음의 견고하고 평평함이 돌이나 돛자리보다 더하다는 말이다.” 하였다.

977 입에서…비석입니다 : 입으로 칭송하기 때문에 그 말이 마치 송덕비를 세운 것과 같다는 뜻이다.

978 시의적절하게…같고 : 배진주(裴晉州)는 당나라 헌종(憲宗) 때의 재상 배도(裴度)로 보이는데, 배도는 헌종 때에 회주(淮州)와 채주(蔡州)가 순종하지 않자 군사를 동원하여 누차 정벌하였으나 패배하였다. 그러자 조정의 신하들이 앞다투어 정벌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배도는 정벌을 극력 주장하여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의 신분으로 여러 군대를 독려하여 정벌한 끝에 채주 자사(蔡州刺史) 오원제(吳元濟)를 생포하였다. 그 공로로 진국공(晉國公)에 봉해졌다. 《舊唐書 卷17 裴度列傳》

979 상장군으로…같습니다 : 손숙오(孫叔敖)는 춘추시대 초(楚)나라 장왕(莊王)을 잘 보필하여 장왕으로 하여금 선정을 베풀고 패업을 달성하게 한 인물이다. 그는 재상[冢尹]이 되어 출병할 때에 우군(右軍)은 주장(主將)의 거원(車轅)을 호위하게 하고 좌군(左軍)은 야영(野營)할 때 깔고 잘 풀을 구하게 하며, 전군(前軍)은 기를 들고 가면서 불의의 사태를 알리게 하고 중군(中軍)은 작전 계획을 세우게 하고 후군은(後軍)은 강한 병사로 부대를 만들어 후미를 지키게 하는 등 군대 운용을 잘했다고 한다. 《春秋左氏傳 宣公 12年》

여 명성이 설산(雪山)에 올려 퍼진 것과 같고,<sup>980</sup> 일은 남만(南蠻)을 정벌하여 공이 동주(銅柱)를 높이 세운 것과 다릅니다.<sup>981</sup> 병기(兵氣)가 남두성(南斗星)을 찌르자<sup>982</sup> 천지가 뒤죽박죽이었고, 진운(陣雲)<sup>983</sup>이 동쪽 바다에 영기자 용과 범이 변화하듯 했습니다.<sup>984</sup> 노인과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빼앗은 땅을 버리자 사기는 더욱 신장되었고, 쩡그리고 신음하는 적정(敵情)을 잘 살피고<sup>985</sup>

980 사람은…같고 : 송(宋)나라 명재상인 범중엄(范仲淹)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서하(西夏)의 임금 원호(元昊)가 칭제(稱帝)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범중엄은 서촉(西蜀) 일대의 변방을 수년 동안 방어하여 서하 사람들이 감히 국경을 넘보지 못하게 하였다.

981 일은…다릅니다 : 후한(後漢)의 북파장군(伏波將軍) 마원(馬援)이 교지(交趾)를 정벌한 뒤에 두 개의 구리 기둥[銅柱]을 세워 한(漢)나라와 남방 외국의 경계선을 표시한 고사가 있다. 《後漢書 卷24 馬援列傳》

982 병기(兵氣)가 남두성(南斗星)을 찌르자 : 전쟁의 기운이 나타남을 말한다. ‘남두성’은 남쪽에 있는 별자리로 형상이 북두성(北斗星)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한 것인데, 천자(天子)의 수명(壽命)을 관장한다고 한다.

983 진운(陣雲) : 층층으로 두텁게 쌓여서 마치 전진(戰陣)처럼 보이는 구름을 말하는데, 옛사람들은 이것을 전쟁의 조짐으로 여겼다.

984 용과…했습니다 : 용과 범이 변화하듯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한유(韓愈)가 지은 <전중소감마군묘지명(殿中少監馬君墓誌銘)>에서 마계조(馬繼祖)의 조부인 북평왕(北平王) 마수(馬燧)를 만났을 때의 감회를 표현하며 “그 당시 북정에서 북평왕을 뵈었는데, 마치 높은 산과 깊은 숲, 광대한 골짜기에서 용과 범이 변화하여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규모가 커다란 분이였다.[當是時 見王於北亭 猶高山深林鉅谷 龍虎變化不測 傑魁人也.]”라고 하였다.

985 쩡그리고…살피고 : 적군의 동태를 잘 살핀다는 뜻이다. ‘빈신(嗛呻)’은 얼굴을 쩡그리고 신음하는 것을 이르는데, 한유(韓愈)의 허국공신도비문(許國公神道碑文)에 “…공은 그 사이에서 임금을 위하여 간소매들을 책망하고 그 쩡그리고 신음하는 것을 살피었다.[公居其間 爲帝督姦 察其嗛呻]” 한 데서 온 말이다. 《韓昌黎集 卷三十二》

기아(機牙)<sup>986</sup>를 격파하니 적군이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금주(金州)·복주(復州)·해주(海州)·개주(盖州)가 장군께 힘입어 소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나라의 창주(昌州)·의주(義州)·귀주(龜州)·용주(龍州)도 믿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조선에서 홀로 무한한 공을 세우셨으니, 북녘 사막의 서쪽 부근에서 누가 막강한 용맹에 대적하겠습니까? 초(楚)땅 성루에 먼지만 남았으니 가야흐로 막부 위로 나는 새를 보고,<sup>987</sup> 요동(遼東) 하늘에 봄이 들었으니 반드시 동지로 돌아오는 학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짧은 두루마리에 글을 써서 감히 그 장대한 뜻을 드날립니다. 삼가 생각건대 처음 부의 치소로 말을 몰아 와서 곧바로 빈 접의 사은(私恩)을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한(漢)나라 나무 밑에서 공을 과시하지 않았으나 그 공로를 누가 다투었습니까?<sup>988</sup> 오늘 주(周)나라 팔배나무를 자르지 말라는 노래가 없어 부끄럽습니다.<sup>989</sup>

986 기아(機牙) : 쇠뇌의 시위를 잡아당겨 화살을 놓는 기관을 말한다.

987 초(楚)땅…보고 : 진중(陣中)에 적의 병사들이 모두 도망쳐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뜻한다. 춘추시대 정(鄭)나라와 초(楚)나라가 싸웠는데, 제후들이 정나라를 구원하자 초나라의 군사들이 밤에 모두 도망쳤다. 정나라의 간첩이 와서 살펴본 뒤에 돌아가 고하기를 “초막에는 새만 있다.[楚幕有鳥]” 하자, 정나라의 군사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다가 그만두었다. 《春秋左氏傳 莊公28年》

988 당시에…다투었습니까 : 모문룡의 공로가 커서 다들 자가 없음을 말한 것으로, 후한(後漢)의 개국 공신인 풍이(馮異)의 고사를 활용한 내용이다. 풍이는 광무제(光武帝)를 섬겨 많은 전공을 세웠으나 사람됨이 겸양하여 논공행상을 할 때면 언제나 자신의 공로를 발표하지 않고 큰 나무 아래에서 한가로이 쉬고 있었으므로 대수장군(大樹將軍)이라는 별칭이 생겼다. 《後漢書 卷17 馮異列傳》

989 오늘…부끄럽습니다 : 덕정(德政)을 찬미하는 소리가 없어 부끄럽다는 말이다. 《시경》〈감당(甘棠)〉에 “무성한 감당나무를 자르지도 말고

## 충청감사 홍경신<sup>990</sup>에게 내리는 교서

教忠淸監司洪慶臣書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하노라.

12주(州)의 목민관에게 자문한 것은 실로 순(舜)임금이 치세(治世)에 이른 방법이요,<sup>991</sup> 섬(陝)땅을 기준으로 동서로 나눈 것은 곧 주(周)나라가 함께 다스린 방법이다.<sup>992</sup>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회지도 말라. 소백이 머무셨던 곳이니라.[蔽芾甘棠, 勿翦勿拜. 召伯所說.]”라고 하였는데, 이 시는 주(周)나라 소백(召伯) 즉 소공(召公) 석(奭)의 덕정(德政)을 찬미한 것이다.

990 홍경신(洪慶臣, 1557~1623) :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덕공(德公), 호는 녹문(鹿門)이다. 1594년(선조27)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정자·이조 좌랑·부제학 등을 역임하고, 1606년에는 천추사(千秋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후 병조 참의, 강릉 부사(江陵府使), 우승지 등을 지냈다.

991 12주(州)의…방법이요 : 《서경》〈순전(舜典)〉에 “순임금이 12목(牧)에게 자문하여 말하기를 ‘먹을 것은 때를 놓치지 않는 데 달려있으니, 먼 곳은 회유하고 가까운 곳은 위무하며 덕 있는 사람을 후대하고 인후한 사람을 믿으며 간악한 사람을 막으면 오랑캐도 모여와 복종할 것이다.’[咨十有二牧曰：食哉惟時，柔遠能邇，惇德允元，而難任人，蠻夷率服.]”라고 하였다.

992 섬(陝)땅을…방법이다 : 주(周)나라는 섬(陝) 땅 동쪽은 주공(周公)이, 서쪽은 소공(召公)이 다스리게 하였다. 《書經 康王之誥》



팔도(八道)가 있는 것은 왕자(王者)의 제도에 제후를 봉건(封建)한 것과 같으니,<sup>993</sup> 이것이 적임자 구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며 이 직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이다. 하물며 이곳은 백제(百濟)의 옛 땅으로 실로 나라의 요충지이다. 바다를 당기고 호수를 끌어들여 그 땅이 거의 6백 리쯤 되고 도성에 잇닿아 그 성곽을 마주한 채로 고을은 40여 구역이나 된다. 상인이 통하고 조운선이 운반하여 세 지역과 그것을 함께 하고 수렛대가 부딪히고 어깨가 서로 닿으면서<sup>994</sup> 양쪽의 남도(南道)로 달려간다. 물산이 풍부하고 땅이 넓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선비가 많고 군대가 강성한데, 지금에 와서 가장 백성의 상처가 크다고 하니 근래에 누차 전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왜군(倭軍)이 대궐과 들판을 핏박하자 머리와 꼬리가 거의 위태로웠고, 어린아이들이 황지(潢池)에서 장난치자<sup>995</sup> 배와 등이 해를 입었다. 그 후로 해마다 백

993 왕자(王者)의…같으니 : 《예기(王制)》〈왕제(王制)〉에 천자의 기외(畿外) 봉건제(封建制)와 기내(畿內) 봉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994 수렛대가…닿으면서 : 사람과 차가 많음을 뜻한다. 《사기(史記)》〈소진열전(蘇秦列傳)〉에 “제(齊)나라 서울 임치(臨淄)는 도로에 수렛대가 서로 부딪치고 사람들의 어깨가 서로 닿아 옷깃을 연결하면 휘장을 이루고 소매를 치켜들면 장막을 이루며 땀을 흘리면 비가 되어 내린다.[臨菑之塗, 車轂擊, 人肩摩, 連衽成帷, 舉袂成幕, 揮汗成雨.]”라고 하였다.

995 어린아이들이 황지(潢池)에서 장난치자 : 백성들의 소규모 반란을 뜻한다. 여기서는 흥경신이 부임할 충청도에 변란이 있었음을 말하는 듯한데 어떤 변란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황지(潢池)는 물이 고여 만들어진 작은 못을 가리키는데, 한(漢)나라 공수(龔遂)가 선제(宣帝)의 하문(下問)을 받고는 “이번의 반란은 기한(飢寒)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관리들이 제대로 돌보아 주지 않자, 폐하의 어린아이들이 폐하의 무기를 슬쩍 훔쳐서 황지 가운데에서 한번 장난을 쳐 본 것일 따름입니다.[其民困于飢寒而吏不恤, 故使陛下赤子盜弄陛下之兵于潢池中

성을 동원한 일은 비록 조사(詔使)의 행차에 기인한 것이지만 해를 넘겨가며 부역을 일으킨 일의 경우 궁궐의 역사(役事)가 아님이 없다. 백성들은 분주히 명을 받드느라 거의 피폐해졌고, 관리들 또한 그로 인해 간악한 짓을 하였다. 쇠잔함을 소생하고 마른 것을 회복할 계책은 백 중에 하나도 없고, 곤궁함이 거듭되고 초췌함이 누적된 지만 16년째이다. 지방 수령들이 책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혹 순선(旬宣)<sup>996</sup>도 실책(失責)할까 우려스럽다. 생각건대 경은 일찍부터 문장과 덕행을 갖추었고, 유자의 집안에서 성장했으니, 학문은 연원이 있어서 훌륭한 덕과 중한 명망을 자부하고, 용모가 단정하고 야무져서 세상에서 ‘미옥(美玉)’과 ‘정금(精金)’으로 비유한다. 은대(銀臺)와 옥당(玉堂)의 자리에 있을 때는 오래도록 논사(論思)<sup>997</sup>와 출납을 의지하였고, 학궁(學宮)<sup>998</sup>과 간원(諫院)의 직책을 지낼 때는 매번 잘못을 바로잡고 옳은 길로 훈도하는 것을 가상히 여겼다. 도량과 재주가 두루 원만하여 이 때문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에 조정 관원들이 해준 말을 채택하여, 문득 이로써 외직을 맡겨 혼자서 일을 떠맡게 하였다.<sup>999</sup> 그 자리는 어려워서 경이 아니면 할 수 있

耳.]”라고 답변했던 고사가 있다.《漢書》〈龔遂傳〉

996 순선(旬宣) : 원문의 ‘詢’은 ‘旬’의 오자로 보인다. 참고로 ‘순선(旬宣)’은 감사(監司)의 직무를 말한다. 《시경》〈강한(江漢)〉의 “임금이 소호에게 명하시기를, 왕명을 두루 선포하라 하시다.[王命召虎, 來旬來宣.]”라는 말에서 나왔다.

997 논사(論思) : 의논하고 사색하는 것인데, 임금이 근신(近臣)들과 학문을 토론하는 것을 가리킨다. 전한(前漢) 반고(班固)의 〈양도부서(兩都賦序)〉에 “아침과 저녁으로 논사하고 날과 달로 충언(忠言)을 올린다.[朝夕論思, 日月獻納]”라고 하였다.

998 학궁(學宮) : 성균관을 가리킨다.

999 혼자서…하였다 : 원문의 ‘독현(獨賢)’은 혼자서 나랏일을 위해 고생

는 자가 없으니, 이에 경<sup>1000</sup>을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에 제수 하노라. 대궐 밖에서 수월(繡鉞)<sup>1001</sup>을 잡으니 관직은 사성(使星)<sup>1002</sup>의 높이이고, 청명(靑冥)에서 옥절(玉節)을 내려 받으니<sup>1003</sup> 품계는 경월(卿月)<sup>1004</sup>의 다음에 해당한다. 경은 가서는 맡은 일을 엄숙히 처리하고 돌아와서는 정사를 잘 마쳤음을 보고하라. 그대를 간성(干城)<sup>1005</sup>

하며 동분서주한다는 뜻이다. 《시경(詩經)》〈북산(北山)〉에 “넓은 하늘 아래 어떤 곳도 왕의 땅 아닌 곳이 없고, 어느 땅 물가의 사람도 왕의 신하 아닌 자가 없는데, 대부가 공평하지 못한지라, 나만 일을 시키며 홀로 어질다 하는구나.[溥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 大夫不均 我從事獨賢.]” 한 데서 나왔다.

1000 경 : 원문의 ‘향(鄉)’은 ‘경(卿)’의 오자로 판단된다.

1001 수월(繡鉞) : 수의(繡衣)와 부월(斧鉞)로, 왕의 사신을 뜻한다.

1002 사성(使星) : 임금이 지방에 파견한 사신(使臣)을 가리킨다. 후한(後漢)의 화제(和帝)가 즉위하여 각 주현(州縣)에 미복(微服) 차림의 사자(使者)를 파견해서 풍요(風謠)를 채집하게 하였는데, 두 명의 사자가 익주(益州)에 당도하여 이합(李郃)의 후사(候舍)에 투숙하였다. 그날 밤에 이합이 두 사자에게 별을 가리키면서, “두 사성이 익주의 분야로 향하였다.[有二使星向益州分野.]”라고 말했다는 데서 온 말이다. 《後漢書 卷82上 方術列傳 李郃》

1003 청명(靑冥)에서…받으니 : ‘청명(靑冥)’은 높고 푸른 하늘이라는 뜻으로 조정을 가리킨다. 옥절(玉節)은 옥 부절로 어명을 받고 파견되는 사신이나 지방장관들이 차는 부절을 말한다. 두보(杜甫)가 지은 〈형주에서 광주로 부임하는 이대부 칠장을 전송하다[衡州送李大七丈 勉赴廣州]〉의 시에 “부월이 조정에서 내려오니 누선은 동정호를 지나가겠지.[斧鉞下靑冥, 樓船過洞庭.]”라고 하였다.

1004 경월(卿月) : 재신(宰臣) 급의 고위 관료를 가리킨다. 《서경》〈홍범(洪範)〉에, “임금은 해를 살펴야 하고, 귀족과 관리들은 달을 살펴야 하며, 낮은 관리들은 날을 살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1005 간성(干城) : 방패와 성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말한다. 《시경》〈토저(兔置)〉에 “씩씩한 무부(武夫)여, 공후의 간성이로다.[赳赳武夫, 公侯干城.]” 하였다.

으로 삼아 의지하고, 그대를 병한(屏翰)<sup>1006</sup>으로 삼노라. 경은 본래 부터 문아(文雅)를 갖추고 있음을 아노니, 잠시라도 경악(經幄)<sup>1007</sup>을 비우는 건 적절치 않으나, 슬프도다! 우리 백성들이 무슨 죄인가? 우선 백성의 구제를 급선무로 삼노라. 관찰의 일이 어찌 풍속에만 해당되겠는가? 권장할 일은 농업과 잠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호탕한 자와 병약한 자를 제거하고 구제하기를 어찌 혹 늦추겠는가? 장오(贓汚)<sup>1008</sup>한 자와 청렴한 자는 내쫓고 들여 쓰에 우선할 바이다. 학교를 진흥시켜 인륜을 밝히는 일은 네가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군대 대오를 정비하고 병장기를 수선하는 일 또한 앞으로 힘쓰라. 죄가 대벽(大辟)<sup>1009</sup>에 해당하는 경우만 여쭙어서 재가를 받고,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로는 스스로 결단하여 뜻대로 처리하라. 아! 원습(原隰)<sup>1010</sup>에서 휘장 견고<sup>1011</sup> 말 달리는<sup>1012</sup> 수고

1006 병한(屏翰) : 나라의 울타리와 기둥이란 뜻으로, 《시경》〈판(板)〉의 “큰 제후국은 나라의 병풍이며 대종(大宗)은 나라의 정간(楨榦)이다.[大邦維屏, 大宗維翰.]”라고 한 데에서 유래한다.

1007 경악(經幄) : 조선 시대 신하들이 국왕에게 유학(儒學)의 경서(經書)나 역사서 등을 강론하는 일이나 그를 행하는 자리를 말한다. 경연(經筵)이라고도 한다.

1008 장오(贓汚) : 벼슬아치가 부정하게 뇌물을 받거나 관유물을 사사로이 취하고, 직권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1009 대벽(大辟) : 오형(五刑)의 하나로, 사형(死刑)을 말한다.

1010 원습(原隰) : 언덕과 습지라는 뜻으로, 왕명을 받든 사신의 행로를 가리키는 시어(詩語)이다. 사신을 전송하는 시인 《시경(詩經)》 소아(小雅) 황황자화(皇皇者華)에 “휘황한 꽃이여, 언덕과 습지에 피었다다.[皇皇者華 于彼原隰]”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서 기인한다.

1011 휘장 견고 : 후한(後漢)의 가종(賈琮)이 기주 자사(冀州刺史)로 부임할 때 백성을 친밀히 대하기 위하여 수레의 휘장을 견어버리도록[褰帷] 지시한 고사가 있다. 《後漢書 賈琮傳》

1012 말 달리는 : 원문은 ‘재치(載馳)’로 《시경》〈소아(小雅) 황황자화편(皇皇者華篇)〉에 “말을 달리며 채찍질하여 이에 두루 자문하도다.[載馳載

로움을 꺼려하지 말고, 말고삐 잡고 천하를 맑게 할 뜻을 품어<sup>1013</sup>  
 백성을 잘 보살펴줄 것이라는 희망에 부응토록 하라.<sup>1014</sup> 그러므  
 로 이에 교시하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

驅, 周爰咨諏.]” 한 데에 보이는데, 이 시는 임금이 사명(使命)을 받들  
 고 나가는 신하를 보낼 때 부르는 노래이다.

1013 말고삐… 품어 : 범방(范滂)의 ‘남비징청(攬轡澄清)’이란 고사를 원용  
 하여 흥경신에게 충청도 지역의 풍속을 일신시켜 백성들을 잘 다스  
 리라고 권면한 말이다. 범방은 후한의 환제(桓帝)와 영제(靈帝) 때 사  
 람으로, 그가 일찍이 청조사(請詔使)가 되어 기주(冀州)를 안찰하러  
 떠날 때, 수레에 올라 고삐를 잡고서는 개연히 천하를 깨끗하게 정  
 화시킬 뜻을 품었는데[登車攬轡, 慨然有澄清天下之志.] 그가 기주에  
 이르자 탐관오리들이 지레 겁을 먹고는 인끈을 자진해서 풀어놓고  
 달아났다는 고사가 전한다. 《後漢書 卷67 黨錮列傳 范滂傳》

1014 백성을… 하라 : 《서경》〈강고(康誥)〉에서 “갓난아이를 보호하듯 하면  
 백성이 편안하리라.[若保赤子, 惟民其康乂.]”라고 하였다.

## 황해감사 윤훤<sup>1015</sup>에게 내리는 교서

教黃海監司尹暄書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하노라.

부절을 나누고 부월을 잡게 함은 수령을 거느려서 총괄하여 다스리기 위함이니, 한(漢)나라 때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절진(節鎭)<sup>1016</sup>에 권위를 주는 것을 중시하였다. 선왕 중에 이를 신중히 하지 않은 이가 없으니 이것이 내가 책임자를 자문하는<sup>1017</sup> 까닭이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이 황해를 얻어 근본으로 삼았음에랴? 아득히 큰 바다에 닿아 있어서 뱃길이 통할 수 있고, 곧장 황경(皇京)으로 갈 수 있어서 사신의 행차가 즐지어 왕래한다.<sup>1018</sup> 어

---

1015 윤훤(尹暄) : 1573~1627,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차야(次野), 호는 백사(白沙)이다. 영의정 윤두수(尹斗壽)의 아들이자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1597년(선조30) 정시 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였다. 1611년(광해군3)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죄인으로 압송되는 김직재(金直哉)를 후대하였다 하여 관직을 삭탈 당하였다. 1624년(인조2)에 주청부사(奏請副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625년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한 뒤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전세를 불리하게 하였다는 죄로 체포되어 의금부에 투옥되었다가 강화도에서 효수되었다.

1016 절진(節鎭) : 절도사(節度使)를 설치한 중요한 진으로, 군사상 중요한 지역을 말한다.

1017 책임자를 자문하는 : 원문은 '주자(疇咨)'로, 《서경》〈요전(堯典)〉에서 요 임금의 신하들에게 “누가 나의 일을 순리적으로 행할 수 있을까? [疇咨若予咨?]”라고 자문을 구한 데서 온 말이다.

1018 사신의...왕래한다 : 원문의 '관개(冠蓋)'는 관원의 관모(冠帽)와 수레 덮개로, 전하여 사신의 행차를 가리킨다. '관개상망(冠蓋相望)'은 높은 벼슬아치나 사신의 수레가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를 두고 잇달아 간다는 뜻이다.

염(魚鹽)과 동철(銅鐵)의 이익이 많아 풍속이 순후하고 백성이 많으며 산 계곡과 험지(險地)의 형세에 기대어 물산이 풍부하고 땅이 크다. 풍성(風聲)이 사람들을 감발시킬 만하니 수양산(首陽山)의 유명(遺名)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고,<sup>1019</sup> 의기가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할 만하니 연성(延城)을 사수한 것<sup>1020</sup>이 어제 같다. 강회(江淮)의 보장(保障)<sup>1021</sup>으로써 국가의 요충지가 되었는데 근래에 매년마다 흉년이 일었고 또 조사(詔使)가 연이어 오기까지 했다. 백성들 중 향산이 없는 자가 열에 여덟 아홉이요 관리가 간악한 짓을 자행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착취<sup>1022</sup>를 자신의 능

1019 풍성(風聲)이…때문이고 : 황해도 해주(海洲)의 별호가 수양(首陽)이며 해수에 수양산이 있는데, 옛날 은(殷)나라 때의 지사인 백이(伯夷)와 숙제(叔齊)가 멸망한 은나라에 대한 충절을 지키며 은거하였던 중국 산서성(山西省) 영제현(永濟縣)에 있는 산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해주에도 백이와 숙제의 사당을 모셨다고 한다.

1020 연성(延城)을 사수한 것 : 임진왜란 당시 이정암(李廷菡, 1541~1600)이 500명의 의병으로 왜구 3000명과 치열한 싸움 끝에 승리하여 연안성(延安城)을 지켜낸 일을 말한다. 당시 성안에 불이 나자 병사들이 싸울 의욕을 잃어 성을 버리고 도망가려 하였는데, 이정암이 섰을 꿍고 그 위에 앉아 사수(死守)할 뜻을 보이니, 병사들이 모두 감격하여 힘을 다해 싸운 끝에 왜적의 수급(首級) 18구를 베었고 왜적들은 밤에 도망쳤다고 한다. 《국역 청장관전서 제62권 서해여언》

1021 강회(江淮)의 보장(保障) : 국가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를 뜻한다. 당 현종(唐玄宗) 천보(天寶) 연간에 안록산(安祿山)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장순(張巡)이 수양 태수(睢陽太守) 허원(許遠)과 함께 의논하기를 “수양성은 강회 지역의 보루가 되는 곳이니, 만일 이곳을 버리고 떠난다면 적이 승승장구하여 남쪽으로 내려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강회 지역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睢陽江淮保障也, 若棄之, 賊乘勝鼓而南, 江淮必亡.]”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新唐書 卷192 忠義列傳 張巡》

1022 착취 : 원문은 ‘박할(剝割)’로,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낸다는 뜻인

력으로 삼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고, 쫓겨나는 것을 무슨 일이나 고 여김은 누구의 잘못인가? 이미 정성을 쏟고 또 정성을 쏟았으니 교서의 조목이 실질을 잃은 것이 아닌데 저 사람이 오고 이 사람으로 바뀌면서 매번 옛 방식대로 임기만 마치고 교대할 뿐이었다.<sup>1023</sup> 이에 근신의 반열에서 발탁하여 특별히 제수해 교체하니 세상에 드문 위대한 업적이 나오기를 바라노라. 오직 경은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릇을 가지고 재상의 가문에서 나고 자랐다. 덕성(德星)이 규성(奎星)에 모이니<sup>1024</sup>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 있고, 형화(荊花)<sup>1025</sup>가 나무에 가득하니 참으로 난형난제로다. 자신에게 경전 공부를 허여했으니 그대 집안에서 업으로 하는 바이고, 보고 들은 것이 많으니 배우지 않고도 능하다. 일찍이 문과에 급제했기 때문에 높은 벼슬을 두루 거쳤다. 문(文)을 날줄로, 무(武)

---

데 백성들로부터 무리하게 재산이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말한다.

1023 임기만…뿐이었다 : 원문의 ‘급과(及瓜)’는 오이가 익을 때라는 말로, 임기(任期)가 끝나 교체되는 것을 뜻한다. 춘추시대 제 양공(齊襄公)이 연칭(連稱)과 관지보(管至父)를 규구(葵丘)로 보내 1년 동안 지키게 할 적에, 마침 오이가 익을 때였으므로 “이듬해 오이가 익을 때에 교체시켜 주겠다.[及瓜而代]”라고 약속한 데에서 온 말이다. 《春秋左氏傳 莊公8年》

1024 덕성(德星)이 규성(奎星)에 모이니 : 어진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다는 뜻이다. ‘덕성(德星)’은 경성(景星)과 세성(歲星) 등으로, 나라에 도가 있거나 현인(賢人)이 출현하면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별이 규성(奎星)에 보인다는 것은 송 태조(宋太祖) 건덕(乾德) 5년에 수(水), 화(火), 금(金), 목(木), 토(土) 다섯 별이 규성의 별자리에 모인[五星聚奎] 일이 있었는데, 당시 복자(卜者)가 이것을 인재가 많이 배출될 조짐이라고 한 바 있다.

1025 형화(荊花) : ‘형화’는 자형화(紫荊花)로, 꽃이 다닥다닥 붙어서 피기 때문에 형제나 형제간의 우애를 주로 비유한다.



를 씨줄로 서로 엮은 듯 장수와 재상의 재주를 이미 겹하였고, 동쪽 변방과 서쪽 변방에서 위무와 은혜의 효력이 이에 드리났다. 그러나 지금 해서(海西)에 장수가 없어서 마침 조정에서 현인을 간택하는데 이조에서 골라 의망한 것을 보니 실로 악목(岳牧)<sup>1026</sup>이 모두 추천한 데에서 나왔도다. 시대의 여망을 따른다면 어찌 이보다 더할 것이 있겠는가? 내가 살펴보건대 진실로 경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왕명의 출납을 받드는 일은 승지(承旨)<sup>1027</sup>를 당연히 먼저 뽑아야 함을 알지만, 나라의 번병(藩屏)을 맡김은<sup>1028</sup> 우선 간성(干城)<sup>1029</sup>으로 급선무를 삼으니, 이에 경을 황해도 관찰사로 임명하노라. 사성(使星)<sup>1030</sup>이 반짝이며 북쪽으로 당겨가니 작위는 원후(元侯)<sup>1031</sup>에 견

1026 악목(岳牧) : 요순(堯舜) 시대의 사악(四岳)과 십이목(十二牧)으로, 사악은 사방의 산을 다스리는 관리이고 12목은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인데, 후대로 오면서 합쳐서 지방관을 의미하게 되었다. 《書經 舜典》

1027 승지(承旨) : 원문은 ‘후설(喉舌)’로, 목구멍과 혀를 써먹는 직책이란 뜻인데 왕명 출납과 나라의 중대한 언론을 담당한 승지(承知)를 비유하여 일컫던 말이다.

1028 나라의 번병(藩屏)을 맡김은 : 관찰사로 임명함을 말한다. ‘번병(藩屏)’은 울타리와 병풍이란 뜻으로, 왕성(王城)을 옹위하는 제후국 또는 변방의 요충지를 방어하는 중요 인물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관찰사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1029 간성(干城) : 방패와 성으로, 국가를 위하여 방패가 되고 성이 되는 훌륭한 장수 또는 인재를 뜻한다.

1030 사성(使星) : 사신을 의미한다. 《후한서(後漢書)》 권112 <방술열전 상(方術列傳上) 이합(李郃)>에 “화제(和帝)가 즉위하여 사신을 나누어 보내니, 각자 미복(微服) 차림으로 가서 각기 고을에 이르러 풍속을 관찰하고 가요를 채집하였다. 사신 두 명이 익주(益州)에 당도해 이합의 집에 투숙하였다. 때는 여름날 저녁이라 노천에 앉아 있었는데…이합이 별을 가리켜 보이며 ‘사성(使星) 둘이 익주 분야로 향하고 있다.’ 하였다.” 하였다.

1031 원후(元侯) : 제후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좌전(左傳)》 <양공(襄公) 4년>에 “<삼하(三夏)>는 천자가 원후를 접대할 때 연주하는 곡이니 사신인

줄 수 있고, 경월(卿月)<sup>1032</sup>을 바라보며 서쪽으로 가니 반열은 아보(亞保)와 같다. 경은 가서는 맡은 일을 엄숙히 처리하고 돌아와서는 정사를 잘 마쳤음을 보고하라. 잠시 은대(銀臺)를 비우면 계옥(啓沃) 한 명이 부족하겠지만<sup>1033</sup> 마침내 황해 고을을 안정시키면 상처 난 백성들을 소생시킬 수 있다. 경은 들고 나는 것을 길이 다르다<sup>1034</sup>고 여기겠지만, 나는 먼저 하고 뒤에 하는 것을 하나로 생각한다. 하물며 부용성(芙蓉城) 안은 실로 행궁이 머물던 곳이요 무성한 감당나무 그늘은 곧 옛 신하가 쉬던 곳임에랴.<sup>1035</sup> 남긴 은택이 여전히 넉넉하니 이치상 어루만져주어 편안케 함이 마땅하고, 베풀 은혜가 없어지지 않았으니 치적을 이루어 아름다운

---

제가 감히 들을 수 없습니다[三夏, 天子所以享元侯也, 使臣弗敢與聞.]라 하였는데, 두예(杜預)의 주에 “원후(元侯)는 목백(牧伯)이다”라고 하였다.

- 1032 경월(卿月) : 재신(宰臣) 급의 고위 관료를 가리킨다. 《서경》〈홍범(洪範)〉에, “임금은 해를 살펴야 하고, 귀족과 관리들은 달을 살펴야 하며, 낮은 관리들은 날을 살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 1033 잠시…부족하겠지만 : 윤희를 황해도 관찰사로 보내면 왕 자신을 보좌할 인재 한 명이 없어짐을 말한다. ‘계옥(啓沃)’은 선도(善道)를 개진하여 임금을 인도하고 보좌한다는 뜻이다. 《서경(書經)》〈열명(說命)〉에, 은(殷)나라 고종(高宗)이 부열(傅說)에게 “그대의 마음을 열어나의 마음을 적서라.[啓乃心, 沃朕心.]”라고 한 데서 나왔다.
- 1034 길이 다르다 : 원문은 ‘수도(殊塗)’로, 《주역》〈계사전 하(繫辭傳下)〉에 “세상의 일을 보면 귀결점은 같은데 가는 길이 다르고, 모두 하나로 돌아가는데 생각은 가지각색이다.[天下同歸而殊塗 一致而百慮]”한 데에 보인다.
- 1035 무성한…곳임에랴 : 전인(前人)이 훌륭한 정사를 펼친 곳이라는 말이다. 옛 신하는 주(周)나라 소백(召伯)을 가리킨다. 《시경》〈감당(甘棠)〉에 “무성한 감당나무를 자르지도 말고 휘지도 말라. 소백이 머무셨던 곳이니라.[蔽芾甘棠 勿剪勿斨 召伯所說]”라고 하였는데, 이 시는 소공(召公) 덕정(德政)을 찬미한 것이다.

자취를 계승할 만하다. 돌아보건대 풍속을 관찰해야지 어찌 농업과 잡업만 권장하겠는가? 더러움을 물리치고 맑음을 숭상하는 것이 맡은 바 책무요, 유자를 존중하고 학문을 높이는 것 또한 힘써야 할 것이다. 밭 가는 일에 급히 백성의 힘을 활용하고 소문을 통해 더욱 적정(賊情)을 살피야 할 것이다. 만약 약속과 규정을 어긴다면 도읍(都邑)에 있는 이들이 어찌 풍요롭겠는가? 진실로 군사 기밀에 실수가 있으면 비록 병영에 있어도 오히려 들어 알 수 있다.-원문 빠짐-

## 밀양부사 원유남<sup>1036</sup>의 논공에 대해 내리는 교서

教密陽府使元裕男論書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하노라.

병장기를 수선하고 군량을 쌓아 이미 잔폐해진 고을을 소생시켰으니, 노고를 가상히 여기고 근면함을 돌아보건대 어찌 품계를 뛰어넘는 포상을 아끼겠는가? 이에 한 등급을 더하여 백관들을 권면하는 바이다. 경은 지혜가 용기와 부합하여 은혜가 그 위엄을 보완해준다. 처음 벼슬할 때부터 가는 곳마다 직무를 잘 판단하였고, 그런 뒤에 적에 맞서 싸워 과연 책훈되어 품계가 올랐으니, 재능을 시험해본 것이<sup>1037</sup>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세운 공이 크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 진(鎭)으로 부절을 나누어주니 장래에 실효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땅이 요충지에 인접해 있어 그 때문에 적이 소굴을 만들었다. 어찌 사망자가 거의 구획

1036 원유남(元裕男) : 1561~1631.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관보(寬甫),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1583년(선조16)에 무과에, 1586년에 무과 증시에 급제하였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권율(權慄)의 휘하에서 공을 세우고, 1596년에 강원·충청·강로(江路) 등지의 조방장(助防將)을 지냈다. 이듬해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분의복수군(奮義復讐軍)의 장령(將領)으로 활약하였다. 1605년에 창성 부사(昌城府使)를, 1612년에 밀양부사를 지냈고, 1623년(인조1)에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정사 공신(靖社功臣) 3등에 책록되고 원계군(原溪君)에 봉해졌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왕명을 받들고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서 재상 윤방(尹昉)과 더불어 서울을 지켰다.

1037 재능을 시험해본 것이 : 원문은 ‘역시(歷試)’로, 여러 가지 일을 맡겨서 재능을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공충자(孔叢子)》〈논서(論書)〉에 “요 임금이 순을 얻은 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맡겨 재능을 시험하였다.[堯既得舜, 歷試諸難.]” 하였다.

을 이를 뿐이겠는가? 백성들의 고단함 또한 치유하기 어렵도다. 영남 남쪽 전체가 저 도적에게 유린당하지 않은 곳이 없었으니, 전란을 겪은 이후로 때면 이 밀양부를 걱정하였다. 다행히 지금 지방 수령이 잘해서 포상을 받으니, 곧 수령의 실제 드러난 업적에 의거한 것이다. 다른 고을을 쉽게 다스리는 것처럼 누가 이 지역을 완전하게 할 수 있겠는가? 곡식이 넉넉하고 재물이 많아 이미 1년 치 비축량이 충분하고 병사가 정예롭고 무기가 날카로우어서 능히 삼군(三軍)을 지휘할 계책이 장대하다. 변경에 경보가 울리지 않으니 어찌 이찰(李緘)의 공이 아니겠는가?<sup>1038</sup> 보장(保障)에 결함이 없었으니 실로 윤탁(尹鐸)이 너그럽게 정사를 펼친 덕분이다.<sup>1039</sup> 위무하고 아끼는 정성이 크게 발휘되고 저장하고 비

1038 변경에…아니겠는가? : 원유남이 방비를 잘한 것에 대해 이찰(李緘)에 비쳐 칭찬한 것이다. 이찰은 중국 전국시대 조(趙)나라의 명장 이목(李牧)을 가리킨다. 본명이 이찰이고 자가 목(牧)이지만, 본명보다는 이목(李牧)으로 더 알려져 있다. 연(燕)나라와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둬 무수(武遂)·방성(方城) 땅을 함락시키고, 진(秦)나라 군사들을 적려(赤麗)·의안(宜安)에서 대파했으며, 업(鄴)과 번오(番吾)에서도 대패시켰다. 노장 왕전(王翦)이 이끄는 진나라 대군이 한단(邯鄲)으로 출동하는 비상사태 아래에서 진나라 군사를 대패시켜 멸망의 위기를 극복하는 등 수많은 전공(戰功)을 세워 나라를 지켜냈다. 그러나 이목이 있는 한 조나라를 패배시키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한 진나라가 조나라의 간신 곽개(郭開)를 매수하여 그에 대한 이간계(離間計)를 썼다. 이목은 할 수 없이 위(魏)나라로 도망쳤고, 이후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채 위나라에서 일생을 마쳤다.

1039 보장(保障)에…덕분이다 : 원유남의 너그러운 정사를 윤탁에 비쳐 칭찬한 것이다. 윤탁은 춘추시대 진(晉)나라 사람으로, 조간자(趙簡子)가 진양(晉陽) 고을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자 윤탁은 “견사(繭絲)처럼 할까요? 보장(保障)이 되도록 할까요?”라고 물었다. 조간자는 “보장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에 윤탁은 보장의 방법으로 호수(戶數)를 줄여 세금을 적게 받았다. 견사는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고,

축해둔 재주가 이미 드러났다. 포상이 이에 증망(衆望)에 부합하였으니 내 어찌 한 번 찡그림을 아끼겠는가?<sup>1040</sup> 공로에 보답하기를 도모하니 품계를 올림은 분에 넘치는 일이 아니다. 삼석(三錫)의 명<sup>1041</sup>을 잘 체찰하여 더욱 정충(精忠)을 다하고 만리장성(萬里長城)이 되어 강역(疆場)을 잘 호위하라.<sup>1042</sup>

보장은 백성을 보호하여 유사시에 조정을 지키는 보루가 되게 하는 것이다. 《資治通鑑 卷1 周紀 威烈王 23年》

1040 포상이…아끼겠는가 : 아낌없이 포상하겠다는 뜻이다. 중국 전국시대 한(韓)나라 소후(昭侯)가 그의 시자(侍者)에게 찢어진 바지를 주면서 잘 보관해 두라고 하자, 그 시자가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없는 자에게 주지 않고 왜 보관해 두라고 합니까?” 하였는데, 소후는 “밝은 임금은 신하에 대해서 한 번 웃고 한 번 찡그리는 것[一嘖一笑]조차도 아껴야 하는 법인데, 하물며 입다가 해진 바지[弊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말한 고사가 있다. 《韓非子 內儲說上》

1041 삼석(三錫)의 명 : 장수의 공에 보답하기 위하여 내리는 임금의 은명(恩命)을 말한다. 《주역》〈사괘(師卦) 구이(九二)〉에 “군진(軍陣)에서 중도를 행함에 길하고 허물이 없는지라, 임금이 세 차례나 은명(恩命)을 내리도다.[在師中 吉 無咎 王三錫命]”라고 하였다.

1042 만리장성(萬里長城)이…호위하라 : 만리장성과 같이 나라를 굳건히 보호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시경》〈주남(周南) 토저(兔置)〉에 “굳세고 굳센 무부여, 공후의 방패며 성이로다.[赳赳武夫，公侯干城。]”라고 하였다.

## 경흥 부사 민형<sup>1043</sup>에게 가자를 내리는 교서

教慶興府使閔洞加資書

쇠잔함을 소생시키고 예봉(銳鋒)을 축적한 것은 바로 변방의 좋은 계책이요, 공적을 기록하고 잘한 것에 보답하는 것은 곧 조정의 아름다운 전례(典禮)이다. 이에 너의 품계를 올리니 너의 노고를 가상히 여기는 바이다. 너는 무인인데도 문인 같으니, 관대함으로 용맹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sup>1044</sup> 그 화려한 성품<sup>1045</sup>으로 말미암아 일찍이 백성 다스리는 관리로 임명했는데 변경 지역을 거둬 말김은 마침내 체부(體府)<sup>1046</sup>의 추천에 부응한 것이다. 하물며 경흥진(慶興鎭)이 북쪽 들판을 끼고 있는 요충지임에랴? 전란을 겪은 이후로 날로 쇠하고 달로 쇠했으나 네가 부임한 이

1043 민형(閔洞) :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무과에 급제했으며 1600년에 남포 현감(藍浦監)을, 1616년에 경흥 부사(慶興府使)를 지냈다.

1044 관대함으로…것이다 : 관대함[寬]과 용맹함[猛]을 상호 보완하여 융통성 있게 사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춘추좌씨전》 소공(昭公) 20년에 “정책이 관대하면 백성이 방자해지는데, 방자해지면 용맹함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정책이 용맹하면 백성이 잔혹해지는데, 잔혹해지면 관대하게 베풀어야 한다. 관대함으로 용맹함을 보완하고 용맹함으로 관대함을 보완해야 하니, 정치는 이렇게 해서 조화되는 것이다. [政寬則民慢, 慢則糾之以猛, 猛則民殘, 殘則施之以寬. 寬以濟猛, 猛以濟寬, 政是以和.]”라고 하였다.

1045 화려한 성품 : 원문은 ‘개제(愷悌)’로, 《시경》 대아(大雅) 한록(旱麓)에 “화락하신 군자는 신이 보우하는 바로다. [愷悌君子, 神所勞矣.]”라고 하였다.

1046 체부(體府) : 체찰사(體察使)가 군무(軍務)를 보는 관아로, 체찰사는 나라에 난리가 났을 때 임금의 명령을 받아 그 지방에 나가서 군무를 총찰(總察)하던 임시 벼슬이다.

후로 관리는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편안해졌다.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자가 40명이 넘고 오랑캐에서 변화되어 귀순해온 자가 100여 호에 이른다. 성과 해자는 이미 견고하고 깊으며, 병장기와 갑옷은 예리하고 튼튼하지 않은 것이 없다. 옛날 훼손된 보루와 외딴 성첩은 지금 큰 방어시설과 웅장한 고을이 되었다. 발해(渤海)의 변화가 영킨 실타래를 풀어 요령을 얻은 데에서 나온 것만 들었지<sup>1047</sup> 누가 진양(晉陽)의 완전함이 진실로 호구 수를 줄이는 데에 힘쓴 결과임을 알겠는가?<sup>1048</sup> 이에 곤수(閼帥)<sup>1049</sup>의 포상

1047 발해(渤海)의…들었지 : 한 선제(漢宣帝)가 공수(龔遂)에게 “발해의 혼란을 내가 매우 걱정하고 있으니 그대는 어떻게 그곳의 도적들을 없애서 나의 뜻에 맞게 하겠는가? [勃海廢亂，朕甚憂之。君欲何以息其盜賊，以稱朕意?]”라고 묻자, 공수가 “저는 들으니 ‘난민을 다스리는 것은 험클어진 실을 푸는 것과 같아서 서두를 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오직 천천히 한 뒤에야 다스릴 수 있습니다. [臣聞治亂民猶治亂繩，不可急也，唯緩之，然後可治.]”라고 하였다. 《漢書 卷89 循吏傳 龔遂》

1048 진양(晉陽)의…알겠는가 : 진양이 잘 다스려진 것은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원문의 ‘損戶’는 고을의 호구 수를 줄여 세금을 낮춘다는 뜻이다. 춘추시대 진(晉)나라 조간자(趙簡子)가 윤탁(尹鐸)에게 진양을 맡아서 다스리도록 하니, 윤탁이 “견사(繭絲)처럼 할까요? 보장(保障)이 되도록 할까요?”라고 묻자, 조간자가 “보장을 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윤탁은 호수(戶數)를 줄여 세금을 줄여주었다. 견사는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고, 보장은 백성을 보호하여 유사시에 조정을 지키는 보루가 되게 하는 것이다. 《資治通鑑 卷1 周紀 威烈王 23年》

1049 곤수(閼帥) :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를 예스럽게 부르던 말이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함경·평안 양도의 병마 절도사와 수군 절도사를 이르는 말이었다. 이는 곤외(閼外) 즉, 문지방 밖, 대궐 밖의 신하라는 뜻의 곤외지신(閼外之臣)에서 나온 말로, 대궐 밖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에서 변방으로 나가는 장군을 이르는 말이 되었다.



장계에 의거하여 마침내 통정(通政)의 품계에 특별히 가자(加資) 하노라. 아! 해진 바지를 보관해두고서 공 있는 자를 기다림은 권면하기 위함ियो,<sup>1050</sup> 장성(長城)이 되어 나라를 호위함은 네가 힘쓸 바이다.

---

1050 해진…위함ियो : 상벌을 신중히 함으로써 백성들을 권면한다는 뜻이다. 중국 전국시대 한(韓)나라 소후(昭侯)가 그의 시자(侍者)에게 찢어진 바지를 주면서 잘 보관해 두라고 하자, 그 시자가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없는 자에게 주지 않고 왜 보관해 두라고 합니까?” 하였는데, 소후는 “밝은 임금은 신하에 대해서 한 번 웃고 한 번 찡그리는 것[一嘸一笑]조차도 아껴야 하는 법인데, 하물며 입다가 해진 바지[弊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말한 고사가 있다. 《韓非子 內儲說上》

## 민여검<sup>1051</sup>에게 내리는 교서<sup>1052</sup>

教 閔汝儉書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하노라.

자신을 잊고 나라에 목숨을 바치는 것은 비록 신하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이나 공적을 기록하고 노고에 보답하는 일은 곧 조정의 아름다운 전례(典禮)이다. 이에 그 뒤의 효용을 권면하고자 특별히 품계를 올려주노라. 네가 이 지방의 수령이 된 후로 더욱 평소의 뜻을 다하여, 성을 옹기고 추위를 무릅쓰고 노력하니 고향을 편안히 여겨 옹기기를 꺼려하는<sup>1053</sup> 백성이 없어졌고, 무기를 수선하고

---

1051 민여검(閔汝儉) : 1564~1627. 자는 종례(宗禮), 호는 운촌(雲村) 또는 운곡(雲谷),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광해군 때 전적(典籍)을 지내고 인조 때 괘산 군수(郭山郡守)에 이어 울산 부사가 되었다. 이때 조정에서 호패법(號牌法)을 시행했는데 그 명부를 기일 안에 작성하지 못했다는 죄로 서울로 소환되던 도중 병사하였다.

1052 교서 : 송치규(宋穉圭)의 《강재집(剛齋集)》에 수록된 〈부사 증 판서 민공 시장[府使贈判書閔公諡狀]〉에 따르면, 인조반정 이후 민여검이 괘산 군수로 있으면서 그 치적을 인정받아 수어대장으로 승진되고 이어서 본로조방장(本路助防將)을 겸임하였는데 그때 인조가 내린 교서이다.

1053 고향을…꺼려하는 : 한 원제(漢元帝)가 영광(永光) 4년 10월, 군국(郡國)에 있는 조종의 묘(廟)를 폐하고 여러 능(陵)을 삼보(三輔)로 분속시키면서 “고향을 편안히 여기고 다른 곳으로 옹기기를 꺼리는 것은 백성의 본성이다.[安土重遷, 黎民之性.]”라고 하였다. 《漢書 卷9 元帝紀》

오랑캐를 방어하니<sup>1054</sup> 용맹을 떨쳐<sup>1055</sup> 싸우기를 원하는 군사들이 생겼다. 맛있는 음식을 거절하고 적은 음식도 나눠먹는<sup>1056</sup> 의리를 마음을 합하여 고난을 극복할 기반으로 삼았다. 급박한 때를 만나면 위태로움을 생각하여 몸소 갑옷과 투구를 입은 것이 몇 달이요, 험지에 응거하고 요충지를 잘 지켜서 손수 백성의 상처를 어루만진 것이 반년이로다. 해진 솜옷을 입고 비단옷을 물리치자 관리들이 겨우내 그의 추위를 걱정하며 울고, 거친 밥을 먹고 고기 맛을 잊으니 백성들이 두 번 먹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하물며 지금은 군대를 일으킨 지 6년째이니, 비록 북쪽 변방의 뛰어난 장수라도 진실로 그대 같은 자 두세 명을 얻으면 서쪽 변방을 돌아보는 나의 걱정을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너의 품계를 뛰어넘어 제수하니 진실로 그대의 정성을 가상히 여기는 바이다. 아! 나는 한 번 찡그리고 웃는 것을 아끼지 않으니<sup>1057</sup> 너

1054 오랑캐를 방어하니 : 원문은 ‘방추(防秋)’로, 중국 고대 서북쪽 유목 민족이 가을이 되어 말이 살지는 계절이 되면 남으로 내려와 중국을 침입하였으므로 변방의 수비군을 늘리고 군사 훈련을 시켜 침입에 대비하던 것을 말한다. 《구당서(舊唐書)》 139권 <육지전(陸贄傳)>에 “또 하농(河隴)이 변족(蕃族)을 함락한 이래로 서북의 변방에 항상 중대한 병력으로 수비를 하였는데, 이를 방추(防秋)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1055 용맹을 떨쳐 : 원문은 ‘고용(賈勇)’으로, 춘추시대 제(齊)나라 사람 고(高固)가 진(晉)나라 군대 속으로 돌진하여 위세를 떨치고 돌아와서 자기 군사의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하여 “용맹을 떨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나에게 남아 있는 용기를 사 가라.[欲勇者, 買余餘勇.]”라고 외쳤던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春秋左氏傳 成公2年》

1056 맛있는…나눠먹는 : 원문은 ‘절감분소(折甘分小)’로, 맛난 음식을 거절하고 적은 음식이라도 군사들과 나누어 먹는다는 뜻이다. 장수가 군사들과 더불어 고락을 같이하는 것을 말한다.

1057 한 번…않으니 : 아낌없이 포상하겠다는 뜻이다. 중국 전국 시대 한(

는 마땅히 너의 팔 다리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sup>1058</sup> 진양(晉陽)에서 견사(繭絲)를 털어주어 오히려 조(趙)나라를 보호할 수 있었고<sup>1059</sup> 즉묵(卽墨)에서 판자와 삼을 잡고서 제(齊)나라를 온전히 회복했음을 괴이하게 여기지 말라.<sup>1060</sup>

---

韓)나라 소후(昭侯)가 그의 시자(侍者)에게 찢어진 바지를 주면서 잘 보관해 두라고 하자, 그 시자가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없는 자에게 주지 않고 왜 보관해 두라고 합니까?” 하였는데, 소후는 “밝은 입금은 신하에 대해서 한 번 웃고 한 번 찡그리는 것[-嘸一笑]조차도 아껴야 하는 법인데, 하물며 입다가 해진 바지[弊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말한 고사가 있다. 《韓非子 內儲說上》

1058 너의…것이다 : 신하로서의 소임을 다하라는 뜻이다. ‘고굉(股肱)’은 팔다리로서 신하를 가리킨다. 《서경(書經)》〈우서(虞書) 익직(益稷)〉에, “황제가 말하기를, ‘신하는 고굉과 이목이 된다.[帝曰, 臣作股肱耳目.]’ 하였다.”라고 하였다.

1059 진양(晉陽)에서…있었고 : 세금을 줄여주는 관대한 정책이 나라를 보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춘추시대 진(晉)나라 조간자(趙簡子)가 윤탁(尹鐸)에게 진양을 맡아서 다스리도록 하니, 윤탁이 “견사(繭絲)처럼 할까요? 보장(保障)이 되도록 할까요?”라고 묻자, 조간자가 “보장을 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윤탁은 호수(戶數)를 줄여 세금을 줄여주었다. 견사는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고, 보장은 백성을 보호하여 유사시에 조정을 지키는 보루가 되게 하는 것이다. 《資治通鑑 卷1 周紀 威烈王 23年》

1060 즉묵(卽墨)에서…말라 : 장군이 졸병들과 고락을 함께 하는 것이 국토를 보전하는 길임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다. 전국시대 제(帝)나라 전단(田單)이 몸소 판자와 삼을 잡고 사졸들과 일을 나누었는데 후에 군사들의 사기가 올라서 연(燕)나라에게 빼앗긴 70여개 성을 회복했던 일화가 전한다. 《資治通鑑 권4 周紀 赧王 36年》

## 정사공신 홍서봉<sup>1061</sup>에게 내리는 교서

教靖社功臣洪瑞鳳書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하노라.

땅이 구르고 하늘이 도는 때에 다행히 바람과 구름이 만났고,<sup>1062</sup> 산에 맹세하고 바다에 맹약하여<sup>1063</sup> 마침내 모토(茅土)<sup>1064</sup>의 책봉을 가한다. 보답에 어찌 노고가 걸맞겠는가? 포상은 공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경은 충정(忠貞)은 대대로 전해 받고 문아(文雅)는 가업을 이었도다. 화려한 문장을 펼침으로써 현요직(顯要職)을 두루 역임하여 더욱 빛이 났고, 빙옥(氷玉) 같은 지조를

---

1061 홍서봉(洪瑞鳳) : 1572~1645.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휘세(輝世), 호는 학곡(鶴谷),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1590년(선조23) 진사가 되고, 1594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02년 이조 좌랑과 성주 목사를 거쳐 1610년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을 참여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3등에 책록되고, 익녕군(益寧君)에 봉해졌으며,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1062 바람과 구름이 만났고 : 원문은 ‘풍운제회(風雲際會)’로 명군(明君)과 양신(良臣)이 서로 만난 것을 말한다. 《주역》〈건괘(乾卦)〉의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雲從龍, 風從虎.]”라고 하였다.

1063 산에…맹약하여 : 공신(功臣)을 대우하겠다는 맹세를 변치 않겠다는 말이다. 한 고조(漢高祖)가 봉작(封爵)한 서사(誓辭)에 “황하(黃河)가 띠(帶)와 같이 작아지고 태산(泰山)이 솥돌[礪]과 같이 평지가 되도록 나라에서 영구히 보존하리라.[使黃河如帶, 泰山如礪, 國以永存.]” 하였다.

1064 모토(茅土) : 띠(茅)에 쓴 흙으로, 옛날에 천자가 왕과 제후를 봉할 때에 해당 지역 방위(方位)의 색, 즉 동(東)은 청색, 서(西)는 백색, 남(南)은 적색, 북(北)은 흑색, 중(中)은 황색의 흙을 흰 띠(白茅)에 싸서 내렸다. 일반적으로 왕과 제후를 봉하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공신에 책봉한 것을 이른다. 《文選 卷41 答蘇武書 註》

지킴으로써 혼란한 조정에 처하여 더욱 밝았다. 흉도들이 화를 선동하던 초기부터 이미 벼슬에 뜻이 없었고 모의(母儀)<sup>1065</sup>가 유폐되고 수금(囚禁)된 뒤에는 기꺼이 세상과 어긋났다. 의리를 꿰뚫음이 깊었으니 그러므로 능히 기미를 환히 알아서 일어났다. 하물며 온 나라 신과 백성의 원망이 모두 한 사람에게 집중됨에 있어서라? 이에 하늘에 계신 조종(祖宗)의 훈령들께서 묵묵히 과인을 도와주셨도다. 충심과 분노가 격동하여 서로 도모하지 않았는데도 한마음이었다. 황천(黃泉)으로 맹세를 하니<sup>1066</sup> 하늘이 이를 참을 수 있겠는가? 백수(白水)에서 의기를 일으키니<sup>1067</sup> 성대한 기세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선택이 문왕의 법에 맞았으니, 어찌 무왕의 공에 오를 뿐이겠는가?<sup>1068</sup> 혼란을 바로잡아 올바름으로 되돌렸으니 매처럼 숫구치는 용맹한 군사<sup>1069</sup>가 부

1065 모의(母儀) : 국모(國母)의 의범(儀範)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인목대비(仁穆大妃)를 가리킨다.

1066 황천(黃泉)으로 맹세를 하니 : 춘추시대 정(鄭)나라 장공(莊公)이 아우 숙단(叔段)의 반역을 편든 어머니 강씨(姜氏)를 유폐하고 “황천(黃泉)에 가기 전에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不及黃泉, 無相見也.]”라고 맹세했던 일을 인용한 것인데,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폐위하고 유폐한 사실을 말한다. 《春秋左氏傳 隱公 元年》

1067 백수(白水)에서 의기를 일으키니 : ‘백수(白水)’는 한(漢)나라 광무제(光武帝)의 고향인 백수향(白水鄉)을 가리키는 말로, 왕망(王莽)이 한 나라를 찬탈하고 황제가 되자 광무제가 백수에서 일어나 한 왕조를 재건한 바 있다. 인조 자신을 광무제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1068 그러나…뿐이겠는가 : 원문의 ‘문모(文謨)’와 ‘무열(武烈)’은 《서경》〈군아(君牙)〉에 이르기를 “크게 나타났도다, 문왕의 법이여. 크게 계승하였도다, 무왕의 공이여.[丕顯哉, 文王謨, 丕承哉, 武王烈.]” 한 데에 보인다.

1069 매처럼…군사 : 매가 하늘로 숫구치듯 무위(武威)를 자랑하는 장수라는 말이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대명(大明)에 “이때 태사(太師) 상보(尙父)가 마치 매가 날 듯하여, 저 무왕 도와서 상 나라를 정벌하

족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천명에 응했기 때문에 인심이 순응했으니 실로 표범처럼 변하는 군자<sup>1070</sup>에게 힘입은 바이다. 과연 병장기에 피를 묻히지 않았으니 인과 의를 나란히 행한 것이요, 마침내 자위(慈闈)의 영원한 안녕을 이루었으니<sup>1071</sup> 정(情)과 예를 매우 지극히 하였다. 생각건대 이 큰 기업이 거듭 넓어짐은 훌륭한 계책이 치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대가 비록 공을 말하지 않아도 큰 숲을 보니 오히려 울창하다.<sup>1072</sup> 내가 어떻게 보답하겠는가? 반혈(盤血)<sup>1073</sup>을 받들고 보니 부끄럽기만 하도다. 이에 책록(策籙)의 의례(儀禮)를 거행하여 포상과 현양(顯揚)의 은전을 보인다. 아! 영준한 자태와 우아한 의표는 기린각(麒麟閣)<sup>1074</sup>에

니, 회전(會戰)한 그날 아침 청명했도다.[維師尙父 時維鷹揚 涼彼武王 肆伐大商 會朝清明] 하였다.

1070 표범처럼 변하는 군자 : 원문의 ‘표변(豹變)’은 《주역》〈혁괘(革卦) 상륙(上六)〉에 “군자는 표범같이 변하고, 소인은 면모를 바꾼다.[君子豹變. 小人革面.]”라고 한 데서 온 말로, 곧 표범이 제 털의 문채를 늘 변화시켜 윤택하게 하는 것처럼 군자가 늘 개과천선하여 나날이 새로워짐을 비유한다.

1071 자위(慈闈)의…이루었으니 : 인목대비가 복위되었다는 말이다. 자위(慈闈)는 모친(母親)의 대칭으로, 여기서는 인목대비를 가리킨다.

1072 그대가…울창하다 : 후한(後漢)의 개국 공신인 풍이(馮異)의 고사와 관계된 내용으로, 논공(論功)에 참여하지 않아도 공로가 큼을 알고 있다는 말이다. 풍이는 광무제(光武帝)를 섬겨 많은 전공을 세웠으나 사람됨이 겸양하여 논공행상을 할 때면 언제나 자신의 공로를 발표하지 않고 큰 나무 아래에서 한가로이 쉬고 있었으므로 대수장군(大樹將軍)이라는 별칭이 생겼다. 《後漢書 卷17 馮異列傳》

1073 반혈(盤血) : 회맹제에서 마시는 희생의 피로, 여기서는 공신에 대한 맹세를 가리킨다.

1074 기린각(麒麟閣) : 한 선제(漢宣帝)가 일찍이 광광(霍光), 장안세(張安世), 소무(蘇武) 등 공신 11인의 초상을 그려서 걸게 했던 전각으로, 기린각에 걸렸다는 것은 곧 국가에 큰 공훈을 세워 공신에 책록된 것을 말한다.

그러 넣어도 부족하고, 위대한 업적과 참된 충성은 역사에 드리워도 부끄럽지 않다.



## 정사공신 유순익<sup>1075</sup>에게 내리는 교서

教靖社功臣柳舜翼書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하노라.

기미를 살피 권한을 맡김은 곧 변화에 대처하는 좋은 계책이요, 공을 살피 작위를 분봉(分封)함은 노고에 보답하는 큰 법도이다. 포상은 과분한 이름으로 하지 말아야 하며 현양은 실제 행적만으로 해야 한다. 경은 자신의 절조를 확실히 연마하여 돈독히 가문의 명성을 수립했다. 충성과 분노가 심중에서 크게 격발한 것은 바로 그때이고, 비록 난적이 가까운 무리 속에서 나왔으나 저들이 어찌 더럽힐 수 있겠는가? 절조와 신의를 펴고 기아(機牙)를 격파하니 그에 힘입어 은밀히 반역 행위를 소멸시켰고, 화락함을 드러내고 간악함을 제지하니 끝내 자위(慈闈)<sup>1076</sup>를 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기강(紀綱)을 부지하고 나라가 장차 전복되려는 때에 의를 행했다. 하물며 의로운 깃발이 한 번 일어나는 때를 당하여 이미 창을 거꾸로 들고서

---

1075 유순익(柳舜翼) : 1559~1632.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여중(勵仲), 호는 지강(芝岡),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이항(李滉)의 문인으로, 1599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면천군수(沔川郡守)에 이어 예조좌랑을 지내고, 집의·강원도 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1623년 인조반정 때 반정군이 들어오도록 궁궐호위를 완화하는 임무를 맡아 공을 세웠으며, 양주목사 재임 시에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으로 청천군(靑川君)에 봉해졌다.

1076 자위(慈闈) : 어머니를 뜻하는 말로 인목대비를 가리킨다.

1077 일제히 환영함에 있어서라? 함께 떠받든 이가 모의(母儀)<sup>1078</sup>였기에 실로 궁 안에서 놀라 움직일까 우려했으나, 미리 장수의 명령을 펼침으로 인하여 곧 분조(分曹)에서 숙직할 수 있었다. 이에 상(商)나라 교외에서 황금 도끼를 잡은 때에 과연 주(周)나라 깃발 속에서 백모(白旄)를 휘두를 힘을 얻었다.<sup>1079</sup> 기미를 환히 알아 그 흉도의 계책을 벌하니 외환(外患)은 염려하기 전에 끊어졌고, 일에 앞서 환관에게 전달했으니 황후는 내심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불 들고 삼성(三省)에 들어갔으니<sup>1080</sup> 공로<sup>1081</sup>는 조금 부족했으나 마침내 문을 열고 선포하러 나왔으니 실로 대궐의 일을 관할한 것이다. 이에 난을 평정함

1077 이미…들고서 : 상대편이 아닌 자기편을 공격하려는 것을 말한다. 《서경(書經)》〈주서(周書) 무성(武成)〉에 따르면, 주 무왕(周武王)이 목야(牧野)에서 은 주왕(殷紂王)의 군대와 싸울 때 은나라 군사들이 주나라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편을 공격한 덕분에 크게 이겼던 일이 있다.

1078 모의(母儀) : 국모(國母)의 의범(儀範)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인목대비(仁穆大妃)를 가리킨다.

1079 상(商)나라…얻었다 : 광해군을 공격하려 가는 순간을 주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 주왕(紂王)을 치러 가던 것에 비유한 것이다. 원문의 ‘상교(商郊)’는 상나라 교외 목야(牧野)로, 주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공격할 적에 군사를 모아놓고 맹세했던 곳이다. 주 무왕이 목야로 갈 때 왼손에는 황월(黃鉞)을 쥐고, 오른손에는 백모(白旄)를 붙잡고 휘둘렀다고 한다. 《書經 牧誓》

1080 이불…들어갔으니 : 한유(韓愈)의 〈송은원외서(送殷員外序)〉에 “지금 세상 사람들은 수백 리만 가려 해도 문을 나서면 망연자실하여 이별의 가련한 기색이 있고, 이불을 가지고 삼성에 숙직만 들어가려 해도 여종을 돌아보고 시시콜콜 여러 가지 당부를 하여 마지않는다.〔今人適數百里，出門惘惘，有離別可憐之色，持被入直三省，丁寧顧婢子，語刺刺不能休。〕” 라고 한 데에 보인다.

1081 공로 : 원문은 ‘한마지로(汗馬之勞)’로, 말이 땀을 흘린 노고라는 뜻으로 주로 전쟁에서 세훈 혁혁한 공로를 가리킨다.

에 형세는 앞음과 일어남의 구분이 있으나, 성공에 이르러서 일은 이것과 저것의 차이가 없다. 이에 책록의 은전을 내걸고 마침내 포상과 찬미의 장전(章典)을 보인다. 정전(井田)의 식음을 넉넉히 하여 후세에 덕행을 남기고<sup>1082</sup> 물채(物采)<sup>1083</sup>를 갖추어 그대를 영화롭게 하노라. 아! 오늘 아침 용모를 보고서 기린각을 대하여 그 사람을 생각하고,<sup>1084</sup> 훗날 맹세를 저버리면 저기에 있는 산하에 따져 물으라.<sup>1085</sup>

1082 후세에 덕행을 남기고 : 원문의 ‘유곤(裕昆)’은 후손에게 덕행을 많이 남겨 준다는 뜻으로, 《서경(書經)》〈중취지고(仲虺之誥)〉에 “의로 일을 바로잡고 예로 마음을 바로잡아 후세에 덕행을 남겨 주소서.[以義制事, 以禮制心, 垂裕後昆.]”라고 하였다.

1083 물채(物采) : 예와 법도에 맞게 쓰이는 사물의 문채를 말한다. 노나라 은공(隱公)이 고기 잡는 것을 구경하려 하자 장희백(臧僖伯)이 간하기를 “임금은 백성을 ‘궤(軌)’와 ‘물(物)’로 들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대사를 강습하여 궤량을 바로잡는 것을 ‘궤’라 하고, 재료를 취하여 물채를 드러내는 것을 ‘물’이라 합니다.[君將納民於軌物者也. 故講事以度軌量謂之軌, 取材以章物采謂之物.]”라고 하였다. 《春秋左氏傳 隱公5年》

1084 그 사람을 생각하고 : 원문의 ‘念茲’는 그 사람의 공적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서경》〈대우모(大禹謨)〉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공적 때문이요, 그 사람을 폐함은 죄 때문이다.[念茲在茲, 釋茲在茲.]”라고 하였다.

1085 훗날…물으라 : 공신(功臣) 집안을 영구히 대접하겠다는 맹세를 번치 않겠다는 말이다. 한 고조(漢高祖)가 봉작(封爵)한 서사(誓辭)에 “황하(黃河)가 띠(帶)와 같이 작아지고 태산(泰山)이 솥돌[礪]과 같이 평지가 되도록 나라에서 영구히 보존하리라.[使黃河如帶, 泰山如礪, 國以永存.]”라 하였다.

## 영사공신 허적<sup>1086</sup>에게 내리는 교서

教寧社功臣許書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하노라.

일에 앞서 실정을 살펴<sup>1087</sup> 다행히 죄인을 잡을 수 있었으니, 공을 드러내고 차례를 정함에 너와 더불어 잘한 것을 다툴 자가 없다. 이에 봉작(封爵)의 영예를 더하고 포상의 은전을 드러낸다. 경은 집안이 벌열(閥閥)을 이었고 대대로 충정(忠貞)을 돈독히 했다. 사조(詞藻)와 문화(文華)는 곧 여사(餘事)이고, 풍신(風神)과 골격(骨格)이 과연 보통 사람과 달랐다. 일이 어긋나도 몸을 쪽편 것은 오궁(五窮)이 찾아온 한유(韓愈)와 같고,<sup>1088</sup> 명성은 높아도 벼슬이 막힌 것은 3세를 늙은 풍당(馮唐)과 같다.<sup>1089</sup> 양도(兩

1086 허적(許) : 1563~1640.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자하(子賀), 호는 수색(水色)이다. 1597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북청 판관, 예조 좌랑, 형조 정랑, 호조 좌랑 등을 지냈고, 1628년 유효립(柳孝立)의 모반사건에 공을 세워 영사공신(寧社功臣)에 녹훈되고 양릉군(陽陵君)에 책봉되었다. 이후 판서에까지 올랐다. 시문에 능하였으며, 저서로 《수색집(水色集)》 8권 4책이 있다.

1087 일에 앞서 실정을 살펴 : 원문에 '候'로 되어 있으나 '候'의 오자로 보았다.

1088 일이...같고 : 허적이 곤궁함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았다는 말인 듯하다. 오궁(五窮)은 한유(韓愈)의 〈송궁문(送窮文)〉에 나오는 말로 지궁(智窮), 학궁(學窮), 문궁(文窮), 명궁(命窮), 교궁(交窮) 등 다섯 종류의 궁귀(窮鬼)이다. 보통 역운(厄運)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1089 명성은...같다 : 허적의 벼슬이 나이가 들도록 별 볼 일 없었다는 말이다. '풍당(馮唐)'은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 낭중서장(郎中署長)으로 있다가 거기도위(車騎都尉)가 되었는데, 무제(武帝)가 즉위하여 현자(賢者)를 등용했으나 그는 이미 나이가 90세라 높은 관직을 맡

道) 사이에서 찰방을 지내면서 그곳에서 재물을 취하였고,<sup>1090</sup> 백관(百官)의 하위에서 명령이 없으니 관직을 버리고 돌아가 은거했다. 오직 먹고 숨 쉬며 잊지 않은 것은 군주였으니, 그러므로 평소에 근심한 것은 국가였다. 악인이 흥계를 선동하는 날을 당하여 이미 묵묵히 쩡그리고 신음하는 걱정을 잘 살폈고<sup>1091</sup> 저들이 사악함을 이루는 때에 이르러 곧 은밀히 그 동정(動息)을 염탐했다. 모반을 발설하고 사악함을 밀고할 줄을 모른 것은 아니었으나, 대체로 실정을 숨기고 말을 바꾸는 것을 우려했었다. 이 때문에 몰래 틈에 끼어 방관하며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마침내 거사가 일어난 날에 때에 앞서 계책을 미리 행하여 즉시 흥계를 꾸민 사실에 대해 급히 편지를 보내어 변고를 알렸다. 무릇 이웃나라에 역도가 있음을 듣고도 오히려 목욕재계하고서 토주(討誅)할 것을 청해야 하거늘,<sup>1092</sup> 반역자들이 임금을 무시하는

을 수 없었다. 《史記 卷102 張澤之馮唐列傳》

1090 양도(兩道)…취하였고 : 원문의 ‘건몰(乾沒)’은 물을 말려 없애듯이 남의 재산을 마구 횡령하거나 몰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4년 4월 11일 조에 지평 민응회(閔應恢)가 “은계도 찰방(銀溪道察訪) 허적(許)은 사람됨이 경망스러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뒤죽박죽이고, 역졸(驛卒)을 침해하여 모두 흩어져 달아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하루라도 관직에 두어 민폐(民弊)를 가중시켜서는 안 되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라고 한 말이 나온다.

1091 쩡그리고…살폈고 : 적군의 동태를 잘 살폈다는 뜻이다. ‘빈신(嗛呻)’은 얼굴을 쩡그리고 신음하는 것을 이르는데, 한유(韓愈)의 허국공신도비문(許國公神道碑文)에 “…공은 그 사이에서 임금을 위하여 간소배들을 책망하고 그 쩡그리고 신음하는 것을 살피었다.[公居其間, 爲帝督姦, 察其嗛呻]” 한 데서 온 말이다. 《韓昌黎集 卷三十二》

1092 이웃나라에…하거늘 : 《논어(論語)》 헌문편(憲問篇)에 진성자(陳成子)가 제(齊)나라 간공(簡公)을 시해(弑害)하자, 공자가 목욕(沐浴)을 하

것을 보고도 감히 빨리 달려가서 급변 보고하기를 늦추겠는가? 다만 질병이 몸을 두르고 있었으니 그러므로 심복을 시켜 하루에 이틀 길을 가게 했다. 은밀히 훈맹(勳盟)을 통하여 움직이기 전에 기아(機牙)를 파괴했고 급히 괴수를 사로잡아 벌레와 개미떼에 그물 친 듯 포위하니<sup>1093</sup> 어찌 도망갈 수 있겠느냐? 갑옷에 평상복을 끼입고 궁문에 들어온 자들이 이[蠡]가 숨듯 있다가 결박되었고, 군대를 일으켜 한양에 이른 자들이 물고기가 놀란 듯 다투어 달아났다. 원흥(元兇)이 죄를 자복하자 거리에 경예(鯨鯢)<sup>1094</sup>의 피가 넘쳐흐르고 잔당들도 살육 당하자 죄인의 살이 솔개와 갈까마귀의 창자를 실컷 채웠다. 만약 경의 충성이 아니었다면 나라는 이미 위태로웠을 것이니, 오늘을 있게 만든 것이 누구의 힘이겠는가? 굴뚝을 굽히고 땔나무를 미리 옮긴 공로를 어찌 멀리 태우고 이마 데인 사람의 아래에 둘 수 있겠는가?<sup>1095</sup> 이에 사

---

고 노(魯)나라 애공(哀公)에게 고하기를, “진항(陳恒)이 그 임금을 시해했으니 토주(討誅)할 것을 청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이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1093 그물…포위하니 : 원문에 ‘강(綱)’으로 되어 있으나 ‘망(網)’의 오자로 판단하여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094 경예(鯨鯢) : 고래의 암컷과 수컷으로, 흉악한 적인(敵人)을 비유한다.

1095 굴뚝을…있겠는가 : 화근을 미연에 방지한 사람의 공로를 낮게 인정해서는 안됨을 말한 것이다. 전국시대 제(齊)나라 순우곤(淳于髡)이 자기 이웃집의 굴뚝이 곧게 나 있고 땔나무가 바로 그 곁에 쌓여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주인에게, 화재 날 위험이 있으니 굴뚝을 굽게 고쳐 만들고 땔나무를 멀리 옮겨 놓아야 한다고 권하였으나, 그 주인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가 끝내 화재가 났다. 마침 이웃 사람들의 도움으로 불을 다 끄고 나서는 주인이 소를 잡고 술을 마련하여 불 끄느라 수고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뵈었바, 불을 끄느라 머리를 태우고 이마를 덴 사람을 가장 공이 크다 하여 상객(上客)으로

냥개 풀어 짐승을 쫓게 한 공적을 당연히 쫓아가 잡은 자의 공보다 앞에 두노라.<sup>1096</sup> 비기사(賁期思)<sup>1097</sup>의 봉호는 공훈을 제일에 둔 것이요, 소찬후(蕭鄴侯)의 식읍(食邑)을 누가 유독 많다고 하는가?<sup>1098</sup> 이에 작위를 분봉해주어 귀히 여기고 모토(茅土)를 나눠주어<sup>1099</sup> 너를 가상히 여기노라. 아! 여기에 충신이 있으니 나라

앞하고, 그 나머지도 공의 고하에 따라 각각 자리에 앉혔으며, 순우곤은 부르지도 않았다. 이에 지사(智士)가 그 주인을 기롱하여 “굴뚝 굽게 내고 뿔나무 옮기라던 이에겐 아무 은택도 없고, 불 끄느라 머리 태우고 이마 댄 사람을 상객으로 삼았네.[曲突徙薪無恩澤, 焦頭爛額爲上客.]”라고 했다고 한다. 《漢書 卷68 霍光傳》

1096 이에…두노라 : 배후에서 일을 조종한 공로를 직접 발로 댄 공로보다 더 높게 여긴다는 말이다. 원문의 ‘발蹤지시(發蹤指示)’는 배후에서 조종하며 지휘하는 것을 말한다. 한 고조(漢高祖)가 천하를 통일하고 논공행상을 할 적에 소하(蕭何)의 공을 으뜸으로 삼자 여러 공신들이 불평하였는데, 이에 고조가 사냥을 예로 들면서 “짐승을 쫓아가서 잡은 놈은 사냥개이고, 개를 풀어놓고 짐승이 있는 곳을 가리켜 주는 자는 사냥꾼이다. 지금 제군은 단지 도망가는 짐승을 잡은 것일 뿐이니 그 공은 사냥개에 해당한다. 반면에 소하의 경우는 개를 풀어놓고 목표를 지시하였으니 그 공은 사냥꾼에 해당한다.[追殺獸兔者狗也, 而發蹤指示獸處者人也. 今諸君徒能得走獸耳, 功狗也. 至如蕭何, 發蹤指示, 功人也.]” 하였다. 《史記 卷53 蕭相國世家》

1097 비기사(賁期思) : ‘비기사’는 진(秦)나라 말기의 비혁(賁赫)을 가리킨다. 그는 본래 회남왕(淮南王) 영포(英布)의 막부에서 중대부(中大夫)로 있었으나 영포의 반란을 유방에게 알린 공로로 인해 영포가 죽은 뒤에 기사후(期思侯)에 봉해지고 식읍 1천호를 받았다. 《史記 卷91 黥布列傳》

1098 소찬후(蕭鄴侯)의…하는가 : 한(漢)나라 개국공신인 소하(蕭何)를 말한다. 소하는 유방과 항우(項羽)의 싸움에서 관중(關中)에 머물러 있으면서 양식과 군병의 보급을 확보했으므로, 고조가 즉위할 때에 논공행상에서 으뜸가는 공신이라 하여 찬후(鄴侯)로 봉해지고 식읍(食邑) 7천 호를 하사받았다.

1099 모토(茅土)를 나눠주어 : 옛날 천자가 제후를 봉할 때의 의식으로, 대

를 위함이 어떠한가? 태산과 황하의 대려지맹(帶礪之盟)이 아직 그대로 있으니,<sup>1100</sup> 운대(雲臺)와 능연각(凌煙閣)에 그려진 그림의 뜻을 잇을 수 있겠는가?<sup>1101</sup>

---

사(大社)의 흙을 흰 띠풀(白茅)로 싸서 봉토(封土)로 가지고 가도록 나누어 주었던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허적을 양릉군(陽陵君)에 봉한 것을 뜻한다.

1100 태산과…있으니 : 공신(功臣) 집안을 영구히 대접하겠다는 맹세를 변치 않겠다는 말이다. 한 고조(漢高祖)가 봉작(封爵)한 서사(誓辭)에 “황하(黃河)가 띠(帶)와 같이 작아지고 태산(泰山)이 솥돌(礪)과 같이 평지가 되도록 나라에서 영구히 보존하리라.[使黃河如帶, 泰山如礪, 國以永存.]”라 하였다.

1101 운대(雲臺)와…있겠는가 : 공신의 공로를 잊지 않겠다는 말이다. 운대(雲臺)는 후한(後漢) 명제(明帝) 때 등우(鄧禹) 등 전대(前代)의 명장 28인의 초상화를 그려서 걸어 놓고 추모한 공신각(功臣閣)의 이름이다. 능연각(凌煙閣)은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건립한 공신각(功臣閣)의 이름인데, 태종은 643년(정관17)에 장손무기(長孫無忌)·두여희(杜如晦)·위징(魏徵)·방현령(房玄齡) 등 훈신(勳臣) 24명의 초상화를 그려서 여기에 걸어 놓게 하였다.





## 비답 批答

### 우의정이 세 번째 사직 상소를 올린 데 대해 윤택하지 않는 비답

右議政三度呈辭不允答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하노라.

말을 진실로 두 번 하지 않은 것은 그 전에 이미 거듭거듭 힘써 당부했기 때문인데, 사직서가 어찌 세 번 이르렀단 말인가? 마치 불안하고 위축되어 갈 곳 없는 사람 같다.<sup>1102</sup> 경은 뭐가 그리 급한가? 나는 몹시 섭섭하도다. 오직 경이 사직의 신하로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의리가 있었으니, 큰 가뭄의 장맛비를 어찌 상(商)나라 현인에게서만 빌렸겠는가?<sup>1103</sup> 지금 시대의 기린각(麒麟閣)을 당(唐)나라 열사만으로 제한하지 않았도

---

1102 불안하고…같다 : 《시경(詩經)》〈소아(小雅) 절남산(節南山)〉에,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를 타니, 네 마리 수말의 목이 굽도다. 내가 사방을 둘러보아도, 불안하고 위축되어 달려갈 곳이 없도다.[駕彼四牡, 四牡項領。我瞻四方, 蹙蹙靡所騁。]”라고 한 것을 원용한 것이다.

1103 큰…빌렸겠는가 : 상(商)나라 현인은 부열을 가리킨다. 상나라 고종(高宗)이 부열을 재상으로 임명하면서 말하기를, “만약 나라에 큰 가뭄이 들면, 그대를 사용하여 장맛비로 삼을 것이다.[若歲大旱, 用汝作霖雨。]”라고 하였다. 《書經 說命上》

다.<sup>1104</sup> 오직 풍운(風雲)의 원대한 뜻을 잘 펼쳤기 때문에 국가 경영의 계책을 열 수 있었다. 장상(將相)의 재주를 바야흐로 그 출입에 의지하고,<sup>1105</sup> 청신(淸愼)의 지조를 어찌 신명(神明)에게만 묻겠는가? 하물며 국사의 위태함이 이미 이 지극한 상황에 이르렀고, 저 흉도의 반란이 형언하기 어려움에 있어서라? 경은 돌아가서 쉬려 하는가? 그렇다면 나 또한 어찌할 수 없도다. 하물며 참소한 말이 어찌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sup>1106</sup> 그 뜻을 궁구해보면 그렇지가 않거늘. 만약 시끄럽게 떠든 것을 혐의로 여긴다면 넓은 마음으로 남을 포용하는 역량에 방해될까 걱정된다.<sup>1107</sup> 지금 다급하고 위태로운 때를 당하여 구구한 작은 일로 사직하려고 하는데 경의 본심이 아닌 듯하니 장차 나를 어느 곳에 두려 하는가? 고요(皐陶)는 요(堯)임금에게 스스로 고굉(股肱)의 신하로 인정하였고<sup>1108</sup> 재상 소하(蕭何)는 한 고조(漢

1104 지금…않았도다 : 기린각(麒麟閣)은 한(漢)나라 선제(宣帝) 때 곽광(霍光) 등 공신 11명의 초상화를 걸어서 길이 기념했던 전각의 이름이다. 여기서는 능연각(凌煙閣)을 기린각으로 표현한 듯하다. 참고로 능연각은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건립한 공신각(功臣閣)의 이름인데, 태종은 643년(정관17)에 장손무기(長孫無忌)·두여회(杜如晦)·위징(魏徵)·방현령(房玄齡) 등 훈신(勳臣) 24명의 초상화를 그려서 여기에 걸어 놓게 하였다.

1105 장상(將相)의…의지하고 : 나가서는 장수로 활약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됨을 말한다.

1106 참소한…있겠는가 : 《시경》〈채령(采芻)〉에 “남의 조작된 말이 어찌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人之爲言, 胡得焉.]”라고 하였는데 이를 원용한 것이다.

1107 넓은…걱정된다 : 《서경(書經)》〈진서(秦誓)〉에 “그 마음이 아름다워 남을 포용함이 있는 듯하다.[其心休休焉, 其如有容焉.]”라고 하였는데 이를 활용한 것이다.

1108 고요(皐陶)…인정하였고 : ‘고굉(股肱)’은 팔다리의 뜻으로 신하를 말

高祖)에게 좌우(左右)의 손일뿐만이 아니었다.<sup>1109</sup> 차마 강 한 복판에서 건너지 못하게 하려는가? 물을 건너려 하는데 배가 없음을 내버려두겠단 말인가?<sup>1110</sup>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보건대 연유한 바를 알지 못하겠다. 장차 필시 어제의 병이 오늘 나을 것이요 거의 도가 통창하고 때가 태평해짐을 보게 될 것이다. 빨리 공정(共貞)의 아름다움<sup>1111</sup>에 짝하고 독선(獨善)의 제책을 결단하지 말라. 아! 바야흐로 깊은 골짜기에 임하여 암랑(巖廊)<sup>1112</sup>을 버리고 어디에 의지하겠는가? 만약 명당(明堂)을 얻으

---

한다. 고요가 요(堯)임금의 신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말한 것이다. 참고로 고요가 '고굉'을 언급한 것은 순임금과의 수창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서경》〈익직(益稷)〉에 따르면, 순임금이 “대신들이 기뻐하며 일하면 임금의 다스림이 흥기하여 백관의 공이 넓어질 것이다.[股肱喜哉, 元首起哉, 百工熙哉.]”라고 노래하자 고요(皋陶)가 화답하여 “임금이 현명하시면 대신들이 훌륭하여 만사가 편안해질 것이다.[元首明哉, 股肱良哉, 庶事康哉.]”라고 노래를 이어 불렀다.

1109 재상…아니었다 : 소하가 도망간 한신을 쫓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유방에게 승상 소하가 도망갔다고 보고하자 유방이 크게 노했는데 마치 좌우의 손을 잃은 것 같았다[如失左右]는 고사가 전한다. 《史記 淮陰侯列傳》

1110 차마…말인가 : 재상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함으로써 결국 재상직을 수행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서경》〈열명 상〉에 은 고종(殷高宗)이 일찍이 현상(賢相) 부열(傅說)에게 이르기를, “만약 큰 시내를 건너려면 너를 사용하여 배와 노로 삼을 것이다.[若濟巨川, 用汝作舟楫.]”라고 하였다.

1111 공정(共貞)의 아름다움 : 임금과 신하 두 사람에게 모두 좋은 아름다움이란 뜻이다. 《서경》〈낙고(洛誥)〉에 “공께서 이미 집터를 정하시고 사자를 보내와서 나에게 점의 조짐이 좋아서 항상 길함을 보여 주시니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마땅하리로다.[公既定宅, 侂來, 來視予卜休恒吉, 我二人共貞.]”라고 하였다.

1112 암랑(巖廊) : 높고 큰 낭무(廊廡)로, 정승들이 모여 있는 의정부(議政府)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려면 동량(棟梁)을 다듬어 쓸 것을 생각해야 하니, 마땅히 약을 쓰지 않아도 낫는 기쁨이 있음을 알리고,<sup>1113</sup> 이에 목마른 듯한 지극한 정성에 부응하라.

---

1113 마땅히…알리고 : 원문의 ‘물약유희(勿藥有喜)’는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다는 뜻으로, 병의 쾌유를 비유하는 말이다. 《주역》〈천뢰무망괘(天雷无妄卦) 구오(九五)〉의 “잘못한 일이 없이 생긴 병이니,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 기쁨이 있으리라.[无妄之疾, 勿藥有喜.]”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 전箋

### 관학에서 유생이 다섯 현인을 문묘에 종사하도록 청한 일<sup>1114</sup>의 의전

擬館學儒生請以五賢從祀文廟箋

명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여<sup>1115</sup> 바야흐로 한 사람에게 경사가 있으니,<sup>1116</sup> 선비를 높이고 도를 중시하고자 한다면 다섯 현인을 버리고 그 누가 있겠습니까? 이에 새로 흥기한 때를 맞아 감히 문묘에 종사해야 한다는 청을 올립니다. 삼가 생각건대 일은 우왕이 옛날 행하신 것을 이으셨고, 명은 주나라의 새로움을

---

1114 관학(館學)에서…일 : 성균관 유생들이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이언적(李彦迪)·조광조(趙光祖)·이황(李滉)의 다섯 명을 공자의 사당에 배향하자고 요청한 것을 말한다.

1115 명덕을…하여 : 《대학장구(大學章句)》 경 1장에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히는 데에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에 있으며, 지극한 선에 그치는 데에 있다.[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民, 在止於至善.]” 한 데서 온 말이다.

1116 한…있으니 : ‘한 사람’은 군왕을 뜻한다. 《서경》〈여형(呂刑)〉에 “위로 임금 한 사람이 경사가 있게 되면, 아래로 만백성이 그에 힘입게 되어, 그 편안함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一人有慶, 兆民賴之, 其寧惟永.]”라고 하였다.

열었습니다.<sup>1117</sup> 상사(喪事)에는 반드시 애통을 다해야 하니 이미 선조를 받드는 효를 독실히 하였고 제사를 지내면 복을 받는데<sup>1118</sup> 어찌 마땅하지 않은 귀신을 종묘에 배열하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다섯 신하가 연이어 일어났고 실로 여러 조정에서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아래로 인사(人事)를 배우고 위로 천리(天理)에 달통하여<sup>1119</sup> 여러 현인들이 아직 밝히지 못한 사유를 드러내었고, 옛 성인을 잇고 후학을 열어주어<sup>1120</sup> 천 년간 전해지지 않은 도의 실마리를 전했습니다. 도(道)가 있는 곳에 문(文)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은 어찌하여 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우하게 했던 말입니까? 시운이라서 어찌할 수 없었으니 그러므로 도를 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용사(用捨)와 행장(行藏)<sup>1121</sup>에 잘못된 바가 없었으

1117 일은…열었습니다 : 《서경》〈상서(商書) 중취지고(仲虺之誥)〉에 “유하(有夏)가 덕에 어두워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거늘 하늘이 마침내 왕에게 용맹과 지혜를 내려 주시어 만방을 표정(表正)하여 우왕이 옛날 행하셨던 것을 잇게 하셨다.[有夏昏德, 民墜塗炭, 天乃錫王勇智, 表正萬邦, 纘禹舊服.]”라고 한 것과 《시경》〈문왕(文王)〉에 “주나라가 비록 옛 나라이나, 그 명이 새롭다.[周雖舊邦, 其命維新.]”라고 한 것을 활용한 표현이다.

1118 제사를…받는데 : 《예기》〈예기(禮器)〉에서 공자가 “나는 전쟁을 하면 이기고 제사를 지내면 복을 받는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기 때문이다.[我戰則克, 祭則受福, 蓋得其道矣.]”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나오는 말이다.

1119 아래로…달통하여 : 원문은 ‘하학상달(下學上達)’로, 《논어》〈헌문〉에 “하학인사 상달천리(下學人事上達天理)”라고 한 말의 줄임말이다.

1120 옛…열어주어 : 원문의 ‘계왕개래(繼往開來)’는 주자(朱子)가 〈중용장구서(中庸章句序)〉에서 공자의 덕을 찬양하면서 “지나간 성인을 잇고 후세에 올 학자를 열어 준 것은 그 공이 도리어 요순보다도 나은 점이 있다.[繼往聖, 開來學, 其功反有賢於堯舜者.]”라고 한 데에서 유래한 말이다.

1121 용사(用捨)와 행장(行藏) : 세상에 용납되면 나아가 자신의 도를 행하

며, 군신이 군신답고 부자가 부자답게 된 것이 누구의 공입니까? 이에 성묘(聖廟)에 배향하자는 의론이 있었으니, 선대 어진 왕이 계시던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체로 스승을 존경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지 억지로 태평성세에 헛되이 꾸민 일이 아니니, 장차 그 의식을 거행하여 사림(士林)의 여망(輿望)에 부응하려 했는데,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사이에 정호(鼎湖)에서 용의 수염을 붙들고 통곡하게 될 줄을.<sup>1122</sup> 나랏일에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지 종묘 배향을 하찮다고 여겨서가 아닙니다. 더구나 막 보위를 이으신 때를 맞아 배양(培養)의 기반을 넓혀야 함은 더 말할 무엇 하겠습니까. 왕화(王化)가 어찌 평범함에 그치겠습니까? 문교(文教)가 필시 저절로 진작될 것입니다. 만약 도를 보위하는 근본을 바라신다면 종사(從祀)를 우선시하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혹은 제사를 지내고 혹은 지내지 않는 것이 선현 입장에서 실로 손해될 것도 이익이 될 것도 없으나 존경하고 공경하는 일을 후학 입장에서 어찌 감히 머뭇거리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덕 있는 이를 높이고 현인을 본받

---

고, 버려지면 물러나 자신의 도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논어(論語)》〈술이(述而)〉에, “쓰이면 뜻을 행하고 쓰이지 않으면 숨는다.[用之則行, 舍之則藏.]”고 하였다.

1122 정호(鼎湖)에서…줄을 : 임금이 승하함을 말한다. 《사기(史記)》 28권 〈봉선서(封禪書)〉에 “황제(黃帝)가 수산(首山)에서 동(銅)을 채취하여 형산(荊山) 아래 정호(鼎湖)에서 솥을 주조하였다. 그 솥이 완성되자, 용이 하늘에서 수염을 내려 황제를 맞이하니, 황제가 그 용의 등에 올라탔는데, 70여 인의 신하와 후궁들도 따라가 올라탔다. 그 나머지 신하들은 올라가지 못하고 용의 수염을 붙잡자, 그 수염이 떨어지면서 황제의 활도 함께 땅에 떨어졌다. 황제가 하늘로 올라간 뒤에 백성들이 용의 수염과 활을 붙들고 통곡하였다.”라고 하였다.



아 뜻을 잘 계승하고 일을 잘 따라 행하소서.<sup>1123</sup> 봄 가을의 석채(釋菜)<sup>1124</sup>에 삼로(三老)와 오경(五更)<sup>1125</sup>으로 하여금 정성을 드러내도록 하시고, 금석사황(金石絲簧)<sup>1126</sup>을 연주하시어 한 분의 성인과 열 분의 현인을 배향하여 일제히 제향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지금 이후로 유학의 도가 동방에 오게 될 것입니다.<sup>1127</sup> 조정과 재야에서 상소를 올리는 부지런함이 그칠 것이고 생도들은 귀의할 바가 있는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삼가 마땅히 옷자락을 치켜들어<sup>1128</sup> 교

1123 뜻을…행하소서 : 원문의 ‘계지술사(繼志述事)’는 본래 아버지의 뜻을 잘 계승하고, 아버지의 일을 잘 따라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덕 있는 이와 현인의 뜻을 잘 계승하고 일을 잘 따라서 하라는 뜻으로 쓰였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9장에 “공자가 말씀하기를 ‘무왕과 주공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는 효자일 것이다. 효란 것은 아버지의 뜻을 잘 계승하며, 아버지의 일을 잘 따라 행하는 것일 뿐이다.[武王周公, 其達孝矣乎! 夫孝者, 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者也.]’라고 하였다.

1124 석채(釋菜) :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서울은 성균관, 지방은 향교(鄕校)에서 소나 양 등의 희생(犧牲)을 생략하고, 채소 등으로 간소하게 선성(先聖)과 선사(先師)에게 제사 지내는 예를 말한다.

1125 삼로(三老)와 오경(五更) : 주대(周代)에 천자가 부형(父兄)의 예로 노인을 봉양하기 위해 설치한 관직이다.

1126 금석사황(金石絲簧) : 음악을 가리킨다. 금은 쇠로 만든 악기이고, 석은 옥으로 만든 악기이며, 사는 현악기이고, 황은 관악기이다.

1127 유학의…것입니다 : 원문의 ‘오도(吾道)’는 《논어》 이인(里仁)에서 공자가 “나의 도는 하나로 관통한다.[吾道一以貫之.]”라고 한 이후로 공자의 가르침 즉 유학을 뜻한다. 한편 ‘오도(吾道)가 동방으로 온다’는 말은 후한(後漢)의 정현(鄭玄)이 학업을 완성하고 돌아갈 때 그 스승 마융(馬融)이 “나의 도가 동쪽으로 옮겨 간다.[吾道東.]”라고 한 데에 보인다.

1128 옷자락을 치켜들어 : 원문은 ‘구의(搯衣)로 옷자락을 잡는다는 뜻인데 스승 앞에 나아가 강론을 듣는 것을 말한다. 《예기》〈곡례 상(曲禮上)〉의 “스승에게 나아가갈 적에는 옷자락을 잡고 구석을 향해 종종 걸음으로 가서 앉고, 반드시 삼가서 응대해야 한다.[搯衣趨隅, 必慎

화를 따르고, 북을 치고 책상자를 열어<sup>1129</sup> 방법을 따를 것입니다.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아는 공부에 있어서는 비록 새가 자주 날 개짓하는 학습<sup>1130</sup>에 부끄럽지만, 스승을 따라 도를 배움에 있어서는 거의 물고기가 천 리를 헤엄치는 마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sup>1131</sup>

唯諾.]”라는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1129 북을…열어 : 원문은 ‘고협(鼓篋)’으로, 북을 쳐서 선비를 모으고 책상자를 풀어서 책을 펴놓는 것을 말한다. 《예기》〈학기(學記)〉에 “학교에 들어갈 적에 북을 쳐 선비들을 모아 상자를 여는 것은 학업을 손순(遜順)히 하는 것이다.[入學鼓篋, 孫其業也.]”라고 하였다.

1130 새가…학습 :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을 뜻한다. 《논어(論語)》〈학이(學而)〉에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하였는데, 주자(朱子)의 주에 “습(習)은 새가 자주 나는 것이니, 배우기를 그치지 않음을 새가 자주 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習, 鳥數飛也, 學之不已, 如鳥數飛也.]”라고 하였다.

1131 스승을…것입니다 : 스승을 좇아 배움으로써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원문의 ‘어천리(魚千里)’는 동이 속에 담긴 물고기가 그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몇 천리나 되는 것처럼 오인하고 즐겁게 노닌다는 말이다. 《관운자(關尹子)》〈우(宇)〉에 “동이로 못을 삼고, 돌로 섬을 삼고는 물고기가 몇 천만 리인지도 모른 채 끝도 없이 빙빙 돌며 유명한다.[以盆爲沼, 以石爲島, 魚環游之, 不知其幾千萬里而不窮也.]”라고 하였다.

## 성상께 존호가 가상됨을 하례하는 전을 대신 짓다

代賀上尊號牋

덕이 공보다 앞에 있으니 이미 좋은 태운(泰運)<sup>1132</sup>에 올랐고 실상이 명성 너머까지 포함하니 이에 아름다운 존호(尊號)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래되었지만 그 명이 새로우니<sup>1133</sup> 옛사람 중에서 누가 견주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혼란을 돌려 치세로 만드셨고 어둠을 써서 밝게 하셨습니다.<sup>1134</sup> 북극성이 먼 곳에 자리 하자 마침내 못 별들이 북극성을 향하는 의리에 이르렀고<sup>1135</sup> 동쪽 바다가 멀리 개이자 바다를 가로지르는 물고기가 영원히 숨었습니다.<sup>1136</sup> 마땅히 현양하고 칭송하며 큰 공을 현창해야 합니다.

1132 태운(泰運) : 천지 상하가 막히지 않고 두루 통하는 대운(大運)을 말한다. 《주역》〈태괘(泰卦) 상(象)〉에 “하늘과 땅이 사귀어 조화로운 것이 태이다.[天地交泰.]”라고 하였다.

1133 오래되었지만…새로우니 : 《시경》〈문왕(文王)〉에 “주나라가 비록 옛 나라이나, 그 명이 새롭다.[周雖舊邦, 其命維新.]”라고 한 데에서 인용한 것이다.

1134 어둠을…하셨습니다 : 《주역》 명이괘(明夷卦) 상(象)에 “밝음의 덩어리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상이 명이니, 군자는 이 상을 보고서 무리를 대할 적에 어둠을 써서 밝게 한다.[明入地中, 明夷, 君子以, 莅衆, 用晦而明.]”라고 한 데에 보인다.

1135 북극성이…이르렀고 :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의주로 가자 여러 신하들이 의주로 모였던 것을 말하는 듯하다. 《논어》〈위정(爲政)〉에 “덕정을 펴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으면 못별들이 그것을 향하는 것과 같다.[爲政以德, 譬如北辰居其所, 而衆星拱之.]”라고 하였는데, 이를 활용한 것이다.

1136 동쪽…숨었습니다 : 일본군이 물러가고 전란이 끝났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삼가 생각건대 관직이 기전(畿甸)을 맡는 일에 매여 있어<sup>1137</sup> 자취가 조정 반열과 막혔습니다. 기등과 울타리로서<sup>1138</sup> 비록 감당(甘棠)의 노래를 듣지 못해 부끄럽지만<sup>1139</sup> 춤추며 축하하는 자리에서 감히 송산의 만세 삼창에 뒤지겠습니까?<sup>1140</sup>

1137 관직이…있어 : 원문의 ‘전(甸)’은 ‘기전(畿甸)’으로 경기 지역을 말한다.

1138 기등과 울타리로서 : 원문은 ‘유한유병(維翰維屏)’으로, 《시경》〈판(板)〉에 “큰 제후국은 나라의 병풍이며 대종(太宗)은 나라의 정간(楨幹)이다.[大邦維屏, 太宗維翰.]”라고 한 데에 보인다.

1139 비록…부끄럽지만 : 덕정(德政)을 찬미하는 소리가 없어 부끄럽다는 말이다. 《시경》〈감당(甘棠)〉에 “무성한 감당나무를 자르지도 말고 휘지도 말라. 소백이 머무셨던 곳이니라.[蔽芾甘棠, 勿翦勿拜. 召伯所說.]”라고 하였는데, 이 시는 주(周)나라 소백(召伯) 즉 소공(召公) 석(奭)의 덕정(德政)을 찬미한 것이다.

1140 송산의…뒤지겠습니까 : 백성들이 임금의 만세를 송축(頌祝)하는 말로,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송산(嵩山)에 올랐을 때 백성들이 그 아래에서 세 번 ‘만세’를 외친 고사에서 유래한다. 《漢書 卷6 武帝紀》

## 탄일을 하례하는 전을 대신 짓다

代賀誕日牋

태어나실 때 길몽(吉夢)을 꾸니 상서로움은 마치 번개가 북두성을 휘감은 것 같고,<sup>1141</sup> 마침내 좋은 때를 만나니 경사는 양(陽)이 생겨나는 달에 해당합니다. 한 잎의 명협<sup>1142</sup>을 드리고 만년송<sup>1143</sup>을 올립니다. 삼가 생각건대 큰 공이 조종에 빛나고 많은 복을 대대로 이으셨습니다. 왜군(倭軍)이 덕을 부끄러워하니 마침내 동방의 요망한 기운이 사라졌고, 자극(紫極)<sup>1144</sup>이 정성을 지극히 하니 공경히 천자의 명을 받들었습니다. 이에 장춘절<sup>1145</sup>을 만났으니 마침 태평시절에 해당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관직이 외람되어 기전(畿甸)을 맡고 있어 대궐에 들어갈 길이 막혔습니다. 치란서(治亂書) 한 권은 비록 금감록(金鑑錄)<sup>1146</sup>의 잠언에 비하면 부끄

---

1141 상서로움은…같고 : 임금의 생일을 비유한다. 《사기(史記)》 권1 <오제본기(五帝本紀)>의 주에, 황제(黃帝)의 모친인 부보(附寶)가 기(祁)땅 들판에 있을 적에, 번개가 크게 치며 북두칠성의 첫째별을 휘감는 것[大電繞北斗樞星]을 보고는, 감응하여 잉태한 뒤 24개월이 지나서 황제를 낳았다는 전설이 실려 있다.

1142 명협(螢莢) : 상서로운 풀 이름으로, 요(堯) 임금 때 궁궐 뜰에 나서 초하루부터 하루에 한 잎씩 피다가 16일이 되면 매일 한 잎씩 떨어졌는데, 이것을 보고 달력을 만들었다고 한다.

1143 만년송(萬年松) : 풀이름인 옥백(玉柏)의 별칭으로, 여러 해 동안 죽지 않고 잘 견디므로 이를 천년백(千年柏)이라 부르기도 한다.

1144 자극(紫極) : 별 이름으로, 보통 제왕의 궁전을 가리킨다.

1145 장춘절(長春節) : 군왕의 생일을 말한다.

1146 금감록(金鑑錄) : 당(唐)나라 재상 장구령(張九齡)이 천추절(千秋節)에 현종(玄宗)에게 올린 《천추금감록(千秋金鑑錄)》의 약칭으로, 역대 정치의 잘하고 잘못된 사적(事跡)을 엮어서 정치의 거울로 삼도록 한

럽지만 장수[壽]와 부유함[富]과 아들 많음[多男子]으로 화봉(華封)의 축원을 본받고자 합니다.<sup>1147</sup>

---

책이다.

1147 장수[壽]와…합니다 : 화(華)땅을 지키는 봉인(封人)이 요(堯)임금에게 아뢰기를 “아, 성인께 축복 드리기를 청하오니, 성인께서 장수하고 부유하고 아들을 많이 두시기를 축원합니다.[噫! 請祝聖人, 使聖人壽富多男子.]”라고 하였는데 이를 원용한 것이다. 《莊子 天地》

## 등극을 하례하는 전을 대신 짓다

代賀登極賤

구가(謳歌)가 이미 귀의하니<sup>1148</sup> 바야흐로 개옥(改玉)<sup>1149</sup>의 경사를 송축합니다. 조서(詔書)가 홀연 내려오니 이에 홀을 받는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sup>1150</sup> 기쁨이 종묘사직에 넘치고 즐거움이 국내에 두루 미칩니다. 삼가 생각건대 하늘을 본받는 것으로 법도를 삼으셨으니<sup>1151</sup> 마치 해가 솟아오른 것 같습니다. 남쪽을 안무하신 공이 커서 수천 리에 이르는 민심을 거두셨고, 동쪽의 잠저에 계실 적에 효성이 드러나서 간절히 기다린 지가 17년입니

- 
- 1148 구가(謳歌)가 이미 귀의하니 : 백성들이 인조를 임금으로 받들어 귀의한 것을 뜻한다. 구가(謳歌)는 임금의 공덕(功德)을 노래하는 것을 말한다. 맹자가 이르기를 “우 임금이 어진 신하 익을 하늘에 천거한 지 7년 만에 우 임금이 붕하시자, 삼년상을 마치고 나서 익이 우 임금의 아들 계를 피하여 기산의 북쪽으로 가 있었다니, 조근하고 송옥하는 자들이 익에게로 가지 않고 계에게로 가서 ‘우리 임금의 아들이다.’ 하고, 노래하는 자도 익을 노래하지 않고 계를 노래하면서 ‘우리 임금의 아들이다.’ 했다.[禹薦益於天七年, 禹崩, 三年之喪畢, 益避禹之子於箕山之陰. 朝覲訟獄者不之益而之啓曰 ‘吾君之子也’, 謳歌者不謳歌益而謳歌啓曰 ‘吾君之子也’.]”라고 하였다. 《孟子 萬章上》
- 1149 개옥(改玉) : 개옥개보(改玉改步)의 준말로, 임금을 바꾸고 제도를 일신(一新)하는 것을 말한다. 《春秋左傳 定公 5年》
- 1150 홀을…되었습니다 : 규(圭)는 규(珪)와 같다. 고대에 제후가 조회할 때에 지니는 옥으로 만든 예기(禮器)이다. 제왕이 작위를 봉해주거나 봉토를 줄 때에 ‘규’를 내려주어 신물(信物)로 삼았는데 전하여 고관(高官)이나 중작(重爵)을 주는 것을 가리킨다.
- 1151 하늘을…삼으셨으니 : 요임금의 위대함에 비유한 말이다. 《논어》〈태백(泰伯)〉에 “높고도 크도다, 오직 하늘이 위대하시거늘 요임금만이 하늘을 본받으셨다.[巍巍乎唯天爲大, 唯堯則之.]” 하였다.

다.<sup>1152</sup> 이에 큰 기업을 받들고 진실로 아름다운 명을 받았습니  
다. 삼가 생각건대 관직이 외람되이 기전(畿甸)을 맡고 있어 자취  
가 조정 반열과 막혔습니다. 황하는 이미 맑아졌고<sup>1153</sup> 다행히 비  
룡(飛龍)<sup>1154</sup>의 시운을 만났으니 백발의 저는 죽지 않고 다만 여강  
(如岡)의 송축을 간절히 올립니다.<sup>1155</sup>

---

1152 동쪽의…17년입니다 : 인조가 왕이 될 때까지 기다린 시간이 17년  
이라는 말인데 참고로 인조는 1607년 능양도정(綾陽都正)에 이어 능  
양군(綾陽君)에 올랐다.

1153 황하는 이미 맑아졌고 : 성군의 출현을 뜻한다. 삼국 시대 위(魏)나라  
이강(李康)의 <운명론(運命論)>에 “황하가 맑아지면 성인이 출현한  
다.[夫黃河清而聖人生.]”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주(註)에 “황하는 천  
년에 한 번 맑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 상서(祥瑞)에 응하여 이때에  
성인이 나온다고 세상에 전한다.[世傳黃河千年一清, 清則聖人生於此  
時也.]”라고 하였다.

1154 비룡(飛龍) : 임금을 비유한다. 《주역》 <건괘(乾卦) 구오(九五)>에 성  
군과 현신이 만나는 것을 비유하여 “용이 날아올라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飛龍在天, 利見大人.]”라고 하였다.

1155 여강(如岡)의…올립니다 : 군왕의 장수를 기원한다는 말이다. ‘여강(  
如岡)은 《시경》 <소아(小雅) 천보(天保)>에 “하늘이 당신을 편안하게  
하사, 흥하지 않음이 없게 한지라, 마치 산인 양 언덕인 양, 높은 뫼  
나 큰 능인 양 흥성하고, 마치 냇물이 흐르고 흘러, 보태지 않음이 없  
는 것 같네.[天保定爾, 以莫不興, 如山如阜, 如岡如陵, 如川之方至, 以  
莫不增.]”라고 한 데에 나오는 말로, 군왕의 장수를 기원한 여러 가  
지 표현 중 하나이다.



## 중전께 하례하는 전을 대신 짓다

代賀中殿牋

능히 건강(乾綱)<sup>1156</sup>의 배필이 되어 일찍이 유한(幽閑)한 덕을 드러내셨고, 공경히 천명(天命)을 받들어 중정(中正)한 거동을 지니셨으니, 일제히 기뻐함이 봄기운이 화창한 듯하고 군중이 환호하는 소리가 우레가 진동하는 듯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갈담(葛覃)<sup>1157</sup>을 읊어 검소함을 드러내셨고 비녀를 벗어 규간하셨습니다.<sup>1158</sup> 규예(媯汭)<sup>1159</sup>에서 화합을 고향은 실로 규잠(閨箴)의 도움

---

1156 건강(乾綱) : 《주역》 건(乾)의 괘상(卦象)이 순강(純剛)의 덕을 지녔다고 하는데, ‘건강’은 보통 임금을 상징한다. 한편 원문의 ‘망(綱)’은 ‘강(綱)’의 오자이다.

1157 갈담(葛覃) : 《시경》 주남(周南)의 편명인데, 이 시는 후비(后妃)가 직접 지은 것으로, 몸소 근검절약을 실천하여 손수 땀을 입고 근친(覲親) 하고자 하는 뜻을 말하고 있다.

1158 비녀를 벗어 규간하셨습니다 : 현숙한 부덕(婦德)을 뜻한다. 주(周)나라 선왕(宣王)이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강후(姜后)가 방을 나온 뒤 곧 비녀와 귀걸이를 벗고 궁중에 죄가 있는 궁녀를 유폐시키는 곳인 영항(永巷)에서 대죄(待罪)하면서 그 부모(傅母)를 보내 왕에게 말을 전하기를 “첩이 못난 탓에 첩의 음심(淫心)이 나타나 군왕으로 하여금 예모(禮貌)를 잃고 늦게 조회하게 함으로써, 군왕이 여색을 좋아하고 덕을 잊고 있음을 드러낸 꼴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자책하였다. 이로 인해 선왕이 각성하고 정사에 힘씀으로써 중흥주(中興主)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列女傳 周宣姜后》

1159 규예(媯汭) : 중국 산서성(山西省) 영제현(永濟縣)에 있는 규수(媯水)인데, 순(舜) 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을 가리킨다. 《사기》에, “순(舜)이 서민으로 있을 적에 요(堯) 임금이 두 딸을 아내로 주어 규예에 살게 했다.”라고 하였다.

에 힘입은 바이고, 감무(監撫)가 공적을 이룸<sup>1160</sup>은 어찌 아녀자의 규범으로 이룬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집안에 본보기가 되시고 나라에 어머니가 되시기에 적합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멀리 조정 반열의 인재들과 어긋나 외람되이 기전(畿甸)의 감당나무를 맡고 있습니다. 재주는 관풍(觀風)에 부족하여 비록 번병(藩屏)<sup>1161</sup>의 책임을 맡기에 부끄러우나 덕화로 편안한 복록을 이루게 하였으니 <규목(樛木)> 시<sup>1162</sup>로 예찬하고자 합니다.

1160 감무(監撫)가 공적을 이룸 : 세자가 공을 이룬 것을 말한다. ‘감무(監撫)’는 감국무군(監國撫軍)의 줄임말로, 세자를 뜻한다. 임금이 출정(出征)할 때에 태자(太子)가 남아서 나라를 지키면 그것을 감국(監國)이라고 하고, 임금을 따라 출정하면 그것을 무군(撫軍)이라 한 데에서 온 말이다. 원문의 ‘저적(底績)’은 공적을 이룬다는 뜻이다. 《서경(書經)》 <우공(禹貢)>에 “담회(覃懷)에 공을 이루시어 형장(衡漳)에 이르시다.[覃懷底績, 至於衡漳.]” 하였다.

1161 번병(藩屏) : 울타리와 병풍이란 뜻으로, 왕성(王城)을 옹위하는 제후국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도백(道伯)에 해당한다.

1162 <규목(樛木)> 시 : 《시경(詩經)》 주남(周南)의 편명이다. 이 시는 후비(后妃)가 질투가 없기 때문에 중첩(衆妾)이 그 덕을 즐거워하여 칭송한 것이데, 제1장에 “남산에 아래로 굽은 나무가 있으니, 칠펙굴이 엮혔도다. 화락한 군자여, 복록이 편안하네.[南有樛木, 葛藟纍之, 樂只君子, 福履綏之.]” 하였다.



현주집

제11권

制

表

序

疏

箋

上梁文

教

帖



## 제制

한 고조가 한신을 대장군에 배수한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은 제서<sup>1</sup> 을사년(1605, 선조38)이다.

擬漢高祖拜韓信爲大將制 乙巳 庭試上之下

정시에서 상지하(上之下)의 점수를 받았다.

용곤(戎關 사령부)에서 정벌을 전담하는 일은 오직 흥망(興亡)의 기틀이 달려 있고 사원(師垣 군영)에서 병권을 맡는 자는 반드시 영준(英俊)한 재기(材器) 갖춘 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비워 두었으니 예로부터 책임자를 얻기가 어려웠다. 풍사(風沙)의 꿈을 꾸니<sup>2</sup> 이미 하늘에 축원했던 청이 간절하였고 비

- 
- 1 한 고조(漢高祖)가…제서(制書) : 1605년(선조38) 5월 7일에 선조가 좌의정 기자헌(奇自獻)과 대제학 유근(柳根) 등에게 명하여 정시(庭試)에 응시한 유생들에게 이 제목으로 제술(製述)하게 하였는데, 이때 조찬한이 거수(居首)를 차지하여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게 하였다. 이 글은 한 고조 유방(劉邦)이 진(秦)나라를 멸하고 항우(項羽)와 천하를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한신을 대장군에 임명하기까지의 전말과 이후의 다짐을 서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풍사(風沙)의 꿈을 꾸니 : 《제왕세기(帝王世紀)》에 이르기를, “황제(黃帝)가 꿈속에서 대풍(大風)이 천하의 먼지(塵垢)를 모두 쓸어버리는 꿈을 꾸고, 또 어떤 이가 천균(千鈞)의 쇠뇌(弩)를 잡고서 수만 마리의 양을 몰고 다니는 꿈을 꾸었다. 황제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호(羆虎)의 점괘가 부합하니<sup>3</sup> 마침내 띠풀 깔고 낚시하던 태사(太師)를 얻었다. 모두 종묘에 고유하는<sup>4</sup> 정성을 밝히고 바퀴를 밀어 주는<sup>5</sup> 예식을 엄숙히 하였다. 하물며 나는 당초에 말 위에서 일어나 먼저 관중(關中)에 들어갔음에랴. 포승을 풀어 호송하던 무리를 보내줄 때 백만 사람의 마음이 다름을 알았는데<sup>6</sup> 홍문(鴻門)에

‘바람[風]은 호령(號令)의 속성이 있으니 집정자(執政者)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구(媧) 자에서 토(土) 자를 빼면 후(后) 자만 남으니 천하에 어찌면 「풍」 자 성과 「후」 자 이름을 가진 자가 있을 것이다. 천균의 쇠뇌를 잡고 다니는 것은 뛰어난 힘의 소유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수만 마리의 양을 몰고 다닌다는 것은 목민(牧民)을 잘하는 자를 가리키니, 천하에 어찌면 「역(力)」 자 성과 「목(牧)」 자 이름을 가진 자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에 두 꿈의 해몽에 의거하여 수소문한 결과 바닷가에서 풍후(風后)를 찾아 재상에 등용하였고 대택(大澤)에서 역목(力牧)을 찾아 장수로 발탁하였다.”고 하였다. 《史記 卷1 五帝本紀》

- 3 비호(羆虎)의 점괘가 부합하니 : 주나라 문왕이 사냥을 나가기 전에 점을 쳤는데, “잡을 것은 용도 아니고 교룡도 아니고 범도 아니고 큰 곰도 아니며 패왕을 보좌할 사람이다.[非龍非虜, 非熊非羆, 非虎非貔, 所獲霸王之輔.]”라는 길조(吉兆)를 얻고 사냥을 나갔다가, 위수(渭水) 가의 반계(磻溪)에서 낚시하고 있는 당시 80세인 강태공을 만나고서 그를 후거(後車)에 싣고 돌아와 재상으로 삼았는데, 뒤에 문왕의 아들인 무왕(武王)을 도와서 은(殷)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평정하였다. 《史記 卷32 齊太公世家》
- 4 종묘에 고유하는 : 원문의 ‘醯廟’는 “문후가 친히 자리를 펴고 부인이 술잔을 받들어 올려, 오기를 종묘에 고유(告由)하고 대장으로 세웠다.[文侯身自布席, 夫人捧觴, 醯吳起於廟, 立爲大將.]”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吳子直解 上卷 圖國》
- 5 바퀴를 밀어주는 : 옛날에 제왕이 장수를 파견할 때에 수레의 바퀴를 밀어 주면서 “곤내(閫內)는 과인이 제어할 테니 곤외(閫外)의 일은 그대가 제어하라.[閫以內者, 寡人制之; 閫以外者, 將軍制之.]”라고 하며 전권(全權)을 위임했던 것을 말한다. 《史記 卷102 馮唐列傳》
- 6 포승을...알았는데 : 《사기》〈고조본기(高祖本紀)〉에 “고조가 정장(亭

서 뒷간 가는 척하며 셋길로 달아날 때 한두 명의 신하가 함께함을 힘입었다.<sup>7</sup> 마침 표한(標悍)한 이가 함부로 전단(專斷)하자 힘준한 성읍(城邑)에 끼어 자취를 굽혔고<sup>8</sup> 이미 사해(四海)를 가지고 멋대로 다스리자 다시 나를 삼진(三秦)으로 격리하였다.<sup>9</sup> 누가 능히

長)으로 현(縣)을 위해 노역하는 무리를 여산(驪山)으로 호송하였는데, 무리들이 도중에 도망하는 자가 많았다. 도착할 때에 이르면 이들이 모두 도망할 것을 스스로 헤아리고는 풍서의 택중에 이르러 멈추어 술을 마시고 밤에 마침내 호송하던 무리들을 풀어 놓아주며 말하기를 ‘공들은 모두 떠나가라. 나 또한 여기서부터 가겠다.’ 하니, 무리 가운데 장사로서 따르기를 원하는 자가 10여 명이였다.[高祖以亭長爲縣送徒驪山，徒多道亡。自度比至皆亡之，至豐西澤中止飲，夜乃解縱所送徒曰公等皆去，吾亦從此逝矣。徒中壯士願從者十餘人。]”라고 하였다.

- 7 홍문(鴻門)에서…힘입었다 : 유방(劉邦)이 먼저 진(秦)나라 수도 함양(咸陽)을 함락하고 군사를 보내 함곡관(函谷關)을 지키고 있었는데, 항우(項羽)가 뒤미처 와서 홍문(鴻門)에 진주하고 유방을 치려 하였다. 이에 겁이 난 유방이 홍문으로 찾아가 항우에게 사죄하였는데, 이때 범증(范增)이 항우에게 유방을 죽이자는 눈짓을 여러 번 하였으나 항우는 못 본 체하였다. 그러자 범증이 항장(項莊)에게 검무(劍舞)를 추다가 유방을 찔러 죽이라고 하니 항백도 검무를 추면서 유방을 보호하였다. 장량(張良)이 이 위급한 상황을 변괘에게 알리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변괘가 칼을 차고 방패를 든 채 군막 안으로 달려 들어가 항우를 노려보았다. 유방은 이 틈을 타 뒷간에 가는 척 군막 밖으로 나온 뒤 변괘를 비롯한 측근 네 사람만 데리고서 셋길을 통해서둘러 파상의 군영으로 돌아갔다. 《史記 卷7 項羽本紀》
- 8 마침…굽혔고 : 표한(標悍)한 이는 항우(項羽)로, 《한서》〈고제기 상(高帝紀上)〉에 “항우는 사람됨이 급하고 사나우며 잔인하였다.[項羽爲人標悍禍賊]”라고 하였고, 힘준한 성읍(城邑)은 파촉(巴蜀)으로, 진(秦)나라를 멸한 뒤 항우는 가장 위협이 되는 유방을 파촉(巴蜀)에 봉하면서 유방의 군사 10만중 3만 명만 데리고 가도록 하였다.
- 9 이미…격리하였다 : 삼진(三秦)은 진의 관중(關中)을 셋으로 나눈 옹(雍), 새(塞), 적(翟)으로 중국의 섬서성(陝西省) 지역인데 항우가 진나라를 멸한 후 항복한 진나라 장수 장한(章邯), 사마흔(司馬欣), 동예(董



나를 보필하리오, 바야흐로 위축되어 갈 곳이 없어졌거니와, 참으로 어진 선비를 얻었다면 어찌 울울한 채로 오랫동안 지냈겠는가. 오직 함께 분노하며 적을 무찌를 인재가 부족한지라, 이 때문에 무력을 쓸 곳이 없었다. 근래에 좌우의 손 같은 신하를 잃었던 일로 인해 끝내 다행히 조아(爪牙) 같은 신하를 얻었다.<sup>10</sup> 나라를 세운 이후 없던 일이었으니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는가. 거의 하늘이 내리신 것이니 어찌 승상이 잘못 알았겠는가.<sup>11</sup> 국사(國事)는 경과 의견일치를 보았고 계모(計謀)는 내가 독단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경은 재주 있었으나 운수가 없었고 지략(智略)을 품고 어리석은 듯이 하였다. 마치 돌아갈 곳 없는 곤궁한 사람 같아 도축장의 소년들의 모욕을 감내하였고<sup>12</sup> 대장부가 끼니도 해결하지 못함

鬻)를 왕으로 삼아서 유방을 견제하게 하였다.

- 10 근래에…얻었다 : 유방이 남정(南鄭)에 이르렀을 때 장수와 군졸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도중에 도망쳐 돌아간 자가 많았는데, 치속도위(治粟都尉)로 있던 한신(韓信)도 중용되지 못함을 한탄하고서 이때 도망쳤다. 이 소식을 들은 승상 소하(蕭何)가 직접 그를 뒤쫓아 떠나자 어떤 이가 유방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유방은 크게 노하여 마치 좌우의 손을 잃어버린 듯이 하였는데[如失左右手] 며칠 뒤에 소하가 한신을 데려와 유방에게 그를 천거하였다. 《史記 卷92 淮陰侯列傳》 조아(爪牙)는 짐승의 발톱과 어금니처럼 위세를 드러내어 적을 막고 임금을 호위하는 것 혹은 그러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시경》〈소아(小雅) 기보(祈父)〉의 “기보야! 나는 왕의 발톱과 어금니이다.[祈父! 予王之爪牙.]”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11 거의…알았겠는가 : 승상 소하가 남정(南鄭)에서 장수와 군졸들이 달아나는 것은 개의치 않다가 한신이 달아났을 때 그를 둘도 없는 국사라며 유방에게 천거한 일을 말한다. 《史記 卷92 淮陰侯列傳》
- 12 도축장의…감내하였고 : 한신(韓信)이 젊어서 가난할 때 회음(淮陰) 도축장(屠中)의 소년들이 그를 모욕하여 “비록 허우대는 크고 그럴듯하게 도검(刀劍)을 찾지만 마음속은 겁이 많다.” 하면서 “한신아, 능히 죽

을 애처롭게 여겨 성 아래에서 밥을 얻어먹는 은덕을 입었다.<sup>13</sup> 이에 검을 쥐고 셋길을 통해 가서 고달프게 짊신 신고 멀리 이르렀다. 그대는 관직이 처음에 도위(都尉)에 그쳤는데<sup>14</sup> 그대를 이렇게 둔 게 참으로 무슨 마음이었던가. 그대는 지위가 낭료(郎僚)에 불과하였는데 저것조차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이었다. 여타 장수들 같은 경우야 연기가 쉬우니 내가 날마다 달아나는 그들을 상관할 게 무엇이라만 국사(國史) 중에 들도 없는 사람이니 그대를 원수

---

일 수 있거든 나를 찌르고 죽일 수 없거든 내 가량이 아래로 지나가라.” 하니, 한신이 그들을 죽일 수 있음에도 모욕을 참고 가량이 아래로 기어갔고, 저자의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한다. 그 뒤에 한신이 초왕(楚王)이 된 뒤에 그 소년들을 불러서 “그 때에 한 칼로 죽이기는 어렵지 않았으나 죽이는 것이 이름이 없는 것이므로 참았다.” 하였다.《史記 卷92 淮陰侯列傳》

- 13 대장부가…입었다 : 한신(韓信)이 일찍이 포의(布衣)의 신분으로 빈궁해서 끼니를 잊지 못하고 소외당한 채 성 아래(城下)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적에, 빨래를 하던 아낙네[漂母] 중의 한 사람이 굶주린 한신의 기색을 보고서 불쌍하게 여긴 나머지 수십 일 동안 밥을 먹여 주었는데, 이에 한신이 감격해서 언젠가 반드시 크게 보답하겠다고 하자, 그 아낙네가 “대장부가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기에, 내가 왕손을 불쌍히 여겨서 밥을 주었을 뿐이니, 어찌 보답을 바라겠는가.[大丈夫不能自食, 吾哀王孫而進食, 豈望報乎!]”라고 하였는데, 한신이 나중에 초왕(楚王)이 되고 나서 그 여인을 찾아 천금(千金)으로 보답한 고사가 전한다. 《史記 卷92 淮陰侯列傳》
- 14 그대는…그쳤는데 : 한신은 처음에 항우(項羽)의 휘하에 있다가 도망하여 한왕(漢王) 유방(劉邦)에게로 갔다. 이후 연오(連敖)의 무리에 있었는데 그들이 법에 걸려 13인이 참형을 당하고 한신의 차례가 되자, 한신은 고개를 들어 등공(滕公) 하후영(夏侯嬰)을 발견하고는, “상께서는 천하를 차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찌 장사(壯士)를 죽이십니까.” 하니, 등공이 그 말을 기특하게 여기고 그 모습을 장하게 여겨 풀어 주었다. 그러나 유방은 그를 특별히 중용하지 않고 곡식과 재물을 관리하는 치속도위(治粟都尉)로 삼는 데 그쳤다. 《史記 卷92 淮陰侯列傳》

(元帥)에 올려 발탁한다.<sup>15</sup>

이에 마음을 재계하여 엄숙하고 정결히 하고서 길일에 좋은 시간을 택하여 경에게 분곤(分鬪)의 의식으로 맡기고 설단(設壇)의 임명<sup>16</sup>으로 겸하노라. 아, 그 옛길을 따라 흑 삼진(三秦)을 평정할 모책(謀策)을 힘입을 것이거니와<sup>17</sup> 형양(滎陽)에서 만나면 어찌 초나라를 도륙하는 일이 어렵겠는가.<sup>18</sup> 참으로 그대와 함께 행하고 시종일관 두 사람이 똑같이 마땅하기<sup>19</sup>를 원하노라. 좋은 계책 내

- 
- 15 여타…발탁한다 : 소하가 남정에서 달아나던 한신을 뒤쫓아 데려왔을 때 유방이 다른 도망간 장수들이 수십 명이나 되는데도 뒤쫓지 않다가 유독 한신만 뒤쫓았다면서 소하가 도망간 일을 질책하자, 소하는 한신을 천거하면서 “여러 장수는 얻기가 쉽지만, 한신 같은 사람은 돌도 없는 국사입니다. [諸將易得耳, 至如信者, 國士無雙.]”라고 하니, 유방이 한신을 대장에 제수하였다. 《史記 卷92 淮陰侯列傳》
- 16 설단(設壇)의 임명 : 단(壇)을 설치하고 장수를 임명하는 것이다. 승상 소하(蕭何)가 한신을 대장으로 천거하고 유방에게 그를 대장으로 임명하고자 한다면 길일(吉日)을 잡아 재계하고 단장(壇場)을 설치하고 예(禮)를 갖추어야 한다고 아뢰자 유방이 허락하고 예를 거행한 뒤에 그를 대장에 임명하였다. 《史記 卷92 淮陰侯列傳》
- 17 그…것이거니와 : 한신이 유방에게 삼진(三秦)을 다스리는 세 장수들이 진(秦) 땅 백성들의 깊은 원한을 사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제 대왕께서 거병(擧兵)하여 동쪽으로 진출하신다면 격문만 보내고도 삼진을 평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 유방은 한신의 계책을 따라 군대를 일으켜 동쪽으로 진창(陳倉)을 나가 삼진을 평정하였다. [東出陳倉, 定三秦] 《史記 卷92 淮陰侯列傳》
- 18 형양(滎陽)에서…어렵겠는가 : 한(漢)나라 2년(B.C. 205) 4월에 핑성(彭城)에 이르러 한나라 군사가 패하여 흩어졌다가 돌아오자, 한신(韓信)이 다시 이를 거두어 한왕과 형양에서 만나[與漢王會滎陽] 다시 경(京)과 색(索)의 사이에서 초나라를 격파하니 이 때문에 초나라 군대가 끝내 서쪽으로 쳐들어오지 못하였다. 《史記 卷92 淮陰侯列傳》
- 19 두…마땅하기 : 주공(周公)이 일찍이 새 도읍지인 낙읍(洛邑)을 정해 놓고 성왕(成王)에게 사자를 시켜 보고하자, 성왕이 말하기를 “공께서 이미 집터를 정하시고 사자를 보내와서 점의 조짐이 좋아서 항상

는 데 끝까지 힘써 위대한 공훈을 세우라.

---

길하다는 것을 보여 주시니, 우리 두 사람이 똑같이 마땅하리로다.[公既定宅, 佯來, 來視予卜休恒吉, 我二人共貞.]”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전하여 임금과 신하가 똑같이 태평을 누리게 됨을 의미한다. 《書經 周書 洛誥》



## 표表

### 당나라 한림학사 무평일이 채화 한 가지를 더 하사받 은 데 사은한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은 표문<sup>20</sup>

- 20 당나라…표문(表文) : 무평일(武平一)은 당나라 병주(并州) 문수(文水) 사람이고 평일(平一)은 그의 자(字)로 이름은 견(甄)인데 세상에 자로 알려졌다. 《춘추(春秋)》에 정통했고, 문사(文辭)에 능했다. 채화(綵花)란 비단 형질로 만든 조화(造花)로, 채승(綵勝)·화승(花勝)이라고도 한다. 당 중종(唐中宗) 때 정월 8일 입춘일(立春日)에 대내(大內)에서 채화를 내어 근신(近臣)들에게 내리면서 응제(應製)하게 하였는데 무평일이 지은 응제시에 “방울 수레 푸른 깃발이 대궐에서 내려오니, 동교의 상원에 찾아온 봄을 바라보네. 노란 피꼬리는 숲속에서 지저귄 줄 모르는데, 붉은 꽃망울은 대궐에서 먼저 피었구나. 화려한 누각에 부는 동북풍은 막 버들잎을 틈냈고, 맑은 못의 굽어도는 물은 반쯤 이끼를 머금었네. 흔쾌히 임금님 시문 만나 순임금 노래를 빛내고, 다시 좋은 술잔 재촉하는데 석양 재촉함이 안타까워라. [鑾輅青旂下帝臺，東郊上苑望春來。黃鶯未解林間囀，紅藥先從殿裏開。畫閣條風初變柳，銀塘曲水半含苔。欣逢睿藻光韶律，更促霞觴畏景催。]”라고 하자, 이날 중종이 직접 비답을 내려 “평일은 나이가 비록 제일 적지만 문장은 매우 경신(警新)하니 붉은 꽃망울이 먼저 열림을 기뻐하고 노란 피꼬리가 지저귀지 않음을 의아해한다. [悅紅藥之先開，訝黃鶯之未囀。]…지금 다시 꽃 한 가지를 더 하사하여 그 훌륭함을 표창한다. 앞서 하사한 학사화(學士花)는 아울러 머리에 뒤에 내린 꽃을 꽃게 하라.”라고 하였다. 그러자 평일은 머리 좌우에 교대로 꽃을 꽂고 이어 춤을 추고 배사(拜謝)하였다. 이때 최일용(崔日用)이 술이 취한 틈을 타서 평일이 하사받은 꽃을 빼앗으려 하자 상이 수렴 아래서 이를 보고 평일에게 이르기를, “일용이 어찌하여 경의 꽃을 빼앗으려 하는가?”라고 하니 평일이 무릎 꿇고 아뢰기를, “만권서를

명협(冥莢)은 일곱 잎을 내니 북두성(北斗星)이 자루를 움직임에 인방(寅方)으로 돌아왔고<sup>21</sup> 채화(綵花)는 두 가지를 꽃으니 머리가 땅에 닿음에 놀라 떨어졌습니다. 신이 어찌 지족(止足)의 교훈<sup>22</sup>에 어둡겠습니까, 채화 역시 머리에 꽃혀 있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재주는 박하여 별레나 새길 정도로 자질구레한데, 분수는 넘쳐 노둔한 말에 비단옷을 입힌 격입니다. 풍광을 대하는 구절이나 읊을 뿐이니 어찌 폐하의 국사(國事)를 돕겠습니까. 흥얼대고 시끄러운 소리나 토해낼 뿐이니 대아(大雅)<sup>23</sup>를 보좌할 정도는 못됩니다. 외람되게 한

- 
- 읽는 것은 일용을 따랐지만 입안 가득 허장성세이고, 꽃 한 가지 받는 것은 평일을 배웠지만 종신토록 받지 못했습니다. [讀書萬卷從日用, 滿口虛張, 賜花一枝學平一, 終身不獲.]”라고 하니 상 및 시신(侍臣)들이 크게 웃었다. 이어 다시 술 한 잔을 하사하니 당시 사람들이 탄미하였다. 이 글은 이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지은 것이다. 《唐詩紀事 卷11 武平一》
- 21 명협(冥莢)은…돌아왔고 : 명협은 요(堯) 임금 때 뜰에 난 서초(瑞草)로, 매월 초하루부터 15일까지는 매일 한 잎씩 나오고, 16일부터 그믐날까지는 매일 한 잎씩 떨어졌으므로, 이것을 인하여 달력을 만들었다고 하는바, 여기서 일곱 잎을 냈다는 것은 7일을 의미한다. 《竹書紀年 卷上 帝堯陶唐氏》 북두 자루가 인방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옛날 삼대(三代) 때 하(夏)나라는 초혼(初昏)에 북두칠성의 자루가 인방(寅方)을 가리키는 달인 건인월(建寅月)을 세수(歲首) 즉 정월로 삼았는바, 지금의 음력 1월을 이른다. 참고로, 조찬한은 인일(人日)에 무평일이 채화를 받은 것으로 글을 지은 데 반해 《당시기사(唐詩紀事)》에서는 무평일이 정월 8일 입춘일에 채화를 받았다고 하였다.
- 22 지족(止足)의 교훈 : 《노자》 제44장에 “만족할 줄 알면 치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하지 않다. [知足不辱, 知止不殆.]”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23 대아(大雅) : 본래《시경》의 육의(六義) 가운데 하나로 시가(詩歌) 가운데

두 신하의 잘못된 추천을 입어 과분하게도 십팔학사(十八學士)<sup>24</sup>의 화려한 자리에 끼었습니다. 자취는 추양(鄒陽)과 매승(枚乘)에 가까운지라 비록 금마문(金馬門)에서 대조(待詔)하였지만<sup>25</sup> 재주는 유정(劉楨)과 응창(應瑒)이 아닌지라 토원(兔爰)의 문장만큼 공교롭기 어렵습니다.<sup>26</sup> 홀연 채승(綵勝) 꺾는 좋은 시절을 만나 칙서로 한림(翰林)에서 아름다운 문장을 거두었습니다. 조정에서 군신간에 도유(都兪)<sup>27</sup>하면

데 정성(正聲)을 의미하는데, 전하여 덕이 높고 재주가 큰 사람의 미한다.

- 24 십팔학사(十八學士) : 당 태종(唐太宗)이 일찍이 인재들을 망라하여 문학관(文學館)을 설치하고 두여회(杜如晦), 방현령(房玄齡) 등 18인의 문관(文官)을 학사(學士)로 임명하고서 한가한 때면 이들에게 정사(政事)를 자문하기도 하고 함께 전적(典籍)을 토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또 염입본(閻立本)에게 명하여 화상(畫像)을 그리게 하고 저량(褚亮)에게 찬(贊)을 짓게 해서 이를 관 안에도 걸고는 이들을 ‘십팔학사(十八學士)’라고 불렀는데, 당시 사람들이 몹시 흠모하여 “영주에 올랐다.[登瀛洲]”라고 하였다. 《新唐書 卷102 褚亮列傳》
- 25 자취는…대조(待詔)하였지만 : 추양(鄒陽)과 매승(枚乘)은 한나라 때 양 효왕(梁孝王)의 상객(上客)들로, 보통 시종하는 문신(文臣)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금마문(金馬門)은 한나라 미양궁(未央宮)의 대문으로, 본디 학사(學士)들이 대조(待詔)하던 곳이었다.
- 26 재주는…어렵습니다 : 유정과 왕찬은 후한 말기 헌제(獻帝)의 건안(建安) 연간에 공융(孔融), 완우(阮瑀), 서간(徐幹), 진림(陳琳), 왕찬(王粲) 등과 함께 칠자(七子)로 합칭된 문장가들이다. 토원(兔爰)은 한(漢)나라 양 효왕(梁孝王) 유무(劉武)의 원명(園名)으로, 양원(梁園) 또는 양원(梁苑)이라고도 한다. 양 효왕이 항상 토원에서 노닐면서 추양, 매승, 사마상여(司馬相如) 등 당대 제일의 문장가들을 초청하여 주연을 베풀고 시부(詩賦)를 짓게 하였다. 《史記 卷58 梁孝王世家》
- 27 도유(都兪) : 도유우불(都兪吁呬)의 준말로, 임금과 신하가 함께 정사에 대해 문답하며 토론한다는 뜻이다. 도(都)는 탄미하는 말[歎美之辭]이고, 유(兪)는 응낙하는 말[應許之辭]이고, 우(吁)는 그렇지 않음을 탄식하는 말[歎其不然之辭]이고, 불(呬)은 매우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말[甚不然之辭]이다. 《書經集註 堯典 蔡沈註》



서 삼가 갱재가(賡哉歌)<sup>28</sup> 부르던 일을 본받았는데, 존엄한 용안을 앞에 두고서 경솔하게 대답함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뜻을 말하였을[言志]<sup>29</sup> 뿐이니 어찌 시를 지었다고 하겠습니까. 겨우 한 글자도 어렵게 지을 뿐이라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구절<sup>30</sup>이 못되어 부끄럽습니다. 다만 반열(班列)에 낄 수 있는 문채가 부족하니 참으로 인주(人主)를 감동시킬 수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뱀을 잡으려다 머리를 잃음에 가까우니 누가 하사(下土)의 용맹을 일컫겠습니까. 뱀을 그리면서 사족(蛇足)을 다는 데 힘을 쓰니 한갓 몹시 졸렬한 솜씨를 공교롭게 여길 뿐입니다. 바야흐로 법연(法筵)에서 벌주(罰籌)<sup>31</sup>를 기다리고 있으니 예원(藝苑 문단(文壇))에서 방출됨 직합니다. 열 줄의 포상하는 비답을 내리시고 다시 한 송이 기화(奇花)까지 내리실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 
- 28 갱재가(賡哉歌) : 고요(阜陶)가 불렀다는 노래이다. 《서경》〈익직(益稷)〉에 이르기를, “고요가 손을 올리고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고… 이어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기를, ‘임금이 밝으시면 대신들이 훌륭하여 못 일들이 편안하리라.[元首明哉, 股肱良哉, 庶事賡哉.]’ 하였다.”라고 하였다.
- 29 뜻을 말하였을 : 본래 《서경》〈순전〉에 “시(詩)는 뜻을 말한 것이요 가(歌)는 말을 길게 읊는 것이요 성(聲)은 길게 읊음에 의지한 것이요 율(律)은 읊는 소리를 조화시키는 것이다.[詩言志, 歌永言, 聲依永, 律和聲.]”라고 한 데서 온 말인데, 여기서는 운율을 알지 못해 뜻만 말하였다고 겸사(謙辭)로 한 말이다.
- 30 사람들을…구절 : 두보(杜甫)의 시 〈강상치수여해세요단술(江上值水如海勢聊短述)〉에 “나의 성벽이 좋은 시구를 매우 좋아하여, 시어가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 죽어도 그만두지 않는다오.[爲人性癖耽佳句, 語不驚人死不休.]”라고 하였다. 《杜少陵詩集 卷10》
- 31 벌주(罰籌) : 벌주(罰酒) 잔을 세는 산가지를 말한 것으로, 즉 활쏘기에서 이긴 자에게는 상을 주고, 진 자에게는 벌주를 마시게 했던 데서 온 말이다.

푸른 계수나무 9월의 향기로운 꽃도 월궁(月宮)에 내리는 이슬에 살포시 젖고, 자줏빛 복숭아나무 천 년마다 피는 꽃도 해 뜨는 골짜기의 떠가는 붉은 구름에 희미하게 젖습니다. 수천 수만 가호(家戶)들은 쪽방 하나 장식할 꽃을 사기 어렵거니와, 삼청(三清) 십계(十界)<sup>32</sup>에서 어찌 한 사람의 살쩍에 꽃은 꽃을 접하거나 하겠습니까. 천상과 인간 세상에는 이런 꽃은 전혀 없어 겨우 있을 뿐이고 신선과 도사는 아마 꿈에서나 보았을 뿐 진짜가 아닐 것입니다. 하늘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사람들은 결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몇몇 사람들보다 먼저 두각을 나타내었다고 이에 채화한 가지를 머리에 더 꽃게 하신단 말입니까.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보며 더욱 경악하고, 손으로 찹추고 발로 구르며 더욱 두렵습니다. 자라가 무거운 삼산(三山)을 이고 있다지만<sup>33</sup> 신의 머리에 비하면 오히려 가볍고, 부처가 백보(百寶)의 연화(蓮花)를 머리에 썼다지만 보는 이만 놀라게 할 뿐 무슨 귀하게 여길 게 있겠습니까. 다른 꽃은 모두 절반의 춘색(春色)이거니와 이 꽃은 완전한 천향(天香)을 홀로 차지했습니다. 따스한 햇볕과 같고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며 해가 나올 때 나오고 비가 내릴 때 내리는 은택

32 삼청(三清) 십계(十界) : 삼청은 도교에서 말하는 천상 세계로, 삼동(三洞)의 교주(教主)가 사는 최고의仙境(仙境)인 옥청경(玉清境), 상청경(上清境), 태청경(太清境)을 말한다. 십계는 불계(佛界), 보살계(菩薩界), 연각계(緣覺界), 성문계(聲聞界), 천상계(天上界), 인간계(人間界), 수라계(修羅界), 아귀계(餓鬼界), 축생계(畜生界), 지옥계(地獄界)를 말한다.

33 자라가...있다지만 : 발해 동쪽으로 억천만 리를 가면 큰 바다가 있고, 그 바다 안에는 대여(岱輿), 원교(員嶠), 방호(方壺), 영주(瀛洲), 봉래(蓬萊) 등 다섯 개의 산이 있는데 늘 조수를 따라 이리저리 유동하므로, 상제(上帝)가 우강(禹疆)을 시켜 큰 자라 15마리를 동원, 다섯 산을 이고 있도록 하였다 한다. 《列子 湯問》

<sup>34</sup>을 삼가 만났습니다. 성인(聖人)이 대덕(大德)을 세우심에 모두 넓고 넓은 하늘을 본받고, 초목(草木)이 양춘(陽春)을 만남에 활기 발랄한 지상의 모습 아님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신의 두 살쩍에도 포상하고 칭찬해 주시는 두 개의 꽃을 피우게까지 하셨으니 감히 가지대로 활짝 피우고 꽃을 이고 세월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인승(人勝)을 꽃는 날<sup>35</sup>을 만나 비록 남보다 나은 시(詩)라 하기 부끄럽지만 황하가 맑아지는 때<sup>36</sup>를 만났기에 맑은 황하를 송축하는 시를 지어 올립니다.

- 
- 34 따스한…은택 : 성군(聖君)의 세상을 잘 다스리는 덕치(德治)를 칭송하는 말로, 《사기(史記)》 권1 <오제본기(五帝本紀)에 요 임금의 덕을 칭찬하면서, “제요란 분은…가까이 나아가 보면 따스한 햇볕과 같았고, 멀리서 바라보면 촉촉이 비를 내려 주는 구름 같았다.[帝堯者…就之如日, 望之如雲.]”라고 하고 또 한유(韓愈)의 시에 “황제가 즉위 하자, 거역하는 물건이 없어서, 해가 나와야 할 때에는 해가 나오고, 비가 내려야 할 때에는 비가 내렸다.[皇帝卽阼, 物無違拒, 曰暘而暘, 曰雨而雨.]”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韓昌黎集 卷1 元和聖德詩》
- 35 인승(人勝)을 꽃는 날 : 인승은 음력 정월 7일 인일(人日)에 봄이 온 것을 경축하는 의미로 머리에 꽃았던 채색 조화(造花)로, 채승(彩勝)이라고도 하는데 옛날 풍속에 대궐에서 여러 조관(朝官)들에게 이것을 하사했다고 한다. 《荊楚歲時記》
- 36 황하가 맑아지는 때 : 성인이 나와 세상이 태평한 때로, 삼국 시대 위(魏)나라 이강(李康)의 <운명론(運命論)에 이르기를, “황하가 맑아지면 성인이 나온다.[黃河清而聖人生.]”라고 하였는데, 그 주석에 “황하는 천 년 만에 한 번 맑아지는데, 황하가 맑아지면 성인이 그때에 나온다.[黃河千年一清, 清則聖人生於時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六臣註文選 卷53》

## 진나라 요복이 주천 태수에 배수된 데 사은한 내용으로 상징하여 지은 표문<sup>37</sup>

擬晉姚馥謝拜酒泉太守表

- 37 진(晉)나라…표문(表文) : 요복(姚馥)은 강인(羌人)으로, 자(字)가 세분(世芬)이다. 마구간을 맡아 말을 보살폈는데[充廐圉] 독서(讀書)를 좋아하고 술을 즐겼다. 매번 취하여 달이 지나도록 깨지 않았는데 취할 때에는 제왕(帝王)의 흥망(興亡)에 관한 일을 말하기 좋아하였다. 희학을 잘하여 골계(滑稽)가 무궁무진하였는데 일찍이 탄식하기를, “구하(九河)의 물은 누룩을 담그기에 부족하고 팔수(八藪)의 나무는 썬서 증류시키기에 부족하고 칠택(七澤)의 사슴은 주방의 도마를 채우기에 부족하다. 무릇 사람이 천지의 정령(精靈)을 품부받아 술을 마실 줄 모르는 자는 움직이는 고기가 기(氣)를 머금고 있을 뿐이다. 하필 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이어야 심식(心識)이 없다고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탁주를 마시고 술지geme 씹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순주에 목마르다[渴於醇酒]고 항상 말하고 다니니 사람들이 늘 그를 희롱하여 갈강(渴羌)이라고 불렀다. 무제(武帝)가 즉위한 뒤 그의 성품을 기특하게 여겨 그를 조가(朝歌)의 읍재로 발탁하자, 그가 사양하면서 말하기를, “저강(氐羌)은 이역(異域)이라 풍화(風化)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중화(中華)에 노닐 수 있게 된 것이 이미 크나큰 행운입니다. 조가의 현장(縣長)을 사양하고 말을 기르는 일을 맡아[充馬園之役] 이따금 좋은 술을 하사받아 여생을 즐기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였다. 무제가 말하기를, “조가는 주(紂)의 옛 도읍이니 그 땅에 주지(酒池)가 있다. 그래서 노강(老羌)인 그대로 하여금 다시 목마르다고 외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자, 요복이 계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대답하기를, “말 기르는 이인 노강(老羌)이 황화(皇化)에 점점 물들었고 너른 하늘 아래 오랑캐들이 모두 왕의 신하인데 지금 만약 주지(酒池)의 즐거움을 기뻐하여 조가 땅을 제수받기를 좋아한다면 다시 은주(殷紂)의 짝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황제가 크게 기뻐하며 곧장 주천 태수(酒泉太守)로 옮겨 주니 그곳에는 맑은 샘이 있어 맛이 술 같았으므로 요복이 취한 채로 관직을 배수하고 마침내 선정을 펴자 백성들이 그를 위해 생사(生祠)를 세웠다고 한다. 이 글은 이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지은 것이다. 《拾遺記 卷9》

땅이 만약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군(郡)을 어찌 주천(酒泉)이라 칭하겠습니까.<sup>38</sup> 하늘이 참마음을 갖도록 인도하니 분수로 볼 때 실로 태수를 맡기 부끄럽습니다. 은택이 뿔속까지 훈훈하고 봄 날씨처럼 살에 깊이 배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은 갈강(渴羌)이라 불려 마땅하고 취해 죽었다[醉死]고 지명(誌銘)을 남겨야 맞습니다. 술주정을 하여 가까이하기 어려운지라 비록 조정의 명을 받들었지만, 취하지 않고는 돌아감이 없는지라 바야흐로 마구에서 말 기르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특별히 제수하는 후한 은혜를 지극히 비루한 신에게 내리신단 말입니까. 다만 이 군이 이름을 얻은 것은 오직 샘으로 귀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샘물이 팔팔 흘러나오는데 물이 무엇을 여기에서 취한 것입니까. 마시면 알큰해지니 저는 스스로 이를 즐기겠습니다. 신이 무슨 관작(官爵)으로 권장할 공적이 있다고 명성을 들어왔던 고을을 끝내 차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삼가 사랑하여 살기를 바라<sup>39</sup> 술로 취하게 하는 은혜를 만났으니, 감히 360일 동안 술에 푹 빠져 길이 성인(聖人)을 축수(祝壽)하고 29일 내내 맑은 정신을 견디어 정사(政事)를 폐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38 땅이...칭하겠습니까 : 이백의 <월하독작(月下獨酌)> 시에 “하늘이 만일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하늘에는 주성이 있지 않을 터이고, 땅이 만일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땅에는 주천이 없으리라.[天若不愛酒, 酒星不在天. 地若不愛酒, 地應無酒泉.]”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李太白集註 卷23》

39 사랑하여 살기를 바라 : 공자가 “사랑할 때에는 살기를 바라고, 미워할 때에는 죽기를 바란다. 이미 살기를 바라고서 또 죽기를 바라는 것이 이것이 의혹이다.[愛之欲其生, 惡之欲其死, 既欲其生, 又欲其死, 是惑也]”라고 하였다. 《論語 顏淵》

# 송나라 범질이 동평장사에 배수된 데 사은한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은 표문<sup>40</sup>

擬宋范質謝拜同平章事表

국가를 잃어버렸을 때 본래 생존을 도모하려 하지 않았는데 죄과를 용서하신 데다 또 벼슬과 상을 영화롭게 이어 내리셨으니 임금을 잃었다가 임금을 얻은 것이요, 아비를 잃었다가 아비를 얻은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은 사람됨이 보잘것없어 임금을 섬김이 충성스럽지 못했습니다. 분항하며 제왕께 축원하는 때<sup>41</sup> 비록

40 송나라…표문(表文) : 범질(范質, 911~964)은 자가 문소(文素)로, 대명(大名) 종성(宗城) 사람이다. 후당(後唐) 장흥(長興) 4년(933)에 진사(進士)에 급제하여 충무군 절도추관(忠武軍節度推官)으로 벼슬을 시작하였다. 후진(後晉) 때에는 재상 상유한(桑維翰)이 그의 문장이 뛰어난을 알아보고 천거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천복(天福) 연간에 한림학사(翰林學士)가 되었고 후한(後漢) 초년에는 중서사인(中書舍人)이 되었다. 이후 후주(後周) 태조 곽위(郭威)가 그의 문장을 보고 재상의 그릇이라고 하여 추밀부사(樞密副使)로 삼았다. 광순(廣順) 초년에 중서시랑(中書侍郎)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고 얼마 있다가 좌복야(左僕射)가 되었다. 세종(世宗) 시영(柴榮)이 임종할 때에는 황제의 고명(顧命)을 받고 공제(恭帝)가 즉위하자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에 임명되고 소국공(蕭國公)에 봉해졌다. 이처럼 그는 오대(五代) 시대에 여러 임금을 섬겼고 마지막에는 세종의 고명까지 받았으나 송 태조가 선위(禪位)를 받을 때 제지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의 간언으로 세종의 두 번째 황후 부후(符后)와 공제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송 태조 때 시중(侍中)이 되고 노국공(魯國)에 봉해졌는데 조보(趙普)와 함께 북송 초년의 명재상으로 일컬어진다. 이 글은 송 태조가 그를 시중에 제수하였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지은 것이다. 《宋史 卷249 范質列傳》

41 분항하며…때 : 후주(後周) 현덕(顯德) 6년(959)에 세종이 붕어(崩御)

천심(天心)이 의촉(依囑)하는 이가 있음을 알았지만 진교(陳橋)에서 황포(黃袍)로 바뀌 입던 날<sup>42</sup> 인심(人心)이 이미 귀의(歸依)한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러한 재상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오직 서둘러 죽는 일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신이 참으로 격발되는 마음은 있었지만 창졸간이라 말을 재량할 줄 몰라 바야흐로 도끼로 참수(斬首)하는 엄한 주벌(誅罰)을 기다려 천지의 호된 노여움에 답하려고 하였습니다. 한(漢)을 건립하던 때 정공(丁公)을 참수하듯 하는 것<sup>43</sup>이 실로 마음에 달게 받을 일이었는데, 이오(伊尹)를 풀어주고 제나라 재상을 삼은 것<sup>44</sup>처럼 될

하여 국상을 지낼 때를 말한다.

- 42 진교(陳橋)에서…날 : 현덕 7년(960)에 거란(契丹)이 침입해 오자, 후일 송 태조가 되는 조광윤(趙匡胤)이 군사를 거느리고 막으러 가다가 진교역에 주둔하고 취하여 누워 있었다. 그런데 이른 새벽에 제장(諸將)들이 갑옷을 입고 무기를 잡고서 곧바로 침문(寢門)을 열며 말하기를, “제장들에게 주군(主君)이 없어 태위(太尉)를 천자로 삼고자 합니다.”라고 하고는 태조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황포를 몸에 걸치게 하였다고 한다. 이후 조광윤은 군사를 돌려 수도인 개봉(開封)으로 들어와 공제로부터 선위를 받고 송(宋)이라고 국호를 고쳤다. 《宋史 卷1 太祖本紀》
- 43 한(漢)을…것 : 정공은 계포(季布)의 아우로, 형처럼 초나라 항우의 부하 장수가 되어 팽성(彭城) 서쪽에서 유방을 궁지에 몰아넣어 거의 죽일 뻔하였으나, 유방이 둘 다 좋은 사람끼리 너무 심하게 싸울 필요 없다는 권유에 군대를 돌려 돌아갔다. 항우가 죽고 유방이 한 나라를 건국하여 정공이 한 고조를 찾아가니, 고조는 항우가 천하를 잃게 만든 불충(不忠)한 죄인으로 지목하여 정공의 목을 베어 후세의 신하들이 정공을 본받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였다. 《史記 卷100 季布列傳》
- 44 이오(伊尹)를…것 : 이오는 제(齊)나라 재상을 지낸 관중(管仲)의 자이다. 제나라 양공(襄公)이 무도(無道)하자 관중의 친구 포숙아(鮑叔牙)는 공자(公子) 소백(小白)을 받들고 거(莒)나라로 망명하였고, 관중은 공자 규(糾)를 받들고 노(魯)나라로 망명하였다. 망명 중에 양공

줄은 일찍이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찌 이렇게 임명해 주시는 남다른 은총이 처벌해야 마땅한 죄인에게 특별히 내릴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극히 감격하여 가슴을 치며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눈물만 닦고 있었는데 무슨 용서할 만한 일이 있기에 이렇게 파격적인 은혜를 받는단 말입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홀로 살아남았으니 그 임금에게 의롭지 못했음을 증험(證驗)할 수 있고 신하로서 두 임금을 섬겼으니 훗날에 충성하려고 해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만일 상형(象刑)<sup>45</sup>을 내리기를 지체한다면<sup>46</sup> 어찌 신하들의 경계가 되겠습니까. 더구나 백마(白馬) 타고 한 번 조회 간 일을 놓고도 오히려 은나라의 삼인(三仁)에 대해 비판함이 있는 터인데<sup>47</sup> 저

이 죽자 관중은 노나라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규를 제나라로 들여보내 임금이 되게 하려고 하였다. 이때 규가 관중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거(莒)의 길을 막고 소백을 죽이게 하였는데, 관중이 쏜 화살이 소백의 대구(帶鉤)를 맞추었으나, 죽이지는 못하였다. 그 뒤에 소백이 먼저 제나라로 돌아와서 임금이 되니 바로 환공(桓公)이다. 환공은 노나라로 하여금 공자 규를 죽이고 관중을 제나라로 돌려보내게 하였다. 그러자 관중은 함거(檻車)에 갇히기를 자청하여 제나라로 왔는데, 포숙아가 환공에게 말하여 관중을 정승으로 삼게 하였다. 이에 관중은 환공을 섬겨 환공을 패자(霸者)로 만들어 천하를 바로잡게 하였다. 《史記 卷62 管晏列傳》

- 45 상형(象刑) : 고대의 형법(刑法)의 일종으로, 그 복색(服色)을 다르게 하여 치욕(恥辱)을 보여 주는 것인데, 여기서는 형벌을 말한다. 순(舜)임금이 우(禹)에게 이르기를 “온 천하가 나의 덕교를 실행하게 된 것은 바로 그대의 공이 이루어진 때문이니, 고요가 바야흐로 그대의 공을 받들어서 상형을 밝게 베풀고 있다.[迪朕德, 時乃功惟敘, 臯陶方祗厥敘, 方施象刑, 惟明.]”라고 하였다. 《書經 益稷》
- 46 지체한다면 : 원문은 ‘糝’인데 문맥을 고려하여 ‘稽’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 47 백마(白馬)…터인데 : 주(周)나라가 상(商)나라를 멸망시킨 다음, 상나라 왕손 미자(微子)를 송(宋)에 봉하여 그의 선왕(先王)을 제사 지내도록 하였는데, 뒤에 미자가 백마를 타고 주나라에 조회한 일이



황비(黃扉)에 다섯 번이나 오른 일을 두고 누군들 풍도(馮道)를 수  
치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sup>48</sup> 여러 번 한 고조(漢高祖)를 곤경에  
빠뜨리고서 상을 받은 일<sup>49</sup>은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거니와 한 번

있다. 《시경(詩經)》〈주송(周頌) 유객(有客)〉에 “객이여 객이여, 흰 말  
을 타고 왔네.[有客有客, 亦白其馬.]”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한 객  
은 곧 미자를 가리킨 것으로, 주나라에서는 미자를 빈객의 예로 대  
우하고 감히 신하로 삼지 않았다고 한다. 은나라의 삼인(三仁)은 은  
나라 주왕(紂王)의 서형(庶兄) 미자(微子)와 숙부 기자(箕子) 및 비간  
(比干)이다. 미자는 주왕이 무도한 것을 보고 떠나갔고, 기자와 비간  
은 간하는 말을 하다가 비간은 죽임을 당하고 기자는 종이 되었던  
데, 공자가 논하기를 “은나라에는 삼인이 있었다.[殷有三仁焉.]”라고  
하였다. 《論語 微子》

- 48 황비(黃扉)에…않겠습니까 : 황비는 황각(黃閣)과 같은 말로, 한(漢)  
나라 때 승상(丞相)이 집무하는 청사의 문을 황색으로 칠했던 데에서  
유래하여 재상의 직위를 뜻하게 되었다. 풍도(馮道, 882~954)는 자  
(字)가 가도(可道)로, 중국 오대(五代) 시대에 20여 년 동안 후당(後  
唐), 후진(後晉), 거란(契丹), 후한(後漢), 후주(後周) 등 오조(五朝)의  
재상으로 여섯 황제를 섬기며 처세에 능했던 인물이다. 장락로(長樂  
老)라고 자호(自號)하고서 스스로 매우 영화롭게 여겼는데, 구양수(  
歐陽脩)는 《신오대사(新五代史)》를 편찬할 때 풍도의 전기(傳記)를 잡  
전(雜傳)에 넣고 염치없는 자라고 혹평하는 등 후대에 불충(不忠)의  
대명사가 되었다. 《新五代史 卷54 馮道傳》
- 49 여러…일 : 계포(季布)가 유방(劉邦)을 여러 번 곤경에 빠뜨렸으면서  
도 오히려 벼슬을 받은 고사를 말한다. 계포는 초(楚)나라의 임협(任俠)  
으로 유명하여 항우(項羽)의 부하 장수가 되었는데 항우가 군대를 이  
끌고 여러 번 한왕(漢王) 유방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였다. [使將兵數窘  
漢王] 유방이 항우를 멸하고 천하를 평정하자, 자신을 여러번 곤경에  
빠뜨린 계포를 원망하여 그를 잡기 위해 천금(千金)을 현상금으로 내  
걸고는, “만약 집에 숨기는 자가 있으면 삼족(三族)을 죄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계포를 숨겨 두고 있는 주씨(朱氏)의 말에 의해  
등공(滕公)이 한 고조에게 계포를 사면해 주라고 말하니, 고조는 오  
히려 그의 죄를 사면하고 낭중(郎中)으로 삼았다.

옷자락을 베고도 등용될 줄<sup>50</sup>을 또한 어찌 죽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대덕(大德)으로 천명을 받고 지극히 공정하여 사심 없는 때를 만났으니, 비록 만물 중의 미물(微物)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 마음을 얻지 못할까 두려운데 어찌 광대한 천하를 가지고 그 원수에게 사사로이 은혜를 내리십니까. 마침내 참수되어야 할 늙은 포로로 하여금 고굉(股肱)<sup>51</sup> 같은 재상이 되게 하셨으니, 옛 원한을 개의하지 않고 오직 새롭게 하는 교화에 참여하는 일을 감히 하지 않겠습니까.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여 비록 임금을 잊어버린 노예가 되었으나 마음을 고치고 얼굴을 바꾸어 성군(聖君)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50 한 번…줄 : 진 헌공(晉獻公)이 나중에 문공(文公)이 된 중이(重耳)를 죽이려고 내시로 있던 피(披)를 보내자, 중이가 외국으로 도망쳤는데, 그때 중이가 담을 넘어 도망가므로, 피가 중이의 옷자락을 잡아 찢었다.[披斬其袪] 그 뒤에 중이가 다시 진나라로 들어올 때 중이가 임금이 되어 복수할 것을 두려워한 여생(呂甥)과 극예(郤芮)가 궁(公宮)을 불태우려고 하였다. 이에 피가 중이에게 가 접견을 요청하니, 중이는 “내가 도망칠 때 너에게 찢긴 옷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접견을 거부하자, 피가 “신하가 임금의 명을 봉행함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옛날의 법도입니다. 임금께서 만약 옛날의 원한을 잊지 않는다면 떠나가는 자가 아주 많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중이가 접견을 허락하였다. 이로 인해 이후 중이는 큰 혼란 없이 진나라로 돌아와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春秋左氏傳 僖公 5年, 24年

51 고굉(股肱) : 팔다리로서 신하를 가리킨다. 《서경(書經)》〈우서(虞書)〉익직(益稷)에 이르기를, “황제가 말하기를, ‘신하는 고굉과 이목이 된다.[帝曰, 臣作股肱耳目.]’고 하였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진나라 조정의 백관들이 육국을 평정하고 천하가 안정된 일을 하례하는 내용으로 상정하여 지은 표문

擬秦朝群臣賀平六國定天下表

오패(五霸)<sup>52</sup>를 뛰어넘고 삼왕(三王)<sup>53</sup>을 겸하니 공덕(功德)이 고금에 우뚝하고 육국(六國)<sup>54</sup>이 끝장나고 사해(四海)가 통일되니 거서(車書)가 통합됨<sup>55</sup>을 다행히 봅니다. 백성들은 모두 기뻐하고 온 천하가 다 같이 경하드립니다. 삼가 생각건대, 옛날 제왕들의 창업(創業)은 실로 조종(祖宗)이 오래 쌓아 기반을 마련한 데서 말미암았습니다. 백어(白魚)가 배안으로 뛰어들어 오니<sup>56</sup> 하늘은 농사

- 
- 52 오패(五霸) : 춘추 시대 제후 중에 다섯 패자로 제(齊)나라 환공(桓公), 진(晉)나라 문공(文公), 송(宋)나라 양공(襄公), 진(秦)나라 목공(穆公), 초(楚)나라 장왕(莊王)을 말한다.
- 53 삼왕(三王) : 상고(上古) 시대의 성군(聖君)으로, 하(夏)나라의 우왕(禹王), 은(殷)나라의 탕왕(湯王), 주(周)나라의 문왕(文王)·무왕(武王)을 말한다.
- 54 육국(六國) : 전국 시대 강대한 7개 제후국 중에서 진(秦)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6개국으로, 초(楚)나라, 연(燕)나라, 제(齊)나라, 한(韓)나라, 위(魏)나라, 조(趙)나라를 가리킨다. 《戰國策 趙策2》
- 55 거서(車書)가 통합됨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8장에, “지금 천하에는 수레는 바퀴의 궤도가 같으며, 글은 문자가 같으며, 행동은 차서가 같다.[今天下, 車同軌, 書同文, 行同倫.]”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천하가 한 나라로 통일되어 문물 제도가 일치하게 된 것을 말한다.
- 56 백어(白魚)가…오니 : 백어(白魚)는 흰 물고기를 말한 것으로, 주 문왕(周文王)이 돌아간 뒤, 강 태공(姜太公)이 무왕(武王)을 도와서 주(紂)를 정벌할 때, 800명의 제후가 맹진(孟津)에 이르렀을 적에 흰 물고기들이 무왕의 배 안으로 뛰어들어 오기에 무왕이 그것을 취하여 제(祭)를 지냈는데, 흰빛은 은(殷)나라의 정색(正色)이므로 즉 은나라가 망하고 주(周)나라가 일어날 조짐이었다는 데서 온 말이다. 《史

를 가르친 큰 공적(功績)<sup>57</sup>을 허여하였고 현조(玄鳥)가 알을 땅에 떨어뜨려 주니<sup>58</sup> 사람은 짐승에게까지 미치는 지극한 인정(仁政)<sup>59</sup>에 귀의하였습니다. 더구나 보배로운 계보(系譜)는 성군(聖君)의 가문에서 나와 성씨가 요순(堯舜)의 시대에 드러났고<sup>60</sup> 특별한 작

記 卷4 周本紀》

- 57 농사를…공적(功績) : 직(稷)은 순(舜)임금의 신하로 백성들에게 농사를 가르쳐 오곡을 심고 가꾸게 하였는데 뒤에 주(周)나라를 세운 무왕(武王)의 선조(先祖)가 된다. 그리고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훈계하기를 “아, 군자는 안일하지 않음을 처소로 삼는 것입니다. 먼저 농사일의 어려움을 알고 이에 안일하면 백성들의 의지하는 바를 알 것입니다.[嗚呼! 君子所其無逸. 先知稼穡之艱難, 乃逸則知小人之依.]”라고 하였다. 《書經 無逸》
- 58 현조(玄鳥)가…주니 : 《시경》〈상송(商頌) 현조(玄鳥)〉 “하늘이 현조에게 명하사 내려와 상나라를 탄생시키게 하시어 은나라 땅의 크고 큰 곳에 거주하게 하시거늘, 옛날 상제께서 무덕(武德)이 있는 탕에게 명하사 저 사방에 국경을 바로잡게 하셨다.[天命玄鳥, 降而生商, 宅殷土芒芒, 古帝命武湯, 正域彼四方.]” 하였는데, 주자(朱子)의 주에 “고신씨(高辛氏)의 비(妃)이자 유융씨(有娥氏)의 딸인 간적(簡狄)이 교매(郊禱)에 기도할 적에 현조가 알을 떨어뜨려 주었다. 간적이 이를 삼키고 설(契)을 낳았는데 후세에 마침내 유상씨(有商氏)가 되어 천하를 소유했다.”라고 하였다. 《詩經集傳 卷8》
- 59 짐승에게까지…인정(仁政) : 《사기(史記)》〈은본기(殷本紀)〉에, “탕임금이 교외로 나갔다가 사방에 그물을 치고서는 ‘천하의 모든 것이 내 그물로 들어오게 하소서.’라며 축원하는 사람을 보았다. 탕임금은 ‘어허! 그러면 씨를 말리는 것이지.’라고 하면서 세 면의 그물을 견게 하고서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 것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것은 오른쪽으로 가고, 명을 따르고 싶지 않은 것만 내 그물로 들어오게 하소서.’라고 축원하게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제후들이 ‘탕임금의 덕이 지극하구나! 그 덕이 금수(金水)에까지 미치다니! [湯德至矣, 及禽獸.]’라고 감탄하였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60 보배로운…드러났고 : 진(秦)나라의 조상은 전옥(顛頊)으로, 후손 여수(女脩)가 현조(玄鳥)가 떨어뜨린 알을 삼켜 아들 대업(大業)을 낳았고 대업은 여화(女華)를 아내로 맞아 대비(大費)를 낳았다. 대비는

위(爵位)는 주나라 때에 올라 공로가 건(汧)·위(渭) 사이에서 있었 습니다.<sup>61</sup> 견용(犬戎)의 예봉(銳鋒)을 꺾으니 땅이 비로소 천 리에 넓혀졌고<sup>62</sup> 순수(鶉首)의 상서(祥瑞)를 드러내니 하늘이 다시 한 잔 술에 취하였습니다.<sup>63</sup> 이로써 동쪽으로 점점 확장함은 지금에

백예(柏翳) 혹은 백익(伯益)이라고도 하는데 순임금 때 우(禹)를 도와 치수(治水)한 공로로 요성(姚姓)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고 조수(鳥獸)를 잘 길들였는데, 순임금으로부터 영씨(嬴氏) 성을 하사받았다. 《史記 卷5 秦本紀》

61 특별한...있었습니다 : 은나라가 멸망한 뒤에 진나라는 몇 대를 지나 비자(非子)가 견구(犬丘)에 있으면서 말을 잘 길러 견구 사람들이 주 나라 효왕(孝王)에게 아뢰니 효왕은 그를 견수(汧水)와 위수(渭水) 사이에서 말을 주관하여 길러 크게 번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효왕은 그에게 영씨 성을 다시 잇게 하면서 진영(秦嬴)으로 불렀다. 《史記 卷5 秦本紀》

62 견용(犬戎)의...넓혀졌고 : 주 여왕(周厲王)이 무도(無道)하여 제후들이 반란하자, 서용(西戎)이 왕실을 배반하고 견구(犬丘)의 대락(大駱)의 종족을 멸하였다. 선왕(宣王)이 즉위하여 비자의 후손 진중(秦仲)을 대부(大夫)로 삼고 서용을 주벌하게 하였으나 진중은 서용에게 죽었다. 그러자 선왕은 그의 맏아들 장공(莊公) 등에게 다시 서용을 정벌하게 하여 격파하고서 선조 대락의 잃어버린 견구 땅을 주고 서수대부(西垂大夫)로 삼았다. 이후 장공의 아들 양공(襄公) 때 유왕(幽王)의 폭정으로 인해 제후들이 반란하여 서용과 견용(犬戎)이 신후(申侯)와 함께 여산(鬪山) 기슭에서 주나라 유왕을 죽였는데 이 전쟁에서 양공이 전투에 나서 공이 있었고 이후 평왕(平王)이 낙읍(洛邑)으로 도읍을 옮기는 데 도움을 주었으므로 평왕은 그를 제후에 봉하고 용족(戎族)이 장악하였던 기산(岐山) 서쪽의 땅을 주었다. 《史記 卷5 秦本紀》

63 순수(鶉首)의...취하였습니다 : 순수는 12성차(星次) 가운데 하나로 진(秦)나라의 분야(分野)이다. 장형(張衡)의 《서경부(西京賦)》에 “옛 적에 대제가 진 목공을 좋아하여, 목공이 대제를 빌 적에 균천광악을 연주하여 연향을 베풀어 주자, 대제가 취하였다. 이에 금책을 만들어 이 땅을 하사하되 순수의 분야에서 잘랐다.〔昔者, 大帝說秦繆公而觀之, 饗以鈞天廣樂, 帝有醉焉. 乃爲金策, 錫用此土而翦諸鶉首.〕”라

비롯된 것이 아니고 이에 고개 돌려 서쪽을 돌아봄은 그 오래된 일입니다.

공손히 생각건대, 요임금의 보무(步武)와 순임금의 행적, 문왕의 모책(謀策)과 무왕의 공렬(功烈)입니다. 깊은 인(仁)은 하늘을 본받고 두터운 덕(德)은 땅을 본받아 죄인을 정벌하고 백성을 위로하였고 용맹한 장수들이 구름처럼 모이고 지모(智謀) 있는 사내들이 숲처럼 많아 전투하면 승리하고 공격하면 탈취하였습니다. 황금(黃金)과 백벽(白璧)으로 맺은 육계(六鷄 육국(六國))의 연합에 속수무책이라<sup>64</sup> 창록(蒼籙)과 현부(玄符)가 끝내 칠웅(七雄)의 우두머리에게 돌아갔습니다.<sup>65</sup> 합종(合從)의 맹약이 와해되자 막강하였던 삼진(三晉)을 우레처럼 공격하였고<sup>66</sup> 북쪽으로 제(齊)나라와 절교하고 서

---

는 내용이 보인다. 대제는 천제(天帝)로 옥황상제를 이르며, 균천광악은 천제의 궁중 음악이라 한다.

- 64 황금(黃金)과…속수무책이라 : 전국 시대 소진(蘇秦)이 처음에 진(秦)나라에 가서 벼슬하고자 진왕(秦王)에게 열 번이나 글을 올려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하고서 이후 연(燕)나라에서 합종책(合縱策)을 설득하기 시작하여 조(趙)나라의 숙후(肅侯)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자, 숙후는 식거(飾車) 1백 승(乘), 황금(黃金) 1천 일(鎰), 백벽(白璧) 1백 쌍(雙), 금수(錦繡) 1천 순(純)을 가지고 제후들과 맹약하게 하였다. 결국 그는 종약(從約)을 체결하고 나서 육국의 재상이 되어 진(秦)나라에 강력히 대항할 수 있었다. 《史記 卷69 蘇秦列傳》
- 65 창록(蒼籙)과…돌아갔습니다 : 주나라의 국운이 전국 시대 칠웅의 패자(霸者)에게 돌아갔다는 말이다. 창록은 창曆(蒼曆)으로 창신(蒼神)의 부록(符籙)으로, 주(周)나라가 일어날 때의 길상(吉祥)인바 주나라의 국운을 말하고 현부(玄符)는 상서로운 징조를 나타내는 신부(信符)로, 나라를 세울 때의 징조를 뜻한다. 권병(權柄)의 상징을 뜻한다. 칠웅(七雄)은 전국 시대의 진, 초, 연, 제, 조, 위, 한의 칠국(七國)을 말한다.
- 66 합종(合從)의…공격하였고 : 소진의 합종책이 장의의 연횡책에 의해 와해되자 진(秦)나라는 기원전 230년에 한(韓)을 멸망시키는 것을

쪽으로 진(秦)나라에 대한 근심이 생기니 무적이었던 온전한 제(齊) 나라를 번개처럼 쓸어버렸습니다.<sup>67</sup> 끝내는 한 필부(匹夫)만도 못하였으니 부질없는 6천 승(乘)의 군대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sup>68</sup> 양의 바탕을 꾸며 범의 가죽을 쓰고서<sup>69</sup> 누가 닭의 입이 되었다가 소의 꼬리가 되었습니까.<sup>70</sup> 대량(大梁)의 시도(廝徒)와 분격(奮擊) 또

- 
- 시작으로, 기원전 225년에 위(魏), 기원전 222년에 조(趙)를 차례로 멸망시켰다. 《史記 卷15 六國表》 참고로, 삼진(三晉)은 한·위·조 삼국이 원래 진(晉)나라의 대부 출신으로서 나중에 진나라에서 분리하여 나라를 세운 데서 이들을 병칭하여 일컫는 말이다. 《國語 晉語9》
- 67 북쪽으로…쓸어버렸습니다 : 진 혜왕(秦惠王)을 도와 연횡책을 구사 하였던 장의(張儀)가 초(楚)나라와 제(齊)나라가 연합하고 있는 것을 깨기 위해 초나라에 가서 유세하자 초왕은 그의 말을 듣고 제나라와 절교하려 하였다. 이때 진진(陳軫)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진(秦)나라가 대왕을 중히 여기는 것은 왕께서 제나라와 우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땅도 얻지 않고 먼저 제나라와 외교를 끊어버리면, 우리 초나라만 고립되고 마는데 그렇게 되면 진나라가 어찌 고립된 초나라를 중히 여기겠습니까.…서쪽으로 진나라에 대한 근심이 생기고, 북으로 제나라와의 절교를 하면 그로 인해 두 나라의 군사가 틀림없이 밀려올 것입니다. [是西生秦患, 北絕齊交, 則兩國兵必至矣.]”라고 하였지만 초왕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기에 이후 제와 한(韓)까지 합세한 진나라 군대에 의해 땅과 백성을 잃어버리고 간신히 멸망을 면하였고 이후 제나라 역시 같은 길을 걸었다. 《戰國策 卷4 秦策2》
- 68 끝내는…말입니까 : 육국(六國)이 제후국으로서 각각 천 승(乘)의 규모를 갖춘 군대로도 진(秦)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한 반면 진시황 사후에 진섭(陳涉)이라는 비천한 필부가 일어나자 진나라가 멸망한 일을 말한 것이다. 《古文眞寶後集 卷1 過秦論》
- 69 양의…쓰고서 :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형편없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한(漢)나라 양웅(揚雄)의 《법언(法言)》 〈오자(吾子)〉에 “양의 바탕에 범의 가죽을 쓰고 있어서, 풀을 보면 좋아하고 승냥이를 보면 벌벌 떠다. [羊質而虎皮, 見草而說, 見豺而戰.]”라고 하였다.
- 70 누가…되었습니까 : 소진이 한(韓)나라 선혜왕(宣惠王)에게 진(秦)나

한 어찌해 볼 수가 없었거니와<sup>71</sup> 상당(上黨)의 용연(龍淵)과 태아(太阿)<sup>72</sup>인들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긴 소매자락을 끌고 뾰족한 신을 신고서 조(趙)나라 여자가 함양(咸陽)으로 오고<sup>73</sup> 짚은 갈기를 떨치고 바람에 휘날리는 갈기를 헤치고 대(代) 땅의 말도 위수

라에 신복(臣服)하지 말도록 설득하면서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지 말아야 한다[寧爲鷄口，無爲牛後.]”는 속담을 인용한 데서 나온 말이다. 《史記 卷69 蘇秦列傳》

- 71 대량(大梁)의…없었거니와 : 대량은 위(魏)나라의 수도로, 소진이 위(魏) 혜왕(惠王)에게 유세하기를, “지금 삼가 들으니 대왕의 병졸은 무사(武士)가 20만, 창두(蒼頭)가 20만, 분격(奮擊)이 20만, 시도(廝徒)가 10만, 수레가 6백 승, 말이 5천 필이라 하니 이는 월왕(越王) 구천(勾踐)이나 무왕(武王)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 진나라를 섬기려고 하십니다.”라고 하여 위 혜왕을 설득하여 진나라에 대항하였으나 결국 진나라에 멸망하였다. 《史記 卷69 蘇秦列傳》 참고로 시도(廝徒)는 땀나물을 마련하거나 마소를 먹이는 등의 천역을 맡은 사람으로 위 혜왕이 군졸로 삼은 것이고, 분격(奮擊)은 힘을 떨쳐 적을 치는 사졸을 말한다.
- 72 용연(龍淵)과 태아(太阿) : 둘 다 전설적인 보검(寶劍)의 이름으로, 초왕(楚王)이 풍호자(風胡子)를 시켜 오(吳)나라의 간장(干將)과 월(越)나라의 구야자(歐冶子)에게 가서 만들게 한 것이다. 소진이 한(韓)나라 선혜왕(宣惠王)에게 진(秦)나라에 신복하지 말도록 설득하면서 “용연과 태아 두 보검은 물에서는 소와 말을 베고 물에서는 고니와 기러기를 베며, 적을 만나면 견고한 갑옷과 쇠로 만든 보호대를 벤다.[龍淵太阿，皆陸斷牛馬，水截鵠雁，當敵則斬堅甲鐵幕.]”라고 하였다. 《史記 卷69 蘇秦列傳》
- 73 긴…오고 : 미인들이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가득하였다는 말이다. 《사기》〈화식열전(貨殖列傳)〉에서 “무릇 조나라 여자와 정나라 여인이 용모를 꾸미고 명금(鳴琴)을 연주하고 긴 소매자락을 끌고 뾰족한 신을 신고서 눈빛을 흘리고 가슴을 드러내어 천 리를 멀다 하지 않고 가서 노소(老少)를 가리지 않는 것은 부귀를 쫓아 달려가는 것입니다.[夫趙女鄭姬設形容，揜鳴琴，揄長袂，躡利屣，目挑心招，出不遠千里，不擇老少者，奔富厚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渭水)에서 울었습니다. 사병(士兵)들이 잘 훈련되어 있는 초(楚) 나라를 거두어 가을이면 과수원의 굴과 유자를 봉송(封送)하게 하고, 수레바퀴가 부딪치고 어깨가 닿는 제(齊)나라<sup>74</sup>에 힘입어 봄이면 바닷가의 어염(魚鹽)을 세금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땅은 육국(六國)을 실어주지 않고 하늘은 오로지 진(秦)의 일가(一家)에 맡겼습니다. 함곡(函谷)에 풍운(風雲)이 일어남에 온갖 신들이 옹호(雄虎)에게 신령을 바치고<sup>75</sup> 호지(滄池)에 뇌우(雷雨)가 내림에 모든 강물이 조룡(祖龍)에게 물결을 맡겼습니다.<sup>76</sup> 변화(卞和)의 벽옥(璧玉)을 안개 속에 거두어 구중궁궐의 옥새(玉璽)로 사용하였

74 수레바퀴가…제(齊)나라 : 백성과 물산이 많아 풍요롭고 변화한 것을 뜻하는 말로, 《사기》〈소진열전(蘇秦列傳)〉에 “제(齊)나라 서을 임치(臨淄)는 도로에 수레바퀴가 서로 부딪치고 사람들의 어깨가 서로 닿아 옷깃을 연결하면 휘장을 이루고 소매를 치켜들면 장막을 이루며 땀을 흠치면 비가 되어 내린다.[臨淄之塗, 車轂擊, 人肩摩, 連衽成帷, 舉袂成幕, 揮汗成雨.]”라고 하였다.

75 함곡(函谷)에…바치고 : 진(秦)나라가 함곡관(函谷關)을 넘어 육국(六國)을 정벌하여 천하를 통일한 일을 신령들도 인정하였다는 말이다. 옹호(雄虎)는 진 시황을 가리킨다.

76 호지(滄池)에…맡겼습니다 : 주(周)나라가 망하고 천하가 진(秦)나라에 귀의한 일을 가리킨다. 호지(滄池)는 서주(西周)의 서을인 호경(鎬京)에 있던 못 이름으로, 오늘날 중국의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서쪽에 위치하였는데, 당(唐)나라 이후에 매몰되어 없어졌다 하는바, 주나라를 비유한다. 조룡(祖龍)은 진 시황이 죽던 해인 기원전 210년에 관동(關東) 지방에 나갔던 사자(使者)가 밤에 화음(華陰)의 평서(平舒) 고장을 지날 때 수신(水神)이 옥을 주며 말하기를 “나를 위해 이것을 호지군께 넘겨주시오. 금년에는 조룡이 죽을 것이오.” 하여, 진 시황이 죽고 주 무왕(周武王) 같은 인물인 유방이 나타나 새 왕조가 들어설 것을 예언한 것을 가리키는바, 조룡의 조(祖)는 시(始)의 뜻이고 용(龍)은 임금의 상징으로, 진 시황을 암시한다. 《史記 卷6 秦始皇本紀》

고<sup>77</sup> 헌원(軒轅)의 병기(兵器)를 불에 녹여서 열두 개의 금인(金人)을 세웠습니다.<sup>78</sup> 영실(營室)까지 솟아올라 은하(銀河)를 끊으니 천 길에 닿는 높은 기둥이요,<sup>79</sup> 임조(臨洮)에서 시작하여 갈석(碣石)에 이어서니 만 리나 뻗어 있는 장성(長城)이었습니다.<sup>80</sup> 만약

77 변화(卞和)의…사용하였고 : 변화의 벽옥(璧玉)은 춘추 시대 초(楚)나라 사람 변화가 형산(荊山)에서 얻었다는 벽(璧)이란 보옥(寶玉)으로, 화씨벽(和氏璧)이라고도 하였다. 전국 시대 조(趙)나라 혜문왕(惠文王)이 화씨벽을 얻었는데, 진 소왕(秦昭王)이 조왕(趙王)에게 편지를 보내어 15성(城)과 바꾸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인상여(藺相如)가 화씨벽을 가지고 진(秦)에 갔더니, 진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하자 인상여는 화씨벽을 되찾아 왔었다. 하지만 진 시황(秦始皇) 때에 와서 조나라의 소유였던 화씨벽이 결국 진(秦)의 옥새(玉璽)가 되었다. 《史記 卷81 藺相如列傳》

78 헌원(軒轅)의…세웠습니다. : 헌원은 중국 상고 시대의 성인(聖人) 황제(黃帝)로, 그는 간과(干戈)를 만들어 쓰는 법을 익혀 순종하지 않는 제후들을 무력으로 토벌하여 귀순시키고, 염제와 판천(阪泉)의 들판에서 싸워 이겼다. 《史略 卷1 黃帝軒轅氏》 금인(金人)은 구리나 쇠로 주조한 인형으로, 《사기》〈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에 “은 천하의 병기를 거두어서 함양에 모으고 이것을 녹여 종들과 금인 12개를 만들었는데, 무게가 각각 천 석이었다. 이것을 궁정 가운데에 두었다.〔收天下兵，聚之咸陽，銷以爲鍾鑪金人十二，重各千石，置廷宮中。〕”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79 영실(營室)까지…기둥이요 : 아방궁(阿房宮)을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이 지었다는 말이다. 영실은 영실성(營室星)으로, 이십팔수(二十八宿) 가운데 동방(東方)에 위치한 실성(室星)인데 정성(定星)이라고도 한다. 10월이 되면 초저녁에 이 별이 북쪽에 나타나는데 이때는 농한기여서 건축(建築)하기에 알맞으므로 토공(土功)을 주관하는 별로 알려졌다.

80 임조(臨洮)에서…장성(長城)이었습니다 : 진 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뒤에 몽염(蒙恬)에게 1만 리에 걸친 장성을 쌓도록 하여 서쪽의 임조 땅에서 시작하여 동쪽의 갈석(碣石)까지 쌓았으므로 한 말이다. 임조는 중국 감숙성(甘肅省)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 갈석은 요동의 바닷가에 있는 지명이다. 《史記 卷88 蒙恬列傳》

세상을 뒤덮는 위령(威靈)이 아니라면 어찌 구주(九州)를 굴복시키겠습니까. 반드시 하늘에 필적하는 무덕(武德)이 있어야 저 만방(萬方)을 편안히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성인(大聖人)이 한 번 나오시어 만고의 시황제(始皇帝)가 되시니, 넓고 두텁고 높고 밝으신지라<sup>81</sup> 손으로 चु추고 발로 구룹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들은 용렬한 재주로 다행히 태평성대를 만나 용의 비늘을 부여잡고 봉의 날개에 달라붙은 꼴이라<sup>82</sup> 비록 전쟁에 참여한 공로는 없지만 해와 하늘 같은 폐하를 기리고 본떠 다만 구름 같으시라는 축원<sup>83</sup>만 간절합니다.

81 넓고…밝으신지라 : 진 시황을 천지(天地)에 비유한 것이다. 《중용장구(中庸章句)》26장에 “천지의 도는 넓고 두텁고 높고 밝고 멀고 오래이다.[天地之道，博也厚也高也明也悠也久也.]”라고 하였다.

82 용의…꼴이라 : 원문의 ‘攀鱗附翼’는 ‘반룡부봉(攀龍附鳳)’과 같은 말로 곧 제왕을 도와서 공업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한나라 양웅(揚雄)이 지은 《법언(法言)》〈연견(淵鶩)〉의 “용의 비늘을 부여잡고 봉의 날개에 달라붙는다.[攀龍鱗附鳳翼.]”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83 구름 같으시라는 축원 :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송축을 말한다. 《시경》〈소아(小雅) 천보(天保)〉에 나오는 아홉 가지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로, “하늘이 그대를 보정하사 성하지 않은 것이 없는지라, 산과 같고 언덕 같으며, 뫄과 같고 구름 같으며, 냇물이 한창 이르는 것과 같아서, 더하지 않은 것이 없도다. 달이 가득 찬 것 같고, 해가 돋은 것 같으며, 남산같이 장수하여 이지러지지도 무너지지도 않으며, 송백같이 무성하여 그대에게 모든 것이 길이 무성하리로다.[天保定爾，以莫不興，如山如阜，如岡如陵，如川之方至，以莫不增。如月之恒，如日之升，如南山之壽，不騫不崩，如松柏之茂，無不爾或承.]”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송나라 한림학사 구양수 등이 당사를 진헌한 내용으로 상징하여 지은 표문<sup>84</sup>

擬宋翰林學士歐陽脩等進獻唐史表

목천(木天)에서 동관(彤管)을 머리에 꽂고서<sup>85</sup> 옛 사적(史籍)을

84 송나라…표문(表文) : 구양수(1007~1072)는 송나라의 문장가로, 길주(吉州) 여릉(廬陵) 사람이다. 자는 영숙(永叔), 호는 취옹(醉翁) 또는 육일거사(六一居士),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0세 때 한유의 문집을 읽고 매료되어 서곤체(西崑體)가 유행하던 송나라 초기의 문단을 혁신하였다. 저서에 《신오대사(新五代史)》, 《신당서(新唐書)》, 《모시본의(毛詩本義)》 등이 있다. 구양수 이전 당사(唐史)의 편찬 내력을 살펴보면, 당나라 때 오금(吳兢)이 개원(開元)까지의 역사를 편찬하고, 위술(韋述)·유방(柳芳)·우휴열(于休烈) 등이 증수(增修)해 《당서(唐書)》 30권을 편찬하였다. 이후 후진(後晉) 고조(高祖) 때는 유후(劉煦) 등이 앞의 책을 토대로 《당서》 200권을 찬진하였는데, 본기(本紀) 20권, 지(志) 30권, 열전(列傳) 150권이였다. 송나라에 와서 구양수(歐陽脩)와 송기(宋祁)가 새로 《당서》를 간행하자, 유후의 것은 《구당서(舊唐書)》라고 칭하고, 구양수의 것을 《신당서》라고 칭하게 되었다. 《신당서》는 본기 10권, 지 50권, 표 15권, 열전 150권의 총 225권으로 구성되었는데, 주로 변려문으로 되어 있는 《구당서》를 기초로 개작한 것이다. 본기, 표, 지는 구양수가, 열전은 송기가 맡아 인종(仁宗) 가우(嘉祐) 5년(1060)에 완성하였다. 《新唐書 卷225 提要》 이 글은 구양수가 《신당서》를 인종에게 올릴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지은 것이다.

85 목천(木天)에서…꽂고서 : 목천은 당나라 때 한림들이 있었던 비서각(祕書閣) 건물이 가장 높고 컸으므로 그렇게 부른 것으로, 후대에는 한림원(翰林院)을 가리키는바, 모두 문한(文翰)과 역사 편찬을 담당한 곳을 말한다. 동관(彤管)은 붉은 자루로 된 붓으로 사관이 사용하는 붓을 가리킨다. 원문의 ‘珝彤’의 ‘珝’는 ‘珝’의 오자이다. ‘珝彤’은 ‘珝筆’과 같은 말로, 고대(古代)에 사관(史官)이나 간관(諫官)이 조정에 나가 늘 갖 옆에 붓을 꽂고 기록하는 데 편하게 한 일을 가리키는

잊어버림을 바야흐로 부끄러워하면서 운각(芸閣)<sup>86</sup>에서 먹물을 적서 새로 찬술(撰述)한 책을 감히 올립니다. 고개 숙여 오래된 서적(書籍)을 엮어 우리로 전하께서 살펴 보시게 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나라를 빛나게 하는 솜씨는 반드시 역사를 지을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호(董狐)의 사필(史筆)은 훌륭하다고 일컬어지니 이미 찬탈(篡奪)하고 시해(弑害)한 역적을 주벌(誅罰)하였고<sup>87</sup> 공자(孔子)의 《춘추(春秋)》는 오랜 후대에 감계(鑑戒)가 되니 난신적자(亂臣賊子)의 무리가 두려워함이 마땅합니다.<sup>88</sup> 예로부터 초고의 완성은 동리(東里)의 윤색(潤色)에 힘입었고<sup>89</sup> 이 때

말인바, 사관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86 운각(芸閣) : 운향각(芸香閣)으로 비서성(祕書省)의 별칭인데 비서성이 도적(圖籍)을 관리하므로 또한 장서(藏書)와 교서(校書)를 담당하는 곳을 가리키게 되었다.
- 87 동호(董狐)의…주벌(誅罰)하였고 : 원문의 ‘董筆’은 동호필(董狐筆)의 준말로 사가(史家)의 직필(直筆)을 가리킨다. 동호는 춘추 시대 진(晉)나라의 사관이다. 진 영공(晉靈公)이 조돈(趙盾)을 죽이려 하자 조돈이 도망갔다가 조천(趙穿)이 영공을 죽인 뒤에 조돈이 돌아오니 동호가 “조돈이 그 임금을 죽였다.[趙盾弑其君.]”라고 기록하여 조정에 보였다. 조돈이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강변하자, 동호는 “그대는 일국의 정경으로 도망을 하면서 국경을 넘지도 않았고, 돌아와서는 역적을 특별하지도 않았으니, 그대가 죽인 게 아니고 누가 죽였단 말인가.”라고 하였는데, 이 일과 관련하여 공자가 “동호는 옛날의 훌륭한 사관이었다. 그의 서법은 숨기는 일이 없었다.[董狐古之良史也, 書法不隱.]”라고 하였다. 《春秋左氏傳 宣公2年》
- 88 공자(孔子)의…마땅합니다 : 원문의 ‘麟圖’는 인경(麟經)의 그림으로, 공자가 지은 《춘추》를 가리킨다. 《맹자(孟子)》〈등문공 하(滕文公下)〉에 “공자께서 《춘추》를 완성하자 난신과 적자가 두려워하였다.[孔子成春秋, 而亂臣賊子懼.]”라고 하였다.
- 89 예로부터…힘입었고 : 정(鄭)나라에서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맡은 것으로, 동리(東里)는 정나라의 대부 자산(子產)이다. 공자가 “정나라는 외교 문서를 작성할 때 비침이 초고를 만들고, 세속이 토론

문에 석실(石室)의 기록은 서한(西漢)의 문장을 우뚝 세웠습니다.<sup>90</sup> 사재(史才)는 본래 얻기 어렵거니와 이보다 막중한 책임도 없습니다.

공손히 생각건대, 넓고 자세히 하는 태도로 학문을 연구하고 부지런하고 힘쓰는 자세로 마음을 넓혀 취침(翠籤)<sup>91</sup>에서 성쇠(盛衰)를 찾아 날마다 해가 저물 때까지 마음을 쏟고 황권(黃卷)에서 흥망(興亡)을 물어 더러 한밤중까지 힘쓰고 힘썼습니다.<sup>92</sup> 그렇지만 이 당사(唐史)의 오류는 유후(劉煦)의 천박함에서 나왔습니다.<sup>93</sup>

하여 수정하고, 행인 자우가 수식하여 다듬고, 동리 자산이 마지막으로 윤색하였다.[爲命, 裨謀草創之, 世叔討論之, 行人子羽修飾之, 東里子產潤色之.]”라고 하였다.《論語 憲問》

90 이…세웠습니다 : 석실(石室)의 도서를 통해 서한의 문장이 훌륭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석실은 한(漢)나라 대궐의 장서각(藏書閣)을 가리킨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자서(自序)〉에 “사관의 기록과 석실금궐의 책에서 뽑아 서술하였다.[紉史記石室金匱之書.]”라고 하였다.

91 취침(翠籤) : 녹아로 만든 찌인 녹아침(綠牙籤)을 가리키는 말로, 당(唐)나라 때 사부(四部) 가운데 사부(史部)의 도서에 녹아침을 쓴 데서 비롯된 말인바, 사서(史書)를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신당서(新唐書)》권57 〈예문지 1〉과 《구당서(舊唐書)》권47 〈경적지 하〉에 따르면 경·사·자·집을 각각 갑부(甲部)·을부(乙部)·병부(丙部)·정부(丁部)의 순서대로 정리하였으며, 양경(兩京)에 각각 1본(本)씩 두어 모두 12만 5천 9백 60권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경고(經庫)는 세백아축(細白牙軸)·황표대(黃縹帶)·홍아침(紅牙籤)을 쓰고, 사고(史庫)는 세청아축(細靑牙軸)·표대(縹帶)·녹아침(綠牙籤)을 쓰고, 자고(子庫)는 조자단축(雕紫檀軸)·자대(紫帶)·벽아침(碧牙籤)을 쓰고, 집고(集庫)는 녹아축(綠牙軸)·주대(朱帶)·백아침(白牙籤)을 써서 각각 분별하였다고 한다.

92 힘쓰고 힘썼습니다 : 원문은 ‘孜孜’인데, 연세대본 《현주집》에 근거하여 ‘孜孜’를 ‘孜孜’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93 당사(唐史)의…나왔습니다 : 후진(後晉) 고조(高祖) 때 유후(劉煦) 등이 앞서 편찬된 당사(唐史)들을 토대로 《당서》 200권을 찬진하였는

문사(文辭)는 의미를 전달하지 못해 한 글자의 포폄(褒貶)을 잃어 버렸고 논의(論議)는 격언(格言)이 없어 역대 제왕의 취사(取捨)에 어두웠습니다. 이것이 어찌 전술(傳述)하기만 하고 창작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sup>94</sup> 설령 말할 수는 있더라도 징험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사림(詞林)에서 발탁하여 천록각(天祿閣)<sup>95</sup>에서 교수(校讎)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찌 신과 같은 이가 염치없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찍이 덕이 있는 자들이 사양하던 일입니다. 월궁(月宮)에서 상토(霜兔 토끼털 붓)를 나누어 주니 옥황상제(玉皇上帝)의 향안(香案)이 비어버렸고 은하수에서 설전(雪牋 새하얀 종이)을 내리니 봉래산(蓬萊山)의 채운(彩雲)이 휘감았습니다.<sup>96</sup> 이에 선리

데, 송나라 인종(仁宗)이 유후의 《당서》가 내용이 충실치 못하다고 하여 구양수 등에게 명하여 1044년~1060년에 걸쳐 북송 당시 전해 오던 자료로 유후의 《당서》의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고, 체계를 정비하여 내용을 갖추었다. 특히 병지(兵志), 선거지(選舉志) 등 지(志) 부분을 새로 보강하고 재상세계표(宰相世系表) 등 표(表)를 많이 넣었으며, 당시 중시되던 고문으로 문장을 간결하게 기술하였다. 구양수가 새로 《당서》를 간행하자, 유후의 것은 《구당서》라고 칭하고, 구양수의 것을 《신당서》라고 칭하게 되었다.

- 94 이것이…것이겠습니까 : 새로이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대의 기록에 근거하여 서술하는 유가(儒家)의 전통적인 역사 서술 태도가 아니라는 말이다. 《논어》〈술이(述而)〉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술하기만 하고 창작하지 않으며, 옛 것을 믿고 좋아함을 내 삼가 우리 노팽에게 견주노라.’ 하였다.[子曰, 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라고 하였다.
- 95 천록각(天祿閣) : 한(漢)나라 때 비서(祕書)를 보관하던 전각 이름이다. 천록각은 한 고조(高祖, 재위 기원전 206~기원전 195) 때 창건되었는데, 유향(劉向, 기원전 77~기원전 6)과 유희(劉歆, 기원전 50~23) 부자(父子) 그리고 양웅(揚雄, 기원전 53~18)이 이곳에서 교서(校書)를 지냈다.
- 96 월궁(月宮)에서…휘감았습니다 : 월궁과 은하수, 옥황상제와 봉래산은 모두 대궐과 황제를 비유하는 것으로, 구양수가 좋은 붓과 종이

(仙李)의 춘추(春秋)<sup>97</sup>를 어루만져 비로소 청사(靑史)의 포핍(褒貶)을 실었습니다.

백성을 안집(安集)하고 세상을 구제(救濟)하니<sup>98</sup> 금문(禁門)의 피비린내<sup>99</sup>에 침을 뱉고, 암탉이 새벽에 울어대니<sup>100</sup> 방주(房州)의 유폐된 황제<sup>101</sup>를 통곡했습니다. 비석이 이미 세워짐에 아암지(鵝鴨

를 하사받았다는 표현이다.

97 선리(仙李)의 춘추(春秋) : 선리는 노자의 후손을 가탁하였던 이당(李唐) 왕조를 말하고 춘추는 공자가 지은 역사서로, 사서(史書)를 가리키는바, 여기서는 당사(唐史), 즉 구양수 이전에 편찬된 당대(唐代)를 다룬 사서들을 가리킨다.

98 백성을…구제(救濟)하니 : 태종에 대한 예언을 말한 것으로, 《신당서》〈태종본기(太宗本紀)〉에, “태종이 네 살 적에 어떤 서생(書生)이 고조(高祖)를 보고서 말하기를 ‘공은 상법(相法)으로 보아 귀인이다. 그러나 반드시 귀자(貴子)를 두겠다.’ 하더니, 태종을 보고서는 ‘용봉(龍鳳)의 자태이고 천일(天日)의 의표(儀表)로다. 나이 20이 되면 반드시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안집할 것이다.[濟世安民] 하였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99 금문(禁門)의 피비린내 : 당나라 고조(高祖) 재위 시에 훗날의 태종이 된 이세민(李世民)의 공명(功名)이 날로 성해지자, 이세민의 동복(同腹) 형인 태자 이건성(李建成)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동복 아우인 이원길(李元吉)과 함께 이세민을 제거하려 하였는데 이세민이 이를 알고 도리어 군사를 거느리고 현무문(玄武門)에 숨어 기다렸다가 두 사람을 모두 죽인 일을 말한다. 《新唐書 卷2 太宗本紀》

100 암탉이 새벽에 울어대니 : 여자가 권력을 쥐면 집안이나 나라가 망함을 비유하는 말로, 본래 《서경》〈주서(周書) 목서(牧誓)〉에 “암탉은 새벽에 울지 말아야 하니,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쓸쓸해진다.[牝雞無晨, 牝雞之晨, 惟家之索.]”라고 한 데서 온 말인데, 《구당서》〈측천무후본기(則天武后本紀)〉의 사평(史評)에도 나온다. 여기서는 당나라 제3대 황제인 고종(高宗)의 황후였던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아들을 폐위시키고 직접 황제가 되어 통치한 일을 말한다.

101 방주(房州)의 유폐된 황제 : 측천무후의 아들인 제4대 황제 중종(中宗)으로, 측천무후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는 폐위되어 방주(房州)에



池)에 눈이 개였고<sup>102</sup> 꿩털 갓옷을 막 태우니 마외역(馬嶺驛)에서 꽃이 떨어졌습니다.<sup>103</sup> 내관(內官)이 재갈을 휘날리며 오니 청사(廳事) 뒤의 석류나무를 상상하고<sup>104</sup> 주씨(朱氏)가 극도로 흉악하

유폐되었다. 방주는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방현(房縣)이다.

- 102 비석이…개였고 : 당 헌종(唐憲宗) 원화(元和) 연간에 회서 절도사(淮西節度使) 오원제(吳元濟)가 반란(叛亂)을 일으켰을 때, 그를 토벌하기 위해 조정에서 승상(丞相) 배도(裴度)가 회서 선위처치사(淮西宣慰處置使)로 출정(出征)하여 친히 토벌군을 독려(督勵)했다. 이때 장군(將軍) 이소(李愬)가 마침 큰 눈이 내리던 밤에 채주(蔡州)를 쳐 들어가서는 행군(行軍) 소리를 혼동시키기 위해 성(城) 근처의 아압지(鵝鴨池)에 군졸을 보내서 오리들을 두드려 놀래서 울어 대게 하여, 오원제가 행군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방심하게 한 다음, 이튿날 아침에 닭이 울고 눈이 그치자, 마침내 성안으로 쳐들어가서 오원제를 사로잡고 회서를 평정했던 데서 온 말이다. 《新唐書 卷154 李愬列傳》 이 당시 배도의 중군사마(從軍司馬)로 임명된 한유(韓愈)는 토벌이 완료된 뒤 회서를 평정한 기념비의 비문을 지으라는 명을 받고 그 공로를 배도와 헌종에게 돌리는 내용의 비문을 지었고 이를 새겨 비를 세웠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평회서비(平淮西碑)>이다.
- 103 꿩털…떨어졌습니다 : 꿩털 갓옷을 태운 일은 본래 진 무제(晉武帝) 함녕(咸寧) 4년(278)에 태의(太醫) 사마정거(司馬程據)가 꿩의 머리 깃털로 장식한 갓옷[雉頭裘]을 바쳤는데 기이한 기예나 의복은 전례(典禮)에 금지된 것이라 하여 전전(殿前)에서 불사르게 한 것을 가리키는데 선천(先天) 2년(713)에 당 헌종 역시 궁중의 주옥과 금수(錦繡) 등의 완호품(玩好品)을 정전(正殿) 앞에서 불사르게 한 일이 있어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晉書 卷3 帝紀 武帝》 《舊唐書 卷8 本紀 玄宗上》 그리고 마외역(馬嶺驛)에서 꽃이 떨어진 일은 755년 안녹산(安祿山)이 이민족을 거느리고 낙양을 공격하자 현종은 서쪽으로 피신하였는데, 마외역에 이르러 분노한 호위병들이 양국충(楊國忠)을 살해하고 현종에게 양귀비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여쩔 수 없이 양귀비를 사사한 것을 가리킨다. 《新唐書 卷6 肅宗皇帝本紀》
- 104 내관(內官)이…상상하고 : 문종(文宗) 때 내관(內官)들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이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문종의 의도를 알아챈 재상 이훈(李訓)과 정주(鄭注)가 내관들을 죽이기 위해 금오 청사

니 흘간산(紇干山)의 참새를 슬퍼합니다.<sup>105</sup> 치란(治亂)의 득실(得失)을 일일이 상고해 보면 실로 어진 이와 사된 이를 진퇴(進退)시키는 데서 말미암습니다. 방두(房杜)가 합심하여 보좌할 때 비로소 정관(貞觀)의 교화가 널리 퍼졌지만<sup>106</sup> 요송(姚宋)이 연달아 파면되고 나서 점점 개원(開元)의 정치가 쇠퇴했습니다.<sup>107</sup> 입에는 꿀을 머금고 배 속에는 칼을 품었으니 재상이 화란의 싹을 양성하

(金吾廳事) 뒤의 석류(石榴)에 감로(甘露)가 있다고 거짓으로 아뢰어 내관들을 유인해 내었다. 그러나 내관들이 낚새를 알아차리게 되어 이들은 도리어 중위(中尉) 구사량(仇士良)에게 죽음을 당하였고, 조정의 많은 벼슬아치들도 목숨을 잃었다. 이 일을 감로지변(甘露之變)이라고 부른다. 《舊唐書 卷17下 文宗本紀下》

- 105 주씨(朱氏)가…슬퍼합니다 : 당나라 소종(昭宗) 때 주전충(朱全忠)의 난이 일어나자, 소종이 화주(華州)로 파천하였는데, 소종이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비어(鄙語)에 ‘흘간산 꼭대기에서 얼어 죽는 새는, 어찌하여 좋은 곳에 날아가 살지 않는고. [紇干山頭凍殺雀, 何不飛去生處樂?]'라고 했는데, 내 신세와 같다.”라고 하였다. 소종은 나중에 애제(哀帝)로 등극한 13세의 아홉째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과 함께 주전충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資治通鑑 卷264 唐紀80 唐昭宗 天佑元年》
- 106 방두(房杜)가…퍼졌지만 : 방두는 당 태종 때 명재상(名宰相) 방현령(房玄齡)과 두여회(杜如晦)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정관(貞觀)은 당 태종의 연호로, 태종이 방현령, 두여회 등의 현명한 재상과 위징(魏徵)·이정(李楨)·이적(李勣) 등의 명장을 등용하여 태평 시대를 이뤘는바, 후대에 치세(治世)의 대명사로 쓰인다.
- 107 요송(姚宋)이…쇠퇴했습니다 : 요송은 요송(姚崇)과 송경(宋璟)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개원(開元)은 당 현종(唐玄宗)의 연호로, 요송과 송경이 이때 이어 재상이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의 보좌로 개원의 치세(治世)를 이루었다고 이야기된다. 백거이(白居易)의 글에 “태종 때에는 방현령과 두여회가 정관의 치세를 찬조하였고, 현종 때에는 요송과 송경이 개원의 교화를 보도하였다.”라는 말이 나온다. 《白氏長慶集 卷54 翰林制誥1 除裴洎中書侍郎同平章事制》

였고<sup>108</sup> 귀신같은 낮빛에 푸르스름한 얼굴로 사대부들에게 독을 쏘았습니다.<sup>109</sup>

겨우 스무 분의 제왕에 그치고 멸망하였으니 3백 년의 제위도 채우지 못했습니다.<sup>110</sup> 개국부터 멸망까지 비록 예닐곱의 현인이 일어났으나, 처음만 잘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니 대부분이 그 덕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현인을 멀리하면 나라를 망치니 마치 그림자가 사람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실패한 자취와 흥성한 기틀을 모두 쓸 건 쓰고 삭제할 건 삭제하였고, 옛 성현의 언행은 거의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운 내용입니다. 이에 책 한질을 올려 구중궁궐에서 열람하는 자료로 삼으시게 합니다. 보잘것 없는 신이 무슨 서술한 게 있겠습니까, 대략 이런 내용일 뿐입니다

108 입에는…양성하였고 : 이립보(李林甫)는 당 현종 때 권간(權姦)으로, 환관 및 비빈(妃嬪)과 결탁하여 황제의 동정을 살피면서 아침하여 총애를 얻은 뒤 19년 동안이나 재상으로 제멋대로 권세를 휘둘러 뒤에 안사(安史)의 난이 일어나는 빌미를 조성하였다. 그는 평소 선비를 몹시 꺼려서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감언으로 속이면서 속으로는 은밀히 모함하곤 하였으므로, 세상에서 그를 일러 “입에는 꿀을 머금고 배 속에는 칼을 품었다.[口有蜜, 腹有劍.]”라고 하였다. 《新唐書 卷223 李林甫列傳》

109 귀신같은…쏘았습니다 : 노기(盧杞)는 당 덕종(德宗) 때 간신으로, 자(字)는 자량(子良)이다. 그는 뛰어난 말재주로 덕종의 신임을 받아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발탁되었는데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시기하여 이성(李晟)·육지(陸贄)같은 현신을 배척하였고 조급이라도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으면 사지(死地)로 내몰아서 양염(楊炎), 두우(杜佑), 안진경(顏真卿) 등을 모해하였다. 원문의 ‘鬼色藍面’은 노기의 별명으로, 그의 얼굴이 귀신의 낮빛처럼 푸르스름했던 것을 말한다. 《新唐書 卷233下 盧杞列傳》

110 겨우…못했습니다 : 당나라는 618년 고조(高祖) 이연(李淵)이 건국하여 907년 애제(哀帝) 때 후량(後梁) 주전충(朱全忠)에게 멸망하기까지 290년간 20대의 황제에 의하여 통치되었다.

다.

삼가 생각건대, 신은 학문하면서 방법을 깨우치지 못하고 어리석어 도를 듣지 못했습니다. 단연(丹鉛)으로 교감(校勘)을 일삼으며<sup>111</sup> 멋대로 눈앞에 펼쳐진 고금(古今)의 역사를 상심하고 백발이 되도록 경서(經書)를 궁구하며 오래 피리(皮裏)<sup>112</sup>의 시비 변별에 힘을 들였습니다. 시소(尸素)<sup>113</sup>한다는 비난만 실컷 끼쳤는데 한묵(翰墨)의 마당<sup>114</sup>에서 잘못 독보(獨步)가 되었습니다. 어찌 도포를 입은 미천한 유자(儒者)가 이런 사서(史書)를 찬집하는 중책을 맡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오직 간악(奸惡)을 징계하고 도덕(道德)을 현양(顯揚)하는 법은 설령 근엄(謹嚴)한 필법에 부끄러움이 있지만, 저 선행(善行)을 수록하고 과실(過失)을 기술하는 말은 혹여 허실(虛實)을 누락함이 없기도 할 것입니다. 혹 경서(經書)를 들어 읽다가도 틈틈이 사서(史書)를 읽는 공부도 하였습니다. 사

111 단연(丹鉛)으로 교감(校勘)을 일삼으며 : 단연은 단사(丹砂)와 연분(鉛粉)으로 색깔이 있어 먹물 대신 문자를 교정(校訂)할 때 쓰는 것이다. 한유(韓愈)의 <추회시(秋懷詩)>에, “글을 보면서 단연으로 교감을 일삼는 것만 못하네[不如觀文字, 丹鉛事點勘.]”라고 하였다. 《昌黎文集 卷1》

112 피리(皮裏) : 피부 속, 가슴속이란 뜻으로, 이른바 피리춘추(皮裏春秋)를 뜻하는바,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시비를 가려 포폄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진(晉)나라 때 소준(蘇峻)을 평정한 공신으로 벼슬이 정토대도독(征討大都督)에 이른 저부(褚裒)를 대신(大臣) 환이(桓彝)가 일찍이 지목하여 말하기를 “계야는 가죽 속의 춘추가 있다.[季野有皮裏春秋]”라고 했던 데서 온 말인데 계야(季野)는 저부의 자(字)이다. 《晉書 卷93 褚裒列傳》

113 시소(尸素) : 시위소찬(尸位素餐)의 준말로, 자격이나 능력도 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국록(國祿)만 축낸다고 겸사(謙辭)로 한 말이다.

114 한묵(翰墨)의 마당 : 문단(文壇)이라는 뜻으로, 원문은 ‘汗墨’인데 문맥과 다수 용례에 근거하여 ‘汗’을 ‘翰’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실대로 편찬하고 진실하게 편수하였으니 어찌 하늘의 재화(災禍)를 스스로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로써 권장하고 이로써 경계를 삼는다면 앞으로 성군의 다스림에 보탬이 있으실 것입니다.

# 서序

## 임경당<sup>115</sup>에 대한 서문

### 臨鏡堂序

오가장(吳家莊)의 뒤요, 주포촌(周浦村)의 앞이라네. 못을 끼고 당(堂)을 만드니 임경(臨鏡)이 바로 그 편액(扁額)이라네. 긴 모래톱을 둘러 띠를 이루고 너른 들판을 열어 옷깃을 삼았구나. 이름난 승경은 교외 시골의 길목을 차지하고 커다란 진(鎭)은 호남(湖南)과 영남(嶺南)의 등허리를 독점하였네.<sup>116</sup> 다리는 오작(烏鵲)이 가로지르니<sup>117</sup> 땅은 광한(廣寒)<sup>118</sup>의 신령을 나누었고 성은 교

---

115 임경당(臨鏡堂) : 서문에 나오는 주포촌(周浦村), 흑성(黑城), 백평(白坪)은 모두 전라북도 남원(南原)에 속한 지명들이므로 남원에 있는 당임을 알 수 있지만,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다.

116 이름난...독점하였네 : 남원부(南原府)가 풍광이 좋고 영남과 호남의 경계에 있다는 말이다.

117 다리는...가로지르니 : 남원 광한루(廣寒樓)에 있는 오작교(烏鵲橋)를 말한다. 오작교는 본래 견우(牽牛)와 직녀(織女) 두 별이 부부 사이이면서도 은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가 1년에 한 번 칠월 칠석에 만나는데 이때 이들이 은하를 건너올 수 있도록 까치들이 만들어 놓아준다는 다리 이름이다.

118 광한(廣寒) : 남원의 광한루를 말하는데 본래 달 속의 선녀가 사는 월궁의 이름인 광한전(廣寒殿)의 '광한청허루(廣寒淸虛樓)'에서 따온 것이다. 처음에 조선 전기의 재상 황희(黃喜)가 남원에 유배 가서 1418년 현재보다 규모가 작은 누를 지어 광통루(廣通樓)라 했는데,

룡(蛟龍)이 우뚝하니<sup>119</sup> 풍속은 대방(帶方)<sup>120</sup>의 옛모습 그대로라네. 훌륭한 인재(人才)가 간간히 나오니 몇이나 되는 걸출한 무리였던가. 부귀한 집들 서로 이어지니 가는 곳마다 누대(樓臺)가 아름답도다. 용두(龍頭)<sup>121</sup>를 어루만져 북쪽으로 당기고 순자(鶉子)<sup>122</sup>를 보내어 남쪽으로 흘러보내네. 지맥(地脈)이 장대하여 천왕봉(天王峯)<sup>123</sup>이 드높거니와 성상(星象)이 다가들어 노인성(老人星)<sup>124</sup>이 가깝구나. 울창한 가수(嘉樹)를 헤치니 시원한 바람이 저절로 머무르고 울퉁불퉁한 노석(老石)에 누우니 작은 먼지도 일지 않는구나. 지나는 구름과 이따금 내리는 비는 흑성(黑城)의 붉그늘을 치장하고<sup>125</sup> 지는 노을과 걸쳐 있는 안개는 백평(白坪)

1434년 남원 부사 민여공(閔汝恭)이 증축했고, 1444년(세종26) 전라 관찰사 정인지(鄭麟趾)에 의해서 광한루라 불리게 되었다.

- 119 성은 교룡(蛟龍)이 우뚝하니 : 남원부의 서쪽에 있는 교룡산성(蛟龍山城)으로, 남원산성(南原山城)이라고도 한다.
- 120 대방(帶方) : 남원의 고호(古號)로,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대방주(帶方州)를 설치했던 데서 온 말이다.
- 121 용두(龍頭) : 전라남도 구례(求禮) 동쪽 10리에 있는 지명이다.
- 122 순자(鶉子) : 현재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과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과 옥과면의 경계를 따라 흐르는 섬진강의 일부 하천으로, 진안군 백운면에서 발원하여 전라북도 남동부와 전라남도 동북부를 지나 광양만으로 흘러드는 강의 일부 구간이다. 순자강(鶉子江) 혹은 순강(鶉江)이라고도 한다. 곡성읍에서 동북쪽으로 약간 떨어진, 남원과의 경계 부근에 순자진(鶉子津)이라는 나무가 있기도 하다.
- 123 천왕봉(天王峯) : 지리산의 최고봉으로 높이는 1,915m이다.
- 124 노인성(老人星) : 동양의 별자리인 28수(宿)에서 남방 7수 중 정수(井宿)에 속하는 별이다. 예로부터 인간의 수명을 맡은 별자리로 알려졌다. 남극성(南極星), 노인성(老人星), 남극노인(南極老人)이라고도 한다. 서양의 별자리로는 용골좌(龍骨座)의 알파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양력 2월 무렵에 남쪽 지평선 가까이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한다.
- 125 치장하고 : 원문은 ‘樿’인데, 문맥을 고려하여 ‘粧’으로 바로잡아 번

의 저녁빛을 아름답게 하네. 누대(樓臺) 그림자 거꾸로 비치니 마치 어룡(魚龍)의 궁궐이 떠 있는 듯하고, 방장(方丈)이 주렴에 들어오니<sup>126</sup> 신선(神仙)이 멀리 있음을 느끼지 못하네. 물을 보는 데 방법이 있다 했는데 마치 먼지 끼지 않은 거울 같구나.<sup>127</sup> 저 물은 지중(地中)에서 저절로 흘러가는데 나는 어찌 천상(天上)에 앉아 있는지. 향기로운 술이 올라오자 시내의 여인이 취하고, 아름다운 거문고를 치자 해엄치는 물고기가 듣는구나. 광채를 내도 닳지 않고 마음을 비추어도 거스름이 없네. 때때로 맑은 달이 산마루에 떠오르면 외로운 배 노 저어 물길을 올라가네.<sup>128</sup> 어스름에 갔다가 새벽에 돌아올 제 맑은 풍치(風致) 아님이 없고 봄에 생장(生長)하고 가을에 숙살(肅殺)하는 모습은 모두 훌륭한 볼거리로다. 더구나 이내 주인공(主人公)<sup>129</sup>은 배우지 않고도 유자(儒者)보다 낮고 인색하지 않아도 부유함을 차지한다오. 쌓고 나서야 흠여버릴 수 있는데 명성이 뜻밖에 찾아와 이미 부끄럽거니와, 즐

역하였다.

- 126 방장(方丈)이 주렴에 들어오니 : 지리산이 주렴을 뚫고 눈에 들어온다는 말이다. 방장은 지리산의 이칭으로, 본래 신선이 살고 있다는 바닷속에 있는 산으로, 봉래(蓬萊), 영주(瀛洲)와 함께 삼신산(三神山)이라 칭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金剛山)을 봉래, 한라산(漢拏山)을 영주라 칭한다.
- 127 물을…같구나 : 《맹자》〈진심 상(盡心上)〉의 “물을 볼 때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여울을 보아야 한다.[觀水有術, 必觀其瀾.]”라는 말에 대해 주희(朱熹)는 “여울물을 보면 그 근원에 근본이 있음을 알게 된다.[觀水之瀾, 則知其源之有本矣.]”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여울물조차 일지 않는 먼지 없는 강물을 보게 된다는 말이다.
- 128 올라가네 : 원문은 ‘沂’인데 연세대본 《현주집》에 근거하여 ‘沂’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 129 주인공(主人公) : 사람마다 본디 갖추고 있는 불성(佛性)을 가리키는 말로, 본래 성품을 말한다.



렬함 지킴이 공교함이니 길이 떠나려는 계책에 어긋나지 않았네.

일찍이 생각했네, 돌리는 공은 멈출 수가 없고 가는 물결은 돌아  
옴이 없다고.<sup>130</sup> 하늘 길은 험하여 잡고 오르기 어려우니 우리 인  
생은 즐거움 누리는 데 그칠 뿐이네. 꽃은 시들고 대나무는 꺾이  
니 우러르고 의지한 곳<sup>131</sup> 이미 폐허가 되었고 비는 내리고 구름은  
쳐량하니 길이 그리워하던 곳 쓸쓸히도 주인이 없구나. 이에 밤  
이면 등불을 잡고 바야흐로 날마다 뜰을 쓸고 있건만, 왕우군(王  
右軍)을 만나지 못하니 무성한 숲과 긴 대나무는 부질없거니와<sup>132</sup>

130 돌리는…없다고 : 막을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이 무상하다는 말이다. 원문의 ‘跳丸’은 광대가 양손으로 여러 개의 공을 던지고 받는 재주  
로, 빠른 세월에 비유된다. 한유(韓愈)의 <추회시(秋懷詩)>에 “근심  
속에 세월을 보내노니, 해와 달은 도환 같아라.[憂愁費晷景, 日月如  
跳丸.]”라고 하였다. 《昌黎文集 卷1》

131 우러르고 의지한 곳 : 원문의 ‘첨의(瞻依)’는 우러르고 의지한다는 뜻  
으로, 존장(尊長)에 대한 공경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서는 임경당  
의 주인이 돌아갔으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시경》(소아(小雅)  
소반(小弁)에 “봉나무와 추자나무도, 부모가 심었으면 반드시 공경  
하거든, 우러러볼 것이 아버지 아님이 없으며, 의지할 것이 어머니  
아님이 없도다.[維桑與梓, 必恭敬止. 靡瞻匪父, 靡依匪母.]”라고 한 데  
서 온 말이다.

132 왕우군(王右軍)을…부질없거니와 : 지금은 없는 임경당 주인을 왕우  
군에 비유하여 한 말이다. 왕우군은 동진(東晉)의 문신이자 서예가인  
왕희지(王羲之, 307~ 365)로 우군장군(右軍將軍)의 벼슬을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칭한 것이다. 자가 일소(逸少)이며 해서·행서·초서 등  
각 서체를 완성함으로써 예술로서의 서예의 지위를 확립하여 후대  
에 서성(書聖)으로 칭해졌다. 영화(永和) 9년(353) 늦은 봄에 회계(會  
稽) 산음(山陰)의 난정(蘭亭)에서 그와 사안(謝安) 등 42인의 명사들  
이 모여 계사(禊事)를 행하고 이어 곡수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지으  
며 성대한 풍류놀이를 했는데, 이날의 일을 서술한 그의 <난정기(蘭  
亭記)>에 “이곳에는 높은 산과 험준한 봉우리와 무성한 숲과 긴 대나  
무가 있고,[此地有崇山峻嶺, 茂林脩竹.] 또 맑은 시냇물과 거센 여울

왕자안(王子安)이 이미 떠나니 가을 강물의 긴 하늘은 아스라하구나.<sup>133</sup> 여러 공이 다 제(題)하였으니 어찌 악양루(岳陽樓)에 걸린 문장<sup>134</sup>에 뒤지겠는가만, 변려문을 간절히 청하기에 이에 원주(袁州)의 기문<sup>135</sup>을 빌리었노라. 지금 나는 세상 만사가 마음에 어긋나는데 한번 떠나 관리가 되었네. 시절을 상심해 통곡하니 막다른 길에서 통곡했던 완보병(阮步兵)<sup>136</sup>과는 다르게 한가한 날에 올라섰노라니 집을 떠난 왕찬(王粲)<sup>137</sup>과 같네. 날 갠 냇물과 향기로운

이 좌우에 서로 비쳐 띠처럼 둘러 있다. 시냇물을 끝어다 술잔 띄울 곡수를 만들고 차례로 벌여 앉으니, 비록 관현악의 성대함은 없으나 술 한 잔을 마시고 시 한 수를 읊는 것이 또한 그윽한 정을 펴기에 충분하였다.”라고 하였다.

- 133 왕자안(王子安)이…아스라하구나 : 지금은 없는 임경당 주인을 왕자안에 비유하여 한 말이다. 왕자안은 초당사결(初唐四傑)로 불리는 왕발(王勃, 650~676)로, 자안은 그의 자이다. 조숙한 천재로 6세 때부터 문장을 잘 지어 17세 때인 666년 유소과(幽素科)에 급제했다. 젊어서 재능을 인정받아 664년에 이미 조산랑(朝散郎)의 벼슬을 받았다. 뒤에 관노를 죽였다는 죄로 관직을 빼앗기고 교지(交趾)의 영(丞)으로 좌천된 아버지를 만나러갔다 돌아오다가, 배에서 떨어져 익사했다. 그가 지은 <등왕각서(滕王閣序)>에 “지는 노을은 외로운 따오기와 나란히 날고, 가을 강물은 긴 하늘과 한빛이어라.[落霞與孤鶩齊飛，秋水共長天一色.]”라고 하였다.
- 134 악양루(岳陽樓)에 걸린 문장 : 송(宋)나라의 명재상 범중엄(范仲淹)이 지은 <악양루기(岳陽樓記)>를 말한다.
- 135 원주(袁州)의 기문 : 송나라 이구(李觀, 1009~1059)가 지은 <원주학기(袁州學記)>를 가리키는 듯하나, 자세하지 않다.
- 136 막다른…완보병(阮步兵) : 완보병은 진(晉)나라 때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으로 보병 교위(步兵校尉)를 지낸 완적(阮籍, 210~263)을 가리킨다. 그는 천성이 방달불기(放達不羈)하여 때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수레를 타고 아무 곳으로나 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이 길이 막히면 통곡하고[窮途哭] 돌아왔다 한다. 《晉書 卷49 阮籍列傳》
- 137 집을 떠난 왕찬(王粲) : 삼국 시대 위나라 왕찬이 동탁(董卓)의 난리

풀은 비록 최호(崔顥)의 시에 부끄럽지만<sup>138</sup> 긴 젓대 붙여 누대에  
기댄은 조하(趙嘏)의 시구(詩句)에 양보하지 않노라.<sup>139</sup> 우선 한마  
디 말을 가지고 주어 천리나 떨어져 그리워하는 마음을 멀리서 위  
로하노라. 오늘 아침 군재(郡齋)에서 억지로 서문을 지은 것은 망  
령될 뿐이니 훗날 풍경을 다시 공을 위해 지어 주리라.

---

를 피하여 형주(荊州)의 유표(劉表)에게 가서 의지하고 있을 적에 강  
릉(江陵)의 성루(城樓)에 올라 고향을 생각하면서 진퇴위구(進退危懼)  
의 정을 서술하여 <등루부(登樓賦)>를 지은 일이 있다. 《三國志 魏志  
卷21 王粲傳》

- 138 날...부끄럽지만 : 당대(唐代)의 문인 최호(崔顥)가 <황학루(黃鶴樓)>  
시를 지어 세상에 널리 회자되었는데, 특히 이백(李白)으로부터 당인  
(唐人)의 칠언율시(七言律詩) 가운데 제일이라는 격찬을 받기까지 했  
었다. 그 시에 “날 갠 냇물엔 한양의 숲이 역력히 비치고, 향기로운  
풀은 앵무주 물가에 무성하도다. 날은 저문데 향관이 그 어드메뇨,  
연기 자욱한 강가에서 사람을 시름하게 하네.[晴川歷歷漢陽樹, 芳草  
萋萋鸚鵡洲。日暮鄉關何處是, 煙波江上使人愁.]”라고 하였다. 원문의  
'晴川'과 '芳草'는 모두 <황학루>시에 나오는 말로, 여기서는 최호의  
시만은 못하다는 점사이다.
- 139 긴...않노라 : 당(唐)나라 무종(武宗) 때의 시인인 조하(趙嘏),  
806~853)가 지은 <조추(早秋)>시에 “성긴 별 몇 점 아래 기러기는  
변방에 비껴 날고 긴 젓대 한 가락에 사람은 누각에 기대 있네.[殘星  
幾點雁橫塞, 長笛一聲人倚樓.]”라고 하였다. 원문의 '長笛'과 '倚樓'는  
모두 <조추>시에 나오는 말로, 여기서는 조하의 시보다 낫다는 말  
이다.

## 제월정<sup>140</sup>에 대한 서문

### 霽月亭序

높은 노을 꺾뚫고 기둥이 날아오른 듯하니 땅은 홍진(紅塵) 세상과 격해 있고, 시원한 바람 헤치며 난간에 기대니 하늘은 벽옥(碧玉)처럼 열려 있네. 물영(物影 물체와 그림자)은 서로 대비되고<sup>141</sup> 풍광(風光)은 절로 머물러 있네. 하물며 물고기 뛰놀고 솔개가 날제<sup>142</sup> 봄 병풍은 비단결 반짝이는 듯하고, 무지개 사라지고 비가 꺾 때 가을 거울은 서리를 같이놓은 듯함에랴. 화산(火傘 뜨거운 태양)은 찌는 듯한 더위에 인정사정 없는데 빙강(氷江 찬 강물)은 은하수와 비슷함이 있구나. 돌아가는 배 한스러이 노래할 제 아득한 사원(沙院)<sup>143</sup>으로 수레가 가고, 내려 앉는 기러기 구슬피 울어덜 제 싸늘한 광릉(廣陵)<sup>144</sup>에 안개 덮인 숲이 있네. 두 원반의 갠

140 제월정(霽月亭) : 서문에 나오는 사원(沙院), 광릉(廣陵)은 모두 경기도 광주(廣州)에 속한 지명들이므로 광주에 있는 정자임을 알 수 있지만,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다.

141 물영(物影)은 서로 대비되고 : 원문의 ‘物影相況’은 한유(韓愈)의 <악양루별두사직(岳陽樓別竇司直)> 시에서 “깊고 깨끗하여 투명하게 푸른 빛 어리니 물영이 공교로히 서로 대비되네.[泓澄湛凝綠，物影巧相況.]”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昌黎文集 卷2》

142 물고기…제 : 천지간에 약동하는 만물의 실상을 비유한 말로 <증용장구> 제12장에 보인다.

143 사원(沙院) : 경기도 광주의 사근내원(沙斤乃院)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6 경기도 광주목(廣州牧) 역원(驛院) 조(條)에 “사근내원은 주의 서쪽 50리에 있다.[沙斤乃院，在州西五十里.]”라고 하였다.

144 광릉(廣陵) : 경기도 광주 광나루 근처이다.

달을 굽어보고 올려보니 공활한 하늘과 한빛으로 높고 깊구나.<sup>145</sup> 천상 세계는 지금에 볼 때 얼마나 많은 좋은 풍경일지 모르겠지만, 인간 세상 어느 곳에 제일의 강산이 이밖에 다시 있으랴. 오직 저 악양(岳陽)의 누대<sup>146</sup>는 동정(洞庭)의 일곱 호수<sup>147</sup> 가운데 제일 우뚝하거니와 봉도(蓬島)로 가는 길은 부질없이 3천 리 약수(弱水)에서 멀기만 하구나.<sup>148</sup> 다만 한 번 당도하는 것도 기약할 수 없는 데 설령 세 번 들어간들 그 누가 알리오.<sup>149</sup> 강호(江湖)는 과연 주

145 두…깊구나 : 하늘에 뜬 보름달이 강물에 비추고, 강물이 드넓어 높은 하늘과 닿아 있다는 말이다.

146 악양(岳陽)의 누대 : 악양은 호남성 악양현으로, 서쪽 동정호(洞庭湖)에 악양루가 있어서 역대의 많은 시인들이 수심을 읊은 시가 많다. 두보의 <등악양루(登岳陽樓)>시와 송(宋)나라 범중엄(范仲淹)이 지은 <악양루기(岳陽樓記)>가 유명하다.

147 동정(洞庭)의 일곱 호수 : 본래 옛날 초(楚)나라에 있었다고 전하는 일곱 곳의 거대한 호수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동정호를 둘러싼 거대한 호수들을 말한 것이다.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자허부(子虛賦)>의 대략에 “신은 초나라에 일곱 호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찍이 그 중 하나만 보았고 그 나머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신이 본 것은 다만 그중에 아주 작은 것인데 운몽택이라 하더이다.[臣聞楚有七澤，嘗見其一，未觀其餘也。臣之所見，蓋特其小小者耳，名曰雲夢.]”라고 하였다. 《史記 卷117 司馬相如列傳》

148 봉도(蓬島)로…하구나 : 봉도는 봉래산(蓬萊山)으로 동해에 있다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이고, 약수(弱水)는 중국 서쪽에 신선이 사는 봉린주(鳳麟洲)를 둘러싸고 있다는 전설상의 강으로, 길이가 3천 리나 되는데 기리기 털조차도 뜨지 않아 사람이 건널갈 수가 없다고 한다. 《海內十洲記 鳳麟洲》 봉래산과 약수 사이의 거리가 30만 리나 떨어져 있어 지극히 먼 거리를 표현할 때 보통 ‘봉래약수(蓬萊弱水)’라고 한다. 《書言故事 地理類》

149 설령…알리오 : 여동빈(呂洞賓)으로 더 잘 알려진 당(唐)나라 말기 도사(道士) 여암(呂巖, 796~?)이 악양루(岳陽樓)에 제(題)한 시에 “아침에 악악을 노닐다가 저녁엔 창오에 있는데, 소매 속 청사는 담기가 드높아라. 세 번이나 악양에 들어가도 아무도 몰라보니, 낭랑하게

인이 있으니 풍월(風月)이 그래서 끝없는 것이라네. 오늘 맑은 풍광 읊조려 이미 도인(道人)의 마음에 건주었으니 후일 밤 뜨는 달을 본다면 응당 먼지 낀 갑을 열 때처럼<sup>150</sup> 놀라리라.

---

을조리며 동정호를 날아가네.[朝遊岳鄂暮蒼梧, 袖有青蛇膽氣麤. 三入岳陽人不識, 朗吟飛過洞庭湖.]”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五代詩話 卷9 呂巖》

- 150 먼지…때처럼 : 두보(杜甫)의 시에 “먼지 낀 갑 속에서 꺼낸 거울처럼 원래 떠 있는 달이요, 저절로 위로 말려 올라가는 바람결 속의 대밭이로다.[塵匣元開鏡, 風簾自上鉤.]”라고 하였다. 《杜少陵詩集 卷17 月》

## 반구정<sup>151</sup>에 대한 서문

伴鷗亭序

신선이 지상에 머무르니 하늘이 호리병 속에 들어왔네.<sup>152</sup> 가을 달은 흰 물결과 함께 가없거니와 시든 풀은 노란 구름과 함께 어찌 그리 끝없는가. 아름다운 모래톱이 푸르게 빛나니 정자는 백구(白鷗) 노는 사장과 이어졌고 비단 같은 바위가 붉게 치장하니 사람은 적벽(赤壁)의 젓대 소리를 보내는도다.<sup>153</sup> 돌아가는 배가 달

---

151 반구정(伴鷗亭) :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익성공(翼成公) 황희(黃喜, 1363~ 1452)가 지은 정자로 파주읍(坡州邑) 서편 15리쯤 되는 임진강 하류에 있었다. 이후 장수 황씨(長水黃氏) 후손들이 이곳에 세거(世居)하였다.

152 신선이…들어왔네 : 반구정 주인을 신선에 비유하여 반구정이 선경이라고 말한 것이다. 호리병은 호중(壺中), 호중천(壺中天)이라 하여 별천지, 신선의 세계를 뜻한다. 동한(東漢)의 비장방(費長房)이 저자의 아전이었을 때, 어떤 노인이 저갓거리에서 약을 팔면서 호리병 하나를 가게 머리에다 걸어 놓았다가 저자가 파하면 호리병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저자 사람들은 이를 보지 못했는데 비장방은 누대에 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는 비상한 사람이라 여기고 그 노인에게 가서 재배(再拜)하고 술과 안주를 올렸다. 노인이 비장방에게 다음 날 찾아오라고 하여 다음 날 다시 찾아가니 노인이 비장방을 데리고 같이 병 속으로 들어갔는데, 장엄한 옥당(玉堂) 안에 안주와 술이 가득 놓여 있었으므로 함께 술을 실컷 마시고 돌아왔다고 한다. 《後漢書 卷82 方術列傳下 費長房》

153 사람은…보내는도다 : 반구정에서 어떤 이가 부는 피리 소리가 소식이 적벽에서 들었던 피리 소리와 비견할 만하다는 말이다. 송나라 소식(蘇軾)이 황주(黃州)로 귀양가 있을 때, 일찍이 임술년 가을 7월 기망(既望)에 객과 함께 배를 띄우고 적벽 아래에서 노닐며 한껏 흥을 붙인 일이 있는데, 객 중에 통소를 잘 부는 자가 있어 노래에 화답하여 부니 그 소리가 구슬퍼서 원망하는 듯, 사모하는 듯, 흐느껴 우는

빛을 띠니 조수는 낙하(洛河)<sup>154</sup>의 허리에서 잣아들고 내려앉는 기러기가 서리에 놀라니 추위가 장포(長浦)<sup>155</sup>의 어귀에 생기는구나. 눈 내리는 밤은 은하수를 드러내니 성사(星槎)<sup>156</sup>를 띄운 듯하고 얼어붙은 강은 옥경(玉京)에 가까우니 월궁은 어디메뇨. 복사꽃은 흐르는 물에 뚱뚱 떠 가거니와 봉래산은 본래 안개 노을에 싸여 있는 법이네. 승경 감상은 신선 같으니 좋은 시구 얻는 데 도움을 받거니와 덧없는 영화는 환상 같으니 구름은 산봉우리에서 나와 무심하구나.<sup>157</sup> 오늘 저녁 짙고 가는 지팡이는 다시 화양(華陽)의 은자(隱者)<sup>158</sup>를 찾아갈 게고 훗날 읊조리는 소매는 동정(洞庭)

듯, 하소연하는 듯하고 그 여운이 가냘프게 실낱처럼 이어져 끊어지지 않으니, 깊은 골짜기에 숨은 교룡을 춤추게 하고 외로운 배의 홀어미를 울릴 듯했다고 한다. 《古文眞寶後集 前赤壁賦》

154 낙하(洛河) : 경기도 파주(坡州) 일대의 임진강 하류를 지칭한다.

155 장포(長浦) : 파주 북쪽 15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파주 북쪽 갈두동(笈頭洞)에서 나와서 임진도(臨津渡)에 흘러든다.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1권 경기 파주목》

156 성사(星槎) : 은하수를 건너는 뗏목이라는 뜻으로, 옛날에는 바다와 은하수가 서로 통해 있어서 왕래할 수 있다고 믿었다. 어떤 사람이 뗏목을 타고 여러 날 갔더니, 멀리 궁실(宮室)이 보이는데 여기에 베짜는 아낙들이 있었고, 또 물가에는 소를 끌고 와서 물을 먹이는 사내가 있었다. 그가 돌아와서 점술(占術)로 유명한 엄군평(嚴君平)에게 물어보았더니, 자신이 갔던 그날에 객성(客星)이 견우성(牽牛星)을 범하였음을 확인해 주어, 자신이 간 곳이 견우성임을 알았다고 한다. 《星槎博物志 卷10》

157 구름은…무심하구나 : 도잠(陶潛)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구름은 무심히 산봉우리에서 나오고, 새는 날다가 지쳐 돌아올 줄을 아네.[雲無心以出岫, 鳥倦飛而知還.]”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58 화양(華陽)의 은자(隱者) : 화양은 양(梁)나라 도홍경(陶弘景, 456~536)이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숨어 살던 곳이다. 그는 유·불·도 삼교(三教)에 능통했으며, 양나라 무제(武帝)의 신임이 두터웠다. 뒤에 구곡산(句曲山)에 숨어 ‘화양은거(華陽隱居)’라 자호하였고, 85



의 누각을 세 번 들어가리라.<sup>159</sup>

---

세에 병도 없이 죽었는데 혹 신선이 되어 갔다고 전한다. 《南史 卷76 隱逸下》 원문은 ‘萃陽’인데, 연세대본 《현주집》에 근거하여 ‘萃’를 ‘華’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 159 동정(洞庭)의…들어가리라 : 여암(呂巖)이 악양루(岳陽樓)에 제(題)한 시에 “세 번이나 악양에 들어가도 아무도 몰라보니, 낭랑하게 읊조리며 동정호를 날아가네. [朝遊岳鄂暮蒼梧, 袖有青蛇膽氣麤. 三入岳陽人不識, 朗吟飛過洞庭湖.]”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앞의 @쪽 주 150 참조.

## 월파정에 대한 서문

月波亭序

푸른 물결 만 이랑은 맑은 은하수 되어 잠잠하게 흐르고 밝은 달 외로운 원반은 푸른 구름 속에 돌아가며 예나 지금이나 떠 있네. 정자에 어찌 이런 편액을 걸었나. 내가 그의 마음을 헤아리노라. 무릇 옥토끼가 부상(扶桑) 꼭대기에 걸리니 황금(黃金)이 언뜻 뛰어 오르는 듯,<sup>160</sup> 은쟁반이 북두(北斗) 자루에 걸리니 흰 비단이 빛기어 붙어대는 듯.<sup>161</sup> 높기로는 광정(廣庭)<sup>162</sup>이 아닌지라 은하수가 북극을 도는 것을 바라보고 멀기로는 아득한 은하수와 다른지라 흰 바다가 공중에 떠 있음에 놀라네. 어찌 단지 용백(龍伯)<sup>163</sup>이 혼령을 맑게 해 영기(靈氣)가 주패(珠貝)의 대궐에 맺혔을 뿐이리오, 선옹(仙翁)이 뱃속까지 시원해 맑음이 수정(水精)의 주렴을 꿰뚫는도다. 그래서 비 내리는 날씨와 갠 날의 햇살은 다 들기 어렵

160 옥토끼가…듯 : 달이 동해에 있을 때 해가 떠올라 황금빛 물결에 일렁거린다는 말이다. 부상(扶桑)은 동해 속에 있다는 상상의 신목(神木)인데, 해가 뜰 때에는 이 나뭇가지를 흔들고서 올라온다고 한다. 후한(後漢) 장형(張衡)의 <서경부(西京賦)>에 “해가 부상(扶桑)에서 떠올라 몽사(濛汜)로 넘어간다.”라고 하였다.

161 은쟁반이…듯 : 달이 북두성을 지날 때 은하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다.

162 광정(廣庭) : 본래 드넓은 청당(廳堂)을 가리키는 데서 천상 세계를 말하는 듯하나 자세하지 않다.

163 용백(龍伯) : 용백국의 거인이다. 발해(渤海)의 동쪽에 대학(大壑)이 있고 그곳에 산이 다섯 있는데, 천제(天帝)가 큰 자라 열다섯 마리를 시켜 6만 년에 한 번씩 3교대로 산을 떠받치고 있게 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용백이 낚시 한 번으로 자라 여섯 마리를 잡아서 짊어지고 가 버리자 산 두 개가 바다로 가라앉았다고 한다. 《列子 湯問》

거니와 꽃피는 날과 눈 쌓인 풍경은 놔두고 논하지 않네. 아, 강호(江湖)의 승경을 보지 못한 채 반평생이 이미 지나버렸으니 주인의 흥금을 알고자 한다면 한번 이 누정에 올라야 하리라.

## 구원을 뒤미처 보내는 서문<sup>164</sup> 이춘원이다

追送九畹序 李春元

세상은 창성한 시절을 열었으니 황하는 천년의 운수에 응하였고,<sup>165</sup> 하늘은 성인의 역수(曆數)가 돌아오니 사람은 팔월의 뗏목을 타도다.<sup>166</sup> 놀란 오리가 날개를 들고 무리에서 떨어진 기러기가 그림자를 남기네. 더구나 장맛비가 계주(薊州)<sup>167</sup>의 들판을 덮어 수레와 상자는 물에 잠기고 무더운 구름이 진성(秦城)<sup>168</sup>에 내려앉아 입과 눈에선 흙을 토하네. 대부(大夫)가 험한 강산을 넘는 일은 삼복의 무더위 때만이 아니거니와 오랑캐 기병이 횡행하는 것은 사방 교외의 보루에서 바로 마주치네. 또한 몹시 두려워할 만

164 구원(九畹)을…서문 : 구원은 이춘원(李春元, 1571-1634)의 호로, 본관은 함평(咸平), 자는 원길(元吉)이다. 1613년(광해군5)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이에 반대하다가 파직된 적이 있다. 이 서문은 이춘원이 1620년(광해군12) 50세 때 성절사(聖節使)로 북경을 다녀올 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165 세상은…응하였고 : 명나라 황제가 새로 즉위한 일을 말한 것으로, 신종(神宗) 만력제(萬曆帝)가 1620년 7월에 승하하여 맏아들 광종(光宗)이 8월에 즉위하였다. 삼국 시대 위(魏)나라 이강(李康)의 <운명론(運命論)>에 이르기를, “황하가 맑아지면 성인이 나온다.[黃河清而聖人生.]”라고 하였는데, 그 주석에 “황하는 천 년 만에 한 번 맑아지는데, 황하가 맑아지면 성인이 그때에 나온다.[黃河千年一清, 清則聖人生於時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六臣註文選 卷53》

166 하늘은…타도다 : 명나라 광종의 즉위를 하례하기 위해 8월에 사신이 떠났다는 말이다.

167 계주(薊州) : 지금의 하북성 천진시(天鎮市) 계현(薊縣)이다. 북경 가까이 동쪽에 있으며 조선 시대에 북경으로 가는 사행의 경유지였다.

168 진성(秦城) : 진(秦)나라의 장성(長城), 즉 만리장성을 가리킨다.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네. 신무(神武)한 창을 이미 휘두르자 우리들이 거의 근심할 게 없게 되었는데<sup>169</sup> 황제의 춘추(春秋)가 바야흐로 넉넉하신 때 이 말이 어찌 이르렀단 말인가?<sup>170</sup> 국토를 회복시키고 망국(亡國)을 보존시켜 주었으니 우리를 낳아 주지 않았어도 부모와 진배없고 혼백을 되돌리고 뼈에 살을 붙여 주었으니 천지간에 그 은덕을 보답하기 어렵도다. 아, 향국(鄉國 우리나라)에서 다시 맞이할 날은 올 때가 머지 않았으니 양관(陽關)을 이번에 떠날 때 고인(故人)이 없더라도 무슨 슬퍼할 게 있으리오.<sup>171</sup> 황도(皇都)의 맑은 가을에 대궐을 바라볼 때 옛 모습 그대로이고 용만(龍灣 의주)의 흰 눈 아래 수레를 돌려 올 때 새 은총 함께 하기를 오직 바라노라. - 벗 구원이 자못 정성을 들여 변려(駢麗) 서문을 써 달라고 하였는데 내가 벼슬살이에 바쁜 이유로 겨를이 없었다. 구원이 하직하고 떠나는 날에 이 일로 성이 나서 말을 하기에 곤장 속직 중에 붓을 놀려 짧은 서문을 이루어 뒤미쳐 부친다. -

169 신무(神武)한…되었는데 : 신종 만력제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원병을 파견하여 구해 준再造지은(再造之恩)을 가리킨다.

170 황제의…말인가 : 신종 만력제가 1620년 7월 58세의 나이로 승하하여 황제의 부음(訃音)을 우리나라에 전해 온 일을 말한다.

171 양관(陽關)을…있으리오 : 양관은 본래 중국 서쪽 변경의 관명(關名)인데, 고인(古人)들이 흔히 이곳에서 나그네나 군인들을 전송했다. 당나라 왕유(王維)의 <송원이사안서(送元二使安西)> 시에서 “위성의 아침 비가 가벼운 먼지를 적시니, 객사는 푸르고 푸르려 버들 빛이 새롭구나. 한잔 술 더 기울이라 그대에게 권한 까닭은, 서쪽으로 양관 나가면 친구가 없기 때문일세. [渭城朝雨浥輕塵，客舍青青柳色新。勸君更進一杯酒，西出陽關無故人.]”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이 시에서 맨 첫 구(句)만 재창을 하지 않고 나머지 세 구 모두 재창하는 것을 양관곡(陽關曲)이라고 한다.

## 학곡에게 주는 서문<sup>172</sup> 홍서봉(洪瑞鳳) 휘세(輝世)이다.

贈鶴谷序 洪瑞鳳輝世

대개 듣건대, 천리마가 운로(雲路)에 오를 때는 혹 천 리 내달리는 발굽을 헛디디기도 하고 봉새가 풍소(風霄)에 날아오를 때는 반드시 여섯 달의 휴식을 필요로 한다네.<sup>173</sup> 비록 다시 귀를 내리고 구유에 엮드려 있어도<sup>174</sup> 번개를 뒤쫓는 자질을 여전히 품고 있

172 학곡(鶴谷)에게 주는 서문 : 학곡은 홍서봉(洪瑞鳳, 1572~1645)의 호이다.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휘세(輝世),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1612년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에 장인 황혁(黃赫)이 화를 입자 변호하다 파직되어 초야에 묻혀 지내다가 1623년 인조반정에 가담하였고, 1628년 유효립(柳孝立)의 모반을 고변하여 영사(寧社)공신이 되었다. 이 서문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홍서봉이 장인의 일로 인해 초야에 묻혀 지낼 때 조찬한이 지어 준 것으로 보인다.

173 천리마가...한다네 : 홍서봉을 천리마와 봉새에 비유하여 그가 재덕을 품고도 지우(知遇)를 입지 못하고 있는 처지를 위로하여 말한 것이다. 운로(雲路)는 구름이 지나는 길 혹은 하늘에 오르는 길을 가리키고 풍소(風霄) 역시 하늘을 가리키는 데서 둘다 벼슬길을 비유한다. 봉새는 《장자(莊子)》〈소요유(逍遙遊)〉에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을 곤(鯤)이라 한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변하여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을 봉(鵬)이라 한다. 봉새의 등은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 봉새가 남쪽 바다로 날아갈 때는 물결을 3천 리나 박차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9만 리나 날아올라 여섯 달을 가서야 쉰다.[北冥有魚, 其名爲鯤, 鯤之大不知其幾千里也. 化而爲鳥, 其名爲鵬, 鵬之背不知其幾千里也. … 鵬之徙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萬里, 去以六月息者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74 비록...있어도 : 천리마가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삼국시대 위(魏)나라 조조(曹操)의 시 〈보출하문행(步出夏門行)〉에 “늙은 준마는 구유에 엮드려 있어도 뜻은 천 리 밖에 있고, 열사는 늘그막에도 웅대한 마음은 그치지 않는다.[老驥伏櫪, 志在千里, 烈士暮年, 壯心

거니와 부리 올리고 바다에 잡겨 있어도<sup>175</sup> 물 치는 날개를 더욱 가다듬는다네. 그런데 하물며 용방(龍榜)에 거둬 올라 두 번 장원했다는 명성을 독차지하고<sup>176</sup> 난서(鸞書)를 누차 관장하여 다들 3대에 걸친 업이라고 일컬음에라.<sup>177</sup> 맹모(孟母)가 과연 있었으니 맹자(孟子)는 거둬 환경을 옮긴 데서 일찌감치 힘입었고<sup>178</sup> 호부(虎父)가 어찌 없었겠나, 호아(虎兒)가 끝내 훌륭한 문채를 이루었구나.<sup>179</sup> 약관(弱冠)의 나이에 무리에서 뛰어나 이름 날리고 명예가 자자했네. 근래 인척(姻戚)이 재앙을 받은 일을 만나 잠시 날개

不已.]”라고 하였다. 《樂府詩集 卷37 步出夏門行》

- 175 부리…있어도 : 봉새가 바다에서 부리만 올린 채 쉬고 있는 모습을 말한다. 한유(韓愈)의 시에 “뚝 떨어져 솟은 절벽 깎아지른 듯하고, 바다에 목욕한 봉새가 부리 올리는 듯하네.[孤撐有巖絕, 海浴褰鵬噉.]”라고 하였다. 《韓昌黎集 卷1 南山詩》
- 176 용방(龍榜)에…독차지하고 : 용방은 문과(文科)의 합격자 명단으로, 홍서봉은 1594년(선조27) 별시(別試)에서 병과(丙科) 1위로 급제하였고, 1608년(광해군즉위) 중시(重試)에서 갑과(甲科) 2위로 급제하였다.
- 177 난서(鸞書)를…일컬음에라 : 난서는 황제나 임금이 내리는 조서와 같은 문서로, 특히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외교문서를 가리킨다. 조부 홍춘경(洪春卿), 부친 홍천민(洪天民)과 홍서봉까지 3대가 모두 급제 후에 외교문서를 관장하는 승문원(承文院)에 분관(分館)된 일을 말한다.
- 178 맹모(孟母)가…힘입었고 : 맹자(孟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거처를 옮겼다는 고사로, 여기서는 홍서봉의 어머니가 아들을 잘 교도(教導)하였다는 말이다. 유향(劉向)의 《열녀전(列女傳)》에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의 고사가 실려 있는데, 무덤 근처에 집을 정하자 맹자가 매장하는 놀이를 하고, 시장 가까이 집을 정하자 맹자가 장사하는 놀이를 했으므로 결국 학교 가까이로 이사를 하고 난 뒤 공부에 매진하여 훌륭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 179 호부(虎父)가…이루었구나 : 훌륭한 부친의 교도를 통해 부친을 닮은 훌륭한 아들이 되었다는 말이다.

를 접고 자취를 곱혔구나.<sup>180</sup> 절뚝이는 나귀 타고 헤진 모자 쓴 걸 보면 누가 미원(薇垣)의 신선<sup>181</sup>이었던 줄 알리오. 자초(紫貂)에 금선(金蟬)<sup>182</sup> 차림으로 일찍이 난파(巒坡)의 나그네<sup>183</sup>였었네. 지금 가형(家兄)이 수령이 되었으니 편히 봉양할 정성은 이루어졌지만<sup>184</sup> 자당(慈堂)이 눈에 들어오니 오직 혼정신성(昏定晨省) 못할 일이 마음에 걸리네. 금익(錦翼)을 조령(鳥嶺)에서 돌리니 흔쾌하게 보기를 앞다두고,<sup>185</sup> 문성(文星)을 주천(酒泉)에 떨어뜨리니 놀라

180 근래… 곱혔구나 : 1612년(광해군4) 홍서봉이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에 장인 황혁(黃赫)이 화를 입자 그를 변호하다 파직되어 초야에 묻혀 지내고 있는 것을 말한다. 김직재의 무옥은 1612년 봄 봉산군수(鳳山郡守) 신울(申慄)이 도적 김제세(金濟世)를 붙잡아 심문하자 ‘김직재(金直哉)가 반역을 도모하였다.’고 무고하면서 시작된 옥사를 말한다. 이후 김직재를 국문하는 과정에서 그가 ‘황혁 등과 함께 음모를 꾸며 순화군(順和君)의 양자(養子)인 진릉군(晉陵君) 이태경(李泰慶)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였다.’고 자백하면서, 김직재와 김백함 부자는 물론, 직재의 사위 황보신(皇甫信) 및 일족, 정경세(鄭經世), 정호선(丁好善), 최유해(崔有海) 등이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다. 《燃藜室記述 卷十九 光海君故事本末 金直哉之獄》

181 미원(薇垣)의 신선 : 홍서봉이 사간원 정언(正言)을 지낸 일을 가리킨다.

182 자초(紫貂)에 금선(金蟬) : 자초는 담비의 일종으로 검정색에 부드럽고 가벼워 귀한 모피이고 금선은 한(漢)나라 때 시중(侍中)과 상시(常侍)의 관을 꾸민 장식으로 금(金)은 굳셈을 드러내고 선(蟬)은 고결(高潔)함을 취한 것이다. 둘 다 조정의 높은 관직인 시종신(侍從臣)을 비유한다.

183 난파(巒坡)의 나그네 : 홍서봉이 홍문관 교리(校理)를 지낸 일을 가리킨다. 난파는 한림원(翰林院)의 별칭으로, 흔히 예문관이나 홍문관 등 문관을 다루는 관직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184 지금… 이루어졌지만 : 홍서봉의 형 홍서룡(洪瑞龍)이 지방관이 되어 연로하신 부모를 봉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185 금익(錦翼)을… 앞다두고 : 홍서봉이 노친을 뵈기 위해 조령을 넘었다는 말이다. 금익(錦翼)은 비단처럼 아름다운 날개로, 홍서봉을 비유한



전하는 일 뒤늦을까 걱정했네.<sup>186</sup> 바야흐로 용예(融洩)가 아직 흡족하지 않은데<sup>187</sup> 어찌하여 만났다 헤어지기를 바로 재촉하는지. 내 일찍이 도를 보기를 구름처럼 하였고 바람 따라 바다를 보았네. 오늘 아침 한마디 말을 줄 때 느릅나무에 닿을 정도로 나는 것<sup>188</sup>이라 스스로 부끄럽지만 훗날 떠난 자취 뒤따를 때 응당 꼬리에

다.

- 186 문성(文星)을…걱정했네 : 홍서봉이 노친을 뵈러 예천(禮泉)에 내려간 일을 말한다. 문성(文星)은 문운(文運)을 주관한다는 문창성(文昌星)의 약칭으로, 전하여 문재(文才)가 높은 사람을 비유하는데, 여기서 홍서봉을 가리키고 주천(酒泉)은 예천의 고향이다. 홍서봉의 《학곡집(鶴谷集)》 권1에 〈노친을 뵈기 위해 예천으로 가다[爲觀老親行向禮泉]〉, 권2에 〈예천 군재에서 대재 상인에게 주다[禮泉郡齋, 贈大哉上人]〉라는 시가 있다.
- 187 용예(融洩)가…않은데 : 노친을 모시는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말이다. 용예는 ‘예예용용(洩洩融融)’ 또는 ‘용용예예(融融洩洩)’의 준말로, 《춘추좌씨전》 은공(隱公) 원년에 나오는 말이다. 정(鄭)나라 장공(莊公)이 아우 공숙단(共叔段)의 반란을 평정한 뒤에 그와 공모(共謀)한 어머니 강씨(姜氏)를 성영(城穎)에 유폐하고 다시 안 만나겠다고 했다가, 영고숙(穎考叔)의 충언을 듣고 땅굴을 통해 들어가서 강씨를 만났다. 그때에 장공이 노래하기를 “대수 안에 그 즐거움이 화락하네.[大隧之中, 其樂也融融.]” 하였고, 그 어머니가 나와서 노래하기를 “대수 밖에는 그 즐거움이 퍼지도다.[大隧之外, 其樂也洩洩.]” 하였다. 그 주석에 “용용은 화락(和樂)이고 예예는 서산(舒散)이다.” 하였다.
- 188 느릅나무에…것 : 《장자》〈소요유〉에 “봉새가 남쪽 바다로 옮겨 갈 때에는 물결을 치는 것이 3천 리요, 회오리바람을 타고 9만 리를 올라가 여섯 달을 가셔야 쉰다.…그것을 보고 매미와 메까치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훌쩍 솟아올라 느릅나무와 박달나무 있는 데까지만 가려 해도 때로는 이르지 못하고 땅바닥에 떨어지고 마는데, 어찌하여 9만 리나 날아가서 남쪽으로 간단 말이나.’ 한다.[蜩與學鳩笑之曰, 我決起而飛, 檜榆枋, 時則不至, 而控於地而已矣. 奚以之九萬里而南爲?]”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전하여 느릅나무에 닿을 정도로 난다는 것

붙은 날개를 가엿게 여기리라.<sup>189</sup>

---

은 곧 봉황(鳳凰)이나 봉새[鵬] 같은 큰 새에 비하여 아주 자잘한 못 새들처럼 보잘것없는 자신을 겸사로 비유한 것이다.

- 189 응당…여기리라 : 천리마 같은 홍서봉이 파리 날개 같은 자신을 생각해 줄 것이라는 겸사이다. 사기(史記) 권61 <백이열전(伯夷列傳)>에 “안연이 비록 학문이 독실하나 천리마 꼬리에 붙어 행실이 더욱 드러났다.[顏淵雖篤學，附驥尾而行益顯.]”라고 하였는데, 그 주에 “파리가 천리마 꼬리에 붙어 천 리를 가는 것으로 안회가 공자를 인하여 이름이 드러난 것을 비유한 것이다.[蒼蠅附驥尾而致千里，以譬顏回因孔子而名彰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이자강을 보내는 서문

送李子剛序

대개 가난을 편히 여기는 지락(至樂)은 만종(萬鍾)의 봉록으로 유혹할 수 있는 것<sup>190</sup>이 아니거니와 도(道)를 위해 죽으려는 초심(初心)은 어찌 삼군(三軍)의 장수를 빼앗는 것과 같으리오.<sup>191</sup> 선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러한 점이 있어서라네. 지금 그대는 고아한 지조가 빙상(氷霜)보다 매서우니 세상을 경영(經營)하는 데 뜻을 두었고, 고상한 논의가 산악(山岳)조차 꺾으니 신령에게 질정(質正)해도 의심이 없다네. 가업(家業)을 받들어 집안을 계승하니 명성이 이미 젊은 날에 드러났고 문사(文詞)를 지어 사화(詞華)를 떨치니 사람들이 더러 그 부친의 품모라고 칭송하기도 하네. 도를 들은 건 그대가 먼저였는데 서로 만나본 건 어찌 이리 늦었던가. 봄옷을 아직 갈아입지 않았는데 낙양(洛陽)의 갓옷이 벌써

---

190 만종(萬鍾)의…것 : 만종의 봉록은 아주 많은 녹봉인데, 춘추 시대 제나라의 단위로는 1종(鍾)이 6곡(斛) 4두(斗)에 해당한다. 맹자가 이르기를 “삶도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의리도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 … 만종의 봉록에 대해서는 전혀 예의를 분별하지 않고 받는데 만종의 봉록이 과연 나에게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궁실의 아름다움과 처첩의 시종과 평소에 알고 지내던 궁핍한 사람이 나에게 고마워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萬鍾則不辨禮義而受之, 萬鍾於我何加焉? 爲宮室之美, 妻妾之奉, 所識窮乏者得我與.]”라고 한 말이 보인다. 《孟子 告子上》

191 삼군(三軍)의…같으리오 : 품은 뜻이 확고하여 꺾을 수 없다는 말로, 《논어》〈자한(子罕)〉에 “삼군을 거느리는 장수(將帥)는 빼앗을 수 있으나, 필부의 뜻은 빼앗을 수 없다.[三軍可奪帥也, 匹夫不可奪志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해졌고<sup>192</sup> 운로(雲路 벼슬길)는 의지하기 어려우니 변방의 말을 잃음 직하네.<sup>193</sup> 꽃 핀 물가에서 음악 연주 속에 잠깐 사이 벗이 되는 즐거움을 누렸더니 깨끗한 누대에서 거문고와 술동이 두고 이별하는 눈물이 바로 재촉하네. 한은 방초(芳草)와 같으니<sup>194</sup> 어찌 그

192 낙양(洛陽)의…해졌고 : 전국 시대 낙양인(洛陽人) 소진(蘇秦)이 합종책(合縱策)을 주장하면서 제후를 설득하러 돌아다닐 적에, 조나라의 대신 이태(李兌)로부터 ‘검은 담비 가죽옷[黑貂之裘]’과 황금 100일(鎰)을 받고서 진(秦)나라에 들어갔는데, 오래도록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죽옷도 모두 해지고 황금도 다 떨어져서 피죄죄한 물골로 초라하게 돌아온 ‘구폐금진(裘敝金盡)’의 고사가 전한다. 《戰國策 卷3, 秦策1》

193 변방의…직하네 : 인간의 이해득실이 무상하여 예측할 수 없음을 비유한다. 《회남자(淮南子)》〈인간훈(人間訓)〉에 “대체로 화(禍)와 복(福)은 전환되어 상생하므로 그 변화를 알기 어렵다. 변세에 사는 사람 중에 추수(推數)에 능한 늙은이가 있었다. 그의 말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달아나 호인(胡人)의 지역으로 들어가 버리자, 사람들이 위로하니, 그 늙은이가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그 뒤 몇 달이 지나서 달아났던 말이 준마(駿馬)를 데리고 돌아오자, 사람들이 모두 경하하니, 그 늙은이가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화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늙은이의 아들이 말타기를 좋아하다가 떨어져서 넓적다리가 부러지자, 사람들이 모두 위로하니, 그 늙은이가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그 뒤 1년이 지나서 호인이 대거 변세를 침입하는 바람에 변세 부근에 사는 장정들이 나가 싸우다가 10분의 9나 죽었으나, 그 늙은이의 아들은 절뚝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징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등 그 변화가 끝이 없으므로 화와 복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94 한은 방초(芳草)와 같으니 : 당(唐)나라 최호(崔灝)의 〈황학루(黃鶴樓)〉 시에 “날 갠 냇물엔 한양의 숲이 역력히 비치고, 향기로운 풀은 앵무주 물가에 무성하도다. 날은 저무는데 향관이 그 어드메노, 연기 자욱한 강가에서 사람을 시름하게 하네. [晴川歷歷漢陽樹, 芳草萋萋鸚鵡洲. 日暮鄉關何處是, 煙波江上使人愁.]”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치겠는가. 시름은 낙화(落花)와 함께 끝이 없구나. 아, 푸른 물결  
에서 흰 갈매기 노니니 어디에 다시 이보다 즐거운 곳이 있으랴.  
푸른 산과 밝은 달 있으니 가는 곳마다 고향 아님이 없네. 구학정  
(龜鶴亭) 앞에 돌아갈 길이 먼 것을 탄식하지 말지니, 봉황산(鳳凰  
山) 아래 노년을 마칠 약속을 다져야 하리.

이별하는 자리에서 오 종사관에게 급히 주는 서문<sup>195</sup>  
오숙(吳翮)이다.

臨別走贈吳從事序 翮

청운(靑雲)의 요로(要路)를 오르니 약관(弱冠)의 나이에 훌쩍 뛰어오른 것이고 백수(白水)의 진인(真人)<sup>196</sup>에게 등용되니 소년(少年)에 막부(幕府)에 들어갔네. 신령한 폭풍이 겨드랑이를 스치니 영주(瀛洲)<sup>197</sup>의 층층 파도에 떠가고, 호연(浩然)한 기운이 흥금을 채우니 방장(方丈)의 아름다운 운하(雲霞)를 적시도다. 호산(湖山)을 날래게 다니니 몇 겹이나 감상하리오. 풍광이 끝없이 아름다우니 죽봉(竹峯)에서 선표(仙鑣)를 읊기고<sup>198</sup>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

195 이별하는…서문 : 오 종사관은 오숙(吳翮, 1592~1634)으로,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숙우(肅羽), 호는 천파(天坡)이다. 1612년(광해군4)에 문과에 급제하여 좌승지, 경상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문집으로 《천파집(天坡集)》이 있다. 이 서문은 오숙이 종사관이 되어 영남에 갔을 때 영주(榮州)에서 만나 지은 것인 듯하다.

196 백수(白水)의 진인(真人) : 반정(反正)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인조(仁祖)를 말한다. 백수는 중국 남양(南陽)의 백수현(白水縣)으로,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가 여기에서 일어나 백수진인(白水真人)으로 일컬어졌다. 기운을 잘 보는 왕망(王莽)의 사자가 남양 땅에 이르러 그가 거처하는 용릉(舂陵) 지역을 멀리서 바라보고는 “기운이 성대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니, 왕자가 일어나 천명을 받을 곳임이 분명하다.” 하였다. 《後漢書 卷1 光武帝紀》

197 영주(瀛洲) : 신선이 살고 있다는 바닷속에 있는 산으로, 봉래(蓬萊), 방장(方丈)과 함께 삼신산(三神山)이라 칭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金剛山)을 봉래, 한라산(漢拏山)을 영주, 지리산(智異山)을 방장이라 칭한다.

198 죽봉(竹峯)에서 선표(仙鑣)를 읊기고 : 죽봉은 죽령(竹嶺)이고, 선표는 선인의 행차로, 오숙을 가리킨다.

했는데 영관(榮館)에서 지미(芝眉)를 찢는구나.<sup>199</sup> 그대 만나 놀라고 기쁜 마음을 어찌 말하랴. 풍악 울리는 누대(樓臺)에선 잠시 동안의 즐거움이 흠족하지 않고 가는 길의 말 위에선 옷자락 쥐며 흠치는 눈물이 문득 재촉하네. 밝은 달 아래 단구(丹丘)<sup>200</sup>에서 만일 다시 노닐 계획을 이루거든 가을 바람 속 백발로 오직 말 타고 찾아올 것만 생각하리라.

---

199 영관(榮館)에서 지미(芝眉)를 찢는구나 : 영관은 영주(榮州)의 객관(客館)이고, 지미는 신선(神仙)의 눈썹으로, 역시 오숙을 가리킨다.

200 단구(丹丘) : 밤이나 낮이나 항상 밝은 땅으로, 신선(仙人)이 산다는 곳이다. 굴원(屈原)의 <원유부(遠遊賦)>에 “우인을 따라 단구에서 노닐이여, 장생불사하는 옛 고장에 머물렀네.[仍羽人於丹丘兮, 留不死之舊鄉.]”라고 하였다.

# 이 사서가 어떤 이의 혼례를 위해 옷을 청한 글에 답한 서문

答李司書爲人婚禮乞衣啓序

남은 봄의 자잘한 비단 같아라 낙화(落花)를 대하여 혼이 녹아내리고, 지나는 비의 튀기는 구슬 같아라 보타(寶唾)<sup>201</sup>가 손에 들어온 데 놀라네. 살아 있는 용이 간독(簡牘)에서 일어나는 듯, 맑게 갠 날의 번개가 서신(書信)에서 번득이는 듯하는구나. 한창 운각(芸閣)의 채색 붓을 머리에 꽂으니 청운(靑雲)에 옥처럼 아름답게 섰고<sup>202</sup> 강사(講肆)의 날리는 향기를 머금으니 대낮에 비단옷 차림으로 돌아가네.<sup>203</sup> 까마귀는 반포(反哺)하면서 즐거운 소리를 내겠

201 보타(寶唾) : 본래 미인(美人)의 침과 눈물을 일컫는 데서 비롯하여 타인의 빼어난 시문을 일컫는 말로, 여기서는 이 사서의 글을 말한다.

202 운각(芸閣)의…섰고 : 운각은 도서관(校書館)으로 이 사서(李司書)가 급제한 뒤 도서관에 분관(分館)된 일을 가리키는 듯하다. 채색 붓(彩筆)은 뛰어난 문장 실력을 지칭하는 말로, 중국 남조(南朝) 때의 강엄(江淹)이 어릴 적에 어떤 사람이 오색 붓을 주는 꿈을 꾸고부터 문장이 크게 진보하였는데, 10여 년 뒤에 곽박(郭璞)이라 자칭하는 사람이 다시 붓을 회수해 가는 꿈을 꾸 뒤로는 좋은 문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고사와, 이백(李白)이 어릴 때 그가 사용하는 붓 끝에서 꽃이 피어나는 꿈을 꾸 뒤로 글재주가 뛰어나 천하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는 고사에 근거한다. 《太平御覽 卷398》《開元天寶遺事 卷2 夢筆頭生花》 청운(靑雲)은 벼슬길을 가리킨다.

203 강사(講肆)의…돌아가네 : 강사는 강론하는 자리로, 여기서는 이 사서(李司書)가 세자시강원 사서로서 금의환향(錦衣還鄉)한 일을 가리킨다. 항우(項羽)가 일찍이 진(秦)나라의 함양(咸陽)을 도륙한 뒤에 흑자가 그에게 함양에 그대로 머무르기를 권유하자, 항우가 진나라의 궁실들이 모두 파괴되어 버린 것을 보고는 자기 고향인 강동(江東)



지만 기러기는 대열을 잃어버려 서글픈 울음을 흘리네.<sup>204</sup> 마침 혼례를 인해 말을 올리니 과연 아름다운 문채(文彩)가 대적할 이 없음을 보겠네. 뉘라서 다시 양류춘기(楊柳春旗)의 구(句)를 지으랴, 유신(庾信)의 평생을 유독 칭상(稱賞)하거니와,<sup>205</sup> 관하추색(關河秋色)의 사(詞)는 장형(張衡)의 빼어난 기운 넘어서는 이 없다오.<sup>206</sup> 그러나 이미 천심(天心)을 뚫고 월협(月脅)을 찢는 듯하니 조화(造

으로 돌아가려 하면서 말하기를 “부귀하여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마치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富貴不歸故鄉，如衣錦夜行.]”라고 한 것으로, 인하여 뒤에 부귀하여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비단옷을 입고 낮길을 간다.[衣錦晝行]”는 말이 있게 되었다. 《漢書卷30 項籍傳》

- 204 까마귀는…흘리네 : 이 사서는 돌아가 부모님 모시며 즐겁겠지만 조찬한은 벼를 잃어 슬프다는 말이다. 반포(反哺)는 까마귀 새끼가 장성하면 먹이를 물어다가 제 어미에게 먹여 준다는 데서 온 말로, 이는 곧 자식이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데에 비유된다. 진(晉)나라 성공수(成公綏)의 <오부(烏賦)>에 “새끼가 이미 장성해 능히 넓이여, 먹이를 물어다 어미에게 먹이도다.[雛既壯而能飛兮，乃銜食而反哺.]”라고 하였다.
- 205 뉘라서…칭상(稱賞)하거니와 : 유신(庾信, 513~581)은 북주(北周)의 문장가로 그의 <삼월삼일화림마사부(三月三日華林園馬射賦)>의 서문에 “낙화는 지개와 더불어 일제히 날리고 양류는 춘기와 함께 한 빛갈이라네[落花與芝蓋齊飛，楊柳共春旗一色.]”라고 하였다. 《庾子山集 卷1 賦》 두보(杜甫)의 <영회고적(詠懷古跡)>에, 유신(庾信)이 <애강남부(哀江南賦)>를 읊은 것에 대해 “유신은 평생토록 몹시 쓸쓸했는데, 늘그막에 시부가 강관을 진동했네.[庾信生平最蕭瑟，暮年詩賦動江關.]”라고 하였다.
- 206 관하추색(關河秋色)의…없다오 : 장형(張衡, 78~139)은 후한(後漢) 하남(河南) 사람으로, 자는 평자(平子)이다. <동경부(東京賦)>, <서경부(西京賦)>, <남도부(南都賦)>, <귀전부(歸田賦)> 등 많은 부 작품을 남겨 후한의 대표적인 문장가로 유명한데 여기서 관하추색(關河秋色)의 사(詞)는 그가 지은 작품에 나오는 구절인 듯하나, 자세하지 않다.

化)의 근원을 깊이 궁구하였고 우리가 사납고 바람이 부는 듯하니 귀신의 울음일 뿐만 아니라네.<sup>207</sup> 이 때문에 그대는 영예가 있으면서도 나에게 화려한 글을 겸손히 보내주기까지 하였네. 그대가 어찌 옷이 없어서겠는가마는<sup>208</sup> 나는 사람에게 성대한 덕을 거듭 저버렸네. 다만 생각건대, 어려서부터 익혔지만 백발에도 분란스러운 학문<sup>209</sup>을 가진 내가 황견유부(黃絹幼婦)의 문사(文辭)<sup>210</sup>를 얻었

207 이미…아니라네 : 이 사서의 훌륭한 문장을 묘사한 것이다. 천심과 월협(月脅)은 하늘의 중심과 달의 옆구리로, 빼어난 문장을 이르는 말인바, 당(唐)나라 황보식(皇甫湜)의 <고황집서(顧況集序)>에, “유독 일가 장구에는 탁월하고 격렬한 기세가 있어, 이따금 마치 하늘의 중심을 꿰뚫는 듯, 달의 옆구리를 찢고 나오는 듯이 뜻밖에 사람을 놀래키는 말들은 아무나 미칠 바가 아니다.[偏於逸歌長句, 駿發踔厲, 往往若穿天人出月脇, 意外驚人語, 非尋常所能及.]”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08 어찌 옷이 없어서겠는가마는 : 《시경》〈진풍(秦風) 무의(無衣)>에 “어찌 옷이 없어서 그대와 속옷을 함께 입으리오. 왕명으로 군대를 일으키거든 우리 무기들을 수선하여, 그대와 함께 나가리라.[豈曰無衣, 與子同澤? 王于興師, 修我矛戟, 與子偕作.]”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옷을 핑계로 상대가 나와 함께 하고자 한다는 말이다.

209 어려서부터…학문 : 늙도록 공부하였으나 별다른 성취가 없다는 겸사로, 한(漢)나라 때 양웅(揚雄)의 《법언(法言)》〈오자(吾子)>에 “어려서부터 학문을 익혔지만 백발에도 분란스럽기만 하다.[童而習之, 白紛如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10 황견유부(黃絹幼婦)의 문사(文辭) : 이 사서의 훌륭한 문장을 말한다. 동한(東漢)의 채옹(蔡邕)이 <조아비(曹娥碑)>에 ‘황견유부외손제구(黃絹幼婦外孫齋臼)’라는 여덟 글자의 은어를 써 두었는데 삼국 시대 조조(曹操)가 이 대목을 보고 주부(主簿) 양수(楊修)에게 “그 뜻을 알겠느냐?”라고 묻자, 양수가 안다고 하였다. 조조가 “아직 말하지 말라.” 하고 30리 가량 가서야 그 뜻을 알아차리고 양수에게 말해 보라고 하자, 양수가 파자(破字)하여 “황견은 색이 있는 실[色絲]이므로 ‘절(絶)’ 자가 되고, 유부는 소녀(少女)이므로 ‘묘(妙)’ 자가 되고, 외손은 딸의 아들[女子]이므로 ‘호(好)’ 자가 되고, 제는 매운[辛] 부추이고 구(臼)

네. 보내온 말로 입었으니 덕스러운 말을 입어 싫어함이 없고 말을 먹고서 음식 맛을 잊었으니 고기맛을 먹고도 알지 못하노라.

## 섣달 그믐 밤에 붓을 끄적인 일에 대한 서문

除夜走筆序

동방의 태양이 납월(臘月 섣달)을 바꾸니 생채(生菜)<sup>211</sup>를 씹음에 봄을 알겠고 북두의 자루가 인방(寅方)에 돌아오니<sup>212</sup> 도소주(屠蘇酒)<sup>213</sup> 마시며 세월을 안타까워하네. 가고 오는 깊은 밤이요, 새롭

---

는 받는 것[受]이니 ‘사(辭)’의 약자가 된다. 따라서 ‘절묘호사(絶妙好辭)’ 즉 절묘한 좋은 글이란 뜻이 된다.”라고 풀이하였다. 이에 조조가 “알고 모르는 것이 30리나 차이가 난다.[有智無智較三十里]”라고 하며 탄식하였다. 《世說新語 捷悟》

- 211 생채(生菜) : 옛날 풍속에 입춘(立春)이면 봄을 맞는 의미에서 매운맛이 나는 훈채(葷菜)인 파, 마늘, 부추, 여뀌, 겨자 등 다섯 가지 나물을 만들어 먹고, 또 이 나물을 쟁반에 담아서 이웃에 나누어 주곤 하였다. 두보(杜甫)의 입춘(立春) 시에 “입춘일 춘반 위엔 생채가 보드라웠어라, 장안과 낙양의 전성기가 갑자기 생각나네. 쟁반은 고문에서 나오니 백옥이 왕래하고, 채소는 섬섬옥수로 푸른 실을 보내왔었지.[春日春盤細生菜，忽憶兩京全盛時。盤出高門行白玉，菜傳纖手送青絲.]”라고 하였다.
- 212 북두의…돌아오니 : 북두 자루가 인방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옛날 삼대(三代) 때 하(夏)나라는 초혼(初昏)에 북두칠성의 자루가 인방(寅方)을 가리키는 달인 건인월(建寅月)을 세수(歲首) 즉 정월로 삼았는바, 지금의 음력 1월을 이른다.
- 213 도소주(屠蘇酒) : 도소주는 길경(桔梗), 방풍(防風), 육계(肉桂) 등의 약재(藥材)로 빚은 술을 가리키는데, 옛날 풍속에 이 술을 마시면 사기(邪氣)를 물리친다 하여 정월 초하룻날 이 술을 마셨다. 소식(蘇軾)의 〈제야야숙상주성외(除夜野宿常州城外) 2수〉 중 둘째 수에 “다만 곤궁한 시름을 가지고 늘 건강함과 바꾸니, 맨 뒤에 도소주 마심을 사양하지 않노라.[但把窮愁博長健，不辭最後飲屠蘇.]” 하였다. 옛날 정월 초

고 목은 두 해로다. 우(禹)임금의 촌음(寸陰)은 가버리고서 머물지 않고<sup>214</sup> 공자(孔子)의 시내는 가는 것이 어찌 그리 급하단 말인가.<sup>215</sup> 비록 날마다 줄로 끌어당기더라도 날아가는 세월을 붙잡기 어려우니, 밤마다 촛불을 잡아야 마땅한데 하물며 이 날을 만났음에랴. 여상보(呂尙父)의 팔순<sup>216</sup>은 어느새 다가오고 있고 공문거(孔文舉)의 오십<sup>217</sup>은 홀연히 이미 이르렀구나. 그렇지만 8천 년을 봄으로 삼는 것<sup>218</sup>은

---

하루에 도소주(屠蘇酒)를 마시는 순서는 나이 어린 사람부터 먼저 마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맨 뒤에 마신다. 이는 나이 어린 사람은 한 해를 얻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한 해를 잃었기 때문이라 한다. 《東坡詩集註 卷22》

- 214 우(禹)임금의…않고 : 진(晉)나라 도간(陶侃)이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대우는 성인인데도 촌음을 아꼈으니,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응당 분음을 아껴야 할 것이다.[大禹聖者, 乃惜寸陰, 至於衆人, 當惜分陰.]”라고 하였다. 《晉書 卷66 陶侃列傳》
- 215 공자(孔子)의…말인가 : 공자(孔子)가 시냇가에서[在川上] “흘러가는 것은 이와 같구나! 밤이고 낮이고 멈추는 법이 없도다.[逝者如斯夫, 不舍晝夜.]”라고 탄식한 말이 《논어》〈자한(子罕)〉에 나온다.
- 216 여상보(呂尙父)의 팔순 : 여상보는 강태공(姜太公), 즉 태공망(太公望) 여상(呂尙)으로, 70세에 위수(渭水) 가에서 낚시질을 시작해서 소일하다가 80세에 주 문왕(周文王)을 만나 출사하여 보좌하고, 주 무왕(周武王)을 도와 상(商)나라를 멸망시켰다. 《史記 卷32 齊太公世家》
- 217 공문거(孔文舉)의 오십 : 문거는 후한(後漢) 때의 명사 공융(孔融)의 자이다. 오(吳) 지방의 명사인 성헌(盛憲)이 손책(孫策)의 위협을 받자, 공융이 당시 승상으로 있던 조조(曹操)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덧없는 세월이 물처럼 흘러가 오십의 나이가 어느덧 닥쳐와서 공은 이제 막 오십이 되었고 나 역시 거기에 두 살을 더 먹었습니다.”라고 하며, 그를 구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三國志 卷51 吳志 孫紹傳注》
- 218 8천…것 : 흔히 장수(長壽)의 비유로 쓰이는 대춘(大椿)이라는 나무로, 《장자》〈소요유(逍遙遊)〉에 “초나라 남쪽의 명령은 5백 년을 봄으로 삼고 5백 년을 가을로 삼으며, 상고 시대의 대춘은 8천 년을 봄으로 삼고 8천 년을 가을로 삼는다.[楚之南有冥靈者, 以五百歲爲春, 五百歲爲秋. 上古有大椿者, 以八千歲爲春, 八千歲爲秋.]”라는 말이 나온다.

이 또한 한계가 있으니 3만 일을 수명으로 정한 것<sup>219</sup>은 참으로 합당치 않은 게 아니라네. 하물며 지금 형제가 상을 마주하여 바야흐로 천 리 떨어져 지내던 얼굴을 만났고 조카와 손자들 방에 가득하여 한 밤의 기쁨을 누리고 있음에랴. 함께 모여 새해를 맞이하니 어찌 공명(功名) 세움이 늦어버렸음을 탄식하겠나. 즐거워하며 여생을 마무리하니 술이나 잔뜩 마심을 싫어하지 않아야지.

---

219 3만…것 : 대략 1백 년을 사는 인간의 정해진 수명을 가리킨다.

## 소 疏

### 설도인 화연을 대신하여 올리는 소<sup>220</sup>

代薛道人化緣疏

홀쩍 먼저 사라지는 아침 이슬은 백발의 인간 세상에 무슨 마음 이리오. 한량 없는 봄바람은 자하(紫霞)의 동내(洞內)<sup>221</sup>에서 긴 꿈을 꾸다네. 이에 생각건대 대낮에 하늘에 오르는 일은 굳이 단사

---

220 설도인(薛道人)…소 : 이 글은 임숙영(任叔英)의 《소암집(疏菴集)》 卷 8에도 같은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수록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약간의 글자 출입이 있다.

221 자하(紫霞)의 동내(洞內) : 자하는 자줏빛 운하(雲霞)로, 신선이 타고 다니는 것인바, 신선이 사는 곳을 가리킨다.

(丹沙)를 복용할 것은 없네.<sup>222</sup> 옥액(玉液)과 금진(金津)<sup>223</sup>을 복용함에 더욱 범이 내달리고 용이 뛰어오르듯이 되고 요쟁(瑤箏)과 철적(鐵笛)<sup>224</sup>을 연주함에 장차 봉황이 춤추고 난새가 날갯짓함을 보겠네. 본래 밤중에 보존되는 것이지 하늘 밖에서 얻는 게 아니라오. 천 자나 일령이는 옥망의 파랑(波浪)을 맑히고 한 덩어리의 순일한 양기(陽氣)를 운행하네. 악양루(岳陽樓)에 세 번 들어간들 세인(世人)들이 어찌 왕래함을 알겠는가.<sup>225</sup> 봉래전(蓬萊殿)<sup>226</sup>에 한 번 오르

222 이에…없네 : 온 집안사람들이 모두 신선이 되어 대낮에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른바 ‘백일상승(白日上昇)’ 혹은 ‘백일승천(白日昇天)’의 고사를 말한다. 한(漢)나라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이 단약(丹藥)을 제련하여 온 가족을 이끌고 백일(白日)에 승천(昇天)하였는데, 그때 그 집의 개와 닭들까지도 그릇에 남은 약을 훔아먹고는 뒤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닭은 하늘 위에서 울고 개는 구름 속에서 짖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神仙傳 劉安》 단사(丹沙)는 불로장생의 선약(仙藥)으로, 진(晉)나라 갈홍(葛洪)의 《포박자(抱朴子)》〈금단(金丹)〉에 “모든 초목은 태우면 재가 되지만 단사는 태우면 수은이 된다. 태우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 도로 단사가 되는데, 이를 먹으면 장수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223 옥액(玉液)과 금진(金津) : 둘 다 도가(道家) 제련하여 만드는 이른바 선액(仙液)이다.

224 요쟁(瑤箏)과 철적(鐵笛) : 요쟁은 옥으로 장식한 아쟁이다. 철적은 쇠로 만든 피리로, 주로 은자(隱者)나 고사(高士)들이 이것을 잘 불었다고 한다. 주희(朱熹, 1130~1200)의 〈철적정서(鐵笛亭序)〉에 의하면 무이산(武夷山)에 사는 은자 유군(劉君)이 “철적을 잘 불었는데, 구름을 뚫고 돌을 찢는 소리가 난다.[善吹鐵笛, 有穿雲裂石之聲.]”라고 하였다. 《朱子大全 卷9》

225 악양루(岳陽樓)에…알겠는가 : 여암(呂巖)이 악양루(岳陽樓)에 제(題)한 시에 “세 번이나 악양에 들어가도 아무도 몰라보니, 낭랑하게 읊조리며 동정호를 날아가네.[朝遊岳鄂暮蒼梧, 袖有青蛇膽氣羸. 三入岳陽人不識, 朗吟飛過洞庭湖.]”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26 봉래전(蓬萊殿) : 삼신산(三神山) 가운데 하나인 봉래산(蓬萊山)의 신선이 사는 거처를 말한다.

면 신선(神仙)의 유무를 막 깨닫는도다. 만학(萬壑)과 천봉(千峯)에 길을 헤매니 복사꽃은 진경(眞境)을 나누지 않고<sup>227</sup> 십주(十洲)와 삼도(三島)<sup>228</sup>에 구름이 걸쳐 있으니 밝은 달 아래 어디가 요대(瑤臺)인가.<sup>229</sup> 마음은 옥추(玉樞)<sup>230</sup>에 침잠하고 입은 두결(斗訣)<sup>231</sup>을 읊조리네. 이날에 몸을 훌쩍 날려 오직 호리병 속의 건곤(乾坤)<sup>232</sup>만 생각하고, 훗날에 온 집안 들어올려 감히 구름 속 닭과 개를 바라보리라.<sup>233</sup> 이것이 원하는 것이니 다른 일이야 어찌 족히 말할 게 있으랴.

- 
- 227 복사꽃은…않고 : 진(晉)나라 때 무릉의 어부가 길을 잃고 복사꽃이 흘러 내려오는 물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갔다가 진(秦)나라 때에 난리를 피해 들어온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곳이 워낙 선경(仙境)이라서 바깥세상을 전혀 모른 채 살고 있었다. 어부는 이 마을에 며칠 머무르며 후한 대접을 받고 떠나 왔는데, 뒤에 다시 이 마을을 찾고자 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陶淵明集 卷6 桃花源記》
- 228 십주(十洲)와 삼도(三島) : 삼도는 삼신산(三神山)으로, 동해에 있다고 하는 봉래산, 방장산(方丈山), 영주산(瀛洲山)을 가리키는데, 금빛 자라가 등으로 이 산을 지고 있다고 한다. 《拾遺記 高辛》 십주는 선인(仙人)이 거주한다는 10곳의 섬으로, 즉 조주(祖洲), 영주(瀛洲), 현주(玄洲), 염주(炎洲), 장주(長洲), 원주(元洲), 유주(流洲), 생주(生洲), 봉린주(鳳麟洲), 취굴주(聚窟洲)를 말한다. 《海內十洲記》
- 229 밝은…요대(瑤臺)인가 : 요대는 옥으로 장식한 누대로, 전설 속의 신선의 거처이다. 이백(李白)의 〈청평조(淸平調)〉에 “군옥의 산 정상에서 본 것이 아니라면, 요대의 달빛 아래에서 만난 것이 분명하네.[若非群玉山頭見, 會向瑤臺月下逢.]” 하였다.
- 230 옥추(玉樞) : 도가(道家)의 경전인 옥추경(玉樞經)을 말한다.
- 231 두결(斗訣) : 복두칠성에 비는 주문인 듯하나 자세하지 않다.
- 232 호리병 속의 건곤(乾坤) : 호중(壺中), 호중천(壺中天)이라 하여 별천지, 신선의 세계를 뜻한다.
- 233 훗날에…바라보리라 : 원문의 ‘발택(拔宅)’은 집을 뽑아 하늘로 올라간다는 ‘발택상승(拔宅上昇)’에서 나온 말이다. 동진(東晉) 때 진곤(眞君)이 온 집안 식구 42명과 함께 집을 뽑아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에서 나왔다. 《太平廣記 卷14》





## 전 箋

대비전에 존호를 올린 뒤 대전에 하례하는 전문<sup>234</sup> 계해  
년(1623, 인조1) 8월이다.

大妃殿上尊號後大殿賀箋 癸亥八月

옛것을 바꾸어 새롭게 하니 어려움을 극복한 형통한 운수를 만  
나고<sup>235</sup> 효도로 자전(慈殿)을 받드니 존호 올리는 아름다운 의식을  
거행합니다. 기쁨은 신료들에게 넘치고 경사는 종사(宗社)에 관계  
됩니다. 삼가 생각건대, 전하는 왕위에 막 즉위해 조심하고 두려  
워하시고 뜻을 기름에 화락하셨습니다. 태양이 처음 떠오르니 운  
리가 바로잡힘을 통쾌하게 바라보고 곤의(坤儀)가 거듭 숙정(肅  
正)해지니 궁에 유폐된 원통함을 바로 씻어내었습니다.<sup>236</sup> 이에 그

234 대비전에…전문(箋文) : 1623년 인조가 광해군을 축출한 뒤 광해군  
에 의해 서궁에 유폐되었던 인목대비(仁穆大妃)에게 존호를 올릴 때  
지은 글이다.

235 옛것을…만나고 : 인조가 계해반정(癸亥反正)으로 광해군 정권을 무  
너뜨리고 새로 다스리게 된 일을 말한다. 원문의 ‘濟屯’은 둔괘(屯卦)  
) 단사(彖辭)의 정전(程傳)에 “둔(屯)은 크게 형통할 도가 있으나 처함  
은 이로움이 정도를 굳게 지키에 있으니, 정도를 굳게 지키지 않으  
면 어떻게 어려움을 구제하겠는가.[屯, 有大亨之道而處之利在貞固,  
非貞固, 何以濟屯.]”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36 태양이…씻어내었습니다 : 인조가 즉위하여 명분을 바로잡고 서궁

뿔뿔한 칭호를 책봉해 올리니 참으로 사람들의 바람에 흡족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들은 모두 용렬한 자질로 성대한 세상을 다행히 만났습니다. 북두(北斗)가 어긋나고 산이 무너지니 모후의 위익이 끝나지 않기를 우리르고 오리처럼 종종걸음 놓고<sup>237</sup> 소호(召虎)처럼 절하니<sup>238</sup> 성인의 수명이 다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

에 유폐되었던 인목대비가 지위를 회복한 것을 말한다.

237 오리처럼 종종걸음 놓고 : 원문의 ‘鳧趨’는 오리걸음처럼 걸어 나가는 것, 곧 신하가 임금 앞에 몸을 굽히고 조심히 걸어나가는 것을 형용한 말이다. 《통전(通典)》에 이르기를, “위나라에서는 여러 관청의 주사를 부압이라고 칭했으니, 오리의 신속함을 취한 것이다.[魏以諸曹走使曰鳧鴨, 取其迅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38 소호(召虎)처럼 절하니 : 원문의 ‘虎拜’는 주나라 소공(召公)은 이름이 호(虎)로, 선왕(宣王) 때 회이(淮夷)의 난을 평정하고 공을 세웠는데, 《시경》〈대아(大雅) 강한(江漢)〉에 “소호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니, 천자께서 만년을 누리소서.[虎拜稽首, 天子萬年.]”라고 하였는바, 뒤에 대신이 천자에게 절하는 것을 호배라고 한다.

정월 초하루에 백관이 하례하는 전문 기사년(1629, 인조 7) 정월이다.

正朝百官賀箋 己巳正月

건인월(建寅月)<sup>239</sup>의 때를 만나니 성대한 덕이 목(木)에 있음<sup>240</sup>을 알겠고, 태양이 정오가 된 것과 같으니 지극한 교화가 끝이 없음을 경하합니다. 즐거움은 온나라가 똑같고 기쁨은 조야(朝野)에 넘쳐 흐릅니다. 삼가 생각건대, 요(堯)임금을 스승 삼을 때 위대한 하늘과 같게 하고<sup>241</sup> 순(舜)임금을 체화할 때 중도(中道)를 씁니다.<sup>242</sup> 동혼(銅渾)으로 옥형(玉衡)을 돌리니 귀주(龜籌)를 조정하여 칠정

239 건인월(建寅月) : 초혼(初昏)에 북두칠성의 자루가 인방(寅方)을 가리키는 달을 가리키는 말로, 지금의 음력 1월, 즉 정월이다.

240 성대한…있음 : 목(木)은 오행(五行) 가운데 하나로 동방(東方)이나 봄을 가리키는바, 초목을 생육시키는 덕을 품고 있다. 《예기》〈월령(月令)〉에, 맹춘지월(孟春之月)은 “성대한 덕이 목에 있다. [盛德在木]”라는 말이 나온다.

241 요(堯)임금을…하고 : 《논어》〈태백(泰伯)〉에 “공자께서 말씀하였다. ‘위대하시다, 요의 임금 노릇 하심이여! 높고 크다, 오직 하늘이 위대하시거늘 오직 요 임금만이 그와 같으셨으니, 그 공덕이 넓고 넓어 백성들이 형용하지 못한다.’ [子曰：大哉堯之爲君也！巍巍乎唯天爲大，唯堯則之，蕩蕩乎民無能名焉!]”라고 하였는데, 주희(朱熹)는 ‘칙(則)’을 “같음[準]과 같다.”고 하였다. 《論語集註 泰伯》

242 순(舜)임금을…씁니다 : 《서경》〈대우모(大禹謨)〉에, 순(舜)임금이 우(禹)에게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약하니, 오직 정밀하게 살피면서 한결같이 행해야만 진실로 그 중도(中道)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七政)을 고르게 하고<sup>243</sup> 옥관(玉管)으로 율(律)을 율기니<sup>244</sup> 봉력(鳳曆)<sup>245</sup>을 준행하여 음양(陰陽)을 조화롭게 합니다. 이에 만물과 더 붙여 모두 봄이 되고<sup>246</sup> 순서를 따라 하나라의 책력(冊曆)을 행합니다.<sup>247</sup> 삼가 생각건대, 신들은 모두 노둔한 자질로 외람되어 커

243 동혼(銅渾)으로…하고 : 해가 바뀌었기에 천체의 운동을 살펴 시절을 고르게 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동혼은 동혼의(銅渾儀), 즉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기구인 혼천의(渾天儀)이고, 옥형은 본래 북두칠성의 다섯 번째 별로 회전을 주관하는데, 전용되어 천문을 관측하는 기구라는 뜻으로 쓰기도 한다. 《서경》〈순전(舜典)〉에 “선기와 옥형을 살펴 칠정을 고르게 하였다.[在璿璣玉衡, 以齊七政.]”라고 하였고, 《사기》〈천관서(天官書)〉에 “북두칠성은 이른바 선기옥형으로서 칠정을 고르게 한다.[北斗七星, 所謂旋璣玉衡 以齊七政.]”라고 하였다. 참고로 칠정은 일(日), 월(月)과 수(水), 화(火), 금(金), 목(木), 토(土)의 오성(五星)을 말한다. 귀주(龜籌)는 거북점을 말하는 듯하나 자세하지 않다.

244 옥관(玉管)으로 율(律)을 율기니 : 고대에 절기(節氣)를 관측하기 위해, 옥(玉)으로 만든 12개의 율관(律管) 끝 부분에 갈대 속의 얇은 막(膜)을 태운 재를 넣어서 밀실(密室) 안 목안(木案) 위에 안치해 놓았는데, 일정 율관에 넣었던 재가 날면 그에 해당하는 절기가 되었음을 알았다 한다.

245 봉력(鳳曆) : 옛날에 소호금천씨(少昊金天氏) 때 봉새가 천시(天時)를 안다 하여 봉조씨(鳳鳥氏)로써 역정(曆正)을 삼았으므로, 세상에서 기년(紀年)을 봉력이라 하였다. 후대에는 이 봉력을 역수(曆數)와 정삭(正朔)을 뜻하는 말로 썼다.

246 만물과…되고 : 주희(朱熹)가 제자 진순(陳淳)의 재(齋)에 지어준 〈경서재명(敬恕齋銘)〉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 베풀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대로 행한다면 만물과 함께 모두 봄이 될 것이다. 안과 밖으로 경(敬)과 서(恕)를 행하면, 사욕이 어디에 붙을 수 있겠는가. 천리가 두루 유행하여 갖춰지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다.[己所不欲, 勿施於人, 以是而行, 與物皆春. 內外敬恕, 私欲何寓, 天理周流, 無所不具.]”라고 하였다. 《晦庵集 卷85》

247 하나라의 책력(冊曆)을 행합니다 : 《논어》〈위령공(衛靈公)〉에서 안연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를 묻자 공자가 “하나라의 책력을 행하고,

다란 은혜를 입었습니다. 대궐을 바라볼 제 터럭만큼의 보탬도 없  
음이 부끄러운지라 대궐 뜰에서 발 구르고 춤을 출 때 다만 뵈와  
같고 구릉 같으시라는 축원<sup>248</sup>만 간절합니다.

---

은나라의 수레를 타고, 주나라의 면관을 쓴다.[行夏之時, 乘殷之輅,  
服周之冕.]” 하였다.

- 248 뵈와…축원 :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송축을 말한다. 《시경》〈소아(小雅) 천보(天保)〉에 나오는 아홉 가지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로, “하늘이 그대를 보정하사 성하지 않은 것이 없는지라, …뵈와 같고 구릉 같으며, …그대에게 모든 것이 길이 무성하리로다.[天保定爾, 以莫不興, …如岡如陵, …無不爾或承.]”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상량문<sup>上梁文</sup>

## 김 첨지의 사우에 대한 상량문

金僉知祠宇上梁文

향사(享祀)를 올림에 어긋나지 않으니<sup>249</sup> 이미 조상을 추모하는 정성을 독실히 행하였거니와 침묘(寢廟)가 이루어짐에 매우 편안하니<sup>250</sup> 어찌 선조 받드는 공경을 해이하게 하겠나. 예법(禮法)은 먼저 세운 것을 따르고 공사는 다시 새롭게 하여 마무리했네. 삼가 생각건대, 이 사우가 창건되어 후손들에게 은애(恩愛)를 길이 끼쳤다네. 좌소우목(左昭右穆)으로 신주(神主)를 모셔 빈조(蘋藻) 올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sup>251</sup> 봄 제사와 가을 제사 올리며

249 향사(享祀)를…않으니 : 《시경》〈비궁(闕宮)〉에 “봄가을로 제사를 게을리하지 않아 향사를 올림에 어긋나지 않다.[春秋匪解, 享祀不忒.]” 하였다.

250 침묘(寢廟)가…편안하니 : 《시경》〈상송(商頌) 은무(殷武)〉에 “소나무로 만든 서까래가 길기도 하며 여러 기둥이 크기도 하니 침묘(寢廟)가 이루어짐에 매우 편안하도다.[松栿有栴, 旅楹有閑, 寢成孔安.]”라고 한 데서 온 것인바, 《모시서(毛詩序)》에 “은무는 고종(高宗)을 제사하는 시이다.” 하였는데, 주자(朱子)의 주에 “안(安)은 고종의 신(神)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詩經集傳 卷8》

251 좌소우목(左昭右穆)으로…않고 : 좌소우목은 고대의 종법제도(宗法制度)로, 종묘 등의 사당에서 조상의 신주를 배열하는 차서를 말한다. 천자(天子)는 7묘(廟)로 태조(太祖)를 가운데 모시고 2세·4세·6



상로(霜露)에 젖는 걸 더욱 서글퍼하네.<sup>252</sup> 사(士)의 예(禮)로 장례 지내고 대부(大夫)의 예로 제사 지내니<sup>253</sup> 망자를 섬기는 예를 극진히 한 것이요, 음식을 올리고 종묘의 기물을 진열하니<sup>254</sup> 어찌 직접 제시는 듯한 의식(儀式)을 싫어할쏜가. 공훈(功勳)은 백대가 지나도록 옅기지 않는 점이 있지만 덕택(德澤)은 5대가 지나면

세는 왼편에 모시어 소(昭)라 하고, 3세·5세·7세는 오른편에 모시어 목(穆)이라 하여 3소·3목이 되고, 제후는 5묘로 2소·2목이고, 대부는 3묘로 1소·1목인데, 할아버지와 손자가 항상 배(配)가 된다. 소는 동쪽에 위치하고 목은 서쪽에 위치하므로 동쪽이 상위가 된다. 빈조는 모두 물풀의 이름으로, 옛날 사람들은 이를 채취하여 제수로 사용하였다. 《시경(詩經)》〈채빈(采蘋)〉에 “남간의 물가에서 빈을 캐고, 저 도랑에서 조를 채취해 오네.[于以采蘋，南澗之濱。于以采藻，于彼行潦.]”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제사에 올리는 정결한 제물을 말한다.

- 252 상로(霜露)에…서글퍼하네 : 돌아가신 부모를 그리는 마음으로, 《예기(禮記)》〈제의(祭義)〉에서 “가을에 서리와 이슬이 내리거든 군자가 그것을 밟아 보고 반드시 슬픈 마음이 생기나니, 이는 날이 추워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 또 봄에 비와 이슬이 내려 땅이 축축해지거든 군자가 그것을 밟아 보고 반드시 섬뜩하게 두려운 마음이 생겨 마치 죽은 부모를 곧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된다.[霜露既降，君子履之，必有悽愴之心，非其寒之謂也。春雨露既濡，君子履之，必有怵惕之心，如將見之.]”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253 사(士)의…지내니 : 《중용장구》 제18장에서 삼년상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이르는데, 곧 “아버지가 대부가 되고 아들이 사(士)가 되었으면 대부의 예로 장례 지내고 사(士)의 예로 제사 지내며, 아버지가 사(士)가 되고 아들이 대부가 되었으면 사(士)의 예로 장례 지내고 대부의 예로 제사 지낸다.[父爲大夫，子爲士，葬以大夫，祭以士；父爲士，子爲大夫，葬以士，祭以大夫.]”라고 하였다.
- 254 음식을…진열하니 : 《중용장구》 제19장에 “봄과 가을에 선조의 사당을 수리하고, 종묘의 기물을 진열하며, 선조의 의상을 펴 놓고, 제철의 음식을 올린다.[春秋，修其祖廟，陳其宗器，設其裳衣，薦其時食.]”라고 하였다.

모두 끊어진다네.<sup>255</sup>

원(元)과 송(宋) 이전의 역사를 두루 상고해 보면 모두 정침(正寢)의 동쪽에 사당을 세웠다네.<sup>256</sup> 이로써 당(堂)에 서까래를 다듬지 않아도<sup>257</sup> 그 고요함이 족히 신령을 안치(安置)할 수 있고 돼지고기가 제기에 가득차지 않아도<sup>258</sup> 그 공경함이 족히 복록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네.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낫빛은 재계(齋戒)하고 깨끗이 하며 의복을 성대히 하였을 때<sup>259</sup> 드러나고, 엄숙하고 충만한 용모는 훈호(薰蒿)하고 처창(悽愴)한 즘음에<sup>260</sup> 나타나

255 공훈(功勳)은…끊어진다네 : 국가를 창업하거나 가문을 여는 위대한 공훈을 세운 시조는 사당에서 불천위(不遷位)가 되어 영원히 제사를 받지만 다른 조상은 덕이 있더라도 5대가 지나면 사당에서 옮긴다는 말이다. 《맹자(孟子)》〈이루 하(離婁下)〉에 “군자의 은택도 5대가 되면 끊어지고 소인의 은택도 5대가 되면 끊어진다.[君子之澤，五世而斬；小人之澤，五世而斬.]”라고 하였다.

256 정침(正寢)의…세웠다네 : 《가례》 권1 〈통례 사당〉에 “군자가 장차 궁실을 경영하려 할 적에 먼저 사당을 정침(正寢) 동쪽에 세운다.[君子將營宮室，先立祠堂於正寢之東.]”라고 한 구절이 보인다.

257 당(堂)에…않아도 : 《사기》〈이사열전(李斯列傳)〉에 “요(堯)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 당의 높이가 석 자였고 덧집의 띠 끝은 가지런히 자르지 않고, 서까래는 별채한 대로 쓰고 다듬지 않았다.[堯之王天下也，堂高三尺，茅茨不翦，采椽不斲.]”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여기서는 요 임금처럼 검소하게 짓는다는 말이다.

258 돼지고기가…않아도 : 안자(晏子)가 너무 검소하여 “여우 갓옷 한 벌을 30년이나 입고, 제사 때에는 돼지고기를 제기에 가득 채우지 않았다.[一狐裘三十年，祭豚肩不掩豆.]”라고 한다. 《十八史略 卷1》

259 재계(齋戒)하고…때 : 제사를 지내기 전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6장에,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재계하고 깨끗이 하며 의복을 성대히 하여 제사를 받들게 하고는 양양하게 그 위에 있는 듯하며 그 좌우에 있는 듯하다.[使天下之人，齊明盛服，以承祭祀，洋洋乎如在其上，如在其左右.]”라고 하였다.

260 훈호(薰蒿)하고 처창(悽愴)한 즘음에 : 《예기》〈제의(祭義)〉에 “생물들

네. 희생과 술을 정결히 하는 까닭은 우리 자손들을 보우해 주시  
기 바라서였네.

그런데 얼마 전 적군(敵軍)이 교외에 나타난 까닭에<sup>261</sup> 피치 못  
해 황량한 골짜기에 몸을 숨겼네. 다급하거나 위급한 때조차 비록  
힘들어도 목주(木主)를 싣고 떠났고 기한(飢寒)과 곤궁에 시달리  
는 때에도 제기(祭器)를 껴안고 달리느라 겨를이 없었네. 아득히  
먼 남쪽 지방에 선인(先人)의 낡은 초가는 어느 곳인가, 다닥다닥  
문혀 있는 북망산(北邙山)에서 매번 집이 없이 맞는 한식(寒食)<sup>262</sup>  
을 보내었다네. 천지간에 백 번의 싸움 끝에 봄 제비가 돌아왔건  
만 등지가 없고 천 년이 흐른 화표주(華表柱)에 요동(遼東)의 학  
이 돌아왔건만 한스러움만 가득하였네.<sup>263</sup> 잠자고 기대는 일은 벽

---

은 반드시 죽고 죽으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나니 이를 귀라고 이른다. 뼈와 살은 땅속에서 썩어 흙이 되고 그 기가 위로 올라가서 소명, 훈호, 처창함이 된다.[其氣發揚于上, 爲昭明焄蒿悽愴.]”라고 하였는데, 주희(朱熹)는 주석에서 “귀신이 밝게 드러나는 것을 소명, 그 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훈호, 사람의 정신을 두렵게 하는 것이 처창이다.[如鬼神之露光處是昭明, 其氣蒸上處是焄蒿, 使人精神悚然是悽愴.]”라고 풀이하였다.

- 261 얼마…까닭에 : 임진왜란(1592~1598)을 가리키는 듯한데, 자세하지 않다.
- 262 집이…한식(寒食) : 두보(杜甫)의 〈일백오일야대월(一百五日夜對月)〉시에 “집이 없이 한식의 달을 대하니, 눈물이 금물결 같도다.[無家對寒食, 有淚如金波.]”라고 한 구절에서 온 말이다. 《杜少陵詩集 卷4》
- 263 천…가득하였네 : 전쟁이 끝나 고향에 돌아와 상심한 일을 말한다. 한(漢)나라 때 요동에 정영위(丁令威)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허산(靈虛山)에 들어가 신선술을 배우고 뒤에 학(鶴)으로 변화하여 고향의 성문(城門) 화표주(華表柱)에 날아와 앉았다. 이때 한 소년이 활로 그를 쏘려 하자 공중으로 날아올라 배회하면서 말하기를, “새로 변한 모습을 한 정영위가, 집 떠난 지 천 년 만에 이제야 돌아와 보니, 성곽은 여전히 인민은 간 곳이 없으니, 왜 신선술을 안 배우고 무덤만 즐

에서 겨우 안정하지만 물 뿌리고 쓰는 일은 계단에서 할 겨를이 없었네. 사람 사라진 뒤에 집은 남은 곳이 없건만 나라가 무너진 뒤에 산하(山河)는 그대로 있었네.<sup>264</sup> 비록 처자식이 잘 화합하더라도 감히 너는 집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미 비바람을 막을 곳<sup>265</sup>이 없는지라, 때문에 신이 흠향하지 않는도다. 늘 궁박하고 누추하니 응당 마음을 쓰면서도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네. 이렇게 예닐곱 해나 지나는 사이에 다만 한두 번 계획했을 뿐만이 아니었는데, 한편으로는 재용(財用)이 넉넉하지 못해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난리가 안정되지 못해서였다네.

그러므로 사당을 건축하지 못하여 신위(神位)가 오래도록 해매 시계 하고 말았네. 신령이 의탁할 곳이 없으니 승냥이와 수달이 제사 지내는 것<sup>266</sup>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어버이께서 봉양도 못 받

---

비하고.[有鳥有鳥丁令威, 去家千年今始歸. 城郭如故人民非, 何不學仙冢纍纍.]”라고 하였다.《搜神後記 卷1》

264 나라가…있었네 : 두보(杜甫)의 〈춘망(春望)〉 시에 “나라는 파괴되어 산하만 남아 있고, 장안엔 봄이 오니 초목만 깊어졌네. 시절을 감탄하니 꽃은 눈물을 뿌리게 하고, 이별을 슬퍼하니 새는 마음을 놀라게 하누나.[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 感時花濺淚, 恨別鳥驚心.]”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杜少陵詩集 卷4》

265 비바람을 막을 곳 : 《시경》〈소아(小雅) 사간(射干)〉에 “판자를 각각이 묶고, 흙을 탁탁히 다지어, 비바람을 막고, 새와 쥐들을 물리쳤으니, 군자가 존대하게 있을 곳이다.[約之閣閣, 椽之囊囊, 風雨攸除, 鳥鼠攸去, 君子攸芋.]”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66 승냥이와…것 : 승냥이는 계추(季秋)에 보은(報恩)하는 제사를 지내고, 수달은 맹춘(孟春)에 제사를 지낸다 한다. 《예기》〈왕제(王制)〉에 “수달이 물고기로서 제사 지낸다는 절기가 지난 뒤에야 산지기가 못에 통발을 설치하고, 승냥이가 짐승으로 제사 지낸다는 절기가 지난 뒤에야 사냥을 한다.[獺祭魚然後虞人入澤梁, 豺祭獸然後田獵.]”라는 말이 보인다.

고 돌아가시니 까마귀의 효심(孝心)<sup>267</sup>을 부질없이 서글퍼하네. 근래 변방에서 자주 경계하던 봉화가 그치고 전야(田野)에서 이어지는 풍년을 송축하는 노래가 울려퍼졌네. 이에 기쁜 마음으로 금방 이루는 공역을 감독하여 하늘에 계신 신령을 편히 모시네. 부온(富媼 지신(地神))이 상서(祥瑞)를 산생(產生)하니 땅은 용호(龍虎)의 형세를 드러내고 과아(夸娥)<sup>268</sup>가 수려함을 잉태(孕胎)하니 산은 봉귀(鳳龜)의 형상으로 내달리네. 비석을 잘 자르고 다듬으니<sup>269</sup> 어찌 굳이 동해(東海)의 돌을 쓸 것이 있겠나. 나무를 자르고 헤아리니 남해(南山)의 소나무를 기다릴 것 없네. 붉은 기둥과 분칠한 주춧돌의 정교함이 이보다 더할 수 없으니 구름 수레와 바람 말의 자취<sup>270</sup>를 마치 혹 보는 듯도 하도다. 이에 기리는 노래를 울

267 까마귀의 효심(孝心) : @쪽 주 205 참조.

268 과아(夸娥) : 전설에 나오는 괴력을 가진 신의 이름이다. 옛날에 북산(北山)에 사는 우공(愚公)이 나이가 구십에 가까웠는데, 집 앞에 태항산(太行山)과 왕옥산(王屋山) 두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출입하기가 불편하였으므로 그 산을 없애어 평평하게 할 결심을 하였다. 지수(智叟)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을 알고는 우공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그러자 우공은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있고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있어서 자자손손 끊이지 않을 것이다. 산은 더 높아지지 않으니 어찌 이루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하면서 날마다 쉬지 않고 산을 파내었다. 그 정성에 감동한 옥황상제가 과아씨(夸娥氏)의 두 아들에게 명하여 두 산을 져다가 하나는 삭주(朔州)의 동쪽에 갖다 놓고, 하나는 용주(雍州)의 남쪽에 갖다 놓게 하였다. 《列子 湯問》

269 다듬으니 : 원문은 ‘如嗟’인데, 《시경》〈위풍(衛風) 기육(淇輿)〉편을 참고하여 ‘嗟’를 ‘蹉’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270 구름…자취 : 제사를 올릴 때 강림하여 흠향하는 신령의 자취를 말한다.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만든 〈교사가(郊祀歌)〉에 “천지 신령의 수레는 검은 구름을 엮고…천지 신령이 내려오실 때 바람같이 빠른 말을 타시네. [靈之車, 結玄雲, …靈之下, 若風馬.]”라고 하였다. 《漢書 卷22 禮樂志》

려 비로소 들보 올리게 됨을 하례하노라.

어영차 들보 동쪽으로 떡을 던지니                      兒郎偉拋梁東  
해가 동우(東隅)에서 떠올라 상서로운 연무 붉구나 日出東隅瑞靄紅  
푸른 바다 만 리에 용이 일어나 서니                      滄海萬里龍起立  
구명(九溟)의 물고기들이 신령(神靈)의 공을 입었네 九溟魚鼈荷神功

어영차 들보 서쪽으로 떡을 던지니                      兒郎偉拋梁西  
문설주와 서까래가 절로 가지런하구나                      枌楣榮桷自相齊  
아들과 손자들이 가사(家事)를 잘 주관하니                      有子若孫能幹蠹  
푸른 하늘 마음대로 운제(雲梯)에 오르리라                      靑冥隨意上雲梯

어영차 들보 남쪽으로 떡을 던지니                      兒梁偉拋梁南  
시냇물 머금은 갠 무지개가 안개 속에 반짝이네 飲澗晴虹映翠嵐  
향기로운 밝은 덕<sup>271</sup>을 신령이 흠향하나니                      馨香明德神欽嗅  
복을 받은 증손들 석 잔 술을 올리네                      受祚曾孫獻酌三

어영차 들보 북쪽으로 떡을 던지니                      兒郎偉拋梁北  
계단과 큰 재목이 높고 흰히 열려 있네                      埤土宏材開敞赫  
우리 문려 높이 세워 수레도 들일 만한데                      高我門閭容我車  
구름같은 우리 벼가 우리 들판에 펼쳐져 있네                      我稼如雲我野闢

271 향기로운 밝은 덕 : 《서경》〈군진(君陳)〉에 “지극한 정치는 향기로운 신명을 감동시키니, 서직이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밝은 덕이 향기롭다.[至治馨香, 感于神明, 黍稷非馨, 明德惟馨.]”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어영차 들보 위로 떡을 던지니                      兒郎偉拋梁上  
 마침 이 지극한 다스림이 무상으로 나아가네<sup>272</sup>    屬茲至治臻無象  
 선을 쌓는 집엔 후손에게 경사가 있으니<sup>273</sup>        積善之家餘慶存  
 기울거나 무너지지 않고 천지와 함께 영원하리    不驚不崩齊天壤

어영차 들보 아래로 떡을 던지니                      兒郎偉拋梁下  
 새가 몸을 곧게 세운 듯<sup>274</sup> 봉황이 나는 듯하네    如鳥斯跂如鳳翥  
 무궁한 수와 무궁한 아름다움을                      無疆之壽無疆休  
 넉넉하게 남겨 천추만세에 복을 내리리라        垂裕降嘏千秋也

삼가 바라건대, 들보를 올린 뒤에 좋은 징조가 거듭 나타나고 아름다운 상서가 속히 내리며, 문신(門神)과 호령(戶靈)이 잡인을 금하여 사당에 요망하고 괴이한 일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조고(祖考)의 신령 밝게 이르시어 사시(四時)에 흠향을 받으시고 후손들 길이 보호하시어 만대까지 복록을 누리게 하소서.

- 
- 272 지극한…나아가네 : 지극한 다스림은 형상이나 자취가 없는 경지에 이른다는 말이다.
- 273 선을…있으니 : 《주역》〈곤괘(坤卦) 문언(文言)〉에 “선을 쌓은 집안에는 후손에게 반드시 경사가 있게 마련이고, 불선을 쌓은 집안에는 후손에게 반드시 재앙이 돌아오게 마련이다.[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 274 새가…듯 : 《시경》〈사간(斯干)〉에서 장엄하고 아름다운 궁실의 모습을 묘사하여 “사람이 몸을 곧게 세워 공경하는 것 같으며, 화살이 곧게 날아가는 것 같으며, 새가 놀라 날개를 펼치는 것 같으며, 썩어 날아가는 것 같으니, 군자가 올라갈 곳이다.[如跂斯翼, 如矢斯棘, 如鳥斯革, 如翬斯飛, 君子攸躋.]”라고 한 말을 원용한 표현이다.

완평부원군 이원익에게 궤장을 하사하는 교서<sup>275</sup>

完平府院君李元翼賜几杖教書

경은 이제 노쇠하였으니 어찌 조정에서 종종걸음으로 수고하는  
 게 합당하리오. 내가 그대를 편안케 하고자 하니 이에 궤장(几杖)  
 을 내리노라. 단연코 지극히 공경해서이니 실로 무의미한 형식이  
 아니로다. 생각건대, 경은 어려서 배우고 장성하여 행해서 두 조  
 정에서 한결같은 절조를 지켰다. 효도와 공손, 충성과 신의를 근  
 본으로 삼고, 맑고 곧음과 연결하고 공평함은 바로 뒤따라 자연스

275 완평부원군…교서 : 이원익(1547 1634)은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공려(公勵), 호는 오리(梧里)이다. 1569년(선조2) 문과에 병과로 급  
 제하여 대사헌, 이조 판서, 좌의정을 거쳐 1604년에 호성 공신(扈聖  
 功臣)에 녹훈되고 완평부원군(完平府院君)에 봉해졌다. 광해군 즉위  
 때 영의정에 올라 이후 네 차례나 중간중간 영의정을 지냈으나 두어  
 칸 오막살이 초가에서 청빈하게 살았다. 1623년(인조1) 3월 인조반  
 정(仁祖反正) 이후 다시 영의정에 제수되었는데 9월에 77세라는 고  
 령으로 치사(致仕)를 청하자, 인조가 조정에 더 머물기를 청하며 궤  
 장을 하사하도록 명하니, 기로소(耆老所)에서 기영회(耆英會)와 함께  
 설행하기를 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수창한 시를 모아 《궤장  
 연수창시》 1권을 만들었는데, 《국역 청음집》 제38권에 그 서(序)가  
 실려 있다. 《국역 인조실록 1년 9월 7일》 《국역 기연 제38권 동서기  
 연 오리 이 상국 유사》



레 되는 일이었다. 지나간 관직마다 힘써 잘 다스리지 않음이 없었다. 두 번 평양에서 순무(巡撫)하였는데<sup>276</sup> 백성들이 풀처럼 바라보았고<sup>277</sup> 끝에 호남과 영남에서 체찰(體察)하였는데<sup>278</sup> 사람들이 산처럼 편안하였다. 머나먼 서토(西土)의 백성은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라 하였고, 과연 남국(南國)의 교화를 행함은 주공(周公), 소공(召公)과 같았다.<sup>279</sup> 회복(恢復)하던 초기에는 뜻을 펼쳤는데<sup>280</sup> 혁제(革除)하던 때에 굶핍을 당하였다.<sup>281</sup> 무고를 받고 귀

276 두…순무(巡撫)하였는데 : 이원익이 이조 판서로 있을 때 임진왜란(1592)이 일어나자 평안도 도순찰사(都巡察使)가 되어 왕의 피란길을 호종하였고, 이듬해 평양 탈환 작전에 공을 세워 평안도 관찰사로 순찰사를 겸하였다.

277 백성들이 풀처럼 바라보았고 : 위정자의 덕은 바람과 같아 백성들이 풀처럼 따른다는 말이다. 위(魏)나라 조식(曹植)의 <칠계(七啓)>에 “백성들이 풀처럼 바라보니 나의 은택이 봄과 같도다[民望如草, 我澤如春]”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文選 卷34 七上》

278 끝에…체찰(體察)하였는데 : 이원익은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5년(선조28) 우의정 겸 사도도체찰사(四道都體察使)가 되었고 이후 1600년(선조33) 사도도체찰사가 되고 이듬해에 삼도도체찰사가 되었다.

279 과연…같았다 : 이원익이 남쪽 지방을 잘 다스렸다는 말이다.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도읍을 풍(豐)으로 옮기고, 주나라의 옛 땅을 나누어 주공(周公) 단(旦)과 소공(召公) 석(奭)의 채읍(采邑)으로 삼았다. 문왕의 덕화를 잘 입어 풍속이 아름다운 이 두 지역에서 채집한 시를 <주남>과 <소남>이라 명명하였다. <주남>의 서문(序文)에, “주공으로 하여금 국중(國中)에서 정사(政事)를 다스리게 하고, 소공으로 하여금 제후들에게 덕화(德化)를 퍼게 하니, 양자강, 타수(沱水), 여수(汝水), 한수(漢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모두 따라서 교화되었다.” 하였다.

280 회복(恢復)하던…펼쳤는데 :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 나라가 회복되어 가던 때 이원익이 조정에서 국정에 힘쓰고 광해군 즉위 때까지 영의정에 임명되어 활약한 일을 말한다.

281 혁제(革除)하던…당하였다 : 광해군의 난정(亂政)이 시작되면서 이원

양 떠난 세월이 거의 십 년이었는데<sup>282</sup> 위협에 빠져 고생스러웠던 일이 또 천만 가지였다. 다만 뜻을 세운 것이 더욱 확고하여 순경(順境)이든 역경(逆境)이든 지조를 바꾸지 않았다.

다행히 지금 하늘이 허여하고 백성이 귀의하여 이 위대한 왕업을 외람되어 이루었으니 만일 국가가 편안하고 치도(治道)가 트이려면 어찌 어진 보필을 수용(收用)하지 않겠는가. 이에 발란반정(撥亂反正)하는 초기에 우선 인재를 등용해 높이는 일을 급선무로 여겼다. 강호(江湖)의 초가는 북궐(北闕)의 푸른 구름에 이어지고<sup>283</sup> 성시(城市)의 조정은 동산(東山)의 붉은 신발을 돌이켰다.<sup>284</sup>

익이 조정에서 물러나게 된 일을 말한다.

282 무고를…년이었는데 : 이원익은 1612년(광해군4) 신울(申慄)의 고변(告變)으로 영의정에서 체직되었다가 1615년(광해군7)에 폐모론(廢母論)에 반대하여 홍천에 유배되었고 1619년 여강(驪江)의 앙덕리(仰德里)에 방귀전리(放歸田里)되어 우거하고 있었는데 1623년(인조1) 3월 반정(反正) 이후 다시 영의정에 제수되었다.

283 강호(江湖)의…이어지고 : 초야에 묻혀 있는 현인이 대궐에 계신 임금께 나아온다는 말이다.

284 성시(城市)의…돌이켰다 : 조정을 떠났던 충신을 조정에서 다시 초치한다는 말이다. 동산은 《시경》〈빈풍(豳風)〉의 편명으로, 주공이 지었는데 그 시에 “내 동산에 가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했노라.[我徂東山，惓惓不歸.]”라고 하여, 주공이 동쪽으로 정벌 갔던 때를 말한 것이다. 주공(周公)이 형인 관숙(管叔), 채숙(蔡叔)이 일찍이 무경(武庚)에게 붙어서, 주공을 지목하여 성왕(成王)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만나 성왕의 의심을 받았으나 동쪽으로 3년 동안 정벌을 하는 동안 성왕이 〈치효(鴟鵂)〉시를 보고 또 뇌풍(雷風)의 변고를 당하고 나서는 감동되어 비로소 깨닫고 주공을 맞이함에 그간의 변고에 의연히 대처한 주공의 위의가 점잖고 의젓하였다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곧 재상인 이원익이 광해조 때 대비폐위론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 극렬한 어구로 상소하여 홍천(洪川)으로 유배되고 다시 여주(驪州)로 방귀전리(放歸田里)되었다가 인조반정 후에 다시 재상의 자리에 오른 것을 비유한 것이다. 붉은 신발은 《시경》〈빈풍·낭

백성들의 근심과 기쁨을 어찌 눈썹을 살피고<sup>285</sup> 나서야 알겠는가. 흰머리로 돌아오니 참으로 이마에 손 얹고 바라보는 인망<sup>286</sup>에 부합하였다. 이에 영의정의 자리를 비워놓으니 실로 어진 고굉(股肱)<sup>287</sup>을 힘입었도다. 모든 계책이 있으면 나에게 고하지 않음이 없었거니와,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모두 온나라가 따랐다. 군

---

발(狼跋))에 “이리가 앞으로 가다간 제 턱을 밟고, 뒷걸음치다간 제 꼬리 밟아 넘어지네. 공이 큰 아름다움 사양하시니, 붉은 신발이 점 짙고 의젓하였다.[狼跋其胡，載蕘其尾。公孫碩膚，赤舄几几.]”라고 하여 주공이 유연비어를 듣고 성왕에게 의심까지 받아서 마치 이리처럼 진퇴양난의 어려운 처지를 당하였으나,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잘 대처하여 상도(常道)를 잃지 않았으므로, 시인(詩人)이 주공의 이런 모습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 시를 지어 노래한 데서 나온 말이다.

- 285 눈썹을 살피고 : 백성의 눈썹 표정을 살펴보고 정사를 시행한다는 의미이다. 《열자(列子)》〈설부(說符)〉에, “진(晉)나라가 도적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극옹(郤雍)이란 자가 도적의 모양을 잘 살폈는데, 도적의 눈썹과 속눈썹을 보고 내심을 간파하였다. 진왕(晉王)이 그로 하여금 도적을 살펴보도록 한 결과 수백 명 중에 한 명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였는데, 후세에 사람의 표정을 보고 속마음을 알아낸다는 의미로 쓰였다.
- 286 손…인망 : 백성들이 이마에 손을 얹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매우 인망(人望)이 높은 재상을 공경하는 것을 뜻한다. 송(宋)나라 사마광(司馬光)이 낙양(洛陽)에 15년간 살았는데, 천하 사람들이 모두 참된 재상이라고 생각하여 농부와 촌 늙은이도 모두 사마 상공(司馬相公)이라 부르고 부인과 어린아이도 그가 사마군실(司馬君實)임을 알았다고 한다. 신종(神宗)이 죽어 사마광이 대궐에 갔을 때 그를 본 위사(衛士)들이 모두 두 손을 이마에 대고 “이분이 사마 상공(司馬相公) 이시다.[此司馬相公也.]”라고 했다는 일화가 전한다. 《宋史 卷336 司馬光列傳》
- 287 고굉(股肱) : 팔다리로서 신하를 가리킨다. 《서경(書經)》〈우서(虞書) 익직(益稷)〉에 이르기를, “황제가 말하기를, ‘신하는 고굉과 이목이 된다.[帝曰，臣作股肱耳目.]’고 하였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실(君實)이 막 돌아왔을 때 갑자기 석작(石碣)이 고로(告老)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나.<sup>288</sup> 한창 정신과 기백이 아직 왕성하니 어찌  
 근력과 이목이 혹여 쇠하였겠나. 이에 노인을 돕는 물건을 가지고  
 편하게 쓰는 도구로 삼게 하노라. 적등장(赤藤杖)<sup>289</sup>이 잡을 만하  
 니 비록 서극(西極 서역(西域))에서 온 것은 아니지만, 오피궤(烏皮  
 几)<sup>290</sup>가 기대기에 좋으니 어찌 남곽자기(南郭子綦)가 기댄 것<sup>291</sup>을

288 군실(君實)이…했겠나 : 군실과 석작은 모두 영의정이었던 이원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는 1623년(인조1) 3월 영의정에 제수된 지 얼마  
 안 된 9월에 77세라는 고령으로 치사(致仕)를 청하였다. 군실은 송  
 나라 때 재상 사마광(司馬光)으로, 낙양(洛陽)으로 물러나 산 지 15  
 년 만에 신종이 세상을 떠나자 신종의 모후(母后)인 선인태후(宣仁太  
 后)가 수렴청정하면서 그를 재상으로 다시 기용하였다. 석작은 춘추  
 시대 위(衛)나라의 어진 대부로, 그의 아들 석후(石厚)가 공자(公子  
 ) 주우(州吁)와 친밀하였는데, 주우가 석후와 함께 환공(桓公)을 주  
 살하고 스스로 임금이 되자, 석작이 주우와 후를 유인하여 진(陳)나  
 라에 보내어 죽이고 공자 진(晉)을 영립하였는데, 《춘추좌씨전》에서  
 그가 대의멸친(大義滅親)한 것을 찬미하고 순신(純臣)이라 하였다.  
 《春秋左氏傳 隱公 4年》

289 적등장(赤藤杖) : 중국 남방의 산중에서 나는 껍질이 붉은 등나무로 만  
 든 지팡이를 말한다. 한유(韓愈)의 〈적등장부(赤藤杖賦)〉에 이르기를,  
 “적등으로 지팡이를 만드는 것을 이 세상서 보지 못했는데, 대랑께서  
 비로소 전지에서 가지고 왔네.[赤藤爲杖世未窺, 臺郎始携自滇池.]” 하  
 였다.

290 오피궤(烏皮几) : 검은 양가죽으로 싸서 장식한 검박(儉朴)한 궤안을  
 말한다. 두보의 〈장부성도초당도중유작(將赴成都草堂途中有作)〉 시  
 에 “금관성 서쪽의 생활은 워낙 곤궁하지만, 오피궤가 있기에 도리  
 어 가고만 싶네.[錦官城西生事微 烏皮几在還思歸]”라고 하였다. 《杜  
 少陵詩集 卷13》

291 남곽자기(南郭子綦)가 기댄 것 : 《장자(莊子)》〈제물론(齊物論)〉에  
 “남곽자기가 궤안에 기대어 앉아 하늘을 우러러 숨을 내쉬는 그 모  
 습이 마치도 물아(物我)의 경계를 모두 잊어버린 듯하였다.[南郭子綦  
 隱几而坐, 仰天而嘯, 嗒焉似喪其耦.]”는 유명한 구절이 나온다.

부러워하겠나. 실로 공광(孔光)의 자리에 놓아 두고 이에 소하(蕭何)가 부지하는 데 주노라.<sup>292</sup> 아, 국가가 바야흐로 경을 의지하고 있으니 궤안에 기대어 나라를 다스림이 마땅하거니와 경이 실로 국가를 부지하고 있으니 지팡이에 부지하여 경을 편안히 할 만하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교하노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하노라.

---

292 실로…주노라 : 공광(孔光)과 소하(蕭何)는 모두 영의정이었던 이원익을 가리킨다. 공광은 공자의 14대손으로, 경학에 능통하고 학문이 높아 원제 이래로 네 황제를 모시면서 증용되어 삼공(三公)이 되었는데 태후(太后)가 조서를 내려 “나라가 흥성하려면 사부를 높이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영수장(靈壽杖)을 하사하였다. 《漢書 卷81 孔光傳》 소하는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하는 데 공을 세운 모신(謀臣)으로, 통일 이후 승상이 되어 유방을 보필하였다. 《史記 卷53 蕭相國世家》

## 첩帖

### 모 도독<sup>293</sup>이 책봉에 대해 치하한 것에 대해 사례하는 글

謝毛都督致賀冊封

현부(玄符)<sup>294</sup>가 동방(東方)에 내려오니 성인의 은택을 입어 바야흐로 부끄럽고, 자기(紫氣)<sup>295</sup>가 서쪽에서 오니 보배로운 함을

293 모 도독 : 모문룡(毛文龍, 1576~1629)으로, 도독은 그의 직함이다. 중국 명(明)나라 말기 명과 조선, 후금(後金) 사이에서 활동했던 장수로, 호는 진남(振南)이다. 도사(都司)로 조선을 구원하러 갔다가 요동(遼東)에 머무르게 되었으며, 요동을 잃게 되자 해로(海路)로 달아나 빈틈을 보다가 청나라 진강수장(鎮江守將)을 죽여 총병(總兵)에 임명되었다. 1605년(신종33) 무과에 급제한 후 요동 총병관 이성량(李成梁) 밑에서 유격 활동을 하였다. 좌도독에 올라 가도(假島)를 지키다가 1621년(희종1)에 누르하치가 요동을 공략하자 광녕순무 왕화정(王化貞)의 휘하로 들어갔다. 그 뒤 철산 동강(東江)에 진을 치고 전횡을 일삼다가 산해관 군문 원숭환(袁崇煥)에게 주살되었다.

294 현부(玄符) : 상서로운 징조를 나타내는 신부(信符)로, 나라를 세울 때의 길상(吉祥)을 뜻한다. 현(玄)은 검정색으로 《주역》〈곤괘(坤卦) 문언(文言)〉의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天玄而地黃]”는 말에 근거하여 하늘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며, 부(符)는 상서로운 조짐을 말한다.

295 자기(紫氣) : 함곡관(函谷關)의 관령(關令) 윤희(尹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 오는 자기(紫氣)를 보고 성인이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

열면서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총애와 영광이 이에 지극하니 감사함을 어찌 말로 하겠습니까. 우리러 생각건대, 대인께서는 덕망이 위엄보다 앞에 있고 문덕(文德)이 무공(武功)의 성취를 뒤따랐습니다. 바야흐로 인의(仁義)를 전파하고 드날리시니<sup>296</sup> 어찌 한갓 초목(草木)만 명성을 알 뿐이겠습니까, 게다가 천지(天地)를 돌려 놓으시니<sup>297</sup> 이미 산하(山河)가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지껏 모두 안도하고 있는 것은 또한 공의 은혜니, 흉적(凶賊)이 감히 관문(關門)을 넘겨보지 못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힘이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책봉(冊封)의 고명(誥命)을 빨리 선포한 것은 비록 황제의 감식이 대단히 밝은 데 힘입어서이긴 하지만, 도리어 참소하는 말을 길이 사라지게 만든 것은 참으로 도둑께서 사실대로 상주한 데 힘입은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된 것은 공의 정성 아님이 없습니다. 예물(禮物)이 구비되고 문사(文辭)가 정확하도록 수고하기까지 하셨으니 인정(人情)이 융숭하고 예의(禮儀)가 흠족함을 더욱 보겠습니다. 그대와 협력하여 난리에 군주를 호위하기를

---

였는데, 과연 노자(老子)가 청우(靑牛)를 타고 왔다는 전설이 전한다.  
《列仙傳 卷上 關令尹》

296 인의(仁義)를…드날리시니 : 원문의 ‘飛仁而揚義’는 위(魏)나라 조식(曹植)의 〈칠계(七啓)〉에 “전문, 무기의 무리 같은 경우는 바로 상고 시대의 준수한 공자이니 모두 인의(仁義)를 전파하고 드날려 도예에 뛰어났다.[若夫田文無忌之儔，乃上古之俊公子也，皆飛仁揚義，騰躍道藝.]”라고 하였다. 《文選 卷34 七上》

297 천지(天地)를 돌려 놓으시니 : 원문의 ‘旋乾而轉坤’은 한유(韓愈)의 〈조주자사사상표(潮州刺史謝上表)〉에 “폐하께서 즉위한 이래 몸소 정사를 처리하여 천지를 돌려 놓으셨습니다.[陛下即位以來，躬親聽斷，旋乾轉坤.]”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천지를 개변하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국면을 근본적으로 일신하는 일을 말한다.

참으로 원합니다. 오랑캐 소굴을 불태우고 오랑캐 근거지를 파괴함은 설령 윤후(胤侯)가 예(羿)를 정벌한 일<sup>298</sup>에 부끄럽더라도, 천자의 권위를 도와 천자의 토벌을 함께함은 환공(桓公)이 오랑캐를 물리친 일<sup>299</sup>을 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298 윤후(胤侯)가…일 : 하(夏)나라 우(禹)임금의 손자 태강(太康)이 재상 예(羿)에 의해 폐위된 뒤 예는 그 동생 중강(仲康)을 세웠는데 중강은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윤후(胤侯)를 대사마(大司馬)에 임명하여 육사(六師)를 맡게 하였다. 임명된 뒤 윤후는 중강의 명령을 받들어서 죄 있는 자를 토벌하였는데 특히 예와 편당한 희화(羲和)를 정벌하였다. 다만 윤후가 예를 직접 토벌한 일은 없는데 이익(李攸)은 예의 세력을 당해낼 수 없어서였다고 논한 바 있다. 여기서는 예를 직접 토벌하지 않았더라도 윤후가 예에게 부화하였던 희화를 정벌한 일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書經集傳 胤征》

299 환공(桓公)이…일 : 제환공(齊桓公)은 ‘존왕양이(尊王攘夷)’의 기치를 내걸고, 북쪽으로 산융(山戎)을 공격하고, 남쪽으로 초(楚)나라를 정벌하여 춘추 시대 중원에서 첫 번째 패주(霸主)가 되었다.





현주집

제 12 권

賦 辭 七  
부 사 칠



# 부賦

## 적전부

### 藉田賦

우리 성상께서 즉위하신 지 십삼 년에<sup>1</sup>      我聖上握符之十有三載  
 비로소 예사(禮司)에게 명하여                      俶命禮司  
 적전(藉田)<sup>2</sup>의 의식을 거행하니                    庸學藉田之儀  
 이는 자성(烝盛)<sup>3</sup>을 중시하고                      重烝盛也  
 백성을 중시하신 뜻이라네                        重民命也  
 이때는 북두성이 진방(辰方)을 향하는 삼월이라    于時斗插辰姑洗協  
 땅은 기름져 창포에 잎이 처음 나오는 시기라네    土發膏菖始葉  
 마침내 영성(靈星)<sup>4</sup>을 살피고 길일을 택하여      遂乃靈考星吉采日  
 먼저 재계하고 목을 곳을 만들고                    先張宿學

- 
- 1 우리…년에 : 신유년(1621, 광해군13)을 가리킨다.
  - 2 적전(藉田) : 원래는 고대에 천자나 제후가 백성을 동원하여 농사짓던 전지(田地)를 가리킨다. 매년 봄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천자나 제후가 직접 농기구를 잡고서 적전을 경작하는 의식을 거행했는데, 이를 적례(籍禮)라고 하였다.
  - 3 자성(烝盛) : 제사에 올리는 정결한 곡식을 뜻한다.
  - 4 영성(靈星) : 천전성(天田星)이라고도 하는데, 농사를 맡아 보는 별이다.

삼도습의(三度習儀)<sup>5</sup>를 행하였네 三習乃設  
 이에 종을 담당하는 이 궁문을 단속하고 於是司鍾警鑰  
 물시계를 관리하는 이 시각을 알리네 掌漏奏刻  
 육군(六軍)은 위무를 드날려 대오를 엄숙히 정비하고  
 六戎揚武而肅隊振伍兮  
 즐비한 군사들 떨치며 달리네 總總蓐蓐兮奮而方驤  
 팔신<sup>6</sup>의 말을 빨리 몰게 하여 叱馭八神兮  
 길을 치우고 신속히 인도하네 警蹕而迅導  
 머리털 흐트린 채 제멋대로 날뛰니 趨鬣鬣兮走陸梁  
 금군을 신칙하여 벽루를 살피게 하네 飭句陳使按壁壘兮  
 태백성에 멩에를 씌우고 형혹성을 몰아 駕太白兮驅熒惑  
 풍력으로 -1자 빠짐- 나아가게 하네 風力□蠡之  
 무리지어 비녀장을 잡고 깃대를 움켜쥐니 倫秉鈐而掬旄兮  
 빈려(賓旅) -1자 빠짐- 맹분(孟賁)과 하육(夏育)<sup>7</sup>의 대오 이루네  
 旅賓□兮伍奮育  
 별려진 별과 펼쳐진 구름은 물고기 비늘처럼 떼 지어 있고  
 星羅雲布以雜襲魚鱗  
 흐르는 물과 우뚝한 산에서 교룡이 뛰어오르고 범이 날뛰네  
 螭騰虎躍兮川行嶽植  
 도끼와 창 같은 병장기들 뿔뿔이 서 있고 비껴있으니  
 戚受鉞槍之林立棼斜

- 
- 5 삼도습의(三度習儀) : 나라에 큰 의식(儀式)이 있을 때에 의식을 세 번 미리 연습하는 일을 가리킨다.  
 6 팔신(八神) : 농사를 잘되게 하는 여덟 신을 가리킨다.  
 7 맹분(孟賁)과 하육(夏育) : 전국시대 제(齊)나라의 장사인데, 맹분은 맨손으로 쇠뿔을 뽑았고 하육(夏育)은 1000근(鈞)의 무게를 들어 올렸다고 한다.

깃발과 의장 어찌 이리도 아름다운가      夫何麾幢戟纛之婀娜也  
 저 반열의 행렬 올바르고 엄숙하며      伊班正行直而肅穆兮  
 의관은 의젓하고 패홀은 가지런하네      儼冠紳兮齊佩笏  
 홀의 소리 절조 있고 예법은 아름다우며      珂珮聲節兮禮容閑  
 또 차분하게 법도에 맞춰 줄지어 걸어가네      又雍容兮規步矩列  
 참으로 문관은 신속하고 무관은 느릿느릿하니      寔武疾而文徐兮  
 잠시 음기가 닫히고 양기가 열린 듯하네      雲陰闔而陽闢  
 깃대의 등불 여기저기 흩어져있고 늘어선 횃불 하늘까지 밝히니  
 旗燈撒沙兮列炬燭乾

별들이 촘촘히 하늘에 드리우고 축룡<sup>8</sup>이 땅 끝까지 밝히는 듯하네  
 似密星垂天而燭龍耀極

이에 성상께서      於是聖上  
 <왕제(王制)>를 살피고 <월령(月令)>을 참작하여      乃按王制參月令  
 법도를 따라 법복을 아울러 갖추었네      憲度備法服竝  
 위의 있는 푸른 일산 펼쳐지고      張翠華之威威兮  
 꿈틀대는 푸른 용을 타고 가네      御蒼虬之蜿螭  
 마침내 큰길에 올라 동쪽으로 내달려      遂登高達以東驚兮  
 신령한 사당을 지나고 선농단(先農壇)에 이르렀네      歷靈祠以臻縹壇  
 이에 벽옥의 술잔에 술을 부어 올려      乃奠璧而薦醴饗  
 신농씨(神農氏)에게 제사 지내고 후직씨(后稷氏)에게 예를 다하네  
 祀帝農而禮后稷

엄숙히 공경을 다하고 나오니      肅申敬而出之兮  
 상서로움이 성대하여 산악처럼 쌓이네      瑞穰穰兮委山岳  
 이에 동남쪽의 백 묘 바라보고      於是望東南之百畝兮

8 축룡(燭龍) : 전설상의 신으로, 눈을 감으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눈을 뜨면 세상이 밝아진다고 한다.

푸른 장막에 나가 해 질 녘까지 힘쓰네	臨翠幕而戀昏作
봉인은 경계에 표식을 세우고	封人表其疆植
종복은 농기구를 꼼꼼히 챙기고	僕圉緻其耒鍤
사농은 푸른 소를 미리 마련하고	司農豫其青犢
태상은 벼 종자를 준비하네	太常備其種稷
홍려사에서 농사 시작을 아뢰니	鴻臚奏耕
종백이 농장으로 인도하네	宗伯導場
임금의 발이 논두렁 아래로 내려오고	玉趾降阡
보배로운 신발은 논두렁 위에 올려놓네	寶舄登陌
방초가 곤룡포를 비추고	芳草映袞
가벼운 먼지는 신 끈을 물들이네	輕塵染綦
큰 고삐로 멩에를 씌워 소를 부리고	洪縻總軛以制角兮
쟁기로 개간하며 밭을 가네	黛耜墾墾而田之
푸른빛의 네모난 쟁기를 들고서	翠筴方學
다섯 번 쟁기를 밀고 <sup>9</sup> 일을 마치네	五推告訖
세자가 빛나는 자취를 뒤따르고 정승이 계속해서 밭을 가니	前星踵曜兮左轄繼輶
법도를 따라 일곱 번, 아홉 번 쟁기를 미네	厥推七九兮循法蹈則
백 마리의 소들 머리를 나란히 하여 함께 밭 갈고	百牛齊首以駢蹄兮
서인들은 짝지어 밭을 끝까지 가네	庶人耦耕而終畝
감색 상자를 기울여	紺箱既傾

9 다섯…밀고 : 《예기(禮記)》〈월령(月令)〉에 “천자(天子)가 친히 쟁기와 보습을 수레에 싣고, 삼공(三公)과 구경(九卿)을 거느리고서 몸소 황제의 적전(籍田)에서 밭갈이를 한다. 천자는 쟁기를 잡고 세 번 밀며[三推], 삼공은 다섯 번 밀고[五推], 경과 제후는 아홉 번 밀다[九推].”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다섯 곡식을 땅에 파종하네	五種播土
농부가 일 마쳤다 보고하면	穡夫報功
늙은 농부가 경사를 알리네	農叟獻慶
이에 길을 가득 채우고 바라보던 이들	乃有填觀擁望
다투어 나와 서로 송축하네	競足互頌
어린아이들 들판에 나오고	黃髻巨野
노인네들 논두렁에 가득하네	耄艾盈壟
서로들 우리러 탄복하고	爭嗟迭聳
명성이 용의와 거동에 드러나네	聲發容動
횡목 <sup>10</sup> 의 백성은	元元橫目者
모두 감격해 발 구르고 목메어 눈물 흘리니	莫不感跂而噎泣
하물며 가까이에서 반열을 따르는 이 어찌하리	況近在爭從列
온 나라에 넘치는 기쁨은 춘색을 빼앗은 듯하고	喜溢寰區兮奪春色
경사는 영원히 빛날 것이리라	慶彌終古以炳蔚
마침내 적전의 예를 마치고 일을 끝내니	遂乃竣禮畢勞
임금의 수레 돌려 출발하고	回鑾轉軸
군사들 본부로 돌려보내고	還師解部
깃발은 구불구불 줄지어 돌아가네	返旆旋曲
채색 장막은 산악을 옮겨놓은 듯 우뚝하고	彩棚山移而岳遷兮
피리와 북소리는 하늘에 울리고 절주에 응하네	笳鼓殷天而應節
광대는 아슬아슬한 장대에서 비틀거리고	戲夫亍于於危竿兮
증으로 분장한 이는 엮어지며 괴상한 짓 하네	僞佛顛搖以呈詭

10 횡목(橫目) :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눈이 가로로 생겼다고 하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장자》〈천지(天地)〉에 “선생님은 횡목의 백성에게 뜻이 없습니까? 성인의 정치를 듣고자 합니다.[夫子無意於橫目之民乎，願聞聖治.]”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사자를 타고 호랑이를 부리는 이들	乘獅馴虎兮
꿈틀거리며 내달리며	躑躅狂騁
운학을 타는 신선 동자들	雲鶴仙童兮
기이한 재주 뽐내네	炫奇以逞異
서왕모는 머리 장식을 하고 <sup>11</sup> 축수 올리며	西王母戴勝以上壽兮
옥녀는 소반에 과일을 담아 바치네	玉女捧盤而獻果
아름다운 미인들을 물리치고	斥清矚而擯蛾眉
잡스럽고 요사한 기예를 멀리하네	陋雜妖而疏技巧
선비 복장을 한 이들 바라보니	方覽圓冠與方領
의젓하게 다리를 빙 둘러 백백이 서있네	儼環橋而林立
함께 송축하고 노래를 부르며	共投頌而獻謠兮
마침내 그 공과 덕을 읊조리네	遂風功而詠德
이때 등에 반점이 생긴 노인과	于時鮐背之耆
다시 이가 난 노인	鯢齒之耄
비틀거리고 기어 나와	蹣跚匍匐
자라처럼 손뼉을 치고 <sup>12</sup> 학처럼 춤추네	黿拊鶴舞
또 절하고 꿇어앉아	且拜且跪
손을 들어 큰 소리로 말하기를,	抗手颺言曰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고	國本於民

11 서왕모(西王母)는…하고 : 사마상여(司馬相如)의 <대인부(大人賦)>에 “서왕모를 보니 하얀 머리에 대승을 하고 굴속에서 사는구나.[觀西王母, 鬪然白首, 戴勝而穴處兮.]” 하였는데, 대승(戴勝)은 여자의 머리 장식이다.

12 자라처럼 손뼉을 치고 : 원문의 ‘오변(黿拊)’은 몹시 기빠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면서 하는 축하를 말한다. 《초사(楚辭)》<천문(天門)>에 이르기를 “자라가 산을 이고 손뼉을 치니 어떻게 안정될 수 있겠는가.[黿戴山拊, 何以安之.]”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백성의 근본은 식량이네	民本於食
그 식량은 무엇인가	其食維何
곡식이 아니면 먹지 못하네	非穀不食
곡식이 모자라면 굶주리고	穀乏則飢
곡식이 풍족하면 생활할 수 있네	穀裕則活
옛날의 여러 성군들	肆古列哲
몸소 먼저 적전의 예를 행하였네	躬先以籍
성군들 세상을 떠난 후로	聖徂神邁
오랫동안 폐해져 실천하지 못하였네	曠廢罔蹈
이제 옛날 제왕의 법도를 회복하려고	今焉復古帝憲王度
그 법도를 계승하니	憲度是襲
백성의 복이라네	唯民之福
백성의 복일 뿐 아니라	非唯民福
종묘사직의 복이라네	宗社之福
종묘사직의 복은	宗社攸福
성군이 오랫동안 강녕하신 것이네	聖躬康億
하물며 쟁기를 세 번, 다섯 번 미는 경우는	而況三五其推
세상에 없었던 일이네	無世不有
세자도 밭 가는 것을 도우니	儲副助耕
옛날에도 드문 일이네	古所罕有
지금 이미 다섯 번 쟁기를 밀고	今推既五
다섯 번을 이어 또 일곱 번 밀었으니	襲五有七
차츰 신묘하게 화하여 <sup>13</sup>	神化滲潛

13 신묘하게 화하여 : 《주역》〈계사전(繫辭傳)〉에 “신농씨가 별세하자, 황제와 요·순이 나오시어 그 변(變)을 통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고 신묘하게 화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마땅하게 하였

세상 만물에 미치리라	覃及動息
짙그리고 신음하던 이들 웃으며 말하고	嚶呻者笑語
시름하고 원망하던 이들 기뻐하리	愁怨者悅懌
굶주리던 이들 배를 채워 살이 붙고	餓莩望腹而肉骨
죽어가던 이들 기사회생하리라	僵死回生而起死
어찌 다만 곱사가 등이 펴지고 앓은뱅이가 일어나며	奚但伸偻起躄
귀머거리가 귀가 뚫리고 소경이 눈을 뜨는 데 그치겠는가	披聾發瞽而止哉
성상께서는 오히려 겸손하여	聖上猶尚卑讓
대단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不以爲泰
담박하게 대궐로 돌아와	淡然還旆
자랑하지 않으시네	不夸不大
이에 수많은 백관들	乃有群臣百揆
뜰에 둘러서서 하례하며	擁庭稱賀
일제히 소리 높여 송축하니	齊叫爭頌
그 소리가 천하에 진동하네	聲震蓋壤
다음과 같이 송(頌)하노라	頌曰
아득히 저 푸른 선농단은	黓彼蒼壇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네	在國東垠
시원하게 트여있으니	載爽載廓
후직씨에 고하고 신농씨에 제사 지내네	告稷祀農
좋은 술과 풍성한 제수를 바치고	醴饗豐隆
임금께서 친히 행차하여 밭을 가네	乃降乃藉
고삐 잡고 땅을 갈며	握索耜土

다.[神農氏沒，黃帝堯舜氏作，通其變，使民不倦，神而化之，使民宜之.]”라고 하였다.

소를 몰아 앞으로 나아가	跟轂以武
다섯 번 쟁기를 밀고 그치네	推五乃息
어진 세자는	淑惟春宮
임금을 뒤이어 온화하게	踵皇乃雍
두 번 더 쟁기를 미네	增其二績
정승은 또 두 번 보태어	相又增二
두 번에 두 번을 더하니	二而加二
아홉 번 쟁기를 밀어 끝마쳤네	其九乃極
개간한 뒤에 곡식을 심고	既墾而穀
일을 마치자 수레를 돌리니	事畢回轂
아름다운 경사가 쌓였도다	嘉祥以積
아이들 노래하고 늙은이 칭송하니	駿謠耆嘍
매우 기뻐하고 흡족해하네	驩飫忻洽
큰 복이 성대하게 일어나니	祉涌嘏激
하례하고 찬송하네	載賀載頌
풍년이 들어 공물도 형통하여	豐貿亨貢
원근의 사람들 모두 즐거워하리	遐邇愷樂
끝없는 하늘과	維天無外
가없는 땅처럼	維地無際
성상의 은택 미치리라	聖澤攸屆
우뚝한 산과	維嶽高嵩
드넓은 바다처럼	維海洪洪
성상도 똑같이 장수하시리라	聖壽攸同
성상의 장수와 은택	聖壽聖澤
무궁하고 무극하여	無窮無極
그 즐거움 끝이 없으리	樂無窮極

# 강천사<sup>14</sup>가 기자를 애도한 부에 차운하다

次姜天使弔箕子賦

내가 생각건대, 큰 덕을 지닌 이를 내었으니	余惟篤降其元德兮
성인과 짝하고 현인과 벗하였네	聖爲配兮賢爲侶
이에 사특함을 없애고 순명함을 만드니	庸祛慝允造乎純明兮
도가 높아지고 잘 다스려졌네	道方聳兮治以學
배를 띄워 서둘러 노를 저었을 적에	比揚舟先刺以篙楫兮
어느 누가 좋은 술로 전별했겠는가	疇或綴糟而遺醕
은나라 아이 <sup>15</sup> 의 교활함을 생각하니	緬殷童之孔狡兮
하늘이 무슨 수로 복 내려 너를 보우하겠는가	天孰祿兮以佑女
아,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풀고 다니니	唉狂奴之走鬢鬢兮
멸망하는 황실과 무너지는 인륜을 근심하였네	愍沈宗又隳緒
음탕하고 술에 빠져 인륜의 법도 사라졌으니	既荒酗滅乃彝則兮
천지는 묵묵히 너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네	后皇默兮莫女語
향초가 갈대와 무리지어 섞여있으니	荃爰薰夫撥荇兮
개암나무가 가시나무와 같이 자라는 격이네	榛與莽其雜處
말세를 쫓아 햇별과 멀어지니	趨大暮兮遠景晷
둥근 자루를 네모난 구멍에 끼워 넣듯 몹시 어그러졌네	紛柄鑿既齟而且齟

- 
- 14 강천사(姜天使) : 명(明)나라 사신 강왈광(姜曰廣)을 가리킨다. 자는 거지(居之)이고 호는 연급(燕及)으로, 강서(江西) 신건(新建) 사람이다. 1626년(인조4)에 왕몽윤(王夢尹)과 함께 황태자 탄생에 관한 조서를 반포하기 위해 사신으로 왔었다.
- 15 은(殷)나라 아이 : 은(殷)나라의 폭군 주왕(紂王)을 가리킨다.

옛날 태을(太乙 탕임금)이 하나라를 정벌하여	昔乙祖之翦夏兮
하늘의 뜻을 엄숙히 공경하였네	羌肅恭乎帝心
중도에 잘 다스려지다 또 혼란해지니	中旣又兮荒又至
어찌 궁궐에 훌륭한 신하 없었으리	疇不庭其厥琛
예물과 유세가 그치지 않는 가운데	贊監說之申申兮
항상 어진 이는 거두고 음탕한 이는 물리쳤네	恒納碩而攻淫
제왕의 도를 좇아 힘써서	遵皇路而迭鷺兮
가르침을 따르지 않음이 없었네	罔不迪乎訓音
어째서 후예의 아름다운 덕이 가려졌나	胡裔德之昧邵兮
아, 뒤에선 음탕하고 앞에선 고고하였네	謇背夷而面嶽
백성이 흘려보며 원수로 여기니	黎之盼兮摠仇予
술로 못을 채우고 고기를 숲처럼 매달아서네	師酒池而脯林
무고한 이 해치자 간사한 이 사특해지고	炭無辜兮媚妖囁
극도의 향락에 백성의 원망 깊어졌네	樂之極兮怨之深
구후(九侯)를 베고 악후(鄂侯)를 짓 담그니	纒剖九兮旋爓鄂
문왕(文王)이 유리(美里)에 갇혀 오늘날이 시작되었네	美幽幽兮創厥今
뇌물을 써서 서백(西伯)을 풀려나게 하니 <sup>16</sup>	散之賂兮昌乃西
하늘의 뜻인지라 늙은이와 아이들 귀의하였네	天所授兮歸耄艾
비간(比干)은 어째서 참혹하게 심장이 갈리고	比胡爲乎剖慘
매백(梅伯)은 어째서 죽은 뒤에 젖에 담겨졌나	梅胡爲乎醢害

16 뇌물을…하니 : 주(周)나라 문왕, 즉 서백(西伯)이 송(崇)나라 호(虎)의 모함을 받아 주왕(紂王)에 의해 유리(美里)에 갇히게 되자, 서백의 신하인 산의생(散宜生)과 핑요(閔天) 등이 미녀(美女)와 보옥(寶玉)을 주왕에게 뇌물로 바치고 서백을 풀려나게 했던 일을 가리킨다. 《史記 卷3 殷本紀》

비림(蜚廉)과 악래(惡來)가 그림자처럼 붙어다녀	廉來所以景附兮
기세등등하여 길을 막아서라네	雷乃翺翔兮擁途
수레가 엎어지고 굴대가 무너지니	輿仆而軸潰兮
어느 누가 채찍질하여 달리게 하겠는가	夫孰云鞭箠之可驅
서글픈 백성 귀의할 곳 없어	哀元元之罔有攸歸兮
해를 바라보며 호소하네	仰是日而籲呼
들끓는 물을 식힐 수 없으니	蹈沸湯而莫滄兮
안으로 근심하고 조심하였네	內恟愍而
순(順)이 창성하면 역(逆)이 전복되니	順昌而逆顛兮
그 이치는 속일 수 없네	厥理之非可誣也
태강(太康)이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였으니	太康之自速覆兮
희(羲)와 예(羿)를 벌할 수 없네 <sup>17</sup>	羲與羿不可誅也
화덕(火德) <sup>18</sup> 이 식어 다시 붙어넣기 어려운지라	火德冷兮難再噓
하늘이 실로 제유(帝榆) <sup>19</sup> 를 놓아주었네	天實釋乎帝榆
단주(丹朱)와 상균(商均) <sup>20</sup> 이 다스릴 수 있었는데	朱均之或可爲兮

17 태강(太康)이…없네 : 하(夏)나라 임금 태강(太康)이 정사에 힘쓰지 않아 백성의 마음이 모두 흩어졌는데도 놀이에 빠져서 멀리 사냥을 나가 십순(十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유궁(有窮)의 임금 예(羿)가 하(河)에서 태강을 막아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폐위하였다. 《書經 五子之歌》 한편 원문의 ‘희(羲)’는 미상이다.

18 화덕(火德) : 《서채씨전방통(書蔡氏傳旁通)》에, 복희(伏羲)는 목덕(木德)으로 왕이 되고, 신농(神農)은 화덕(火德)으로 왕이 되고, 황제(黃帝)는 토덕(土德)으로 왕이 되고, 소호(少昊)는 금덕(金德)으로 왕이 되고, 전욱(顓頊)은 수덕(水德)으로 왕이 되었다고 하였다.

19 제유(帝榆) : 신농씨(神農氏)의 후예인 유망(榆罔)을 가리킨다.

20 단주(丹朱)와 상균(商均) : 단주는 요임금의 아들이고 상균은 순임금의 아들인데, 모두 불초(不肖)하였기 때문에 요임금은 순(舜)에게 선위(禪位)했고 순임금은 우(禹)에게 선위했다.

순(舜)과 우(禹)가 어째서 각기 요순(堯舜)의 정통을 이었나

姚姒詎紹乎唐虞

제왕은 바른말을 하고 재앙을 만남에

龍謬謬而遭殃兮

금수까지 미치는 정성과 믿음이 있었네

有及禽之誠孚

흠뻑 내리는 단비를 누가 막겠는가

雨霏然其誰禦兮

탕(湯)이 오길 기다려 고통받는 이 소생시키네

故溪來而蘇枯

광채가 6, 7년 동안 사라지니

光六七之既晦兮

애통하게도 성인은 숨고 현인은 떠났구나

慟聖伏而賢徂

서쪽을 돌아봄에 백성이 모여있으니

眷西顧而有集兮

순응하는 것을 어찌 억지로 할 수 있으랴

應順之豈云闔

소사(少師 비간)의 바른말을 내치기를

拒少師之格言兮

입에 쓴 차보다 심하게 여겼네

云苦口之甚荼

기린과 봉황 같은 현인을 함부로 죽이고

既淫戮慘及乎麟鳳兮

짓어대는 노구(盧狗 사냥개)를 총애하였네

反寵之以信盧

말하기를, 나는 상아 젓가락을 걱정하니<sup>21</sup>

云余惕霜乎象箸兮

돌아보니 온 천하의 물이 웅덩이에 고여있네

眷滔天于潢污

미자(微子)가 재능을 품고 떠났으니

微抱器而去之兮

어찌 너희 조상을 생각하지 않는가

曷不念乎乃祖

어진 벗이 간하다가 먼저 죽으니

仁友訐而先淪兮

어느 누가 제 몸을 돌보지 않고 규간하리오

孰匪躬而規輔

재갈을 물고 문기를 그만두니

忍銜箝而塞好兮

귀신이 나의 잘못을 지켜보네

鬼臨余之不臧

21 상아 젓가락을 걱정하니 : 주왕(紂王)이 사치하여 상아 젓가락을 만드니 기자(箕子)가 탄식하기를, “저 사람이 상아 젓가락을 만들었으니 장차 반드시 옥 술잔을 만들 것이다.[彼爲象箸, 必爲玉卮.]”라고 하였다. 《史記 卷38 宋微子世家》



어둔 길을 무턱대고 미친 척 다니며 침묵하니 任墻植偃偃而默默兮  
그 근심은 임금을 바로잡는 바른말보다 더 심하네

感有甚乎謇謇之克匡

얼마 뒤 황월<sup>22</sup>을 쥐고 황하를 건너니 俄黃鉞之涉河兮  
어찌 서쪽으로 가는 길 멀다 하리오 孰云西路之且長  
삼천의 군사와 함께 하고 팔백의 제후와 회맹하니 同三千兮會八百  
천하가 무왕(武王)을 종주로 삼았네 天下宗于一王  
나의 뜻은 해이하고 어리석어 伊余志之慢愚兮  
금석에 질정함이 내 진심이었네 質金石爲腎腸  
만약 은나라의 신하가 무왕을 따른다면 苟有食其從之兮  
또한 견양과 무엇이 다르랴 又何異乎犬羊  
돌아보건대 하늘의 뜻 거역할 수 없으니 顧皇天不可逆兮  
하나라 신하가 탕임금을 만난 격이네 有夏臣之逢湯  
저 무왕이 내게 대도를 물으니 彼既咨我以大道兮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였네 欲經緯乎家邦  
이에 홍범구주<sup>23</sup>를 아뢰니 爰敷奏止于九疇兮  
실로 강령을 펼치고 조목을 드러내었네 實綱張而目揚  
복희씨의 팔괘와 짝하고 현묘한 이치 부합하니 配羲畫而符玄兮  
간략히 먼저 설명하고 뒤에 상세히 하였네 衍先略而後詳  
이는 잘 모르는 것을 밝게 알린 것이니 斯蓋曠詔乎恣恣兮  
황실의 경사일 뿐만이 아니네 不啻乎王府之嘉祥

22 황월(黃鉞) : 황금으로 자루를 장식한 도끼로, 주(周)나라 무왕이 목야(牧野)에서 은(殷)나라 주왕(紂王)을 칠 때 의장(儀仗)으로 삼았다 한다.

23 홍범구주(洪範九疇) : 기자(箕子)가 무왕(武王)에게 일러 준 대법(大法)으로, 그 종류가 아홉 가지여서 홍범구주(洪範九疇)라고 한다.

안타깝게도 황제와 요임금은 아득하고 멀며  
 참으로 하늘만 통하고 귀신만 안다네  
 하물며 봉분을 만들어 예의를 표하는 것은  
 본디 내가 기약한 바 아니었네  
 서산은 좁고 북해는 멀어  
 또한 내가 갈 곳이 아니었네  
 저 무왕은 이미 내 마음을 알고서  
 그 땅을 내가 다스리라고 했네  
 단인(檀人)<sup>24</sup>이 도읍한 곳을 향하니  
 천명을 즐김에 다시 무엇을 의심하리  
 요동(遼東) 길을 따라 계주(薊州) 관문을 넘어가니  
 쓰이고 버려짐에 따라 진퇴를 정한 것 아니네  
 어찌 천명을 거스를 수 있으랴  
 참으로 천명은 심원하여 그치지 않는구나  
 큰 솥에서 겨우 한 주걱 물을 뜨니  
 먼 길을 절뚝거리는 나귀를 타고 가는 격이네  
 보배로운 검으로 썩은 나무를 베니  
 무소 가죽도 그 견고함에 미치지 못하네  
 황량하고 누추한 곳에서도 삼가서  
 마침내 성인의 법도를 포용하였네  
 백성 모여들어 다투어 맞이하니  
 아, 기쁨만 있고 노여움 없었네  
 이에 중국의 풍속 갖추고 오랑캐 되지 않으니  
 홀로 쓸쓸히 행한 것이 아니었네

慨黃唐逖而遠兮  
 諒天通而神知  
 矧封墓而式廬兮  
 本非余之所期  
 西山隘兮北海遠  
 又非余之所之  
 彼既格余之丹衷兮  
 曰有土汝其尸之  
 向檀人之攸都兮  
 樂夫天兮復奚疑  
 遵遼道而越薊關  
 非進退於用捨  
 孰天命之可違兮  
 信於穆之不已  
 挹勺水以洪鼎兮  
 御跛驢以大路  
 寶鏑試其朽株兮  
 犀革謝其堅固  
 處荒陋而猶恪兮  
 聿包容乎聖度  
 民胥聚而爭迎兮  
 羌有喜而無怒  
 爰中國而不夷兮  
 非獨行之踽踽

24 단인(檀人) : 단군조선(檀君朝鮮)을 가리킨다.

충신과 독경을 배불리 먹여 양식으로 삼고 飽忠信篤敬以爲糧兮  
예의와 효제를 따라 질서를 잡았네 遵禮義孝悌以爲伍  
팔조<sup>25</sup>를 베풀어 오랑캐 풍속 교화시켜 敷八條而化殊俗兮  
이 나라를 낙토로 만들어 영원히 망치지 않으니 樂是國兮不永傷  
물이 아래로 흐르고 바람에 풀이 쓰러지듯 하여 水就下兮風偃草  
강토에는 다신 난리가 일어나지 않네 幅員之罔或蹶猖  
이에 군신과 부자는 乃君臣而父子兮  
마침내 의관을 복식을 갖추었네 遂冠冕又衣裳  
만백성 우물 파서 마시고 밭 갈아 밥 먹으니 萬鑿飲而耕食兮  
늙어 죽을 때까지 편안히 지내네 至老死而尙佯  
이는 본디 누린내 나는 어진 이에게 개미가 모이는 것이니<sup>26</sup>  
茲固羶仁而蟻聚兮  
술을 깬 듯 깨닫고 미치광이 짓을 후회하는 것과 같네 如悟醒而悔狂  
비로소 비린내와 더러움을 씻어내고 肇滌濯其腥穢兮  
또 향초로 목욕하네 又沐之以薰芳  
초가 마을을 떠나 큰 집에서 살며 遷鄙巷而處廈兮  
빙곡 같은 위험한 곳을 떠나 방에서 거처하네 去氷谷而卽房  
은택이 널리 미칠수록 더욱 윤택해지고 澤逾遠而彌洽兮  
도는 오래될수록 더욱 빛나네 道悠久而益光

25 팔조(八條) : 고조선 시대의 법률인 ‘범금팔조(犯禁八條)’를 가리킨다. 기자(箕子)가 제정했다 하여 ‘기자팔조교(箕子八條教)’라고도 하며, 중국의 《한서지리지(漢書地理志)》에 기록이 남아 있다.

26 누린내…것이니 : 백성이 기자(箕子)를 좋아하여 따른다는 뜻이다. 《장자(莊子)》〈서무귀(徐無鬼)〉의 “개미는 양고기를 좋아하여 모여 든다. 양고기는 누린내가 나기 때문이다. 순임금의 행동에도 누린내 나는 구석이 있다. 그래서 백성이 좋아하여 모여드는 것이다.[蟻慕羊肉 羊肉羶也 舜有羶行 百姓悅之]”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동쪽의 백성 부모처럼 기자를 우리르니	東氓仰其父母兮
해를 향해 기우는 해바라기보다 심하네	甚葵藿之傾陽
엄연히 사당과 묘, 궤장이 남아 있으니	儼祠墓几杖之猶存兮
흉악한 난리와 참혹한 화재에도 손상되지 않았네	雖兇燹慘火兮莫戕
강상을 부지하고 인극을 세웠으니	扶綱常兮立人極
상나라가 망했으나 상나라의 법도 남아있네	商雖亡而有商
저 주왕(紂王)은 의리를 잊고 한때의 영화로움 누렸으나	彼忘義一時之榮已兮
남면하는 해골 <sup>27</sup> 과 무엇이 다르랴	抑何異南面之髑髏
은나라가 오랑캐의 침공으로 교체될 적에	當殷祚被夷而告替兮
마음의 해독이 고질병 같았네	毒心痼其如瘡
신하로서 종복이 됨은 본심이 아니었고	既臣僕非我事兮
또한 작록도 자신이 구한 것도 아니었네	又爵祿非我求
주나라 땅을 넘어와 평양에 다다르니	越周原兮莅平壤
하늘에 죄를 지은 속박에서 벗어났네	解桎梏於天囚
〈서리〉를 노래하며 서쪽의 폐허를 돌아보고 <sup>28</sup>	歌黍離兮眄西墟

27 남면(南面)하는 해골 : 《장자(莊子)》 〈지락(至樂)〉에, 장자가 해골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위로 임금도 없고 아래로 신하도 없으며, 사시(四時)도 없는 가운데 천지(天地)를 춘추(春秋)로 삼고 있으니, 남면(南面)하는 임금의 즐거움이라고 하더라도 이보다는 못할 것이다. 내가 어찌 남면하는 임금과 같은 즐거움을 버리고 다시 수고로운 인간 세상에 되돌아가겠는가.”라고 한 해골의 대답이 실려 있다.

28 서리(黍離)를...돌아보고 : 기자(箕子)가 〈서리가(黍離歌)〉를 떠올리며 〈맥수가(麥秀歌)〉를 부른 일을 말한다. 〈서리(黍離)〉는 《시경》 〈왕풍(王風)〉의 편명인데, 동주(東周)의 대부가 행역(行役)을 나가는 길에 이미 멸망한 서주(西周)의 구도(舊都)인 호경(鎬京)을 지나가다가 옛 궁실과 종묘가 폐허로 변한 채 기장과 잡초만이 우거진 것을 보고 비감에 젖어 탄식하며 부른 노래이다. 〈맥수가(麥秀歌)〉는 기자(箕子)

마음이 심란하여 편치 않았네	思搖搖兮不自由
그 향기 지금도 사라지지 않으니	芬至今猶未沫兮
천고의 안타까운 근심 일으키네	激千古之惋憂
하늘이 이미 은나라를 끊어지게 했다면	倘天之已絕殷兮
어째서 이렇게 선량한 이를 돈독히 낳았는가	胡篤生此善類
당시의 흥망을 생각하면	想當日之廢興兮
원망과 허물을 면할 수 없다네	所不免乎怨尤
오직 두 사람과 함께 삼인 <sup>29</sup> 은	惟二子與三仁兮
이전의 현인보다 특출났네	特高出乎前修
하늘과 백성이 버린 저 주왕의 어리석음은	彼獨夫之迷駭兮
조잘대는 어린아이보다 심하였네	劇黃口之喁喁
하늘은 어째서 서형인 미자에게 천명을 내려주지 않았나	天胡不命乎乃兄兮
높이 뛰어오른 네 명의 철인 <sup>30</sup> 을 유린하였네	從四哲高驤而躡蹂
이 중 한 사람만 얻어도 왕노릇할 수 있는데	得一士猶可王兮
하물며 오덕이 모두 높고 성대한 사람에랴	矧五德齊崇而竝轟
무왕이 비록 성인으로 스승 여상(呂尙)과 아우 주공(周公) 있었지만	姬雖聖有師而有弟兮

)가 주나라에 조회하러 가는 길에 은나라의 옛터를 지나다가 탄식하며 부른 노래이다.

- 29 삼인(三仁) : 미자(微子)·기자(箕子)·비간(比干)을 가리킨다. 은(殷)나라가 망할 무렵에 미자는 나라를 떠나고, 기자는 간언하다가 주(紂)의 노여움을 받아 옥에 갇혔다가 마침내 죽이 되었으며, 비간은 주에게 간언하다가 죽음을 당했다. 이 세 사람의 일을 두고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은나라에 세 어진 이가 있었다.[殷有三仁焉.]”라고 하였다.
- 30 네 명의 철인 : 미자(微子)·기자(箕子)·비간(比干) 그리고 교격(膠鬲)을 가리킨다.

또한 은나라가 필시 전복되리라 생각지 못했네	亦難謂殷宗之必覆
어찌하여 분열하고 쪼개져	何分崩而離析兮
서쪽의 군사가 해치는 것을 내버려 두었나	任西師之戕戮
이에 우리 성인은 하늘의 뜻을 밝게 헤아려	肆我聖灼覩乎天意兮
기꺼이 종복들 속에 묻혔네	甘汨沒於人僕
이미 정해진 하늘의 뜻 이길 수 없고	天已定兮難勝
파죽지세의 형세라 어찌할 수 없었네	勢無及於破竹
화복은 정해진 것이 없기에	惟禍福之不齊兮
이치상 신복하기 어려운 점이 있네	理有難於信服
하늘은 유독 주나라만 비호한 것이 아니니	抑天之不獨祐周兮
동방 사람들의 곤역을 가련하게 여겼네	憫東人之窮蹙
한 명의 성인을 보내 다스리게 하니	遣一聖而分理兮
만 리 길을 이틀 밤 여정으로 여겼네	視萬里猶信宿
이에 교화시키고 은택을 베풀어	斯涵化而浴澤兮
동방에 영원히 인륜을 전했네	永人倫於東方
마음을 다해 우러르며 제수를 올려	瞻洋洋兮薦籩劑
군자가 거하고 있으니 또한 무엇을 슬퍼하라	君子居兮亦何傷
다행히 황명이 즉위하여	幸皇明之御極兮
덕화(德化)가 아득한 곳까지 미쳤네	聲教達乎混茫
언어가 다른 지역을 넘어 성인에게 나아가	越重譯而就聖兮
예악과 교화 지키며 망함을 잊었네	衛樂化而忘亡
문성이 달려와 <sup>31</sup> 동쪽 끝을 비추니	騁文星兮照東涯
깊고 드넓은 바다를 가로질러 왔네	截溟海之汨洗
사신은 이미 지리지에 박식하였고	星旣博通乎方誌兮

31 문성(文星)이 달려와 : 명(明)나라 사신 강왈광(姜曰廣)이 우리나라에 온 것을 뜻한다.

국가의 서고에서 우리나라 문서를 궁구하였네	究東牒於公藏
엄숙한 사신 행렬 국경에 들어와	肅玉節而入疆兮
농가에서 민요를 수집하였네	採風謠於農桑
드넓은 평양을 지나서	歷箕都之弘敞兮
철인의 밝은 자취를 우러르네	仰哲迹之愈章
마침 황태자가 탄생한 때라	值皇胤之誕降兮
우리나라 임금에게 급히 경사를 알려야 했네	頒慶急於我王
그러나 고결한 자취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然未忍徒過乎逸軌
이 고을에 잠시 수레를 멈추었네	乍弭節乎茲鄉
성대하게 제수를 올리니	萑與醑其孔郁兮
좋은 날 좋은 때였네	屬吉日而辰良
의복을 정제하고 꿰어앉아 정성을 바치니	跪敷衽而揭虔兮
공손히 향 피워 감응하고 서글퍼하였네	惕薰蒿而悽涼
마침내 부를 지어 애도하니	遂爲賦而弔之兮
행장에서 붓을 꺼내 휘둘렀네	動筆花於仙裝
문사는 심오하고 또 아름다워	辭既奧兮又以麗
난새와 봉황이 빙빙 날아오르는 듯하네	悅鸞回而鳳翔
시단(詩壇)에서 크게 재능을 떨치고	大掉鞅乎騷壇兮
사장에서 기치를 우뚝하게 세웠네	踔立幟乎詞場
부자의 영령이 있다면	倘夫子之有靈兮
이 변방으로 훨훨 날아오리라	想翩翩於大荒
어찌 성인의 영령만 감동시키랴	豈徒格其聖靈兮
장차 저 하늘도 감동시키리	將有感於穹蒼
나는 문득 황량한 곳임을 잊으니	余輒忘其荒榛兮
재계하는 방에 온화한 기운이 가득하네	和曄曄於齋房
이어서 말하노라	系曰

주나라의 덕이 위로 올라가 알려지니	姬德兮升聞
하늘이 버린 것을 사람이 어찌하랴	天廢兮人何
천명이 일정하지 않으니	天命兮靡常
이러한 이치를 어찌하랴	斯理兮則那
또한 백마를 타고서 <sup>32</sup>	亦白兮其馬
변치 않는 마음을 맹세하였네	矢之兮靡他
평양은 우리나라의 도읍이요	平之壤兮我都
은허(殷墟)는 주나라의 왕기(王畿)이네	殷之墟兮周畿
사신이 부를 지어 우리 성인을 애도하니	星摛辭兮弔我聖
성인이 명령이 있다면 우리와 같이 돌아가리	聖有靈兮偕我歸
은나라의 옛 사당 주나라의 도읍이 되어	毫之社兮鎬之京
잡초만 무성하고 영혼이 의지할 데 없기에	積茂草兮魂靡依
나는 뒤를 이어 돌아갈 곳 없는 영혼 부르네	余續招兮曰無歸
우리나라는 성인으로 추대하였으니	我東戴聖兮
우리의 도는 그릇되지 않았네	吾道不非

32 백마를 타고서 : 기자(箕子)가 조선에 봉해진 뒤에 백마를 타고 주(周)나라에 조회 간 일을 가리킨다.



# 눈이 갠 뒤 누대에 올라 읊은 부<sup>33</sup>에 차운하다

次雪霽登樓韻賦

황제의 교화 치달려 뭉게뭉게 구름 일어 비 내리는 듯하니

皇化神馳兮雲油雨施

위로 먼 하늘에서 널리 팔방까지 이르렀네

上屆重玄兮旁亘八荒

그 밝음은 해와 같아 봄꽃을 피우는 듯하니

其熙若晷兮敷若春華

모두 기뻐하며 초목이 단비를 바라는 듯하네

咸欣胥悅兮如草之望

채색 비단 광주리에 담아 바치려 북적대며 함께 모였으니<sup>34</sup>

玄黃是篚兮雜沓以會

누가 미혹되어 조정에 오지 않고 준동하며 왕을 뵈러 오지 않겠는가

誰迷不庭兮蠹不王

멀고 가까운 자들 모두 보답하며 오랑캐까지 복중에 두었네

酬遐答邇兮置夷貉於腹中

사신은 폭풍처럼 속히 달려와 은혜로운 조서 전하니

星蓋颯馳兮恩誥孔章

황제가 우리나라를 돌아보고 홀을 하사하여<sup>35</sup> 왕통을 가엾게 여겼네

帝眷我東兮錫圭以恤嗣

누가 황제의 사신에 적합하여 사행에 뽑혔나

疇合帝价兮揀于周行

33 눈이…부: 명(明)나라 한림학사 예겸(倪謙)이 지은 작품이다.

34 채색…모였으니: 《서경(書經)》〈무성(武成)〉에 “그 사녀들이 광주리에 비단을 담아가지고 맞이하며 주왕이 해악을 제거한 덕을 밝혔네.〔惟其士女，篚厥玄黃，昭我周王。〕”라고 하였다.

35 홀을 하사하여: 홀은 제후를 봉할 때 사용하던 신인(信印)으로, 명(明)나라에서 세조를 정식 왕으로 인정한다는 증표이다.

아침저녁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爰夙夜兮跋以涉  
 아득한 바다와 드넓은 물결 넘어왔네                踔泱漭兮越聊浪  
 왕은 공경히 받들고 천명을 두려워하며            王揭虔兮惕天命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듯이 하네            若葵藿之向太陽  
 엄숙히 교외에서 맞이하여 인사하고 주선하니      肅迎郊兮蹈拜以周旋  
 발걸음 법도에 맞아 황홀히 명당 갈네            步趨孔規兮怳邈乎明堂  
 패옥 소리 절도 있고 예법에 맞는 용모 갖추었으며   佩聲節兮禮容詳  
 늘어선 행렬 의젓하고 장엄하네                    班以行兮委蛇而翼翼  
 단문으로 인도하여 화려한 건물을 열자            引端門兮闢華屋  
 단청 칠한 서까래 바라보니 기둥은 공중에 솟았네   文櫨企兮浮柱棘  
 이에 술을 마련하여                                        于以置酒兮  
 사신을 대접하는 잔치 열어 관리들에게 보이니

謙皇華筵之法兮所刑於群辟

훌륭하고 아름다운 지방 수령들이라                懿要妙兮春有脚  
 어렵듯이 신선의 모습과 비슷하네                曖仿像其仙立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상서로운 기운 일고      降自天兮瑞下土  
 성대한 밝은 덕을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듯            蔚耿光之可挹  
 예전에 덕 있는 인물과 가까이 한 것이 며칠이었나   曾邇德兮凡幾日  
 문득 변화하여 거칠고 더러움을 제거하였네      歟變化兮羸穢除  
 옛날에 명나라 사신 예공이 이곳에 올라            昔倪使之臨此兮  
 석양에 <등루부(登樓賦)>를 지었는데                賦登樓之晚晴  
 유려한 문사는 신령한 경지에 들어                文泃泃其靈就  
 작은 바늘로 수놓듯 정교함을 다했네            窮鍼微而鉤精  
 흰 눈<sup>36</sup>을 노래한 다음                                    既歌詠其白雪

36 흰 눈 : 원문의 백설(白雪)은 <백설가(白雪歌)>를 가리키는데, 남들이 수창하기 어려운 고상한 노래를 뜻한다.

또 아름다운 누각을 찬미하였네	又崇美以雕楹
붉은색 누각에 환하게 단청을 더하고	煥增彩於朱樓
날개 펼친 듯한 기와는 우뚝 솟았네	鬱加聳乎飛葦
당일에 모시고 노닐던 일 형용하자니	狀當日之陪遊
함께 봉래산과 영주산에 오른듯하구나	若共登乎蓬瀛
글씨를 어루만지려 사롱 <sup>37</sup> 가까이 다가가	撫銀鈎兮襯紗籠
옛 자취 바라보며 옛 정을 떠올리네	仰遺躅兮起遐情
바람이 문고리 흔들고 텅 빈 주렴을 스치니	風撼鋪兮掠空簾
황홀하게 신선이 찾아와 두드린 듯하네	恍仙仗之剝剝
우리나라의 변란이 하늘까지 알려진 뒤로	自東燹之滔天
오랑캐의 약탈이 극에 달하였네	蛇豕極其挈攫
비록 누각은 우뚝하게 홀로 보존되었으나	雖巍然而獨存
재앙을 겪어 쇠락하였네	歷妖氛而彫落
번쩍이던 기둥에는 단청색이 열어졌고	電柱蝕其彤彤
빛나던 벽은 발랐던 흙이 허물어졌네	月壁漉以壤堊
이어 다시 먼지를 쓸고 다시 맞이하여	屬再掃以再迎
면면히 더 빛나게 하였네	赫繹繹以增輝
애달프게도 선왕은 갑자기 이 동토를 버렸으니	哀先王奄棄此東土兮
백성은 부모를 잃은 듯 온 나라가 슬픔에 젖었네	民若喪考兮痛纏于九圍

성명(聖明)을 이어 새로 등극한 경사에	慶新祚之繼明
동방으로 조서 보낸 일 마땅하네	宜詔書之東馳
사신은 만 리 먼 길을 달려와	星萬里之遙飛兮
구천에서 구름이 내려오듯 소식을 전하네	雲九天之下垂

37 사롱(紗籠) : 벽사롱(碧紗籠)의 준말로, 먼지가 묻지 않도록 푸른 명주 비단으로 감싸 시문(詩文)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공이 오기를 끝없이 바랐으니 公之來兮望不極

나는 공이 급히 돌아가지 않기를 황조에 기원하네

我願皇朝兮無以公而亟歸

공의 도량은 깊은 바다와 넓은 대지와 같으며 公之量兮海涵地大  
헤아릴 수 없는 용과 호랑이 같아 끝도 가도 없네

龍虎莫測兮無岸無畦

공은 하나라의 질박함과 주나라의 문화를 의표로 삼았으니

公之儀兮夏質周文

삼백과 삼천의 예<sup>38</sup>에 관직과 맡은 일이 있네 三百三千兮有官有司

공의 굳센 위용 매우 위엄이 있고 其武咺兮孔威

그의 문장은 아름답고도 더욱 훌륭하네 其文葩兮益奇

시는 금성옥진처럼 조리가 있고 其詩兮玉振而金聲

글씨는 귀신과 같은 솜씨 갖추었네 其筆兮神設而鬼施

마음도 화락하고 즐거우며 心又和而樂

기운도 평탄하다네 氣又坦而夷

아, 중국의 돈독한 교화여 噫中國之敦化兮

마치 원근에서 바람이 저절로 불어오는 듯하네 如遠近而風自

작은 우리나라가 피발좌임(被髮左衽)을 면하여 살았으니

小邦之免被髮而走之兮

어느 것인들 우리 황제가 내려주신 은택이 아니라

夫孰非我皇之所賜

38 삼백과 삼천의 예 : 예의 조목이 많음을 형용하는 말로,《예기(禮記)》  
〈예기(禮器)〉에 “경례가 삼백 가지이고 곡례가 삼천 가지인데, 그 근  
본을 따져 보면 성경 한 가지일 뿐이다.[經禮三百, 曲禮三千, 其致一  
也.]”라고 하였다.

무위 <sup>39</sup> 의 현묘한 교화를 입었으니	荷玄教之無爲兮
황제의 덕은 천지보다 크고	皇合大於乾坤
온 세상에 빛을 발하여	徹九幽以光華兮
사해에 기운이 가득하네	囿四海以氤氳
더구나 불에 타고 물에 빠진 위태로운 자를 구제하니	況救焚極溺以匡濟
동방의 백성들에게 더욱 치중하였네	尤有偏於東民
마땅히 명을 내려 우리나라에 보냈으니	宜宣命兮降青丘
한강 가에 행렬이 멈추었네	乃弭節乎漢之濱
왕과 신하는 고개 숙여 절을 하니	王暨臣兮稽且拜
누군들 터럭만큼이라도 황제의 은혜 저버리랴	疇一毛之非恩
이 누각에 올라 이 부(賦)에 화답하니	登茲樓兮和茲賦
예후(倪侯)가 남긴 정신을 따를 뿐이네	迹倪侯之遺精
이미 황하를 거꾸로 쏟고 <sup>40</sup> 폭포가 쏟아지듯	既河懸而水瀉
또 주옥을 펼쳐 늘어놓은 듯하네	又鋪珠而排瓊
예후가 다녀간 지 백 년 뒤	後倪侯蓋百祀兮
공과 더불어 도성에 이르렀네	公與之兮比京
어찌 사람의 힘으로 교묘하게 한 것이라	豈人工之能幻
조화에 합치하여 하늘이 그렇게 만든 것이네	合造化而天成
외람되어 변변치 못한 이 몸이 그대를 모실 줄은	忝薄軀於下風
평소 생각지 못한 일이라네	所未圖乎生平

39 무위(無爲) : 무위지치(無爲之治)의 태평성대의 다스림을 뜻한다.

40 황하를 거꾸로 쏟고 : 거침없는 구변(口辯)과 시문을 뜻한다. 진(晉)나라 왕연(王衍)이 관상(郭象)의 구변에 대해 “황하 물을 거꾸로 쏟음에 물이 쏟아져서 마르지 않는다.[懸河瀉水, 注而不渴.]”라고 형용한 고사가 전한다. 《世說新語 賞譽》

어찌하면 남는 빛을 빌려다 비추어  
우리나라의 문명이 되게 할 수 있으려나

安得借餘光而照之兮  
作東藩之文明也哉

# 유평악부

## 遊楓岳賦

나는 어려서부터 산을 좋아하였으니	余幼尙乎丘壑兮
아, 깊고 먼 승경을 찾을 때면 피곤할 줄 몰랐네	嘗幽尋遐討兮忘疲
거칠고 험준한 회양(淮陽)을 다스릴 적에도	暨宰淮之荒峻兮
바위 하나도 하찮게 여기지 않았네	不以巖爲鄙夷
듣건대 장쾌한 산악이 치소에 있고	聞爽岳之在治兮
옆으로는 드넓은 바다가 있었네	濱左洋之溔汜
실로 신선이 우거하는 곳이라	實仙夫之攸窟兮
세상의 분분함 멀고 또 끊어졌네	紛旣玄又闐絕
아, 안을 맑게 하고 밖을 씻어내어	羌澄內兮浴外
비로소 정신은 온화하고 정결하였네	俶凝穆兮虔潔
난초 향기에 온몸을 적시고	蒙蘭芳兮澤體
질은 혜초의 향기를 맡았네	襲之兮以蕙鬱
계거를 따고 사간을 차며 <sup>41</sup>	掇揭車兮佩射干
약영 <sup>42</sup> 과 연꽃을 따네	擷若英與茝芬
수레를 나란히 몰고 덩굴로 옷을 만드니	駢閭車兮薜荔衣
어지러운 세속과 떨어져 향기 자욱하네	紛陸離兮馥醞
신마는 뛰어올라 앞장서니	神馬蹕而先之兮
휘몰아치는 차가운 광풍을 타고 가네	駕冷飆之翕習
가파른 바위를 넘고 우거진 수풀을 지나	超嶮巖兮越蒙茸

41 계거(揭車)를…차며 : 계거(揭車)와 사간(射干)은 모두 향초(香草)의 이름이다.

42 약영(若英) : 향초(香草)인 두약(杜若)의 꽃이다.

구불구불한 냇물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으며	涉紆溪兮跨澗谷
어둑한 곳을 나와 호탕한 곳으로 들어가니	出泐漭兮入聊浪
산 중턱에 이르렀네	乃肅屆乎山腹
절에 도착하여 유숙하고	臻鴛宮而宿之兮
새벽별 뜰 때 조심스레 수레를 출발시키네	戒早轄兮星陟
빛나는 금 모래밭을 건너니	涉金沙之瑩焜兮
옥 소리를 내는 여울이 흐르네	厲玉瀨之琮琤
아찔한 산봉우리를 넘고	踰崢瑋兮粲眩
푸르른 절벽을 기어오르네	攀岌琬兮靑蒼
기림은 열기설기 울창하고	琪林鬱兮蓊鬱
요염은 우거져 고요하며	瑤葉藎兮黯莫
금련은 수없이 자라나고	金蓮茁兮萬莖
옥순은 허다하게 솟아있네	玉筍抽兮千角
나는 듯한 냇물은 구불구불 골짜기로 들어가	飛澗宛延兮赴壑
흰 무지개 흩어지는 곳으로 달려가네	騁白虹之流離
겹겹의 우뚝한 산봉우리 하늘로 치솟으니	層巒崛岉兮翊霄
범과 표범, 이무기와 용이	虎豹螭龍兮
떨쳐 일어나 내달리는 듯하네	奮臺而踦踦
큰 폭포는 천둥소리를 내고 물방울 쏟아내니	洪瀑吐雷而噴雪兮
격렬한 물결이 돌에 부딪혀 소리 내네	激飛澇以礮石
바위는 다투어 솟았다가 웅크리고	瑰巖爭屹而競蹲兮
의젓한 옥 같은 봉우리 용상처럼 오르내리네	儼玉擬龍象之起伏
신룡은 뇌정을 안고 굴속에 서려있고	神龍抱靈而蟠窟兮
신령스런 못은 아득한 바다와 접해있네	靈泓接乎溟碣
바위 꼭대기는 꿈틀거리며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듯하고	角端躩踞而爬痒兮



새들은 나무 끝에 깃들어있네	毛鬣棲於木末
새들은 함께 지저귀고	禽有共鳴之啁晰兮
선학은 하늘에서 내려와 절벽에 둥지 틀었네	仙鶴降霄而巢壁
붉은 궁궐을 오가며	往來朱宮
허공을 가르며 하늘을 날아다니네	架空而泛虛兮
별들은 비단처럼 늘어서 찬란히 빛을 내고	星羅綺列兮照爛相燭
엷매이는 곳을 벗어나 속세와 단절되니	拔繫表兮絕埃搗
옥계와 금악 <sup>43</sup> 이 한데 모인 듯하네	摠玉界而金堦
멀리서 찬란하게 지상을 밝히니	迥璀璨而燭坤兮
아득히 유리와 벽영이 잠긴 듯하네	沕琉璃與璧英
높은 산꼭대기에 오르고 깊은 골짜기를 굽어보며	既登峻兮又臨幽
하늘을 우러르고 바다를 내려보니	仰重玄兮俯九溟
귀가 멍멍하여 들리지 않고	耳肅肅兮失聞
눈이 부셔서 정신을 잃네	目瓊瓊兮喪精
원기가 응결된 곳까지 다 이르러	窮元氣之所結兮
조화옹의 용력을 다하였네	極造化之用力
천지의 안팎까지 궁구하여	究二儀之表底兮
사해의 곳곳을 헤아리네	量四海之頭脚
혼돈이 배태한 바를 상상하니	想混沌之胚胎兮
아득하고 광대하네	汨鴻濛又磅礴
상쾌하게 혼백을 깨우니	爽魂醒兮魄寤
오장과 뿔속까지 씻어낸 듯하네	悅洒練其臟骨
정신은 황홀하여 안정되지 못하고	神恂悅兮離宅
정기는 표표히 날아가 의탁할 데 없네	精彩越兮靡托

43 옥계(玉界)와 금악(金堦) : 모두 신선 세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홀연 배회하다 눈을 붙이니	忽仿洋兮交睫
나는 나를 잃고 홀연히 나비가 되었네	我喪我兮爲蝶
높은 산의 산신령을 만나니	觀巖岷之靈神兮
자주색 안개를 타고 가까이 다가왔네	騎紫霧而襯接
말하기를, 자신은 귀신이고 사람이 아니니	言我鬼而非人兮
금강산의 사명(司命)이네	乃楓岫之司命
그대의 남다른 풍도를 보니	聞爾風之差異兮
속세의 부류가 아닌 듯하네	似非類乎俗狀
조문 <sup>44</sup> 에 뜻을 두었다면	苟有志乎朝聞兮
나를 따라서 멀리 노닐지 않겠는가	盍從我而遠颺
이에 공손히 받아들여 공읍하니	爰欽受兮拱冕
나보다 먼저 고삐를 잡았네	乃先我兮掉鞅
나를 신령한 용에 타게 한 다음	既乘我以靈蛟兮
또 나에게 맑은 바람을 불어주었네	又挾我以清颺
흰 무지개를 당겨서 채찍으로 삼고	援素霓以爲鞭兮
자주색 무지개를 끌어와 끈으로 삼았네	引紫虹以爲綆
구름으로 나를 따르게 하고	從之我以雲氣兮
노을로 나를 인도하였네	導之我以霞光
가볍게 일어나 멀리 내달려	竭輕學而遐鶩兮
이를 곳도 방향도 없는 듯하였네	若無屆而無方
바람은 세차게 불어 수레를 밀고	風縱縱兮扶轄
우레는 천둥소리 내며 마부를 호위하네	雷磕磕兮擁馭
마침내 북쪽의 한문에 이르러	遂北之乎寒門兮

44 조문(朝聞) : “아침에 도를 깨달았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朝聞道, 夕死可矣.]”라는 공자의 말이다. 《論語 里仁》

촉룡 <sup>45</sup> 이 다니는 것을 보았네	瞰燭龍之所御
눈과 서리가 뒤섞여 길이 보이지 않고	霰霜糅兮晦路
빙설이 우거져 골짜기를 헤매네	氷雪壘兮迷谷
나를 두렵게 하여 벌벌 떠니	懾余若將慄慄兮
수레를 돌려 머뭇거리네	乃班師而前却
졸졸 흐르는 냇물에 다리를 놓아	梁弱水之滌滌兮
태호복희씨(太昊伏羲氏)의 도읍에 이르렀네	戾太昊之攸國
우거진 수풀에서 쉬었다가	憩扶疏之橙林兮
검푸르게 엮힌 약목을 붙잡고 오르네	攀黝繆之若木
희디흰 금천 <sup>46</sup> 에 오르니	躡金天之皎皎兮
두 눈이 아찔하여 정신을 잃었네	懼目奪而精鑠
나를 가엾게 여겨 장차 남쪽을 향해	卬乎余將南爲兮
화염의 주작으로 내달리네	騁朱雀之燦赫
화덕(火德)의 성대한 불길을 살펴보니	觀炎德之亢熾兮
축융(祝融 불의 신)의 사나운 위엄이 두렵네	怖祝融之威虐
분주히 위로 두드리고 아래로 열기를 뿜으니	紛上敲而下赫兮
쇠와 돌을 녹임이 두렵구나	恍流金而消石
화산과 들끓는 골짜기를 밟으니	蹈火山與湯谷兮
살갓이 타고 몸이 데어 놀라네	驚爍肌而爛體
어찌 이곳에 잠시라도 머물 수 있으리	曾焉足以少留兮
곧장 해가 넘어가는 동쪽으로 내달리네	歛東馳乎濛汜

45 촉룡(燭龍) : 중국 서북해(西北海) 밖 적수(赤水) 북쪽에 있는 장미산(章尾山)에 열굴은 사람이고 몸은 뱀이며 몸 색깔은 붉은 신이 사는 데, 그 신이 눈을 감으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눈을 뜨면 세상이 밝아진다고 한다.

46 금천(金天) : 상고시대 전설상의 황제인 소호 금천씨(少昊金天氏)를 가리키거나, 혹은 서쪽의 하늘을 지칭하는 금천(金天)을 가리킨다.

승천한 굴속의 규궤 <sup>47</sup> 를 만나고	觸規毀之騰穴兮
웅장한 금아 <sup>48</sup> 를 후러치네	壯金鴉之搏擊
해 뜨는 곳에서 나의 신훈을 먹이고	捰余龍於扶桑兮
희화 <sup>49</sup> 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네	踵羲和之上昇
하늘의 문 구약에는	天之門兮九鑰
문지기 야차가 사나운 눈으로 지켜보네	守夜叉之矚瞪
마침내 부끄럼 없이 용감하게 나아가니	遂勇進而無怍兮
나를 상청 <sup>50</sup> 으로 인도하네	云余造乎上淸
온통 백옥으로 옥경(玉京)을 만들었고	混白玉而爲京兮
열두 누대에 오성이 있네	樓十二而五城
푸른 소를 탄 노자(老子)를 만나니	遇靑牛之老史兮
신선들 이끌고 유유자적하네	率衆仙而容與
분분히 기러기와 학을 몰고	紛鞭鴻而控鶴兮
기린과 봉황과 더불어 편안히 지내네	擁麟鳳之泄泄
산신령이 나를 노자에게 소개하니	靈爲我而謁之兮
노자는 턱을 끄덕이며 나를 나오라 하네	老頷之曰來汝
나는 읊하고 공손한 자세로	余揖之而恭已兮
존귀한 술법을 듣고자 하였네	願承風乎尊術

47 규궤(規毀) : 미상이다.

48 금아(金鴉) : 태양 속에 있다는 세 발 가진 신조(神鳥)인 삼족오(三足鳥)로, 금오(金鳥)라고도 한다.

49 희화(羲和) : 고대 신화에 나오는 해를 몰고 다니는 신으로 천제(天帝) 제준(帝俊)의 아내이다. 동해 밖 희화국(羲和國)에서 새벽마다 여섯 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에 태양을 싣고 용을 몰아 허공을 달려 서쪽의 우연(虞淵)에까지 이르러 멈춘다고 한다. 《山海經 卷10 大荒南經》

50 상청(上淸) : 도교에서 말하는 최고의仙境(仙境)인 옥청(玉淸)·상청(上淸)·태청(太淸) 가운데 하나이다.

노자는 거듭하여 나에게 알려주기를,	老申申其詔之兮
너는 어찌 이리도 망령되고 경솔한가	汝何妄而且忽
참된 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苟欲遵夫眞道兮
탁함을 맑게 하는 것보다 앞서는 일이 없네	莫先急乎澄濁
모두 잣더미로 만드는 염화를 살피고 염려하여	慎念火之俱灰兮
하나의 기운을 자축(子丑)에 보존해야 하네	存一氣於子丑
몸을 완전하게 하고 단약을 복용하면	完鼎器而安丹兮
환골탈태하여 신선이 된다네	換胎骨以羽翼
어찌 자신에게 있는 것에 돌아가지 않고	胡不返乎在我兮
헛되이 산천을 방황하는가	謾彷徨乎山澤
저 기이한 봉우리와 아스라한 골짜기는	彼奇峯與絕壑兮
그저 정신을 고달프게 하고 눈만 즐겁게 하네	徒憊精而娛目
이는 밖을 힘쓰고 안을 내버리는 일이니	是務外而遺內兮
참으로 헛수고이고 무익하네	諒徒勞而無益
속히 돌아가 고요히 지내고	亟歸歟而安定兮
미친 듯 내달리며 떠돌아다니지 말아라	毋狂馳而浪迹
여러 신선들이 함께 희롱하며	衆仙客之偕謔兮
나를 미치고 미혹되었다 지적하네	群指余爲狂惑
나는 내심 반성하면서도 의심하여	余內省而猶疑兮
돌아가고자 하나 그러지 못하네	將欲返而未克
산신령이 나를 곧장 인도하니	靈導余以徑造兮
의젓하게 육계(肉髻)를 쓴 금불상이네	儼肉髻之金釋
독룡을 굴복시키고 사나운 호표를 길들여	降毒龍兮馴猛豹
천불에 예를 표하고 불법을 들려주네	頂千佛使聞法
나는 이미 너의 마음을 꿰뚫었으니	曰余已通兮他心兮
너는 거듭 말해주는 것을 사양하지 말아라	爾無辭以更白

다섯 가지 간사함과 일곱 가지 도적은	唯五奸與七賊兮
바로 자신의 원수이네	乃自家之讎敵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데서 불법을 깨달아야 하니	悟法於指輪兮
천지사방에서 속세의 기운 씻을 수 있네	霽狂塵於六隙
비록 면벽하며 마음을 살피지만	雖觀心於一壁兮
이미 극락의 세계에서 노니네	已優游於極樂
어째서 너는 이러한 이치에 어두워	胡爾盲之昧是兮
헛되이 산에 오르고 골짜기를 내려다보는가	謾憑巘而臨谷
저 뾰뾰한 일천의 산봉우리는	彼千峯之森爽兮
너를 군더더기 나그네로 여길 뿐이네	顧於汝兮贅客
감히 아무것도 모른 채 갈 곳을 모르니	敢昧昧而俛偃兮
몸만 괴롭고 안색만 초췌해질까 걱정이네	恐勞形而悴色
선배들이 와서 비웃으니	阿與哥之至啞兮
모두 나를 주육 <sup>51</sup> 이라 지목하네	咸目我以走肉
아, 위축되어 누우칠 줄 모르고	羌潛縮而靡悔兮
듣고도 의심스러워 확신이 없네	抑聽瑩其不確
산신령이 내게 곧장 나아가라고 권하니	靈勉我而直趨兮
공자(孔子)가 사는 궁에 이르렀네	達素王之所宮
성인의 법도를 따라 단정하게 공읍하니	聖法服而端拱兮
성대한 삼천 제자들과 함께 하네	藹三千之攸同
옛날 네 명의 성인과 열 명의 철인 <sup>52</sup>	前四聖與十哲

51 주육(走肉) : 걸어 다니는 시체와 뛰어다니는 고깃덩어리라는 뜻인 ‘행시주육(行屍走肉)’의 줄임말로, 형체만 갖추었을 뿐 정신은 빈약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52 네…철인 : 사성(四聖)은 안자(顏子)·증자(曾子)·자사(子思)·맹자(孟子)를 가리키고, 십철(十哲)은 안회(顏回)·민자건(閔子騫)·염백우(冉伯牛)·중궁(仲弓)·재아(宰我)·자공(子貢)·염유(冉有)·자로(子路)·자

엄숙히 줄지어 모시며 화락하네  
 내가 몸을 굽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니  
 성인은 쉬지 않고 나를 타이르기를  
 그칠 데를 알아 정할 곳을 취함은  
 군자가 간절히 여기는 바이네  
 어째서 진실로 홀로 거하지 않고  
 방자하게 산골짜기를 내달리는가  
 탁월하게 뜻을 세우면  
 어두컴컴한 방에서도 밝아진다네  
 우뚝한 너의 기운은  
 태산과 교악에 견줄 수 있네  
 그 우뚝함이 거의 하늘과 맞먹는데  
 산봉우리는 말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어느 누가 산을 배워 자신을 한정하는가  
 어진 이라야 이를 즐길 수 있네  
 멀리 떠난 너의 자취를 속히 되돌려  
 초심으로 돌아가 게을리하지 말지어다  
 나를 슬피 눈물 흘리며 깊이 깨달아  
 성인의 간절한 가르침에 감복하네  
 예전에 나는 기로에서 길을 잃어  
 미혹된 길에서 갈 곳을 잃었네  
 저 한쪽은 현묘하고 다른 한쪽은 공허하여  
 모두 내가 일삼을 바가 아니었네  
 두 가지를 가지고 나아가 질정하니

肅列侍而闡侃  
 余罄折而拜叩兮  
 聖諄諄其不倦  
 曰有止而斯定兮  
 乃君子所惓惓  
 胡不誠乎處獨兮  
 恣橫奔乎巖谷  
 苟卓爾而有立兮  
 室雖暗而生白  
 將爾氣之巖巖兮  
 比泰山與喬岳  
 庶峻極而齊天兮  
 詎丘巒之足說  
 疇學山而自晝兮  
 仁者以後樂此  
 迷廻爾之遐軌兮  
 反初服而無忘  
 余悲淚而迥悟兮  
 服聖謨之提耳  
 曩余亡羊乎岐路兮  
 失指南於迷軌  
 彼一玄而一空兮  
 舉非余之所事  
 執二柄而就質兮

유(子游)·자하(子夏)를 가리킨다.

스승의 격언으로 하나에 귀의하였네	師格言而歸一
지금은 빈 채로 왔다가 채워서 돌아가니	今虛往而實歸兮
맹세코 가슴에 새겨 잊지 않으리라	誓服膺而勿失
마부도 슬퍼하고 내 말도 그리워하여	僕夫悲余馬懷兮
머뭇거리며 고향을 뒤돌아보네	惓跼顧乎故國
산신령이 다시 길에 오르라고 나를 재촉하여	靈催余而復路兮
마침내 깃발을 돌리고 수레를 되돌리네	遂返旆而廻軸
이번의 아득히 먼 유람은	唯此學之緬邈兮
실로 산신령 덕분이네	實有賴乎山靈
산신령이 나를 일깨우는 데 인색했다면	靈苟嗇乎誘我兮
어찌 이런 유람을 얻었겠는가	焉所得乎此行
이미 사방의 끝까지 떠돌아다니고	既浮游乎四極兮
또 아득한 천상의 궁궐에도 이르렀네	又清都之廣漠
신선과 부처의 밝은 경계를 가슴에 지니고	佩仙佛之炯戒兮
공자의 밝은 법도를 따르리라	服先師之明則
저 하늘에서 성인들을 뵈고	覲諸聖乎諸天兮
유불도 종파의 가르침 받았네	受三教之宗派
이에 나는 감격하고 깨달아	茲余所以感悟兮
삼가 산신령에게 감사의 인사 전했다	敬爲靈而一謝
산신령 머뭇거리며 조용히 있다가	靈偃蹇而玄默兮
속히 멀리 거동하여 안개처럼 사라졌네	迅遐舉而煙滅
갑자기 잠에서 깨어 하품하고 기지개 켜니	乍蓬蓬其欠伸兮
황량이 아직 덜 익었다고 하네 <sup>53</sup>	報黃梁之未熟

53 황량(黃梁)이…하네 : 황량몽(黃梁夢) 고사를 가리킨다. 노생(盧生)이 란 이가 한단(邯鄲)의 객점에서 여관 주인이 메조밥[黃梁] 짓는 것을 보고 도사 여옹(呂翁)이 주는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아, 저 밝고 상쾌한 금강산은	噫金剛之明爽兮
어찌 먼 장관을 통창하게만 해주었으리	豈徒暢其遐矚
인욕을 막고 천성을 보존하게 하며	能遏人而存天兮
더러운 때를 상쾌하게 씻어주었네	快湔滌其垢濁
도를 행하고 선을 닦아 맑은 세계에 다다르니	致淑郵而臻清兮
실로 세 명의 성인에 오르는 계단이네	實三聖之階級
나는 문득 깨달아 기이한 일 기록하여	余惕寤而記異兮
후인들이 미칠 수 있도록 권면하노라	勸後來而企及

---

수십 년 동안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깨어 보니 아직 메조밥이 채 익지 않았다고 한다. 《太平廣記 卷82 異人2 呂翁》

# 〈수양춘부〉<sup>54</sup>에 차운하다

次愁陽春賦

보슬비가 간밤에 지나가니	微雨夜過
새들은 집을 맴돌며 봄을 노래하네	鳥繞舍而啼春
계단을 따라 걸어 올라가니	步履循階
어찌서 눈에 가득한 방초는 사람을 근심하게 만드는가	何芳草滿眼兮愁人
하늘 맑게 개어 구름 걷히고	天暄霽兮却雲
따스하고 화창하여 새로운 봄기운 머금었네	藹和煦兮含新
이어지는 언덕은 잠을 자듯 누워있고	惹岸兮如眠
버드나무 함께 우거져 고운 빛깔이라네	柳共蓋而色鮮
졸졸 흐르는 물소리 귀에 가득하고	滿聽兮涓涓
바위틈 구멍에서는 샘물이 흐르네	石開竇而下泉
넘실넘실 유독 아름다운 광경은	蕩漾兮便娟
아지랑이를 불어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모습이네	吹野馬而如煙
마음은 괴롭고 번민에 사로잡혀	魂被惱兮煩冤
동풍에 의지해 아득히 바라보네	倚東風兮茫然
마치 후궁이 비싼 값에 부(賦)를 구하고 <sup>55</sup>	若乃後宮買賦

54 수양춘부(愁陽春賦) : 이백(李白)의 작품이다.

55 후궁이...구하고 : 한 무제(漢武帝) 때 총애를 잃은 진 황후(陳皇后)가 황금 백 근(斤)을 가지고 사마상여(司馬相如)에게 글을 지어 주도록 간청하여 다시금 총애를 받게 되었다는 ‘천금매부(千金買賦)’의 이야기가 사마상여의 <장문부(長門賦)> 서문에 실려 있다.

남관을 쓴 사람이 고향을 그리는 노래 부르는 듯하네 <sup>56</sup>	南冠越吟
꽃은 고향을 그림게 하고	花迷故國
피꼬리는 상림원(上林苑)에서 요란하게 우네	鶯亂上林
잠시 우두커니 서서 응시하다가	乍凝睇以延佇
시름에 잠겨 눈물 흠치며 가슴을 어루만지네	悵揮淚而撫心
마음은 봄과 같아 끝이 없는데	心如春兮無極
머리는 하룻밤 사이에 다 희어졌네	鬢一夜而霜雪
돌아보건대 인생은 목석이 아니니	顧人生非木石兮
누군들 아름다운 계절에 감응이 없으랴	孰無感於佳節
나는 북방에서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我所思兮幽之都
빙설에 가로막혀 부를 수가 없네	隔冰雪兮喚無因
저 쓸쓸한 긴 겨울이	彼慘慄之長寒兮
어찌 따뜻한 봄을 가까이 하랴	豈陽暉之可親
봄바람을 말아서 불게 할 수 있다면	若春風可卷而吹之兮
나는 이 북방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싶네	我欲暖此幽之人

56 남관을…듯하네 : 남관(南冠)은 북방으로 잡혀간 죄수의 신세를 비유할 때 쓰는 표현이다. 춘추시대 초(楚)나라 악관(樂官)인 종의(鍾儀)가 진(晉)나라에 잡혀가서도 고국을 잊지 못해서 초나라 모자인 남관을 쓰고 초나라 음악을 연주하였는데, 끝내는 그곳에서 군자라는 호평을 받고 석방되어 돌아왔던 고사가 《춘추좌씨전》 성공(成公) 9년 조에 보인다. 월음(越吟)은 월나라의 노래를 말할 것인데 전국시대 월나라의 장석(莊舄)이 일찍이 초(楚)나라에 가서 높은 벼슬을 하다가 병이 들었을 때,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여 월나라의 노래를 불렀던 데서 온 말로, 고향을 몹시 그리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史記 卷70 張儀列傳》

# 뇌부

雷賦

꿈에 용을 타고 허공으로 올라가	夢乘蛟以亢浮
구름과 무지개도 없는 곳에서 비를 뛰어넘었네	絕雲霓而超雨
별안간 빠르게 위로 날아가	紛倏霍而上翊
옥황상제의 무기고를 엿보았네	窺玉帝之武庫
가득 늘어선 갑옷과 투구에 두려움 생기고	愷介冑之林列
뇌거가 굉음을 내며 어지럽게 돌아가네	輾雷車之鞞鞳
자세히 살피면서 조심스레 앞으로 나가	精僣僣而前却
옷깃을 펼치고 꿇어앉아 물어보았네	跪敷衽而就詰
대답하기를, 이 뇌라는 것은	曰茲雷之爲物
아, 냄새도 없고 빛깔도 없네	羌靡臭而靡色
양기를 몰래 뭉쳐놓고 내뿜지 않다가	陽潛結而不洩
먹구름을 만나면 비로소 격렬해지네	觸重陰而方激
아, 정의 기운이 숨어 있다가 크게 울리고	審貞悶而亢鳴
흠어진 인이 숨어 있다가 괴이하게 위엄을 떨치네	渙仁蟄而威怪
공중을 내달리는 큰 소리는	走空中之大聲
하늘의 지극한 위용을 펼친 것이네	宣上天之至武
길이 맞이하여 다함이 없으니	長厥逆而罔艾
야을 <sup>57</sup> 보다 넉넉하지 않음이 분명하네	昭不饒於野乙
너의 사특함을 숨겨서 피할 수 없기에	隱乃慝而難道

57 야을(野乙) : 미상이다.

일부러 이백의 사당에 뒤늦게 벌하였네 <sup>58</sup>	故追戮於夷伯
비록 성상의 안색도 오히려 변하니	雖聖色而猶變
하물며 실수 없이 갖추어 드러내는 경우에라	矧備著之不失
백 리 안에서 같은 소리를 들으니	聞百里而音同
어떤 간사한 무리인들 형벌을 피할 수 있으랴	疇衆邪之逃刑
나는 삼가 받들고 일어나 공경을 표하였으니	余竦受而起敬
올바른 기운을 무기로 삼는 것을 우러러보았네	仰正氣之爲兵
도깨비들이 뒤섞여 있는 것을 슬퍼하니	悲魑魅之雜糅
장차 이것으로 인간 세계를 경계하리라	將以警夫人寰
자나 깨나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니	惕寐覺而無見
우르릉 천둥소리가 남산에서 여전하네	殷猶在於南山

58 이백의... 벌하였네 : 《춘추좌씨전》 희공(僖公) 15년에 “이백의 사당에 벼락이 친 것은 하늘이 죄를 준 것이다. 이에 전씨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죄악이 있었다.〔震夷伯之廟 罪之也 於是 展氏有隱慝焉〕”라고 하였다. 두예(杜預)는 “이백(夷伯)은 노(魯)나라 대부로 전씨(展氏)의 조부(祖父)이다. 이(夷)는 시호(諡號)이고, 백(伯)은 자(字)이다.”라고 하였다.

# 사辭

## 기룡사

騎龍辭

내가 네 필의 용마(龍馬)를 타고 구름 낀 포구 서쪽으로 가니

余所駟兮浦雲西

붉은 비늘은 반짝반짝, 예쁜 이는 희끗희끗.

燁紅鱗兮曜奇牙

풍우를 일으켜서 입으로 우레를 깨물고,

振風雨兮口齧雷

무지개를 비틀어서 높은 노을로 나가네.

捩浮霓兮出高霞

작아지면 털끝에 들다가도 커지면 더욱 지극히 커지니

小入毫兮大彌極

천만 번의 변화를 헤아릴 수 없네.

幻億變之不測

내가 마침내 불러서 길들이자

余乃招而馴之兮

머리 뿔을 숙이고 순순히 복종하네.

俛首角而弭伏

은빛 물결에서 목욕하고 장대비에 젖었다가

浴銀浪兮濕滂沱

회오리바람에 몸을 씻고 붉은 햇살에 말리네.

刷回飈兮晞紅旭

무지개를 가슴걸이 삼아 바로잡고 우뚝 솟은 노을을 안장 삼으며

虹掉鞅兮聳霞鞍

안개로 이마 장식<sup>59</sup>을 하고 방울을 달았네.

霧月題兮鑾鈴

59 이마 장식 : 원문의 ‘월제(月題)’는 말의 이마에 붙이는 장식으로, 모

패옥과 꾸미개를 엄숙히 정돈하고	嚴佩裝兮整飾
조신하게 바람 <sup>60</sup> 타고서 높이 올라가네.	夙飛廉兮亢征
공경과 군사들이 좌우에서 호위하고	公與師之左右兮
지존이 또 나를 위해 앞장서네.	隆又爲余先之
공작 덮개의 수레가 모여들어 그늘 짙은데,	孔蓋集兮蔭翳
미녀들의 고운 눈썹이 선명하네.	衆妃粲兮蛾眉
수만 명의 선동(仙童)이 나란히 달려오니	萬仙童之駢驚兮
교룡과 일월 새겨진 깃발 <sup>61</sup> 이 바람에 펄럭이네.	颺旂常之旖旎
문득 가볍게 올랐다가 빠르게 엄숙히 달리고,	歛輕舉兮迅赴肅
창합을 밀치고 곧장 춤고 떨리는 곳 <sup>62</sup> 에 이르자	排闥徑造乎凌兢
내 상투가 높이 뜨고 내 옷깃이 날개가 되어	峨余髻兮翼余裾
점차 넓은 정원으로 나란히 오르네.	漸廣庭兮齊升
옥계단에서 우리러보며 멀리 기운을 토하니,	仰迥嘯於玉城兮
모든 반열이 무릎 꿇고 있다가 비로소 일어나네.	膝萬班而載興
천신께서 나에게 신신당부하시길,	皇申申其詔余

양이 달과 같아서 그와 같이 칭하는 것이다. 《장자(莊子)》〈마제(馬蹄)〉의 “말에게 가로나무와 멩예를 달고 이마에 달 모양의 장식을 붙여 가지런히 정돈케 하다.[夫加之以衡扼，齊之以月題。]”에서 온 말이다.

- 60 바람 : 원문의 ‘비렴(飛廉)’은 바람의 신, 또는 바람을 일으키는 신령한 새를 가리킨다. 굴원(屈原)의 〈이소(離騷)〉에 “앞에는 망서가 먼저 달리게 하고, 뒤에는 비렴이 따르게 하네.[前望舒使先驅兮，後飛廉使奔屬。]”라는 구절이 있다.
- 61 교룡과…깃발 : 용을 그린 기를 기(旂)라 하고, 해와 달을 그린 기를 상(常)이라 한다.
- 62 춤고 떨리는 곳 : 원문의 ‘능경(凌兢)’은 춤고 떨린다는 뜻이다. 양웅의 〈감천부(甘泉賦)〉에 “연란산(椽欒山)에 올라 하늘의 문에 이르고, 창합(闔闔)에 달려가 차가운 경계에 들어서는 것 같다.[登椽欒而狃天門兮，馳闔闔而入凌兢。]”라고 한 데에서 온 말이다.

음란하고 방탕하게 놀지 말라 하시고,  
 신령한 복숭아<sup>63</sup>를 상자에 담아 내려주시니,  
 대중이 널리 실컷 먹을 수 있는 좋은 징조로다.  
 내가 두 손 모아 절하고서 훌륭한 칭송하고,  
 마침내 이전에 오던 길로 군대를 돌려  
 꿈틀꿈틀한 용마를 편안히 몰고 오니  
 향기가 아직도 품속에 젖어 있네.

勿淫遨而逸遊  
 函靈桃而賜之兮  
 衆普飫乎祥休  
 余拜手而稱嘉兮  
 遂班師乎舊路  
 箠蜿蟺而安驅兮  
 馥猶濕乎懷袖

63 신령한 복숭아 : 원문의 ‘영도(靈桃)’는 전설 속의 선도(仙桃)로, 3천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



# 거범사

學風辭

비파 타고 피리 불며	鼓瑟兮吹笛
노 저으며 어부가 부르니	棹驅兮漁歌
봄바람은 화창하고	春風兮飏蕩
꽃과 버들은 화사하네	花柳兮華奢
향기로운 모래섬에서 숙무 <sup>64</sup> 를 캐어	擣芳洲兮宿莽
장차 미인에게 주려는데	將以遺兮美人
미인은 어디쯤 있는가?	美人兮何許
포구 너머 구름 안개 속에 있네	隔浦兮雲煙
원컨대 손으로 장풍을 일으켜서	願手拗兮長風
구름을 쓸어내고 포구 가로 들어가	掃雲氣兮入浦涯
해가 솟아 날이 환해지면	出白日而照之兮
미인을 만나 그리웠다 말하고 싶은데	遇美人兮道相思
포구에 구름 일고 저녁 바람 그쳤으니	浦雲興兮夕風死
나는 뜻을 올려 어디로 갈 수 있을까?	擧余帆兮何所之

64 숙무(宿莽) :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풀을 말한다. 굴원(屈原)의 <이소(離騷)>에 이르기를 “아침에는 비산의 목란을 캐고, 저녁에는 물가의 숙무를 뜯네.[朝擣阰之木蘭兮 夕攬洲之宿莽.]”라 하였다.

# 칠<sub>七</sub>

## 일곱 가지 깨달음

七覺

현동자는 입을 닫아 글을 모른 채하고	玄侗子守口晦文
시선을 거두어 밝은 눈을 감추고	息視含明
지혜를 멀리하여 어리석은 사람으로 돌아가고	叛智歸愚
빛을 등져 어둠으로 달려가고	背景趨冥
영혼을 재와 흙덩이처럼 만들어	灰靈塊魄
목우 <sup>65</sup> 처럼 살고 쉬며	侷居偶息
조용히 문 닫고 있는 것을 편히 여겨	澹凝寂而莫開
마치 꽃 피지 않는 고목처럼 있었다	做不華之枯木
이에 백실 선생이	於是白室先生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갔는데,	聞而嫁焉

65 목우(木偶) : 순장할 때 사람 대신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인형이다. 원문의 ‘용(俑)’도 ‘우(偶)’와 뜻이 같다. 《맹자》〈양혜왕 상(梁惠王上)〉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으로 용(俑)을 만든 자는 그 후손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이는 사람을 형상하여 장례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다.[仲尼曰, 始作俑者, 其無後乎. 爲其象人而用之也.]”라고 하였고, 주자의 《집주》에 “용은 장례에 쓰는 나무로 만든 허수아비 사람이다.[俑, 從葬木偶人也.]”라고 하였다.

성원을 거슬러 오르고	乃泝性源
문강을 넘고	踔文江
구란을 일으키고	揚口瀾
설봉을 갈고	磨舌鋒
빈 배를 학해에 저어가고	棹虛舟於學海
신령한 말을 담총에 채찍질하여	策神馬於談叢
발돋움하여 곳곳이 서서	屃足蘊立
순풍을 따라 소리 질러 말하기를	順風而呼曰
“듣자하니 저 횡목 <sup>66</sup> 을 살펴보면	蓋聞睽茲橫目
어떤 사물보다 영험하다	莫靈乎物
이미 그 성명을 부여받고	既賦其性命
또 좋은 기질을 타고났으니	又好其氣質
마땅히 밝음을 잡고서 돌이켜 비취보며	宜秉明而反照
살아서는 영예를 누리고 죽어서는 애도를 받아야 하거늘 <sup>67</sup>	合哀榮於在沒
어찌하여 어리석은 채로 <sup>68</sup> 스스로 늙어가다가	詎褊褊以自暮
결국 시들어버린 초목과 같이 되려 하는가	竟同歸草木之菸邑

66 횡목(橫目) : 눈이 가로로 찢어졌다는 말로, 보통 백성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사람을 뜻한다. 《장자》〈천지(天地)〉에 “선생님은 횡목의 백성에게는 뜻이 없습니까? 성인의 정치에 대해 듣고자 합니다.[夫子無意於橫目之民乎 願聞聖治.]” 라 하였다.

67 살아서는...하거늘 : 생전이나 사후에 모두 영예스럽게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논어》〈자장(子張)〉에 “살아 계실 때에는 모두가 영광스럽게 여겼고, 돌아가셨을 때에는 모두가 애통해 하였다.[其生也榮 其死也哀.]”라고 하였다.

68 어리석은 채로 : 원문의 ‘내대(褊褊)’는 햇볕을 가리기 위해 쓰는 것을 뜻하는데 보통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지금 그대는 스스로 자신의 천성을 해쳐서	今子自賊其天
맹인이 지팡이 짚고서 길을 헤매는 것 같고	摘植迷執
기러기발에 이미 아교칠을 한 듯하여 <sup>69</sup>	柱已膠矣
다시 바꾸지를 못하니	不可復易
내가 장차 그대를 위해	吾將爲子
띠풀과 잡초를 베어내고 <sup>70</sup>	剔茅夷蓬
막힌 장벽을 제거하고	割蔀祛障
귀지를 파서 귀를 열어주고	拔耎聾而開聰
눈꺼풀을 걷어 눈을 밝게 하고	刮刺刺膜而逞明
긴긴 밤 하늘에 밝은 해가 떠오르게 하고	出白日於長夜之天
깊은 골짜기 숲에 봄이 들게 하리니	生青春於幽谷之林
어찌 곱사의 등을 펴주고 앉은뱅이를 일으키며 <sup>71</sup>	奚但伸偻起躄

69 기러기발에...듯하여 : 고지식하여 융통성이 없다는 말이다. 전국시대 조(趙)나라의 인상여(蔭相如)가 “왕께서 명망이 있다는 이유로 조괄(趙括)을 쓰는 것은 기러기발에 아교칠을 하고서 거문고를 튼 것과 같습니다. 조괄은 한갓 그의 아버지가 지은 책만 읽어서 임기응변할 줄을 모릅니다.[王以名使括，若膠柱而鼓瑟耳，括徒能讀其父書傳，不知合變也.]”라고 하였다. 《史記 卷81 廉頗蔭相如列傳》

70 띠풀과 잡초를 베어내고 : 막힌 마음을 열어주겠다는 말이다. 《맹자》〈진심 하(盡心下)〉에 “맹자가 고자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다니는 산길이 잠시만 사용하면 길이 되지만, 또 잠시 사용하지 않으면 띠풀이 자라 길을 막으니, 지금 띠풀이 그대의 마음을 꼭 막고 있도다.[孟子謂高子曰，山徑之蹊間，介然用之而成路，爲間不用，則茅塞之矣，今茅塞子之心矣.]’”라고 하였다.

71 곱사의...일으키며 : 한(漢)나라 매승(枚乘)의 <칠발(七發)〉에 “이때에는 비록 오래된 질병이 있더라도 곱사의 등을 곧게 펴고 앉은뱅이를 일으키며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귀 먼 자를 듣게 해서 물결을 바라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當是之時，雖有淹病滯疾，猶將伸偻起躄，發髻披聾而觀望之也.]”라고 한 데에 보인다.

불 난 곳에 물을 뿌리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제할 뿐이겠는가  
 沃焚拯沈而已哉  
 그대는 여기에 뜻이 없는가?"라 하자  
 吾子其無意於是耶  
 현동자가 말하기를  
 玄侗子曰  
 “제가 비록 불민하나  
 雖在不敏  
 그 대강을 가르침 받고 싶습니다.”라 하였다  
 願承其槩  
 선생이 말하기를, “그래. 그래.  
 先生曰唯唯  
 남아는 세상에 태어나  
 夫男兒生世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귀히 여긴다  
 貴遂其志  
 그러므로 티끌 세상을 벗어난 불기의 깨끗한 선비들은  
 是以超塵不羈倜儻之士  
 영준함을 드러내고 호기를 펼치며  
 斐英騁雄  
 풍속의 궤범을 뛰어넘어  
 逸越風軌  
 궁하면 술꾼들과 놀고  
 窮遊酒人  
 현달하면 천자와 벗한다  
 達友天子爾  
 배속에 경전을 담고  
 其腹吞經籍  
 입으로 의리를 깨물며  
 口齧義理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요  
 射窮百中  
 검으로는 만인을 대적한다  
 劍敵萬人  
 용맹은 북궁유처럼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sup>72</sup>  
 勇不逃宮黜之目  
 지혜는 소속산의 질곡에서 풀려날 수 있다<sup>73</sup>  
 智足解疏屬之懸

72 용맹은…않고 : 북궁유(北宮黜)는 제(齊)나라 용사(勇士)로, 용맹을 잘 길러서 칼에 피부가 찢려도 흔들리지 않고 눈동자를 피하지 않았다고 한다. 《孟子 公孫丑上》

73 지혜는…있다 : 원문의 ‘현해(懸解)’는 인간 세상의 속박을 풀어서 구속이 없는 경지를 말한다. 《장자》〈양생주(養生主)〉에 “때마침 온 것은 선생께서 올 때여서 온 것이고, 때마침 간 것은 선생께서 자연의

치욕을 당하면 동해에 뛰어들고 <sup>74</sup>	恥蹈東海
의리를 지켜 서산에서 굶어 죽는다 <sup>75</sup>	義餓西山
이에 자신의 뜻을 펴고	於是惟其伸志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껏 발휘하여	恣所快意
남에게 굽혀 살고자 하지 않고	不要曲生
즉시 죽는 것을 과감히 실행한다	果於直死
고고한 담론은 천지를 기울이고	高談傾天地
거대한 말은 황하와 오악을 뒤집으며	大言倒河岳
눈을 치켜뜨면 팔방의 바람이 그치고	揚眉則八野風霽
기운을 토해내면 높은 하늘에 무지개가 곧장 뻗친다.	吐氛則九霄虹直
목숨을 내걸어 신의를 보이고	示信以刎首
할복으로 성의를 드러낸다	著誠以決腹

이치를 따른 것이다. 때를 편안히 여기고 순리에 따라 처신하면 슬픔이나 즐거움이 끼어들지 못한다. 옛날에 이것을 일러 상제가 매달려 있는 것을 풀어 주었다고 하였다.[適來，夫子時也，適去，夫子順也。安時而處順，哀樂不能入也。古者，謂是帝之懸解。]”라고 하였다. 또한 ‘소속(疏屬)’은 본래 산 이름인데, 질곡(桎梏)을 뜻한다. 《산해경(山海經)》〈해내서경(海內西經)〉에 “이부가 알유를 죽이자 제(帝)가 그를 소속의 산에다 묶어두면서 바른쪽 발에는 차꼬를 채우고 두 손은 뒤로 머리와 함께 나무에 매달아두었다.[貳負殺窶窶，帝乃梏之疏屬之山，桎其右足，反縛兩手與髮。]”라고 하였다.

74 치욕을…뛰어들고 : 전국시대 제(齊)나라 노중련(魯仲連)의 일화를 말한 것이다. 노중련은 무도(無道)한 진(秦)나라가 천하를 차지하면 “나는 동해로 뛰어들어 죽을 것이다.[連有踏東海而死耳。]”라고 한 바 있다. 《史記 卷18 魯仲連列傳》

75 의리를…죽는다 : 백이(伯夷)·숙제(叔齊)의 충의를 말한 것이다. 서산(西山)은 수양산(首陽山)을 가리킨다. 무왕(武王)이 은(殷)나라를 멸하고 주(周)나라를 세우자 백이와 숙제는 이를 부끄럽게 여겨 의리상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首陽山)에 은거하여 고사리를 캐 먹고 살다가 굶어죽었다.

만중의 녹봉을 뜯 구름처럼 여기고	浮雲萬鍾
취하고 버림을 즉석에서 결정하며	取捨立決
태산 같은 목숨이 기러기 털처럼 되는 것이	泰山鴻毛
한 번 승낙하는 사이에 이루어진다 <sup>76</sup>	然諾之間
이에 한마디 말로 양국의 분쟁을 해결하고 <sup>77</sup>	於是片言解兩國之紛
한 손으로 겹겹이 포위당한 어려움을 풀어낸다 <sup>78</sup>	隻手釋重圍之難
그들의 희로에 따라 만승의 나라가 영고성쇠하고	喜怒則萬乘榮悴

- 76 목숨이…이루어진다 : 태산처럼 귀중한 목숨을 기러기 털처럼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다. 사마천의 <보임안서(報任安書)>에 “사람이라면 모두 한 번은 죽게 마련인데, 어떤 사람의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거운 반면, 어떤 사람의 죽음은 기러기 털보다 가볍다.[人固有一死, 或重於泰山, 或輕於鴻毛.]”라고 하였다.
- 77 이에…해결하고 : 전국시대 제(齊)나라의 고사(高士)인 노중련(魯仲連)의 일화로 보인다. 진(秦)나라가 조(趙)나라邯鄲(邯鄲)을 급히 포위했을 때 위(魏)나라 사자인 신원연(辛垣衍)이 진나라를 제왕으로 섬기라고 조나라에 권하자, 노중련이 대의(大義)로써 신원연을 책망하였다. 진나라 장수가 그 소식을 듣고서 군대를 50리 밖으로 퇴각시켰는데, 이때 마침 위나라의 원병(援兵)이 와서 조나라를 구해 주어邯鄲이 진의 포위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나라에서 노중련에게 관작을 봉해 주려고 하자 관작을 거절하며 “천하의 선비 된 자에게 귀중한 것은 남을 위해 환난을 제거해 주고 어려움을 풀어주고 분란을 해결해주고도 취하는 바가 없는 것이다.[所貴於天下士者, 爲人排患釋難解紛亂, 而無所取也.]”라고 하였다. 《戰國策 趙策》
- 78 한 손으로…풀어낸다 : 전국시대 위(魏)나라 역사(力士) 주해(朱亥)의 일화를 말하는 듯하다. 진(秦)나라 군대가 조(趙)나라를 포위했을 때 조나라에서 위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했으나 위왕(魏王)이 들어주지 않자, 공자(公子) 신릉군(信陵君)이 주해를 시켜 위나라 장군 진비(晉鄙)의 군영(軍營)에 쳐들어가 40근 철퇴로 진비를 쳐서 죽이게 하고 마침내 그의 군대를 탈취하여 조나라를 구해 주었던 일화가 전한다. 《史記 卷77 魏公子列傳》

그들이 합종책 연횡책을 씬에 따라 칠웅이 이합집산한다<sup>79</sup>

縱橫則七雄合散

상대의 가슴을 찢러 은혜에 보답하려 하고<sup>80</sup>

搥胸償恩

자신의 오장을 꺼내어 원한을 갚으며<sup>81</sup>

出腸酬怨

제나라에 있으면서 연나라를 중하게 하고<sup>82</sup>

在齊而燕重

진나라에 들어가니 초나라가 위태로워진다<sup>83</sup>

入秦則楚危

- 79 그들이…이합집산한다 : 전국시대 소진(蘇秦)이 합종술(合縱術)을 써서 진(秦)나라를 제외한 여섯 나라를 연합시켰고 장의(張儀)가 연횡술(連橫術)을 펼쳐 여섯 나라의 연합을 깨뜨리고 진나라를 섬기게 한 것을 말한다. 칠웅(七雄)은 전국시대에 패권을 다투던 일곱 강국(強國), 즉 제(齊), 초(楚), 진(秦), 연(燕), 위(魏), 한(韓), 조(趙)를 이른다.
- 80 상대의…하고 : 전국시대 자객(刺客)인 형가(荊軻)의 일화이다. 형가는 연(燕)나라 태자(太子) 단(丹)을 위해 진왕(秦王)을 죽여서 복수를 하려고 할 때에, 진왕의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진나라에서 죄짓고 망명한 번오기(樊於期)를 찾아가서 “왼손으로 진왕의 옷소매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을 찢르겠다.[左手把其袖 右手搥其胸.]”라고 설명하며 그의 목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史記 卷86 刺客列傳》
- 81 자신의…갚으며 : 전국시대 자객인 섭정(聶政)의 일화이다. 섭정은 자기를 알아준 엄중자(嚴重子)를 위해 한(韓)나라 재상 협루(俠累)를 죽이고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칼로 긁고 눈을 빼내고 배를 갈라 창자를 내놓고 죽었다. 《史記 卷86 刺客列傳》
- 82 제나라에…하고 : 전국시대 소진(蘇秦)의 일화이다. 소진이 연(燕)나라 역왕(易王)에게, “신이 연나라에 있으면 연나라를 중하게 할 수 없고 제나라에 있으면 연나라를 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臣居燕不能使燕重, 而在齊則燕重.]”라고 하고서 제나라에 가서 제왕에게 궁실을 높게 하고 원유(苑囿)를 크게 짓도록 유세하였는데, 이는 제나라를 피폐하게 만들고 연나라를 위한 일이었다. 《資治通鑑 卷2 周紀2 顯王》
- 83 진(秦)나라에…위태로워진다 : 전국시대 장의(張儀)의 일화이다. 장의가 합종책을 깨기 위해 초왕을 설득하며 “지금 왕이 진나라를 섬기지 않으시면 진나라가 한나라를 위협하고 양나라를 몰아 초나라



그런 후에 명성이 저절로 서고	夫然後名自立
뜻이 어그러지지 않아	志不違
살아서는 세상에 유익함이 있고	生有益
죽어서도 후회가 없으며	死無悔
꽃다운 명성이 만고에 전해지고	芳流萬古
향기가 온 천하에 퍼진다	香播四海
영광이 역사에 빛나고	光有耀於竹帛
자취는 유명에 부끄러움이 없다	迹無愧於幽明
이것은 진실로 협객과 열장부의 일이거늘	此固任俠烈丈夫之事
그대는 나를 좇아 이를 행하지 않겠는가?”라 하였다	子豈能從我而行之乎

현동자가 말하기를	玄侗子曰
“부모가 온전히 돌아가주셨으니	全生全歸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 효자의 마음입니다 <sup>84</sup>	孝子之情
자객에 가깝고	近於刺客
명성을 흠침에 가까운 행동은	近於盜名
제가 본받을 바가 아닙니다	非我所師
청컨대 새로운 말을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請新其說
선생이 말하기를, “공명만큼 드러나는 것이 없어서	先生曰莫顯功名
선비들이 흠모하고 좋아하니	士所慕悅
협력하여 창업하고 함께 다스려서	協創共治

를 공격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초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今王不事秦, 秦劫韓驅梁而攻楚, 則楚危矣.]”라고 한 바 있다. 《資治通鑑 권3 周紀3 慎靚王》

84 부모가…마음입니다 : 《예기(禮記)》〈제의(祭義)〉에 “부모가 온전히 돌아가주셨으니, 자식이 온전하게 돌아가야만 효도라 할 것이다.[父母全而生之, 子全而歸之, 可謂孝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왕국을 안정시켰다	以安王國
그러므로 기묘하게 현원씨·복희씨와 합하고	是以奇符軒伏
절묘하게 풍후·역목 <sup>85</sup> 과 뜻이 맞았다	妙契風力
마음속에 육도 <sup>86</sup> 를 품고	胸藏六韜
턱으로 수만 갑병을 지휘하자	頤指萬甲
이에 용이 일어나면 구름이 따르고	於是龍舉而雲從
범이 포효하면 바람이 응답하였다 <sup>87</sup>	虎嘯而風答
곤외 통솔의 전권을 위임하고	委以制閫之專
추곡의 예로 융성한 대우를 하였다 <sup>88</sup>	遇以推轂之隆
의장기와 군용기, 수레 깃발과 병장기를 보면	觀其幢麾擯旗纛旄戈戎
용과 뱀이 구불구불 꿈틀거리는 듯하여	蜿蜃龍蛇
밝은 해와 달을 덮을 정도였다	掩映日月
수없이 많고 성대한 것이	莘莘縱縱
물고기가 뛰놀고 새가 날아오르는 듯하고	魚鳥胥頡

85 풍후(風后)·역목(力牧) : 황제 현원씨의 신하들이다. 황제는 일찍이 대풍(大風)이 불어 세상의 먼지를 날려버리는 꿈을 꾸고서 풍후(風后)를 얻어 정승으로 삼았고, 천균(千鈞)의 무게가 나가는 활을 들고 수만 마리의 양(羊)을 치는 사람의 꿈을 꾸고서 역목(力牧)을 얻어 장수로 삼았다. 《史記》〈五帝紀〉

86 육도(六韜) : 병서(兵書)인 육도 삼략(六韜三略)에서 나온 말로, 즉 병법(兵法)을 말한 것이다.

87 용이…응답하였다 : 임금과 신하가 의기투합함을 뜻한다. 《주역》 건괘(乾卦) 문언(文言)에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쫓는다.[雲從龍 風從虎]”라는 말이 있다.

88 곤외(閫外)…하였다 : 장수에 대한 극진한 예우를 말한다. 옛날에 출정하는 장수를 전송할 때 임금이 수레바퀴를 손수 밀어주면서[推轂], “곤내(閫內)는 과인이 처리할 터이니 곤외는 장군이 알아서 하라.”라고 한 데에서 유래한다.

말들이 우루루 달리는 모습은	沛艾配黎
천둥 번개가 쳤다가 그치는 듯하다.	雷電翕闐
노기를 품으면 천지가 움츠러들고	喑啞則天地瑟縮
질타하면 귀신도 놀라 달아난다. <sup>89</sup>	叱咤則鬼神辟易
이에 풍향과 기후를 살피고 별자리로 점을 치며	爾乃候風望氣而占星象
포위망과 함정을 피하고 지맥을 살핀다.	避牢脫奔而察地絡
세 번 명령하고 다섯 번 거듭 신칙하자 <sup>90</sup>	三令五申
북소리 들리고 깃발이 보이는데	鼓耳旗目
육화와 팔진 <sup>91</sup> 의 진법은	六花八陣
신출귀몰하다	神出鬼沒
동쪽을 치고 서쪽을 정벌하니	東征西伐
공격을 당해낼 강한 적이 없고	攻無堅敵
치욕을 씻고 원수를 갚으니	恥洒仇復
나라의 형세는 반석과 같다	國勢盤石
공적이 크고 위대하여	功弘績偉
연연산에 이름 새기고 기린각에 초상화를 건다 <sup>92</sup>	勒山圖關

89 노기를…달아난다 : 원문의 ‘암아(喑啞)’는 노기를 품는다는 뜻이고, ‘질타(叱咤)’는 큰 소리로 꾸짖는 것인데, 한신(韓信)이 항우(項羽)를 평하여 “노기를 품고 질타하면 천 명의 병사가 모두 쓰러진다.[喑啞叱咤 千人皆廢.]”라고 평한 데에 보인다. 《史記 卷92 淮陰侯列傳》

90 세 번…신칙하자 : 손무(孫武)의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여러 번 명령하고 경계시킴을 뜻한다.

91 육화(六花)와 팔진(八陣) : ‘육화’는 당 태종 때 이정(李靖)이 제갈량(諸葛亮)의 <팔진도(八陣圖)>를 기본으로 하여 만든 진법이고, ‘팔진’은 촉(蜀)나라의 제갈량이 창안하여 실제 전투에 활용한 진법이다.

92 연연산(燕然山)에…건다 : 공적을 기린다는 뜻이다. 연연산(燕然山)은 항애산(杭愛山)이라고도 불린다. 후한(後漢) 화제(和帝) 때에 거기 장군(車騎將軍) 두헌(竇憲)이 남선우(南單于) 및 강호(羌胡)의 군사들

혹자는 쟁기를 풀어버리고 초빙에 응했으며 <sup>93</sup>	或乃釋耒應聘
낚싯대를 버려두고 수레에 올랐다 <sup>94</sup>	罷釣登車
재상의 지위를 잡아 군왕을 돕고	提鈞贊元
언 손을 녹여주고 문지르고 적셔주었다	呵手摩濡
소금과 매실, 배와 노로	鹽梅舟楫
솔 안 음식 맛을 조화롭게 하고 큰 내를 건너게 하고 <sup>95</sup>	和鼎濟川
주춧돌과 대들보 역할로	柱石棟樑
큰 집 같은 나라를 안정시켰다	大廈以安
비 오고 햇볕 나고 계절의 변화가 궤도를 따랐고	

曰雨曰暘而舒慘順軌

을 거느리고 계락산(稽落山)에서 북선우(北單于)와 싸워 크게 승리하여 연연산을 점령하고 돌아왔는데,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반고(班固)의 솜씨로 명(銘)을 지어 비석을 그곳에 세웠다고 한다. ‘기린각’은 한 선제(漢宣帝)가 광광(霍光), 장안세(張安世), 소무(蘇武) 등 공신 11인의 초상을 그려서 걸게 했던 전각이다.

- 93 혹자는…응했으며 : 춘추시대 백리해(百里奚)를 말하는 듯하다. 백리해는 본래 형(荊)나라의 미천한 사람이었는데 진 목공(秦穆公)이 어질다는 말을 듣고는 만나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진나라로 갈 노자가 없어 스스로 진나라 사신에게 팔려가 진나라에서 소를 먹었는데, 1년이 지난 뒤에 진 목공이 그의 어짐을 알아보고 우구(牛口)에서 거두어서 재상으로 삼았다.
- 94 낚싯대를…올랐다 : 강태공(姜太公)이 위수(渭水)에서 낚시를 하다가 주나라 문왕(文王)의 초빙을 받아 낚싯대를 거두고 벼슬길에 나간 것을 말한다.
- 95 소금과…하고 : 솔의 음식 맛을 조화롭게 함은 재상이 되어 국정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 큰 내를 건너다는 것 역시 재상 역할을 수행함을 비유한다. 《서경》〈열명(說命)〉에, 은 고종(殷高宗)이 부열(傅說)을 재상으로 임명하면서 “내가 솔에 국을 끓이려 할 때에는 그대가 소금과 매실이 되어 주오.[若作和羹，爾惟鹽梅.]”라고 하였고, 또 “내가 만일 큰 내를 건너게 되면 그대를 배와 노로 삼겠다.[若濟巨川，汝作舟楫.]”라고 한 바 있다.

굶주림과 추위가 없고 재물이 풍족하고 백성은 많았다

無飢無寒而財阜民殷

이에 만물이 임금과 신하의 공정<sup>96</sup>한 경사를 보며 송축하고

於是萬物觀頌二人共貞之慶

백관은 군신이 서로 기뻐하는 노래를 화답해 지었다

百工和作君臣相悅之歌

그 노래에 이르기를

其歌曰

‘임금이 현명하면 신하들도 훌륭하여

元首明兮股肱良

모든 일이 안정되고 왕도가 번창하리니

庶事康兮王道昌

왕도가 번창하면 만방이 즐거우리.’<sup>97</sup>라 하였다

王道昌兮樂萬方

이때에

於是時也

은혜가 원숭이들에게까지 젖어들고

恩滂狨狔

혜택이 숨 쉬는 금수에까지 미쳤다.

澤及喘喙

노인은 배를 두드리며 노래하고

翁以腹謠

삽살개는 밤에 편히 잠잔다.

豸以夜眠

만국에서 바친 비단이 산처럼 쌓이고

山堆萬國之帛

세 번 통역하여 들여온 새를 궁정에서 길들였다.<sup>98</sup>

庭馴三譯之禽

96 공정(共貞) : 임금과 신하가 함께 태평을 누리게 됨을 의미한다. 《서경》〈낙고(洛誥)〉에 “공께서 이미 집터를 정하시고 사자를 보내와서 나에게 접의 조짐이 좋아서 항상 길함을 보여 주시니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마땅하리로다.[公既定宅, 佅來, 來視予卜休恒吉, 我二人共貞.]”라고 하였다.

97 임금이...즐거우리 : 이 노래는 《서경(書經)》익직(益稷)의 “임금이 밝으시면 신하들도 훌륭하여 만사가 안정되리이다.[元首明哉 股肱良哉 庶事康哉.]”를 활용한 것이다.

98 세 번...길들였다 : 원문의 ‘삼역(三譯)’은 여러 번 통역을 거친다는 의미로 멀리서 조공(朝貢)을 바치러 오는 동안 여러 나라를 경유하기 때문에 여러 번 통역을 한 것이다. 《후한서》 권86 〈남만전(南蠻傳)〉

감로가 곡식을 적시고	甘露湛粟
빗물이 짐승까지 어질게 하여	雨淋仁獸
높은 덕에 수령들도 추창한다	超德牧蹕
상서로움의 조짐을 맞이하여	嘉祥迎符
좋은 경사가 거듭 드러나니	休慶沓彰
아침부터 저녁까지 춘대에 오른 듯하고, <sup>99</sup>	春臺朝暮
온천지가 인수지역 <sup>100</sup> 이로다	壽域穹壤
집집마다 봉을 받을 만하니 <sup>101</sup>	比屋可封
작위함도 없고 아무 형상도 없다 <sup>102</sup>	無爲無象

에, “월상국이 통역관 세 명을 데리고 중역(重譯)을 통해 와서 백치(白雉)를 바쳤다. [越裳以三象重譯而獻白雉.]”라고 하였다.

- 99 아침부터…듯하고 : 원문의 ‘춘대(春臺)’는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리  
는 태평한 세상을 말한다. 《노자(老子)》 20장에 “사람들 화락한 모양  
이, 흡사 진수성찬을 먹은 듯도 하고 봄 누대에 오른 듯도 하네. [衆人  
熙熙, 如享太牢, 如登春臺.]”라고 하였다.
- 100 인수지역(仁壽之域) : 천수(天壽)를 다하며 살 수 있는 태평성대를 가  
리킨다. 《한서(漢書)》 권22 <예악지(禮樂志)>의 “한 세상의 백성들을  
몰아서 인수의 지역으로 인도한다면 풍속이 어찌 성강 때처럼 되지  
않을 것이며, 수명이 어찌 고종 때처럼 되지 않겠는가. [驅一世之民  
, 濟之仁壽之域, 則俗何以不若成康, 壽何以不若高宗.]”라는 말에서 유  
래한다.
- 101 집집마다…만하니 : 원문의 ‘비옥가봉(比屋可封)’은 요순시대에 교화  
가 사해에 두루 미쳐 집집마다 모두 봉(封)을 받을 만큼 덕행이 뛰어난  
인물이 많았음을 뜻한다. 《한서》 <왕망전(王莽傳)>에 “요순 시대  
는 집집마다 다 봉하여도 되었다.”라 하였다.
- 102 작위함도…없다 : 원문의 ‘무위(無爲)’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이 잘 다스러지는, 이른바 무위지치(無爲之治)를 뜻한다. 《논어》  
<위령공(衛靈公)>에, “행함이 없이 다스린 이는 순임금이실 것이다.  
대저 무엇을 하셨으리요? 몸을 공손히 하고 바르게 남면하셨을 뿐이  
다. [無爲而治者, 其舜也與. 夫何爲哉! 恭己正南面而已矣.]”라고 하였  
다. ‘무상(無象)’은 당 태종 때의 재상 우승유(牛僧孺)가 당 태종의 질

이는 또한 장수와 재상이 할 수 있는 일이니, 斯亦將相者之能事  
그대는 나를 좇아 도모해보려 하지 않겠는가?”라 하였다.

子豈能從我而圖之乎

현동자가 말하기를,	玄侗子曰
“쉽게 말할 수 없고	不可易言
힘들여 이를 수 없습니다.	不可力致
저는 할 수 없으니	吾斯未能
청컨대 새로운 말을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請新其說
선생이 말하기를, “하늘이 총명함을 내려주되	先生曰天畀聰明
우리에게 문(文)을 주셨도다	授我以文
거북이가 솟아나고 용이 나타남도 <sup>103</sup>	龜超龍出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이다	亦爲斯人
이로써 큰 스승과 유생들이	是以鴻師碩生

문에 답하며 말했던 ‘태평무상(太平無象)’의 의미로, 태평한 시대는 특별한 표준이나 형상이 없다는 말이다. 당 태종이 천하가 언제 태평해지겠느냐고 묻자 우승유가 대답하기를 “태평 시대의 형상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사방의 오랑캐들이 서로 침략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고 백성들이 떠돌며 흩어지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으니, 비록 지극한 다스림은 아니더라도 또한 소강(小康)이라고 이를 만합니다. 폐하께서 만약 따로 태평함을 추구하신다면 신 등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太平無象. 今四夷不至交侵, 百姓不至流散, 雖非至理, 亦謂小康. 陛下若別求太平, 非臣等所及.]”라고 하였다. 《資治通鑑 卷244 唐紀60》

- 103 거북이가… 나타남도 : 이른바 ‘하도낙서(河圖洛書)’를 표현한 것이다. ‘하도(河圖)’는 복희씨(伏羲氏) 때 황하(黃河)에서 길이 8척이 넘는 용마(龍馬)가 등에 지고 나왔다는 그림으로, 이 그림이 《주역》 팔괘의 근원이다. ‘낙서(洛書)’는 우임금이 치수(治水)할 때 낙수(洛水)에서 나온 거북이 등에 있었다는 글로, 이 글이 《서경(書經)》 홍범구주(洪範九疇)의 근원이 되었다.

깊은 뜻을 전수하고	授奧傳祕
연구를 폭넓게 하여	博討遐究
우주의 이치에 통달하고	包略宇宙
깊은 곳에서 문구를 따서 벌여놓아	鉤深棘幽
현묘한 이치를 조탁했다	剷玄鈇妙
그 글은 순박함을 본받아서	其文則師渾𦉳
어려운 데로 <sup>104</sup> 이어졌고	祖聲佶
바르고 아름다움에서 <sup>105</sup> 나와	出正葩
기이한 법도로 들어갔다	入奇法
온순함을 연구하고 강건함을 추구하며	研溫淳而覈雄剛
근엄함을 살피고 허황됨을 물리쳤다	考謹嚴而黜浮誇
한(漢)·진(秦)을 참고하고	參之以漢秦
이소(離騷)와 장자(莊子) <sup>106</sup> 로 운색하여	潤之以騷遙
높게는 천상(天象)을 다하고	高而畢天象
낮게는 산택(山澤)을 다하며	卑而盡山澤
저승의 귀신까지 거론하고	幽而極鬼神
이승의 사람들을 다 열거했다	顯而殫人物
천지를 울리면서 온 세상을 종횡무진하고	鏗天動地而經緯八極

104 어려운 데로 : 원문의 ‘오길(聲佶)’은 ‘오아길굴(聲牙佶屈)’의 줄임말로 글이 매우 어려워 알기 힘들다는 뜻이다. 한유(韓愈)의 <진학해(進學解)>에 “주고(周誥) 은반(殷盤)이 길굴오아하다.[周誥殷盤, 佶屈聲牙.]”라고 한 말에서 유래한다.

105 바르고 아름다움에서 : 원문의 ‘정파(正葩)’는 한유(韓愈)가 <진학해(進學解)>에서 시경을 평가하며 “위로는 《시경》의 바르고 아름다움[詩正而葩]을 규범으로 삼고”라고 한 데에서 유래한 말이다.

106 장자(莊子) : 원문의 ‘요(遙)’는 《장자(莊子)》<소요유(逍遙遊)>를 말하는 듯하다.



쏟아지는 폭포수처럼 다함을 볼 수 없다<sup>107</sup> 懸河瀉水之不見竭

먹을 적시고 붓을 휘두르자 마치 칼놀림에 여유가 있어

揮柔染煤而游刃恢恢

포정의 손이 뼈와 살 사이를 획획 가르는 것 같다<sup>108</sup>

有似包丁之手經肯綮而騷騷

그 시는 풍아에 들어

其詩則協風雅

예악에 부합하며

合禮樂

소호(韶護)<sup>109</sup>와 어울리고

和韶護

균천광악(鈞天廣樂)<sup>110</sup>을 연주하는 듯하다

戛鈞廣

그 소리는 즐거우면서도 평화롭고

其聲樂而平

107 쏟아지는...없다 : 시문이 거침없이 전개되었다는 뜻이다. 진(晉)나라 관상(郭象)이 도도(滔滔)하게 담론을 전개하자 태위(太尉) 왕연(王衍)이 “폭포수가 쏟아지듯 계속 퍼내어도 마를 날이 없다.[如懸河瀉水, 注而不竭.]”고 칭찬했던 고사가 있다. 《世說新語 賞譽》

108 먹을...같다 : 글 짓는 솜씨가 신묘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비유한 말이다. 포정(庖丁)이 문혜군(文惠君)을 위해 소를 잡는데, 소 잡는 솜씨가 매우 뛰어나 문혜군이 감탄하자 포정이 소 잡는 도(道)를 말하면서 “저 소의 뼈에는 틈이 있고 칼날에는 두께가 없는데, 두께가 없는 칼날을 틈이 있는 뼈 사이에 넣으므로, 넓고 넓어서 그 칼날을 휘두르는 데에 반드시 여유가 있게 됩니다.[彼節者有間, 而刀刀者無厚, 以無厚入有間, 恢恢乎其於游刃, 必有餘地矣.]” 하였다. 《莊子》〈養生主〉

109 소호(韶護) : 소호는 보통 은(殷)나라 탕왕(湯王)의 음악을 가리키는 데, 순(舜)임금과 탕(湯)임금의 음악으로 보기도 한다.

110 균천광악(鈞天廣樂) : 원문의 ‘균광(鈞廣)’은 균천광악(鈞天廣樂)의 줄임말로, 천상(天上)의 음악 혹은 선악(仙樂)을 뜻한다. 춘추시대 조간자(趙簡子)가 병이 들어 5일 간 혼수상태에 있었는데, 의식이 돌아오자 “내가 상제가 계신 곳에 가서 매우 즐거웠고, 백신(百神)과 균천(鈞天)에서 노니는데 삼대의 음악과 달라 광악(廣樂)의 구주(九奏)와 만무(萬舞) 소리가 마음을 감동시켰다.”라 한 데에서 유래한 말이다. 《史記 卷43 趙世家》

그 울림은 온화하면서도 씩씩하며	其韻和而壯
그 가락은 맑으면서도 예스럽고	其調亮而古
그 절조는 그윽하면서도 흰하다	其操幽而曠
공교하게 이어지니	工以綴
그 율격은 오묘하게 조절되며	其律妙以按
그 곡조는 음란함을 물리쳐 한가하고 시원하며	其曲放淫注而閑敞
잡다한 소리를 쫓아내어 고아하고 심원하며	辟啾唧而高遠
성령을 길러 도야하게 하고	養性靈而陶冶
풍화를 채집하여 단련하게 한다	采風化而鍛鍊
말은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놀라고	語纔發而人驚
구절은 완성되기도 전에 귀신이 운다	句未成而鬼泣
뱃속은 온통 비단이요 <sup>111</sup>	腸皆錦繡
내뿜은 침은 주옥이로다 <sup>112</sup>	唾則珠玉
한바탕 높이 읊조리면	高哦一場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친다	風雨雷電
선창의 흥겨움과 수답의 시름겨움이	唱興酬愁兮
나오면 나올수록 기묘하다	愈出愈奇
또 봄누에가 잎을 배불리 먹고 실을 토해 고치를 만든 듯하니	

111 뱃속은 온통 비단이요 : 시문이 뱃속에 가득 들어있어서 아름다운 구절을 잘 표현해 내었음을 뜻한다. 이백(李白)의 심간(心肝)과 오장(五臟)이 온통 금수(錦繡)로 되어 있다고 찬탄한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112 내뿜은 침은 주옥이로다 : 시문이 튀어남을 비유하는 말이다. 《장자》〈추수(秋水)〉의 “그대는 저 튀어나오는 침들을 보지 못하는가. 한 번 재채기라도 하면 큰 것은 마치 구슬과 같고 작은 것은 안개처럼 부서져 내리는 것을.[子不見夫唾者乎 噴則大者如珠 小者如霧.]”이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又似春蠶飽葉而吐絲作繭

그러므로 재주와 기예가 고금에 우뚝하여	故其才藝嶼今古
명성이 온 천하에 떠들썩하네	名聲聒宇內
교화는 이로써 형식이 갖추지고	教以之文
나라는 이로써 빛이 난다	國以之華
비록 한 때 부귀를 누린다면들	雖享富貴於一時
어찌 영고성쇠를 따지겠는가	孰得失其榮枯
이 또한 문장의 큰 위대함이니	此亦文章之巨麗

그대는 나를 좇아 이를 하지 않겠는가?”라 하였다

子豈能從我而爲之乎

현동자가 말하기를, “문장을 공교하게 하는 일은	玄侗子曰文墨之工
작은 기예일 뿐이어서	只一小技
장부는 하지 않으니	壯夫不爲
청컨대 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라 하였다.	請聞其說
선생이 말하기를, “질박함은 날이 갈수록 흐려지고	先生曰朴日益散
세상은 날이 갈수록 쇠퇴한다.	世日益叔
스스로 자신의 참모습을 해치고	自蠹其眞
어려서 고향을 잃고 <sup>113</sup> 세상의 혼란을 근심한다. <sup>114</sup>	弱喪蒿目

113 어려서 고향을 잃고 : 원문의 ‘약상(弱喪)’은 어려서 집을 떠나 오래 도록 타향에서 편안하게 살다 보니 고향에 돌아갈 줄도 모르게 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근원에서 멀어졌음을 뜻한다. 《장자》〈제물론(齊物論)〉에 “내 어찌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마치 젊어서 고향을 잃고 고향으로 되돌아갈 줄 모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겠는가.[予惡乎 知惡死之非弱喪而不知歸者邪.]”라고 하였다.

114 세상의 혼란을 근심한다 : 원문의 ‘호목(蒿目)’은 멀리 바라보는 것인데, 세상의 환란을 근심한다는 뜻이다. 《장자(莊子)》〈변무(駢拇)〉에 “지금 세상의 어진 이는 멀리 바라보며 세상의 환란을 근심한다.[今世之仁人 蒿目而憂世之患.]”라고 한 데에서 온 말이다.

저 현허함과 담박함을 바탕으로 삼고      惟彼玄虛恬泊以爲其質  
 청정함과 적막함을 덕으로 삼으니      清靜寬閑以爲其德  
 색과 맛의 해로움을      色味之賊  
 입과 눈에서 끊어내고      絕於口目  
 소리와 냄새의 간악함을      聲臭之奸  
 코와 귀에서 막아버린다      斷於鼻耳  
 일곱 구멍을 막은 뒤로      七竅旣閉  
 혼돈이 죽지 않으니<sup>115</sup>      混沌不死  
 알겠노라. 말머리에 굴레 씌우고 소의 코에 구멍 뚫는 것은<sup>116</sup>

是知絡馬穿牛

지혜의 기미가 발현했기 때문이고      智機發焉  
 상자를 열고 자루를 더듬는 것은<sup>117</sup>      肱篋擔囊

115 일곱...않으니 : 자연의 순박한 상태를 잃지 않았음을 뜻한다. 《장자(莊子)》〈응제왕(應帝王)〉에 “남해의 제왕을 숙이라 하고, 북해의 제왕을 홀이라 하고, 중앙의 제왕을 혼돈이라 한다. 숙과 홀이 혼돈의 땅에서 만남에, 혼돈이 이들을 매우 잘 대해주자 숙과 홀은 혼돈의 덕에 보답할 것을 의논하였다. ‘사람들은 7개의 구멍을 갖고 있어 그것으로 보고, 듣고, 먹고, 숨 쉬는데 이 혼돈에게만 없으니 마땅히 구멍을 뚫어줍니다.’ 하루에 한 개의 구멍을 뚫어주었는데 7일 만에 혼돈은 죽고 말았다.[南海之帝爲儻, 北海之帝爲忽, 中央之帝爲混沌. 儻與忽時與相遇於混沌之地, 混沌待之甚善. 儻與忽謀報混沌之德曰, ‘人皆有七竅, 以視聽食息, 此獨無有, 當試鑿之.’ 日鑿一竅, 七日而混沌死.]”라 하였다.

116 말머리에...것은 : 자연스럽지 못한 인위적 행위를 뜻한다. 《장자》〈추수(秋水)〉에 “소와 말이 네 발을 가진 것은 천연스러움이고, 말머리에 굴레를 씌우고 소의 코에 구멍을 뚫는 것은 인위적이다.[牛馬四足, 是謂天, 落馬首, 穿牛鼻, 是謂人.]”라고 하였다.

117 상자를...것은 : 원문의 ‘거협(肱篋)’은 상자를 여는 것이고, ‘탐낭(探囊)’은 자루를 더듬는 것으로 도둑질을 의미한다. 《장자》〈거협〉에서 “상자를 열고 자루를 더듬고 꺾자를 터는 도적을 위해 수비한다.[將

기교의 기미가 나타났기 때문이며	巧機出焉
말과 되, 저울을 만든 것은	作斗斛權衡
다투어 도둑질하는 기미가 나타났기 때문이고	則爭盜之機所以兆也
성의 못과 병장기를 준비함은	開城池甲兵
쟁탈의 기미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則鬪奪之機所以著也
혼란으로 다스리고자 하며	欲以亂治
그저 혼란으로 다스리고 있을 뿐이다	只以亂治
하물며 병든 자 <sup>118</sup> 는 거처하기 어렵고	況蘧蔭難處
추구(芻狗) <sup>119</sup> 는 이미 진설됨에 있어서랴?	芻狗已陳
살아서 지옥에 있으니 말해도 소용이 없고	生地獄兮議不入
죽어서 천상의 감옥에 들어가니 정말로 괴롭도다.	死天囚兮良苦辛
장주와 나비는	周也蝶也
모두 동일한 꿈이요 <sup>120</sup>	俱是一夢

爲肱篋探囊發匱之盜而爲守備.]”라고 한 데에서 온 말이다.

- 118 병든 자 : 원문의 ‘거제(蘧蔭)’는 몸을 굽히지 못하는 나쁜 병을 뜻한다. 《시경》〈패풍(邶風) 신대(新臺)〉에 “편안하고 다정한 사람을 구했는데 거제가 적지 않다다.[燕婉之求, 蘧蔭不鮮.]” 하였고, 그 주(注)에 “거제(蘧蔭)는 능히 구부리지 못하는 것이니, 병 중에 추악한 것이다. 거제는 본래 대자리의 이름인데, 사람들이 혹 엮어서 곳집을 만드니, 그 모양이 마치 사람이 붓고 종기가 나서 구부리지 못하는 것과 같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또 그로 인하여 이 병을 이름한 것이다.[蘧蔭不能俯, 疾之醜者也. 蓋蘧蔭本竹席之名, 人或編以爲, 其狀如人之擁腫而不能俯者, 故又因以名此疾也.]”라 하였다.
- 119 추구(芻狗) : 풀을 묶어서 개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옛날에 제사 때 쓰던 것인데 제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내버리기 때문에 소용이 있을 때만 이용하고 소용이 없을 때는 버리는 천한 물건의 비유로 쓰인다.
- 120 장주와…꿈이요 : 장주(莊周)의 호접몽(胡蝶夢) 고사를 사용하여 외물과 자아는 차별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장자》〈제물론(齊物論)〉에

벌레의 팔뚝과 쥐의 간은

蟲臂鼠肝

단지 하나의 술단지<sup>121</sup>에 있을 뿐이다<sup>122</sup>

只一醢瓮

그렇다면 이루가 좋은 눈을 독점했으므로 소경이 밝음을 잃었고

123

然則離朱擅視而所以失明

사광<sup>124</sup>이 밝은 귀를 전유했으므로 농인이 청력을 잃었으며

師曠專聽而聾聵所以失聰

요순이 인의를 전공했으므로 걸주가 본성을 잃었도다<sup>125</sup>

“옛날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니니, 스스로 유쾌하고 뜻에 만족하여 자신이 장주인 줄을 모르다가 갑자기 꿈을 깨고 보니, 자신이 분명 장주였다. 장주의 꿈속에서 장주가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의 꿈속에서 나비가 장주가 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昔者, 莊周夢爲蝴蝶, 栩栩然蝴蝶也. 自喻適志與, 不知周也. 俄然覺則蘧蘧然周也, 不知周之夢爲胡蝶與? 胡蝶之夢爲周與?]”라고 하였다.

121 술단지 : 원문은 ‘醢瓮’인데 ‘醢’는 ‘醢’의 오자로 판단하여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22 벌레의…뿐이다 : 매우 미세한 존재들이 모두 똑같이 협소한 공간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원문의 ‘충비서간(蟲臂鼠肝)’은 벌레의 팔뚝과 쥐의 간으로 매우 작은 존재를 뜻한다. 《장자(莊子)》〈대종사(大宗師)〉에 “위대하도다, 조화여. 장차 자네를 무엇으로 만들까. 장차 자네를 어디로 데려갈까. 자네를 쥐의 간으로 만들 것인가. 자네를 벌레의 팔뚝으로 만들 것인가.[偉哉造化! 又將奚以汝爲? 將奚以汝適? 以汝爲鼠肝乎? 以汝爲蟲臂乎?]”라고 하였다. 《莊子 大宗師》‘혜옹(醢瓮)’은 술에서 발생하는 곤충의 일종인 혜계(醢鷄)가 사는 술 단지로, 흔히 좁은 국량, 좁은 활동 무대를 가리킨다.

123 이루가…잃었고 : 원문의 ‘이주(離朱)’는 이루(離婁)라고도 하는데 황제(黃帝) 때 인물로, 백 보 밖에서도 털끝을 보았다고 한다. ‘고수(瞽瞍)’는 순임금의 부친으로 후처에 미혹되어 순을 몇 차례 죽이려고 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눈먼 사람의 뜻으로 쓰였다.

124 사광(師曠) : 춘추시대 진(晉)나라 악사(樂師)로 귀가 대단히 밝아 음률(音律)에 통달하였다. 《孟子 離婁上》

125 요순(堯舜)이…잃었도다 : 요순은 중국 상고시대의 대표적인 성군인 반면, 걸주(桀紂)는 하(夏)나라의 마지막 왕 걸왕(桀王)과 은(殷)나라

堯與舜攻仁義而桀紂所以失性

어찌 예와 악을 무너뜨리고	曷若壞爾禮樂
충과 경을 버리고	捨爾忠敬
경계를 멈추고 성찰을 그만두며	息警止察
지혜를 버리고 성스러움을 끊는 것만 하겠는가? <sup>126</sup>	棄智絕聖
만족스러워 훨훨 날듯이 기쁘며	于于翾翾
걸음이 여유롭고 시야가 밝으며 <sup>127</sup>	巋巋顛顛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며 <sup>128</sup>	睚睚盱盱
아무것도 모른 채 희희낙락한다	熙熙恣恣
무위에 짓고	沕於無爲
자연과 합하여	合於自然
사람답지 않은 듯하나 사람답고	非人而人
천연스럽지 않은 듯하나 천연스럽다	非天而天
이에 사는 동안 서로 왕래하지 않고 <sup>129</sup>	於是生不往來

의 마지막 왕 주왕(紂王)으로 대표적인 폭군으로 손꼽힌다.

- 126 지혜를…하겠는가 : 《노자(老子)》 제19장에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버려야 백성의 이익이 백 배가 된다.[絕聖棄智, 民利百倍.]”라고 하였다.
- 127 걸음이…밝으며 : 《장자》〈마제(馬蹄)〉에 “지극한 덕이 있는 세상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유유자적하고 눈매가 밝고 환했다.[至德之世, 其行填填, 其視顛顛.]”라 하였다.
- 128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며 : 오만함을 뜻한다. 《장자》〈우언(寓言)〉에 “노자가 말했다. ‘그대는 눈 부릅뜨고 노려보니 누구와 함께 살 수 있겠는가.[老子曰, 而睚睚盱盱, 而誰與居?]’”라 하였다.
- 129 사는…않고 :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서로 교류하지 않음을 말한다. 노자가 이상적인 국가를 제시하며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다보이고 닭·개 소리가 서로 들리더라도 백성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鄰國相望, 雞犬之聲相聞, 民至老死, 不相往來.]”라고 데에서 온 말이다.

죽어서도 혼령이 없다 死無魂神  
 맑은 기운을 끌어올리고 흐린 기운을 떨어뜨려 淸升濁墜  
 근원으로 돌아가며 反元歸根  
 무희씨의 세상으로 빚어내고 陶以無懷氏之世  
 갈천씨의 백성으로 만들어<sup>130</sup> 鑄以葛天氏之民  
 난새 둥지에 오르고 용의 거처를 엿보아도<sup>131</sup> 서로 핏박하지 않고  
 攀巢窺穴而不相迫  
 기린·봉황·거북·용<sup>132</sup>을 가축으로 기른다 麟鳳龜龍兮以爲畜  
 이 또한 장자와 노자의 지극한 도이거늘 斯亦莊老之至道  
 그대는 나를 좇아 그것을 배우지 않겠는가?라 하였다.

子豈能從我而學之乎

현동자가 말하기를, “이단의 허무함은 玄侗子曰異端虛無  
 속이고 현혹하는 데로 빠져서 涉於誕譎  
 붉은빛을 어지럽히고 아악을 문란케 하고 참됨을 크게 어지럽히니<sup>133</sup>

130 무희씨의…만들어 : 무희씨(無懷氏)와 갈천씨(葛天氏)는 전설 속 상고시대의 제왕으로 이상적으로 세상을 잘 다스려서 천하가 태평했다고 한다. 도잠(陶潛)의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에, “술을 실컷 마시고 시를 지어서 뜻을 즐기니, 무희씨의 백성인가, 갈천씨의 백성인가[酣觴賦詩, 以樂其志, 無懷氏之民歟? 葛天氏之民歟?]”라 하였다.

131 난새…엿보아도 : 북주(北周) 유신(庾信)의 <주오성조곡(周五聲調曲)·변궁조일(變宮調一)>에 “용의 거처를 따라가기 어렵지 않고, 난새와 봉황의 둥지를 엿볼 수 있네.[龍穴非難附, 鸞巢欲可窺.]”라고 하였는데, 예반(倪璠)의 주(注)에 “용의 비늘을 휘어잡고 봉황의 날개에 붙는 것은 선계에 뜻이 있는 것이다.[其攀龍附鳳, 有仙焉之志也.]”라고 하였다.

132 기린·봉황·거북·용 : 옛날의 네 마리 영물(靈物)로서 천자가 덕을 펼쳐서 태평성대가 되면 나타난다고 한다.

133 붉은빛을…어지럽히니 : 《논어(論語)》 양화(陽貨)에 “잡색인 자쭈빛이 원색인 붉은빛의 자리를 뺏는 것을 미워하며, 정나라의 음란한



亂朱亂雅大亂眞兮

추현께서 물리치신 말씀을 듣지 못하셨습니다까?<sup>134</sup>라 하였다

獨不聞鄒賢闢之之說乎

선생이 말하기를, “튀는 공은 멈추지 않고<sup>135</sup> 先生曰跳丸莫駐

아침 이슬은 재빨리 마른다<sup>136</sup> 朝露催晞

붉은 얼굴은 갑자기 시들고 紅顏欸忽

머리가 희어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白頭無幾

천지에 하루살이 목숨으로 붙어살고<sup>137</sup> 寄蜉蝣於天地

음악이 바른 아악을 문란하게 하는 것을 미워하며, 말만 잘하는 입이 나라를 뒤엎는 것을 미워한다.[惡紫之奪朱也, 惡鄭聲之亂雅樂也, 惡利口之覆邦家者.]”라 하였다.

134 추현께서…못하셨습니다까 : 맹자가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의 학설을 사설(邪說)로 지목하고 비판한 것을 말한다. 《孟子》〈滕文公下〉에 “내가 이 때문에 두려워하여 선성의 도를 보위하여 양주와 묵적을 막으며 바르지 않은 말을 추방하여 사악한 학설이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이다.[吾爲此懼, 閑先聖之道, 距楊墨, 放淫辭, 邪說者不得作.]”라 하였다.

135 튀는…않고 : 원문의 ‘도환’은 광대가 양 손으로 여러 개의 공을 던지고 받는 재주로 빠른 세월에 비유된다. 한유(韓愈)의 〈추회시(秋懷詩)〉에 “우수 속에 세월을 보내노니, 해와 달은 튀는 공 같네.[憂愁費晷景, 日月如跳丸.]” 하였다.

136 아침…마른다 : 아침 이슬처럼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 고조(漢高祖)에게 반기를 들다 패망한 전횡(田橫)의 죽음을 두고 그 무리가 지은 만가 2장 중 1장에 “부추 위에 맺힌 아침 이슬 어이 쉽게 마르나. 이슬은 말라도 내일이면 다시 내리지만, 사람은 죽어 한번 가면 언제나 돌아오나.[薤上朝露何易晞? 露晞明朝更復落, 人死一去何時歸?]”라고 한 데에서 온 말이다. 《古今注 音樂》

137 천지에…붙어살고 : 이 표현은 소식(蘇軾)의 〈전적벽부(前赤壁賦)〉에 “하루살이 목숨으로 천지 사이에 붙어 있는 인생, 망망한 바다 속 조그마한 좁쌀 한 알이로다.[寄蜉蝣於天地, 眇蒼海之一粟.]”라고 한 데에서 온 말이다.

물은 아득하게 부질없이 흘러간다 <sup>138</sup>	空逝水之悠悠
그러나 복기하고 도인하면 <sup>139</sup>	然而服氣導引
짧은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短者可脩
정신을 가다듬고 심성을 기르면	頤神養性
촉박한 죽음 시한을 늘릴 수 있다	促者可永
바야흐로 세속의 허물을 벗고	方其脫塵蛻
도의 경지에 들면	入道境
기가 불이 되고	氣是火
몸은 솥이 된다	身是鼎
그때 금진을 걸러내고	漉金津
옥액을 고아내어	鍊玉液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면	虛而待之
매우 신묘한 물건이 생기니 <sup>140</sup>	孔神之物
하나의 순수한 양기를 만드는 데에	做一純陽
3개월이면 완성을 고한다	告功三月
술에서 용호를 주조하여 <sup>141</sup> 삼켰다 뱉으니	鑄龍虎而吞吐

- 
- 138 물은…흘러간다 : 원문의 ‘서수(逝水)’는 흘러가는 세월을 비유한다.
- 139 복기하고 도인하면 : ‘복기(腹氣)’는 숨 쉬는 방법이고 ‘도인(導引)’은 호흡과 신체 운동으로 기혈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모두 도가의 양생법(養生法)이다.
- 140 마음을…생기니 : 《초사(楚辭)》〈원유(遠遊)〉에 “지순한 기운은 매우 신기하여 한밤에도 존재하며 조용히 기다려 얻어야지, 마음을 앞세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壹氣孔神兮, 於中夜存, 虛以待之兮, 無爲之先.]”라고 한 표현을 활용한 것이다.
- 141 술에서 용호를 주조하여 : ‘용호’는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심신수련법으로, 수화(水火)와 같은 말이다. ‘술에서 용호를 주조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은 소동파(蘇東坡)의 〈화장칠출수호주이수(和章七出守湖州二首)〉의, “술 안에는 용호의 황금이 널려 있고, 술 아래엔 귀사

대낮에 생학 <sup>142</sup> 이 내려온다	下笙鶴於白日
이에 붉은 난새 <sup>143</sup> 에 올라타고	於是驂紫鸞
흰 봉황을 타고서	騎白鳳
옥경에 오르고	陟玉京
자하동을 내려와 <sup>144</sup>	降紫洞
기수, 요화를 초목으로 삼고	琪樹瑤花以爲草木
단구, 적성을 집으로 삼으며 <sup>145</sup>	丹丘赤城以爲室宅
구름과 노을을 잘라 의상을 만들고	截雲霞以爲衣裳
이슬을 양식으로 삼아 마시다	吸沆瀣以爲糧食
마침내 요지에서 서왕모를 맞이하니 <sup>146</sup>	遂乃邀王母於瑤池

의 푸른 뼈가 흔하네.[鼎中龍虎黃金賤, 松下龜蛇綠骨輕.]에 보이는 데 그 자주(自注)에 “장씨 집안 일곱째가 화룻불을 좋아하고 복령을 복용했다[君好爐火而餌茯苓.]”라 하였다.

- 142 생학(笙鶴): 생황(笙簧)과 백학(白鶴)으로, 신선이 타는 학을 가리킨다. 옛날의 선인(仙人) 왕자교(王子喬)는 주 영왕(周靈王)의 태자 진(晉)으로, 생황 불기를 좋아하여 곧잘 봉황의 울음소리를 내곤 하였는데, 선인(仙人) 부구공(浮丘公)을 따라 송산(嵩山)에 올라가 선도(仙道)를 닦았다. 30년이 지난 어느 날 백학을 타고 구지산(緱氏山) 꼭대기에 머물다가 손을 흔들어 사람들과 작별하고는 신선이 되어 승천하였다고 한다. 《列仙傳 王子喬》
- 143 붉은 난새: 원문의 ‘자란(紫鸞)’은 전설 속에 나오는 신령스러운 새이다.
- 144 옥경에…내려와: ‘옥경(玉京)’은 도가에서 말하는 천제가 사는 곳이고, ‘자동(紫洞)’은 ‘자하동(紫霞洞)’으로 신선이 사는 곳을 말한다.
- 145 기수…삼으며: ‘기수(琪樹)’는 선계의 옥수(玉樹)이고 ‘요화(瑤花)’는 선계의 꽃이며 ‘단구(丹丘)’는 신선이 산다는 전설 속의 땅이고, ‘적성(赤城)’은 선경(仙境)을 말한다.
- 146 요지에서 서왕모를 맞이하니: ‘요지(瑤池)’는 곤륜산(崑崙山)에 있는 선경(仙境)으로, 선녀(仙女)인 서왕모(西王母)가 살면서 가끔 신선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했다고 하는 곳이다.

붉은 기린이 달을 향해 울고  
 옥관에서 노자에게 읊하니  
 푸른 소가 바람에 끌려온다<sup>147</sup>  
 양곡에서 아침을, 금추에서 저녁을 맞이하고<sup>148</sup>  
 북두성을 부여잡고 자궁에 들어간다  
 옥녀를 싣고서 창합을 나가고  
 검영<sup>149</sup>을 불러 함께 대화한다  
 상전이 벽해로 백 번 변하는 것을 보고  
 하루 아침을 만고의 세월로 본다  
 이는 또한 우화장생<sup>150</sup>의 지극한 도이거늘  
 그대는 나를 좇아 이를 구하지 않겠는가?라 하였다.

子豈能從我而求之乎

현동자가 말하기를, “신선의 황당무계함은  
 들은 적은 있어도 본 적은 없습니다  
 하물며 밤이 가면 아침이 오는 것이 필연이니<sup>151</sup>

玄侗子曰仙者荒唐

有聞無見

矧夜旦之必然

147 옥관에서...끌려온다 : 노자(老子)가 서쪽으로 떠나갈 때 관령(關令) 윤희(尹喜)가 멀리 바라보니 자색(紫色) 기운이 떠 있는 것이 보였는데, 과연 얼마 뒤에 노자가 푸른색 소(靑牛)를 타고 관문을 지나갔다는 전설이 있다. 《列仙傳 上》

148 양곡에서...맞이하고 : 양곡(陽谷)은 해 뜨는 곳을, 금추(金樞)는 전설 속 달이 뜨고 지는 곳이다.

149 검영(黔羸) : 하늘에 있는 조화(造化)의 신 이름이다.

150 우화장생(羽化長生) : ‘우화(羽化)’는 사람 몸에 날개가 달려 하늘로 가서 신선이 된다는 우화등선(羽化登仙)을 말하고 ‘장생(長生)’은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장생술(長生術)을 뜻한다.

151 밤이...필연이니 :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음을 비유한 말이다. 《자치통감》 권11, 고제(高帝) 5년에, “신 광은 아뢰입니다. 무릇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으니 그것은 비유하자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이 반드시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臣光曰, 夫生之有死, 譬猶夜旦之必然.]”

어찌 사람이 신선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詎斯人之能幻
선생은 나를 속이고 있으니	先生欺余
믿지 못하겠습니다.”라 하였다	不爲之信也
선생이 말하기를, “서방에 사람이 있으니	先生曰西方有人
도를 세운 시조이다	樹道之祖
3년간 기원 <sup>152</sup> 에 있을 때	三年祇園
온 하늘에 꽃비 <sup>153</sup> 가 내렸다	一天花雨
온갖 형상에 신령함이 통하고	萬象通靈
널리 교화함에 치우침이 없다	普化無壅爾
법해는 끝없이 넓고 아득히 흐르고	其法海無津浩洋汨兮
정파는 헤아리지 못할 만큼 광대하게 샘솟는다	情波莫測潏盪滂兮
자비의 배 <sup>154</sup> 를 띄우고	浮慈航
자비의 뗏목에 올라	駕悲筏
청허 <sup>155</sup> 를 나와	出清虛
적멸로 들어간다.	入寂滅
광명이 조용히 응결되고	定凝光明

하였다.

- 152 기원(祇園) : 인도(印度)의 수달장자(須達長者)가 석가를 위해 건립한 기원정사(祇園精舍)의 약칭이다.
- 153 꽃비 : 원문의 ‘화우(花雨)’는 불교 용어로, 제천(諸天)이 부처가 설법한 공덕에 감탄하여 꽃을 비처럼 뿌린 것을 말한다.
- 154 자비의 배 : 원문의 ‘자항(慈航)’은 불보살(佛菩薩)이 자비로 중생을 생사의 바다에서 구제하는 것이 마치 배로 사람을 태워서 바다를 건네주는 것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155 청허(清虛) : 청정 허무를 뜻하는 말로, 여기에서는 ‘도가’를 말한다. 《문자(文字)》〈자연(自然)〉에 “노자가 말하기를, ‘청허는 하늘의 밝음이요 무위는 다스림의 상도(常道)이다.[老子曰, 清虛者天之明也, 無爲者治之常也.]’라 하였다.”라 한 바 있다.

원만히 깨달아 열반에 든다	涅槃圓覺
이에 삼매 <sup>156</sup> 에서 재가 되어	於是灰三昧
육근 <sup>157</sup> 을 끊고	斷六根
등에 덩굴을 얽고	藤纏背
어깨에 까치집을 짓는다	鵲巢肩
음란한 몸이 법을 훼손함을 알아	識淫躬之毀法
실라벌성에서 아난을 조문하고 <sup>158</sup>	弔阿難於室羅
남의 마음을 말없이 아는 것 <sup>159</sup> 을 보고	見他心之默通
바위 모퉁이에서 보리 <sup>160</sup> 를 우러러본다	仰菩提於巖隈
백성들을 구원하여 최상의 경계로 옮기고	拯普生於無上之界
대중을 구제하여 도솔천 <sup>161</sup> 으로 인도한다	濟大衆於兜率之天
영겁의 세월 속 찰찰을 엿보고	覩刹刹於浩劫

156 삼매(三昧) : 불교 용어로, 잡념을 떨쳐 버려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청정한 경지에 전념한다는 뜻이다.

157 육근(六根) : 불교 용어로, 6식(識)을 낳는 여섯 개의 뿌리 즉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를 말한다.

158 음란한…조문하고 : 아난(阿難)은 아난타(阿難陀)로, 여래(如來)의 종제(從弟)이며 십대제자(十大弟子) 중 한 명이다. 25세에 출가하여 25년 동안 여래를 모셨으며 미남인 탓으로 여자의 유혹이 여러 번 있었지만 지조가 견고하여 불법을 잘 수행했으며 특히 설법(說法)을 많이 전파하여 다문(多聞)으로 유명하였다. 부처가 실라벌성(室羅筏城)의 기원정사(祇桓精舍)에서 여러 비구(比丘)들과 함께 있을 때 아난과 함께 중생 구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바 있다.《首楞嚴經 卷1》

159 남의…것 : 원문의 ‘타심통(他心通)’은 불교 용어인 타심지통(他心智通)의 준말로, 다른 사람이 각각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두 자유자재로 헤아려 아는 불가사의한 심력(心力)을 말한다.

160 보리(菩提) : 도(道)·지(智)·각(覺)의 뜻으로, 불교에서 최상의 이상(理想)인 불타 정각(佛陀正覺)의 지혜이다.

161 도솔천(兜率天) : 불교에서 말하는 천계(天界) 중의 하나로 미륵보살이 머물고 있다고 한다.

대천세계 속 진진을 깨닫는다 <sup>162</sup>	悟塵塵於大千
그 도는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其爲道也不生不滅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빠지지도 않는다	不燒不溺
마니주 <sup>163</sup> 가 있어 멀리 비춰보고	摩尼迥照
빙경이 있어 꿰뚫어 알 수 있다	冰鏡洞澈
육계가 정수리에 높이 솟고	肉髻墳頂
백호가 미간에 깊게 박혀 있다 <sup>164</sup>	白毫根睫
신발 한 짝 신고 <sup>165</sup> 한 번 웃자	隻履一哂
우담발화 <sup>166</sup> 가 바리때에 비친다	優曇照鉢

162 영겁의…깨닫는다 : 원문의 ‘진진찰찰(塵塵剌剌)’은 하나하나의 미세한 흙먼지 속에도 나라가 있다는 뜻으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온갖 사물과 현상을 말한다.

163 마니주(摩尼珠) : 마니는 보주(寶珠)의 음역이며, 말니(末尼)라고도 한다. 당나라 두보(杜甫)의 〈증축승려구사형시(贈蜀僧闍丘師兄詩)〉에, “오직 마니주가 있어서 탁수의 근원을 비출 수가 있다.[惟有摩尼珠 可照濁水源.]” 하였다.

164 육계…있다 : 불상의 머리와 미간 부분을 형용한 것이다. 육계(肉髻)는 불상의 머리 꼭대기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그 부분이 마치 상투처럼 우뚝 솟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백호(白毫)는 부처의 두 눈썹 사이에 있는 희고 빛나는 가는 터럭으로, 깨끗하고 부드러워서 세향(細香)과 같으며 오른쪽으로 말린 데에서 끊임없이 광명(光明)을 방사한다고 한다.

165 신발…신고 : 달마대사가 죽었을 때 중국 웅이산(熊耳山)에 묻었는데, 3년 뒤 위(魏)나라의 송운(宋雲)이 서역(西域)에 사자로 갔다 돌아오던 중 총령(葱嶺)에서 달마를 만났다. 달마가 신 한 짝만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송운이 “대사는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자, 대사가 “나는 서역으로 가요.” 하였다. 송운이 이 말을 임금에게 상세히 전하여 임금의 명으로 달마의 묘를 파고 관(棺)을 열어 보니 신이 한 짝만 있었다고 한다.《傳燈錄》

166 우담발화 : 불교에서 말하는 인도의 상서로운 꽃 이름으로, 꽃이 꽃턱 속에 숨어 있다가 한 번 피고 나면 곧바로 오프라들어서 사람들

석장으로 맹렬한 호랑이들 싸움 말리고	錫虎謝猛
바리때에 독기 품은 용을 가뒀다 <sup>167</sup>	孟龍藏毒
연꽃에 신묘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符妙契於蓮花
패엽에 불법의 말을 펼쳐놓았다 <sup>168</sup>	播法辭於貝葉
천 마디 범어의 불도를 계승하여	千梵道偈
육혈로 들어오는 도적을 막았고	遏盜賊於六穴
사자가 만 번 울 듯 설법을 벌여 <sup>169</sup>	萬吼獅羅
구약에서 야차를 꾸짖었다 <sup>170</sup>	叱夜叉於九鑰
사바세계가 모두 보살이요	婆皆菩薩

이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화과(無花果) 꽃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부처가 세상에 출현하여 설법하는 것을 우담발화가 한 번 꽃 피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 167 석장으로…가뒀다 : 서역 승려의 신통함을 말한다. 이백의 <태백산 호승가[太白胡僧歌]>에 “창가에서 석장으로 두 호랑이를 갈라놓고, 침상 밑의 바리때엔 용 한 마리 가뒀네[窓邊錫杖解兩虎, 牀下鉢孟藏一龍.]” 하였다.
- 168 연꽃에…펼쳐놓았다 : ‘연화(蓮花)’는 대승 경전의 하나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말하고, ‘패엽(貝葉)’은 패다라엽(貝多羅葉)으로, 고대 인도에서 경(經)을 베끼던 다라수(多羅樹)의 잎인데, 전하여 불경(佛經)을 가리킨다.
- 169 사자가…벌여 : ‘사자후(獅子吼)’라는 불교 용어를 활용한 표현으로, 사자가 한 번 소리를 지르면 모든 짐승이 다 습복(懼伏)하는 것처럼 부처가 설법(說法)을 하면 모든 악마가 다 항복함을 비유한다.
- 170 구약에서 야차를 꾸짖었다 : 원문의 ‘구약(九鑰)’은 천문(天門)을 이르는 말로, 전하여 천궁, 궁문(宮門), 궁궐을 뜻한다. 송(宋)나라 오율(吳聿)의 《관림시화(觀林詩話)》에 “천문은 아홉 개가 있으므로 구약이라 한다.[天門有九, 故曰九鑰.]” 하였다. ‘야차(夜叉)’는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팔부신장(八部神將) 가운데 하나인데, 부처가 거처하는 천궁의 관문을 지킨다. 참고로 팔부신장은 천(天), 용(龍), 야차, 건달배(乾達婆), 아수라(阿修羅), 가루라(迦樓羅), 긴나라(緊那羅), 마후라가(摩候羅伽)를 이른다.



승려는 모두 미륵이다	僧盡彌勒
온 무리가 불법으로 귀의하고	舉衆歸法
세상에 다시 태어나 한 명의 부처가 되었다가	轉世一佛
윤회하여 등불을 전하면	輪回火傳
천백억 온 세계가 극락이니	千百億渾世界之極樂
이로써 알겠노라. 뱀이 바탕이 변화하여 선사가 되고	是知蛇變質而爲師
뿔이 형체가 바뀌어 법사가 됨을	雉幻形而作法
이미 흰 소의 울음소리를 드러내었는데	既呈白牛之牟牟
또 미친 코끼리의 울음소리에 길들여진다	又馴狂象之
비록 미물도 또한 그러하거늘	雖微物而亦然
하물며 인정에 가까이 있는 자에랴?	況近在乎人情
마침내 비야에서 침묵하며	乃有毗邪之杜口
유마힐은 문을 닫고 수행했다. <sup>171</sup>	摩詰之掩扃
몸에 혈을 뚫은 도징과	體鑿穴之道澄
콧물 흘린 나찬 <sup>172</sup> 과	鼻垂涕之懶瓚

171 비야에서…수행했다 : 비야(毘耶)는 인도의 성 이름인데, 석가모니가 여기 와서 설법할 때 이곳의 유마힐(維摩詰)이 병을 칭탁하고 나오지 않으므로, 문수(文殊) 사리를 보내어 문병을 하게 했다. 문수가 유마힐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면 보살이 불이법문(不二法門)에 들 수 있습니까?” 했으나 묵묵히 말이 없으므로, 문수는 이르기를, “문자도 언어도 없으니 이것이 참으로 불이법문에 든 것이다.” 했다 한다. 무언(無言) 속에 진리를 터득함을 비유하여 ‘두구비야(杜口毘耶)’라 한다.

172 나찬(懶瓚) : 당나라 때의 승려 명찬(明瓚)을 가리킨다. 많은 승려가 경영에 애썼는데 명찬만 느긋하게 지내 비난을 듣기도 했지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사람들이 나찬(懶瓚) 또는 나잔(懶殘)이라 불렀다. 남들이 딱다 남긴 음식 먹기를 좋아했고, 하는 말이 하나같이

남악의 법사와	南岳之巔
여산의 혜원 <sup>173</sup> 은	廬山之遠
신령한 생각을 다하여 오묘하게 깨닫고	學靈觀而妙悟
온 힘을 다하여 문득 깨달았다	咸因地而頓覺
장차 만세에 은택을 끼쳐	將流澤於萬世
모두가 하늘을 본뜨고 해를 예찬할 것이다	學攀天而贊日
이 또한 석가의 지극한 도이거늘	斯亦釋家之至道

그대는 나를 좇아 그것을 본받지 않겠는가?”라 하였다.

子豈能從我而師之乎

현동자가 말하기를, “불가의 설 <sup>174</sup> 은	玄侗子曰蔥嶺之說
이치에 가까운듯하지만 고원합니다	理近而遠
치세를 어지럽히고 인륜을 어지럽힘은	亂治亂倫
그 본보기를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其則不遠
양 무제가 불교를 섬겼다가	梁武事之

불리(佛理)와 일치해 미타응신(彌陀應身)이 아닌가 여겼다. 나찬이 남악사(南嶽寺)에 있을 때 상국(相國) 이필(李泌)이 남악(南嶽)에 은거했는데, 스님의 행동거지를 보고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면서 밤에 가서 배알했다. 스님이 이필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재상 자리를 지킬 것[慎勿多言, 領取十年宰相.]”이라고 말했다. 이필이 가르침을 받고 사례하면서 물러났는데, 과연 말처럼 되었다. 저서에 《남악나찬화상가(南嶽懶瓚和尚歌)》가 있으며 시호는 대명선사(大明禪師)이다.

173 혜원(慧遠) : 진(晉)나라의 고승으로, 여산(廬山) 동림사(東林寺)에서 불법을 전하였다. 후대 사람들이 존경의 뜻을 담아 원공(遠公)이라고 불렀다.

174 불가의 설 : 원문의 ‘총령지설(蔥嶺之說)’은 달마대사가 죽은 뒤에 3년이 지나 위(魏)나라의 송운(宋雲)이 서역(西域)에 사자로 갔다 돌아오다가 총령(蔥嶺)에서 달마를 만난 이야기를 말하는 듯 보이는데 여기서는 ‘불가의 설’의 뜻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싶다.

끝내 대성의 화란이 있었고 <sup>175</sup>	卒有臺城之亂
전진의 부견이 불교를 섬겼다가	符秦法之
비수의 환란을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sup>176</sup>	無救淝水之患
크게는 집안과 나라를 잃었고	大而喪家國
작게는 자신의 몸을 잃었습니다	小而失其身
더구나 부친도 무시하고 임금도 무시하니 <sup>177</sup>	況無父而無君
누가 자식이 되고 신하가 되겠습니까?	人孰子而臣之
만일 선생께서 버리지 못하시겠다면	苟先生之不遺
우선 이 문제는 놔두고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姑舍是而再思
비록 그러나 말투 속에	雖然辭氣之間

175 양 무제(梁武帝)가...있었고 : 양나라 무제가 처음에는 유학을 중히 여겼으나 뒤에는 불교를 숭상하여 대성에도 동태사(同泰寺)를 짓고 이곳에서 세 번이나 사신(捨身)을 하였으며, 모든 제사에 희생(犧牲)을 없애고 밀가루로 빚어 대신하게 하였다. 후에 후경(後景)이 반란을 일으켜 대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자 그곳에서 굶어 죽었다.

176 전진(前秦)의...못했습니다 : 부견(符堅)은 진(晉)나라 때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 중 전진(前秦)의 임금이다. 불교를 깊게 믿었는데 박학다식하고 내정(內政)을 잘 닦아 당시 오호십육국 중에서 가장 강성하였다. 그러나 부견이 진(晉)나라를 정벌하려 할 때 석월(石越)이 “장강이 가로막고 있으니 출병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자, 부견이 “우리 군사들의 말채찍을 장강에 던지면 물이 흐르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만용을 부리다가 비수(淝水) 전투에서 대패하였다. 《晉書 卷113 符堅載記》

177 더구나...무시하니 : ‘무부(無父)’는 겸애(兼愛)를 중시한 묵적(墨翟)의 주장으로 혈친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고 ‘무군(無君) 위아(爲我)’를 중시한 양주(楊朱)의 주장으로 군신의 의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맹자》〈등문공 하〉에 “양주는 자신을 위하니 이것은 무군이고, 묵적은 겸애이니 이것은 무부이니, 무부와 무군은 모두 금수이다. [楊氏爲我, 是無君也, 墨氏兼愛, 是無父也, 無父無君是禽獸也.]”라고 하였다. 이 두 가지는 본래 양주 묵적을 비판할 때 사용된 말이나 여기서는 불교를 비판하는 말로 쓰였다.

격동함이 있는 듯하고	似有激動
망설이는 사이에	依違之際
음흉함 <sup>178</sup> 이 심하지 않으니	不甚蝾螈
마음을 흔들어 격려할 만하며	可撼可勵
떨쳐 일어나게 할 만합니다.”라 하였다	可振拔矣
선생이 말하기를, “저 무시(無始)의 ‘무’와	先生曰原夫無於無始
태극(太極)의 ‘유’는 그 근원을 궁구해보면	有於太極
음양이 생겨나자	兩儀既生
오행이 이어서 생겨났으니	五行繼作
만물의 숲에	萬物之林
사람이 그 중 하나이다	人乃其一
하늘로부터 밝은 명을 받았고	受天明命
나에게 좋은 본성을 내려주어	稟我良性
하나의 ‘이’가 통솔하고	一理統之
기와 형체가 나란히 함께 한다	氣與形竝
사단과 칠정은	四端七情
오직 이와 기이다.	惟理與氣
이는 선하지 않음이 없으나	理無不善
기는 경박함과 순박함이 있어서	氣有澆淳
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잃으니	操存捨亡
잠깐 사이에 ‘천’과 ‘인’이 갈린다	造次天人

178 음흉함 : 원문의 ‘체동(蝾螈)’은 무지개의 이칭(異稱)이다. 무지개는 천지의 음기(溼氣)가 뭉쳐서 된 것이므로 음흉하고 간사한 사람을 가리킨다. 《시경》〈체동(蝾螈)〉에 “무지개가 동쪽에 있으니, 감히 이를 가리킬 수 없네.[蝾螈在東, 莫之敢指.]”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인께서 먼저 솔성수도 <sup>179</sup> 의 가르침을 세우셔서	是故聖人者立率修之先
백성에게 중도로써 행하셨으니	用中于民
우뚝함이 하늘 끝까지 닿았다	峻極于天
삼강을 만들고	以爲三其綱
오상을 만들고	以爲五其常
형정을 만들고	爲之刑政
예악을 만들고	爲之禮樂
교화를 일으키고	爲之教
법도를 행하시니	爲之法
이에 일가가 그에 힘입어 일가를 보존하고	於是一家賴之以有一家
일국은 그에 힘입어 일국을 보존하였다	一國賴之以有一國
천하 또한 그러하고	天下亦然
사해 또한 그러하며	四海亦然
하늘이 그로써 이루어지고	天以之成
땅이 그로써 평안해졌다 <sup>180</sup>	地以之平
이 음식이 없으면 굶주리고	無是食則餒
이 도가 없으면 죽는다	無是道則死
음식은 굶주려도 혹 살 수 있으나	食可餒而或生
어찌 도를 떠나서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詎離道而不斃

179 솔성수도(率性修道) : 원문의 ‘솔수(率修)’는 ‘솔성(率性)’과 ‘수도(修道)’를 말하는데, 《중용장구》 제1장에 “하늘이 명한 것을 ‘성(性)’이라 이르고, 성을 따름을 ‘도(道)’라 이르고, 도를 닦는 것을 ‘교(教)’라 이른다.[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라 하였다.

180 하늘이…평안해졌다 : 천지가 잘 다스려졌다는 말이다. 《서경》〈우서(虞書) 대우모(大禹謨)〉에, “땅이 편평해지자 하늘이 이뤄진다.[地平天成.]”라고 하였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談未卒
현동자가 벌떡 일어나	玄侗子蹶然而起
입을 벌리고 혀를 내두르고서	呀口吐舌
손을 모아 잡고 서서 말하기를	遂拱束而立曰
위대하도다. 말이어!	臚哉言乎
아름답고 지극하여	美矣至矣
더할 나위 없도다	無以加矣
그렇다면 이 도는	然則是道也
어떤 도인지요?	何道也
자세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願承其詳
말하기를, “요임금이 하늘에서 얻어	曰堯得於天
순임금에게 전한 것이 이것이요	傳舜者是
순임금이 요임금에게 얻어	舜得於堯
우임금에게 전한 것이 이것이요	傳禹者此
탕왕, 문왕, 무왕, 주공이	湯文武周
그것을 부자에게 전하여	以傳夫子
부자가 얻어서	夫子之得
집대성하였다	大成之集
경전이 이를 통해 처음 나오고	經傳由而創立
예악이 이에 힘입어 조목조목 이루어졌다	禮樂賴而條列
강상이 이에 밝아지고	綱常於是乎昭皙
난적이 이에 숨죽였다	亂賊於是乎屏息
중국은 이 때문에 존귀해지고	中國所以尊
오랑캐는 이 때문에 비천해졌다	夷狄所以卑
이에 오늘날 사람이 금수에서 면했으니	斯人之免禽獸於今日
또한 어찌 부자에게 힘입은 바 아니겠는가?”라 하였다	

亦豈非夫子之賴之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수양해야 이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 하니 曰然則何修而至於此乎  
말하기를, “근원이 하늘로부터 나와 내 몸에 갖춰졌으니  
曰其原出天而具於一身

그 수양은 나에게 달려있지 남에게 말미암지 않는다  
其修在己而不由於人

성대한 하나의 실마리는<sup>181</sup> 藹然一端  
애당초 하늘이 아님이 없으나 初非不天  
물욕에 가려져서 物欲所蔽  
하늘을 등지고 인위로 돌아간다 背天歸人  
그러니 나귀를 타고서 나귀를 찾는 것<sup>182</sup>이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니요  
然騎驢覓驢之不難信

도끼 자루를 베면서 도끼 자루를 구함<sup>183</sup>은 그 이유가 먼 데 있지 않다

181 성대한 하나의 실마리는 : 주자(朱子)의 <소학제사(小學題辭)>에 “무릇 이 성은 그 처음이 선하지 않음이 없어, 성대히 네 가지 실마리가 느끼는 바에 따라 나타난다.[凡此厥初, 無有不善, 藹然四端, 隨感而見.]”라는 말이 나온다.

182 나귀를…것 : ‘나귀를 타고서 나귀를 찾는다’는 말은 어떤 물건을 자기가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리어 밖에서 구함을 의미한다. 《전등록(傳燈錄)》 <지공화상대승찬(志公和尚大乘贊)>에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인 줄을 모르는 것이 참으로 나귀를 타고 나귀를 찾는 것과 같다.[不解卽心卽佛, 眞似騎驢覓驢.]”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83 도끼 자루를…구함 : ‘도끼 자루를 베면서 도끼 자루를 구한다’는 말은 가까운 데서 본보기를 찾지 못함을 의미한다. 원문의 ‘벌가(伐柯)’는 《시경》<벌가(伐柯)>에 “도끼 자루를 베고 도끼 자루를 베는데 그 법이 멀지 않다.[伐柯伐柯, 其則不遠.]”라고 한 데에 보이는데, 이 시는 먼 데서 구할 필요 없이 가까운 데서 표준을 취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伐柯求柯之不遠故

인위를 없애고 하늘로 돌아감은 滅人而回天

진실로 스스로 반성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亶不外乎自反

이로써 알 수 있다. 격물치지의 공이 쌓여야 성명에 이르고<sup>184</sup>

是知格物致知之功積而至於誠明

쇄소응대의 절차가 충실해야 치평에 이를 수 있음을<sup>185</sup>

洒掃應對之節充而至於治平

이로써 알 수 있다. 덕성이 비록 높아도 是知德性雖尊

보존만 하고 묻고 배우지 않으면 노자와 석가에 가까워짐을

存而不問學則近於老禪

석가는 ‘공(空)’에서 잘못되었고 禪失於空

노자는 ‘현(玄)’에서 잘못되었다 老失於玄

석가는 하늘을 비유하여 공하다 할 뿐이요 禪者比天曰空而已矣

노자는 하늘을 비유하여 현하다 할 뿐이다 老者比天曰玄而已矣

하늘이 어찌 가르치던가? 天何教哉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던가? 天何言哉

그러니 내가 공하고 내가 현함은 我空我玄

184 격물치지의…이르고 : ‘격물치지(格物致知)’는 《대학장구(大學章句)》 <경 1장>에 나오는 말로,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연구하여 궁극의 지식에 도달함을 말한다. ‘성명(誠明)’은 지성(至誠)의 마음과 완미(完美)의 덕성(德性)을 말하는데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1장에 “성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을 성이라 하고 명으로 말미암아 성해지는 것을 교라 이르니, 성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성해진다.[自誠明 謂之性 自明誠 謂之教 誠則明矣 明則誠矣.]”라고 하였다.

185 쇄소응대의…있음을 : 사소한 일상의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치국평천하의 근본이 됨을 말한 것이다. ‘쇄소(灑掃)’는 물을 뿌려 먼지를 적시고 청소하는 것이며 ‘응대(應對)’는 어른 앞에서 대답하는 것을 말한다.



하늘일 뿐이다                   天而已矣  
아! 슬프도다!                   嗚呼悲夫  
저들이 하늘이 하늘인 까닭을 어찌 알겠는가.

彼豈知天之所以爲天者乎

많고 성대하며                   馮馮翼翼

깊고 화목한 모습은           沕沕穆穆之體

곧 하늘이 덕성을 높이는 것이고   則乃天之所以尊德性也

음양이 오르내려 사계절이 변화함은   陰陽升降而四時推移

곧 하늘의 교화이자 법령이다       則乃天之教化法令也

바람 구름 서리 이슬 비 우박이 일어 날이 개고 어둡고 꽃이 피고 짐에  
風雲霜露雨雹之作而舒慘榮枯

이치를 따르지 않음이 없음은       無不順理

곧 하늘의 예악형정이다.           則乃天之禮樂刑政也

만물이 무성하고               萬物之芸芸

생식 화육하고 변화함이 끊임없음은   生化變易之無窮

곧 하늘이 학문을 말미암아서 그것을 넓힌 바이다.

則乃天之所以道問學而博之者也

그렇다면 하늘에 닿아 나란히 서고 하늘을 본받아 어기지 않음은  
然則參天竝立而則天無違者

오직 우리 부자의 도가 아니겠는가.” 하였다   獨非吾夫子之道歟  
이에 현동자가 허리 굽혀 백 번 절하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於是玄侗子百拜磬折而嘆曰

“조금 전에 선생은 한갓 유협의 일과       向者先生徒以游俠之事

장군 재상의 업적과               將相之業

문장 수식의 기술과               文章雕篆之技

신선의 궤탄한 술책과           神仙詭誕之術

노장의 허무함과	老莊之虛無
석씨의 공적함은	釋氏之空寂
다투어 펼치고	爭施互設
사설을 분분히 늘어놓아	紛費辭說
그것으로 속이고 현혹시켜	將以悞迷
단지 의혹만 키웠습니다	只以滋惑
그러나 성인 현사가 천도를 본받아	及聞聖人賢士體天之道
작게는 자기 몸을 닦고 가지런히 하며	小而修齊其身
크게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잘 다스려서	大而平治其國
백성들이 변화하여 화목해지는 효과와 <sup>186</sup>	以至雍熙於變之效
우뚝하고 광대한 공업에까지 이른다	말을 듣게 되자
	巍巍蕩蕩之業
그런 뒤에 안개가 걷혀 해가 보이며	然後褰霧觀日
땀이 나고 병이 나으며	汗出病已
객이 돌아갈 수 있게 된 듯하고	如客得歸
꿈에서 깨어난 듯합니다.	如夢而寤
저녁에 죽어도 후회가 없으니	夕死無悔
종신토록 그것을 외우고	終身誦之
그대를 따라 행하리니	從子而行
그대가 허락해주길 바랍니다.”라 하였다.	惟子之爲

186 백성들이…효과와 : 원문의 ‘옹희(雍熙)’는 천하가 잘 다스려져 화락(和樂)한 모양으로, 요순(堯舜) 시대의 정치를 찬양하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오변(於變)’의 오(於)는 감탄사이고 변(變)은 악을 변화하여 선하게 만든다는 뜻으로, 《서경(書經)》〈요전(堯典)〉에 “백성들의 마음을 균평하게 밝혀가니 백성들이 밝아지며, 만방을 화합시키니 여민이 아! 변화하여 이에 화합해졌도다.[平章百姓, 百姓昭明, 協和萬邦, 黎民, 於變時雍.]”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원문  
原文



玄洲集

卷之十

門人慎天翊攷○併儷合七十六首

箋 批答 教 帖 致語 上梁文 序 啓 表 制 詔



## 詔一首

### 擬托孤丞相亮詔

朕素乏撥反之才。徒切恢復之志。干戈未定。河水清其幾時。歲月如流。創業止於今日。頃緣失左右手。奚暇保唇齒形。社稷之安危在茲。雖欲自重。桃園之香火未冷。誓不獨生。維成敗在天。縱免白登之急。伊死生有命。莫返蒼梧之巡。肆將末音。累我良弼。惟卿軼伊。呂而無愧。比管。樂則過謙。今天下三分。是誰之力。使海內一統。會有其辰。況嗣子幼沖。國家公器。可輔則可輔。難容父子之私。與賢則與賢。無拘君臣之義。惟其才十倍於彼。是以托六尺之孤。嗚呼。朕不再言。汝無復讓。憑茲玉几。撫孤臣而吞聲。乘彼白雲。拜高皇而何語。彼一作丕

## 制二首

### 擬殷高宗賜傅說用汝作霖雨制

國如無賢。君出治而罔濟。歲或有旱。物將茁而必枯。以物比民。視汝猶雨。惟爾志介于石。躬築于巖。若將終身。體雖勞於服役。如有用我。心豈忘於斯人。道將復興。賢固不乏。是用虛位以俟。久無樂乎爲君。吉夢維何。宛其人之如玉。況世澤之五斬。甚祖旱之七年。德寡才難。無喬木世臣之可倚。土焦魚爛。非勺波斗水之能沾。若苗之枯。何草不萎。故君子細民之懷澤。劇西疇南畝之望雲。肆拔擢而無疑。冀涵活其已涸。嗚呼。霈然誰禦。惟汝作霖。天無見龍。萬物何以得遂。我有良弼。四海庶幾其蘇。



## 封竹夫人制

緣衣黃裳。久失壺位之正。丹書紫誥。盍舉封秩之儀。寔褒貞姿。俾輝簡策。惟爾以渭川裔。有孤竹風。勁直之操。未嘗忘於坐臥。清苦之節。豈徒爽其心神。唯其外直中通。所以體堅色淨。置諸左右。非特股肱之良。近之床褥。斗覺炎蒸之豁。秉妾婦之道。絕妬忌之心。燕寢清香。幾怕秋風之起。龍樓華筆。恒願夏日之長。是用泰時齋廬。不御嬪而御汝。明堂朝列。莫倚相而倚卿。到老相依。賴此君耳。論功定次。有婦人焉。汝惟不言。朕嘉乃績。茲加亞少君之爵。使如李夫人之稱。嗚呼。名以嘉名。笑有爲笑。功既成矣。縱欲退其何難。我且召之。在明年之此日。

## 表 一首

### 擬漢王嬙請勿嫁單于表

天子有命。敢緩萬里之行。匹婦含冤。願得一言而死。豈莊姜之訴日。同庶女之呼天。欽惟臣妾萬方。鞭撻四裔。使海內鰥寡孤獨。各遂其生。舉天下草木昆蟲。亦知所感。至如薄命之賤質。亦許待罪於下陳。蛾眉雖不讓人。敢望顏色之賜。畜物徒知戀主。猶以寵渥爲偏。頃緣廟謨之主和。以致畫工之逞詐。金多少而妍醜。是誠何心。天咫尺而欺誑。孰不可忍。無面目之可顯。寧自列於三千。有天鑑之孔昭。肆不憚其一二。是所謂畫不如也。夫孰曰像惟肖乎。若果名實之懸殊。豈宜去留之失擇。況今安社之計。必在婦人之身。終古平胡之功。不借英雄之手。雖百骸歸于土。唯所願在域中。知一死賢於生。亦不敢負陛下。當承聖意。所不辭於犬羊。苟利邦家。尚可行於蠻貊。第惟吐實之哀籲。諒非巧免之飾辭。

若論妍蚩。當世之無鹽何限。以言威武。比屋之壯士不窮。盍執取捨之兩端。參究輕重之一義。當時紫極。猶望袞龍之光。今日紅顏。不及寒鴉之色。關河此去。路不極於風沙。環佩他年。魂倘歸於月殿。巖廊妙策。雖出得算之良。兒女私情。亦有可憐之怨。伏望重編舊籍。再降新綸。欲壯威服之猷。當擇能戰之將。若順舅甥之請。亟送可遣之人。則分踰空閨。心甘枯死。驕戎自戢。長閑戊巳之營。冤氣致和。益高乙丙之枕。謹當眉還山色。面更春風。花暖金樓。天歌雖阻於倚瑟。秋深繡幕。宮譜庶和以援琴。

## 啓 五首

### 上巡相求四書啓

古之學。必有師。方思負笈而進。今其書不可見。敢乞藏壁之餘。求則得之。固所願也。竊惟四書之於士。譬如五穀之於人。過化存神之功。著於論語一部。難疑答問之說。作爲孟子七篇。明德新民。茲乃大人之初學。率性修道。實是中和之極功。三網<sup>1</sup>由此而得明。百世以俟而不惑。道所存者文不在乎。伏念以下愚才。昧上達學。人言馬服君子。徒能讀父書。自效龍伯高賢。唯懷刻鵠志。少事文墨。何用幻棘頭形。童習白紛。終歸正牆面立。然不學則將落。庶有志者竟成。頃緣東燹之再西。遽致南師之三北。彼父母妻子之血。尙且波途。伊詩書禮樂之灰。任其掃地。三萬軸插架。已矣鄴侯家藏。數千卷賜書。火于善化里第。後生緣何新得。前輩只守舊聞。九仞難期於學山。三餘辜負於隣壁。好古生苦晚。不復夢

1 · 網：綱

中國聖人。借書常送遲頻。見嗔北方學者。幸茲聖經賢傳。浸諸通邑大都。苟存志乎斯文。捨此何取。嗟不可以無學。有如是夫。人十而詎能乎千。書多而難致者四。家貧而學不富。紙貴而價益高。然斯書皆實學也。亦固宜公傳道之。矧我閣下以繼往開來之心。當觀風察俗之任。周情孔思。纂<sup>2</sup>遺篇以爲己能。往行前言勉後學。猶恐不及。斯道賴以彰。吾儒蔚然興。河陽幕參謀。致有溫處士。衡湘南經術。宜師柳先生。此可謂知所依歸。非敢日期於必得。伏望謂寒士無所告。謂聖書非所私。以其盈箱。填此竭望。使之畢其業。用能責其成。則以陳編而易腐儒。縱今日之無益。失四書而得一士。或他時之有期。養鷄鳴客有三千。未曉而死路或脫。買馬骨金且五百。不暮而生至可希。謹當有虛往實歸之懼。無孤陋弱喪之嘆。刺股遂業。縱未雪鰲面之羞。奉履傳經。詎敢忘黃石之教。

## 代人上巡相乞改葬亡母之需啓

天有終。地有窮。長懷罔極之痛。生無養。死無葬。寧辭不孝之誅。孰令聽之。可以言矣。伏念家不肖子。國無用民。小遭愍凶。樹欲靜而風不止。終鮮兄弟。人皆有而我獨無。三年後免於懷。誰取寡婦之子。十歲前未有學。每勸先君之思。舐犢慈深。髮每截於堂上。哺烏誠淺。橘還乏於懷中。顧無一卷之師。幸有三遷之訓。方且朝耕夜讀。庶幾入孝出恭。未央弄袖之雛。忽驚生郊之馬。流離奔竄。父子君臣。說靖康年。口先嗚咽。聞汴州亂。足幾彷徨。母曰嗟予子兮。爾今失王之處。臣各爲其主耳。胡忍以賊而遺。然政身不可許人。故終纓未請係頸。爰東北西南之靡托。故險阻艱難之備嘗。奉潘岳輿。膽消豺虎之窟。負子路米。足繭荒山之道。出萬死不顧一生。得全江革之母。踰千里以糊十口。行携工部

---

2 · 纂：纂

之妻。庶擬相養以生。終始事親之道。豈料夫未列子輿之鼎。經叩王祥之水。既溽暑沍寒之餘。爍其肌血。又恒飢久渴之極。悴其腎腸。哀哀昊天。夢忽成於兩豎。奄奄氣息。藥無效於雙龍。如可代某之身。詎抱終天之痛。嗚呼。纍然身上。驚非老萊之衣裳。邈矣江南。遠違先人之丘墓。唯將數條藤束。竟成三尺旅墳。反藁裡掩之。誠可悲矣。斂手足形。則獨無倏乎。死不可復生。求負歸養之志。喪固所自盡。徒切慎終之誠。遇一哀而脫驂。天縱之聖。見三喪而贈麥。世無其人。格于天神。孟軻之祥金辭穴。班諸兄弟。子柳之賻布違囊。無使土親膚。亦已難矣。願歸骨山足。何可得乎。有顏色哭泣之哀。無衣衾棺槨之美。傷哉貧也。道之窮歟。疇不執親之喪。鮮聞於我乎殯。口不漿者七日。淚可徹於三泉。哀哉不忍言。天乎曷有極。考生事以禮之訓。豈曰無憾於心。蓋死欲速朽之言。只是有爲而發。初不料行乞于市。竟未免填死於溝。回背鄉關。滿眼兵火。縱魂氣無所不往。伊湖山邈焉難踰。誰樹松三年而歸。嗟未封四尺而葬。嗚呼。離家問路。薦香火無所可憑。蒙袂操瓢。雖餽粥亦難繼啜。人間何世。苟全草土餘生。歲月如流。奄見霜露三變。拱木鬱鬱。哀旅魂之靡依。宿草芊芊。痛新阡之誰護。反葬故山之無日。戴履天地之何心。嗚呼余尚何歸。亂靡有定。當壬辰之初亂。既失母於飢寒。逮丁酉之再驚。又哭妻於鋒刃。顧瞻<sup>3</sup>四方而靡聘。至今十年其猶初。以聞於人。猶恐絕氣。雖頑且蠢。何忍自居。非不知早自決焉。然所願良有以也。是用輒復苟活。猶幸得生。不念瑣力於移山。只思合耐於先壟。況風土不竝以北。而江水雖折必東。此去故山之阿。不至千有餘里。倘資糧需之外。加給一車二牛。奚久於齊。過臻于衛。是所謂窮欲達意。亦可恕死不擇音。涕隨言而交零。口不食而自飽。苟無伯樂。孰哀鹽車之鳴。不有仲尼。應休泰山之哭。所恃者時與勢耳。以至于今之久焉。幸遇相公

---

3 · 瞻：瞻

閣下孝友出天。仁愛及物。幼吾幼老吾老。民是吾身。樂人樂憂人憂。心置人腹。一夫不獲。卽若已推。凡民有喪。莫不匍匐。乃使冠婚喪祭。皆得其時。以至士農工商各有所業。故生老病死之鬼。得斂殯葬埋之宜。伏望推慈祥愷悌之誠。激哀憐惻怛之意。充飢救死。奚必八珍味之具。拯溺濟焚。只在一舉手之頃。謂丈夫不能食。乞憐於吾。謂窮人無所歸。責在於我。容請車之惑。特賻牛馬之資。遵發倉之仁。兼周道傍之費。卽令餘骸返土。旅櫬歸山。永辭異鄉之風煙。得穿故丘之松檜。則生死榮感。母子幽明。不惟白首孤魂。飲泣荒原之夜雨。抑亦黃馘餘喘。隕絕薤露之曉歌。謹當生解疏屬之懸。死合中行之目。將粉骸擢髮而謝。奚但破腦而剖心。蓋天地父母之心。非止生死而肉骨。

### 代人乞縣啓 爲梁慶遇作

雖有良朋。孰肯傾耳而聽。豈無膏沐。欲爲悅己者容。持是道歸。以此言進。伏念臙不中墨。朽難承雕。賴先人之緒餘。小子何述。嗟雕蟲而篆刻。壯夫不爲。人或言。可以出而仕矣。吾斯未信。方且學而習之。頃值科白之乏才。妄擬穿葉之有藝。彈冠而起。濯纓而歌。徒能讀父書。知獨學之已陋。蓋各言爾志。怪許身之何愚。和南風之薰兮。肯落人後。雖北方之學者。莫敢我先。纔歌吟之沿途。已詔板之入等。桃花滿浪。誰謂三級之高。桂樹飄香。未見九天之遠。趁南園之蝴蝶。草與袍而俱青。獻北堂之罔陵。柳共蓋而一色。無倚閭之悵望。有下機之欣迎。幸年歲之未衰。謂青紫其可拾。文憎命達。道被鬼慳。待詔金馬門。時值搶攘。校讎天祿閣。分實兢惶。近帝座尺五之天。齋太常三百之日。三年博士。一官誤人。每擬六級之陞。或榮一縣之養。乍返命以接伴。旋謝恩於郵官。顧歸養之無期。將曠官則有責。王孫芳草。長恨一年二年。郵吏行裝。空勞十里五里。塵埃隨處。自速衆謗之熏。歲月如流。贏得兩鬢之雪。愈苦

陟岵之怨。難堪望雲之思。茲待擅棄之誅。俄獲還除之寵。新知落落。歎  
廋信之平生。舊業悠悠。返楊雄之破宅。暫同隨陽之雁。還爲下喬之鸚。  
奉慈顏於南州。望美人於北闕。長安近於白日。有時舉頭。蜀道難於青  
天。無處着足。甘潛伏而無悔。復駕言兮焉求。然而母老在堂。身貧且  
病。囊乏子路之米。筐絕王祥之魚。采山釣水之供。難給北旨。冬綿夏葛  
之御。詎適寒溫。誰迴東海之波。已迫西山之日。母曰嗟予子。苟得養  
以專城。上以奉君親。可移家而爲國。誰無父母。聞者莫不唏噓。皆有弟  
兄。惻然相與勸勉。蓋念所貴乎人者。豈曰駒犢之從。何取於斯哉。尙有  
烏鳥之哺。以吳起啣臂之志。爲相如題柱之盟。是處青山。非乏雲松之  
興。他年白髮。其如風樹之悲。茲離王粲之家。乃赴陸機之洛。苟三釜之  
莫慰。不及黃泉。倘五馬之未還。有如白水。雖然。朝無親黨。勢絕攀援。  
逢時異宜。豈是馮唐之老。戒門相絕。皆疑王適之狂。聞諸公禮賢之誠。  
不在荒野。惟相國愛才之意。足容鄙夫。輒用書干。敢以情訴。仰惟相國  
閣下。丹心衛國。黑頭提勺。祥雲慶星。直與日月而炳。深林鉅谷。屹然  
龍虎之姿。富貴果然逼身。文章乃其餘事。士爭欲出門下。人莫敢窺涯  
埃。識韓荊州。曾是望外。如歐陽子。何處得來。山公甄拔人才。安石起  
來廊廟。邦須柱石。國倚蒼龜。無不抵掌而前。孰肯納履而去。文昌迴耀  
於八座。天子猶誦子虛。位望遙掩於三台。走卒皆知君實。故如生之羈  
旅。亦得知其依歸。所以長吁短嘆而乞哀。大聲疾呼以求救。然因鬼見  
帝之無路。故炊沙鑊水以爲工。曲逕旁蹊。豈無可干於天府。脅肩諂笑。  
爭奈病甚於夏畦。三上書而自銜。先儒雖或非之。一投足而不拯。君子  
胡可忍也。況如某者。悶默埃罪七載有餘。起廢復除。一邑而足。古無位  
則相弔。今失所而誰憐。才不直於一錢。文何用於八斗。伏望以賢賢志。  
推老老仁。謂曾參之做官。唯出於養。知毛義之奉檄。不在於他。特擬一  
命之官。俾遂全家之望。則流惠於不費之地。收功於難報之天。使母子  
榮。皆我公賜。當生唯其命。死無所辭。蓋造化生成之恩。非止生死而肉

骨。將粉散擢髮而謝。奚但破腦而剗心。

### 上長溪啓 黃芝川

負笈千里。方有志於斯文。樞衣一堂。幸獲私於夫子。步竊效於大禹。色先怯於小巫。仰惟德居才先。實包名外。珠冠霞佩。早踏蓬島之萬重。彩筆金牋。久列瀛洲之十八。講典墳於經幄。頻玉色之生春。播絲綸於油幢。有悍卒之墮淚。歷階二品。一節兩朝。屬當辨誣之難人。乃謂有臣而可使。於是上崢山而踰深谷。何憚驅馳。朝受命而夕飲水。載勞跋涉。丹心銜命。皓首陳辭。冠蓋相望於途。徒勤叫闔之請。水漿無入於口。終感碎首之忱。豁重雲之白日。誠意九天。開大夜於青丘。人倫萬古。陽春及於草木。非但舉國之休。風雨淒於園陵。應有在天之格。畫出麒麟之第一。果然九尺之長。誓指帶礪之無窮。豈直十世之宥。所以與國家休戚。固宜係宗社安危。逮乎島夷憑陵。王師顛覆。際金輿之播越。承玉音之丁寧。懼是多男。哀兩兒之尙幼。時乎寡助。唯二臣之與同。吾何走乎。逃矣西土。汝可往矣。鬱彼北林。存亡危急之秋。父子君臣之義。遂乃衝冒兵刃。竄幾羞於捧頭。奔走飢寒。誠每切於割股。寧知不虞之地。乃有叵測之徒。嗚呼。起轂下之羌胡。勢有難及。遇舟中之敵國。計無柰何。怨屯戍而逞凶。異於淇洲之卒。忿菜糲而作逆。甚於涇源之軍。自王子而迄公。遂束縛而遭賊。頭雖百折。忍作他邦之臣。髡彼兩髦。實惟吾君之子。肆忘生而捍衛。爰被擒而從容。其輕若斯。非乏常山之舌。所重在此。宜全丞相之軀。匿遺孤於山中。事雖異於杵臼。抱阿斗於馬上。忠豈劣於子龍。堤上之勢不俱還。泛孤舟而赴死。雲長之路有共返。脫五關而得生。烏忽白於秦庭。鷄既鳴於函谷。完趙壁而東走。終免虎狼之求。持漢節而南歸。曾牧牴羊之客。全公私之恩義。報國家之君親。典屬國以賞功。曾所恥者。屈讎庭以論罪。不亦冤乎。既吹毛而責非。又下石者

皆是。有罪無罪。天知神知。漢家之待功臣。雖不至薄。唐朝之責李曰。胡獨太深。終未暴露其冤。竟坐黜黜之典。言三至而成虎。羽幾積而沈舟。投荒禦魅。越千餘里。省愆引慝。踰一十齡。賴聖衷至公而平。故天道周紀則復。待罪輦轂之下。于今十年。獲覩天日之臨。不朝則夕。倘得一言之悟。蕩滌可希。不待百世之論。是非乃定。況年德彌高而彌邵。伊毀譽或浮而或沈。蓋吾輩未之前聞。唯文章乃其餘事。承其風者草化。就於德而月將。時先生說二經。士欲出於門下。以道德伏一世。牛豈全於眼中。伏念學不通方。愚未聞道。猶食有口。寧辭飯囊之譏。供世無言。端木木偶之比。少孤而服三遷之訓。長成而乏一卷之師。聖路長堙。寥寥數百餘載。流光莫住。堂堂四十九年。谷豹成斑。恨乏南山之霧。輟鮒無沫。思添東海之波。幸擇里而依仁。喜出谷而遷木。頃者獲賜顏色。得炙音塵。乘學海之波瀾。覺吾道之坦蕩。偉確論直辯。折鬼神而無疑。若鉅谷深林。做龍虎之不測。遂驚井而望海。乃嘖東而效西。圯下之師黃公。雖曰幸矣。揭陽之誨趙德。亦非偶然。伏望謂傳業無私。謂孺子可教。悶駑駘之蹉跎。俾副希驥之誠。恤螟蛉之喘喙。時賜類我之祝。則石可攻玉。沙或爲珠。追遂參翱翔。誇距觜於文圃。磨研造閨奧。掉鞅鞞於騷壇。謹當趨跽於函丈之間。奉袂於几席之下。瞻前顧後。雖莫測其形容。虛往實歸。庶無怠於傳習。

乃祖綾城吾父執。風流氣節動人聞。承家賴有賢孫子。名世爭稱善古文。自愧疏慵無肖似。休將文字謬推尊。唯應寂寞楊雄宅。問字時來可與論。右長溪答詩

### 謝左台遣醫啓 尹昉

滅耳亡聰。寧懷應物之念。披聾獲聽。實賴遣醫之仁。枯校再花。感草重結。伏念少孤駑鈍。多病龍鍾。離父母之邦。一身千里。值壬丁之亂。萬



死獨全。飢寒困頓之餘。神血中耗。疾病死生之際。形氣外凋。韓吏部之牙。未老而先落。潘安仁之鬢。方壯而已秋。中歲之罹疾也有由。上年之不死者亦幸。自來茲邑。轉增舊痾。向金剛萬二千峯。縱青眼之乍暖。距鐵嶺四十餘里。厭白頭之遙寒。既風土不并以南。伊沔寒實倍于北。鬢風虐雪。無夏無冬。厚被重裘。不日不月。衰加杜老。却從前月而聾。疾異鄒賢。難期今日之愈。閭閻城市。變爲寂寞之濱。魂魄精神。歸於怵惚之域。搖身對案。識稚子之吟詩。蹙頞牽裾。知老妻之問疾。疾雷擊乖龍之柱。等看布鼓逢禍。駭浪沸浴日之淵。比視止水潛動。人間底處。聒雙鳥之啾啾。雲外如今。息九苞之歲歲。吳江八月。濤馬騁而非壯。晉地三更。風鶴逼而不驚。鷄唱秦京。想朝斑於五點。猿啼楚峽。缺秋淚於三聲。玉笛正弄。龍無滄海之珠。絳唇徒開。天有白雲之遏。萬吹歸於遏密。百嚼呈其寂寥。自悼蒲柳之殘骸。甘爲聖世之棄物。誰意相國之憐悶。乃令太醫而診鍼。青囊未探。已驚和附之手。紫訣纔試。便泣膏肓之神。疏三百六十之經。逐新邪於頭部。濟水火金木之氣。換舊聰於腎門。有語卽通。三旬之充耳何去。無聲不入。二精之復位如初。聞雀噪於簷端。欲忘三月之肉味。辨蟻鬪於床下。肯數衆蚊之雷音。自少及今。未滿三萬餘日。由聾得聰。方覺一千百功。披雲霧而觀青天。未足諭快。生羽翰而登紫府。豈獨稱仙。非老爺無以致醫。非鍼法無以開聽。俾癘痾得齒於人。皆我公推己之義。敢不承風。鼎耳聞道。台階蘇殘。下邑雖昧眼前之瘡。醫國他年。庶備籠中之藥。

## 序 二十七首

### 龜鶴亭序

國天以東。郡嶺之左。何流不駛。凡峙皆紆。千峯北來。輸白頭之爽氣。萬水東委。挹青丘之靈氛。天星之所包纏。地勢之所回互。謂有神仙之境。果見龜鶴之亭。惟神是庥。實天所作。雙巒對起。劃成鬪虎之蹲。一川中分。活作行龍之蜿。何年禹斧。揮戍削之煙鬢。當日秦鞭。失嶄巖之山骨。松巖落影。半浸荷花之中。潭舟泝虛。倒聽楓葉之下。湍激則奔雷沸軸。淵渟則纖纈息文。月舒而瑤臺空。春濃而錦屏動。物無與競。魚亦相忘。童男可憐。海上本無蓬島。漁舟何處。人間更有桃源。苟非超氛而淑郵。寧能致身於福地。主人高才拔俗。強顏隨人。素履黃冠。結幽期於南麓。紅塵白眼。辭薄遊於東華。富貴如浮雲。乍回南柯之夢。朝野小暇日。休上北闕之書。然鄉黨之坐深。柰棲遲之興淺。人期鍾鼎於廊廟。我以泉石爲膏肓。茲焉得地之靈。豈非素有仙分。登而盡山之趣。果然深覩天機。既鞏且夷。乃輪而奐。曾雲遮而霧擁。任山靈之撝訶。忽鳥跂而翬飛。見林亭之清絕。乃知千古江山之勝。終爲一人臺榭之娛。觀其兩龜相趺。遙馳透迤之勢。一鶴孤聳。迴走崔嵬之形。足以望國之氛。肯學掩魯之大。寧作仙人之駕。不願乘衛之軒。碧流經中。恍如玄兆之拆。白雲在上。恰似縞衣之翔。此所以卜居潛藏。離群遐舉。志食苔而彌潔。迹巢蓮而愈貞。出煙霞之萬重。何如鍛翮於籠裏。藏巾笥以十襲。孰若曳尾於塗中。運氣無營。自得千年之老。步虛有羽。終遂萬里之志。公固樂此二蟲。山亦號以兩美。扁斯額者。著其志歟。主人於是。淡然無機。淵乎有適。遇幽貞之卦。誦碩侯之詩。望小白之山雲。新詩未就。坐溪心之臺石。宿醉初醒。絃歌夜調。響動溪女之室。簾幕朝捲。彩徹潛蛟之宮。俯一帶之琉璃。倚千尺之琬琰。人居天上。犬吠雲中。耳與目營。神

入道寂。微風乍回以欺鏡。小雨時過以粧圖。山入水而與青。鷺起沙而分白。籠林淺錦。朝記水村之煙。點渚疏星。暝識漁窓之火。尋花問柳。幾邀元戎之出坳。仰槐看松。時與野老而爭席。霜侵敗葦。遠眺侯雁之驚。雪汨水灘。暗聽夜鳴之散。尋一壑之榮悴。占四時之炎涼。以雲煙山水之間。爲逍遙倘佯之具。仙者隱者。古徒聞而未逢。亭哉人哉。今絕無而僅有。若余者。家徒立壁。地無起臺。生無所成。垂種種之黃髮。去將焉適。看處處之青山。屬顛沛之流離。任東西又南北。他年築社。慕還山之樂天。今日登樓。作離家之王粲。如或便風一日。帆通滕閣之筵。山陰暮春。躬造蘭亭之會。則茂林脩竹之勝。豈獨媚於右軍。落霞孤鶩之吟。不多讓於王勃。序而止耳。詩何係焉。

### 保晚亭序 爲月沙相國固請作

楊湖東麓。麻浦西枝。幽非野堂。迥異江閣。山形之所逕池。水勢之所紆餘。樹高棟於林阿。明霞破錦。抗聳梁於巖表。杳靄穿紋。楹絕流丹。呈至素而不野。枅無刻翠。晦繁文而愈鮮。非侈非崇。寔君子之攸宇。不高不廣。乃神明之所扶。而況處兼山野之中。占盡江湖之大。爲農爲圃。友樊須而隣邵平。以釣以漁。懷任公而憶呂望。層霞蔚而莫散。花嶼界銀浦之心。長雪迤而不融。瓊沙封碧洲之觜。新霞吐焰。簷留南浦之雲。反照收紅。簾捲西山之雨。劈鳧島之遠霧。雲席乘潮。帶鷺渚之橫嵐。風檣透漢。蒼蘚翠角。高起老龍之頭。萼谷蓮峯。幾遍仙人之脚。繁星點於遙夜。隨處漁燈。列樹直於平蕪。無邊賈舶。牢落江村十里。微茫煙水幾重。青蕪蘸春波共青。白鷺起晚沙分白。三江萬古。一畝孤亭。然而庭戶纔成。中窄主饋之室。墻垣未築。外無旋馬之門。歸來莫謂苦遲。亭號有此保晚。矧我相公閣下。齊家治國。緯地經天。天星海仙。遊戲斯文之表。石麟雲鳳。浮沈流俗之中。蜚英騁藝餘四十年。翥要騫清難

一二數。握銓衡而掄揀。官無積薪之歎。秉文樞而薰陶。士有攻玉之慶。發藻酬唱。幾天喜之春融。團辭辨誣。曾帝疑之冰釋。楊經略之誠服。豈無意焉。熊御史之神交。良有以也。方期道以文衛。非但國由公華。頃自燕路而纔還。病違鵷班之共請。聖明如日。事雖蹇而身伸。孤忠若葵。恩則大而謗速。肆躡東山之鳥。出自國門。乃跨西湖之驢。入此室處。几杖琴瑟。攜成衰境生涯。藥物圖書。來作幽人契闊。明窓迴啓。蓄朱夏之清颺。爽榭排虛藏碧海之明月。禽魚山水之外。更無所求。諷詠優游之餘。聊以卒歲。棲遲白首。休上北闕之書。唱晚滄波。驚斷南柯之夢。矧又篔唱箏和。庭兼二難之榮。玉應金春。人稱三秀之挺。侵情觸眼。無非供老之資。動容發音。皆是却衰之具。茲足保其晚景。知額號之蚤扁。某新進小生。故人稚弟。昧燕石而自銜。徒懷三刖之悲。護鴛鴦而垂憐。幸增一顧之價。雖所願學孔。然何敢望回。茲者閣下不以雕篆之才爲無所取。乃謂月露之句。或有可觀。申命之勤。固請不懈。是用輒忘陋澁。冒布衷懷。如此荒詞。豈曰序之云也。他時風景。請且爲公賦之。

## 拱北樓序

路走三藩。無出湖西之勝。江橫一帶。有此拱北之樓。雉落波心。魚搖檻影。排霄漢而起棟。日月照森。屈虹霓以爲門。風雲闔闢。扼全慶之吭。環繞都畿。跨湖嶺之腰。委輸華漢。形猶衆星之拱。勢敵一夫之關。西垞相公之肇開。豈無料度。北門鎖鑰以取譬。良有由然。屬茲九畹之提鈴。庸重新其圯桷。唱和同響。前後一規。何名之宏敞。占爽塏之壇衍。活畫難分其真假。飛仙孰昧其有無。惟彼去馬來牛。掠平津而填噓。殘霞斷雨。粧極浦而微茫。嶺月舒輪。漾金波以動色。巖花倒影。開繡鏡而濃香。鷺起鴻飛。爭遵蘆荻之渚。漁歌牧笛。競答杜蘅之洲。春雲共白沙無邊。錦水與青天何極。或乃瑤船玉舫。復携美人而登。桂棹蘭槳。徐待落

日而放。絃歌迭奏。游鱉立於微波。鼓吹相喧。老蛟舞於幽壑。而況山圍百里。草老甄萱之墟。花落千年。江深義慈之國。三韓忽已丘壟。白濟何處樓臺。帝子泣兮綠雲。愴古何及。長安近於白日。昭代方隆。矧余承綸九重。按節三路。嚴程役役。瞻北辰以逾遐。行邁徐徐。翫南樓其何夕。蘇仙泛舟之後。雖著赤壁之名。李白題詩之前。已彰黃樓之勝。便風引與。倘豫滕閣之筵。暇日消憂。聊題仲宣之賦。

#### 四慕堂序 孝悌忠信

青山在上。白水流東。村藏一區。堂揭四慕。乃瞻衡宇。誰謂無家。更擇令名。是以有譽。非丹青輪奐之爲美。非江山形勝之足娛。孝莫大於愛親。爲子止孝。忠可尙於循國。盡己爲忠。以交於人。無信不立。欲事其長。非悌曷恭。其爲人之本歟。吾必謂之學矣。故居閑處獨之日。皆顧名思義之時。念在茲釋在茲而無荒。生於斯長於斯以至老。所以梅兄竹弟感友愛而敷榮。木奴花王服誠意以華實。宜致吉祥之止止。不願廈屋之渠渠。如某者。行州里哉。昧順德也。有計未歸巖壑。虛送百年。無地可起樓臺。難窺數仞。倘或行遠自邇。入室升堂。則以顏氏之才高。尙一善焉惓惓。雖曾參之質魯。庶三省而攸攸。

#### 石泉亭序 在安東

翠靄蒸嵐。遙挹少微之彩。奇峯邃壑。斜控太白之雄。人傑由其地靈。水清所以石瘦。雲窓對楫。如開列真之堂。綺閣浮楣。悅結靈蜃之宇。錦蕪落於斧鑿。女媧餘天。玉龍吼其琤琮。伶倫遺律。霞蒸紫洞。景奪三島之春。水明瓊樓。光掩十淵之月。林泉亦有富貴。平地豈無神仙。濱百里之花山。偷一片之靈境。惟彼瑤池玄圃。周馬踏而非真。金闕銀臺。秦童望

之如夢。如或河源風浪。不禁漢槎重乘。茂陵桃源。肯許漁舟再過。雙鳧  
便舉。孤鶴能飛。一區煙霞。不惡共作盟主。三湘物色。還應知是洞賓。

### 凌虛亭序

虹飛鏡裏。帶波華而抗梁。鳥跂空中。排灑氣而開檻。東西是水。上下皆  
天。雖復室異蛟居。魚龍富於滄海。人非羽化。鷄犬近於白雲。涵水月之  
雙清。共乾坤以一碧。春粧繡嶼。對落花而無邊。秋映瓊沙。望歸鴻而未  
極。惟彼五湖之波自在。形勝誰專。三峽之樓雖高。虛無只少。而況攀橋  
入月。曾九萬之無憑。御氣乘風。亦旬五之有待。曷若隨時啓沃。從授簡  
之大夫。暇日登臨。作憑虛之公子。顧余何年歸去。無地樓臺。一飄之颿  
未回。已違盛宴。數句之詞還□。空夢滄浪。

### 梅鶴軒序

天葩國艷。乃廋嶺之芳姿。皎服玄裳。是臨臯之道士。故其冰堤雪岸。  
開寶靨以回春。月桂風松。引圓吭而警露。然且灑橋之路十里。何處清  
香。華表之棲千年。難尋逸翮。曷若移根固植。聊憑一撮土之中。弄影  
長鳴。自在數畝庭之內。未離東郭之隱几。已占西湖之高標。雖然。伴瘦  
羽與清枝。便是三絕。唱佳人以拙句。豈云二難。舞鶴三更。非爲泣鬼之  
語。落梅一曲。如增遏雲之聲。

### 三湖亭序

在交河。爲白軒固請作。

江山有主。風月無邊。若非不羽真仙。那得無縑活畫。晴川芳草。尙何  
勞於品題。二水三山。不必論其形勝。第惟重攀月桂。飛步青雲。三握

天衡。吹噓白日。滄波入夢。蟄王喬之雙鳧。煙棹違秋。望張翰之一雁。所以周子去而忘返。松陰轉疏。王孫遊而始歸。草恨方歇。於焉嘉客。孰謂林下無人。若將終身。更喜樽前有友。然且君民是急。魚鳥還輕。江上漁翁。猶臥西巖之月。窓間道帙。旋扃南浦之雲。嗚呼。今代麒麟。雖暫屏於大樹。他年翡翠。肯許巢於雕梁。佩國安危。兼善愈於獨善。處江憂喜。三湖勝於五湖。

### 鳳下樓序 在善山

神慳鬼祕。留一片之爽丘。地放天成。開數椽之危檻。是知謝眺指點之後。宣城方得令名。鄒宰登臨以前。洞庭久無顏色。而況洛浦之首尾千里。榮光集於上游。白峯之懷抱萬重。淑氣浮而右轉。多士合爲人傑。群賢稱其地靈。惟其兵火之屢經。所以臺榭之一廢。不惟勞使臣之際。無度公翫月之樓。至使鄉飲酒之堂。爲宓子彈琴之室。是用翦棘開棟。後主先賓。收拾物外。煙霞粧點。空中樓閣。形連飛鳳。想雲外之九苞。勢控金烏。訝日中之三足。黃雲亂堆於遙野。秋老萬畦之田。紅錦半碎於長林。霜酣千樹之栗。星垂極浦。影搖海平之沙。日照扶桑。光動天成之堞。世間有他勝界。天下無此孤山。明月共清風無邊。白雲與青嶂何極。嗚呼。今日遙吟。難堪柱笏之思。他時長笛。倘念倚樓之人。風阻子安之船。誰序滕王之閣。天留永叔之筆。自記醉翁之亭。

### 聽溪堂序 南原房元震。三度簡乞。故及之。

地闋三籟。枕幽溪而尋聲。心齊萬吹。倚大塊而入寂。夫以名符地始。西

4 · 鳴：鳴

南北而有東。姓應天文。二十八而居四。初登國學。乍囀幽鶯之春。薄出郊畿。旋拋傅馬之印。居然白首。遑遑乎欲奚爲。是處青山。綽綽然有餘裕。三祭交艷。雲雨近蛟龍之城。雙珠竝明。光價聳鴻雁之嶺。方丈之面入座。此間豈無羽人。廣寒之路連郊。何處更有月殿。是知琤琮滿耳。如聆韶護之音。清馭爽神。勝聒環佩之響。余方含明五采。靜觀觀音之觀。絕聞群囂。堪聽聽天之聽。觀音之於觀色。誰是得觀。聽天之與聽溪。俱非失聽。

## 淮南序

桑溟左汨。越秋嶺而方西。鐵嶽橫蹲。走關山而直北。由其處地極峻。所以風土異常。冬盡陰崖。難舒一元之氣。春歸急峽。長吹萬里之風。丘巒欲飛。屋木皆拔。山埋谷沒。但看積雪層冰。燕澁鶯羞。何處落花芳草。蓬萊羽化。非遙逸鶴之驂。草澤鶉居。載戢癡蠅之翼。邊聲動戍。角搖五更之星。隴怨凝秋。笛入三年之月。動植以之含悴。人情斷於樂生。地近長安。劇天下之窮處。寒多朔野。怪域中之殊方。方生萬物之輝。麗中天之白日。佇釋一隅之憾。發幽谷之青春。

## 贈金秀才序

粵自終無始有。一氣轉爲陰陽。方濁圓清。二儀分而宇宙。群於萬物。肇九頭之人皇。藹然四端。隨七竅於混沌。星象昭印。奎壁粲天上之文。龜龍負圖。河洛薦人間之瑞。犧思鉅妙。解太古之長繩。鳥迹竒。哭中夜之舊鬼。遂傳千里之恣恣。庸開億代之茫茫。非唯出言之精。斯乃貫道之器。於是刑政賴而不恣。禮樂由其益彰。高辛堯舜之巍巍。罔不以是。神禹湯武之郁郁。咸皆懋茲。周情孔思。百世以俟而不惑。聖祖神



伏。三光幾隳而復暉。百家之奧旨微詞。出幽入眇。九經之要言妙道。緯地經天。玄老誕莊。驅十氏以遊外。哀騷浮左。擁諸史而掩前。至若秦之欲亡。韓，呂從而隱怪。漢斯爲盛。遷，固稱其雄剛。五馬遙馳歷江左之六姓。衆蟬亂噪。作建安者七人。於是尋章摘句之居多。取青妃白以爲巧。人將失學。天未喪文。惟江鮑徐庾之吟。雖有歉於風雅。然月露風雲之句。猶且振其詞源。山岳彌高。李，杜，韓，柳之互唱。江河難廢。王，楊，盧，駱之相鳴。觜距爭誇之幾人。逶迤不振者五代。逮乎皇宋遙起。人材蔚興。周茂叔之襟邊。天開霽月。程明道之座上。地放春風。吾黨斐然成章。衆儒相與扶道。爰及伊川而偕作。遂至晦翁而大成。斯固唱和乎聖賢。于以表裏乎經傳。然而盈虛有數。識消長之相承。舒慘隨時。知盛衰之遞代。故無往而莫返。不有廢則何昌。於是元朝漸昏。古月方晦。聖人作而品物覩。精氣入而羸穢除。大明由是大明。中國所以中國。滄溟，弇州之作。欲追漢，唐之隆。大復，空同之詩。擬駕元，宋以上。方輩出於海內。實賓興於寰中。歷遂古而當今。幾雄才而美質。況茲大氣之播物。不以偏壞而蓄才。爽惟我邦。雖僻介于東土。欽承天命。久環拱乎北辰。三氏出於檀君。斯文未闡。八條始於箕子。吾道其興。乃有崔孤雲之綺詞。排四傑於唐葉。李相國之大手。軼五百於麗朝。稼亭生此牧翁。圃隱友其冶老。暨乎山崩虎去。霸圖盡於五冠。地闢龍飛。佳氣歸於三角。摠八路以建國。襟帶山河。越累代而鞏基。禮樂文物。多士共濟。非特笙鏞乎六經。五賢相望。乃能人倫其百世。鍾間氣以挺出。存齋浚陶山之源。泝宗派而承流。溪老和石潭之韻。豪健最於蘇訥。倨奇稱以院臯。有若復元之奇才。鮮能及者。至如石洲之麗藻。豈易得哉。文治允浮于中華。儒教不讓於前古。然今才替而德否。實由世遠而人亡。嗚呼。鳳逝龍歸。瞻碧雲而絕響。鴻飛鳥過。踏白雪而遺蹤。哲人其萎。誰辨兩童之智。大易猶在。徒爭九師之門。相輕之風未有甚於今日。自重之習。信難醫乎此時。惟彼家家未聞守雌。人人自謂得將。雖然。已識鄒

忌之貌。不如城北徐公。誰將伯起之賢。錯道關西夫子。以併儷名者。徒纂梁隋而不知變。以章句稱者。徒工聲律而不知通。魚非緣木可求。瑟胡膠柱而鼓。一言僅可。便欲壓倒諸公。片句纔能。方將橫駕舉世。爾乃尋塵水鏡。剔垢之爪百端。索玷荆珉。吹毛之喙三尺。土衡覆瓿之詆。未宜出於平生。杜老壓公之譏。不當發於抵死。噫。以非魚知魚之樂。不若自魚。處有鳥無鳥之間。方始得鳥。巧拙唯其在我。毀譽不如從他。是知雌雄等鳥。得失如馬。唉此向癡而說夢。何異與矮而觀場。南帝妄尊。東隣效色。深居井底。寧解井外寬閑。高坐堂中。方知堂下曲直。故其謙能受益。實宜若虛。讓位不害爲陶唐。問禮何損於將聖。何況滔滔皆是。質質遂非。假令得之。不過爲小枝之賤。非吾徒也。見笑於大方之家。奏賦論詩。無益於成敗之數。窮經力行。有補於風化者多。與其掉鞅於文場。曷若摘埴於聖路。若余者。學未聞道。文不成章。奇法焉。正葩焉。磬牙焉。詰屈焉。曾不用力。綺靡者。瀏亮者。溫潤者。清壯者。皆非着功。活虎生龍。終非朽索可制。雕蟲篆刻。亦豈丈夫所爲。滄海浮空。莫施童孩之步。咸池落照。空催夸父之鞭。白石方治女媧之青天萬古。黃河欲障神禹之赤縣九州。三千秋而鳥鳴。會有異日。九萬里而羊角。柰無其風。方且淵龍養珠。功未就於尺木。谷豹藏霧。志猶專於寸斑。今足下壯略雄圖。獨步千里。騷壇藝苑。少年將軍。以岳岳登仙之標。有飄飄凌雲之氣。瓊霏寶唾。隨紙而五雲。玉焰珠光。出口而萬丈。馬子長之藻思。已湧涉遠之前。王仲宣之聲名。更增登樓之後。猶尚以我犬馬之齒。謂或少先。屈其鸞鳳之儀。待以長老。旣文采之潘岳。才貌稱佳。更清真之右軍。詞筆俱絕。況此肫肫卑讓。都是蛇蛇碩言。殆庶幾乎。未達止於一間。顧勉疆耳。優入在於數年。可以與子偕臧。不必捨爾所學。越浮靡而踐真實。道不遠人。造門牆而望室堂。仁惟由己。所以後生之可畏。庶與先覺者同歸。重違累請之勤。敢將一語而贈。茲乃暫承簿牒之暇。粗事鉛槧之勞。上自盤古以來道德文章之盛。下及偏荒之遠敦淳浮薄之風。

一爲反己之規。一爲救時之憲。無毀致毀。晒昭氏之鼓琴。見珠疑珠。宜未俗之按劍。聊嘯詠而揮洒。天地低昂。怳霹靂而風雲。鬼神瑟縮。荒調雖澁。但願傾耳而聽。明鑑必詳。毋宜他眼之掛。

## 月沙相國詩板後序

蓋月圃移都。慶天國之開泰。星仙考藝。喜人文之益章。是知畫足失杯之詞。回紫殿之春色。夜闌秉燭之句。入青童之玉聲。萬古歸其冥搜。六丁疲於下取。所以丁寧附耳。勅飛廡與雨師。密若無言。走陽侯而河伯。於是山移禹鑿。碧海立於地中。石破媧填。黃河來於天上。卷舒舒之淮水。看浩浩之襄陵。日月晦冥。乾坤辟易。豈不以變化所極。取捨以懸。沒楓岳千萬峯。雖有憾於羽客。收驪珠四十顆。柰無欠於天箱。故其唐昉一去之餘。便移斗山之板。劉安千載之後。始失淮州之扁。雖緣古今之山靈。實由先後之詩聖。遂乃龍探螭攫於一句之頃。溟運川停於九重之間。開王母七寶之函。金仙灌手。進帝座五色之案。玉兔呈毫。擁霞佩而珠冠。肩磨快觀。會圭郎而壁土。口沫爭哦。念美玉與精金。元擲地而有韻。卽歸眞而反質。由上天之無聲。蓋謂藏彼星宮。不過槎客者。幸耳投諸雲海。肯使禹強而得之。失於邑則邑輕。在於天則天重。皇天豈宜乎偏重。下邑不可使終輕。曷若芻之乎口鳥之濱。乍經太僕之手。近之乎江都之府。竟歸太史之營。昭琴毀之而卽成。楚弓失之而還得。鬼沒神出。夫豈人能。壁完金投。知從天落。交州賓館。重突兀於眼前。片板雄詞。再燠炳於壁裏。銀鈎月曲。鬼母哭於秋原。寶唾珠圓。鮫人泣於夜室。何須借記。方識滕閣重修。不必浪吟。徒勞岳陽三入。奇於元化洞天之畫。異於丹書述郎之蹤。嗚呼。陳王羅襪之章。纔感洛浦神女。軒帝鈞天之樂。只驚洞庭魚龍。杜元凱之沈碑。寧識字於水底。馬長卿之題柱。但播名於蜀中。孰幻化於一朝。終隱見於千里。天門水府。莫不見而奇

之。外國中朝。亦有記其異者。孤館得詩爲顯。荒邑借名爲高。若余者。任他造物之呼牛。不怨塞翁之失馬。無穀可辟。不學仙而若仙。無民可治。欲爲政而何政。新詩莫就。舊疴難醫。夷言惱聽。猶勝白眼之視。高唱堪和。爭似碧紗之籠。他日扶搖。方驗北極之羽。當時霹靂。尙隱南山之陽。

### 送李尙古赴日本序 景稷

蓋隔夷乖蠻。陸海由其相錯。殊方別域。風土所以不同。先王耀而不觀。後世寢以相伐。是以秦防東北。虛築萬里之城。漢通西南。遙馳四乘之傳。然則皮幣犬馬之事。豈其有他故乎。干戈兵革之尋。出於不得已也。矧茲日本爲域。邈在天下之東。其民尙儼。其俗習劍。曰自平氏之擅國。遂有壬辰之被兵。雖復賴宗社之靈。旋致克復。以神人之憤。在所不忘。然且不以踰梁之羞。終廢事昆之舉。不以圍平之辱。終絕款塞之和。是用以帝王待夷之猷。爲廟堂御戎之策。方見執贄而修好。屬有行人之董成。非但理有當然。固宜禮無不答。寔選三价。以董一行。惟公鸞超翰筵。鳳踏玉署。騁高輪於紫路。警咳生珠。抗直轡於青雲。顧眄飛電。俄霜蹄之暫蹶。斂雲翻而低垂。久勞驅馳。市虎之疑誰釋。猶思韜晦。霧豹之斑益彰。信乎契丹持疑。唯富弼之可使。回紇不測。非董晉則莫當。肆掄盛名。允協衆望。寧承召而埃駕。故受命而飲水。非不念浮驂出疆。昔人起懷土之恨。戒轄致遠。陪臣興去國之悲。而況雙親在堂。西岫之暉已迫。弱妻去室。北印之骸未寒。大丈夫之雄心。不出方寸之外。小兒女之滿眼。孰無滯芥于中。出門遊方。猶加定省之念。持被入侍。尙有離別之懷。矧今絕區之承綸。政值溽暑以浮海。然且奉身守分。謝易趨危。上堂遠離。父母不爲戚戚。臨岐相送。親舊不爲咨咨。豈不以事不辭難。乃家庭之明訓。忠唯求孝。是力學之初心。以孝爲忠。忠孝之至。忘家許

國。國家誰先。不遇盤錯之材。何以別利器。不遇雪霜之節。何以議後凋。況念男兒志于四方。達士小其八極。章孩捷武。未遂窮天之圖。夸父神鞭。虛拋逐日之計。或有黃河萬里。人乘入月之槎。蒼水千年。神通一介之使。班定遠之衰意。願入玉門之關。馬伏波之雄圖。終止銅柱之表。縱或忘生而循國。舉皆蹈危而尠功。何況如孚至誠。尙頑苗之有格。苟能忠信。縱蠻貊猶可行。茲者朝辭魏闕。夕宿漢臯。終南既遐。烏嶺之路千里。萊府漸邇。馬島之海一葦。節屬三庚。陰正伏於地底。胸藏萬甲。虜已在於目中。火轟朱旗。駢闐祝融之宅。雷車雨軸。盪汨馮夷之宮。乘混茫之區。不分渚馬。驅溱渺之鳥。寧遇海童。於是占日候風。迎潮掛席。三星離次。泛東洋以直馳。五雲迷躔。瞻北極而愈邈。溫沌嘔泄之病。發必傷魂。炎蒸霧露之氛。中輒萎氣。蓬窓板屋。誰獲偃息之安。大廈高樓。尙欲發狂而叫。愁馬銜之要路。幾處祈龍。懼馮隆之奮推。專精賽鬼。天輪左轉。日月浮而無懸。地軸俄窮。波浪積而不載。陽侯河伯。若遇恍惚之間。金闕銀臺。如在縹緲之外。或乃怒翮震極。天跳大鵬之風。噴頰吹空。晝晦長鯨之雨。島嶼何時可盡。滄海此去無津。于以歷八埏於轉頭。責千途以瞬息。下碇入境。臨館申辭。詩書專對之才。遇時得售。冰霜凜冽之操。敵人皆驚。執玉低昂。已著由中之敬。舉趾高下。目見發外之誠。嗚<sup>5</sup>呼。鄭圃隱之高風。旣耀前牒。黃檜原之清直。不愧古人。可竝美於一時。宜不借於異代。豈但無辱乎君命。抑亦有辭乎天朝。今余臨行有此一言。不見于今三載。炎風驛路。送飛軒而莫追。明月龜樓。望美人兮何極。

---

5 鳴：嗚

## 送正郎兄赴燕京序

登山臨水。昔人所悲。去故離親。此日可惜。世孰無別。人皆有兄。叔兮伯兮。幸四子之無故。顧我復我。懷二人而莫追。恩罔極於生成。樂莫如乎兄弟。可愛非日。難報者天。學初賴於薰陶。少子何述。技終止於雕篆。壯夫不爲。方春暉之入望。奄風樹之起慟。罪大惡極。死無所辭。地拆天崩。哭將何及。哀遺孤之貿貿。尚頑喘之區區。自趨庭之初載。心豈或荒。苟趾美於先人。死且不朽。是以相勉不學而能。果終始焉業專。遞後先而名立。四人皆成司馬。一世所稀。三男相繼登龍。九原難作。蓋有爲者若是。庶無忝於所生。方且接屋連牆。園開蔣詡之逕。共榻同床。堂拂姜肱之衾。於是馬氏門闈。起白眉最良之歎。江邊父老。有紅頰如君之稱。弟勸兄酬。莫知老之將至。伯吹仲和。何憂道其不行。矧自外之名浮。劇空中之雲幻。彼作宰於南國。猶且疚懷。況銜命於中朝。曾是不意。遂充兩价之副。爲謝貳君之封。紫塞極於遼東。鶴遺千年之表。黃河接於天上。人乘八月之槎。鴨江之廻輞幾時。燕城之歸路萬里。況今金甌捲暑。玉露泫涼。葉謝枝寒。慈鴉啼而有血。海闊天空。斷雁橫而流哀。前山後山。十里之斜陽垂盡。今夕何夕。一年之明月偏多。南浦之歌愈悲。西樓之恨未極。相看有淚。交手何言。嗟呼。念載脂而催程。方飲水而將命。箕臺絲管。雖慰望鄉之愁。統樓風雲。難堪去國之思。涉遼瀛而水折。度薊野而雪昏。過伯夷之廟。則揖萬古之清風。瞻望諸之陵。則弔六國之遊士。陣雲橫於山海。難陟高岡。夜雨淒於玉河。空夢春草。雖然。男兒固有行役。丈夫焉念香閨。子長遊而文奇。季札觀而學博。良驥脫羣。方超千里之蹄。神鵬鼓浪。宜展九霄之翮。然後奉勅歸於下國。隨春入於故園。回首秦川。哂崑函之虛遠。携杯漢曲。悅親戚之歡迎。鄉廬絕加額之望。昆弟有側目之敬。苟無離則何合。庶收悲而爲懽。不堪遠送之懷。遂有臨岐之贈。誌之而已。序云乎哉。

## 贈告急使洪樂夫序 命元

水橫北陸。窮陰乘獻歲之期。星泛西垣。行子起離親之恨。事殊秦庭之哭。勢逼魯境之危。夫以驕虜憑凌。何代無之。朝家羞辱。至此極矣。雖復張中丞之死戰。出於至誠。李少卿之生降。歸於賣國。何況讎吾父母。尙忍共天而生。嗔我君臣。敢售他日之計。聲言寬奠。陽滋邊上之疑。覬覦昌州。陰圖城下之怯。夷情若彼。誰可奏乎皇扉。臣節無他。爾宜登夫天路。惟其允孚者貞信。所以虛佇乎聖心。是知龍韜默符。不勞齊牛之夜觸。鳧鳥纒舉。旋看楚鳥之朝飛。碣石恒沙。無警一天煙月。龍灣鶴野。有脚萬里春風。

## 贈吳肅羽赴京序 翻○吳是門人也

溫綸誕布。輝寶典於東偏。文駟遙馳。朝紫微於北極。方膏蚤轄。旋飲夕冰。肆我聖朝。千載河清。大聖人之既作。百揆時序。小中華之宜稱。微禹其魚。拯普溺於下土。就堯如日。開大夜於東天。蓋茲封誥之遄頒。實賴皇上之睿斷。肆廣掄於卿月。俾卽催其使星。雖爲謝恩而行。亦有辨誣之舉。顧周旋應對之責。人豈皆堪。選名能文辭之才。事乃可濟。上公獻薦。百僚之望攸歸。副价尤難。三舉而後始得。一介臣兮無他技。三人行而有我師。却穀敦其詩書。庶不負學。季札習於禮樂。可以觀風。暑雨炎雲。難掩伏波之節。火山湯海。敢緩張淳之行。蓋念晉日宵飛。馬生郊而莫禦。嬴天晝醉。鶉與秦而無禁。狼戍烽明。關城已阻。魚門胃落。天路難攀。今捨馬而取船。理固然矣。唯讓夷而涉險。人或危之。然且事不辭難。安之若命。神游八極。視滄溟於一杯。誠格重霄。看咫尺於九鑰。非不念諸僚滿道。違抗轡而連鑣。四親在堂。曠承顏而悅膝。徐元直之方寸。不亂則非情。申勃蘇之骨穿。至誠之攸發。豈不以許身殉義。先國

後家。無負於天。雷霆不懼。直心於物。水火難撓。紫氣留於關中。千文未著。黃河接於天上。一帆先懸。威鳳鳴雲。千仞翔而直下。神鵬擊水。六月息而圖南。是知長驅薊海。橫渡齊魯。碣石近於階庭。安歌澧浦。弭節江臯。渤澥易於平地。妖童怪馬。先期而遁形。駭浪狂龍。望風而遠迹。一瞬千里。方探織女之機。孤館三更。想洵陽侯之闕。舉趾中於高下。愈彰將命之恭。執玉合其低昂。益殫遵禮之愆。有請即遂。無辨自申。丹心荷白日無私。皇澤與滄海何極。必從所欲。無曰天高。遄臻言旋。誰謂河廣。餘艗遂遠。春動錦還之天。蛺蝶飛來。花入彩舞之席。嗚呼。張生別處。擲新詩而有聲。桓子歸時。把玄文而誰語。終違祖帳。猶抱茂陵之疴。獨掩柴扉。愁寂宋玉之宅。

### 送進香使洪景望赴京序 霽

天崩地拆。瞻白雲而莫追。浦思山哀。叫蒼梧其何極。藩壤執薦香之禮。陪臣憑去國之輶。夫以藉談介而臨喪。應不失對。子產聘以博物。問無遺論。所以江神送帆。吳胥之濤弛怒。海若迎棹。越裳之波不揚。南溟接於混茫。雲遮朱雀之影。北極浮於渤澥。天霽白鵬之風。斜指臨洮。祖龍之長城萬里。遙分遼薊。丁鶴之華表千年。自信洋中莽杳鳥之一舉。誰知天上博望侯之再來。平地起於滄溟。長安近於白日。嗚呼。柳宮龍動。禹穴之雲晨愁。綃幕鸞驚。堯階之雨夜泣。光沈折木。倏千載於烏號。噉出扶桑。更五雲於鳳闕。既奠香以申愆。乃執玉以控辭。北闕凝情。非唯寵章之煥。西郊勞駕。定知褒秩之崇。他日恩波。想金莖之一滴。春天病渴。回白首於三更。



## 贈登極使韓仲浣序 汝澗

黃河既清。聖人應千一之運。白日增耀。飛龍當九五之期。群邦馳抃賀之誠。率土舉執贄之職。是用上价之任。必須黃閣之賢。專對之才。果得黑頭之相。俾優斯禮。以重其行。所以風伯雨師奔走以聽命。江神海若鼓舞而送颿。收無等之壯觀。徑不測之遙滄。金翎煮海。巨鳥之脛三枝。白羽徑天。大鵬之背千里。溟腰渤脚。混涖沓爲鴻濛。地軸天輪。互表裏如鷄卵。大氣之外。未知更有何形。中州以西。豈云了無樂界。霾噓既霽。三島之神仙杳要。風濤不驚。萬水之魚龍寂寞。視如平地。曾不崇朝。碣石南邊。蘇武牧羊之澤。臨淄西去。宣父辨馬之山。槎入星間。人歸日下。土物以貢。筐玄黃於多方。舟車所通。執玉帛者萬國。龍堆霧廓。山河壯於漢京。鳳殿雲開。日月低於秦樹。千官劍佩。肅鴻臚而低昂。萬乘衣冠。瞻象輿之起伏。虎拜申禮。晴曉呼山之雷。龍顏邇嚴。群班揮汗之雨。仰如雲而如日。竦爲龍而爲光。是知觀海而智益閑。見聖而道愈大。皇澤溟運。添小邦而綏之。主恩山崇。縻好爵而嘉乃。嗚呼。辭雖至拙。拂彩牋而敘情。病未臨岐。望關河而銜淚。

## 送李東岳赴潭陽序 安訥

陽關雨歇。纔綴贈行之篇。南浦春深。更洒送君之淚。岐路自然南北。人生長是別離。惟公懷瑰吐奇。弱冠高步。不獨相如之賦飄飄凌雲。便覺李白之詩句句泣鬼。二星東照。驚紫氣之臨關。五馬北旋。擁青雲而浮洛。身長八尺。古將之風猶存。夢破三刀。循吏之化斯在。乍矯翼於洪鎮。遂超班於萊城。丹人畏懷。威信著於日本。赤子呼慕。惠化留於雲根。投簪賦歸。非爲陶潛之菊。引領騁望。最是仁傑之雲。恩尙許其還除。譴方埃於擅棄。岳牧攸薦。方免尹於愛州。廊廟皆稱。旋作伯於潭

府。棲鸞鳳於枳棘。燕雀何知。服騏驥以鹽車。駑馬自得。才堪王佐。誰使士元而居中。親老家貧。自喜毛義之補外。萱花荊樹。隨處春融。燕語鶯歌。無非歡緒。嗚呼。我無爾有。生榮死哀。顧北堂之已空。哀白日之西匿。仰南天而靡及。悵寒食之東風。奉板輿而遐征。羨君能養。負河橋之相送。增我離愁。東城之會幾時。南國之路千里。行穿綵服。喜近老人之星。歸掩柴扉。恨入王孫之草。

### 送鄭中立序時

流春東逝。共花鳥而含冤。飛蓋南飄。望驄騎而揮淚。人生此別。天路斯艱。何況以子之才。爲世所棄。曾習飛於鳳穴。玉應金舂。逮聯翩於雁門。篲<sup>7</sup>唱箴和。劍三千之流落。天周幾星。鵬九萬而扶搖。海運無日。桃花開處。未躍三級之津。柳絮飛時。旋懷一郵之印。載文轂於天駟。滿路追風。耀酒星於老人。引杯稱壽。他時春草去留。弟兄精神。今日斑衣有無。父子悲喜。嗚呼。西塵乾淨。難卜一年二年。南馬功名。還羨十里五里。離魂不散。敢作逐車之埃。別夢空圓。徒驚滿樑之月。鄭公。以其弟晦子。爲繼故云。

### 贈別竹陰序趙希逸怡叔○自理山。移配嶺南。

萋菲乍織。具錦俄成。雪霜交飛。蘭蕙經瘁。猛虎果然入市。慈母所以下機。大盜欺天。孤臣叩地。囚山近於紫塞。風煙異區。鬼門接於青羌。日月不照。關河千里。仁傑望而白雲。鄉國三年。惠連夢其青草。豈料夫暫移容耐之轍。終慳起蟄之雷。華表歸來。便似遼東之鶴。樊籠遂閉。仍悲

6 · 鳴：鳴

7 · 篲：壘

隴西之禽。夢得無辭於大人。生返忍淚。退之未見其病妹。死別吞聲。偷金已還。直不疑之何咎。罪人斯得。公治長之猶囚。嗚呼。蠶嶺浮雲。倚斜日而欲暮。龍湖秋水。共長天而無言。偶然萍水相逢。悲甚河梁之別。離魂脈脈。未作逐車之塵。顏色依依。那堪滿樑之月。所賴存吾忠信。何往而不可行。勸爾文章。無入而不自得。而況聖如天覆。物皆春融。羊角天池。會有風鵬之舉。魚頭霜府。豈無夜烏之啼。惟願舊竹增陰。寒松益茂。江南芳草。更喜王孫之歸。堂上斑衣。重看老子之舞。

### 贈別任茂叔序 叔英

紫樓丹宮。錯哦珠經之句。金瞳鐵髓。乍結煙火之因。游戲斯文。適來夫子。琅玕芝草。忽失雲鳳天麟。糞土鹽車。誰識白羲駉駉。世皆養勇。北宮黜之不逃。土獨長飢。東方朔之欲死。反以鑠金之謗。終成下石之謀。天閭之高九重。難着赤足。玉關之路千里。何處青牛。纔撥翮於鵬程。旋失序於雁陣。兄既窮而弟病。道其不行。人皆有而我無。哭將何及。入脩門其猶邈。遇瀟湘之不期。落魄相同。文章何用。今朝龜路。未共拍肩之游。他日鸞驂。應有撫頂之笑。

### 再答茂叔小序 附元序。大雨中。茂叔書適至。故首句云云。

風雨掀天。識綵毫之龍翥。雷霆滿空。驚寶唾之珠投。異氣氤氳。已集造化之迹。祥光焜焜。應有鬼神之啼。是知大禹鑄金。忘小巫之舊步。巧匠揮斧。汗拙斲之羞。顏孔融無才。堪御李膺之駕。張儀有舌。難掉蘇君之時。

文兼黼黻。窺彩筆而開襟。字挾風霜。捧華篇而擊節。未遊玄圃。先看玉石之光。不及赤城。已賞煙霞之色。雖復八音迭奏。辨金石之鏗鏘。

五色相宣。識玄黃之照爛。士非沈約。尙解劉勰之書。業謝張紘。猶頌陳琳之賦。

### 悼慎佐郎序 海翊

蓋班鸞繡鳳。自逸天際之翔。玉虬瓊麟。肯習地上之步。而況哦珠白案。未覺一字之訛。結胎紅塵。非爲三生之累。是知金聲玉潤。玲瓏秋水之精。蘭茁芝英。縹緲春風之面。遂乃躡苔渚而刷羽。躍瑤楸而踟躕。攀斗魁於紫垣。光奪八座之曜。薦科甲於黃紙。祥流五色之雲。豈料夫雷動郊亭。謫龍還起七日。天寒遼表。化鶴忽已千年。山阻初平之兄。白石誰化。天留長吉之母。玉樓催題。嗚呼。滄海隔蓬壺<sup>8</sup>萬重。明月共瑤臺千里。青牛紫氣。已出關而莫追。碧落黃泉。非御風而何極。

### 哀石洲序 權鞞汝章

雄詞振華。地挫西北之勢。麗藻撐碧。天起東南之輪。方大雅於偏邦。始高蹈於衰俗。是知萬類困其凌暴。宜被造化之猜。三光爲之弛隳。定有眞宰之訴。故其詩媒北圜。纔吟鼎鑊之鷄。恨加東籬。永歎華亭之鶴。文星晦於天上。紫鳳辭錦繡之腸。酒肆空於人間。赤虬過廬山之岳。廣寒之高九萬。飄馭無憑。弱水之路三千。星槎詎泛。嗚呼。人非物是。起隣笛於斜陽。塞黑楓青。望空樑而落月。壯士莫返。寒風怒而不休。王孫未歸。春草生兮何極。

---

8 · 壺：壺

## 乞畫于海嵩尉走筆序 尹新之

意匠慘愴。何勞十日一山。元氣淋漓。不願滄江驟雨。盤渦淺瀨。小鳧回而浴春。沙岸蘆洲。旅鴻驚而嘶月。春鋤拳足。藕折荷枯。烏鬼窺魚。菰深柳暗。爲問探囊。起死何如。下筆開生。鬼護神藏。想玄造於墨迹。名高聲遠。瞻碧海與青嵩。

## 上梁文 四首

### 蜃樓上梁文

蓋聞禽居巢獸居穴。而攀援之俗逸矣。木處顛土處病。而宮室之役興焉。邦畿千里則周創制云。土階三等則堯著儉也。豈惟人而獨爾。雖在物而皆然。是以。以蜂蟻之至微。亦有衙而有國。胡龜蠶之巧智。終自縛而自囚。竟梁崩而棟摧。弔孤燕之處幕。任鳩居而鷓毀。哂維鵲之有巢。相彼綏綏。終首一丘而死。眷茲翟翟。猶踰三窟而生。矧我水國逸民。海門盛族。受命于河伯。與隣乎波臣。當龍伯釣鼈之辰。縱愁失其故處。逮神禹鎖巫之日。終幸奠厥攸居。子孫以之衆多。戚黨由是蕃衍。敦睦之風則同居過於九世。協和之義則四海爲之一家。然而雲雨未興。誰識蛟龍之異。靈瑞莫呈。等看螺蚌之群。豈可使神胤無庇。賢胄雜處。恒隨波而逐沫。任宿露而飡風。於是咨應龍使治基。諏元龜以采日。脩鯨偃鬣而不踊。巨鮫縮翮而莫搏。鯨魚伏而息濤。商羊遁而逸浪。旂常雅雅。陽侯集而助靈。旌纛威威。海童奔而執役。琴高郭索皆來會。參軍主簿相與謀曰。惟彼土木而成之。丹青而飾者。歸來宇宙。多少樓臺。危乎高哉。邈天上之十二。何其久也。怪路傍之三年。刻桷丹楹。既受譏於魯

史。山節藻稅。又見誅乎宣尼。火三月阿房宮。已無及矣。歷千載靈光殿。今安在哉。班錘之劓劓。王繭之鉤繩。幾煩斧彼而鉅彼。豫樟之參天。杞梓之連抱。謾勞殷斯而勤斯。枌振杆楣。榮樑棟宇之分赴支離。任勞筋而苦骨。構櫨侏儒。椳闌店楔之經營結構。空血指而汗顏。頽垣破墻。每逢兵火之慘毒。圯桷陟瓦。寧免風雨之飄搖。野鹿食苗食苹。誰識姑蘇臺上。春燕飛來飛去。難尋王謝堂前。舉徒勞而無功。儘難得而易失。孰若無匠石指顧之煩而神機密運。無職方占相之勤而玄猷默成。不用晉之埴。魏之材。楚之梗柑。蜀之杉松。而衆具畢張。不用舜之陶。說之築。王之朽<sup>9</sup>塤。嵇之鍛冶。而功庸自足。不用犀。珠。璣。貝。玉。璫。璧。瑛皓皓軒軒之飾。而繁彩溢目。不用雌黃。白垺。錫壁。金銀燦燦燦燦之雕。而祥光動神。何須登登丁丁魄魄許許之役。而以致潭潭翼翼渠渠嚴嚴之美也。遂乃承浪屋之帖妥。覩海宇之汙濇。候風光之輭融。占天時之鮮麗。輕霞飛卷。靄初旭之呈輪。纖雲散收。迴穹溟之開眼。揚精乎水府。構思乎乾端。少焉。敲噓靈氛。吐結瑞靄。無地而起。不日而成。何樓觀之耿耿。若鬼神之縱縱。蛛絲遊碧落。始乍會而乍離。貝闕起層波。漸如近而如遠。載創轉頭之頃。遂成瞥眼之間。吁可畏乎怵然駭矣。豐壙巨鎮。影倒萬丈。壯似六鼇戴山。彤柱粉礎。彩徹九重。恍若五龍挾日。陋仙人承露之掌。跨太液而拂建章。象天極閣道之星。截清漢而抵營室。如橋如梁而士渡女涉。非蘇堤杭府之足方。若市若城而馬騎牛牽。豈臨淄邯鄲之可擬。釣徒騁望而不敢近。恰似秦童採藥而向蓬萊。漁郎爭覩而莫輕過。還同漢使乘槎而窺織女。琉璃。琬琰。瑪瑙之寶照爛輝煌。琅玕。玳瑁。珊瑚之珍糾錯翕習。蹒跚勃窣而胡人遙集上楹。婀娜旖旎而玉女窺窓下視。下王母於玄圃。恍惚瑤池之遊。步天子於碧空。彷彿銀橋之事。眼前突兀餘百尺。渾疑無筆活屏。空中樓閣千

---

9 · 朽：圯

萬層。真是不眠奇夢。海上誰家天下。世外更有人間。偉蕩蕩無能名焉。非物物刻而雕者。鑄須臾之萬象。甄造次之一區。造化縮手而傍觀。歎事逸而功速。天公稽舌而降鑑。嘉騁巧而幻奇。輪焉奐焉。功不可尚。休矣美矣。德莫與京。爰騰燕賀之區區。敢贊虹梁之峩峩。兒郎偉拋梁東。日出扶桑萬國紅。經始靈臺高峩嶠。瑞光千尺九天通。兒郎偉拋梁西。雲開霧廓玉繩低。丹青金碧光凌亂。影醮龍宮萬瓦齊。兒郎偉拋梁南。大鵬飛盡水如藍。重城複屋都居壯。杳若丹霞映翠嵐。兒郎偉拋梁北。風回雨止波濤息。有無成毀混茫中。百靈畢出皆辟易。兒郎偉拋梁上。屈曲脩龍騰漭蕩。珠簾畫棟遠依微。海色神光相滉漾。兒郎偉拋梁下。眞僞旋隨明滅乍。形從氣出氣從虛。非鬼非神非幻化。伏願上梁之後。天無烈風淫雨。海絕驚波駭浪。登茲樓望。長占無爲之世。入此室處。永宅何有之鄉。

## 淮陽鄉校上梁文

伏以衛道興化。莫不原於學宮。揭虔妥靈。必先肅其祠廟。今之所以必改作者。蓋亦出於不得已焉。緬茲校之始成。自亂後而重建。雖緣薄乎物力。奈難繼其土功。既陋陋莫寧乎聖神。又卑側易致其顛仆。基傾水齧。柱礎從以頽欹。雨漏風搖。梁桷忽焉毀圮。瓦解土崩之患。迫在頃刻之間。香火釋菜之儀。終歸苟簡之境。三閭四表之制。沈埋鬱沒而無形。五聖十哲之靈。眷顧遲疑而不享。肆忘寢食而告急。庸請狀啓而構工。官無峙糧。非不知功鉅而力瑣。士有應募。亦何忍道廢而教亡。時當作興。宜右文而應運。民正飢饉。難值屈而舉羸。然茲不日之功成。豈非格天之誠至。吏徒影附。何須民至之子來。儒黨風從。不煩鬼輸而神運。瑰材占其培土。蔚雲委之如山。文石載於輿車。殷雷輾而若岸。鉤繩電飛。般繭謀而天成。畚鍤林竦。呼邪動而谷應。夫孰云淮府之將廢。竊庶幾

吾道之其興。爰際日吉而辰良。載贊虹梁之龍舉。兒郎偉拋梁東。日映蓬萊千萬峯。從此先師先聖廟。愁山千載血穹崇。兒郎偉拋梁西。月生滄海玉繩低。從茲棟宇神扶敵。悠久斯文天與齊。兒郎偉拋梁南。隆臺反宇鬱耽耽。春秋俎豆明禋意。昭格祥雲覆霽霏。兒郎偉拋梁北。遙挹白頭靈岫色。彬彬儒術日蕃昌。生子生孫勸方冊。兒郎偉拋梁上。崔峯觚稜斗間嚮。圓冠方領摠螟蛉。鼓篋家家事涵泳。兒郎偉拋梁下。燕雀群飛賀大廈。自此蓮城蔚士林。烽軍撥卒何爲者。伏願上梁之後。休徵肸鬻。景福紆餘。人人誦法聖賢。豈惟家鄒而戶魯。歲歲皆歸豐稔。將見錢朽而粟腐。

## 月巖祠宇上梁文

伏以弘演出使。不以狂衛而移忠。伯夷登山。豈有聖周之貶德。所以式間封墓。實帝王之弘規。尙德祀賢。乃鄉邑之善範。是知胥山餘俗。猶傳伍員之祠。介里遺墟。尙開子推之廟。豈可使千萬古無前之偉節。三百年不薦其馨香。徒彷彿而欽崇。任潛埋而沈滅。凡國家興亡之際。非乏烈士忠臣。蓋死生去就之高。孰與我公爲伍。緬惟天必生才而有用。公之銜命也非時。鄭公孫之出疆。才稱專對。吳季子之去國。心懷隱憂。聘禮急於奔星。衆拱皆北。歸心劇於流水。萬折必東。竣事方還。俶裝言邁。逮夫皇城西隔。燕薊之路千重。故國東望。鴨江之水一帶。今日還非昨日。他鄉猶勝故鄉。飛龍遙升。昌期正當九五。化鶴將返。華表忽已三千。日月無私。雖不阻於前路。山河有異。又何懷乎故都。僕夫懷余馬悲。豈還鄉之無意。宗社遷市朝變。將返命而誰承。於是尺素寄星。辭悲而義壯。寸丹炳日。馬歸而鞍空。解袍脫靴。志家人之偕葬。回袂旋踵。作華疆之偏氓。遂以裁書送奴之辰。乃爲捐館別世之日。逢萌之赴海。事異而跡非。秦伯之如荆蠻。途殊而轍竝。嗚呼周春長薇。孰謂殷家



之草。宋雨生豆。何處晉代之田。歷觀諸賢馳聲而騁烈。罕聞一士高蹈於別區。脫世超塵。任雲月之獨舉。他山絕壑。昧霜松之自枯。公之聞孫。非不世貴而代顯。墓而不記。終使迹泯而聲沈。一家祕而失傳。雖出於述志。舉世無以考德。將歸於滅名。鄉俗稱之而不隆。理幾乎熄。州家置之而莫報。責誰其任。惟彼晉代之褒傅彤。不以敵國而有間。周王之獎梅。伯不以前朝而有殊。矧我國家。代崇旌門增秩之舉。苟有聞奏。絕無片忠寸義之遺。韓邑籩飴。牧老之祀不墜。延州香火。圃翁之享猶崇。賴此正氣之綿綿。閱三韓千百代。忍使至德而泯泯。迄二百七十年。是用入府停輶。卽搜遺訪潛是急。出郊抗轡。以承風沂流爲先。趨塋展禮而殫誠。揭實摛文而垂淚。嘗念佯狂元聖。猶許白馬之朝。隱冶孤忠。終老金烏之巷。楓林楚水。想秋鶴而與飛。煙月巴山。愴春鶻之哀叫。殉忠蹈節。寧忘父母之鄉。越海踰山。應費歸來之夢。方思狀聞而表德。要以揭虔而妥靈。幸賴前監司崔公覲。以一鄉衛道之宗儒。有千載血祀之雅意。以其宿契於心者。遂與後昆而謀之。茲神宇創開之基。乃先生舊遊之地。籠巖石老。杳白雲而千秋。洛水波深。洒清風於六合。松陰迴拂。所平日之盤桓。桑陌遙連。是先代之閭井。茲乃無勸無率而役隸畢集。不車不鞭而木石咸具。萬杵舉而雷騰。千鍾樹而林列。功告不日。役豈踰年。兒郎偉拋梁東。日照飛虹映洛東。遺址一朝開棟宇。英靈千載奠吾東。兒郎偉拋梁西。天起脩龍指洛西。卽看風馬雲輿住。休望荆門郢樹西。兒郎偉拋梁南。吾道于今正在南。芬苾薦來儒化遠。賓興非但嶺之南。兒郎偉拋梁北。魂去無東西與北。彬彬多士景仰之。不啻高名斗南北。兒郎偉拋梁上。飛藁迴出雲霄上。鯁生誠意與天通。他日香煙一縷上。兒郎偉拋梁下。祥嘏如雲蒸日下。先生至德無間然。放之可見彌天下。伏願上梁之後。儒風日淑。文化川馳。戶孝家忠。愈新禮義之俗。山枯海竭。無廢俎豆之儀。

## 鳳笙精舍上梁文

夫以天慳爽塏。星文含少微之精。地祕神臯。富媪掩大靈之兆。是知香山尋石樓之築。人知白司馬之養真。武夷覽精舍之興。帝齋朱晦翁之修道。所以輞川煙雨之畫。只貽林慙。浣花草堂之居。猶滯浪迹。今余一行作吏。三歲治民。爰居爰處者是邦。靡室靡家以度日。淵明三逕之宅。尙未言歸。文學五十之年。忽焉已至。敬亭山下。幾吟謝眺之詩。天姥峯前。空穿靈運之屐。未遂松雲之棲息。難醫泉石之膏肓<sup>10</sup>。魂遊剡溪煙霞。足遍會稽山水。當時白雪。雖寡和其何傷。是處青山。喜愛得其所。蓋休官投老以後。皆採山釣水之年。人實迂予。誰云風月之無主。天其或者。必待吾人而有成。玉髻瑤簪。幻做象外真界。金峯鐵壁。恰作人間活屏。綵雲徘徊。如聆鳳笙之漸近。錦浪澄澈。悅瞰龍氣之微凝。□棧鳩岳。杳霞連而霧擘。姑城魚岫。互月暈而蓮開。山鬼密若無言。天神果然有意。乃使行人過客。常往來而不知。樵夫漁郎。置尋常而勿論。胡然副其至願。乃能誘其下衷。所以柳相國之先知。人或泥止。鄭愚伏之指示。神其告歟。於是不量功鉅而力殲。乃克涓吉而構役。幸賴士友之廣助。伊致木石之咸臻。爰誅宋玉之茅。寔開蔣詡之逕。瑰材既舉。是謂有志者事成。翬翼將飛。佇看不日而功訖。爰騰燕賀。載贊虹梁。兒郎偉拋梁東。日照姑蘇古堞紅。高棟倚雲明水國。唾珠時復落龍宮。兒郎偉拋梁西。山店溪橋返照低。茶竈日長無客到。幾番幽興好詩題。兒郎偉拋梁南。魚鱖霞光釀暮嵐。岸草巖花山寂寂。詩僧去後靜無談。兒郎偉拋梁北。田父驅牛向東陌。從今不聞吏夜呼。禾黍滿郊民自足。郎兒郎偉拋梁上。村閭接屋兒孫長。內無勃谿有敬恭。社酒時携禮相讓。兒郎偉拋梁下。不必渠渠成大廈。且足冠婚之所於。還宜燕雀區區賀。伏願

10 · 盲：盲

上梁之後。興祥致福。除惡蠲災。清風不盡。明月無邊。誰爭林下富貴。  
琴瑟盈床。圖書滿架。不羨世間功名。

## 致語 三首

### 擬周穆王瑤池王母宴致語

八虬凝□。翱翔物外警蹕。五雲含彩。邂逅天上神仙。金杯萬壽流霞。  
瑤池一面風日。仙凡合席。□□同歡。恭惟王母。不老長春。有生無死。  
丹穴九苞鳳。白日騎行。玄圃一角麟。碧空牽出。尋經紫黃案上。吹簫白  
玉樓中。滄海三千年。靜看桃花開落。廣寒九萬里。閑弄桂影婆娑。唯知  
步虛飛昇。孰云戴勝穴處。麟洲掇草。滿袖瑤香。鶴岑捫蘿。繞襟紫氣。  
棲息三清世界。升降九天煙霞。朝賜谷暮金樞。鞭撻日月。躍璇虬乘玉  
馱。挾御風雲。茲者。偶隨閭闔門來。遙自崑崙山至。曉來鳴霞佩。飛過  
三山。晝下翻雲旂。長揖萬乘。聊將一宴消息。惹起萬古依稀。羅襪纒  
移。羞澁洛浦仙女。鈞天乍奏。起舞洞庭魚龍。今予自是塵蹤。賴有仙  
分。將皆有車轍馬迹雖遍河山。愧獨無綺語瓊詞以娛左右。

### 擬七月七日。織女別牽牛致語

風馳鳳驛。巾霧縠以倣裝。月側魚肩。振霞裾而將御。仙愁玉蘊。靈涕  
珠懸。夫以鴛夢春圓。迷玉度之日怠。雷威夕赫。觸金憲於雲官。遂謫  
南北如參商。誤恩天地而父母。機寒繡幕。龍幾化於玉梭。草暖瓊沙。牛  
不辨於銀渚。蘭悲蕙怨。與桃李而無言。□泣蟾啼。伴姮娥而有淚。編  
三百六十之日。暇以一朝。越九萬八千之天。會于七夕。屬當佳期之聿

屈。每怯良匹之我先。驅彩鸞於紫虛。虹鞭繞靄。役靈鵠於清漢。羅襪凌波。欲往從之。天路奚憚夫險澁。亦既覲止。伊人爰在乎中央。嗚呼。簪合鈿分。春風無賴於頃刻。山哀浦思。歡意卽歸於微茫。靈雨慙慙。鳧飛而履散。香塵寂寞。鳳去而臺空。

### 擬織女別張謩致語

金堤鵲散。臨渡頭而無橋。銀浦魚驚。遵漢濱之有客。天豸吠月。飄繡衣於星灣。玉鷁凌風。掛靈槎於斗渚。若云黃河在地。那得白日昇天。怪人蹤之此遐。擲龍梭而爰語。碧落千門萬戶。卽群仙焉是鄉。玉京十樓五城。乃上帝之攸宅。今余緘恨莫白。理絲爲紅。獸錦成時。坐終七袞之日。牛郎別後。虛度萬古之春。茲將一片堅頑。聊表九天消息。風塵此去。休說贈石之人。簾肆他年。宜尋賣卜之士。

### 帖 二首

#### 毛都督前領議政回帖 文龍

天斗回杓。青陽代玄英之節。藩樞聳色。珍貺來玉帳之函。承德音而知榮。戴休烈而何極。威聲震夏。名動草木之風。兵氣橫秋。血腥魚龍之海。方當獻歲之頌。忽紆如春之恩。隆禮殊私。一出於誠意。齊奇蜀玩。五彩而雲煙。茲揭罔謝之衷。仰輸不腆之物。今朝蓬島。霑厚恩於仙家。他日燕然。誦洪伐於石刻。

## 毛都督前李尚吉獻帖

山將壓卵。方震疊於凶巢。技止雕蟲。詎形容其偉績。然銘心之匪石。故發口者是碑。仰惟精忠百年。一劍四海。便宜責大。裴晉州之臨戎。上將官尊。孫叔敖之出塞。人猶鎮蜀。名動雪山。事異征蠻。功高銅柱。兵氣衝於南斗。天地低昂。陣雲結於東洋。龍虎變化。返髦倪而棄侵地。師以益張。察嘖呻而壞機牙。敵不敢動。不惟金復海蓋。賴以得蘇。抑我昌義龜龍。恃而無恐。中朝下國。獨任無限之功。北漠西陲。誰敵莫當之勇。塵殘楚壘。方瞻飛幕之烏。春入遼天。定有歸巢之鶴。肆藻繪於短軸。敢榆楊<sup>11</sup>其壯圖。伏念始得馭於府治。旋獲私於僨接。當時漢樹。疇爭不伐之功。今日周棠。愧無勿翦之詠。

## 教 八首

### 教忠清監司洪慶臣書

王若曰。咨牧十二。寔虞代之臻治。分陝東西。乃周家之共理。肆我邦之有八路。若王制之建諸侯。所以難其人。莫不重此任。矧茲百濟之舊域。實乃一國之要衝。控海引湖。地方幾六百里。連都對郭。邑居餘四十區。商通漕轉。與三界共之。穀擊肩磨。走兩南道也。非惟物衆而地大。伊又土殷而兵彊。及今日最稱瘡痍。由頃年累經兵火。丹人逼於魏野。首尾幾危。赤子弄於潢池。腹背受害。厥後連歲動衆。雖因詔使之行。以至彌載興徭。無非宮闕之役。民幾疲於奔命。吏又緣而作奸。蘇殘復枯。

11 · 楊：楊榆

百無一計。重困累瘁。十有六年。非但牧守之非人。或慮詢宣之失責。惟卿夙以文行。長自儒家。學問淵源。自負碩德重望。容姿端毅。世比美玉精金。盛之銀臺。玉堂。久賴論思出納。歷以學宮。諫院。每嘉匡救薰陶。惟其量才所周。是以無職不辦。斯採朝右之師錫。輒庸勞外而獨賢。厥位惟艱。非卿莫可。茲授鄉忠清道觀察使。秉繡鉞於玄闔。官是使星之尊。下玉節於青冥。秩居卿月之亞。卿其往欽職事。來報政成。用汝倚爲干城。于以作之屏翰。知卿文雅有素。不宜經幄之暫虛。哀我蒼生何辜。姑以拯濟爲先務。觀察豈徒於風俗。勸課不外於農桑。豪舉疲癯。豈剗恤之或後。贓污廉清。在黜陟之所先。興學校而明倫。乃所能者。整軍伍而繕甲。亦且勉之。至大辟。唯可稟裁。自通訓。任其獨斷。於戲。褰帷原隰。勿憚載馳之勞。攬轡澄清。克副若保之望。故茲教示。想宜知悉。

### 教黃海監司尹暄書

王若曰。分符秉鉞。統牧守而總治。從漢迄今。威節鎮以爲重。先王莫不是慎。茲予所以疇咨。矧我青丘以東。得此黃海爲本。遙濱巨浸。舟楫之所能通。直走皇京。冠蓋之所相望。夥魚鹽銅鐵之利。俗阜民殷。依山谿險阻之形。物衆地大。風聲足以感發。首陽之遺名在茲。義氣足以勸懲。延城之死守如昨。以江淮之保障。當國家之咽喉。比緣年歲之凶荒。又添詔使之絡繹。民無產者八九。吏作奸猶尋常。以剝割爲己能。未如何耳。以黜貶爲何事。誰之過歟。既懇且勸。非教條之失實。彼來此代。每因循而及瓜。茲擢近列。以特除庸。冀希世之躋績。惟卿抱負國器。生長相門。德星聚奎。有是子於是父。荊花滿樹。信難弟而難兄。許身經業。乃家所業。洽聞殫見。不學而能。惟其早占巍科。所以歷敷華秩。文經武緯。將相之才既兼。東塞西邊。威惠之效斯著。然今海西之缺帥。適當朝右之擇賢。念茲銓衡之擬掄。實出岳牧之咸薦。從時望也。寧有加於此

乎。以予觀之。固無愈於卿者。承命出納。灼知喉舌之當先。任國藩屏。姑以干城而爲急。茲授卿黃海觀察使。耀使星而北控。爵比元侯。瞰卿月而西臨。班猶亞保。卿其往欽職事。來報政成。暫虛銀臺。雖欠一人之啓沃。終奠海邑。可蘇庶氓之瘡痍。卿以出入爲殊塗。予所後先者一體。而況芙蓉城裏。實行殿之所淹。蔽芾棠陰。乃先臣之攸憩。遺澤尙洽。理宜懷綏。寄惠未亡。治可趾美。顧惟觀風察俗。豈徒勸農勸桑。斥污崇清。是其責也。尊儒尙學。亦且勉旃。急貸民力於耕耘。益候賊情於風汛。如違約律。在都邑其何饒。苟失師機。縱兵營猶可聞。缺

### 教密陽府使元裕男論書

王若曰。繕器峙糧。旣蘇創殘之邑。嘉勞恤勤。詎惜超加之褒。茲增一階。庸勸群品。惟卿智孚於勇。惠濟其威。自初拔身。所在職判。旣後臨敵。果以勳陞。由歷試之無幾。非建功之不大。屬分符於茲鎮。方責效於將來。惟其壤接要衝。所以賊成巢穴。豈徒死亡之殆畫。抑又凋瘵之難治。全嶺以南。無非彼賊所躡。大亂之後。每以此府爲憂。幸今方帥之褒能。乃據守宰之顯實。如他邑者易理。孰茲土之可完。穀阜財殷。旣足一年之蓄。兵精劍利。克壯三軍之猷。邊圉不驚。誰非李緄之力。保障無缺。實賴尹鐸所寬。撫字之誠孔勒。儲備之才已著。賞斯副於衆望。予何愛乎一噸。報功是圖。登秩非濫。體三錫之命。益殫精忠。作萬里之城。以衛疆場。

### 教慶興府使閔洞加資書

蘇殘蓄銳。是邊圉之良猷。記績酬能。乃朝家之令典。寔陞爾秩。庸嘉乃勞。惟爾武而猶文。寬能濟猛。由其愷悌。曾試臨民之官。重是邊疆。乃

副體府之薦。矧慶興之爲鎮。介朔野以爲衝。經亂以來。日凋月耗。自爾之往。吏畏民安。以俘而返者逾四十名。變夷而進者迨百餘戶。城池既已深固。兵甲無不利堅。昔之毀壘孤墉。今爲巨防雄府。徒聞渤海之化。出於治繩得要。誰識晉陽之完。實以損戶爲務。肆據閩帥之褒狀。聿加通政之特資。於戲。藏弊袴而待功。所以勸也。作長城而衛國。爾其勉之。

### 教 閱汝儉書

王若曰。忘身循國。雖臣子所當爲。記績酬勞。乃朝家之令典。茲欲勉其後效用。仍陞乎特階。惟爾自宰是邦。益殫素志。移城守凍無安土重遷之氓。繕器防秋有賈勇願戰之士。以折甘分小之義。爲協心濟艱之基。臨機慮危。躬擐甲冑之屢月。據險守要。手撫瘡痍者判年。穿弊緼而却繒。吏有泣其一寒。御疏糲而忘肉。民不甘乎再食。矧今興師之六載。雖是北邊之良。苟得如爾者數人。庶弭西顧之念。肆超爾秩。允嘉乃誠。嗚呼。予無愛乎噸笑。汝宜竭其股肱。損繭絲於晉陽。猶能保趙。操版鍤於卽墨。無怪全齊。

### 教靖社功臣洪瑞鳳書

王若曰。地轉天旋。幸際風雲之會。山盟海誓。聿加茅土之封。酬何稱勞。賞不侔伐。惟卿忠貞傳世。文雅承家。詞華所宣。歷顯要而增彩。冰玉其操。處昏亂而愈彰。自兇徒煽禍之初。已無宦意。逮母儀囚幽之後。堪與世違。惟其透義之深。故能炳幾而作。況神民舉國之怨。咸萃一人。肆祖宗在天之靈。默佑寡德。忠憤所激。不謀而同。黃泉入盟。天乎是可忍也。白水起義。霈然孰能禦之。然擇中於文謨。豈徒上其武烈。撥亂而



後反正。非乏猛士之鷹揚。應天所以順人。實賴君子之豹變。果然兵刃之不血。仁暨義而並行。遂致慈闈之永寧。情與禮而備至。念此丕基之重廓。莫非嘉猷之密成。爾縱不言。瞻大樹而猶蔚。予何以報。奉盤血而徒慙。茲學策錄之儀。庸示褒顯之典。於戲。英姿雅表。畫麒麟而不如。偉績精忠。垂竹帛而無愧。

### 教靖社功臣柳舜翼書

王若曰。相機任權。乃處變之長策。察效疏爵。是酬勞之弘規。褒非溢名。顯惟實蹟。惟卿確礪身操。敦樹家聲。惟忠憤正激于中。此其時也。雖亂賊近出於族。彼焉洗哉。敷貞信而壞機牙。賴潛消其逆節。吐愷悌而止奸。毒竟莫犯乎慈闈。扶網於人所不知。行義於國之將覆。況當義旗之一舉。已有倒戈而齊迎。所共戴者母儀。實慮驚動乎中閫。由豫申其將令。乃能直宿於分曹。肆於商郊杖黃之辰。果得周旋建白之力。炳幾而伐其兇計。外患絕於不虞。先事而達于中官。內情恃而無恐。惟其持被入省。差欠汗馬之勞。終乃開門出宣。實管上宮之事。于以靖亂。勢有坐作之分。及其成功。事無彼此之異。斯揭策錄之典。聿示褒美之章。優井食而裕昆。備物采而榮己。於戲。今朝瞻相對麒麟而念茲。他日渝盟。質山河之在彼。

### 教寧社功臣許禔書

王若曰。先事侯情。幸罪人之斯得。諭功定次。莫與汝而爭能。茲加封爵之榮。遙彰褒嘉之典。惟卿家承閥閱。世篤忠貞。詞藻文華。乃其餘事。風神骨格。果然異常。事蹇身伸。來五窮於韓愈。名高宦滯。老三世之馮唐。守郵於兩道之間。在他乾沒。無命於百僚之底。罷官歸休。惟食息不

忘乎君。故尋常所憂者國。當大愍煽兇之日。已默察其嘖呻。逮群渠濟惡之秋。乃潛偵其動息。非不知發謀而告慝。蓋所慮匿情而變辭。是用闖然傍觀。任其自恣。乃於舉事之際。先期豫圖。卽以逞凶之謀。飛書上變。夫以聞隣國之有逆。尙且沐浴而請誅。覩叛賊之無君。敢緩奔走而告急。惟其疾病之嬰體。故使心腹而兼程。密通勳盟。壞機牙於未動。急捕魁尙。綱蟲蟻其何逃。衷甲入門者。蝨伏而就縛。稱兵抵漢者。魚駭而爭逋。元兇伏辜。街漲鯨鯢之血。餘尙受戮。肉餒鴟鴞之腸。苟非卿忠。國已危矣。致有今日。誰之力耶。以曲突徙薪之功。豈居焦爛之下。肆發蹤指示之績。宜在逐殺之先。責期思之就封。勳存第一。蕭鄴侯之食邑。誰謂獨多。斯疏爵而貴之。用分茅而嘉乃。於戲。有臣於此。爲國乎何。泰山。黃河帶礪之盟猶在。雲臺。煙閣圖畫之意可忘。

## 批答 一首

### 右議政三度呈辭不允答

王若曰。言固不再。旣申申其勉敷。辭何至三。若蹙蹙而靡騁。卿胡遽爾。予甚缺然。惟卿以社稷臣有休戚義。大旱霖雨。豈獨借於商賢。今代麒麟。任無限之唐烈。惟其展風雲之志。所以拓經綸之圖。將相之才。方且倚其出入。清慎之操。奚但質之神明。況國事之艱危。已至此極。伊兇徒之反側。有難形言。卿其可歸休乎。予亦末如何耳。矧爲言之胡得。究其意則不然。苟以嘒嘒爲可嫌。恐妨休休之容量。當此汲汲危疑之際。欲以區區細故而辭。似非卿之本心。將置予於何地。臯陶之於唐帝。自許股肱臣。蕭相之於漢高。不啻左右手。忍使中流而失涉。任他欲濟而無舟。深惟厥由。罔知攸屆。將必昨疾之今愈。庶見道泰而時康。亟匹共

貞之休。母果獨善之計。於戲。方臨濬谷。捨巖廊而疇依。若構明堂。思棟樑之畢舉。宜報勿藥之有喜。庸副如渴之至誠。

## 箋 五首

### 擬館學儒生請以五賢從祀文廟箋

在明德新民。方一人之有慶。欲崇儒重道。捨五賢而其誰。肆當作興之辰。敢陳從祀之請。恭惟服纘禹舊。命維周新。喪必致哀。既篤奉先之孝。祭則受福。詎列非鬼之祠。第惟五臣之繼興。實在累朝而迭作。下學上達。發群賢未發之思。繼往開來。傳千載不傳之緒。道所存者文不在乎。天之何爲。使斯人而莫遇。時哉不可。故其道之難行。在用舍而行藏。無所失也。使君臣而父子。誰之功歟。茲有配聖廟之論。肇自先哲王之久。蓋出於尊師之至意。非強爲聖世之虛文。方且舉行其儀。副士林之輿望。誰意遷延之際。哭鼎湖之龍髯。端由國事之未遑。非以廟享爲不足。矧當嗣服之始。適弘培養之基。王化豈宜尋常。文教必自振作。如欲衛道之本。莫若從祀爲先。或祀或否。於先正固無損益。以尊以敬。在後學其敢虛徐。伏望尊德而象賢。繼志以述事。春秋釋菜。俾三老五更而揭虔。金石絲簧。配一聖十哲而齊饗。則自今以後。吾道其東。朝野絕章奏之勤。生徒有依歸之樂。謹當摳衣攀化。鼓篋趨方。溫故知新。雖愧鳥數飛之學。從師學道。庶遂魚千里之心。

### 代賀上尊號箋

德居功先。既躋嘉運之泰。實包名外。聿觀徽號之尊。雖舊維新。在古

誰亢。恭惟轉亂爲治。用晦而明。北極遙臨。終格拱辰之義。東溟迴霽。永戢橫海之鱗。宜騰顯稱。合彰洪伐。伏念職縶司甸。迹阻趨班。維翰維屏。縱愧甘棠之詠。以蹈以舞。敢後嵩山之呼。

### 代賀誕日牋

誕膺吉夢。祥協電繞於星。聿值佳辰。慶屬陽生之月。冀呈一葉。松獻萬年。恭惟大勳光宗。茂祉延世。丹人椒德。終銷日母之氛。紫極輸誠。欽承天子之命。肆見長春之節。適當太平之期。伏念職忝司畿。迹阻詣闕。治亂一部。縱愧金鑑之箴。壽富多男。願效華封之祝。

### 代賀登極牋

謳歌已歸。方頌改玉之慶。綸誥忽降。聿觀錫圭之榮。喜溢宗祏。歡洽疆場。恭惟則天爲度。如日之昇。撫南功弘。收心於數千里。潛東孝著。延頸者十七年。茲承丕基。寔受休命。伏念職忝司甸。迹阻趨班。黃河旣清。幸際飛龍之運。白首未死。徒切如岡之呼。

### 代賀中殿牋

克配乾綱。夙著幽閑之德。欽承天命。載膺中正之儀。齊喜春融。群呼雷動。恭惟詠葛著儉。脫簪爲規。媯汭告和。實賴閨箴之助。監撫底績。豈無內範之成。肆刑于家。宜母於國。伏念遙違班筍。忝司畿棠。才劣觀風。縱愧藩屏之責。化致綏福。冀贊樛木之詩。



玄洲集

卷之十一

併儷續十九首

制 表 序 疏 箋 上 梁 文 教 帖



# 制

## 擬漢高祖拜韓信爲大將制 乙巳之下○庭試上

專征戎閩。惟是興滅之機。杖鉞師垣。必須英俊之器。所以今虛<sup>1</sup>斯位。古難其人。夢感風沙。旣勤祝天之請。卜協羆虎。竟得坐茅之師。皆明醮廟之誠。以嚴推轂之禮。矧予初起馬上。先入關中。當解縛而送徒。知百萬之心異。逮如廁而從間。賴一二之臣同。屬慄悍之妄專。介巖邑而屈迹。旣擅宰以四海。又隔我以三秦。疇能輔予。方蹙蹙而靡騁。誠得賢士。寧鬱鬱而久居。惟其乏敵愾之才。是以無用武之地。頃緣失左右手。終幸得爪牙臣。有國無之。非若人而誰與。殆天授也。豈丞相之誤耶。事與爾諧。謀非獨斷。惟卿有才無命。含智若愚。如窮人無所歸。屈屠中之衆辱。哀丈夫不能食。德城下之一簞。茲仗劍而問行。勞躡躡而遠戾。官初止於都尉。是誠何心。位不過於郎僚。彼猶可戒。如諸將者易得。吾何與於日亡。在國土而無雙。爾宣陟於元帥。肆齋心而肅潔。卜吉日而辰良。委以分閩之儀。重以設壇之拜。於戲。從其古道。倘賴定秦之謀。會于滎陽。何難馘楚之舉。誠願與子偕作。終始二人共貞。勉盡良圖。以樹偉勳。

1 · 今虛：御點



## 表

### 擬唐翰林學士武平一謝加賜一枝綵花表

萱呈七葉。斗移柄而寅廻。花插雙枝。首至地而震懾。臣何昧於止足。花亦羞其上頭。伏念枝薄蟲雕。分踰鶯錦。哦月露風雲之句。寧黼黻于皇猷。吐區哇啁晰之音。未笙鏞乎大雅。猥被一二臣之謬薦。忝廁十八士之華磚。迹近雛枚。雖待馬門之詔。才非劉應。難工兔園之詞。忽值綵勝之佳辰。勅收詞掖之華藻。都兪堂陸。竊效賡哉之歌。咫尺威顏。未免率爾而對。言志而已。賦詩云乎。纔成一字之難。愧蔑驚人之句。顧乏寸班之彩。實非動主之文。捕虎近於失頭。疇稱下士之勇。畫蛇勞於着足。徒以至拙爲工。方埃罰籌於法筵。堪被鐫削於藝苑。何圖十行之褒批。更兼一朵之奇花。翠桂九秋之芬。微沍月宮飛露。紫桃千載之萼。淺濕日谷流霞。萬戶千門。難買片房之艷。三清十界。詎襯一鬢之芳。天上人間。絕無而僅有。仙曹羽客。疑夢而非真。天其可欺。人必不信。有何先鳴於數子。乃令加插其一枝。左顧右眄而愈驚。手舞足蹈而益惕。鼇戴三山之重。比臣頭則猶輕。佛頂百寶之蓮。駭人視而何貴。他皆一半春色。獨專十分天香。伏遇如日如雲曰暘曰雨。聖人之建大德。都是體灑灑天。草木之遇陽春。無非活潑潑地。至令愚臣之雙鬢。亦開褒美之兩花。敢不隨枝向榮。戴花傾晷。辰當人勝。縱愧勝人之詩。運際河清。庶撰清河之頌。

### 擬晉姚馥謝拜酒泉太守表

地若不愛。郡胡稱以酒泉。天誘其衷。分實忝於太守。薰骨是澤。泱肌如春。伏念宜號渴羌。合誌醉死。使酒難近。縱承命於朝家。不醉無歸。方

待罪於廢園。何特除之殊渥。及至陋之微臣。顧茲郡之得名。唯以泉而爲貴。流之混混。水何取斯。飲卽陶陶。我自樂此。有何爵勸之績。終獲飲名之鄉。伏遇愛之欲生。醉之以酒。敢不沈三百六旬之飲。長祝聖人勝二十九日之醒。庶不廢事。

### 擬宋范質謝拜同平章事表

亡國敗家。本不以圖存爲念。赦過宥罪。又從以爵賞之榮。喪君得君。無父有父。伏念爲人無狀。事君不忠。當焚香祝帝之辰。雖知天意之有屬。逮陳橋易袍之日。無奈人心之已歸。安用彼相爲哉。唯有早死而已。縱犬馬誠有所激。伊倉卒言不知裁。方嫉鈇鉞之嚴誅。以答天地之深怒。斬丁公於興漢。實所甘心。釋伊吾而相齊。曾是不意。何圖爰立之異寵。特及當坐之曩臣。感極叩胸。驚定拭淚。有何可赦之事。承此不次之恩。國亡獨生。不義於其君。可驗臣事二主。欲忠於他日。實難苟嵇。象刑之加。豈爲人臣之戒。況一朝以白馬。猶有議於殷仁。彼五登於黃扉。孰不恥乎馮道。數窘帝以被賞。非所可方。一斬裾而登庸。亦何足擬。伏遇大德受命。至公無私。雖在物中之微。猶恐不獲。豈以天下之大。以私其讎。遂令碓頭之老俘。得比股肱之元宰。敢不惡不念舊。化與維新。苟活偷生。雖作忘君之隸。改心革面。願爲聖人之氓。

### 擬秦朝群臣賀平六國定天下表

五過三兼。功德遙超於今古。六畢四一。車書幸觀乎混并。胥衆均歡。率普同慶。竊惟古昔帝王之創業。實由祖宗積累而肇基。白魚登舟。天與教稽之弘績。玄鳥墮卵。人歸及禽之至仁。矧寶系出聖帝之門。姓顯於唐虞之際。伊異爵著姬周之代。功存於汧渭之間。犬戎摧鋒。地始闢於

千里。鶉首呈瑞。天還醉於一杯。以漸東隣。非自今耳。乃眷西顧。厥有舊哉。欽惟堯步舜趨。文謨武烈。深仁體天。厚德體地。伐罪弔民。猛將如雲。謀士如林。戰勝攻取。黃金白壁。無計六鷄之連。蒼籙玄符。終歸七雄之長。從分約解。雷攻三晉之莫強。北絕西生。電掃全齊之無敵。終然一匹夫不若。徒爾六千乘奚爲。紛羊質而虎皮。孰鷄口而牛後。大梁之廝徒奮擊。亦無奈何。上黨之龍淵太阿。寧有可恃。揄長袂而躡利屣。來趙女於咸陽。振霧鬣而披風驄。嘶代馬於渭水。收士鍊兵精之楚。秋封橘柚之園。藉肩磨轂擊之齊。春稅魚鹽之海。地不載其六國。天專付以一家。函谷風雲。百神效靈於雄虎。滄池雷雨。萬水委波於祖龍。卞璧煙收。飛九重之玉璽。軒戈火烈。立十二之金人。抵營室而截銀河。抗千尋之高棟。起臨洮而延碣石。橫萬里之長城。若非蓋世威靈。寧懼伏乎九宇。必有齊天武德。能服綏此萬方。肆一出大聖人。爲萬古始皇帝。唯其博也厚也高也明也。所以手之舞之足之蹈之。伏念臣等俱以庸才。幸當盛際。攀鱗附翼。雖蔑汗馬之勞。贊日模天。徒切如陵之祝。

### 擬宋翰林學士歐陽脩等進獻唐史表

弭彤木天。方慙舊聞之失。漬墨芸閣。敢進新撰之書。俯綴陳編。仰塵淵鑑。竊惟華國之手。必須作史之才。狐筆稱良。旣誅篡弑之賊。麟圖鑑遠。宜懼亂賊之徒。從古草創之成。賴東里之潤色。所以石室之記。聳西漢之文章。才固其難。任莫此重。欽惟博審究學。勤勵廣心。訪隆替於翠籙。每日昃而惓惓。弔興亡於黃卷。或夜分而孜孜。然此唐乘之乖訛。出自劉煦之譏薄。辭不達意。失一字之貶褒。議無格言。昧百王之取捨。斯豈述之而不作。縱能言之而無徵。於焉拔擢於詞林。庸令校讎於天祿。詎如臣之可冒。曾有德之所辭。分霜兔於月宮。空玉皇之香案。降雪牋於星漢。匝蓬萊之綵雲。爰撫仙李之春秋。載輸汗竹之鈇鉞。安民濟世。

唾禁門之血腥。牝鷄司晨。痛房州之帝在。螭碑既建。雪晴鵝鴨之池。雉  
裘纒焚。花落馬嵬之驛。黃門飛鞚。想廳事之石榴。朱氏窮凶。悲紇干  
之山雀。歷稽得失於治亂。實由進退其賢邪。當房杜之協贊。始貞觀之  
化洽。逮姚宋之繼罷。漸開元之政衰。蜜口劍心。養禍孽於鼎鼐。鬼色藍  
面。吹毒螫於縉紳。纔止二十帝而亡。未滿三百年之享。自始及末。雖作  
六七之賢。有初無終。舉皆二三其德。遠賢亡國。如影隨人。敗迹興機。  
咸筆筆而削削。前言往行。幾君君與臣臣。斯就一秩之書。以資九重之  
覽。小子何述。大略如斯。伏念學不通方。愚未聞道。丹鉛事點。謾傷眼  
前之古今。白首窮經。久勞皮裏之涇渭。飽貽尸素之刺。謬擅汗墨之場。  
何圖縫掖之微蹤。承此竄緝之重責。惟誅奸發德之法。縱有愧於謹嚴。  
伊錄善記過之詞。或無遺於虛實。倘於執經之暇。兼致讀史之功。實撰  
實修。寧自忱於天禍。以勸以戒。將有裨於聖治。

## 序

### 臨鏡堂序

吳家莊後。周浦村前。因池爲堂。臨鏡其額。繞長洲而作帶。開大野以爲  
襟。名區占郊鄙之衝。雄鎮擅湖嶺之脊。橋橫烏鵲。地分廣寒之靈。城峻  
蛟龍。俗仍帶方之舊。瑰材間出。幾箇英豪之倫。巨室相望。隨處樓臺  
之好。撫龍頭而北控。送鶉子而南奔。地絡壯而天王高。星象逼而老人  
近。披嘉樹之蒼蔚。爽籟自留。枕老石之盤陀。纖塵不動。行雲斷雨。柱  
黑城之春陰。返照橫煙。媚白坪之暮色。樓臺倒影。若泛魚龍之宮。方丈  
入簾。未覺神仙之遠。觀水有術。如鏡未塵。彼自行於地中。吾何坐於天  
上。芳酒登而溪女醉。寶瑟御而游鱗聽。磨光不磷。照心莫逆。有時清月

之出嶺。短卓孤舟以沂流。昏往晨來。無非清致。春生秋殺。皆是勝觀。矧我主人公。不學勝儒。無吝居富。既積能散。名已愧於倘來。守拙爲工。計不失於長往。嘗念跳丸莫駐。逝波無還。天路險而難攀。人生止於行樂。花枯竹折。瞻依既已爲墟。雨泣雲淒。永思闐其無主。斯夜秉以燈燭。方日掃其庭除。然而右軍未逢。空茂林而脩竹。子安已去。杳秋水之長天。群公畢題。豈欠詞於岳壁。複語固請。斯借記於袁城。今余萬事違心。一行作吏。傷時痛哭。異窮途之步兵。暇日登臨。似離家之王粲。晴川芳草。雖慙崔顥之詩。長笛倚樓。不讓趙嘏之句。姑將一言而贈。遠慰千里之思。今朝郡齋。強作序者妄耳。他年風景。更爲公而賦之。

## 霽月亭序

破高霞而飛棟。地隔紅塵。披爽籟而凭欄。天開碧玉。物影相況。風光自留。何況魚躍鳶飛。春屏繡活。虹銷雨霽。秋鏡霜磨。火傘無賴於炎蒸。冰江有似乎銀漢。回舟唱恨。沙院杳而行輶。落雁流哀。廣陵寒而煙樹。俯仰雙輪霽月。高深一色長天。天上如今。未知幾多風景。人間何處。更有第一江山。惟彼岳陽之樓。最高洞庭七澤。蓬島之路。虛遠弱水三千。願一到之無期。縱三入其誰識。江湖果然有主。風月所以無邊。今日吟清。已比道人之臆。他宵看吐。應驚塵匣之開。

## 伴鷗亭序

仙留地上。天入壺<sup>2</sup>中。秋陰共白波無邊。衰草與黃雲何極。瓊洲耀碧。亭連白鷗之沙。錦石粧紅。人送赤壁之笛。歸帆帶月。潮盡洛河之腰。落

---

2· 壺：壺

雁驚霜。寒生長浦之口。雪夜呈其銀漢。如泛星槎。冰江近於玉京。何處月殿。桃花任他流水。蓬島自有煙霞。勝賞如神。詩得句而有助。浮榮等幻。雲出岫而無心。今夕飛筇。再訪萃陽之隱。他時吟袂。三入洞庭之樓。

## 月波亭序

滄波萬頃。作清漢而穩流。明月孤輪。輾碧雲而終古。亭胡此額。予忖他心。夫以玉兔離于桑巔。黃金乍躍。銀盤掛於斗柄。素練橫吹。高非廣庭。望銀河而遶極。迥異遐漢。驚白海之浮空。奚但龍伯澄魂。靈凝珠貝之闕。仙翁爽骨。清澈水精之簾。所以雨侯晴<sup>3</sup>光。難以悉舉。花辰雪景。置而勿論。嗚呼。不見江湖之勝區。半生已過。欲知主人之襟袍。一上茲樓。

## 追送九畹序 李春元

世啓昌辰。河應千年之運。天回聖曆。人乘八月之槎。驚鳧舉翮。斷雁留影。何況水潦浮於薊野。車箱入波。火雲接於秦城。口眼生土。大夫跋涉。非唯三伏之炎。虜騎憑凌。正值四郊之壘。亦非可畏之甚。抑有所疑者存。神戈旣揮。吾屬庶無虞矣。寶算方富。此言奚爲至哉。復土存亡。不生我而父母。還魂肉骨。難報德於乾坤。嗚呼<sup>4</sup>。鄉國重迎。有來日之不遠。陽關此去。無故人其何傷。唯願皇極清秋。瞻五雲而舊色。龍灣白雪。返雙轂而新恩。畹友索儷序頗勤。而余以仕忙未遑。畹於拜辭日。有慍語。卽於直中。走成小序。追寄之。

3 · 晴：晴

4 · 鳴：鳴

## 贈鶴谷序 洪瑞鳳輝世

蓋聞驥登雲路。或蹶千里之蹄。鵬舉風霄。必待六月之息。雖復垂耳伏櫪。猶懷逐電之才。褰囑潛溟。益厲擊水之翰。而沉重登龍榜。獨擅兩甲之名。累掌鸞書。皆稱三世之業。孟母果有。孟子早賴頻遷。虎父豈無。虎兒終成異彩。弱冠高步。蜚英騁譽。頃值姻婭之邁殃。乍戢羽毛而屈迹。蹇驢破帽。誰識薇垣之仙。紫貂金蟬。曾是鑾坡之客。茲者家兄作宰。縱遂便養之誠。慈闈入望。唯以曠省爲念。回錦翼於鳥嶺。快觀爭先。落文星於酒泉。驚傳恐後。方融洩之未洽。胡聚散之旋催。余嘗望道如雲。從風觀海。今朝贈語。自慙檜楡之飛。他日追塵。應憐附尾之翅。

## 送李子剛序

蓋安貧至樂。非萬鍾之所移。殉道初心。豈三軍之可奪。所貴乎士。有如是夫。今子雅操厲於冰霜。經世有志。高論摧其山岳。質神無疑。席業承家。名已著於少日。摛詞振華。人或稱其父風。聞道有先。相見何晚。春衣未換。已弊洛湯之裘。雲路難憑。堪失塞上之馬。花洲絲管。纔成傾蓋之歡。清榭琴樽。旋催分袂之淚。恨如芳草何歇。愁共落花無邊。嗟乎滄波白鷗。何處更有樂地。青山明月。到底無非故鄉。龜鶴亭前。莫歎歸途之遠。鳳凰山下。宜尋終老之盟。

## 臨別走贈吳從事序 翻

躡青雲之要路。弱冠超騰。收白水之真人。少年幕府。靈輿挾掖。泛瀛洲之層波。浩氣盈襟。濕方丈之彩霞。飛步湖山。幾重領略。風月無邊。度仙鑣於竹峯。夢寐不到。展芝眉於榮館。驚喜何言。絲管樓臺。掣電之歡

未洽。街途騶騎。摻裾之淚旋催。明月丹丘。如成再遊之計。秋風白首。唯思匹馬之尋。

### 答李司書爲人婚禮乞衣啓序

餘春碎錦。對落花而銷魂。過雨跳珠。驚寶唾之入手。生龍起牘。晴電掣緘。方且簪芸閣之彩筆。玉立青雲。銜講肆之飄香。錦還白日。烏反哺而聲樂。雁失序而流哀。適因婚媾有言。果見麗藻無敵。誰復楊柳春旗之句。獨稱庾信平生。關河秋色之詞。無出張衡秀氣。然旣天心月脅。深究造化之源。雷厲風飛。非特鬼神之泣。是以有譽於我。至屈華篇。豈曰無衣於人。重孤盛德。顧念以童習白紵之學。得黃絹幼婦之辭。衣以致言。衣德言而無斃。食而忘味。食肉味而不知。

### 除夜走筆序

東陽替臘。咬生菜而知春。北杓回寅。飲屠蘇而惜日。乘除半夜。新舊二年。禹陰去而不留。孔川逝其何極。雖日日而引繩。難繫飛晷。當夜夜而秉燭。況值茲辰。呂尚父之八旬。倏爾將迫。孔文舉之五十。忽焉已臻。雖然。八千歲以爲春。是亦有限。三萬日而定壽。固無不宜。矧今弟兄連床。方會千里之面。姪孫盈室。共做一宵之歡。相與迎新。何歎功名之暮。樂而卒歲。休嫌樽酒之多。



## 疏

### 代薛道人化緣疏

倏先朝露。何心白頭人間。無限春風。長夢紫霞洞裏。爰念飛昇白日。不必服食丹砂。玉液金津。轉作虎騰龍躍。瑤箏鐵笛。將看鳳舞鸞翔。自是夜中存。非從天外得。清千尺之慾浪。運一團之純陽。三入岳陽樓。世人那知來往。一上蓬萊殿。神仙方覺有無。路迷萬壑千峯。桃花不分真境。雲橫十洲三島。明月何處瑤臺。心潛玉樞。口哦斗訣。超身此日。唯思壺<sup>5</sup>裏乾坤。拔宅他年。敢望雲中鷄犬。是所願也。他何足云。

## 箋

### 大妃殿上尊號後大殿賀箋 癸亥八月

革舊維新。屬濟屯之亨運。奉慈以孝。舉獻號之徽章。喜溢臣工。慶關宗社。恭惟殿下履端兢業。養志怡愉。日馭初昇。快覩彝倫之正。坤綱再肅。亟雪幽宮之冤。肆冊貢其顯稱。允協副于輿願。伏念臣等俱以庸品。幸際昌辰。斗戾山摧。仰母儀以不匱。鳧趨虎拜。祝聖壽之無疆。

### 正朝百官賀箋 己巳正月

逢時建寅。知盛德之在木。如日當午。慶至化之無垠。歡均幅員。喜溢朝

---

5 · 壺：壺

野。恭惟師堯則大。體舜用中。銅渾運衡。叶龜籌而齊政。玉管移律。遵鳳曆以調元。肆與物而皆春。庸順序而行夏。伏念臣等俱以鷲質。濫紆鴻私。瞻望紫宸。愧蔑絲毫之補。蹈舞丹陛。徒切岡陵之呼。

## 上梁文

### 金僉知祠宇上梁文

享祀不忒。既篤追遠之誠。寢成孔安。寧弛奉先之敬。禮依先立。功告重新。竊惟祠宇之肇修。以長恩愛於後裔。左昭右穆而不懈蘋藻之薦。春烝秋嘗而益惕霜露之濡。葬以士。祭以大夫。克殫事亡之禮。薦其食。陳其宗器。詎射如在之儀。功有百代之不遷。德至五世而皆斬。歷稽元宋以上。咸建正寢之東。是知堂非斲椽而其靜足以妥靈。豚不掩豆而其敬足以受福。戰戰兢兢之色。發齋明盛服之時。肅肅洋洋之容。著薰蒿悽愴之際。所以潔其牲酒。庶幾保我子孫。頃緣戎馬之生郊。未免竄身於荒谷。造次顛沛於是。雖勞載木主行。飢寒困頓之際。未遑抱祭器走。杳杳南國。何處先人之弊廬。纍纍北印。每度無家之寒食。乾坤百戰。春燕回而無巢。華表千年。遼鶴歸而有恨。寢倚纔安於墻壁。洒掃未遑於阼階。宅無餘於人亡。山猶在於國破。雖令妻子好合。敢曰爾有室家。既無風雨攸除。所以神不顧享。恒偪側而阨陋。應眷顧而遲疑。以至六七年者。非但一二計焉。一以財用之不贍。一以亂離之未定。肆靈宇未克經營。俾神位久致飄零。神無所依。何殊豺獮之薦。親不待養。空悲烏鳥之情。茲者邊息數警之烽。田騰屢豐之頌。斯董不日之役。以安在天之靈。富媪產祥。地呈龍虎之勢。夸娥孕秀。山走鳳龜之形。如切如嗟。何必東海之石。是斷是度。不待南山之松。彤柱粉礎之工。蔑以加矣。雲輿風馬

之迹。若或見之。爰騰贊音。載賀梁舉。兒郎偉拋梁東。日出東隅瑞靄紅。滄海萬里龍起立。九溟魚鼈荷神功。兒郎偉拋梁西。枿楣榮桷自相齊。有子若孫能幹蠱。青冥隨意上雲梯。兒郎偉拋梁南。飲澗晴虹映翠嵐。馨香明德神欽嗅。受祚曾孫獻酌三。兒郎偉拋梁北。培土宏材開敵赫。高我門閭容我車。我稼如雲我野闢。兒郎偉拋梁上。屬茲至治臻無象。積善之家餘慶存。不騫不崩齊天壤。兒郎偉拋梁下。如鳥斯跂如鳳翥。無疆之壽無疆休。垂裕降嘏千秋也。伏願上梁之後。休徵疊著。嘉祥遄臻。呵禁門神與戶靈。勿使興妖而作怪。昭假祖考。薦盼鑿於四時。永保雲仍。綏福祿於萬葉。

## 教

### 完平府院君李元翼賜几杖教書

卿今老矣。豈合趨走於朝。予欲安之。斯有几杖之錫。端由至敬。實非虛文。惟卿幼學壯行。兩朝一節。孝悌忠信。以爲本源。清直廉平。乃其餘事。凡所踐歷。無不辦治。再巡宣於箕都。民望如草。終體察於湖嶺。人安若山。逖矣西土之人。曰父母只。果然南國之化。自周召焉。伸於恢復之初。屈於革除之世。受誣流竄。垂一十齡。罹危辛苦。又千萬狀。惟其樹立之愈確。不以夷險而易操。幸今天與而人歸。叨此丕業。如欲國安而道泰。盍收賢毗。肆於撥反之初。先以登崇爲急。江湖蓬華。連北闕之青雲。城市巖廊。反東山之赤舄。黎元憂喜。何待察眉而知。白首歸來。允副加額之望。爰虛首揆之席。實荷股肱之良。凡有謀猷。罔不予告。事無大小。悉以國從。何意君實之纒還。遽告石碣之乃老。方精神氣魄之尙壯。豈筋力耳目之或衰。茲將供老之資。以爲取便之具。赤藤堪把。雖

非西極之遺。烏皮穩憑。肯羨南郭之隱。寔置孔光之座。用給蕭何之扶。嗚呼國方倚卿。宜倚几而治國。卿實扶國。可扶杖而安卿。故茲教示。想宜知悉。

## 帖

### 謝毛都督致賀冊封

玄符東降。紆聖澤而方慙。紫氣西來。開寶函而益惕。寵榮斯極。感鏤何言。仰惟大人德在威先。文隨武濟。方飛仁而揚義。奚但草木之知。名且旋乾而轉坤。已有山河之動色。弊邦之尚皆按堵。亦公之恩。凶賊之不敢仰關。果誰之力。況今封誥之遍布。雖荷聖鑑之孔昭。乃令讒說而永消。寔賴敷奏之以實。致有今日。莫非公誠。至勤物備而辭精。尤見情隆而禮洽。誠願與子偕作。捍王于艱。燻虜穴而覆虜巢。縱愧胤侯之征羿。助天聲而共天討。庶效桓公之攘夷。



玄洲集

卷之十二

門人慎天翊攷

七 辭 賦



## 賦 六首○賦集

### 藉田賦

我聖上握符之十有三載。倅命禮司。庸學藉田之儀。重粢盛也。重民命也。于時。斗插辰。姑洗協。土發膏。菑始葉。遂乃靈考星吉采日。先張宿舉。三習乃設。於是司鍾警鑰。掌漏奏刻。六戎揚武而肅隊振伍兮。總總萑兮奮而方驤。叱馭八神兮。警蹕而迅導。趨鬣鬣兮走陸梁。飭句陳使按壁壘兮。駕太白兮驅熒惑。風力□蠡之。倫秉鈴而掬旄兮。旅賁□兮伍奮育。星羅雲布以雜襲魚鱗。螭騰虎躍兮川行嶽植。戚艾鋌槍之林立彗斜。夫何麾幢戟纛之婀娜也。伊班正行直而肅穆兮。儼冠紳兮齊佩笏。珂珮聲節兮禮容閑。又雍容兮規步矩列。寔疾武而文徐兮。霎陰闔而陽闢。旗燈撒沙兮列炬燭乾。似密星垂天而燭龍耀極。於是聖上。乃按王制參月令。憲度備法服竝。張翠華之威威兮。御蒼虬之蜿螭。遂登高達以東驚兮。歷靈祠以臻縹壇。乃奠璧而薦醢饗。祀帝農而禮后稷。肅申敬而出之兮。瑞穰穰兮委山岳。於是望東南之百畝兮。臨翠幕而懋昏作。封人表其疆植。僕圉繳其耒耨。司農豫其青牯。太常備其種稂。鴻臚奏耕。宗伯導場。玉趾降阡。寶鳥登陌。芳草映袞。輕塵染綦。洪縻總軛以制角兮。黛耜墾墾而田之。翠笏方舉。五推告訖。前星踵曜兮左轄繼輻。厥推七九兮循法蹈則。百牛齊首以駢蹄兮。庶人耦耕而終畝。紺箱既傾。五種播土。穡夫報功。農叟獻慶。乃有填觀擁望。競足互頌。黃髻亘野。耄艾盈壟。爭嗟迭聳。聲發容動。元元橫目者。莫不感跂而噫泣。況近在乎從列。喜溢寰區兮奪春色。慶彌終古以炳蔚。遂乃竣禮畢勞。回鑾轉軸。還師解部。返旆旋曲。彩棚山移而岳遷兮。笳鼓殷天而應節。戲夫。于於危竿兮。僞佛顛搖以呈詭。乘獅馴虎兮。躡狂匪騁。雲鶴仙童兮。炫奇以逞異。西王母戴勝以上壽兮。玉女捧盤而獻果。斥清



矚而擯蛾眉。陋雜妖而疏技巧。方覽圓冠與方領。儼環橋而林立。共投  
 頌而獻謠兮。遂風功而詠德。于時。鮐背之耆。鯢齒之耄。蹢躅匍匐。鼈  
 抃鶴舞。且拜且跪。抗手颺言曰。國本於民。民本於食。其食維何。非穀  
 不食。穀乏則飢。穀裕則活。肆古列哲。躬先以籍。聖徂神邁。曠廢罔蹈。  
 今焉復古帝憲王度。憲度是襲。唯民之福。非唯民福。宗社之福。宗社攸  
 福。聖躬康億。而況三五其推。無世不有。儲副助耕。古所罕有。今推既  
 五。襲五有七。神化滲潛。覃及動息。嚶呻者笑語。愁怨者悅懌。餓莩望  
 腹而肉骨。僵死回生而起死。奚但伸偃起甕。披聾發聵而止哉。聖上猶  
 尚卑讓。不以爲泰。淡然還旆。不夸不大。乃有群臣百揆。擁庭稱賀。齊  
 叫爭頌。聲震蓋壤。頌曰。默彼蒼壇。在國東垠。載爽載廓。告稷祀農。醴  
 饗豐隆。乃降乃藉。握索耜土。跟轂以武。推五乃息。淑惟春宮。踵皇乃  
 雍。增其二績。相又增二。二而加二。其九乃極。既墾而穀。事畢回轂。嘉  
 祥以積。駭謠者嘍。驩飫忻洽。祉涌嘏激。載賀載頌。豐賀亨貢。遐邇愷  
 樂。維天無外。維地無際。聖澤攸屆。維嶽嵩高。維海洪洪。聖壽攸同。聖  
 壽聖澤。無窮無極。樂無窮極。

## 次姜天使弔箕子賦

余惟篤降其元德兮。聖爲配兮賢爲侶。庸祛慝允造乎純明兮。道方聳兮  
 治以舉。比揚舟先刺以蒿<sup>1</sup>楫兮。疇或綴糟而遺醕。緬殷童之孔狡兮。天  
 孰祿兮以佑女。唉狂奴之走鬚鬢兮。愍沈宗又隳緒。既荒醜滅乃彝則  
 兮。后皇默兮莫女語。荃爰黨夫撥芻兮。榛與莽其雜處。趨大暮兮遠景  
 晷。紛桎鑿既齟而且齟。昔乙祖之翦夏兮。羌肅恭乎帝心。中既又兮荒  
 又至。疇不庭其厥琛。贊監說之申申兮。恒納碩而攻淫。遵皇路而迭驚

1 · 蒿：篙

兮。罔不迪乎訓音。胡畜德之味邵兮。謗背夷而面嶽。黎之盼兮摠仇予。師池池而脯林。炭無辜兮媚妖喙。樂之極兮怨之深。纔封九兮旋鬻鄂。羨幽幽兮創厥今。散之賂兮昌乃西。天所授兮歸耄艾。比胡爲乎剖慘。梅胡爲乎醢害。廉來所以景附兮。雷乃翱翔兮擁途。輿仆而軸潰兮。夫孰云鞭策之可驅。哀元元之罔有攸歸兮。仰是日而籲呼。蹈沸湯而莫滄兮。內恟愍而忤忤。順昌而逆顛兮。厥理之非可誣也。太康之自速覆兮。義與羿不可誅也。火德冷兮難再噓。天實釋乎帝榆。朱均之或可爲兮。姚姒詎紹乎唐虞。龍諤諤而邁殃兮。有及禽之誠孚。雨霈然其誰禦兮。故後來而蘇枯。光六七之旣晦兮。慟聖伏而賢徂。眷西顧而有集兮。應順之豈云闔闔。拒少師之格言兮。云苦口之甚茶。旣淫戮慘及乎麟鳳兮。反寵之以狎盧。云余惕霜乎象箸兮。眷滔天于潢汚。微抱器而去之兮。曷不念乎乃祖。仁友訐而先淪兮。孰匪躬而規輔。忍銜箝而塞好兮。鬼臨余之不臧。任埗埴俛俛而默默兮。感有甚乎謗謗之克匡。俄黃鉞之涉河兮。孰云西路之且長。同三千兮會八百。天下宗于一王。伊余志之慢愚兮。質金石爲腎腸。苟有食其從之兮。又何異乎犬羊。顧皇天不可逆兮。有夏臣之逢湯。彼旣咨我以大道兮。欲經緯乎家邦。爰敷奏止于九疇兮。實綱張而目揚。配羲畫而符玄兮。衍先略而後詳。斯蓋曠詔乎恣恣兮。不啻乎王府之嘉祥。慨黃唐逝而遠兮。諒天通而神知。矧封墓而式廬兮。本非余之所期。西山隘兮北海遠。又非余之所之。彼旣格余之丹衷兮。曰有土汝其尸之。向檀人之攸都兮。樂夫天兮復奚疑。遵遼道而越薊關。非進退於用捨。孰天命之可違兮。信於穆之不已。挹勺水以洪鼎兮。御跛驢以大路。寶鏹試其朽株兮。犀革謝其堅固。處荒陋而猶恪兮。聿包容乎聖度。民胥聚而爭迎兮。羌有喜而無怒。爰中國而不夷兮。非獨行之踽踽。飽忠信篤敬以爲糧兮。遵禮義孝悌以爲伍。敷八條而化殊俗兮。樂是國兮不永傷。水就下兮風偃草。幅員之罔或蹶。乃君臣而父子兮。遂冠冕又衣裳。萬鑿飲而耕食兮。至老死而倘佯。

茲固羶仁而蟻聚兮。如悟醒而悔狂。肇滌濯其腥穢兮。又沐之以薰芳。  
遷葭巷而處廈兮。去水谷而卽房。澤逾遠而彌洽兮。道悠久而益光。東  
氓仰其父母兮。甚葵藿之傾陽。儼祠墓几杖之猶存兮。雖兇燹慘火兮莫  
戕。扶網<sup>2</sup>常兮立人極。商雖亡而有商。彼忘義一時之榮已兮。抑何異南  
面之髑髏。當殷祚被夷而告替兮。毒心瘴其如瘡。既臣僕非我事兮。又  
爵祿非我求。越周原兮莅平壤。解桎梏於天囚。歌黍離兮眇西墟。思搖  
搖兮不自由。芬至今猶未沫兮。激千古之惋憂。倘天之已絕殷兮。胡篤  
生此善類。想當日之廢興兮。所不免乎怨尤。惟二子與三仁兮。特高出  
乎前修。彼獨夫之迷駭兮。劇黃口之啁啾。天胡不命乎乃兄兮。從四哲  
高驤而躡蹠。得一士猶可王兮。矧五德齊崇而竝矗。姬雖聖有師而有弟  
兮。亦難謂殷宗之必覆。何分崩而離析兮。任西師之戕戮。肆我聖灼覲  
乎天意兮。甘汨沒於人僕。天已定兮難勝。勢無及於破竹。惟禍福之不  
齊兮。理有難於信服。抑天之不獨祐周兮。悶東人之窮蹙。遣一聖而分  
理兮。視萬里猶信宿。斯涵化而浴澤兮。永人倫於東方。瞻洋洋兮薦  
蒞。君子居兮亦何傷。幸皇明之御極兮。聲教達乎混茫。越重譯而就聖  
兮。衛樂化而忘亡。騁文星兮照東涯。截溟海之汨洗。星旣博通乎方  
誌兮。究東牒於公藏。肅玉節而入疆兮。採風謠於農桑。歷箕都之弘敞兮。  
仰哲迹之愈章。值皇胤之誕降兮。頒慶急於我王。然未忍徒過乎逸軌。  
乍弭節乎茲鄉。萑與醕其孔郁兮。屬吉日而辰良。跪敷衽而揭虔兮。惕  
薰蒿而悽涼。遂爲賦而弔之兮。動筆花於仙裝。辭旣奧兮又以麗。悅鸞  
回而鳳翔。大掉鞅乎騷壇兮。踔立幟乎詞場。倘夫子之有靈兮。想翩翩  
於大荒。豈徒格其聖靈兮。將有感於穹蒼。余輒忘其荒榛兮。和曄曄於  
齋房。系曰。姬德兮升聞。天廢兮人何。天命兮靡常。斯理兮則那。亦白  
兮其馬。矢之兮靡他。平之壤兮我都。殷之墟兮周畿。星摛辭兮弔我聖。

---

2. 網：綱

聖有靈兮偕我歸。毫之社兮鎬之京。積茂草兮魂靡依。余續招兮曰無歸。我東戴聖兮。吾道不非。

### 次雪霽登樓韻賦

皇化神馳兮雲油雨施。上屆重玄兮旁亘八荒。其熙若晷兮敷若春華。咸欣胥悅兮如草之望。玄黃是筐兮。雜沓以會同。誰迷不庭兮蠢不王。酬遐答邇兮。置夷貉於腹中。星蓋颯馳兮。恩誥孔章。帝眷我東兮。錫圭以恤嗣。疇合帝价兮。揀于周行。爰夙夜兮跋以涉。踔泱泱兮越聊浪。王揭虔兮惕天命。若葵霍<sup>3</sup>之向太陽。肅迎郊兮。蹈拜以周旋。步趨孔規兮。悅邇乎明堂。佩聲節兮禮容詳。班以行兮。委蛇而翼翼。引端門兮闢華屋。文棖企兮浮柱棘。于以置酒兮。讌皇華筵之法兮。所刑於群辟。懿要妙兮春有脚。曖仿像其仙立。降自天兮瑞下土。蔚耿光之可挹。曾邇德兮凡幾日。歛變化兮羸穢除。昔倪使之臨此兮。賦登樓之晚晴。文泃泃其靈就。窮鉞微而鉤精。既歌詠其白雪。又崇美以雕楹。煥增彩於朱樓。鬱加聳乎飛甍。狀當日之陪遊。若共登乎蓬瀛。撫銀鉤兮襯紗籠。仰遺躅兮起遐情。風撼鋪兮掠空簾。恍仙仗之剝剝。自東燹之滔天。蛇豕極其挈攫。雖巍然而獨存。歷妖氛而彫落。電柱蝕其圯形。月壁漶以壞堊。屬再掃以再迎。赫繹繹以增輝。哀先王奄棄此東土兮。民若喪考兮痛纏于九圍。慶新祚之繼明。宜詔書之東馳。星萬里之遙飛兮。雲九天之下垂。公之來兮望不極。我願皇朝兮。無以公而亟歸。公之量兮海涵地大。龍虎莫測兮無岸無畦。公之儀兮夏質周文。三百三千兮有官有司。其武咥兮孔威。其文葩兮益奇。其詩兮玉振而金聲。其筆兮神設而鬼施。心又和而樂。氣又坦而夷。噫中國之敦化兮。如遠近而風自。小邦

3 · 霍：藿

之免被髮而走之兮。夫孰非我皇之所賜。荷玄教之無爲兮。皇合大於乾坤。徹九幽以光華兮。囿四海以氤氳。況救焚極溺以匡濟。尤有偏於東民。宜宣命兮降青丘。乃弭節乎漢之濱。王暨臣兮稽且拜。疇一毛之非恩。登茲樓兮和茲賦。迹倪侯之遺精。既河懸而水瀉。又鋪珠而排瓊。後倪侯蓋百祀兮。公與之兮比京。豈人工之能幻。合造化而天成。忝薄軀於下風。所未圖乎生平。安得借餘光而照之兮。作東藩之文明也哉。

## 遊楓岳賦

余幼尚乎丘壑兮。睿幽尋遐討兮忘疲。暨宰淮之荒峻兮。不以巖爲鄙夷。聞爽岳之在治兮。濱左洋之瀉汨。實仙夫之攸窟兮。紛旣玄又闐絕。羌澄內兮浴外。俶凝穆兮虔潔。蒙蘭芳兮澤體。襲之兮以蕙鬱。掇揭車兮佩射干。擷若英與茝芬。駢閭車兮薜荔衣。紛陸離兮馥馥。神馬蹕而先之兮。駕冷飆之翕習。超巉巖兮越蒙茸。涉紆溪兮跨濬谷。出泱泱兮入聊浪。乃肅屈乎山腹。臻鴛宮而宿之兮。戒早轄兮星陟。涉金沙之瑩熒兮。厲玉瀨之琮琤。踰崢嶸兮粲眩。攀岌琬兮青蒼。琪林繆兮蓊鬱。瑤葉綦兮黯莫。金蓮茁兮萬挺。玉筍抽兮千角。飛澗宛延兮赴壑。騁白虹之流離。層巒崛岉兮翊霄。虎豹螭龍兮奮豐<sup>4</sup>而踦踦。洪瀑吐雷而噴雪兮。激飛澇以礮石。瑰巖爭屹而競蹲兮。儼玉擷龍象之起伏。神龍抱靈而蟠窟兮。靈泓接乎溟碣。角端躩踞而爬痒兮。毛鬣棲於木末。禽有共鳴之啁晰兮。仙鶴降霄而巢壁。往來朱宮。架空而泛虛兮。星羅綺列兮照爛相燭。拔繫表兮絕埃壘。搃玉界而金堦。迴璀璨而燭坤兮。沕琉璃與璧英。既登峻兮又臨幽。仰重玄兮俯九溟。耳肅肅兮失聞。目瓊瓊兮喪精。窮元氣之所結兮。極造化之用力。究二儀之表底兮。量四海

4. 豐：臺

之頭脚。想混沌之胚胎兮。汨鴻濛又磅礴。爽魂醒兮魄寤。怳洒練其臍骨。神恂怳兮離宅。精影越兮靡托。忽仿洋兮交睫。我喪我兮爲蝶。覩峩峨之靈神兮。騎紫霧而襯接。言我鬼而非人兮。乃楓岫之司命。聞爾風之差異兮。似非類乎俗狀。苟有志乎朝聞兮。盍從我而遠颺。爰欽受兮拱戛。乃先我兮掉鞅。既乘我以靈嶠兮。又挾我以清颺。援素霓以爲鞭兮。引紫虹以爲綏。從之我以雲氣兮。導之我以霞光。揭輕舉而遐驚兮。若無屈而無方。風從從兮扶轄。雷磕磕兮擁馭。遂北之乎寒門兮。瞰燭龍之所御。霰霜糝兮晦路。冰雪臺兮迷谷。懾余若將懷懷兮。乃班師而前却。梁弱水之滌滌兮。戾太昊之攸國。憩扶疏之橙林兮。攀黝繆之若木。躡金天之皎皎兮。懼日奪而精鑠。卹乎余將南爲兮。騁朱雀之燦赫。觀炎德之亢熾兮。怖祝融之威虐。紛上敲而下赫兮。怵流金而消石。蹈火山與湯谷兮。驚爍肌而爛體。曾焉足以少留兮。歛東馳乎濛汜。觸規毀之騰穴兮。壯金鴉之搏擊。秣余龍於扶桑兮。踵義和之上昇。天之門兮九鑰。守夜叉之獐瞪。遂勇進而無作兮。云余造乎上清。混白玉而爲京兮。樓十二而五城。遇青牛之老史兮。率衆仙而容與。紛鞭鴻而控鶴兮。擁麟鳳之泄泄。靈爲我而謁之兮。老頽之曰來汝。余揖之而恭已兮。願承風乎尊術。老申申其詔之兮。汝何妄而且忽。苟欲遵夫真道兮。莫先急乎澄濁。偵念火之俱灰兮。存一氣於子丑。完鼎器而安丹兮。換胎骨以羽翼。胡不返乎在我兮。謾彷徨乎山澤。彼奇峯與絕壑兮。徒憊精而娛目。是務外而遺內兮。諒徒勞而無益。亟歸歟而安定兮。毋狂馳而浪迹。衆仙客之僭譴兮。群指余爲狂惑。余自省而猶疑兮。將欲返而未克。靈導余以徑造兮。儼肉髻之金釋。降毒龍兮馴猛豹。頂千佛使聞法。曰余已通兮他心兮。爾無辭以更白。唯五奸與七賊兮。乃自家之讎敵。宜悟法於指輪兮。霽狂塵於六隙。雖觀心於一壁兮。已優游於極樂。胡爾盲之昧是兮。謾憑巘而臨谷。彼千峯之森爽兮。顧於汝兮贅客。敢昧昧而佞佞兮。恐勞形而悴色。阿與哥之至啞兮。咸目我以走肉。羌

潛縮而靡悔兮。抑聽瑩其不確。靈勉我而直趨兮。達素王之所宮。聖法服而端拱兮。藹三千之攸同。前四聖與十哲。肅列侍而闔侃。余罄折而拜叩兮。聖諄諄其不倦。曰有止而斯定兮。乃君子所惓惓。胡不誠乎處獨兮。恣橫奔乎巖谷。苟卓爾而有立兮。室雖暗而生白。將爾氣之巖巖兮。比泰山與喬岳。庶峻極而齊天兮。詎丘巒之足說。疇學山而自畫兮。仁者以後樂此。遄廻爾之遐軌兮。反初服而無怠。余悲淚而迴悟兮。服聖謨之提耳。曩余亡羊乎岐路兮。失指南於迷軌。彼一玄而一空兮。舉非余之所事。執二柄而就質兮。師格言而歸一。今虛往而實歸兮。誓服膺而勿失。僕夫悲余馬懷兮。惓跼顧乎故國。靈催余而復路兮。遂返旆而廻軸。唯此學之緬邈兮。實有賴乎山靈。靈苟嗇乎誘我兮。焉所得乎此行。既浮游乎四極兮。又清都之廣漠。佩仙佛之炯戒兮。服先師之明則。覲諸聖乎諸天兮。受三教之宗派。茲余所以感悟兮。敬爲靈而一謝。靈偃蹇而玄默兮。迅遐舉而煙滅。乍蓬蓬其欠伸兮。報黃梁<sup>5</sup>之未熟。噫金剛之明爽兮。豈徒暢其遐矚。能遏人而存天兮。快湔滌其垢濁。致淑郵而臻清兮。實三聖之階級。余惕寤而記異兮。勛後來而企及。

## 次愁陽春賦

微雨夜過。鳥繞舍而啼春。步履循階。何芳草滿眼兮愁人。天暄霽兮却雲。藹和煦兮含新。惹岸兮如眠。柳共蓋而色鮮。滿聽兮涓涓。石開竇而下泉。蕩漾兮便娟。吹野馬而如煙。魂被惱兮煩冤。倚東風兮茫然。若乃後宮買賦。南冠越吟。花迷故國。鶯亂上林。乍凝睇以延佇。悵揮淚而撫心。心如春兮無極。鬢一夜而霜雪。顧人生非木石兮。孰無感於佳節。我所思兮幽之都。隔冰雪兮喚無因。彼慘慄之長寒兮。豈陽暉之可親。若

5 梁：梁

春風可卷而吹之兮。我欲暖此幽之人。

## 雷賦

夢乘螭以亢浮。絕雲霓而超雨。紛倏霍而上翊。窺玉帝之武庫。愷介胃之林列。輾雷車之轆轤。精僂僂而前却。跪敷衽而就詰。曰茲雷之爲物。羌靡臭而靡色。陽潛結而不洩。觸重陰而方激。蹇貞闕而亢鳴。渙仁蟄而威怪。走空中之大聲。宣上天之至武。長厥逆而罔艾。昭不饒於野乙。隱乃懸而難道。故追戮於夷伯。雖聖色而猶變。矧備著之不失。聞百里而音同。疇衆邪之逃刑。余竦受而起敬。仰正氣之爲兵。悲魍魅之雜糅。將以警夫人寰。惕寐覺而無見。殷猶在於南山。

## 辭

### 騎龍辭

余所駟兮浦雲西。燁紅鱗兮曜奇牙。振風雨兮口齧雷。振浮霓兮出高霞。小入毫兮大彌極。幻億變之不測。余乃招而馴之兮。俛首角而弭伏。浴銀浪兮濕滂沱。刷回飈兮晞紅旭。虹棹鞅兮聳霞鞍。霧月題兮鑾鈴。嚴佩裝兮整飭。夙飛廉兮亢征。公與師之左右兮。隆又爲余先之。孔蓋集兮蔭翳。衆妃粲兮蛾眉。萬仙童之駢驚兮。颺旂常之旖旎。歛輕舉兮迅赴肅。排閭徑造乎凌兢。峨余髻兮翼余裾。漸廣庭兮齊升。仰迴噓於玉城兮。膝萬班而載興。皇申申其詔余。勿淫遨而逸遊。函靈桃而賜之兮。衆普飫乎祥休。余拜手而稱嘉兮。遂班師乎舊路。筐蜿螭而安驅兮。馥猶濕乎懷袖。



## 學颿辭

鼓瑟兮吹笛。棹驅兮漁歌。春風兮駘蕩。花柳兮華奢。拏芳洲兮宿莽。將以遺兮美人。美人兮何許。隔浦兮雲煙。願手拗兮長風。掃雲氣兮入浦涯。出白日而照之兮。遇美人兮道相思。浦雲興兮夕風死。舉余帆兮何所之。

## 七

### 七覺

玄侗子守口晦文。息視含明。叛智歸愚。背景趨冥。灰靈魄魄。侷居偶息。澹凝寂而莫開。做不華之枯木。於是白室先生。聞而嫁焉。乃泝性源。蹕文江。揚口瀾。磨舌鋒。棹虛舟於學海。策神馬於談叢。屐足藎立。順風而呼曰。蓋聞睽茲橫目。莫靈乎物。既賦其性命。又好其氣質。宜秉明而反照。合哀榮於在沒。詎襍穢以自暮。竟同歸草木之於邑。今子自賊其天。摘埴迷執。柱已膠矣。不可復易。吾將爲子。剔茅夷蓬。割藪祛障。拔眈聵而開聰。刮刺膜而逞明。出白日於長夜之天。生青春於幽谷之林。奚但伸偃起躄。沃焚拯沈而已哉。吾子其無意於是耶。玄侗子曰。雖在不敏。願承其槩。先生曰。唯唯。夫男兒生世。貴遂其志。是以超塵不羈。倜儻之士。斐英騁雄。逸越風軌。窮遊酒人。達友天子爾。其腹吞經籍。口齧義理。射窮百中。劍敵萬人。勇不逃宮勦之目。智足解疏屬之懸。恥蹈東海。義餓西山。於是惟其伸志。恣所快意。不要曲生。果於直死。高談傾天地。大言倒河岳。揚眉則八野風霽。吐氣則九霄虹直。示信以刎首。著誠以決腹。浮雲萬鍾。取捨立決。泰山鴻毛。然諾之間。於

是片言解兩國之紛。隻手釋重圍之難。喜怒則萬乘榮悴。縱橫則七雄合散。搥胸償恩。出腸酬怨。在齊而燕重。入秦則楚危。夫然後名自立。志不違。生有益。死無悔。芳流萬古。香播四海。光有耀於竹帛。迹無愧於幽明。此固任俠烈丈夫之事。子豈能從我而行之乎。玄侗子曰。全生全歸。孝子之情。近於刺客。近於盜名。非我所師。請新其說。

先生曰。莫顯功名。士所慕悅。協創共治。以安王國。是以奇符軒伏。妙契風力。胸藏六韜。頤指萬甲。於是龍舉而雲從。虎嘯而風答。委以制閭之專。遇以推轂之隆。觀其幢麾。擯榻。纛旄。戈戎。蜿蜚龍蛇。掩映日月。莘莘縱縱。魚鳥眙頡。沛艾配黎。雷電翕闐。喑啞則天地瑟縮。叱咤則鬼神辟易。爾乃侯風望氛而占星象。避牢脫奔而察地絡。三令五申。鼓耳旗目。六花八陣。神出鬼沒。東征西伐。攻無堅敵。恥洒仇復。國勢盤石。功弘績偉。勒山圖閣。或乃釋未應聘。罷釣登車。提鈞贊元。呵手摩濡。鹽梅舟楫。和鼎濟川。柱石棟樑。大廈以安。曰雨曰暘而舒慘順軌。無飢無寒而財阜民殷。於是萬物覩頌二人共貞之慶。百工和作君臣相悅之歌。其歌曰。元首明兮股肱良。庶事康兮王道昌。王道昌兮樂萬方。于是時也。恩滂狝狢。澤及喘喙。翁以腹謳。豸以夜眠。山堆萬國之帛。庭馴三譯之禽。甘露湛粟。雨淋仁獸。超德牧蹟。嘉祥迎符。休慶沓彰。春臺朝暮。壽域穹壤。比屋可封。無爲無象。斯亦將相者之能事。子豈能從我而圖之乎。玄侗子曰。不可易言。不可力致。吾斯未能。請新其說。

先生曰。天畀聰明。授我以文。龜超龍出。亦爲斯人。是以鴻師碩生。授奧傳祕。博討遐究。包略宇宙。鉤深棘幽。劌玄鏞妙。其文則師渾噩祖磬佶。出正葩。入奇法。研溫淳而覈雄剛。考謹嚴而黜浮誇。參之以漢秦。潤之以騷遙。高而畢天象。卑而盡山澤。幽而極鬼神。顯而殫人物。鏗天動地而經緯八極。懸河瀉水之不見竭。揮柔染煤而游刃恢恢。有似包<sup>6</sup>

6 · 庖

丁之手經肯綮而騷騷。其詩則協風雅。合禮樂。和韶護。夏鈞廣。其聲樂而平。其韻和而壯。其調亮而古。其操幽而曠。工以綴。其律妙以按。其曲放淫注而閑敞。辟啾啾而高遠。養性靈而陶冶。采風化而鍛鍊。語纒發而人驚。句未成而鬼泣。腸皆錦繡。唾則珠玉。高哦一場。風雨雷電。唱興酬愁兮。愈出愈奇。又似春蠶飽葉而吐絲作繭。故其才藝螟今古。名聲聒宇內。教以之文。國以之華。雖享富貴於一時。孰得失其榮枯。此亦文章之巨麗。子豈能從我而爲之乎。玄侗子曰。文墨之工。只一小技。壯夫不爲。請聞其說。

先生曰。朴日益散。世日益叔。自蠹其真。弱喪蒿目。惟彼玄虛恬泊以爲其質。清靜寬閑以爲其德。色味之賊。絕於口目。聲臭之奸。斷於鼻耳。七竅既閑。混沌不死。是知絡馬穿牛。智機發焉。肱篋擔囊。巧機出焉。作斗斛權衡。則爭盜之機所以兆也。開城池甲兵。則鬪奪之機所以著也。欲以亂治。只以亂治。況蓬蔕難處。菟狗已陳。生地獄兮議不入。死天囚兮良苦辛。周也蝶也。俱是一夢。蟲臂鼠肝。只一醜瓮。然則離朱擅視而瞽瞍所以失明。師曠專聽而聾聵所以失聰。堯與舜攻仁義而桀紂所以失性。曷若壞爾禮樂。捨爾忠敬。息警止察。棄智絕聖。于于詡詡。巔巔顛顛。睢睢盱盱。熙熙恣恣。泐於無爲。合於自然。非人而人。非天而天。於是生不往來。死無魂神。清升濁墊。反元歸根。陶以無懷氏之世。鑄以葛天氏之民。攀巢窺穴而不相迫。麟鳳龜龍兮以爲畜。斯亦莊老之至道。子豈能從我而學之乎。玄侗子曰。異端虛無。涉於誕譎。亂朱亂雅大亂真兮。獨不聞鄒賢闢之之說乎。

先生曰。跳丸莫駐。朝露催晞。紅顏歛忽。白頭無幾。寄蜉蝣於天地。空逝水之悠悠。然而服氣導引。短者可脩。頤神養性。促者可永。方其脫塵蛻入道境。氣是火。身是鼎。漉金津。鍊玉液。虛而待之孔神之物。做一純陽。告功三月。鑄龍虎而吞吐。下笙鶴於白日。於是驂紫鸞。騎白鳳。陟玉京。降紫洞。琪樹瑤花以爲草木。丹丘赤城以爲室宅。截雲霞以爲

衣裳。吸沆瀣以爲糧食。遂乃邀王母於瑤池。騎麟嘶月。揖老子於玉關。碧牛牽風。朝暘谷而暮金樞。攀北斗而入紫宮。載玉女而出閭闔。招黔羸而相與語。閱滄桑之百變。視一朝以萬古。斯亦羽化長生之至道。子豈能從我而求之乎。玄侗子曰。仙者荒唐。有聞無見。矧夜旦之必然。詎斯人之能幻。先生欺余。不爲之信也。

先生曰。西方有人。樹道之祖。三年祇園。一天花雨。萬象通靈。普化無罅爾。其法海無津浩洋汨兮。情波莫測潏盪滃兮。浮慈航。駕悲筏。出清虛。入寂滅。定凝光明。涅槃圓覺。於是灰三昧。斷六根。藤纏背。鵲巢肩。識淫躬之毀法。弔阿難於室羅。見他心之默通。仰菩提於巖隈。拯普生於無上之界。濟大衆於兜率之天。覩剎剎於浩劫。悟塵塵於大千。其爲道也不生不滅。不燒不溺。摩尼迴照。水鏡洞澈。肉髻墳頂。白毫根睫。隻履一哂。優曇照鉢。錫虎謝猛。孟龍藏毒。符妙契於蓮花。播法辭於貝葉。千梵道傷。遏盜賊於六穴。萬吼獅羅。叱夜叉於九鑰。婆皆菩薩。僧盡彌勒。舉衆歸法。轉世一佛。輪回火傳。千百億渾世界之極樂。是知蛇變質而爲師。雉幻形而作法。既呈白牛之牟牟。又馴狂象之圓圓。雖微物而亦然。況近在乎人情。乃有毗邪之杜口。摩詰之掩扇。體鑿穴之道澄。鼻垂涕之懶瓚。南岳之巔。廬山之遠。舉靈觀而妙悟。咸因地而頓覺。將流澤於萬世。舉摹天而贊曰。斯亦釋家之至道。子豈能從我而師之乎。玄侗子曰。蔥嶺之說。理近而遠。亂治亂倫。其則不遠。梁武事之。卒有臺城之亂。符秦法之。無救淝水之患。大而喪家國。小而失其身。況無父而無君。人孰子而臣之。苟先生之不遺。姑舍是而再思。雖然。辭氣之間。似有激動。依違之際。不甚蟬蛻。可撼可勵。可振拔矣。

先生曰。原夫無於無始。有於太極。兩儀既生。五行繼作。萬物之林。人乃其一。受天明命。稟我良性。一理統之。氣與形竝。四端七情。惟理與氣。理無不善。氣有澆淳。操存捨亡。造次天人。是故。聖人者立率修之先。用中于民。峻極于天。以爲三其綱。以爲五其常。爲之刑政。爲之禮

樂。爲之教。爲之法。於是家賴之以有一家。一國賴之以有一國。天下亦然。四海亦然。天以之成。地以之平。無是食則餒。無是道則死。食可餒而或生。詎離道而不斃。談未卒。玄侗子蹶然而起。呀口吐舌。遂拱束而立曰。噫哉言乎。美矣至矣。無以加矣。然則是道也。何道也。願承其詳。曰。堯得於天。傳舜者是。舜得於堯。傳禹者此。湯文武周。以傳夫子。夫子之得大成之集。經傳由而創立。禮樂賴而條列。綱常於是乎昭皙。亂賊於是乎屏息。中國所以尊。夷狄所以卑。斯人之免禽獸於今日。亦豈非夫子之賴之。曰。然則何修而至於此乎。曰。其原出天而具於一身。其修在己而不由於人。藹然一端。初非不天。物欲所蔽。背天歸人。然騎驢覓驢之不難信。伐柯求柯之不遠故。滅人而回天。豈不外乎自反。是知格物致知之功積而至於誠明。洒掃應對之節充而至於治平。是知德性雖尊。存而不問學則近於老禪。禪失於空。老失於玄。禪者。比天曰空而已矣。老者。比天曰玄而已矣。天何教哉。天何言哉。我空我玄。天而已矣。嗚呼悲夫。彼豈知天之所以爲天者乎。馮馮瀟瀟。泐泐穆穆之體。則乃天之所以尊德性也。陰陽升降而四時推移。則乃天之教化法令也。風雲霜露雨雹之作而舒慘榮枯。無不順理。則乃天之禮樂刑政也。萬物之芸芸。生化變易之無窮。則乃天之所以道問學而博之者也。然則參天竝立而則天無違者。獨非吾夫子之道歟。於是玄侗子百拜磬折而嘆曰。向者。先生徒以游俠之事。將相之業。文章雕篆之技。神仙詭誕之術。老莊之虛無。釋氏之空寂。爭施互設。紛費辭說。將以悞迷。只以滋惑。及聞聖人賢士體天之道。小而修齊其身。大而平治其國。以至雍熙於變之效。巍巍蕩蕩之業。然後褰霧覩日。汗出病已。如客得歸。如夢而寤。夕死無悔。終身誦之。從子而行。惟子之爲。

## 옮긴이

### 이관성(李灌成)

고려대 석사, 원광대 박사를 졸업하였다. 현재 한국호남학진흥원 연구원으로 있다. 역서로 《두시경전》과 《예원치언》이 있다.

호남선현문집 국역총서 ②

## 현주집 玄洲集 下-1

인쇄 2019년 8월 23일

발행 2019년 8월 28일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이종범)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 4층

전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저자 조찬한

역자 이관성

편집제작 도서출판 사람들

61487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23번길 3-2

전화 062-227-7820 팩스 062-227-7823

비매품

ISBN 978-89-98495-31-2

본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호남한국학진흥 사업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